

韓國戰爭

(下)

國防軍史研究所

發 刊 辭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이 8·15 광복을 맞은 지 5년 후인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여 3년 1개월간의 힘겨루기 끝에 1953년 7월 27일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휴전으로 접어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동서 양대 블록(Bloc)의 갈등 구조이었던 냉전(冷戰 : Cold War)체제하에서 빚어졌으며, 당초에는 북한의 남침에 의한 남북한간의 민족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때 이념(理念)을 달리하던 양대세력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비록 전쟁은 한반도에 국한되었지만 모두 20개국의 전투부대가 참전하여 국제적 성격의 전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민족은 오천년 역사를 통해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참혹한 전화(戰禍)를 입었으나 그 결과는 38도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을 뿐 전쟁전 현상으로 회귀(回歸)하여 여전히 대치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군사연구소의 전신(前身)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전쟁의 역사를 1967년부터 10여년에 걸쳐 모두 11권의 전집으로 펴내었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한국전쟁사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집은 발행부수가 제한된데다 방대한 양이어서, 보다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새 전쟁사의 편찬을 각계에서 요망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 연구소는 이미 발행한 전쟁사에 기초하되, 그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특히 최근에 전쟁 당사국들이 공개한 사료에 의거, 새 전쟁사를 전쟁발발 50주년까지 펴낼 목표하에 한국전쟁을 3권으로 구분하여 편찬하였습니다. 제1권은 전쟁의 배경을 비롯하여 전

쟁발발로부터 중공군 개입전까지, 제2권은 중공군 참전으로부터 휴전 회담 개시전까지, 제3권은 휴전회담 개막으로부터 휴전조인까지의 전쟁 상황을 서술하였습니다.

한국전쟁사 3권 가운데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전쟁』(하)에는 전쟁을 휴전화하려는 쌍방의 정책결정과 휴전회담의 개막 배경을 새로운 자료에 의거 재정립하고, 이후에도 만 2년이나 계속된 전쟁과 의제 타결과정의 우여곡절을 군사전략과 협상전략 및 이의 상관관계 규명을 통해 조명하였으며, 기간중에 전개된 작전과 전투를 전쟁의 추이와 협상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전처리와 관련하여 비무장지대의 설치와 휴전체제 출범을 상술하는 한편, 휴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방안을 모색한 ‘제네바 정치회의’까지를 다루었습니다. 불행히도 공산군측의 비협력에 의한 이 회담의 좌절로 우리는 오늘날까지 재분단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전쟁사가 휴전회담의 설전(舌戰)과 교착전선의 열전(熱戰)의 이해는 물론 국민의 통일 및 자유수호의지, 정부의 전쟁지도 및 반휴전정책,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상 등 전쟁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하는데 기여하리라고 확신하며 나아가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1997년 12월 일

國防軍史研究所長 嚴 燮 駟

일 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 안에 넣었다.
3.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하는 인명·지명·직위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1) 각 절에 처음 나올 경우에 () 안에 원어로 표기하였다.
(2) 지명의 경우, 저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만을 ()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인명·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 안에 원어를 넣었다.
4.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평이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5. 주기(註記)는 인용된 원문의 전거(典據)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 각 장 말미에 실었으며,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6. 연대는 모두 서기(西紀)로 표기하였다.
7.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 『 』 : 저술이나 서명을 표시
8. 이 책에서는 휴전회담이 개시된 1951년 7월 1일부터 1954년 7월 21일 제네바 정치회담 폐막까지의 내용을 망라하였다.
9. 이 책의 부록으로 연표·관계 자료 목록을 책 끝에 실었다.
10. 북한군과 관련한 용어는 군의 ‘정신교육지침’에 의한 북괴군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국방부의 대외 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공산군, 인민군 등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11. 1995년 발간 『한국전쟁』(상) 제1장 제2절에서 기술된 ‘조선인민군’(pp. 25~34)과 ‘인민유격대’(pp. 34~36)란 용어는 그 최초표기에서 따옴표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目 次

發刊辭

일러두기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제 1 절	平和의 摸索과 軍事狀況	1
	1. 戰爭의 經過와 平和的 解決試圖	1
	2. 戰爭 한돌(1951. 6)의 軍事狀況	3
제 2 절	戰爭前 現狀의 復元 努力	9
	1. 유엔의 ‘6·26/6·28’ 平和回復 決議	11
	2. 蘇聯의 ‘10·2’ 休戰 策略	14
	3. 유엔(停戰 3人 委員會)의 休戰 仲裁	18
	4. 유엔軍司令官(맥아더)의 休戰會談 提議	22
	5. 美·蘇의 休戰政策 決定과 幕後 接觸	25
제 3 절	開城 休戰會談의 開幕	32
	1. 雙方의 會談戰略과 基本方針	32
	2. 會談의 開幕과 協商基調	43
	3. 會談場 中立성과 互惠平等上의 葛藤	50
	4. 議題 選定 攻防과 採擇	55
제 4 절	政府의 分斷拒否政策	60

제 2 장 軍事分界線 協商과 軍事狀況의 發展

제 1 절	軍事分界線 協商의 難航	72
1.	38度線과 接觸線 論爭	72
2.	中立違反事件의 捏造와 協商決裂	81
3.	會談의 再開 努力	86
제 2 절	軍事的 壓力：陣地戰의 展開	95
1.	休戰協商 初期 雙方의 軍事戰略	95
2.	亥安盆地 彎曲部 解消	111
3.	南江으로의 進出	169
4.	漣川－鐵原 兵站線 確保	182
5.	金城地區 確保	191
제 3 절	板門店 軍事分界線 協定	207
1.	接觸線 基準原則 合意	207
2.	接觸線의 基準時期 論爭	211
3.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協定	215

제 3 장 軍事狀況의 小康과 休戰協商의 膠着

제 1 절	積極防禦 戰略과 軍事作戰의 小康	226
1.	防禦線의 塹壕化	226
2.	偵察戰의 展開	235
3.	前哨陣地 戰鬥	237
4.	共匪討伐作戰	262
5.	後方地域遮斷作戰	274

제 2 절	休戰協商的 停滯	281
	1. 停戰과 休戰細部事項의 協商	281
	2. 捕虜交換 協商	295
	3. ‘雙方關係國政府에 建議’ 協定	305
제 3 절	一括妥結 摸索	308
제 4 절	捕虜收容所 事件	313
	1. 北韓의 工作과 捕虜 暴動	313
	2. 巨濟島 捕虜收容所長의 被拉	318
제 5 절	細菌戰에 대한 舌戰	321

제 4 장 休戰協商的 決裂과 軍事作戰의 再開

제 1 절	戰爭 두 들의 軍事狀況	337
	1. 共產軍의 軍事力 增強	340
	2. 유엔軍의 戰力 再整備과 國軍의 戰力 向上	342
제 2 절	捕虜協商的 決裂	348
	1. 雙方的 戰略과 代案	348
	2. 選擇的 提案 協商과 無期休會	355
	3. 유엔의 妥結 努力	359
제 3 절	地上作戰：高地爭奪戰의 激化	367
	1. 臨津江－驛谷川 前哨陣地 爭奪戰	367
	2. 鐵原－金化地區의 決戰(Showdown 作戰)	389
	3. 金城川 부근의 決戰	401
	4. 北漢江－昭陽江 地域의 混戰	411
	5. 南江 南岸의 爭奪戰	419

제 4 절	海·空軍의 壓迫作戰	423
-------	------------	-----

제 5 장 敵의 最後攻勢와 休戰調印

제 1 절	國際情勢의 變化와 休戰兆朕	440
제 2 절	傷病捕虜의 交換	442
제 3 절	捕虜交換 協定과 反共捕虜 釋放	448
	1. 捕虜交換 協定 締結	448
	2. 反共捕虜 釋放	461
제 4 절	政府의 反休戰政策과 韓美會談	469
	1. 政府와 國民의 反休戰運動	469
	2. 韓·美 會談	478
제 5 절	最後의 軍事作戰	485
	1. 戰爭 세 들의 軍事狀況	485
	2. 中共軍 最後攻勢 1段階：前哨戰	497
	3. 中共軍 最後攻勢 2段階：6月攻勢	502
	4. 中共軍 最後攻勢 3段階：7月攻勢	534
제 6 절	休戰協定 調印	577

제 6 장 休戰處理와 南北 再分斷

제 1 절	休戰體制의 構築	597
	1. 非武裝地帶의 設置	597
	2. 休戰 管理機構의 設置	602

제 2 절	捕虜送還과 失鄉民 歸鄉	607
	1. 送還希望捕虜 交換	607
	2. 送還不願捕虜의 處理	615
	3. 失鄉民 歸鄉	623
제 3 절	政治會談의 決裂	625
	1. 유엔 總會의 措置	625
	2. 板門店 豫備會談 接觸 霧散	632
	3. 제네바 政治會談 決裂	636
제 4 절	戰爭과 平和의 岐路	648
	1. 戰爭의 性格과 戰爭被害	648
	2. 休戰과 再分斷	650
	3. 戰爭과 平和의 架橋	653
附 錄		
	1. 年 表	665
	2. 關係資料目錄	673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제 1 절 平和의 摸索과 軍事狀況

1. 戰爭의 經過와 平和的 解決試圖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에 형성된 냉전체제하에서 공산진영의 팽창정책에 따라 북한의 김일성 공산정권이 전한반도를 공산화할 목표하에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자행함으로써 발발하였다. 이에 한국이 이 침략을 격퇴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중심이 된 자유진영의 유엔군이 참전하고 뒤따라 공산진영의 소련(공군)과 중공이 북한을 지원하여 개입함으로써 이 전쟁은 남북한간의 전쟁으로부터 동서 양진영의 힘겨루기로 변모해 국제적 성격의 전쟁으로 비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충돌의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쟁발발 직후부터 유엔과 유엔군측의 주도로 수차례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평화회복 노력은 그때마다 상대의 힘에 의한 전쟁의지의 강요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은 “국지적 제한전쟁이나 또는 확대전이나”의 기로로까지 발전되어 왔다. 물론 남북한은 총력전을 폈고 동서 양진영도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을 투입하였다. 공산군측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유엔군측은 침략자를 응징하고 자유를 수호하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싸웠다.

2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이러한 결과로 전선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남하하였다가 유엔군의 반격에 의해 압록강·두만강까지 북상하였으며, 이때 중공군의 침략으로 다시 평택-삼척 선으로 남하하였다. 이와 같이 격돌하던 전선은 유엔군의 재반격 작전이 끝난 1951년 6월, 전쟁 한돌을 즈음해 38도선 부근으로 회귀하였고 그후 교착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는 1년간의 전쟁을 통해 공산군측은 그들의 힘에 의한 침략의지의 강요로써는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유엔군측으로서도 힘에 의한 침략의 응징에는 한계가 있다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사실상 주도한 미국과 소련은 각각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였고 이로써 이 지역에서 냉전구조의 균형을 파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동안 한반도는 낙동강선 이남의 부산교두보를 제외한 전국이 전장화되어 국토의 참혹한 파괴는 물론 엄청난 국력이 소모되고 쌍방간에 많은 인명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형국에서 쌍방은 전쟁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정책전환을 함으로써 교착된 전선에서 휴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유엔군측에서는 유엔을 대항하고 있는 미국이 1951년 5월 17일에 NSC 48/5로써 전쟁전 현상에서의 휴전정책을 확정한다¹⁾ 이어 공산군측에서도 소련이 중심이 되어 1951년 6월 13일 모스크바 조·중·소(朝·中·蘇) 회담에서 “38도선의 경계선을 복구하는 조건에서 휴전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²⁾

하지만 협상과 휴전의 목적과 목표는 달랐다. 유엔군측은 군사협상을 통해 일단 전쟁을 휴전화한 다음 유엔기구를 통한 정치적 수단에 의거 통일·민주·독립국가를 수립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공산군측은 휴전의 목적을, 이를 통해 침략의 패배로 인한 파괴된 군사력을 재건하고 유엔군의 철군을 유도해 한반도의 적화전략 목표를 계속 추구한다는데 두고 있었다.

결국 전쟁 한돌만에 쌍방은 비록 목표나 목적은 달랐지만 전쟁을 협상에 의해 종식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마침내 1951년 7월 10일 휴전협상이 열릴 수가 있었다.

2. 戰爭 한돌(1951. 6)의 軍事狀況

1951년 6월, 전쟁 한돌을 맞아 쌍방이 휴전정책을 수립하고 전선이 교착될 무렵, 유엔군은 서부의 한강 하구에서 장단-고랑포-연천-철원-김화-화천-서화를 거쳐 동해안의 간성에 이르는 방어선을 점령하고 있었다.³⁾ 이 선은 서부에서는 38도선 이남의 웅진과 연안반도를 포기한 반면 중부와 동부에서는 38도선 북으로 20~30km 정도 진출함으로써 휴전전략상 “38도선의 회복과 유리한 방어선의 확보”라는 2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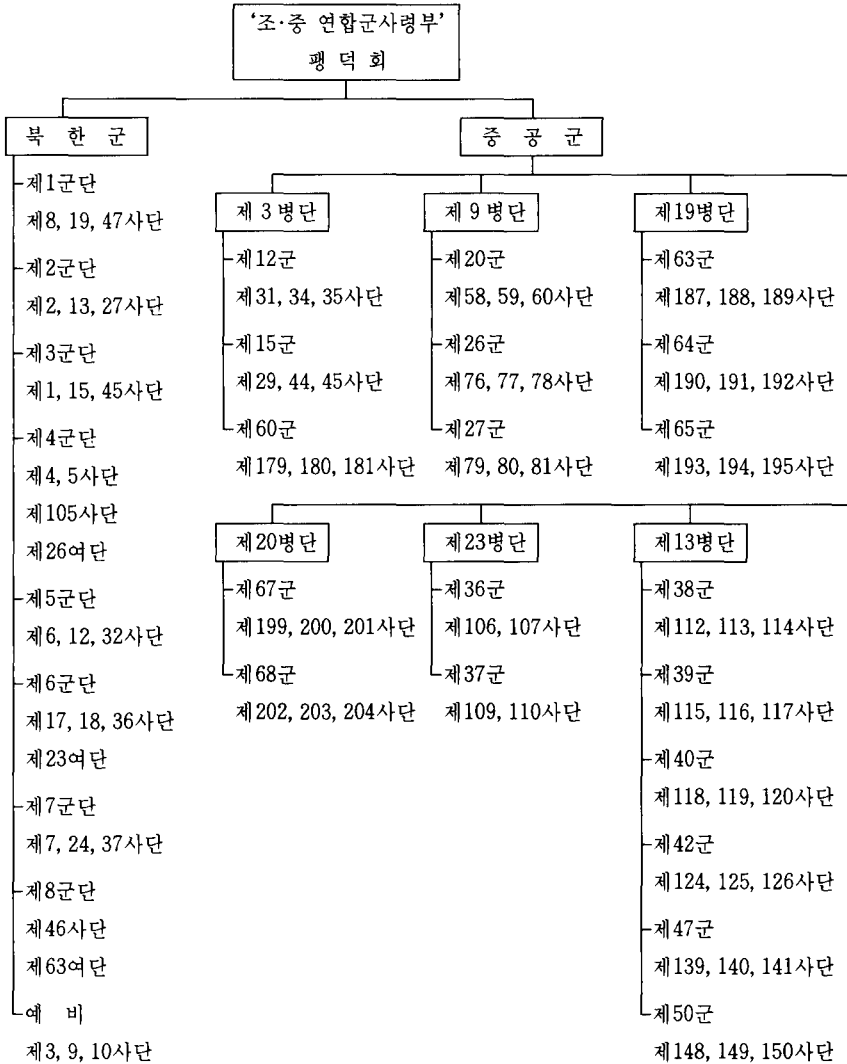
공산군은 이 선 북쪽의 예성강구-토성리-송악산-오리정-평강-등대리-애막동-서화리-사천리-동해안의 고성 남쪽 감호를 연하는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대치중이었다.⁴⁾ 당시 작전의 주도권은 재반격 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측이 확보하고 있었고 춘계공세에서 패배한 공산군은 수세에 처하였다.

이때 공산군의 전력은 ‘조·중연합군사령관’인 팽덕회(彭德懷)의 지휘하에 중공군 5개 병단(兵團) 19개 군(군단) 55개 사단과 북한군 8개 군단 27개 사단으로서 보병사단만 77개 사단 규모이었다.⁵⁾ 이들의 병력은 중공군이 77만여 명, 북한군이 34만여 명으로 도합 112만여 명이었다.⁶⁾ 공산군은 이들의 전력을 제1선(전방), 제2선(후방), 전략예비로 구분하여 운용하였다. 제1선에는 중공군 8개 군(군단)과 북한군 3개 군단 모두 11개 군단 33개 사단을 배치하여 전방방어선을 형성하였고, 제2선에는 중공군 9개 군단과 북한군 4개 군을 곡산-양덕지역과 평양, 원산을 중심으로 동서 양 해안지역에 전개하여 후방지역

4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공산군(지상군) 전투편성

1951. 6. 29.



주 : 1) 출처-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정기정보보고』(4), 1951. 7. 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항미원조전사』, 부록.

2) 중공군부대 구분: 병단은 군급, 군은 군단급 부대이다.

방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전략예비로 동북지방에 확보하였다.⁷⁾ 이 중에서 제1선에는 중공군 제19병단 제63, 64, 65군, 47군(배속)이 예성강(토성)－철원(북방)에, 제9병단 제20, 26, 27군이 평강－김화－북한강(등대리)에 배치되었고, 그 동쪽으로 고성까지는 인민군 제2, 3, 5군단이 담당하여 방어선을 편성하고 유엔군과 대치중이었다.⁸⁾ 특히 이들은 중공군 제47군에서 1개 사단과 북한군 제1군단(예성강 서측지역 방어부대)에서 1개 사단을 차출하여 별도로 개성지역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⁹⁾

이와 같이 당시 적의 지상군 전력은 중공군이 주력이었으며 특히 서부와 중부의 중요 전선은 중공군이 모두 담당하였고 북한군은 동부 전선의 일부만 담당하였다.

유엔군의 전력으로서는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대장의 작전지휘하에 국군 1개 군단 10개 사단과 미군 3개 군단 7개 사단이 지상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밖의 지상군으로서는 영국군 2개 여단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필리핀·터키·타이·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콜롬비아·에티오피아 등 14개국¹⁰⁾으로부터 파견된 대대 및 연대규모의 부대가 참전중이었으며, 이들의 전력은 도합 1개 사단규모이었다. 그리고 스웨덴·인도·덴마크·노르웨이의 4개국¹¹⁾은 병원시설을 파견하여 의료지원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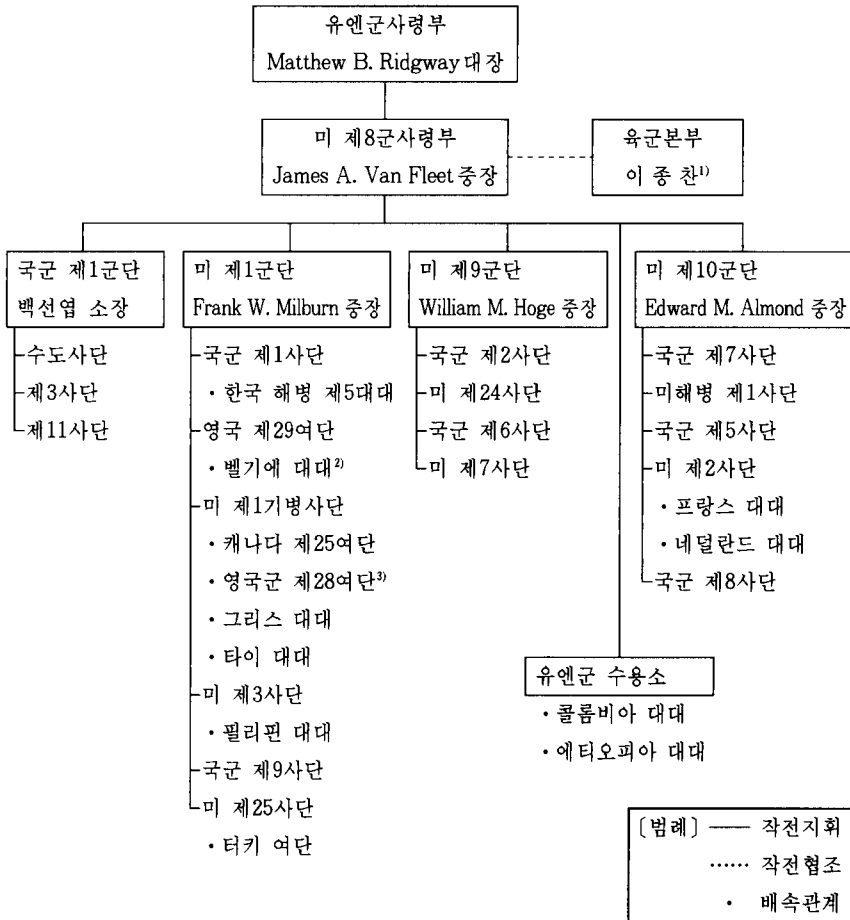
이들의 병력(지상군)은 국군이 273,000여 명, 미군이 253,000여 명, 그리고 그밖의 유엔군이 28,000여 명으로 총 554,000명이었다.¹²⁾ 이 중에서 미 제1군단이 한강하구－김화, 미 제9군단이 김화(동측)－북한강, 미 제10군단이 북한강(동측)－소양강, 국군 제1군단이 소양강(동측)－동해안(간성)지역을 담당하여 전선을 방어중이었다.

당시의 지상군 전력은 병력면에서는 공산군이 유엔군에 비해 2:1로 우세하였으며 화력면에서는 유엔군이 그 이상으로 우세하였다.

해군력에 있어서는 유엔 해군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였으며 제해권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유엔 해군은 미 제7함대를 주축으로 한국함

유엔군(지상군) 전투편성

1951.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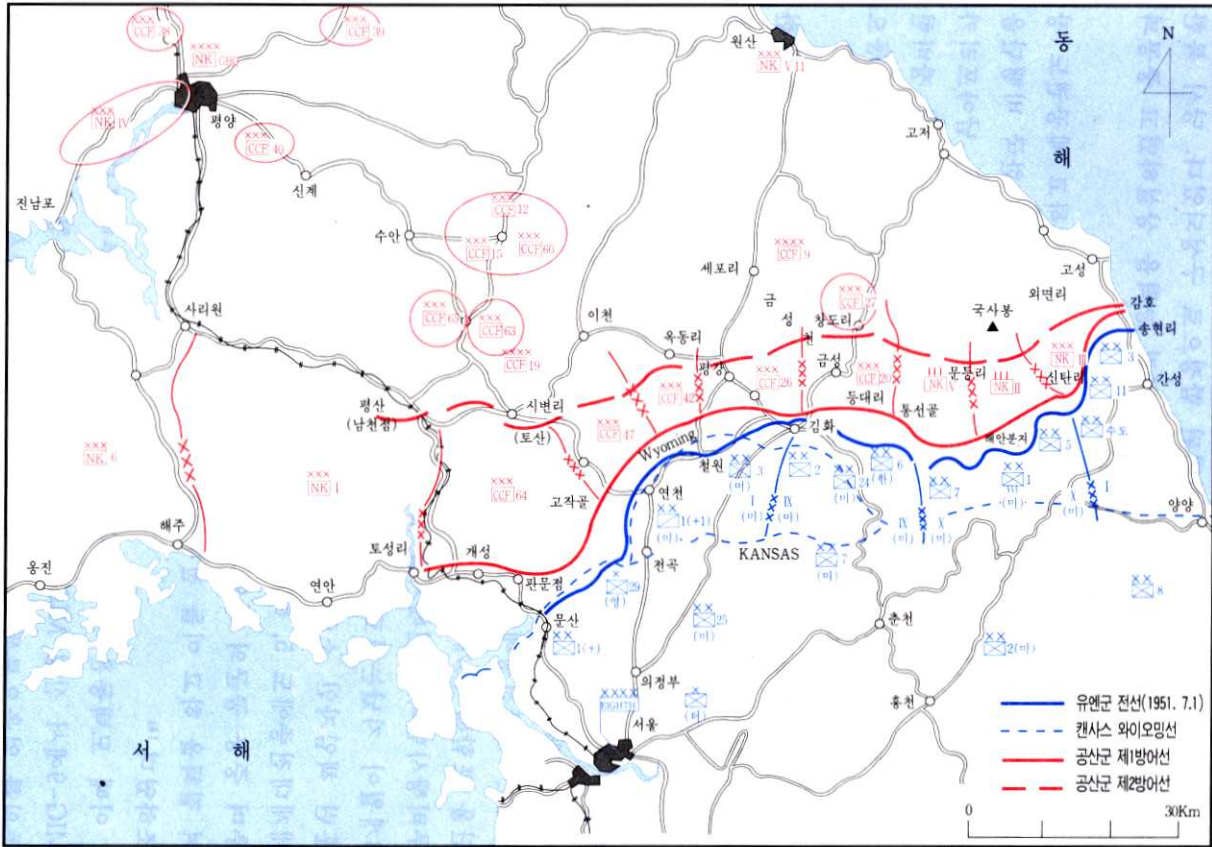


주 : 1) 1951. 7. 1. 정일권과 이종찬이 총참모장을 교대하였다.

2) 벨기에 대대는 룩셈부르크군 1개 소대(중장)를 배속받아 통합편성하여 Bel-Lux대대를 형성하였다.

3) 오스트레일리아 보병대대와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영국군 제27여단(후에 28여단으로 개칭)에 배속되어 운용되었다. 뉴질랜드 포병대대는 1951. 7. 28. 영연방사단에 편성된 후에는 영 제28연대를 직접 지원하였다.

1951년 6~7월 군사상황



제 1 권 平和의 摸索과 軍事狀況 7

주. 유엔군 전선은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에 따랐으며, 공산군 전선은 항미원조전사 작전 경과도를 따랐다.

8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대를 포함하여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타이, 콜롬비아로부터 파견된 합정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북한 해군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서 해상작전 능력을 상실하였고 중공과 소련은 해군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공군력에 있어서도 유엔 공군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제공권도 장악하고 있었다. 유엔 공군은 미 극동공군을 주력으로 한국 비행단을 포함하여 영국(항공모함),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로부터 파견된 공군부대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장비한 기종은 F-51, F-80, F-82, F-84, F-86, 그리고 B-26 및 B-29 등으로써 전투기로는 F-86이 가장 신형에 속하였다.

당시 공산군측에서는 소련 공군에 의해 훈련받은 중공 공군과 북한 공군의 전선배치를 서두르는 시점에 있었다.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할 시, 공산군측의 공군 운용은 소련 공군이 만주를 중심으로 북한 후방지역 작전에 임하면서 중공 공군을 훈련시켜 1951년 6월경에는 이들을 전선에 투입하여 지상군을 지원한다는 것이 스탈린의 방침이었다. 그래서 이 무렵(6월 중순)에 열린 조·중·소 모스크바 회담후 스탈린은 한국전쟁에 참전중인 중공군을 지원하는데는 8개 전투비행사단을 포함해 16개의 사단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모택동에게 8개 전투비행사단의 전선배치를 요청하였다.¹³⁾ 그러나 훈련에 착수한지 7~8개월이 지났는데도 투입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고 스탈린은 훈련 책임자인 소련 제64항공군단장 벨로프(Belov) 대장에게, 제2차 세계대전중에도 5, 6개월에 조종사 양성을 완료한 소련의 전례를 들추며 중공 공군의 투입과 북한 공군의 재건이 늦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질책을 하고 이들 전투비행사단의 전선배치가 급선무임을 재삼 강조하였다.¹⁴⁾

이때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북한에 전개할 전투비행사단의 기종을 MIG-9에서 신형 MIG-15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스탈린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중공 공군은 기종교체와 조종사의 기종훈련을 거

쳐 이 해 9월에 실전배치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평양 이남지역에 중공 공군이 전개할 비행장 3개소를 건설해 주도록 요청하는¹⁵⁾ 한편 공군의 한반도 투입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1년간의 격전 끝에 전쟁전과 유사한 현상에서 대치한 쌍방은 휴전에 대비해 방어선을 강화하고 부대의 재편성·재배치를 통해 전력을 재정비하면서 휴전회담의 태동 추이를 지켜보게 되었다. 유엔군측은 적의 전력 회복에는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60일간이 지상작전의 주도권과 제해권 및 제공권을 이용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믿었다.¹⁶⁾

반면 적도 전선이 교착된 6월부터 방어태세를 취하면서 지상군의 정비와 공군력의 전개를 통해 전력을 회복한 다음 8월 이후에 공세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기간중 휴전회담의 추진은 그러한 조건의 형성에 대단히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¹⁷⁾

결국 전쟁발발 1년만에 쌍방이 전전현상(戰前現狀)에서 대치하여 유엔군측은 작전의 주도권을 잡고 공세적 방어전략을 선택하였고, 수세에 처한 공산군측은 지구전에 대비한 적극적 방어전략으로 전환한 가운데, 자신들의 전략상 향후 2개월이 평화적 해결 노력에 유리하다는 상호의 판단이 맞아 떨어져 휴전협상은 그 개막을 위해 급전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¹⁸⁾

제 2 절 戰爭前 現狀의 復元 努力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은 전쟁발발후 1년간의 격전 끝에 전선이 대체로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기 시작한 1951년 6월을 전후하여 쌍방이 전쟁을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단안을 내림으로써 7월 초에 열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앞절에서 언

10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급한 것처럼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되 전쟁전 현상의 복원(復元)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와 노력은 북한의 남침직후부터 주로 유엔군측에 의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우선 전쟁 첫 해인 195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은 북한이 6월 25일에 남침을 하자 곧 그 침략을 중지하고 원상으로 철수할 것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중공군이 침략한 1950년 12월에는 유엔총회가 '정전 3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공에 대해 38도선 이남으로 침공하지 않도록 요청하면서 전전상태(戰前狀態)에서 평화를 회복시키려 노력하였다. 반면 공산군측은 1950년 10월 초 남침한 북한군이 유엔군의 반격에 의해 패주할 때 38도선에서 휴전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제의는 '외국군의 즉각 철수' 등의 조건을 달고 있어 유엔군측이 수용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 돌파를 지연시키며 이미 출병 결정을 한 중공군의 참전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에 주목적이 있었던 위장평화 노력의 책략에 불과한 것이었다.

다음 해인 1951년에 접어들어서도 유엔 '정전 3인 위원회'의 평화회복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3월 하순 유엔군이 중공군의 남침을 구축하고 38도선을 회복할 무렵 유엔군사령관(맥아더 원수)이 직접 공산군사령관에게 휴전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 제의는 모두 상대방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묵살되었다. 이는 상대방이 그때마다 힘으로써 전쟁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을 계속 추구한데 기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쌍방은 1951년 4~5월에 이른바 중공군의 춘계공세에서 개전이후 최대의 결전을 치렀으며 여기에서 피아 공히 최악의 인명손실을 입은 후에야 무력으로 승리를 얻으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무렵 미국이 주도한 미·소의 막후 접촉에서 소련이 '전쟁전 현상의 복원에서 휴전으로 평화를 회복한다'는데 호응해 옴으로써 마침내 휴전협상의 장(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유엔군측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로 전쟁발발 한들에 접어들어 개막된 휴전협상을 서술하기에 앞서, 비록 성사되지는 못하였지만 그간 평화의 회복과 관련하여 시도된 유엔군측의 노력과 공산군측의 책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어 미·소의 막후 접촉을 통해 소련이 평화적 해결방안에 호응해 올 때까지의 과정을 사실(史實)에 기초하여 재조명하였다.

1. 유엔의 ‘6·26/6·28’ 平和回復 決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자, 한국정부는 자위조치를 취하면서 곧 주한 미국대사와 유엔한국위원단에 이 사실을 통고하고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주미 장면(張勉) 대사는 미 국무부를 방문하여 긴급군사지원 요청을 하였다.

미국은 이 사태를 유엔을 통해 해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Trygve Lie)로 하여금 긴급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하였다. 리 총장은 유엔한국위원단으로부터 현지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6월 26일 04:00(현지시간 25일 14:00)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였다. 이 사회는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서를 고려하고 장(張) 대사의 호소를 직접 들은 다음 미국이 제의한 안을 토대로 ‘공산침략행위 정지요청’ 결의를 하였다.

이 결의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남북한에 대해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북한 당국은 군대를 38도선으로 즉각 철수시키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유엔회원국으로 하여금 이 결의를 집행하는데 지원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지원을 삼가도록 촉구하였다.

12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이 결의의 핵심은 북한 당국에게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38도선으로 철수를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는 평화의 유지와 파괴된 평화의 회복을 그 사명으로 하는 유엔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파괴된 한반도에서의 국제평화를 전쟁전 현상의 복원을 통해 회복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천명이었다.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40조에 의거, 평화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비군사적 강제조치(헌장 제41조) 또는 군사적 강제조치(헌장 제42조)를 권고하거나 결정하기에 앞서,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 혹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를 관계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¹⁹⁾

그러나 이 결의안의 심의와 표결에 당시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결의안이 가결은 되었으나 북한이 이를 준수할지가 의문이었다. 이에 미국은 주소(駐蘇) 미국대사 커크(Alan G. Kirk)에게 소련외상 비신스키(Andrei Y. Vyshinsky)를 방문하여 북한이 이 결의안을 따르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도록 요청하라고 긴급훈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외상은 물론 부외상 그로미코(Andrei A. Gromyko)까지 면담을 거절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소련의 회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들의 전략에 따라 북한의 남침이 전개되고 있는 차제에 ‘침략중지, 원위치로의 철수’ 등 유엔의 평화회복 노력을 따르도록 종용한다 함은 사리에 부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유엔대표는 중공의 유엔대표권 문제로 유엔에서 보이콧상태에 있었으나, 그들이 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면 침략의 옹호자가 될 것이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진퇴양난의 입장을 피하기 위하여 긴요한 한국문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의시 우려했던 대로 ‘6·26결의’는 공산측에 의해 무시되었고 북한의 침략은 계속되어 다음날(6월 27일)에는

서울이 위협을 받아 한국정부가 남쪽으로 천도하는 등 전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6·26결의'의 무시와 사태의 악화는 곧 유엔의 다음 단계 조치인 군사지원결의로 이어지게 되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은 장(張) 대사를 통하여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북한의 침략을 패배시키는데 필요한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함과 아울러 정부와 국회도 미국정부와 의회로 지원요청을 하는가 하면 유엔한국위원단에도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 유엔한국위원단은 '6·26결의'에서 부여된 임무수행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면서 “북한 당국이 침략을 중지하지 않고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아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사항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때 미국은 '6·26결의' 후 자국이 취한 제한적 군사조치에 대한 유엔의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유엔회원국에게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황에서 6월 28일 04:00(현지시간 6월 27일 14:00)에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8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북한 당국이 적대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38도선으로 철수시키지 않고 침략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엔회원국에게 “대한민국이 무력침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recommend)”하는 결의안을 가결하였다.²⁰⁾

한국전쟁 발발 당시 유엔은 동서간의 대립으로 헌장 제42조에 규정된 “평화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는 '권고(recommend)'결의를 하여 회원국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거 이 결의를 지원해 군사지원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²¹⁾ 이 결의의 주목표는 역시 침략의 격퇴(repell the armed attack), 즉 원상회복에서 평화를 회복

14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하는데 두고 있었다.

미국은 이 결의 후에도 주소 미국대사를 통하여 소련정부에 각서를 전달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남한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켜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역시 예견한 대로 거부당하였다. 소련의 이사회 불참과 비협력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에 의거 미국에 뒤이어 여러 유엔회원국의 군사·의료·물자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국군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지원 결의’에 따라 형성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낙동강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으로 이전하여 유엔군과 더불어 9월 30일에 38도선에 도달함으로써 대체로 전쟁전 현상을 회복하였다. 따라서 이때 ‘6·28결의’의 2대 목표 중 그 첫째인 ‘침략의 격퇴’라는 목표는 달성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이라는 목표는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북한이 침략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다만 북한군이 패주한 상황이어서 그들이 38도선 북쪽에서 재편성과 재건후 재침략 가능성과 개연성이 상존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6·28결의’가 목표로 한 한반도에서의 평화회복을 위하여는 적의 재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추가적 조치를 필요로 하였다.

2. 蘇聯의 ‘10·2’ 休戰 策略

1950년 9월 말 유엔군측은 국군과 유엔군이 남침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38도선에 도달하였지만 적을 완전히 격멸하지 못하였고 또 북한정권이 전쟁의지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북한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전의는 당시 맥아더 장군의 항복권고에 대한 무반응에서 확인되었고, 특히 최근 러시아가 공개한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중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소련군 파견을 요청한 서한에 의해 입증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10월 1일에 방송을 통하여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에게 “북한의 군대와 잠재적 전투능력이 불원간 전면적으로 패배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 그러므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유혈과 재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였다.²²⁾ 그러나 적은 이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적은 전적으로 계속 싸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때 유엔군측은 적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해, “적의 능력은 싸우기에는 심하게 파괴되었지만 결코 격멸되지는 않았다. 북한군의 정예부대와 주력은 섬멸되었으나 남침부대의 1/4규모가 38도선 이북으로 탈출하였으며 여기에는 고급사령부와 고급간부가 포함되었다. 또한 적군사력의 예비가 고갈되지 않았다. 남한에서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군의 확장이 38도선 북쪽에서 진행되었다.”²³⁾고 분석하였다. 이에 유엔군측은 적이 전의를 포기하지 않고 이와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군이 38도선에서 정지한다면 적에게 재편성과 전력증강의 기회만 제공할 것이며, 유엔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전쟁의 계속 즉 재침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엔군측의 이러한 분석과 판단은 김일성이, 맥아더 장군의 항복권유를 한 10월 1일에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소련군이나 국제공산군 또는 중공군의 파병을 요청한 사실과 특히 이 요청전문에서 “최후의 피한방울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짐한” 대목에서 적중하였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스탈린에게 보낸 파병요청서 중 재침준비와 전의에 관련된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²⁴⁾

…… 친애하는 스탈린 동지! 우리는 조선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와 군사교두보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 앞에 전개되는 모든 난관을 극복할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민주주의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마지막 한방울의 피까지 흘려 투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단들을 편성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결단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16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유엔군측은 당시 김일성이 소련군이나 국제공산군 또는 중공군의 파병을 요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만 ‘6·28결의’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패주한 북한군과 그들의 전쟁잠재력을 격멸하고 파괴할 군사적·정치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선 군사적으로는 ‘6·28결의’에 근거해 유엔군의 북진작전을 허용하고 이 작전에 대한 세부지침을 담은 ‘9·27훈령’을 하달하여 유엔군사령부로 하여금 북진작전계획과 명령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다음 정치적으로는 ‘9·27훈령’에 따라 전개될 군사작전의 법적근거를 공고히 함은 물론 군사작전 후에 전개될 한국의 통일에 관한 일반지침을 담은 이른바 통한(統韓) 결의안을 준비하여 9월 30일에 영국 대표가 8개국²⁵⁾ 공동발의 형식으로 유엔총회에 상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군측은 국군이 독자적 정책결정에 따라 10월 1일에 북진작전을 전개한 가운데, 10월 2일 유엔군사령부가 북진작전 명령을 하달하고 통한결의안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북진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전국(戰局)에서 공산군측이 유엔군측의 정책과 전략을 좌절시키기 위한 계책을 들고 나왔다. 10월 2일에 소련 외장비신스키는 모스크바와 북경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반도의 적대행위를 전쟁전 현상에서 종식시킨다는 미명하에 “한반도에서 즉각적인 휴전과 외국군의 철군”을 골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

- 1) 한반도에서 즉각적인 휴전
- 2) 외국군의 즉각 철수
- 3) 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 4) 동일수의 양측 대표로써 임시 남북한 통치위원회 구성
- 5) 한국과 국경을 같이하는 국가의 대표를 포함한 유엔위원단의 감시하에 선거 실시²⁶⁾

같은 날 주은래는 주중 인도대사 파니카(K. M. Panikkar)를 통하여, “만일 미국이 북한으로 진입하면 중국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라며 참전의지를 미국에 통고하였다.

소련의 제안은 외관상 그럴듯하게 보여질 수 있었으나 유엔군측 특히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기엔 문제가 많은 것이었다. 우선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 원인은 1948년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소련이 거부한데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한 선거를 주장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웠다. 다음으로 전후(戰後) 동구권에서 선거협정의 이행결과는 비공산당에 대하여는 재앙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련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함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또한 작전의 주도권을 유엔군측이 장악하고 있고 군사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제안상의 38도선에서 적대행위의 중지와 통일정부 수립전 유엔군의 철수요구는 현실과 괴리가 심하였고 남한의 인구가 많은데도 동일수의 남북공동통치위원회 구성요구나 유엔의 선거감시에 중공의 참여 조건 등은 한국이나 미국정부가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친 요구였다.²⁷⁾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소련의 제안은 유엔정치위원회(제1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고 8개국 공동제안만 채택되었다. 이는 곧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10월 7일에 표결에 부쳐져 가결되었으며, 그 핵심은 다음의 두 구절에 있다.²⁸⁾

- 전 한국에 걸쳐 안전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한국의 통일·독립·민주정부수립을 위하여 유엔의 후원하에 선거 실시를 포함한 모든 합헌적 조치를 취한다.

이는 북한지역에 대한 모든 조치, 즉 군사작전을 허용하고 이로써 전 한반도의 안전상태를 확보한 다음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통해 통일·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1950년 9월 말 북한이 맞이한 위기상황에서 소련이 38도선

18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에서 휴전을 주장하며 내놓은 계약은 실패하였다. 최근 소련이 공개한 당시의 외교문서에 의해 소련은 그 휴전안을 유엔에 제기하기에 앞서 10월 1일에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중공군을 한국전쟁에 파병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김일성도 모택동에게 중공군을 파병해 주도록 요청하였다.²⁹⁾ 모택동은 이 요청을 받고 10월 2일에 파병결정을 내렸으며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의 요식적 동의 절차까지 거쳤음이 밝혀졌다.³⁰⁾

따라서 중공의 인도 파니카 대사를 통한 ‘경고 발언’이나 소련의 ‘10·2휴전제의’는 38도선에서 진정한 평화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 또는 지연시켜 북한군의 재편성을 도모하고 중공군의 파병 준비시간을 확보한다는데 그 진의가 있었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소련의 제의는 하나의 책략이었으며 유엔(정치위원회)에서 부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3. 유엔(停戰 3人 委員會)의 休戰 仲裁

1950년 10월 초순, 유엔에서 소련의 휴전책략은 실패하고 서방 8개국 공동발의안이 ‘10·7통한결의’로 가결되자 그 이튿날 유엔군의 북진작전이 전개되었다. 유엔군은 국군과 더불어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고 10월 24일에는 한·만국경선을 목표로 한 총공세(추수감사절공세)로 전환하였다.³¹⁾ 그러나 이 공세는 다음날 불의에 중공군의 대공세(1차공세)와 충돌하여頓挫되고말았다.³²⁾ 중공군은 평양이 탈환되던 날 은밀히 압록강을 도하한 후 청천강 북쪽 적유령산맥 일대로 이동하여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기동해오던 국군과 유엔군을 기습적으로 되받아 친 것이다.

당황한 유엔군은 후퇴하여 간신히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한 후 전선부대의 전력을 증강한 다음 11월 24일을 기하여 재차 한·만국경선을

향한 최후공세(크리스마스 공세)를 취하였다.³³⁾ 그러나 또다시 다음날 중공군의 대공세(2차공세)에 부딪혀 전 전선에서 위기국면을 맞았다. 유엔군사령관은 이때서야 비로소 중공군의 조직적 대부대가 참전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유엔군은 그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한 전세에 밀려 11월 30일을 기하여 전면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 무렵 유엔군측 전쟁지도부는 중공의 참전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아 확전·철군·휴전 등의 방안을 놓고 대응책 강구를 위한 다각적 검토를 벌여왔다. 이의 일환으로 12월 4~8일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애틀리-트루먼 회담에서는 유엔의 후원하에 전쟁전 현상에서 휴전을 모색함이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공동인식을 갖게 되었다.

바로 이때인 1950년 12월 5일 유엔에서 아시아·아랍 13개국 그룹이 중공과 북한에 그들의 군대가 38도선을 넘지 않도록 제의하는 한편 쌍방에 이 선에서의 휴전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였다. 트루먼 대통령과 애틀리 수상은 이에 동의했으나 북경이나 평양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³⁴⁾

전장(戰場)에서는 유엔군이 철수를 계속하여 12월 12일부터 옛 경계선인 38도선 부근에 방어선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중공군은 평양을 점령한 후 추격의 고삐를 늦춘 채 서서히 38도선을 향하여 남진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11일에 아시아·아랍 13개국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여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개의 결의안을 총회에 제출하였다. 첫번째는 휴전을 추진할 ‘정전 3인 위원회(Cease-Fire Group of 3Persons)’ 설치안이며, 두번째는 휴전 후 극동문제를 다룰 평화회의의 신속한 개최 요구안이었다.³⁵⁾

‘정전 3인 위원회’ 설치안은 유엔총회 의장을 포함한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지체없이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며, ‘평화회의 개최’ 요구안은 한국에서 적대행위 정지와 정전경계선을 설정한 후 아시아 문제를 다룰 7개국³⁶⁾ 평화회담 개최를 요구한 내용이었다. 전자는 조건 없는 휴전을 요구하는

20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고 후자는 한국문제를 아시아의 제반 현안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하려는 중공을 휴전협상에 끌어들이려는 방책이었다.

이중 12월 14일에 개최된 총회에서 후자는 부결되고, 전자는 소련 진영의 반대와 미국의 지지하에 채택됨으로써 이날 유엔총회 의장인 이란의 엔테잠(Nasrollah Entezam)은 그 자신을 포함해 인도와 캐나다 대표로 ‘정전 3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³⁷⁾ 동 위원회는 곧 중공에 대하여 한국 전역에서 군사행동 중지와 38도선에 약 20마일의 비무장지대 설치를 골자로 하는 휴전협정의 체결을 제의하였으나, 군사적 성공에 들떠 있던 중공으로부터 12월 21일에 수신된 답변은 “중공의 참여가 없이 취해진 유엔의 모든 조치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인 거절이었으며, 이는 2일 후 23일 유엔에 수신된 주은래의 전문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그는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분계선으로서의 38도선은 유엔군의 북한영토 침범에 의해 영원히 무효가 되었다. 휴전은 아래와 같은 정치문제에 도움이 되는 처리와 분리시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⁸⁾

- 1)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의 철수
- 2)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 지역으로부터의 미군 철수
- 3) 한국문제의 한국민족에 의한 해결
- 4) 중국대표의 유엔 참가와 장개석 정부의 유엔 탈퇴
- 5) 일본과의 평화협정 준비를 위한 4대 강국 외무장관 회의 소집

중공은 이에 앞서 12월 초순에 당시 유엔본부에 머물고 있던 그들의 특별대사 오수권(吳修權)을 통해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인도·영국·스웨덴의 유엔대표가 한국전쟁의 휴전조건에 대한 중공의 입장을 타진해움에 따라 위와 같은 조건을 마련한 다음 12월 7일에 스탈린에게 보고하여 그의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는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요지의 대(對)유엔전략 지침을 받았었다.³⁹⁾

아무튼 중공의 조건은 한국문제 자체의 해결보다 이를 고리로 자신들의 현안해결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요구는 한국정부의 입장과는 물론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휴전을 바라는 미국의 입장과는 상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공군이 38도선을 넘기 전에 전쟁전 현상에서 평화를 회복하려던 유엔정전 3인 위원회의 노력은 역시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중공의 모택동은 스탈린의 지침대로 이미 12월 19일에 다음 공세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중공군은 일부 북한군을 운용해가며 1951년 1월 1일을 기하여 3차공세(신정공세)를 취하였다. 그들은 서울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나 1월 초 37도선(평택-삼척)까지 진출한 상황에서 공세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중공군도 그동안의 전투손실로 인하여 힘의 한계에 이른 것이었다.

3인 위원회는 이 무렵인 1951년 1월 11일에 새로운 평화계획을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그동안 중공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조건의 토의를 위한 장치나 기구의 설치를 포함해 아래와 같은 5단계의 과정을 밟도록 계획되었다.⁴⁰⁾

- 1) 불필요한 생명과 재산의 파괴를 막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휴전을 해야 한다.
- 2) 휴전이 되면 공식협정이나 적대행위의 소강을 이용하여 평화회복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 3) 통일·독립·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유엔총회의 결의가 수행되도록 외국군의 철수와 더불어 한국국민이 자신들의 장차 정부와 관련해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다.
- 4) 위항에 언급한 조치가 완결될 때까지 행정과 평화 및 안전보장의 유지를 위해 유엔의 원칙하에 잠정협정을 체결한다.
- 5) 휴전합의와 동시에 대만문제, 중국의 유엔대표권과 같은 극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영국·소련·중국 대표를 포함한 적절한 기구를 설치한다.

미국으로서는 이 평화안 중 마지막 항이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나, 중공이 평화안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스스로 유엔의 평화 추구 노력의 방해자라는 평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국제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이 안을 지지하기로 ‘모험’을 하였다.⁴¹⁾ 결국 이 안은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미국이 찬성하고 소련이 반대하는 가운데 신속히 승인되어 유엔사무총장을 통해 중공에 통보되었다. 중공은 1951년 1월 17일 회신을 통하여 정치적 협상이 없는 휴전이란 전적으로 수락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대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었다. 즉 한국전쟁 휴전 대가로 자신들의 유엔 가입과 대만으로부터 미군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결국 중공의 침공을 기하여 전전현상에서 휴전을 모색하려던 유엔(정전 3인 위원회)의 평화 주도 노력은 이 시점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이 좌절은 한국의 평화가 중공의 국가이익(중공의 유엔 의석확보와 대만에서 미군 철수)에 희생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중공은 이 평화계획을 반대한 무례의 대가로 1951년 2월 1일에 유엔총회에서 ‘한국전쟁의 침략자로 낙인(Naming Communist Chinese as Aggressors in Korea)’ 찍혔다.⁴²⁾

4. 유엔軍司令官(맥아더)의 休戰會談 提議

공산군측은 1950년 12월의 유엔(정전 3인 위원회)의 휴전제의를 거부하고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51년 신정 대공세를 폈으나, 37도선에서 공세력을 상실함은 물론 중공이 침략자로 낙인 찍히는 수모를 당하였다. 이때 유엔군측은 재반격을 펼쳐 도중에 중공군의 4차공세(2월공세)까지 분쇄하고 3월 15일에는 서울을 재수복하였으며 3월 말에는 재차 38도선 이남지역을 회복하였다.

바로 이 무렵 유엔을 대행해 한국전쟁을 지도하고 있던 미행정부는 한국전쟁을 원상회복에서 휴전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극동정책(NSC 48/2)을 입안하였다. 1951년 3월 15일에 입안된 이 정책은 대한정책목표를 정치와 군사로 분리하여, 정치적으로는 통일·독립국가를 추구하되 군사적으로는 침략을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무력에 의한 통일을 시도해서는 안되며 군사작전에서 38도선에 도달하면 이 선에서의 휴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은 유엔회원국으로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이들은 유엔군이 38도선을 넘기 전에 미국이 평화호소를 하도록 희망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과 우방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평화협상의 시작을 희망하면서 유엔군사령부가 전전현상에서 휴전을 기꺼이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개적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심하였다. 미국은 이 성명조안을 관계국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협조절차를 밟는 한편 3월 20일에 맥아더 장군에게도 성명발표가 곧 있을 것임을 통보하였다.⁴³⁾

그 요지는 아래와 같이 전쟁전 현상에서 평화를 위한 협상을 제의하는 것이었다.

유엔군은 최초 1950년 6월 25일에 자행된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군의 침략과 그후 유엔에 대한 중공군의 침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싸웠다. 그 침략자들은 심대한 손실을 입고 지난해 6월 최초 불법적 공격을 개시한 그 선 부근으로 구축되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1950년 6월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그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침략자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침략을 계속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서 모두가 수락할 수 있는 평화와 안전을 회복할 기초가 마련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침략의 종결을 확인하고 전투를 끝내며 또한 전투의 재발 방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

다. 그러한 협상은 외국군의 철수를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을 열 것이다.⁴⁴⁾ ……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이 준비중인 이 성명은 맥아더 장군이 3월 24일에 사전 보고도 없이 공산군측에 “야전에서 공산군 지휘관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라는 요지의 제의를 함으로써 발표가 취소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로써 우방국간에도 불신과 혼선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자신이 발표한 제안에서, “군사작전은 계획에 따라 계속한다. 우리는 지금 남한에서 실질적으로 공산군을 구축하였다.”고 전제하고, “중공의 군사력은 과대평가되었으며”, “한국전쟁에 참전 이래 여러 분야에서 군사적 약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유엔군의 활동에는 제한이 가해지고 상대적으로 중공에게는 이득이 주어진 군사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무력으로써 한국을 정복할 능력이 없음이 증명되었다.”며 아래와 같이 계속하였다.⁴⁵⁾

그러므로 유엔이 전쟁을 한반도에 국한시키려는 참을성 있는 노력을 포기하고 중공 연안이나 내륙으로 군사작전을 확대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공은 군사적인 붕괴의 위험 속으로 빠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들을 받아들여 한국문제를 이와는 관련이 없는 대만과 중공의 유엔의석과 같은 문제들로 부담을 짐이 없이 문제 자체의 시비곡직(是非曲直)으로 푼다면 이 문제의 해결에 극복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한국과 한국국민은 이미 너무도 심대한 파괴를 당하였지만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으뜸가는 관심사이다. 전투를 통해 해결되는 군사적 분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는 본질상 정치에 좌우되므로 외교적 영역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만 나는 군사지휘관의 권한 범위내에서 한국에서 유엔의 정치적 목적을 모든 나라가 공감을 하고 더이상 피를 흘림이 없이

반드시 실현할 군사적 수단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언제든지 공산군 지휘관과 회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맥아더 장군의 제의는 중공의 군사력을 조롱하고 중공에 대해 직접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공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떤 보장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적의 호응을 얻지 못함으로써 맥아더 제의는 제의로써 끝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트루먼 대통령의 휴전주도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이를 발표함에 있어 정치적 연루성을 자각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 범위내에서의 행동으로 간주한 듯, 이것이 문제가 된데 대하여 그의 회고록에 “그 성명은 전구사령부의 지역 방송에 나간 커뮤니케였다”고 언급하고, “전에도 두 번이나 적의 지휘관에게 항복을 권유한 바 있었으나 워싱턴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⁴⁶⁾ 그러나 이 사건은 대통령의 분노를 샀고 그의 해임에 결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5. 美·蘇의 休戰政策 決定과 幕後 接觸

맥아더 장군의 ‘3·24성명’으로 미국이 추진하려던 평화노력은 잠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후 맥아더 장군은 1951년 4월 11일에 해임되고 리지웨이 장군이 신임 유엔군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이 무렵 전선에서는 중공군의 춘계공세(제5차공세)를 맞아 아군은 서울 북한산-용문산-속사리까지 물러나며 또 한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이들의 인해전술을 화력세례로써 격파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쟁취하여 5월 말경에는 세번째로 38도선을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이 동안 새 극동정책을 발전시켜 지난 3월 15일에 성안한

NSC 48/2를 5월 17일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NSC 48/5로 확정되었다. 새 정책의 핵심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당면목표와 최종목표로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하되, 당면목표인 전쟁의 해결은 전쟁전 현상에서 휴전으로 해결하고, 최종목표인 통일국가 수립은 유엔기구를 통하여 계속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⁴⁷⁾

- a. 최종목표로서 한반도에 통일·독립·민주국가 수립이라는 문제는 군사적 수단과는 별도로 정치적 수단에 의거 그 해결방안을 계속 추구한다. 당면목표로서 전쟁의 해결은 유엔기구를 통하여 추구하되 미국이 수락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적절한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한다.
- (2) 행정적이나 군사적 양자의 방위를 최대한 용이하게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38도선 남쪽이 아닌 곳에 위치한 북쪽 경계선의 이남에 대해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수립한다.
- (3)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 (4) 북한의 새로운 침략을 저지하거나 격퇴할 수 있도록 국군의 충분한 건설을 허용한다.

또한 상기 당면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침략자에 대응하여 응징을 가한다.

- b. 상기 항과 유엔군 및 미군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한국에서의 적대행위가 소련과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하고, 특히 주요 동맹국의 지원을 얻지 못한 채 한국의 전쟁이 중공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5·17정책' 결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은 1951년 6월 1일에 유엔군의 부대안전과 더불어 한국전쟁을 최소한 상기 a항 (1)~(4)의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북한

군과 중공군의 인명과 물자에 최대의 손실을 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⁴⁸⁾

이에 따라 지상작전은 화전저수지를 동서로 연한 일반선, 즉 캔사스-와이오밍 선으로 제한되었다. 해·공군작전은 한국의 지리적 경계선과 그 인접해역에서 필요한 작전을 실시하도록 허용되었으나, 한·만, 한·소 국경선 부근에는 12마일까지만 접근이 허용되었다(이 지시는 후에 지상작전에 있어서는 적 후방지역에 대한 게릴라작전, 제한된 상륙작전, 그리고 공수작전 실시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1951년 7월 10일에 확정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 후 지금까지 유엔이 추진한 전쟁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으나, 새 극동정책(NSC 48/5)의 확정을 계기로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스스로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여 소련 및 중공과 막후 접촉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5월중에 미국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소련 관리들과 접촉하였고, 홍콩에서 중공정부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스웨덴 관리를 통해 소련정부의 의사를 타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모두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후 애치슨 국무장관이 선임한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이 소련의 부외상이며 유엔대표인 말리크(Jacob Malik)와 가진 막후 접촉에서 단서를 잡게 되었다. 케난이 1951년 5월 31일과 6월 5일에 말리크를 만나 한국전쟁의 휴전 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소련의 입장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말리크가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⁴⁹⁾

소련은 평화를 원하며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그것도 가장 빠른 기간내에 해결을—원한다. 그러나 소련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므로 정전문제의 어떤 협상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그는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및 중공과 접촉하면 될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⁵⁰⁾ 이는 소련이 전쟁의 조기 해결을 바라

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북한·중공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⁵¹⁾ 실제에 있어 이 무렵 스탈린은 중공군이 춘계공세에서 패배하자 군사작전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며, 군사작전보다 외교적 영역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는 시점에 도래하였음을 알고 휴전방책을 수립중이었다. 스탈린은 이러한 정세판단에 따라 외상 비신스키(Andrei Y. Vyshinsky)에게 평화제안을 주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그 자신이 모택동 및 김일성과 협의를 통해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스탈린은 1951년 6월 13~14일에 모스크바에서 북한의 김일성, 중공의 고강과 회담을 갖고 휴전문제, 중공군에 소련군지원문제, 무기공급 문제를 협의하였다. 특히 휴전문제와 관련하여 모택동은 고강과 김일성 앞으로 전문을 보내어 자신의 복안을 스탈린에게 전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휴전회담은 중국과 조선이 제기하는 것보다 적들이 제기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스탈린과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휴전은 38도선에서 경계선을 복구하며 북조선과 남조선에 중립지대를 배당하는 조건에서 성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전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⁵²⁾

고강 동지와 김일성 동지에게

6월 13일부 당신들의 전보를 받았음.

휴전회담 문제를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북한과 중공이 오늘 그런 문제 자체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 못된다고 생각함. 왜냐 하면 향후 2개월 동안 북한 군대와 중공지원 부대가 방어태세를 취해야 할 것이기 때문임.

다음과 같이 하면 더 좋을 것임.

- 1) 적들이 제기할 때를 기다리는 것.
- 2) 소련정부가 케난의 성명에 의거하여 미국정부에 정전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상의 두 방법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즉 한편으로 소련 정부가 문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들이 정전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북한과 중공이 이에 동의할 것임.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데 대하여 당신들의 견해를 알려 주기를 바라며 필리포프 동지와 협의하기를 바람.

- 3) 정전을 위한 조건은 38선에서 경계선을 복구하며 북조선과 남조선으로부터 크지 않은 지대를 중립지대로 배당하는 것임. 중립지대를 북조선측으로부터만 배당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 중공의 유엔 가입 문제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왜냐 하면 중공은, 유엔이 실제로 침략의 도구가 되었으므로, 현재 유엔 가입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할 수 있기 때문임.

대만의 문제를 조건부로 내세워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함. 우리는 그들과 흥정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 만약 미국이 대만문제가 따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주장하면 우리는 그때에 적당한 양보를 할 것임.

평화위업을 위하여 한국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고 필리포프 동지에게 제기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주기를 바람.

- 4) 우리는 ‘등화’에게 그리고 13군사령부 지휘부에 대해 즉시 전선으로 돌아가고 현 전선을 확실히 지킬 것을 명령하였음. 6월과 7월에 준비사업이 힘있게 진행될 것임. 8월에는 보다 큰 작전을 실시할 것임. 적들이 우리들의 후방에 대규모 공수부대를 투입시키지 않으면 우리들의 상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임. 적들이 한국으로 새로운 증원군을 보내지 않고 공수부대를 상륙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8월에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임.
- 5) 지금은 우리들의 항공대를 전선으로 이송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모택동

1951년 6월 13일

특히 이 전문에서 모택동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전략과 연계하여 주장해온 그들의 유엔대표권과 대만문제 해결방식에 있어 양보를 시사함과 아울러 ‘조선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스탈린에게 전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 부분은 주목을 요하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저해해온 족쇄를 풀어버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이러한 모택동의 의견을 고려하여 북·중·소 간 휴전협상 전략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1951년 6월 23일(극동시간 6월 24일)에 유엔이 후원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가 행한 평화의 가치(Price of Peace)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표출되었다.

이 연설 중 그는 결론 부분에서 한국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⁵³⁾

소련은 평화를 공고히 하고 세계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소련인민은 평화의 조건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소련인민은 나아가 현재의 가장 예민한 문제—한국의 무력충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당사자들이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소련인민은 우선 첫 단계로서 교전 당사국이 38도선으로부터 상호철군을 하도록 정전과 휴전에 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연설 다음날인 6월 25일에는 중공의 「인민일보」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기사를 실었으며, 26일에는 소련의 「프라우다」가 연설 전문 게재와 아울러 “소련인민은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말리크 유엔대표의 휴전제안은 전세계 민주적인 사람들은 물론 보수적이고 부르주아적 신문에서까지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지지기사를 실었다. 한편 북한은 6월 27일에 “조선인민은 바야흐로 조선인민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중국인민과 협력하여 국방군과 미군을 38도

선 이남으로 격퇴시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반응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국군과 유엔군을 남해안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종전의 주장에서 후퇴하여 현 상황상 일시 38도선의 확보로 전술적 수정을 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이처럼 1951년 6월에 접어들어 케난과의 막후 접촉을 통하여 미국의 휴전정책과 휴전협상 제의 의도를 간파하자⁵⁴⁾ 북·중과의 협의를 거쳐 원상회복에서의 휴전을 추구하기로 전략을 결정한 후, 말리크의 연설에 담아 유엔의 소리를 이용하여 발표하였다. 소련은 이를 자국 언론을 통해 한국전쟁의 휴전제의로 규정하고 북·중의 매체까지 동원하여 선전을 극대화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서방에 대해 기선을 제하려 하였다. 이는 종전까지의 그들의 침략정책을 호도하고 자신들을 세계평화의 주도자로 부각시키려는 고도의 책략이었다.

소련은 그동안 북한군과 중공군을 차례로 투입하여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공산화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음은 물론 그 결과가 전쟁전 현상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황이 불리하게 되자 원상에서의 휴전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소련은 북한군과 중공군의 침략으로 전장의 주도권을 공산군측이 가지고 있던 남침 초기, 중공군 개입시, 춘계 공세전에 유엔군측이 제안한 한국의 평화를 위한 휴전협상을 모두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에서 휴전회담이 마치 말리크의 연설, 즉 소련의 휴전제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조명하고 기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사실은 개전초부터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휴전을 제의한 측은 유엔군측이었으며 공산군측은 이를 번번이 거부하고 힘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를 계속 추구하다가 춘계공세의 대결전에서 이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깨닫고 전국(戰局)이 보다 불리하게 반전될 것을 두려워 전전현상(戰前現狀)만 확보할 수 있다면 휴전을 수용하기로 서둘러 정책전환을 하였다. 이에 따라 소련은 당시 미국이 주도한 막후 접촉에서 ‘한국전쟁의 휴전에 의한 해결방안’에 호응해

왔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당시 유엔사무총장이었던 트리그브 리는 그의 회고록에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⁵⁵⁾

그때 공산군은 [유엔군의]심대한 압박을 받아 엄청난 인명과 물자의 손실을 입고 남한에서 후퇴중이었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로 말리크가 6월 23일에 라디오 방송으로 쌍방간에 정전과 휴전을 위한 토의의 시작을 제기한 것 같다.

제 3 절 開城 休戰會談의 開幕

1. 雙方의 會談戰略과 基本方針

(1) 유엔軍側의 協商 基本方針 및 會談提議

유엔군측은 미국정부가 한국문제 해결정책의 당면목표로서 전쟁전 현상에서 휴전으로 평화를 회복한다는 방침을 확정짓고 막후 접촉을 통해 소련의 의도를 타진하던 차, 말리크가 ‘평화의 가치’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으로 휴전협상에 대해 언급하자, 그 발언의 진의를 의심스러워 하였다. 이에 미국정부는 이 연설의 내용이 소련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소련의 진의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주소(駐蘇) 미국대사 커크(Alan G. Kirk)로 하여금 소련정부와 접촉하여 이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커크는 1951년 6월 27일에 소련 외무차관 그로미코(Andrei A. Gromyko)를 방문하여 말리크 연설과 관련한 아래 요지의 5개 항에 걸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⁵⁶⁾

- 1) 커 크 : 말리크가 ‘소련인민은 ……을 믿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소련정부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소련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로미코 : (질문에 대한 직접적 답변은 피하면서) 말리크의 발언은 표현된 그대로이다. 그는 소련정부의 공식 유엔대표이다. 소련정부의 견해는 오래전에 이미 전달되었다. 그러나 1950년 영국정부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소련정부에 접근했을 때 소련이 취한 호의적 조치를 상기해 보면 그후 소련의 이런 조치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적극적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 2) 커 크 : 정전과 휴전이라는 구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두 개념 사이에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지? 이것이 단계적으로 평화를 모색하는 것인지? 전쟁 재발 방지, 예로써 정전과 휴전 감시와 같은 규정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로미코 : 정전은 잠정적 군사휴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정전을 포함해 잠정적 군사휴전은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양 진영간의 합의의 결과로 이루어야 한다. 휴전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번째 단계이다. 휴전에 관한 잠정적 협정은 군사적 문제에 국한해야 하며 정치 및 영토문제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전쟁 재발 방지 보장은 휴전협정 조문작성시 쌍방이 토의할 주제이다.

- 3) 커 크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을 찾는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련정부가 어떤 구체적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로미코 : 군사휴전 합의가 바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가 아닌가? 무엇인지는 이미 분명하다. 소련은 어떤 제안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한국전쟁의 쌍방에 달려 있으며 정치 및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4) 커 크 : 소련정부는 말리크의 연설이 북경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하는지? 만일 모르고 있다면 북경정부의

34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로미코 : 우리는 그에 대해 알지 못하며 미국정부가 그에 관해 알고 싶다면 중국정부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커 크 : 회담에 교전 당사국의 누가 참가해야 하나?

그로미코 : 한쪽은 미국과 여타국가 연합군 대표와 남한군대의 대표가, 다른 한쪽은 북한군 및 중공군 대표가 참석해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말리크의 연설 내용이 소련의 공식 입장을 표명임을 확인함은 물론,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소련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무렵 유엔사무총장 트리그 브 리가 이미 6월 1일에 “대략 38도선에 연한 휴전은 만일 그것이 그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한다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6월과 7월의 결의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성명을 발표⁵⁷⁾한데 이어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한 유엔대사들도 한결같이 협상에 찬성하였다.⁵⁸⁾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유엔의 분위기와 소련의 의도를 고려하여 군사적 수준에서 회담을 갖되, 유엔군사령관이 공산군사령관에게 회담 제의를 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그 제의 문안을 작성하여 6월 29일에 유엔군사령관에게 송부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이를 1951년 6월 30일 08:00에 라디오 메시지로 발표하면서 공산군사령관에게 원산항에 정박중인 덴마크 병원선에서 휴전회담을 갖자고 제의하였다.⁵⁹⁾

공산군사령관에게

유엔군사령관으로서 나는 다음 사항을 당신에게 전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

나는 당신이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모든 무력행동을 중지하게 할 휴전에 대한 토의를 하고, 이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보장을 하기 위하여 회담을 원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한 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으로부터 접수하는 대로, 우리측 대표를 지명할 준비를 할 것이다. 나는 그때, 이 대표가 당신의 대표와 만날 수 있는 날짜도 제의할 것이다. 나는 그러한 회의가 원산항에 정박중인 덴마크 병원선 위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제의한다.

유엔군총사령관, 미육군대장
M. B. 리지웨이

미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휴전회담 제의 지시를 하면서 유엔군사령관이 적과의 회담을 하는 동안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반지침을 하달하였다. 이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 몇 개월 동안 조심스럽게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⁶⁰⁾

일 반 지 침

- a. 이 휴전에서 우리의 주된 군사적 관심은 NSC 48/5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전투의 재발방지 보장, 그리고 유엔군의 안전확보에 있다.
- b. 우리는 소련과 중공이 합리적이며 수락할 수 있는 휴전장치의 결정에 진지한지, 혹은 그들이 한국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휴전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우리가 수락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c. 당신과 적의 사령관과의 협상은 군사적 문제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당신은 특히 한국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에 관한 토의나,

타이완이나 중국의 유엔 의석과 같이 한국문제와 관련이 없는 문제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문제는 정부급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 합동참모본부는 리지웨이 장군에게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공산주의자들과의 회담은 대단히 어려우므로 인내가 필요하고, 공산군측이 유엔군측의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마저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담을 파기해서는 안되며, 유엔군사령부의 신의를 의문시하게 되는 국제적 여론을 유발할 어떤 속임수를 쓰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는 등의 유의사항도 전달하였다.

아울러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측이 관철해야 할 기본입장(최저 양보선)과 주장해야 할 세부지침도 하달하였다.⁶¹⁾ 이것은 전날에 하달된 일반지침과 함께 유엔군측 대표단이 따라야 할 협상 기본방침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후일 휴전협정의 기본정신과 내용이 되었다.

유엔군측의 협상 기본입장(최저 양보선)

휴전협정은 :

- a. 한국과 한국내의 군사문제에 엄격히 국한되어야 하고, 어떤 정치나 영토적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안된다.
- b. 다른 협정에 의해 대치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 c. 관계되는 지휘관들에게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모든 군사작전을 중지하기 위한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의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모든 지상군은 진지에 잔류하든가 혹은 후방지역으로 철수하도록 요구하되, 비무장지대의 전방에 있는 부대는 반드시 그 후방지역 진지로 이동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d. 유엔군사령관과 공산군사령관에 의해 임명된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가 휴전협정 조항의 시행과 준수에 관한

감시를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 위원회와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감시소조는 자유롭게 제한없이 전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가능한 지원과 협력이 주어져야 한다.

- e. 관계 지휘관들에게 휴전 기간 중 공군, 지상군 또는 해군 부대나 인원의 증강을 목적으로 한 군사력의 한국으로의 도입을 중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1:1 기준으로 부대나 개인의 교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f. 관계 지휘관들에게 휴전이 발효될 당시에 한국에 있는 전쟁장비와 물자의 수준을 증강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러한 장비와 물자는 건강과 복지유지에 필요한 보급품과 그 위원회에 의거 인가될 수도 있는 보급품을 포함하지는 않으며, 또 그러한 보급품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차량, 선박, 항공기도 포함하지 않는다.

유엔군측의 협상 세부지침

- a. 군사정전위원회는 게릴라를 포함하여 모든 군대가 휴전조항, 조건 및 세부사항을 합의한 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유엔군사령관과 주한공산군사령관에 의해 지명된 동수의 유능한 보좌역을 가지되, 그 수는 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 b. 휴전협정은 그 위원회가 조직되고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된 후에 발효되어야 한다.
- c. 비무장지대는 20마일 폭은 되어야 하며, 이는 휴전협정이 합의될 당시의 쌍방의 진지에 기초를 두고, 유엔군사령관과 공산군사령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협상 목적으로 당신은 최초 공산군이 전 전선에서 20마일 또는 그 이상 철수해야 된다고 요

구해야 한다. 만일, 거래 목적상 유엔군도 어느 정도의 철수에 동의해야 함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현재의 강력한 진지와 임무 수행능력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그리고 당신은 다만 휴전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용진과 연안반도가 계속 공산군측의 통제하에 놓이는 것에 동의해도 좋다.

... 중략 ...

- d. 휴전협정은 한국의 모든 적대적인 지상군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 통제하의 지역을 존중해야 한다.
- e. 휴전협정은 모든 적대적인 해군부대에 적용되어야 한다. 해군부대들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 인접한 수역을 존중해야 한다.
- f. 휴전협정은 모든 적대적인 공군부대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대는 비무장지대 상공과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 상공의 공역을 존중해야 한다.
- g. 군사정전위원회에 의거 승인된 특수임무에 필요한 차량, 해군 단위 부대 및 항공기는 상기 d항, e항 및 f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h. 전쟁포로는 1:1기준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포로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국제적십자사의 대표는 모든 포로수용소를 방문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허가되어야 한다.
- i. 게릴라를 포함하여 최초 비무장지대 전방에 있던 모든 군 부대는 뒤로 물러나 그들의 주력부대 지역으로 철수해야 한다.

기본방침 중 주목을 요하는 사항의 하나는 용진반도와 연안지역이 휴전목적이라면 공산군 통제하에 놓이는 것에 동의해도 좋다고 용인한 점이다. 이는 전쟁전 현상에서 평화를 회복할 경우, 군사상 이 지

역이 방어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취약하여 방어선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군측은 서부전선에서의 영토의 손실을 동부전선에서 보상할 만큼 복상해 있었고 휴전시 경계선은 38도선이 아니라 쌍방의 접촉선으로 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성을 포함한 용진·연안지역의 포기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지상·해상·공중 방위에 직접적 위협요인이 되었고, 후일 휴전상태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무기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그 위협은 더욱더 가중되었다.

(2) 共産軍側의 協商 基本戰略과 會談提議 受諾

유엔군측이 휴전방침을 구체화하고 회담을 제의할 무렵 공산군측에서도 협상전략 수립에 분주하였다.

우선 김일성은 1951년 6월 29일에 전일의 UPI통신-리지웨이 장군이 국방부의 명령을 받는 즉시 북한군 지도자들과의 회담에 들어갈 것이며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통보할 것이다-에 근거하여, 만일 리지웨이 장군이 회담을 갖기를 원할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모택동에게 요청하였다.

김일성의 통보대로 다음날인 6월 30일에 리지웨이 장군이 휴전회담을 제의하자,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회담 개시일을 7월 15일, 회담장소를 개성으로 통보하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김일성에게 직접 회담지침을 줄 것을 요망하면서 검토를 요청하였다.⁶²⁾

모택동의 전문을 접수한 스탈린은 같은 날(6월 30일), “회담은 모택동이 주도할 것이며 김일성에게도 모택동이 직접 연락하라. 소련은 다만 조언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응신하였다. 무엇보다 스탈린은 이 전문에서 모택동에게 회담장소를 개성으로 수정 요구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낼 응신문안까지 작성하여 회신하였다.⁶³⁾

모택동에게 전달바람.

휴전에 관한 귀하의 전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양측 대표가 만나 휴전협상을 하자는 리지웨이의 제안에 대해 즉시 라디오를 통해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보는 북한인민군 사령관과 중국의용군 사령관, 즉 김일성 동지와 팽덕회 동지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만일 중공의용군 사령관의 서명이 없을 경우, 미국은 북한측만의 서명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산지역에 있는 덴마크의 병원선을 회담장소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반대하여야 합니다. 회담이 38선상의 개성에서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하가 휴전문제를 주도할 수 있으며 미국은 회담장소전에 대하여 양보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지웨이에게 하기 내용으로 회신하기 바랍니다.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에게

휴전에 관한 6월 28일자 귀하의 성명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는 군사행동 중지와 휴전에 관한 협상을 위하여 귀측의 대표들과 만나는데에 동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는 협상장소로 개성을 제시합니다. 귀측이 동의하신다면 우리측 대표들은 귀측의 대표들과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회담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민군 총사령관 김 일 성
중국의용군 사 령 관 팽 덕 회

귀하는 귀하의 전문에서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휴전협상을 지도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필요한 일입니다. 지도는 귀하, 즉 모택동 동지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개별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뿐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김일성과 직접적인 연락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연락은 귀하가 취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포프 [스탈린]

1951. 6. 30.

다음날인 7월 1일에는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자신의 대표단 임명안과 대표단장이 회담에서 언급할 휴전조건에 관하여 소련대사관을 통해 통보하고 이에 대한 스탈린의 조언을 구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문을 발송하였다.⁶⁴⁾

쉬테멘코 동지에게

보고드립니다.

- 1) 협상을 위한 회담에 관해 보내어질 김일성의 회신문안을 외무성을 통해 받았음. 회신은 1951년 7월 2일 또는 3일에 송부되어야 할 것 같음. 모스크바의 긴급 동의를 필요함.
 - 2) 북한측 대표는 인민군 총참모장 남일, 외무성 차관 박정주와 중국의용군 대표 등 3명으로 구성되었음.
 - 3) 남일은 하기 사항에 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됨.
 - a) 전투행위와 사격 중지 시간
 - b) 군대의 38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5~10km 이상 철수
 - c) 사격 중지와 동시에 38선상의 항공기 비행 중지
 - d) 한국지역으로부터의 해군 철수와 봉쇄 해제
 - e) 한국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두달 동안에 실시
 - f) 전쟁포로 교환 및 피랍된 시민의 귀환
- 김일성 동지는 필리포프 동지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음. 지시바람.

라주바예프

1951. 7. 1.

이의 보고를 받은 스탈린은 “모택동이 동의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김일성에게 북한정부는 중공정부와 의논하여 중공과 합동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와 같이 공산군측은 스탈린과 모택동 및 김일성 간 전문교환을 통해 휴전회담 전략에 합의를 본 다음 7월 1일에 북경방송을 통해 리지웨이 장군의 제의를 수락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⁶⁵⁾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에게

평화회담에 관한 6월 30일자 귀하의 성명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는 군사행동 중지와 평화회담을 위하여 귀측의 대표들과 만나는데 동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는 협상장소로서 38도선상의 개성을 제시합니다. 귀측이 동의한다면 우리측 대표들은 귀측의 대표들과 1951년 7월 10일과 15일 사이에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북한인민군 사령관 김 일 성
중국의용군 사령관 팽 덕 회

이는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전문(1951. 6. 30)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 회신문이 방송되기까지 과정에서 보듯이, 공산군측이 휴전회담에 임하는 것도 모두 스탈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스탈린은 협상 주관 책임을 모택동에게 부여하고 그 자신은 막후에서 지도·통제역을 맡고 있었다. 이는 남침전쟁 계획과 중공군 투입과정에서 스탈린이 취한 자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즉 스탈린은 남침전쟁 계획을 주도하고 전쟁을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전회담 전략도 주도하였다.

2. 會談의 開幕과 協商基調

(1) 豫備會談과 安全措置

1951년 6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의 휴전회담 제의에 공산군측이 김일성·팽덕희 공동명의로 수락을 표명함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은 7월 3일에 예비회담을 열 것을 제의하였으며, 공산군측 사령관(김일성·팽덕희)이 다음날 이에 동의함으로써 예비회담을 갖게 되었다.

예비회담은 7월 8일 개성 광문동(光文洞)의 한 민가에서 쌍방 공히 중령~대령급 연락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⁶⁶⁾ 연락장교단은 먼저 본회담 대표들의 명단을 교환하고 회담 일시·장소·안전조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합의사항

- 제1회 본회담 일시 : 1951년 7월 10일 11:00
- 회담장소 : 개성 고려동(高麗洞) 내봉장(來鳳莊)
- 도로경비 및 보수책임 : 공산군측, 개성-판문점
유엔군측, 문산-판문점
- 안전조치 : 공산군측 회담요원 수송차량, 평양-사리원-개성 도로 이동간 백기 부착
유엔군측 회담요원 수송차량, 문산-판문점-개성 도로 이동간 백기 부착
유엔군측 회담대표의 수행요원, 백색완장 착용

이에 앞서 7월 6일에 리지웨이 장군은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공산군측 대표가 개성에 도착하는 시간부터 개성을 반경 2.5마일 범위로

44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중립지대로 간주한다고 공산군측에 통보함으로써 회담간 개성이 공격 대상에서 면제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예비회담에서 도로경비책임구역 협의시 유엔군측은 당초 개성 남대문 로터리를 양측의 경계점으로 주장하였으나 공산군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쌍방 접촉선 부근의 판문점으로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당시 개성은 피아 어느 쪽도 점령하지 않은 전선 사이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접촉선이 대체로 판문점 부근이란 점을 고려할 때, 공산군측 진지로부터 근접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통보 또는 합의된 안전조치의 결과로 개성은 사실상 공산군측의 영역에 들어가고 판문점이 피아의 경계지역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유엔군측은 그 장소가 정치적·심리적으로 적에게 큰 이익을 제공할 것임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측의 제의를 수용하여 이곳을 회담장소로 양보함으로써 군사적으로도 큰 이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協商基調와 議題의 提案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은 예비회담의 합의대로 1951년 7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성 내봉장(來鳳莊)에서 개최되었다. 유엔군측에서는 미 해군중장 조이를 단장으로 5명의 대표가, 공산군측에서도 북한인민군 총참모장 남일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⁶⁷⁾

- 유엔군측 수석대표 미 해군중장 조이(Turner C. Joy), 극동해군 사령관
대표 미 해군소장 호데스(Henry H. Hodes), 제8군 참모부장
대표 미 공군소장 크레이기(Laurence C. Craigie), 극동공군 부사령관

대표 미 해군소장 버크(Arleigh A. Burke), 극동해군 참모부장
대표 한국 육군소장 백선엽(白善燁), 제1군단장

공산군측 수석대표 북한 육군대장 남일(南日), 인민군 총참모장
겸 부수상

대표 북한 육군소장 이상조(李尙朝), 인민군 경찰국장, 전 상업
부상

대표 북한 육군소장 장평산(張平山), 인민군 제1군단 참모장

대표 중공군 중장 등화(鄧華), 중공지원군 부사령관 겸 부정치
위원, 전 제15병단 사령관

대표 중공군 소장 세팡(謝方), 중공지원군 참모장, 동북군구 선
전주임

대표단 구성의 특징은 유엔군측은 순수한 군지휘관 및 참모요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군 장교가 수석대표를 맡는데 반하여, 공산군측은
모두 정치경력을 가진 정치군인들로 구성되었으며 협상의 실질적 권



개성 휴전회담장소, 내봉장(來鳳莊)

46 제1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한을 중공의 등화가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일지라도 북한의 대표가 수석에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회담은 상호 신임장을 교환한 후 쌍방 수석대표의 기조연설로서 시작되었다. 유엔군측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공산군측 대표들의 경력상에 나타난 정치적 성향과 회담장소가 적의 통제하에 있음으로써 심리적 이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는 상대의 행태에 대응하려는 듯, 먼저 인사말에 이어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주로 군사상황에 중점을 둔 기조연설을 하였다. 기조발언의 요지는 회담간에도 휴전의 제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투를 계속하며, 전쟁의 재발방지를 보장할 휴전협정을 마련할 것이며, 한국내의 군사문제만을 토의하며, 한국과 관련이 없는 군사문제나 정치·경제적 문제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의 핵심부분은 아래와 같다.⁶⁸⁾

휴전을 위한 제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쌍방의 승인을 받은 정전위원회가 실제로 임무를 개시할 준비가 될 때까지 쌍방의 합의를 본 중립지대를 제외한 한반도의 전 지역에서는 전투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유엔군 대표단은 공산군 대표들과 전쟁의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조건하에 한국전쟁의 중지를 위한 휴전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⁶⁹⁾

우리 대표단은 오로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있는 한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군사문제만을 토의하려는 바이다. 여하한 종류의 경제적 및 정치적 문제, 그리고 한국과 관련이 없는 군사문제를 토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이 제독의 뒤를 이어 공산군측 수석대표 남일이 기조발언을 하였다. 이는 1950년 6월 25일 이전의 원상회복에 목표를 두고, 쌍방 적대 군사 행동의 중지, 38도선으로 철수, 그리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외국군의 철군을 그 요지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⁰⁾

첫째, 상호합의의 기초에서 쌍방은 모든 적대군사 행동을 정지하도록 동시에 명령하여야 할 것이다. 육군은 상대방에 대한 침공·습격·정찰을 정지하며, 해군은 상대방에 대한 함포사격과 봉쇄와 정찰을 정지하고, 공군은 상대방에 대한 폭격과 정찰을 정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쌍방의 정전은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전쟁의 불꽃을 진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38도선을 군사적 경계선으로 확정하고 쌍방의 무장군은 동시에 38도선으로부터 10km 철수하여야 하며, 이를 일정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쌍방이 철수한 지구를 비무장지대로 규정하며, 쌍방의 무장부대를 주둔시키거나 또는 여하한 군사적 행동도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즉, 1950년 6월 25일 이전의 원상으로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즉시 포로교환에 대한 회담을 진행하여 각국 포로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모든 외국군대를 철군시켜야 한다. 외국군대가 철군한다면, 조선전쟁의 중지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기본적 보장을 받게 된다. 조선인민·중국인민·소련인민을 포함한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모두 속히 조선전쟁을 중지하며 평화적으로 조선문제를 해결할 것을 열렬히 요구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여 전체인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희망한다.

남일의 발언이 끝나자 중공군 대표 등화가 남일이 제기한 3개 항이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휴전의 기초이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요지의 지지발언을 하였다.

조이 제독은 공산군측의 기조발언 후, "앞으로의 회담에서는 한국에 관련된 군사문제만을 협의하자"고 제의하며 이에 공산군측의 동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자, 곧 군

사사항에 중점을 두고 유엔군사령부에서 작성한 9개 항의 회의의제를 제시하였다.⁷¹⁾

- 1) 회의의제의 채택
- 2)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위한 장소와 그들의 권한
- 3) 한국에만 관계되는 순수한 군사사항 토의로 제한
- 4)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무력행위의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조건하에 적대행위 및 무력행위의 중지
- 5) 한국을 횡단하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협정
- 6) 군사정전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기능
- 7) 군사정전위원회 예하기구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군사감시단의 한국내에서의 감시원칙에 대한 협정
- 8) 군사감시단의 구성과 기능
- 9) 전쟁포로에 관한 협정

조이 제독이 협상의제를 제안하자, 공산군측은 그들의 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유엔군측 안에 대해 구체적 토의를 시도하며 어떠한 휴전협정일지라도 38도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조이 제독은 남일의 주장은 당시의 군사적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정치적인 주제들로 협상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공박하는 한편, 현시점은 의제의 구체적 토의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며 공산군측의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남일은 유엔군측의 의제에 대해 길고 중복되며 부적절하다며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⁷²⁾

2항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의 포로수용소 방문’은 포로조항과 관련되므로 9항 협의시 상정할 수 있다. 3항 ‘한국에만 관련되는 순수한 군사사항 토의로 제한’은 휴전회담을 군사문제에 한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불필요하다. 4항 ‘적대행위 중지’와 5항 ‘비무장지대 설치’ 문제는 구체적이 못되므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6항·7항·8항 ‘군사정전위원회’와 ‘군사감시기구의 구성’은 부수적 문제로서 해결이 가능하며 9항 ‘전쟁포로’ 문제는 다루어야 한다.

공산군측의 남일은 유엔군측의 의제에 대해 이와 같이 지적한 다음 아래와 같은 5개 항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더 간결하고 더 적합하며 순서대로 토의할 주제라고 주장하였다.⁷³⁾

- 1) 회의의제의 채택
- 2) 38도선을 양측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고 한국에서 적대행위 중지의 기본조건으로서 비무장지대 설치
- 3)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의 철수
- 4) 한국에서의 정전 및 휴전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정
- 5) 휴전에 따른 전쟁포로에 관한 협정

조이 제독은 남일의 제의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38도선을 분계선으로 하자는 제의는 수용할 수 없으며, 외국군의 철수는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휴전이 성립된 후에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산군측 제안의 핵심인 ‘2항과 3항’에 대해 적절한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첫날의 회담은 이와 같이 쌍방이 기본입장을 천명한 다음 의제를 제안하고 상대가 제의한 의제의 부적절성과 자신들 의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선에서 끝났다. 이날 회담이 끝난 후 문산에 설치된 ‘평화의 천막촌’(유엔군측 휴전회담 지원기지)에서는 기자들이 회담 분위기에 고무되어 가장 비관적 시각에서도 회담이 6주내에는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회담이 진행되면서 속단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다.

7월 11일에 속개된 회담은 대부분의 시간을 제안된 의제상의 용어와 구절의 의미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보냈다. 이날 회의에서 유엔군측은 국제적십자가 포로수용소를 방문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포로수용소 위치보고가 필수적이라고 한데 대하여, 공산군측은 이는 휴전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문제로서 군사적인 문제만 다루기로 한 협상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며 의제로서 채택을 거부하였다.⁷⁴⁾

군사분계선에 대해, 유엔군측은 38도선은 현 군사상황과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상적인 선(imaginary line)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하자, 공산군측은 이 선이 전쟁전에 존재하였던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휴전은 이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⁷⁵⁾

또한 유엔군측은 외국군의 철수문제는 의제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데 대해 공산군측은 “외국군의 철수 없이 어떻게 휴전이 보장될 수 있는가”라며 이를 의제에 포함하자고 주장하였다.⁷⁶⁾

쌍방은 이날 상대방이 제기한 의제의 의문점에 관한 질의 응답과 토론을 마무리한 후 시작한 의제 우선순위 결정 논의에서 공산군측은 ‘정전(cease fire)’, ‘38도선의 군사분계선(demarcation of 38 parallel)’, ‘한국에서 외국군의 철수(withdrawal of foreign troops from Korea)’ 문제가 기본이라며 이것이 의제의 앞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⁷⁾

공산군측의 주장은 협상 기초연설에서부터 일관된 것으로서 그간의 협의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변화징후를 조금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의제선정이나 차후 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설정, 외국군의 철수 그리고 포로수용소 방문건이 현안이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3. 會談場 中立性과 互惠平等上의 葛藤

개성 내봉장 회담은 기초연설에서 노출된 것처럼 양측 입장의 현격

한 차이로 회담의 진전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데 더하여 개성이 적의 통제하에 있음으로써 회담장의 중립성과 호혜평등성이 보장되지 않아 협상은 당초부터 더욱 난항에 봉착하게 되었다.

우선 회담 첫날 문산에서 개성을 향하던 유엔군 대표단 차량이 합의대로 백기를 달고도 판문점에서 적 초병의 통제를 받아야 했고, 개성에 도착해서도 적 무장경비병의 감시하에 회담장으로 이동해야 했는가 하면, 적의 보도진은 이러한 광경을 사진촬영하여 마치 자신들이 ‘승자(勝者)’인 것처럼 선전에 이용하였다.⁷⁸⁾ 이뿐만 아니라 유엔군 측 연락요원들(courier)은 회담장 내에서도 통행에 제재를 받아 임무수행이 지연되는 등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물론 유엔군측 대표단은 이러한 이동통제와 통행의 제약에 대해 항의하였다.

회의실 내에서도 공산군측 대표들은 ‘승자’처럼 남쪽을 향해 높은 의자에 앉고 유엔군측 대표단은 북쪽을 향해 낮은 의자에 앉도록 좌석배열을 하였다.⁷⁹⁾ 또 유엔군측이 회의탁자 위에 유엔기를 설치하자 공산군측은 이보다 더 높은 기를 갖다 놓았다.⁸⁰⁾

다음으로 보도진의 출입과 활동이 불평등하였다. 회담 첫날부터 공산군측의 기자들은 회담장(area)에서의 자유로운 취재는 물론 회의실 안으로도 갑자기 들어와 자신들의 선전용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일방적인 보도활동을 벌이었다. 유엔군측 수석대표는 이는 사전 합의를 요하는 사항이라며 항의하는 한편 유엔군측도 20여 명의 기자단을 대동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 수석대표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김일성과 의논하겠다고 하며 확답을 피하였다.⁸¹⁾

회담 두번째 날(7월 11일)에도 유엔군측은 이들 불평등 문제들을 다시 거론하였으며, 공산군측은 유엔군측 대표단 차량은 문산에서 출발시 통고해 주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으나, 기자단 문제에 대하여는 아직 의제도 합의를 보지 못하였는데,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다며 역시 허용하지 않으려 하였다.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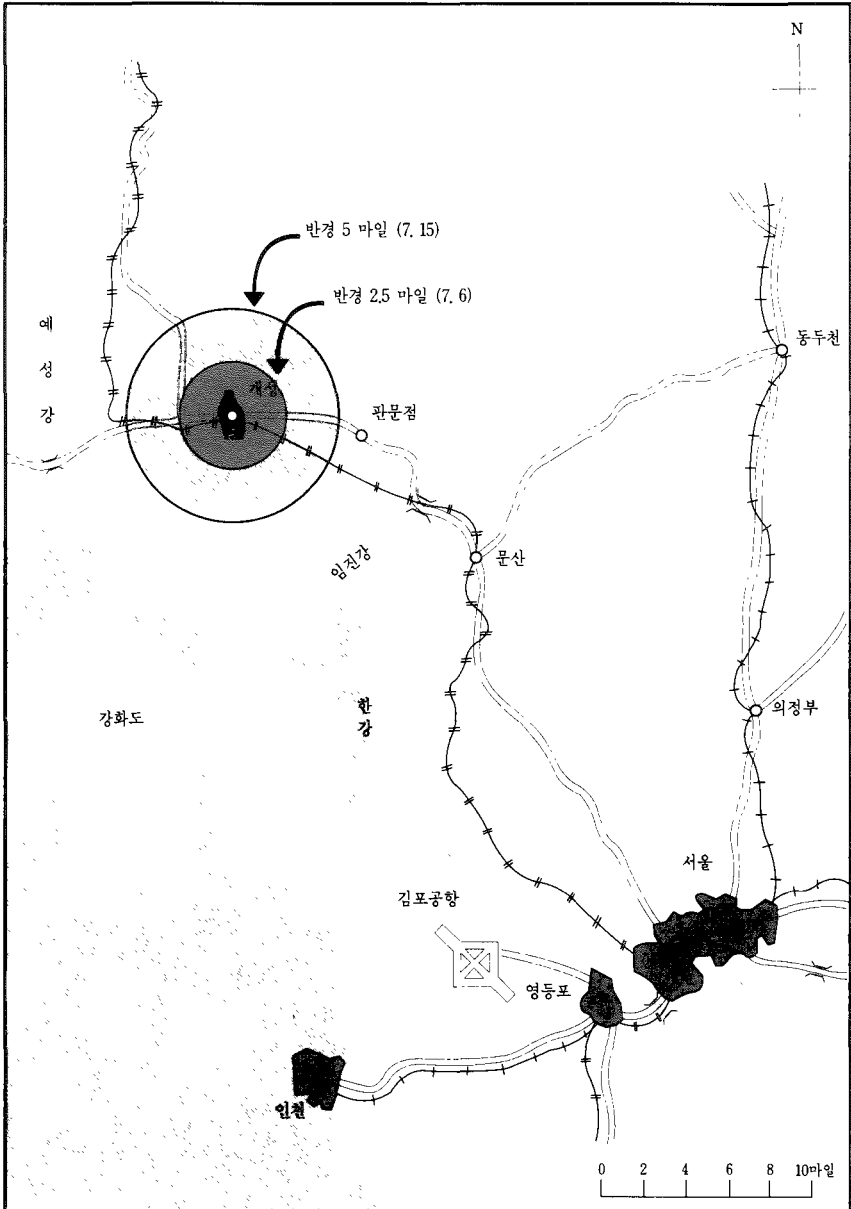
조이 제독은 이날 회담이 끝날 무렵, 내일도 기자단 출입이 허용되

지 않으면 대표단도 판문점에서 문산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언제 기자들의 참석하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지 그 일자를 내일(7월 12일) 오전 07:30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⁸³⁾ 이 발언은 남일을 놀라게 하였고 이제 기자단의 대동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회담을 지연시키느냐는 공산군측의 몫이 되었다.

다음날(7월 12일) 07:30에 유엔군측 대표단 차량이 기자 20명을 태운 채 문산을 출발하여 개성으로 향하였으나 판문점 공산군 초소에서 기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자 09:30까지 기다린 다음 전일 조이 제독이 남일에게 통보한 대로 유엔군측 대표단 차량이 기자와 함께 모두 문산으로 복귀하였다. 이에 조이 제독은 연락장교를 통해 남일에게, “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자 대표를 포함해 본관이 선정한 인원을 태운 수송대가 회담장에 입장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는 대로 회의에 복귀해 토의를 계속하겠다”고 통고하였다.⁸⁴⁾ 즉 그때까지 회담에 참석치 않을 것임을 알렸다. 이에 대해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기자단 문제로 유엔군측이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휴전회담은 3일만에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7월 13일에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개성이 적의 통제하에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회담 저해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산측에 개성 및 개성-문산 도로를 중립지대화할 것을 제의하였다. 즉 그는 방송을 통하여 회담장에서 기자단을 포함한 대표단의 상호 동등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성을 반경 5마일 범위로 중립화하고 개성-문산 도로에는 일체 무장경계병을 두지 말며 중립지대에서 활동할 회담 대표단은 상한선을 150명으로 정하되 그 범위내에서 쌍방 군사령관이 필요한 만큼 구성하자고 제의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이 메시지에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담장소의 이동을 제의한다고 덧붙였다.⁸⁵⁾(이는 방송 후 연락장교를 통하여 공산군측에 직접 전달되었다.)

휴전회담장소(개성) 중립지대



다음날(7월 14일) 공산군측은 세계의 이목이 두렵고 국제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함을 인식해서인지 평양방송을 통하여 회담장의 중립화에 동의하고 기자단 20명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보도하고 15일에 연락장교를 통하여 판문점에서 유엔군측에 전달하였다.⁸⁶⁾

이리하여 제3차 회담은 7월 15일에 쌍방의 기자단을 대동한 가운데 열렸다. 그런데 20명의 유엔군측 기자단에는 한국기자가 단 1명만 편성되었다. 당시 한국정부가 휴전과 휴전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게 그 이유였다. 유엔군측 대표단은 이날 이미 유엔군사령관이 발표한 회담장 중립화와 안전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3개항을 제기하였으며, 공산군측은 이를 이의없이 수락하였다.⁸⁷⁾

- 1) 개성에 반경 5마일의 중립지대를 설치한다. 판문점의 동단(東端)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립지대에서 적대행동을 금지한다. 중립지대로부터 현병 임무수행에 필요한 요원과 이 기능을 위해 필요한 무장요원을 제외한 모든 무장부대는 제거되어야 한다.
- 2) 회담장소(area of conference)는 회의실(conference house) 중심 반경 1/2마일로 규정한다. 모든 무장요원은 회담장소에서 철수해야 한다.
- 3) 판문점으로부터 회담장소까지의 주도로에는 무장경계병을 두지 않는다. 유엔군사령부 대표단은 주간에 사전통고 없이 제한을 받지 않고 이 도로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유엔군측은 회담 개시 후 5일간의 집요한 요구와 설전 끝에 회담지대를 중립화하고 대표단의 활동에 호혜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개성회담은 3일간의 휴회를 끝내고 이날부터 다시 의제토의에 들어갔다.

4. 議題 選定 攻防과 採擇

1951년 7월 15일 속개된 회담에서 회담장의 중립화와 호혜평등 조건에 합의함으로써, 쌍방 대표단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의제 선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였다. 이날 공산군측은 휴전회담에서 군사적인 문제만 다루겠다고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측은 첫날 제의한 9개 항의 의제 중 3항(한국에만 관계되는 순수한 군사사항 토의)을 삭제하고 2항(국제적십자사의 포로수용소 방문)은 9항(전쟁포로에 관한 협의)에서 함께 다루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측의 제기한 의제는 7개 항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38도선문제와 외국군의 철군 문제를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완강히 고집하면서 양보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7월 16일 회담에서 유엔군측은 7개 항의 의제 중 군사정전위원회와 정전감시기구 사항을 3항에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4개 항으로 축약하여 제시하였다.⁸⁸⁾

- 1) 의제의 채택
- 2)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비무장지대 설치
- 3) 최종적인 평화의 정착을 위태롭게 하는 적대행위와 무력행위 재발방지를 보장할 정전 및 휴전에 관한 구체적인 협정
 - 가. 군사정전위원회 구성, 권한, 기능
 - 나. 군사감시단 구성, 권한, 기능
- 4) 전쟁포로에 관한 협정

공산군측은 2시간의 휴회를 가지고 자체 협의를 거친 뒤, 비로소 긍정적이라며 양보의 자세를 보였다. 2항에 대해 실질적 토의시에 '38도선 주장'을 하겠다는 의도를 밝히면서 대체로 동의하였다. 3항에 대해서도 개선되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좀더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결

과적으로 의제 선정은 공산군측이 주장하는 외국군의 철군문제만 미결상태로 남게 되었다.⁸⁹⁾

공산군측은 7월 17일 회담에서 유엔군측으로부터 3항의 군사정전 위원회와 감시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3항의 표현이 너무 구체적이라고 지적한 다음, 이를 좀더 짧고 일반적으로 표현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다음날 회의에서 유엔군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4개 항은 모두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의제에 ‘외국군의 철수’항을 포함하자고 계속 주장하였다.

남일은 7월 19일 회담에서 풍자적인 말로, “전쟁은 여행이 아니며 부대는 관광객이 아니다. 정전명령이 하달되고 휴전이 성립되었는데도 부대를 그 자리에 둔다면 그 의도는 그 부대들로 하여금 한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도록 하려는데 있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⁹⁰⁾며 철수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공산군측이 외국군의 철수문제를 회담의 주제로 삼도록 집요한 주장을 하자, 같은 날(7월 19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공산군측의 주장에 반대하고 유엔군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성명에서 “외국군(유엔군)의 철군이 정치적인 문제인가 군사적인 문제인가에 관한 이론적 논쟁거리가 아니다. 유엔군은 해당국 정부가 유엔의 요청에 호응하여 그들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것이다. 유엔군은 침략을 구축하고 국제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유엔군은 휴전이 발효되더라도 진정한 평화가 수립되고 한국국민이 침략의 위협에서 벗어나……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즉 유엔군의 철군문제는 그것이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간에 휴전회담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휴전후에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의 연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⁹¹⁾

개성에서 공산군 대표는 휴전과 관련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전 의

국군대 철군문제를 제기하였다. 유엔군 대표는 이 문제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이며, 유엔과 관계각국의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 문제의 취급을 거부한다고 언명하였다. 이는 동 문제가 정치적이냐 아니면 군사적이냐에 관한 이론적 논쟁일 수는 없다.

유엔군은 유엔의 요청에 응하여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게 된 각국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유엔군은 침략을 격퇴하고 동 지구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휴전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유엔군은 한국에 진정한 평화가 수립되고 한국국민이 침략의 위협을 받지 않고 그들의 장래를 건설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질 때까지 계속 주둔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에 주둔할 유엔군의 규모는 그때의 정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특히 휴전이 준수될 신빙성 여하에 달려 있다. 한국의 인접 국가들은 유엔군의 한국주둔이 그들에게 하등의 위협도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엔이 거듭 강조한 정책, 게다가 유엔의 성격 그 자체만으로도 이 점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다. 전에 한번 한국문제 해결에 도달하려는 유엔 계획의 일부로서 외국군대가 한국으로부터 철군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이 유엔의 노력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에 침략을 감행하였다. 한국국민은 이와 같은 행동의 반복이 다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음날(7월 20일)에는 장마로 인하여 판문점의 교량이 유실되어 회의를 열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도 현안에 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회담은 공산군측의 요청에 의해 4일간의 휴회에 들어갔다. 한편 20일에는 참전 16개국이, 21일에는 한국정부가 미 국무장관의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25일 속개된 회담에서 공산군측은 외국군의 철군문제를 의제

에 삼입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였으며 유엔군측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때서야 공산군측은 이 주제와 관련한 일관된 주장에서 후퇴하여 ‘외국군의 철군’이라는 표현 대신 제5항에 ‘쌍방의 관계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는 의제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이 의제에서 외국군의 철군문제를 휴전후에 다룰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즉 쌍방 대표단이 먼저 4개 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이 항의 토의에서 “휴전 후 일정기간내에 한국전쟁 관련 쌍방이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어 외국군의 철군문제를 협상하도록 쌍방 관계국 정부에 건의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체결한 다음 휴전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에 근거하여 휴전 조인 후 외국군의 철군을 위한 별도의 정치회담을 갖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남일 연설의 결론부분은 아래와 같다.⁹²⁾

…… 지금 우리는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가장 중요한 희망사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휴전성립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외국군의 철군문제는 그 해결을 별도의 회담에서 다루도록 남겨두자는 귀측의 견해에 동의한다. …… 외국군의 철군문제와 우리가 실현하려는 정전 및 휴전과의 뿌리 깊은 연관성과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여러 외국 병사들의 휴전 후 평화로운 삶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소망에 비추어 …… 이미 합의한 4개 항의 의제 외에 제5항 : ‘쌍방의 관계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추가하도록 제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4개 항을 토의하고 구체적 합의를 얻어낸 후, 우리는 쌍방의 관계국 정부가 휴전협정이 발효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 쌍방의 고위급 대표회담을 열어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의 단계적 철군문제를 협상하도록 건의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제와 우리들이 이 의제 토의시에 내놓으려고 준비중인 건의내용은 휴전협상에 관한 우리 소망의 조기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평화보장에 관한 희망을 더 높일 것이다. 우리는 유

엔군측 대표단이 이 제안에 틀림없이 동의하리라고 믿는다.

이의 검토에서 유엔군측은 표현이 모호하며 공산군측이 이 항에서 본질문제를 재론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지만 철군협약의 자체는 휴전후의 과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 7월 26일 회담에서 제5항을 수락하였다. 이로써 쌍방은 개성에서 본회담을 시작한지 16일 동안에 6일을 휴회하고 10일간의 회담에서 의제의 채택에 합의를 이루었다. 합의된 의제 5개 항은 아래와 같다.⁹³⁾

- 1) 회의의제의 채택
- 2)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정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양측이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군사분계선을 설정
- 3) 정전 및 휴전에 관한 조항 수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구성, 권한 및 기능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정전과 휴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정
- 4) 포로에 관한 협정
- 5) 양측의 관계 제국 정부에 대한 건의

이와 같이 쌍방이 의제에는 합의하였지만 그 타결과정은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였다. 우선 회담장의 중립화와 호혜평등의 조건에 합의하였으나 공산군측이 이를 성실히 준수할지는 의문이었다. 의제에 '38도선'과 '외국군의 철수'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관련의제 협상시 공산군측이 거론할 것은 명백하였다. 또한 유엔군측은 국제적십자사의 포로수용소 방문문제를 포로협상 의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양보하였으나 공산군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극히 불투명하였다.

특히 의제 협상간 쌍방이 개성을 중립지대로 규정하고 판문점을 피아의 경계선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는 이후 이 지역에서 유엔군의 군사작전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 4 절 政府의 分斷拒否政策

1951년 5월 말을 전후하여 유엔총회의장 피어슨(Lester B. Pearson)과 유엔사무총장 리가 한국전쟁을 38도선에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미·소의 막후 접촉을 거쳐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열렸으며, 우여곡절 끝에 의제까지 타결하는 단계로 협상은 진전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회담은 전쟁전 상태와 유사한 현상에서 우선 군사적으로 휴전을 실현하고 통일문제는 이후에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대전제하에 추진되고 있어 ‘재분단의 판도’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는 통일을 지상과제로 추구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정책기조와는 기본적으로 상치되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정부수립 후 일관되게 통일을 추구해 왔으며, 전쟁지도 과정에서도 북한인민군의 남침에 의해 38도선이 남북분단선으로서 의미가 없어진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더구나 1951년 5월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격파하고 그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하여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한 전국(戰局)에서 정부와 국민은 공산침략자를 응징하고 그 연장선에서 북한지역을 수복하여 통일할 것을 열망하였다. 이러한 열망을 반영하듯 정일권 총참모장은 제8군사령관과 평양-원산까지 전선을 밀어붙일 계획을 협의중에 있었다.⁹⁴⁾

그런데 이 무렵 미·소 막후 접촉에 의한 휴전설이 파다하자, 1951년 6월 5일에 국회가 중공군의 침략행위 중지 및 철퇴를 요구하고 한국의 완전한 자주통일 이외의 여하한 형태의 휴전도 반대한다는 결의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휴전반대 범국민 쉼기대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국민들은 공산침략자들에게 재침의 시간과 기회를 주

려는 휴전에 결사반대한다고 절규하였다.

이 긴장된 정국(政局)에 6월 8일, 미국의 국방장관 마셜(George C. Marshall)이 도쿄 유엔군사령부를 거쳐 대구 제8군사령부를 방문하고 한국정부와는 아무런 접촉이나 협조 없이 돌아갔는데, 아마도 새로운 대한정책(NSC 48/5)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그의 예방을 기대하고 그에게 원산까지 밀고 올라갈 것을 요청하려던 이승만 대통령은 무시당하는 듯한 분노를 삼켜야 했으며 다음날 이기붕(李起鵬) 국방장관과 정일권(丁一權) 총참모장을 불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미국의 수많은 정부요인이 다녀갔지만 이와 같이 무례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것이 어찌 그 개인의 처사이겠느냐, 미 행정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섭섭한 감회를 피력하였다.⁹⁵⁾

이승만 대통령은 이 처사에 대해, “우리와 의논하면 휴전을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와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군과 우리 국민들 모르게 저희들끼리만 의논해서 공산군측과 타협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⁹⁶⁾

이(李)장관은 국회와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우리의 전쟁수행 결의를 국내외 반영토록 할 것이며, 정(丁)장군은 우리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하고는 있으나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복진을 염원하고 있는지를 전선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작전도 감행할 각오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무렵 미·소의 동태를 주시해 오던 이승만 대통령은 ‘6·23’ 말리크의 연설에 이어 소련·중공·북한이 이를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6월 27일에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⁹⁷⁾ 그는 이 성명에서 “한민족은 통일을 원하고 있다. …… 국토를 분할하여 온 인위적인 경계선인 38도선을 다시 건설하려는 여하한 제안도 결국 우리 전 한국국민에게 깊은 실망만 줄 것이다.”

라고 일단 분단 거부의를 천명하였다. 이어 “만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한국민(韓國民)에 대한 공산침략이 장차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장을 주어야 한다. 한국국민은 …… 한국정부를 통하여 평화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협의를 받고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며 공산침략의 재발 방지장치의 중요성과 한국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의 주체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특히 강조하였다. 성명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⁹⁸⁾

어느 인위적 경계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분할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소위 평화안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고간에 남북 전국민이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이다. 침략자가 한국의 어느 일부라도 계속 점유할 수 있게 놓아주는 제안은 결국 이 나라에 대한 모욕이 되고 말 것이다. 소련의 지도자들이 지금 평화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기네들의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무력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와서 양면외교를 통해 가지고 완수해 보려는 것이다. …… 도대체, 언제부터 소련지도자들은 그렇게 세계평화를 갈망하여 온 것인가? 그들이 남한을 자기네들 판도 속에 집어넣어 버리려고 남침을 개시하였을 때, 그들은 평화를 구하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 국민을 학살하고 우리 국토를 파괴하는 것이 세계평화를 보장하려는 노력이었던가? ……

공산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로 철퇴할 것을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만이, 비로소 유엔이 선언한 제목적에 합치되는 평화교섭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부는 정의와 영구한 평화가 한국에 수립되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정의에 의하여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싸움이 빨리 끝나서 우리의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의 계략에 빠져 결국 허무한 것에 지

나지 않을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 전 한국민은 민족통일을 원하고 있다. 남한사람에 못지않게 38도선 이북에 사는 한국 남녀들은 하나의 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 밑에 통일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5년 동안 우리의 국토를 분할하여 온 인위적인 경계선을 또다시 건설하려는 여하한 제안도 결국 우리 전 한국민은 깊은 실망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해결을 지으려 하면 반드시 한국민에 대한 공산침략이 장차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장을 주어야 한다.

셋째, 한국민은 그들이 민주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표를, 즉 한국정부를 통하여 화평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협의를 받고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말리크의 제안은 이러한 조건에 응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평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속한 평화라는 허황한 약속에 속아서 결국 더욱 무서운 전쟁의 서곡이 되어 버릴 어느 평화제안도 수락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어서 6월 29일에는 한국국회가 재분단으로 가는 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재천명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⁹⁹⁾

대한민국 국회는 38도선 정전을 절대 반대한다. 다만 공산제국 침략군의 전면적 무장해체와 또한 압록강·두만강 국경 밖으로의 철퇴를 실시한 후 국토통일을 완수하고 한국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국제적으로 확약하는 조건 이외에는 우리는 고려할 여지가 없음을 재성명한다.

그러나 6월 30일에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이 휴전회담 제의를 하고 협상 개최가 확실시되자, 변영태(卞榮泰) 외무부장관이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5개 조건만 충족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여하한 휴전회담에도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¹⁰⁰⁾

휴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태도를 명확히 할 시기가 온 줄로 생각한다. 우리는 구태여 휴전을 반대하지 아니한다. 휴전의 조건을 명시하여 공산주의의 모략과 술책에 빠질 위험을 제거하려 한다.

아래에 제시한 5개 조건을 기초로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 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

첫째, 중공군은 한국으로부터 국경을 넘어 만주로 완전히 철수하되 북한 비전투원의 생명과 재산에 손상을 가해서는 안된다.

둘째, 북한괴뢰군은 무장을 해제하여야 한다.

셋째, 유엔은 제3국이 북한 공산당에게 군사적이거나 재정적이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원조하지 못하도록 방지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의 정식대표가 한국문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토의하거나 고려하는 어떠한 국제적 회의 혹은 회합에도 참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주권이나 영토를 침범하는 어떠한 안이나 행동도 적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5개 조건 중 ‘첫째, 둘째항’은 공산군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다른 형태로 표현한 휴전반대의 강력한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호응하여 한국국민의 휴전반대 절규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메아리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조국의 허리를 인위적으로 다시 절단하려는 휴전! 단일 한민족을 다시 남과 북으로 갈라 놓으려는 휴전!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강요된 휴전!을 결사반대하는 ‘38도선 휴전반대 국토통일 국민총결기대회’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갔다.¹⁰¹⁾

이러한 가운데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개막되던 날, 리지웨이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고 휴전회담의 경위를 보고하였으며, 7월 16일 방문시에는 회담에 임하는 유엔군측의 기본전략에 관해 이대통령의 동의를 구하려 하였다.¹⁰²⁾

이 자리에서 리지웨이 장군은 비무장지대의 기초로서 군사분계선 설치에 대한 기본개념을 설명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 개념보다 북한군의 해·공군이 고갈되었는데 압록강·두만강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되받았다. 이에 리지웨이는 유엔군의 북진작전은 대대적인 병력증강과 보급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한 다음, 38도선문제와 외국군의 철수문제는 휴전회담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며, 정전이 곧 유엔군의 철수를 몰고 올지도 몰라 두려워하는 한국정부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국민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38도선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재통일할 것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휴전은 공산군측을 도울 것이며 그로써 제3차 세계대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반대로 북진작전의 전개로 공산군을 패배시키면 소련과 중공 간의 간격을 벌리고 소련위성제국(satellite empire)을 동요시켜 새 세계대전의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북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⁰³⁾

이와 같이 한국정부가 재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정책을 추구함과 더불어 국민들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개성 휴전회담은 본질적 문제의 협상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주 기

-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미국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이하 『미합참사 한국전쟁』으로 약술)(상), 1990, pp. 376~377.
- 2) 외무부, 『한국전쟁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이하 『소련극비외교문서』로 약술)(4), p. 116, 120.
- 3) 이 선은 통상 캔사스-와이오밍선이라 불렀다. 그러나 실제 방어선은 동부전선에서는 캔사스선보다 상당히 북쪽에 형성되었다. 캔사스-와이오밍선은 한강하구-문산-전곡-연천-철원-김화-화전저수지-인제-양양을 연하는 방어선이였다.
- 4)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항미원조전사』(이하 『항미원조전사』로 약술), 세경사, 1991, pp. 178~179 및 부도 12.
- 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항미원조전사』, p. 179, pp. 348~353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정기정보보고』(이하 『정기정보보고』로 약술)(4), 육군본부, 1985, pp. 429~430 ; 중공군 편성은 『항미원조전사』, 북한군 편성은 『정기정보보고』를 참조하였다.
- 6) 『항미원조전사』, p. 169 ; 당시 공산군의 병력은 『Truce Tent Fighting Front』에는 중공군 248,100명, 북한군 211,100명으로 기술하고 있고, 『정기정보보고』(1951. 7. 1)에도 중공군 231,950명, 북한군 226,803명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항미원조전사』의 기록을 참조하였다.
- 7) 『항미원조전사』, p. 174, 179.
- 8) 위의 책, 부도 12.
- 9) 위의 책, p. 179.
- 10) 유엔 참전 16개국 중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군만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지상군을 지원한 참전국은 15개국이었다.
- 11) 의료지원 5개국 중 이탈리아는 당시 유엔 비회원국으로서, 1951년 11월부터 병원시설을 파견하여 의료지원을 제공하였다.

- 12) EUSA, *The US Military Experiences in Korea*, 1983, p. 82.
- 13) 『소련극비의교문서』(4), p. 116.
- 14) 위의 문서, p. 118.
- 15) 위의 문서, p. 118, 123.
- 16) 『미합참사 한국전쟁』(상), pp. 394~395.
- 17) ① 『항미원조전사』, p. 174 ; 중공군은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이 38도선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8월에 반격을 실시하여 힘으로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 ② 『소련극비의교문서』(4), p. 120 ; 모택동은 모스크바에 체재중인 김일성과 고강에게 보낸 전문(1951. 6. 13)에서 2개월간 방어태세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 18) 『항미원조전사』, p. 172 ; 『미합참사 한국전쟁』(상), pp. 394~395.
- 19) 최종기, 『國際聯合軍』, 사단법인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72, p. 63.
박치영, 『國際政治論』, 법문사, 1994, p. 490.
- 20) 정일형, 『유엔과 한국문제』, p. 166.
- 21) 최종기, 『國際聯合軍』, pp. 64~65.
- 22)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A, *Policy and Direction*, p. 1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 638.
- 23) 『미합참사 한국전쟁』(상), p. 183.
- 24) 『소련극비의교문서』(3), p. 72.
- 25) 8개 공동제안국 :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쿠바, 네덜란드, 덴마크, 파키스탄, 필리핀.
-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해동문화인쇄사, 1989, p. 154.
- 27) 위의 책, pp. 154~155.
- 28) 정일형, 『유엔과 한국문제』, p. 2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미합참사 한국전쟁』(상), p. 188.
- 29) 『소련극비의교문서』(4), pp. 71~72 ;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pp. 41~42.
- 30) 위의 책, pp. 44~47.

68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 31) 10월 24일의 총공세는 작전을 1개월내, 즉 추수감사절(11월 4째주 목요일, 1950. 11. 23)까지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 공세라 칭하였다.
- 32) 중공군의 공세는 그 순서와 시기에 따라 명칭을 붙였으며, 최초공세는 10월에 시작되었으므로 1차 공세, 10월 공세라 하였고, 두 번째는 2차 공세, 11월 공세라 하였다.
- 33) 11월 24일의 공격은 늦어도 이 해 크리스마스까지는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로 최후공세, 최종공세, 크리스마스공세라 칭하였다.
- 34) 『미합참사 한국전쟁』(상), pp. 299~300 ; 아시아·아랍 13개국 그룹 : 아프가니스탄, 버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 35) 위의 책, p. 300.
- 36) 7개국 :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인도, 이집트, 중공 ; 정일형, 『유엔과 韓國問題』, pp. 28~29.
- 37) 3인 위원회 : Nasrollah Entezam(이란), Benegal N. Rau(인도), Lester B. Pearson(캐나다)으로 구성되었다.
- 38) 『소련극비외교문서』(3), p. 126 ; 『미합참사 한국전쟁』(상), p. 304.
- 39) 『소련극비외교문서』(3), pp. 126~127.
- 40)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로 약술), 1951, VII, pt. 1, p. 64.
- 41) 『미합참사 한국전쟁』(상), pp. 334~335.
- 42) 정일형, 『유엔과 韓國問題』, p. 53, 유엔총회결의 제498호-V (1951).
- 43) 『미합참사 한국전쟁』(상), p. 413.
- 44) *FRUS*, 1951, VII, pt. 1, p. 254.
- 45) *FRUS*, 1951, VII, pt. 1, p. 266 ; 『미합참사 한국전쟁』(상), p. 415.
- 46) 『미합참사 한국전쟁』(상), p. 415 ; 맥아더 장군은 1950년 10월 1일과, 10월 9일에 북한군에게 저항을 중지하고 항복하라고 요구하였다.
- 47) *FRUS*, 1951, VII, pt. 1, p. 440 ; 『미합참사 한국전쟁』(상), pp. 376~377.
- 48) 『미합참사 한국전쟁』(상), pp. 387~388.

- 49) *FRUS*, 1951, VII, pt. 1, p. 508.
- 50) 위의 책, p. 508.
- 51) 위의 책, pp. 508~511.
- 52) 『소련극비외교문서』(4), p. 120.
- 53) *FRUS*, 1951, VII, pt. 2, p. 547.
- 54) 『소련극비외교문서』(4), p. 116.
- 55) James Barros, *Trygve Lie and The Cold War*,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9, p. 307.
- 56) 『소련극비외교문서』(3), pp. 133~135 ; *FRUS*, 1951, VII, pt. 1, pp. 553~561 ; 두 자료상 문답의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바, 여기서는 소련자료 번역문에 기초하되, 미국자료에 의해 보완하여 내용을 분명히 하였다.
- 57)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7 ; *Trygve Lie and The Cold War*, p. 305.
- 58) 『미합동참모본부사』(하), p. 19.
- 59) 육군본부, 『판문점』(상), p. 41 ;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p. 20~21.
- 60)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22.
- 61) 위의 책, pp. 23~25.
- 62) 『소련극비외교문서』(3), p. 137.
- 63) 위의 문서, p. 138.
- 64) 『소련극비외교문서』(3), p. 139.
- 65) *FRUS*, 1951, VII, pt. 1, p. 609.
- 66) 예비회담장소 : 개성 광문동 소재의 민가로서, 6·25전에는 고급 다방이었다. 유엔군측 연락장교단 : 대령 Andrew J. Kinney(미공군)·대령 James C. Murrey(미해병)·중령 이수영(李壽榮)(한국육군), 공산군측 연락장교단 : 대좌 장춘산(張春山) 북한군·중좌 김일파(金一波) 북한군·중좌 채청문(蔡淸文) 중공군
- 67)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17, p. 23 ; 공산군측 대표의 직책은 『항미원조전사』(역)에 기준하여 현직을 추가함으로써 위 자료를 보완하였다.
- 68) *FRUS*, 1951, VII, pt. 1, p. 649.

70 제 1 장 平和의 摸索과 休戰會談의 開幕

- 69) *FRUS*, 1951, VII, pt. 1, p. 649에 의거 『판문점』(상)의 한글문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 70) 『판문점』(상), p. 58 ; *FRUS*, 1951, VII, pt. 1, p. 650에 의거 수정하였다.
- 71)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23~24 ; *FRUS*, 1951, VII, pt. 1, pp. 652~653.
- 72)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24.
- 73) 『판문점』(상), p. 61 ; *FRUS*, 1951, VII, pt. 1, p. 653.
- 74) *FRUS*, 1951, VII, pt. 1, pp. 660~661.
- 75) 위의 책, pp. 660~661.
- 76) *FRUS*, 1951, VII, pt. 1, pp. 660~661.
- 77) 위의 책, p. 661.
- 78)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21.
- 79) 위의 책.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평화협상시 정복국가 대표가 남쪽을 향해 앉고, 패배한 국가의 대표가 북쪽을 향하여 앉는다.
- 80) 위의 책, p. 22.
- 81) *FRUS*, 1951, VII, pt. 1, p. 651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24.
- 82) *FRUS*, pp. 660~661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27.
- 83) William, H. Vatcher Jr., *Panmunjom*, p. 35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27.
- 84) Vatcher Jr., *Panmunjom*, p. 35.
- 85) *FRUS*, 1951, VII, pt. 1, pp. 672~673.
- 86) Vatcher Jr., *Panmunjom*, p. 36.
- 87) *FRUS*, 1951, VII, pt. 1, p. 685 ; 3개 항은 본 자료에 의거 정리하였으며, 이는 육군본부, 『판문점』(상), p. 72 내용과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 88)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29.
- 89) 위의 책, p. 30.
- 90) 위의 책, p. 30.
- 91) *FRUS*, 1951, VII, pt. 1, p. 706 ; 『판문점』(상), p. 75.
- 92) *FRUS*, 1951, VII, pt. 1, p. 727 ; Vatcher Jr., *Panmunjom*, p. 42.
- 93) Vatcher Jr., *Panmunjom*, p. 43.

- 94)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고려서적, 1996, p. 395.
- 95) 위의 책, pp. 397~398.
- 96) 위의 책, p. 399.
- 97) 『판문점』(상), pp. 36~38.
- 98) 위의 책, pp. 36~38.
- 99) 『판문점』(상), p. 40.
- 100) 위의 책, pp. 43~44.
- 101) 위의 책, p. 44.
- 102) *FRUS*, 1951, VII, pt. 1, pp. 694~695 ; 7월 16일 회담에는 한국측에서는 이기붕 국방장관이 배석하고 미국측에서는 리지웨이 장군, 무초 대사가 참석하였으며, 그밖에 유엔군측 휴전회담 대표단의 백선엽 소장과 호데스 소장이 배석하였다.
- 103) *FRUS*, 1951, VII, pt. 1, p. 695.

제 2 장 軍事分界線 協商과 軍事狀況의 發展

제 1 절 軍事分界線 協商의 難航

1. 38度線과 接觸線 論爭

(1) 雙方의 主張과 對立

휴전협상은 1951년 7월 26일 의제에 합의를 봄으로써 바로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합의된 5개의 의제 중 1항(의제의 채택)은 이미 합의가 되었으므로 2항 ‘비무장지대 설치를 위한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계속하였다.

이날(26일) 의제에 합의를 보자마자 곧 공산군측 대표 남일(南日)이 먼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무엇보다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해야 한다고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38도선은 전쟁전부터 이미 모든 나라가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쌍방이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으니 전쟁전 현상의 복귀로 인하여 어느쪽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비무장지대는 “38도선을 따라 20km폭으로 하되 이내에는 군대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제의하고, “이러한 부대의 재정리와 영토의 재조정은 공평하며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군측의 반박이 다음날(7월 27일) 시작되었다. 조이(Turner C. J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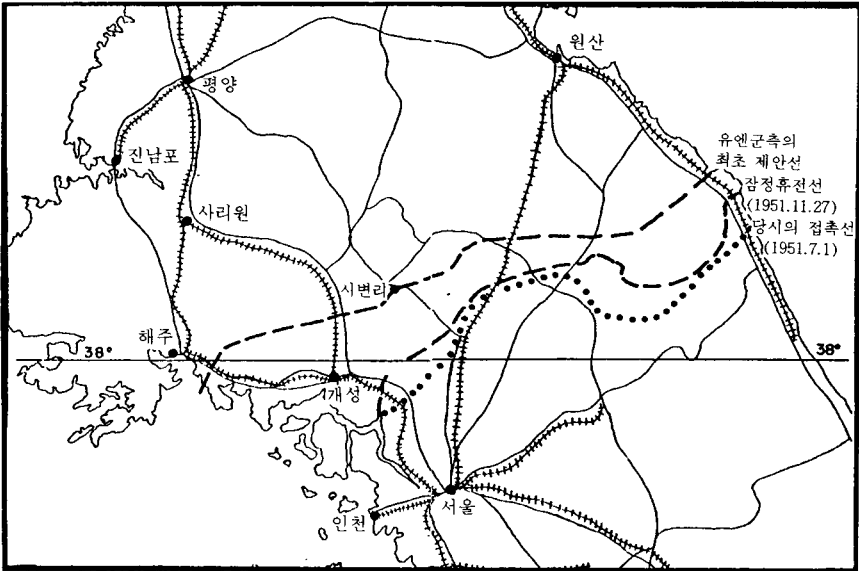
제독은 휴전선을 38도선 보다는 현 전선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는 공산군과 유엔군이 지난 13개월의 전쟁간 적어도 4번이나¹⁾ 38도선을 넘었다고 지적하고, 이 사실만으로도 그 선은 군사분계선으로서 적합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효과적인 비무장지대는 실제적 군사상황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하지 정치적 목적의 고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군사휴전에서 38도선과 같은 가상의 지리적인 선은 하등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조이 제독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안(案)에서 배제하면서 유엔군측의 안을 제시하였다.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상·해상·공중 전투지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유엔군은 지상에서는 한정된 진지를 점령하고 있지만 전 해상을 통제하고 있고 전 영공에 걸쳐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산군측은 휴전에 의해 유엔군사령부의 해군과 공군의 활동이 제한될 때 이동의 자유를 획득하고 재건을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공산군측은 휴전을 통해 유엔군측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지상에서 양보를 하여 이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조이 제독은 공산군 대표에게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상군 진지 북쪽으로 20마일 폭의 비무장지대를 그린 지도를 제시하였다. 이 최초의 제안은 유엔군측이 확보하려고 예상한 선보다 훨씬 더 북상시킨 것이었다. 이 제안은 총체적 군사력을 각 구성군 군사력으로 분리하고 그 각 군사력의 가치를 협상에 적용하려는 아주 기발한 접근 방법이었다.

공산군측은 즉각적으로 강하게 반발하였다. 남일은 28일에 “유엔군측의 제안은 ‘가소롭다’. 군사력이란 각군의 통합된 힘이다. 유엔군 전선은 지상군·해군·공군의 유효전력이 통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현 전선은 가변적이지만 38도선은 현 상황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군사분계선으로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잠정군사분계선 유엔군측 최초 제안선



조이 제독은 남일 발언의 무례함을 공박한 다음 “지상작전의 발전이 전쟁의 상황을 항상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단 한 명의 미군병사가 본토를 밟지 않았는데도 패망하였다.”라며 유엔군측의 제안을 옹호하였다.

남일은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켰다는 조이 제독의 주장을 조롱하며 “누구나 알다시피 일본을 굴복시킨 것은 조선인민의 투쟁, 중국 인민의 전쟁 그리고 소련의 저항이었다. 소련이 참전하여 일본을 분쇄할 때까지 미국은 3년 동안이나 승리없이 대일전을 치르지 않았느냐? 이 역사적 사실을 가볍게 부인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하였다.

군사분계선 협상을 시작한지 3일간의 양측 주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산군측은 38도선으로의 복귀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었고, 유엔군측은 현 군사상황에 기초하여 군사분계선을 설정할 전략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쌍방이 자신들의 주장을 논증함에 있

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타협점에 이르기
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조이 제독은 이에 따라 이 주제를 더이상 추구하지 않고, 그 대신
휴전이 되면 공산군측이 얻게 될 추가적인 이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공산군측은 도로, 교량, 철교를 보수할 수 있고, 그들 부대병력의 건
강과 복지에 필요한 보급품을 운반할 수 있으며 도시와 시설을 재건
할 수 있다”고 일깨워 주었다.

공산군측은 조이 제독의 주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7월이 지
나고 8월의 삼복더위가 시작될 때까지도 38도선 주장에 매달렸다. 매
일의 회의는 판에 박은 듯이 일관되게 양측이 같은 주장을 하고 양보
와 타협을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렵
조이 제독은 남일이 38도선과 관련되지 않은 제안을 토의도 하지 않
으려 하므로 이 문제로 인하여 회담이 여기에서 결렬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이 제독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외국군의 철군문제
에 관한 마셜(George C. Marshall) 장관과 애치슨(Dean G. Acheson) 장
관의 성명발표가 유엔군측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공산군측에 주
지시키는데에 도움이 된 전례를 감안하여, 이번에도 의제 2항의 유엔
군측 입장에 대해 이로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고위층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리지웨이 장군에게 건의하였다.²⁾

(2) 中立違反事件과 會談의 中斷

개성 내봉장에서 1주일간 진행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에
관한 협상에서 쌍방이 38도선에 대하여는 절대로 토의할 수 없다는
입장과 38도선 이외의 선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토의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한치도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회담은 난관에 봉
착하게 되었다. 바로 이 무렵 예기치 않은 사건의 발생으로 막다른

골목에 빠진 회의마저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우선 8월 4일, 제19차 회의가 열리던 이날 점심시간에 완전무장한 중공군 1개 중대가 회담장 내의 유엔군측 대표단이 머무는 건물 가까이로 지나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소총, 권총, 수류탄, 자동화기를 휴대함은 물론 박격포까지 장비하고 있었다. 이는 쌍방이 7월 24일에 합의한 회담지역 중립협정에 이중으로 위배되었다. 여기에서는 회담장 0.5마일 반경 이내에는 어떤 무장병력도 두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성으로부터 반경 5마일내의 지역에 주둔하는 병력도 다만 허리에 차는 무기만을 휴대하도록 규정하였다.³⁾

이에 대해 유엔군측은 우선 조이 제독이 오후 회의에서 유엔군 보도진이 촬영한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엄중히 항의하였다. 한편 다음날(8월 5일) 유엔군사령관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하고 김일성(金日成)과 팡덕회(彭德懷)에게 “위반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명과



1951년 8월 4일 중무장한 중공군 1개 중대병력이 회담장의 유엔군측 참모진이 머물고 있는 장소 200~300m 이내로 접근·행군하고 있다.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을 받을 때까지 유엔군 대표단은 공산군측과 회담을 갖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⁴⁾

공산군측의 첫번째 회답은 “그 부대는 경찰기능을 수행하는 경비대이며, 실수로 그 지역을 통과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지시를 하달하였다.”는 것이다. 조이 제독은 이 회답을 수락하자고 건의하였으나 리지웨이 장군은 쌍방 동수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다음 회담까지 중립지대 전지역에 대해 완전한 조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하였다. 그는 만일 적이 이를 거부한다면 중립지대 위반사건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소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⁵⁾

유엔군사령관은 이 사건이 유엔군측 대표단을 위협하기 위해 교묘히 계획된 것이거나 혹은 단순한 부주의나 군기이완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무렵의 8월 6일 아침에 공산군측이 두번째 메시지를 한글·영어·일어로 방송하였다. 한글과 영문 메시지의 요지는 회답이 “그와 같은 우발적이고 지엽적인 사건”에 의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경비대가 중립협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니, 유엔군측 대표단이 개성 회담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어 메시지는 보다 불손하고 강경한 표현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적의 해명을 거부하기로 하고 허락을 요청하였으나, 유엔군측 전쟁지도부에서는 적이 유엔군측의 요구조건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고려하였다. 그래서 리지웨이 장군은 8월 7일에 우발적이고 사소한 사건이라는 표현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이 개성 지구의 완전 중립화를 보장하는 조건부로 휴전회담의 재개를 수락한다는 전문을 발송하였다. 이튿날(8월 9일) 공산군측이 이를 받아들여 회담을 재개하자고 응신함으로써 이 사건은 발생 5일만에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이날(8월 9일) 공산군측의 남일은 그들 대표단의 보급차량인 트럭 1대가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던 중 8월 7일 15:00에 시변리

부근에서 유엔 공군기의 기총소사를 받아 파손되었다고 조이 수석대표에게 항의하였다. 이 차량은 협정대로 차체를 백포(白布)로 덮고 백기를 단 대표단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유엔군측이 협정을 위반하고 사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이 제독은 남일에게 아래와 같은 요지로 반박하였다.

첫째, 통행시간과 경로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둘째, 시변리는 평양-개성 주보급로상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으므로 도리어 대표단 이외의 목적으로 백색표지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 상황을 24시간 이상이나 경과한 후에 통보함으로써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할 수 없게 하였다.

조이 제독의 이러한 반박에 남일은 더이상 항의를 못하고 주춤 버리고 말았다.

(3) 議題 妥結策의 摸索

사건이 정리된 후 휴회 6일만인 8월 10일에 제20차 휴전회담이 재개되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조이 제독은 정체상태의 회담을 진척시키기 위해 의제 2항에 대한 유엔군측 주장을 지지하면서 군사분계선으로서 38도선에 대한 토의나 고려는 이미 끝났다고 통보하고 현실적인 군사상황에 기초하여 군사분계선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지금까지 일반적 사항으로만 제안되었던 비무장지대를 조정하기 위한 토의를 계속할 것을 기대한다는⁶⁾ 유엔군측의 입장을 밝혔다.

남일은 토의의 제한에 즉각 항의하고 나서, 팔장을 낀 채 아무말도 없이 조이 제독을 노려보기만 하였다. 이후 양측 대표가 상호의 얼굴을 노려보는 냉랭한 침묵이 2시간 11분이나 계속되었다. 양측이 지금까지의 입씨름 대신 눈싸움을 벌인 것이다.⁷⁾ 이는 휴전회담사상 가장

긴 눈싸움이 되었다. 이는 공산군측이 38도선 이외의 어떠한 선도 군사분계선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그들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결국 조이 제독이 침묵의 장벽을 깨트리고 새로운 타개책을 제의하였다. 의제 2항 군사분계선 설정은 합의를 볼 수가 없으므로 이를 일단 보류하고 다음 3항(휴전 실현을 위한 세부 협정)의 토의에 들어가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남일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처럼 공산군측이 때로는 장광설(長廣舌)로 때로는 침묵으로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으며 지연시킴으로써 군사분계선 논쟁은 기진맥진한 상태에 접어들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그의 상관들이 강경조치를 지지해 주도록 간청하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완강한 입장을 바꾸도록 72시간의 여유를 주되, 아무런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겠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워싱턴 당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협상의 현 단계가 최후통첩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협상을 결렬할 때는 그 책임이 명백하게 공산군측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들은 38도선이 협상을 결렬시키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스크바와 북경이 그들의 입장을 변경시키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과거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협상을 오래 질질 끄는 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침착과 인내 그리고 불굴의 노력과 확고부동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대함으로써 공산군측은 극도로 긴장하게 되고 반면에 유엔군측은 일관된 강력한 입장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휴전회담은 결렬의 위기를 모면하기는 하였으나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제안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주장의 합리성을 내세움으로써 성과없이 계속되었다.

남일은 “진리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38도선에 관한 입장을 반복하였다. 또 유엔군

이 주장한 지상(地上)에서의 보상요구를 어리석고 오만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의 태도가 오히려 융통성이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하였다. 이와 같이 어느쪽도 연약함의 표시나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려 하며 아무런 진전도 없이 말싸움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을 때 소련의 「프라우다(Pravda)」지는 “조선인민들은 개성 휴전회담에서 자신들의 영토를 놓고 거래를 하려는 미 약탈자들에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공산군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기사를 실었다.⁸⁾ 이에 유엔군측은 “군사분계선은 전적으로 공산군 통제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나 현 전선과 전반적인 군사상황에 기초하여 영토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고 제의하였지만, 보상개념에는 확고하였다.

마침내 이러한 난관을 타결하기 위하여 유엔군측은 8월 15일의 제 25차 본회담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회담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왔다. 그것은 쌍방에서 각각 1명의 대표단과 2명의 보좌관으로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좀더 비공식적인 원탁테이블에서 보다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하면 2항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데 착안한 것이었다. 공산군측이 다음날 대표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공산군측은 이상조(李尙朝)와 세팡(謝方)을 대표로, 유엔군측은 호데스(Henry I. Hodes)와 버크(Arleigh A. Burke)를 각각 대표로 임명하였으며, 분과위원회가 건의안을 만드는 동안 본회의는 휴회하기로 하였다.

최초의 합동분과위원회는 8월 17일에 열렸다. 다음날(8월 18일) 회의에서 공산군측은 그들의 38도선 주장에 약간의 변경을 가져온 안을 지도와 함께 내놓았다. 그들이 내놓은 안은 동부에서는 38도선 북측으로 4km, 서부에서는 남쪽으로 4km를 지나는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까지의 지도는 모두 치우고 새로 시작하자고 하였다. 이는 38도선에 대한 완강한 주장에서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호데스와 버크는 이를 유엔군측에서 타협할 길을 열

어주면 다른 문제들도 토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3차회의에서 호테스는 “토의 목적상 모든 해군과 공군력의 효과는 현 전선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자”고 제의하자 공산군측은 이에 기초하여 토의하기를 받기며 유엔군측이 명확하며 새로운 안을 내놓기를 조심스럽게 기다렸다. 2일간을 관망한 뒤 공산군측은 38도선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더욱 후퇴하여 만일 유엔군측이 보상의 개념을 포기한다면 현 전선에 따르는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시사하였다. 이는 결정적인 진전이므로 유엔군측은 조정의 원칙에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8월 22일의 회의는 합의 가능성에 많은 진전을 이룬 가운데 산회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여기에 고무되어 공산군측이 ‘전선의 일반선(General area of the battle line)’ 보다는 기꺼이 ‘접촉선(line of contact)’에 관한 토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접촉선을 중심으로 4km 폭의 비무장지대 설치계획을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분과위원회의 희망적인 진전 전망은 곧 사라지고 말았다. 이 무렵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이 개성주변 중립지대에서 연이어 위반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8월 22일 제6차 합동분과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회의를 취소하였으며, 이는 마침내 개성회담이 막을 내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2. 中立違反事件의 捏造와 協商決裂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협상은 38도선과 접촉선 주장이 맞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합동분과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 무렵(8월 23일)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이 중립협정 위반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을 최소함으로써 협상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게 되었다.

회담과 관련한 중립협정을 위반하였다는 비난과 맞비난은 휴전회담 개시후부터 빈번히 일어났었다. 중립협정은 당초 회담장소인 개성이 공산군 통제하에 있음으로 인하여 유엔군측 기자단의 출입이 거부되고 대표단의 출입과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자 회담장 통제규칙에 관한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군측 주장에 의해 7월 15일에 체결된 것이었다.

이의 요지는 “개성 중심점에서 반경 5마일의 중립지대를 상정하고 쌍방은 이 지대내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며 헌병기능을 수행하는 병력 외의 모든 군부대를 철수한다. 회담실 중심의 반경 1/2마일 이내에는 어떤 무장병력도 두지 않는다. 유엔군 대표단은 주간에 판문점-개성 도로를 공산군측에 사전통고 없이도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밖에 유엔군측은 7월 8일 예비회담에서 “개성으로 출입하는 공산군측 대표단 차량호송대는 백색 십자표지를 하고 시간과 경로를 유엔군측에 사전통고하면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었다.

이 협정은 지극히 명백하고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비난이 곧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 협정에 합의한 다음날인 7월 16일에 공산군측은 유엔군 병사들이 판문점 방향에서 사격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비록 부상자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는 중립지대내의 무장행위라고 언급하였다. 유엔군측의 조사결과 이날 판문점지역에서 사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사격이 중립지대를 향해 가해졌는지, 유엔군이 사격을 했는지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공산군측도 이를 더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7월 21일 공산군측은 유엔군 항공기가 황주와 사리원에서 백색기를 단 대표단 보급차량들에 기총소사를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유엔군측은 이 차량대열의 이동에 관한 사전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 공산군측이 전선병력을 증가하기 위하여 평양-개성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

문에 유엔군측은 백색기를 달았다 하여 모든 차량을 공격대상에서 면제시켜 줄 수는 없었다.

이 두 사건은 비교적 사소한 것으로서 공산군측도 크게 문제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8월 4일의 중공군 1개 중대가 회담지역을 침범한데 대한 유엔군측의 강력한 항의로 인하여 수세에 처하자, 공산군측은 이에 대한 반격을 하기로 작심한 듯 이후 잇달아 사건을 날조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8월 7일에는 전날 유엔 항공기가 시변리에서 백색기를 단 보급트럭을 공격하였으며, 또한 40명의 유엔군부대가 판문점 교량을 봉쇄하고 그중 수 명이 비무장 공산군에게 사격을 가하였다고 통보해 왔다. 유엔군측은 전자에 대하여는 사전통고가 공격면제의 유일한 보장이며, 후자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그 시각 그 장소에 유엔군부대가 있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응수하였다. 13일에는 또다시 시변리에서 공산군측 보급차량이 유엔 공군기의 기총소사를 받았다고 항의하였다. 유엔군측은 역시 사전통고가 없었으므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이처럼 사건이 빈발하자 쌍방 연락장교들이 중립협정에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기로 하고 최종합의를 추구하고 있을 때 몇몇 새로운 사건이 또 일어났다. 그중 8월 19일에는 중공군 헌병소대가 중립지대인 송곡리에서 순찰도중에 복병의 습격을 받아 소대장이 사망하고 한 소대원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공산군측은 즉각 유엔군측이 중립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였다. 유엔군측의 조사결과 목격자들의 엇갈린 증언에도 불구하고, 중공군 순찰대가 습격받은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 시각에 송곡리 가까이에는 국군이나 유엔군부대가 없었다. 그런데 일부 목격자가 공격대원의 몇 명이 민간복장을 하고 있었고 전에도 그곳에 나타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유엔군측에서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우호적이며 독자적으로 활동중인 유격대들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언급할 필요도 없이 공산군측은 이러한 설

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을 선전공세에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이 사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공산군측이 8월 23일 23:20에 유엔군 항공기가 개성 회담장을 폭격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 벌어졌다. 23:30에 공산군측 연락장교의 주장과 사건조사요구를 받은 유엔군측 연락장교 키니(Andrew J. Kinney) 일행이 24일 01:45에 현장에 도착하여⁹⁾ 캄캄하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증거조사를 한 결과, 그곳에는 몇 개의 작은 구덩이가 있었고 소위 폭탄 파편이란 것은 항공기 기름탱크와 엔진덮개의 일부이었다. 공산군측은 폭탄 중의 하나는 네이팜탄이라 주장하였으나 어느곳에도 땅이 그을린 흔적이 없었다. 증거라고 주장한 것을 검토 후 키니 대령은 모든 일은 “터무니없는 조작(nonsense)”이라고 하자, 공산측의 연락장교 장대령은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회의는 취소한다”고 응수하였다.

판문점으로 복귀중에 공산군측이 되돌아가 완전한 조사를 하자고 요구하자 키니 대령은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다시 개성으로 갔다가 현장에서 키니는 두 개가 넘는 작은 구덩이와 몇 개의 불에 탄 천 조각, 그리고 항공기 금속조각들을 보았다. 한 구덩이에서는 휘발유 냄새가 풍기고 저급의 네이팜탄일 수도 있는 폭발되지 않은 물질이 있었다. 유엔군측 조사요원들은 모든 증거물들을 날이 밝을 때까지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그것을 수거하여 분석하겠다고 하며 조사는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유엔군측 조사원에 의하면 여기에는 공산군측이 회담을 연기하기 위하여 사건을 교묘히 조작하였다고 보이는 점들이 많았다. 우선 그 시각 그 장소 상공에는 유엔 공군기가 1대도 비행하지 않았고 적의 병사는 폭격한 항공기가 신호등을 켜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유엔 항공기가 폭격시에 취하는 절차상의 관행에 어긋나며, 구덩이는 항공폭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작았다.¹⁰⁾ 그 크기가 폭 60cm, 깊이 30cm 규모이어서 수류탄 정도의 폭발물을 땅에 묻어 폭발시

켜 조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¹⁾ 증거의 이와 같은 기술적 모순이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측은 그 증거물을 분석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수거하려 서두르는 점이나, 특히 하급제대 장교가 재빨리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공산군측의 동기에 적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유엔군사령관은 이는 공산군측이 협상을 연기시키되, 그 책임을 유엔군측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조작된 사건이며, 회담취소 결정은 이에 앞서 이미 고위층에 의해 결정되었음이 틀림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날(8월 24일) 11:00에 김일성과 팽덕회는 리지웨이 장군에게 “유엔군 항공기가 공산군측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개성 중립지역을 고의적으로 폭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세계 인민 앞에 엄중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판문점 연락장교를 통하여 보내왔다. 다음날(8월 25일) 리지웨이 장군은 “날조된 사건에 대한 공산군측의 항의는 회담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공산군측이 중단시킨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면 대표를 파견하겠다고 응수하였다.

이때 리지웨이 장군은 공산군측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하였다.¹²⁾

- 1) 공산군측은 협상을 결렬시키되 그 책임을 유엔군측에게 덮어씌울 구실을 필요로 하였다.
- 2) 공산군측은 당시 미·일(美·日) 평화회담 및 소련의 평화공세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미국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소련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려고 회담을 지연시키려 하였다.
- 3) 공산군측은 그들의 선전적 입지를 강화하고 회담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회담의 연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8월 4일 중공군의 회담장 침범사건 이후 수세에 몰려 있었다.

이밖에도 공산군측은 그들의 38도선 주장이 합동분과위원회에서도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다음 단계의 새로운 계책을 수립하려면 회담을

지연시켜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다.

그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간에 공산군측에 의한 사건의 날조와 그로 인한 비난과 맞비난 끝에 공산군측이 의도적으로 회의를 취소함으로써 휴전회담은 협상을 시작한지 한달 반만인 1951년 8월 24일부터 무기휴회로 들어가고 말았다.

3. 會談의 再開 努力

공산군측이 1951년 8월 23일의 개성 항공폭격 조작사건을 빌미로 8월 24일에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휴전협상은 개막된지 약 1개월 보름만에 결렬되고 말았다. 그런데 공산군측은 이후에도 새로운 사건들을 날조하여 연락장교를 통해 유엔군측에 통고하고 항의하는 일을 되풀이하였다. 8월 29일에는 유엔군 항공기가 개성 중립지역에 조명탄을 투하하였다고 비난하였고, 다음날에는 유엔군부대가 판문점 교량 넘어로 사격을 가하여 공산군 순찰대를 공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유엔군 항공기가 두 번째로 개성을 폭격하였다고 하였다. 이때마다 유엔군측은 현장조사 후 어떠한 유엔군 항공기도 결코 그러한 사건을 범한 일이 없으며 지상사건에 관하여는 아마 유격대원의 소행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리지웨이 장군과 조이 제독은 앞으로도 예상되는 공산군측에 의한 조작극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회담장소를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미 리지웨이 장군은 8월 초에 이를 제기한 바 있으며, 조이 제독도 8월 중 조작사건이 쏟아지자 이에 적극 가세하였다.

미국정부도 유엔군측의 장소이전 제의를 수용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이것을 회담재개의 절대적 필요조건으로 보지는 않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만일 공산군측이 협상을 완전히 결렬시킬 의도가 있다면 사건

을 조작하여 유엔군측을 비난 후 회담에서 철수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할텐데 항의와 설전을 계속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 소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회담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공산군측은 이러한 항의와 비난을 통해 그 내용의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선전전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는가 하면 유엔군측을 수세에 몰아넣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

이 무렵인 9월 2일에,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에게 “유엔군 항공기 1대가 9월 1일 03:00에 개성 중립지역 상공에 침입하여 폭격을 하였는데, 조사결과 2개의 폭탄이 남일의 숙소로부터 불과 500~600m 떨어진 곳에 투하되었음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유엔군 항공기가 개성 중립지역 상공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간에 25쇼티(sorties)나 침입해 왔다”고 비난하면서 다음 요지의 결론을 담은 항의 서한을 보내왔다.¹³⁾

귀측은 8월 23일부터 9월 1일간에 야기된 중대한 도발사건에 관하여 엄중하고 책임있는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개성 중립협정을 위반하는 그와 같은 도발행위의 재발방지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 결과로 개성 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은 9월 6일자로 김일성과 팽덕희에게 “유엔군부대는 중립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공산군측의 주장은 고의적으로 날조한 허위사건이라고 반박한 다음, 개성에서 협상을 계속하면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회담이 지연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회담장소 선정을 위한 연락장교 회의를 지체없이 판문점에서 열자”라는 내용으로 회신문을 전달하였다. 서한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¹⁴⁾

본관은 귀하가 본관에게 보낸 1951년 9월 1일부의 전문을 9월 2일에 접수하였다. 그것은 아직도 사실의 근거없이 유엔군의 성의를

비난하는 귀하의 또 하나의 허위항의에 불과하다. 귀하가 지적한 사건은 근거가 없을뿐더러 고의적으로 날조한 허위사건이다. 본관의 휘하부대는 본관이나 또는 본관의 대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협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판명되었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여기서 재차 명확히 성명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만약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유엔군에 대한 악의에 찬 비난과 허위적인 증거를 날조하기 위해서 귀하의 군대가 감행한 것이라 추측하는 바이다.

본관은 귀하에게 책임이 있는 지역내에서 귀하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 일을 보장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본관은 귀하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내에서 귀하의 군대가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조작해 내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관은 전에 본관의 휘하부대는 개성 중립지대에 관한 협정의 제항목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증한 바 있다. 본관의 휘하부대는 이 협정의 제항목을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 본관의 보장은 아직도 유효하다.…… 본관은 본관의 중요한 관심사가 정당하고 명예로운 군사휴전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여 왔다. 지난 몇 주일간에 발생한 사건들은 본관과 전세계에, 회담장소인 개성에서 협상을 계속하게 된다면 귀측이 가일층 회담을 방해하고 협정에 도달하는 기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8월 23일에 성명한 휴전교섭의 중단을 철회한다면, 본관은 방해 없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회담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지체없이 판문점 다리에서 연락장교회의를 열어 토의할 것을 제의한다.

유엔군사령관이 회담장소 이전문제를 제기하고 공산군측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차 공교롭게도 또 다른 사건이 발발하였다. 이번엔 명백한 중립협정 위반사건이었다. 즉 9월 10일에 유엔군 항공기 1대가 항로의 착오로 개성 상공에 진입하여 기총소사를 가한 것이었

다. 다행히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공산군측은 정식으로 항의를 제기하였다. 조사결과 조이 계독은 다음날 위반행위를 솔직히 시인하면서 사과서한을 발송하였다.¹⁵⁾

이 서한은 공산군측의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공산군측은 9월 12일에 김일성·팽덕희 명의로 보내온 회신을 통해 유엔군측이 9월 6일자 서한에서 개성 중립협정을 위반한 도발적 행동을 부인하고 또한 그 처리를 거부하였다라고 비난함과 아울러 유엔군사령관의 회담장소 변경제의를 개성 중립협정위반과 휴전협상의 진전방해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책임을 회피할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수락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서한의 말미에서 그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귀측이 부단이 발생되고 있는 협정위반을 신속히 종결하고 아측에서 항의한 수많은 도발사항을 즉각 처리할 것을 재차 요망한다. 오직 협상은 그와 같은 정상적이며 평등한 기초 위에서만이 재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귀측은 협상지연과 방해 및 그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언하였다.¹⁶⁾ 이는 결과적으로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유엔군사령관은 휴회상태에 있는 회담을 재개시켜야 하겠다는 판단하에, 회담장소 변경건(件)은 접어둔 채, 9월 17일에 회담재개를 위한 조건의 토의를 위해 판문점에서 연락장교회의를 열자고 공산군사령관에게 제의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사령관은 이 서한의 서두에서 유엔군측은 9월 10일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중립지대를 침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¹⁷⁾

2일 후 9월 19일에 공산군측은 김일성과 팽덕희 명의로 회신을 보내어 유엔군측이 9월 10일자 사건만 인정하고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부인한 데 대해 비난함과 더불어 “미해결 위반사건으로 인해 협상의 진행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쌍방의 대표가 지체없이 개성에서 휴전 회담을 재개하도록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유엔군사령관이 제의한 회담재개를 위한 조건의 토의”에 대하여는 “재검토할 필요

가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반면 “전술한 미해결 사건을 처리하고 개성지구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설치를 제의한다. 이를 위한 개성회담 일시를 논의하기 위해 연락장교협의를 갖자.”고 하였다.¹⁸⁾

이때 유엔군사령관은 공산군측의 태도가 명확히 달라질 때까지 본 회담의 재개를 원치 않았다. 공산군측이 자신이 제의한 회담장소 이전 제안도 거부하고 회담재개를 위한 조건의 토의도 필요없다고 반박한 반면, 본회담에서 미결된 조작사건의 처리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리지웨이 장군은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을 관철시킬 복안이었으며, 회담재개 조건은 본회담에서가 아니라 연락장교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심사숙고 끝에 9월 23일, 공산측이 주장하는 “개성 중립지역 위반사건문제는 끝났으며, 휴전회담을 이유없이 중단한 책임은 공산군측에 있다”고 천명함과 아울러 “쌍방이 회담의 재개를 위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토의하기 위하여” 연락장교회의를 9월 24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의하였다.¹⁹⁾

공산군측이 이 유엔군사령관의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쌍방은 마침내 협상중단 1개월만인 1951년 9월 24일 판문점에서 연락장교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쌍방 연락장교는 회담지연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는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공산군측은 개성 본회담 재개 일시 문제의 토의만을 고집하였고, 유엔군측은 휴전회담이 중단됨이 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제조건의 토의를 하자고 맞섬으로써 회의진행과 관련해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연락장교회의마저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 공전을 거듭하자, 드디어 유엔군사령관은 9월 27일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송현리(松峴里) 부근 쌍방전선의 중간지점으로 옮길 것을 김일성과 팽덕회에게 제의하였다.²⁰⁾

그러나 공산군측은 “회담장소 변경제의를 거부하고 계속 개성에서 회담을 갖되, 개성의 중립을 엄격히 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자”는 회담을 10월 3일에 보내왔다. 공산군측은 회담장소가 자신들의 지배

하에 있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중단된 회담을 하루 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회담장소를 “먼저 공산군측이 쌍방전선의 중간지점에 선정하고 본관이 수락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장소에서 양측 대표단이 회견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10월 4일에 공산군측에 보냈다. 이러한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회담장소 이동에 대한 공산군측의 동의를 얻어내었다. 그들은 10월 7일에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판문점(板門店)으로 옮기되 중립지대 범위를 확대하고 회담장을 공동방호 책임하에 두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한을 유엔군사령관 앞으로 보내왔다.²¹⁾

리지웨이 장군은 다음날인 10월 8일에 공산군측이 거명한 판문점이 그가 제시한 새 장소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인 대표단의 이동과 회담장 관리상의 평등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전문을 공산군측에게 발송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회담장의 중립지대와 관련하여, 회담장소를 개성과 문산을 포함해 소중립지대화하고 개성과 문산에서 판문점에 이르는 도로가 공격받지 않도록 하면 족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이와 동시에 즉시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에게 “회담재개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곧 판문점 동쪽의 고지군을 점령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회담장 방호와 차후 군사분계선 설정 등을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려는 포석이었다. 유엔군측이 송현리를, 공산군측이 판문점을 새 회담장소로 제의한 가운데 유엔군사령관이 그 남쪽 고지군을 선점하도록 전략을 짜고는 있으나, 이곳에 회담장을 정함으로써 개성이 적의 점령지역화되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던 것이다.

쌍방의 합의로 마침내 1951년 10월 10일 판문점에 설치한 천막에서 연락장교회의가 열려 회담재개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도 처음부터 난항에 봉착하였다.

우선 가장 중요한 장소문제는 이미 판문점으로 한다는데 합의하였으나, 공산군측 연락장교는 다음 본회담 재개 일자만을 다루려고 하였고 기존의 개성 중립지역 반경 5마일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한 반면, 유엔군측은 회담재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의 협의는 물론 개성 중립지역의 크기를 축소하려는 방침이었다. 회담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개성 중립지역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위반사건의 가능성을 그만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유엔군측 주장의 논리였다. 여기에 10월 12일 유엔군 항공기(F-80)가 개성지역 상공을 통과하면서 그중 1대가 기총소사를 한 사건²²⁾이 겹쳐 회의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쌍방 연락장교들은 타협과 절충을 계속하여 10월 22일에 회담재개의 조건을 규정한 기본협정과 양해사항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기본협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²³⁾

기본협정 요지

- 1) 회담장소는 판문점으로 명명한다.
- 2) 회담장은 반경 1,000야드 크기로 제한한다.(요도 참조)
- 3) 회담장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금지한다.
- 4) 회담장내의 헌병요원은 쌍방 각각 회담시에는 장교 2명과 사병 15명, 그외의 경우에는 장교 1명, 사병 5명으로 제한한다. 헌병은 오직 소화기(小火器), 즉 권총, 소총 및 카빈만을 휴대한다.
- 5) 양측 대표단은 자유로이 회담장으로 출입하고 자유로이 회담장내에서 이동한다. 각측의 대표단은 당해 수석대표가 결정하는데 따른다.
- 6) 시설은 연락장교들이 협정한 대로 준비한다. 즉 공산군측은 회의용 천막을 설치하고 유엔군측은 마루깔기, 난방, 조명을 담당한다. 이외에 각측은 자신들의 시설을 각자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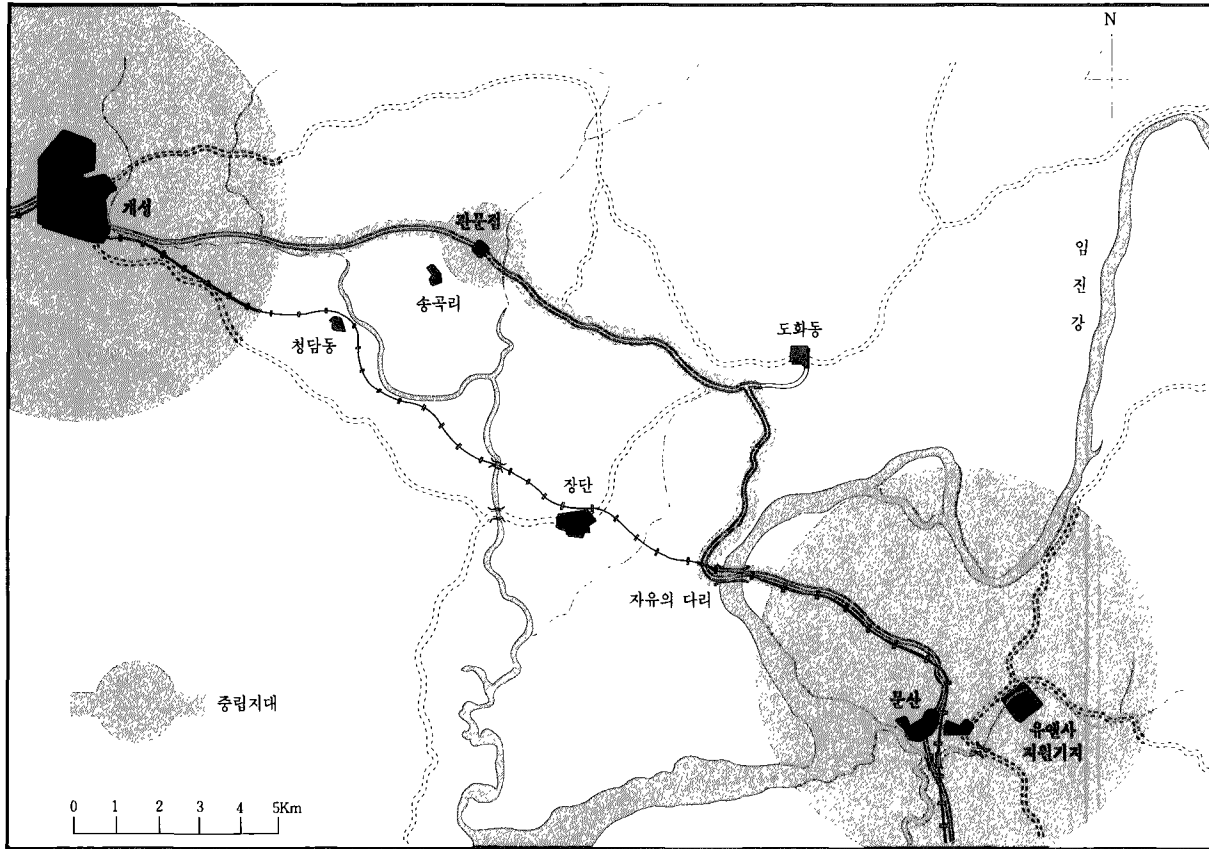
- 7) 중립지역은, 개성과 문산은 반경 3마일로 제한하고, 개성-문산도로는 양쪽 각각 200m로 한다.
- 8) 회담재개 일시는 연락장교간의 합의로 정한다.

이밖에도 양해사항으로 유엔군측은 유엔 항공기가 우발적으로 중립지대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와 유엔군사령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 비정규군이나 게릴라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에 대하여는 유엔군측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데에도 합의를 받아내었다. 이에 부가하여 공역(空域)에서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에 탐조등과 방공기구(防空氣球)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쌍방은 1951년 10월 22일에 협상장소 이전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 회담장의 명칭과 정확한 위치를 확정지었다. 이날 연락장교들은 회담장소의 명칭을 판문점으로 확정된 다음, 정확한 회담장소의 위치를 판문점 길 남쪽에 있는 네 채의 초가집을 중심으로 반경 1,000야드의 크기로 할 것에 합의하고 이를 지도에 표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마을의 이름은 '널문리'였다. 그러나 널문리는 회담의 공용어(한글·중국어·영어)중 중국어로 표기할 수가 없어 이를 한자음으로 표기하기 위하여 판문점(板門店)으로 호칭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널문리'라는 한 농촌마을이 '판문점'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²⁴⁾

쌍방은 수석대표가 이 협정에 비준을 한 다음 24일까지 판문점에 천막을 설치하고 25일부터 본회담의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결국 공산군측은 스스로 협상을 결렬시킨지 만 2개월만에 다시 협상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연출한 사건과 그밖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몇몇 사건을 빌미로 협상지연 책임을 유엔군측에 전가하여 선전에 열을 올리었다. 그러나 이것이 38도선과 접촉선에 관한 유엔군측의 입장을 변경시키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공산군측은 회담장소를 개성보다 남쪽의 판문점

판문점과 중립지대



중립지대: 판문점 반경 1000YDS, 개성·문산 반경 3마일 도로 400m폭

으로 옮기는데 동의함으로써 차후 서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 설정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한편 유엔군측은 이 무렵 전전선에 걸쳐 공세작전을 펴고 공중에서 적을 보다 압박하며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여, 접촉선이 군사분계선으로 될 것에 대비해 방어선을 개선하는 등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군사적 면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제 2 절 軍事的 壓力：陣地戰의 展開

1. 休戰協商 初期 雙方的 軍事戰略

(1) 共產軍側의 攻勢力量 挽回戰略

개성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되었으나 공산군측의 지연작전으로 7월 26일에야 의제의 합의를 보았으며 그후 속개된 제2항 군사분계선 협상에서도 공산군측의 38도선 주장과 유엔군측의 접촉선 주장이 맞서 난항이 계속되던 중 8월 23일 공산군측의 일방적인 회의 불참선언으로 회담의 전망은 더욱더 불투명하였다.

이것은 공산군측의 협상목적이 의제의 조기 타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담을 지연시키며 지난 춘계공세에서 입은 대손실을 우선적으로 보충하고 공세역량을 축적하여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군사적 우위 확보에 기초하여 재공세를 취하거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이었다. 이는 중공 『항미원조전사』 중에서 아래 구절이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다.

아군〔중공군〕은 병력은 우세하나 화력이 열세하고 항공지원이 뒤

따르지 못해 대규모 공세작전을 펼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방어전략으로 전환하여 유리한 지형에서 지구전을 펴면서 적군[유엔군]과 아군[공산군]의 전력비(戰力比)를 바꾸어 최종적으로 승리하거나 적군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는 작전지도 전략을 채택하였다.²⁵⁾

이러한 전략에 따라 공산군측은 휴전회담으로 인한 전선의 소강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방어선을 3중으로 편성하고 유엔군의 항공폭격이나 포격에도 직격탄이 아니고서는 지탱할 수 있도록 유개화 및 엄체화하였으며,²⁶⁾ 야포, 고사포 등 화기와 장비의 전방추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한편 항공기가 2개월 내로 지원될 것을 고려, 9월 공세를 목표로 전력의 정비와 강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적은 협상이 시작된지는 불과 10일밖에 안 되지만 전선이 교착된 후 1개월여가 지난 7월 20일경에는 이미 유엔군 전초선으로부터 1~5km 떨어진 지역의 주요 지형지물에 연한 전초저항선(OPLR : Outpost Line of Resistance)까지 설치하고 이곳에서 유엔군측의 작전활동에 대해 강력한 저항을 하였다. 유엔군측은 이 전술의 변화가 종전의 적방어전술의 관행이나 교리와는 다른 것으로써 전방지역에 병력과 보급품의 증강이 이루어져 공격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징후로 판단하였다.

7월 하순 적은 유엔군의 정찰활동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하였고, 자체 정찰활동과 아군의 주요지역에 대한 탐색활동도 강화하였으며 장마로 인한 불순한 기상조건을 이용해 부대도 전방으로 추진 배치하는가 하면 포병도 전방으로 전개하고 기점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적이 부대배치의 조정 없이 곧바로 공격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 가고 있는 징후로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징후는 8월로 접어들면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추어 볼때, 휴전협상은 그들에게는 전력의 복구

와 지구전에 의한 승리획득의 한 방편일 뿐 협상의 조기 타결이 목표가 아니었다. 따라서 협상은 시작부터 지연된 반면 공산군의 전력은 점차 강화되었다.

(2) 유엔軍의 制限目標攻擊戰略

1) 夏季攻勢作戰計劃

● 대공세작전계획의 유보

휴전회담이 시작될 무렵 군사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유엔군측은 캔사스 와이오밍선의 방어력을 강화하여 이곳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를 갖추면서 휴전회담의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용할 여러 종류의 전략을 수립하고 우발작전계획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실제로 실시된 작전은 휴전협상의 타결을 지원하고 아군의 방어선을 개선함은 물론 적의 공세 역량축적을 거부하기 위한 균형파괴에 중점을 둔 제한목표공격작전에 국한되었다.

우선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은 7월 초에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의 지시에 따라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9월 1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전선에 투입된 중공군을 섬멸하고²⁷⁾ 평양-원산 선까지 점령할 대공격작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작전은 그 규모에 걸맞게 ‘제압작전계획(Plan Overwhelming)’²⁸⁾으로 명명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적의 전력에 현저한 약점이 나타나거나 적이 북으로 철수할 경우 제8군의 임무가 현 전선에서의 방어가 아니라 공격작전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추가적인 전력이 제8군에 지원될 경우 이 계획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리지웨이 장군은 합동참모본부가 7월 10일에 “주요 지상작전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허락을 득해야 한다”는 제한사항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이 작전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의 형성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휴전협상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대규모 작전의 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리지웨이 장군은 이 작전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일단 휴전회담을 좀더 지켜보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²⁹⁾

사실 이 작전은 원산에 상륙작전의 실시와 더불어 캔사스 와이오밍선에서 일제히 진격한다는 계획으로 유엔군측이 중공군의 침략을 격퇴한 후 수립한 전면공격 작전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시행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정일권(丁一權) 총참모장은 그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의 취소로 인한 안타까움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위싱턴 당국은 북진 당시 소련과 중공을 자극한다 하여 맥아더전략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휴전협상을 위해 밴플리트 작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맥아더전략이 억제당함으로써 북진통일이 좌절되었듯이 밴플리트작전이 제한당함으로써 이번에는 평양-원산 진격이 좌절되었습니다.³⁰⁾

● 제한목표공격전략의 기본개념

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평양-원산으로 전면공격 작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내에서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그는 적군은 전선의 소강기를 이용해 전력을 증강하여 수세에서 공세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군은 무관심 속에 정찰활동을 계속해 포로획득을 하지 못하고 적정의 수집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었으며 훈련도 군의 전의 고양과 활력을 회복하기엔 한계가 있어 전반적으로 전투효율이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였다.³¹⁾ 군사령관은 이러한 현상은 군대가 휴전협상이 성공하리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빠져들어 작전활동을 소극적으로

전개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적의 공격시 곧 패배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하였다.

따라서 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적에게는 혼란을 주는 반면 아군의 전선첨단을 날카롭게 다지며 특히 방어선의 취약부분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한목표공격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러한 개념하에 7월 29일, 제한목표공격과 중심깊은 정찰활동을 통해 적의 균형을 파괴하고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적 배치를 탐색하라고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미 제1군단은 기전리(CT 1725) 부근 고지군에 대한 중심깊은 정찰과 철의 삼각지에 대한 중심깊은 전투정찰을 실시하도록 강조하였고, 제9군단은 현행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미 제10군단은 대우산 공격을 계속할 것과³²⁾ 우인점 국군 제1군단과 협조하여 1031고지에서 뺏어내린 고지군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군단별 작전중점을 부여하였다.³³⁾

그러나 이 명령은 2일 뒤인 7월 31일에 취소되었다. 그 이유는 이때 시작된 30년 이래 가장 심한 장마로 인하여 기상이 불량하고 시계가 제한되었으며 통신이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도로가 침수되어 부대기동이 어려웠고 포병사격의 유도는 물론 항공지원 역시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전은 미 제2사단 제38연대가 대우산을 탈취한 상황에서 중단되었으며 장마가 개인 8월 중순에 가서야 재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작전명령으로 각 군단 특히 미 제10군단의 방어선 개선을 위한 작전계획이 발전되고 있었다. 당시 군의 방어선 개선을 위한 기본전략은 방어선 중 남쪽으로 치진 만곡부를 밀어올려 기복이 없도록 고르고 아군병참선과 캔사스선 방어에 위협을 주는 지형지물을 탈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군의 방어선 중에서 가장 취약한 중동부지역 미 제10군단 전선의 중앙, 해안분지 북쪽 고지군을 점령하여 만곡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와 협조된 작전을 통해 국군 제1군단 방어선을 남강까지 추진한다. 다음으로 미 제9군단 정면의 금성분지를 점령하여 철의 삼각지를 확고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함은 물론 철원-김화 간의 철로를 확보한다. 끝으로 미 제1군단의 방어선을 10km 정도 추진하여 연천-철원 철로를 확보함과 아울러 이를 철원-김화 철로와 연결시켜 서울-김화 도로는 물론 이 철로를 군병참선으로 이용한다.

군은 제한목표공격전략의 일환으로 방어선 개선목표를 구체화함과 더불어 방어개념, 특히 와이오밍선(Wyoming Line)에 대한 방어개념을 재정립하고 캔사스선(Kansas Line)과 같은 강도로 축성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방어선 강화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7월 24일 미 제1군단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와이오밍선의 운용개념을 캔사스선과 연관지어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³⁴⁾

우리는 적이 캔사스 방어선에 도달하기 전에 적의 공격을 분쇄하고 그들을 지연하여 응징하기 위한 전초선(Outpost Line)으로서 와이오밍선을 점령하였다.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방어준비를 보다 잘 하게 하여 적이 캔사스선 아군진지에 도달하면 보다 적은 손실로 적을 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와이오밍선을 주저항선(MLR)이나 주전투진지로 계획하지 않았다. 그런데 적의 전면공세가 있을 경우에는 이는 여전히 우리의 방침이다. 하지만 적이 제한공세를 취할 경우에는 본관은 와이오밍선에서 적을 저지하거나 적어도 그곳에서 적에게 아주 가혹한 응징을 가하기를 원한다. 적이 와이오밍선을 공격할 경우 지난 5월 공세 때의 전력으로 공격한다면 우리는 적을 그곳에서 저지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와이오밍선에서 전면공격이 아닌 제한된 목표의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요약하면 밴플리트 군사령관의 새 방침은 ① 적의 제한목표 공격은 와이오밍선에서 저지하고, ② 전면공격은 와이오밍선에서 혹독한 응징을 가한 후 캔사스선에서 방어하라는 것이었다.³⁵⁾ 또한 이때 밴플리트 장군은 군사적으로 38도선이 왜 남북간의 군사경계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와이오밍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 1) 적이 화천지역의 도로망에 접근하게 되며 아군진지의 측방포위를 허용하게 된다.
- 2) 전력(電力)의 근원이며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화천저수지의 통제권을 적에게 양도하게 된다.
- 3) 적이 서울에 너무 근접하여 수도에 대한 기습공격을 허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군사령관의 새로운 방침과 강조사항에 따라 중부전선의 군단은 와이오밍선에 주력부대를 배치하고 방어시설을 강화하였으며 캔사스선에도 예비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이중(二重)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밖에도 밴플리트 장군은 제한목표공격에 국군부대를 투입하여 실전을 통해 전력을 향상하도록 지침을 부여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향상방안에 대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7월 16일 대구 육군본부에서 총참모장 이종찬(李鍾贊) 소장과 만나 국군의 교육훈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 동안 국군이 이룩한 성과를 찬양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다짐하였다.³⁶⁾ 특히 그는 이때 장교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총참모장과 250명의 초급장교를 미국 보병학교(Fort Benning)와 포병학교(Fort Sill)에 순차적으로 보내어 파견교육을 실시한다는 협의를 하였다.³⁷⁾

그리고 다음날에는 제주도 훈련소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제도에 관한 설명을 듣고 훈련현장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조언을 하였다. 이때 그는 특히 교육훈련 기간에 1주간의 야영훈련을 강조하였고, 각 학교의 집중화(located central area) 운용을 권고하였다. 그는 후방에서의 훈련소 및 학교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사단의 훈련에도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의 조치로 7월 하순 미 제9군단이 야전훈련소(Field Training Command)를 설치한데 이어 이후 3개월 동안에 각 군단에 1개소씩 모두 4개의 야전훈련소를 설치하였다.³⁸⁾ 이 훈련소에는 전선에서 군단예비로 전환되는 국군사단이 입소되어 9주 동안 개인훈련부터 대대훈련과정까지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력재정비와 재충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의 이러한 관심은 전장의 소강기를 맞아 군의 전력증강을 위하여 학교 및 훈련소의 복원과 확장을 추진중인 정부의 방침, 그리고 당시 국군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장교 및 하사관단의 형성이 가장 긴급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이를 적극 뒷받침한 리지웨이 장군의 노력이³⁹⁾ 어우러져 국군의 전력향상에 하나의 전기가 되었으며, 이는 곧 국군이 제한목표공격작전에 투입되어 거두어들이 승리와 전공으로 나타났었다.⁴⁰⁾

● 포복작전(Operation Creeper)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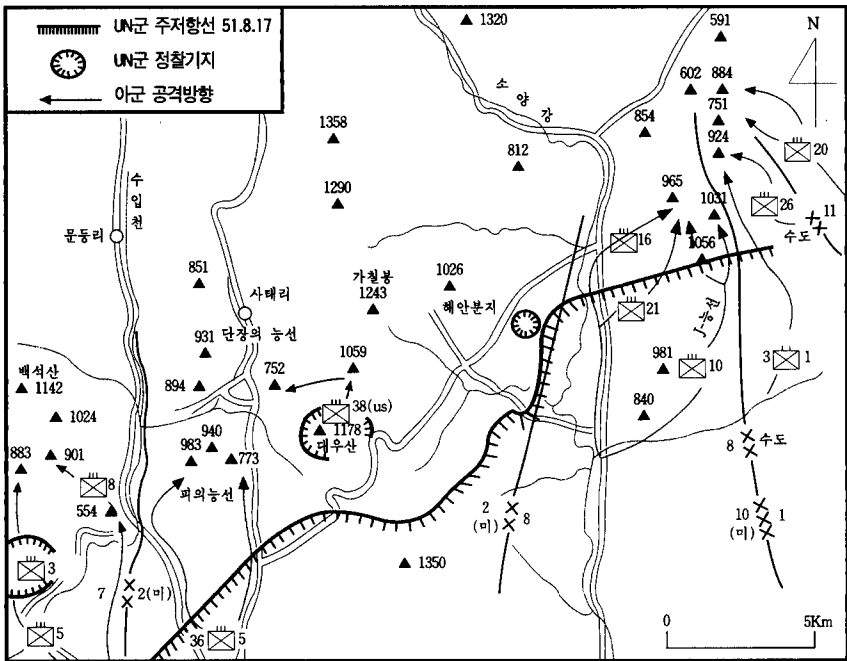
이와 같이 7월에 와이오밍선 방어개념을 정립하고 국군의 훈련제도를 발전시키는 동안 8월 중순에 접어들어 장마가 그치고 날씨가 개이자 군사령관은 7월 말에 중단한 제한공격작전을 속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8월 14일에 미 제10군단의 방어선 개선을 목적으로 그간 발전시켜온 포복작전(Operation Creeper)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작전은 해안분지를 공격하기 위한 전(前)단계 작전으로서 해안분지 동측인 동시에 서화계곡 동측의 884-924-1031고지로 이어지는 ‘낙시바늘(J Ridge)’ 형상의 종결실 능선을 탈취하여 서화계곡의 기동로를 확보하고 해안분지 동측 전선을 남강을 통제할 수 있는 지

역까지 밀어올려 동측방에서 해안분지를 압박한다는 개념의 작전이였다. 이 작전은 미 제10군단의 우익사단과 국군 제1군단의 좌익사단이 협조하여 8월 18일부터 실시하였다.

군사령관은 이 포복작전과 연계하여 해안분지 서측에서도 미 제2사단이 983고지(피의 능선)를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2사단에 배속된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983고지 공격에 투입되었다. 또한 이 고지 공격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 제10군단의 좌익인 국군 제7사단도 983고지 서측의 554-883고지 공격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포복작전은 해안분지 북측 능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 우익뿐만 아니라 좌익의 고지군으로까지 확대되었다.⁴²⁾ 또 이 작전에는 군사령관의 지침에 따라 미 제10군단에서도 국군부대를

포복작전계획 (Operation Creeper)



일선 공격부대로 운용하였다.

● 맹금발톱작전 / 아파치작전(Operation Talons/Apa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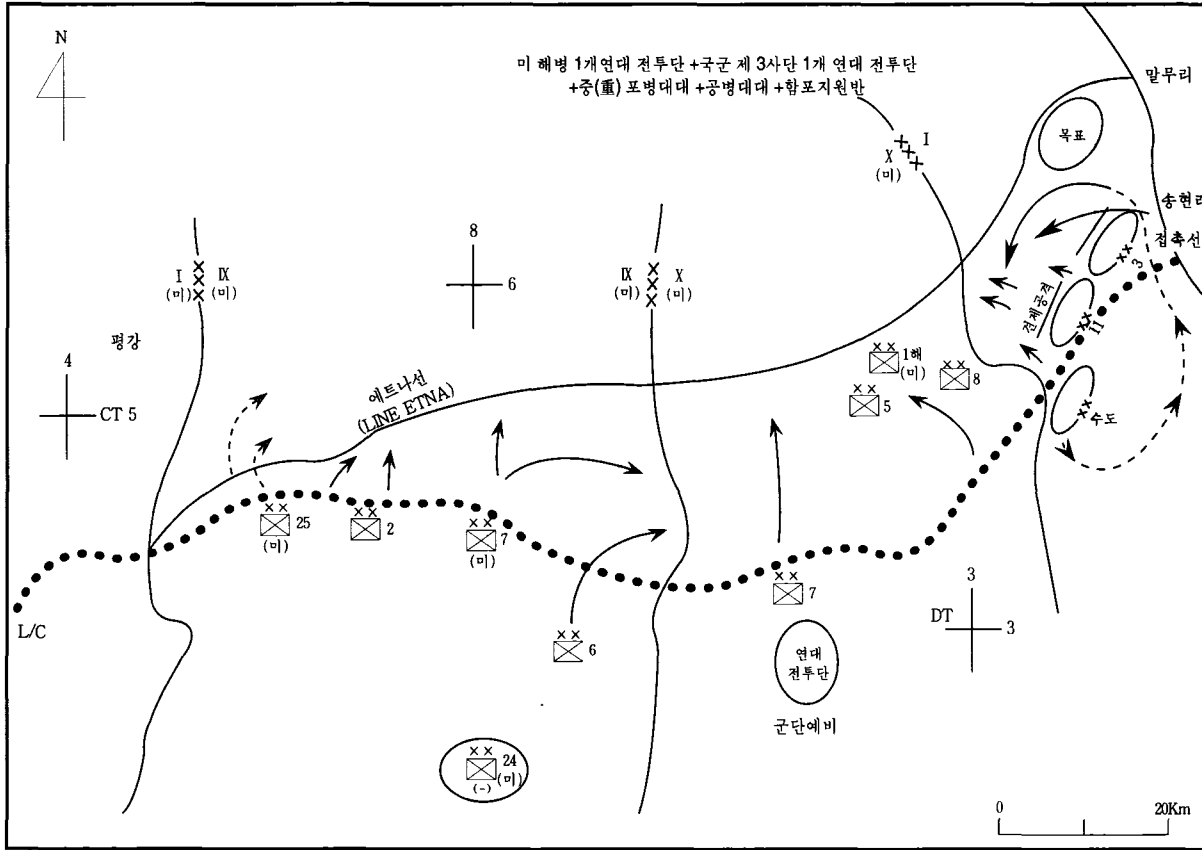
군사령관은 8월 말 포복작전이 사실상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미 제 10군단의 해안분지 서측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을 때인 8월 27일 유엔군사령관 임석하에 각 군단장이 참석한 서울의 군전방사령부 작전회의에서 새로이 계획한 ‘맹금(猛禽)의 발톱작전(Operation Talons)’을 9월 5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보고하였다.⁴³⁾ 이 작전의 주목적은 군의 동부전선 방어선을 최대 24km까지 밀어올려 만곡부를 제거함은 물론 이 지역에 투입된 적을 포위 섬멸한다는데 두고 아래와 같은 개념으로 작전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 1) 상륙작전부대를 운용하여 원산 점령
- 2) 기갑부대로써 해안도로를 따라 원산 남쪽 적의 보급기지 공격
- 3) 공세작전으로 제10군단 정면의 군방어선 만곡부 제거

이 개략 계획은 보고과정에서 유엔군사령관이 원산 부근 상륙작전을 기각함에 따라 나머지 지상작전만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령관은 발전시켜온 이 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9월 5일 실시할 예정으로 8월 29일에 ‘아파치(Apache)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명령을 하달하였다.⁴⁴⁾

이 작전의 목표선은 철원 동측 4km 지점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의 전투지경선으로부터, 동북쪽으로 금성 북쪽 4km, 이포리 북쪽 2km 지점을 지나, 동해안의 말무리(DT 4481)를 연결하는 선이다.⁴⁵⁾ 미 제9군단, 미 제10군단, 국군 제1군단이 목표선으로 진격하되,⁴⁶⁾ 동해안 국군 제3사단의 1개 연대전투단과 미 해병사단의 1개 연대를 주축으로 하는 특수임무부대⁴⁷⁾가 동해안 도로로 신속히 기동하여 구봉리(DT 4177)지역 목표를 점령하고 저지전지를 편성한다. 국군 수도사단은 특수임무부대를 후속하다가 송현리에서 서진하여 동

아파치 작전계획(Operation Apache)



주. EUSAK, Command Report Aug 1951. pp.80-82

부 산악지대의 1092고지(DT 3466)와 1098고지(DT 3557)를 점령하여 적을 포위 섬멸한다. 국군 제11사단과 제3사단(-)은 남강 남쪽에서 견제공격을 한다. 미 제9군단은 D일에, 미 제10군단은 D+2일에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선(Etna)을 확보한다. 미 제1군단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⁴⁸⁾

이에 따라 각 군단은 다가오는 작전에 대비해 8월 29일부터 부대 배치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작전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진행중이던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군사령관은 아파치작전에서는 규모로 보아 인명과 물자에 너무나 많은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이 작전을 수행할 가치가 있는지의 문제에 봉착, 이 계획의 시행을 재고하였다.

결국 밴플리트 장군은 9월 5일, 유엔군사령부에 계획된 아파치작전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는 한편, 9월중에도 어떤 목표선을 부여함이 없이 계속 ‘밀어올리기 전술(Elbowing Tactics)’로 동부전선을 정리하겠다고면서⁴⁹⁾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다.⁵⁰⁾

- 1) 아파치작전(Operation Apache)을 취소한다.
- 2) 이 작전 대신에 동부전선에서 제한목표공격(limited objective attack)을 실시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부여해 줄 것.
- 3) 이 작전은 동부전선에서 9월중 내내 실시한다.
- 4) 10월에는 개성-시변리 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 제1군단지역에서 작전을 실시한다.
- 5) 11월에는 금화에서 고저로 연결하기 위해 상륙작전을 포함한 작전을 확대한다.
- 6) 주일 2개 미군사단에서 각각 1개 연대전투단을 차출하여 30일 기간으로 한국전선에 훈련목적으로 투입하고 교대된 2개 연대는 그 동안 전선의 군단예비로 운용한다.

군사령관은 9월 8일에 이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아파치작전의 취소명령과 동시에 그대신 적의 균형을 파괴하며 최대손실을 강요하기 위하여 제한목표공격과 위력수색 그리고 현 전선에서의 정찰활동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⁵¹⁾ 이리하여 9월중에 미 제10군단지역을 중심으로 좌인접 미 제9군단과 우인접 국군 제1군단지역에서 많은 전투가 치러졌다.

● 소타격작전과 대타격작전(Plan Cudgel/Wrangler)⁵²⁾

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한 대로 동부전선의 ‘밀어올리기 작전’을 9월 말까지 종결짓고 10월부터 서부 및 중부전선 부대로 제한공격작전을 펼쳐 연천-철원-김화 병참선(철로)을 확보할 목표하에 해안분지·단장의 능선에서 전투가 한창 진행중이던 9월 19일 새로운 야심적인 2개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적에게 노출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철원-김화 철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전선을 와이오밍선보다 15km 추진함과 아울러 이곳에 설치한 적의 주저항선 전투전초선(OPLR)을 파괴한다는 개념의 ‘소타격작전계획(Plan Cudgel)’을 수립하였다. 이 작전은 미 제9군단이 주공으로 공격을 하되, 좌우 인접의 양개 군단도 조공으로써 적의 예비가 주공정면으로 투입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였다.⁵³⁾

다음은 이의 후속작전으로 중부전선의 병참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타격작전으로 확보된 철도를 이용해 평강-금성-고저선을 확보한다는 ‘대타격작전계획(Plan Wrangler)’을 수립하였다. 이 작전은 동해안의 고저에 사단급 규모 이상의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 중부전선의 제9군단이 동북방으로 진격하여 연결을 이루어 지대내의 적을 차단·포위·섬멸할 복안이었다. 이 작전의 상륙부대로는 국군 1개 사단과 미 해병대를 계획하였다.⁵⁴⁾

그러나 이 계획에는 미 제9군단이 북동쪽으로 금성-고저 도로에서 상륙부대와 연결을 시도할 시 군단에 가해질 예상되는 위협과 적

이 이 작전을 억제하려고 서부전선에 가할 공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밴플리트 장군은 이들 두 작전의 신속한 승인을 유엔 군사령관에 요청한지 며칠 후 그 스스로, 마치 ‘맹금의 발톱’작전계획을 취소했듯이, 이 두 작전을 취소했다.⁵⁵⁾ 따라서 ‘소타격작전’이나 ‘대타격작전’계획은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2) 秋季攻勢作戰

그러나 이 무렵 군은 미 제10군단이 해안분지를 점령하는 등 동부전선의 방어선 개선 목표를 대체로 달성하게 되었다. 군사령관은 9월의 제한공격 결과를 분석한 다음 9월 25일에 하계공세를 종료함과 동시에 추계공세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⁶⁾

추계작전 지침도 하계작전에서와 같이 작전의 주도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하에 ① 적의 균형을 파괴하고, ② 중심깊은 탐색작전으로 적의 전력증강을 억제하며, ③ 잘 훈련된 유엔군이 ‘교착된 전장(sitdown war)’으로 인해 침체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데 목표를 두었다. 밴플리트 장군은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의 군사상황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하계작전에 대해 요약하면서 특히 제한목표공격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유엔군은 1951년 9월 25일에 공산침략에 대한 하계 제한목표공격작전을 종결한다. 이 작전은 성공적인 춘계반격작전에 이어, 5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개되었다. 이날 현재로 우리는 추계공세를 시작하였다. 이 공세가 제한적일지 아니면 다른 것이 될지는 자유스럽게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

지난 4개월간 본관의 기본임무는 제8군이 파괴당하지 않기 위해 적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개성 회담에서는 그 동안 한번도 조기 정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었다.

1951년 5월 25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상이 침략의 구축자임을 확고히 정립하였다. 우리는 그 승리의 날로부터 9월 25일에 이르기까지 적의 활력을 성공적으로 제압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공산 침략자를 추격하여 초여름에 그들을 다 섬멸하지 못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 유엔군이 전면공세를 계속했다라면 적은 그때 만주 성역으로 철수, 재정비한 다음 막강한 전력으로 제8군에게 재공격을 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여름에 압록강 제방까지 진격하여 그후 피할 수 없는 적의 공격에 대비해 호를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한반도의 중간부분에서 적군과 병참보급선에 타격을 가한 것이 더욱 이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제8군은 스스로 두려워하는 바의 침체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작전을 활발하게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만이 앉아 있는 군대(sitdown army)’는 적의 공격 첫 소식에 무너지기 마련이다. 군화끈 조여 매기를 멈추는 군대가 전투의 승리에 가장 긴요한 주도권을 쥔취하기란 드물다. 나는 제8군사령관으로서 나의 군대가 그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 그러므로 제8군은 제한된 목표공격으로 적을 계속 쪼갰다.⁵⁷⁾

● 특공작전(Commando) / 플라선(Polar Line) 진격작전

이러한 군사령관의 작전지도 지침에 따라 아군의 추계공세도 제한 목표공격으로 일관되었다. 그러나 추계작전은 비록 중동부전선에서 국군 제8사단, 미 제2사단 등이 하계공세의 연장선에서 공격을 계속하였지만, 중점이 서부전선 미 제1군단과 중부전선 제9군단의 방어선 개선에 두어졌다. 미 제1군단장(John W. O'Daniel 소장)은 철원-김화지역 철로확보와 방어선 개선을 위한 ‘타격작전(Cudgel and Wrangler)’이 취소된 후 이의 대안으로 ‘특공작전(Operation Commando)’계획을 수립하여 군사령관에게 보고, 승인을 받았다.

이 계획의 개념은 취소된 ‘소타격작전’과 흡사하나 군단의 전선을

대체로 역곡권 남안까지 10km(소타격작전은 15km) 추진하여 방어선을 개선함은 물론 연천-철원간 철로 및 병참선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이 작전은 1951년 10월 3일에 실시되어 10월 하순에 종료되었다.

미 제1군단의 '특공작전'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미 제9군단장(Wilhelm H. Hoge 중장)도 군사령관의 방침에 부응하고 방어선을 개선함은 물론 철원-김화 철로 및 도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한편 미 제1군단의 작전을 측면 지원할 목적하에 제한목표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작전은 적의 주요 작전기지인 금성을 통제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10월 10일에 작전을 개시하여 제1단계로 금성천(Nomad Line)을 확보하고 제2단계로 금성 남쪽 고지군(Polar Line)을 점령하여 작전목표를 달성한 다음 10월 하순에 종료되었다.

그밖에 중동부의 미 제10군단은 하계작전의 연장선에서 실시된 추계작전 기간 중 미 제2사단이 '타치다운작전(Operation Touchdown)'으로 10월 13일 단장의 능선과 10월 15일 1220고지(김일성 능선)을 탈취하였다. 이때 국군 제8사단이 어은산 남쪽지역의 1090고지를 점령하였고, 국군 제5사단이 가칠봉 북방의 1211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군단은 통선골-문동리-해안분지선으로 전선을 밀어올려 방어선 개선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국군 제1군단도 수도사단이 월비산을 점령하고 전선을 남강까지 추진하였다.

아군은 1951년 하계공세와 추계공세를 통해 전장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방어선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적의 부대운용에 균형을 파괴하며 공세역량의 증강을 억제하는 한편, 유엔군부대의 전선을 예리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자 10월 23일경 일단 작전을 종결하였다.

제8군은 미 제1군단 및 제9군단의 추계작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철원-김화 철로에 대한 적 포병사격의 제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10월 27일에 이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한 새 작전계획을 수립하였

다. 이 계획의 요지는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으로써 중부전선의 방어선을 철원 서북 송현리에서 평강 북서 1km 지점을 경유, 금성 동남 방 4km 폴라선에 연결되는 새 방어선(Duluth Defense Line)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제8군은 이 계획의 후속으로 미 제9군단이 금성 부근을 점령하게 되면, 북동쪽으로 진격하여 동해안에서 북진하는 국군 제1군단과 통천에서 연결하고 지대내의 북한군을 포위 섬멸함과 아울러 이를 새 방어선으로 설정한다는 계획도 동시에 발전시켰다(이 후자의 작전은 해시계작전(Operation Sundial)이라 칭하였다). 이 작전은 11월 1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51년 10월 25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된데다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려면 몇 km 물러나야 할텐데 많은 피해를 수반할 이 작전을 강행할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은 10월 31일에 둘루스선(Duluth Line)으로의 공격을 일단 연기시켰다가 11월 11일에 취소시켰다. 따라서 해시계작전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⁵⁹⁾

이처럼 군은 휴전협상에서 적의 의도적인 지연전략에 제한목표공격 전략으로 맞서 단계적으로 적진을 잠식하며 군사적 압력을 가하였으며, 그 결과 적이 협상테이블로 다시 돌아옴에 공세를 중단하고 회담의 추이를 지켜 보기로 하였다.

2. 亥安盆地 彎曲部 解消

휴전협상 초기부터 유엔군측 군사작전의 초점이 되어온 중동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10군단은 화천저수지에서 해안분지(亥安盆地: Punch-bowl)⁵⁹⁾ 남쪽 능선을 따라 산머리곡산에 이르는 신(新)캔사스선을 방어중이었으며, 해안분지로 인하여 전선 중앙에 큰 만곡부가 형성되어 방어에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군단은 이를 제거할 목적의 1단계 작전으로 해안분지 서측 가장자리 고지군을 점령하기 위하여 7월

26일에 미 제2사단 제38연대가 공격작전을 펴 4일간의 격전 끝에 30일 대우산(1178고지)을 점령하였다. 대우산은 해안분지 서측에 위치한 가장 높은 감제고지로서 장차 작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시작된 장마로 작전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우기가 지난 8월 중순에 가서야 재개되었다. 이때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7사단이 화천저수지 북쪽에, 미 제2사단(배속:프랑스 대대, 네덜란드 대대)이 해안분지 남쪽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국군 제8사단이 서화계곡을 방어하였고 국군 제5사단과 미 해병제1사단(배속:국군 해병제1연대)을 예비로 확보하였다. 군단 정면의 화천저수지 북쪽에는 인민군 제5군단이, 해안분지 북쪽에는 제2군단이, 그리고 남강 부근에는 제3군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8월 14일에 밴플리트 장군이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에 하계 제한공격작전의 서전으로써 이미 계획된 해안분지 동측에서의 포복작전(Operation Creeper)을 지체없이 실시함과 동시에 미 제10군단장이 계획하여 보고한 해안분지 서측의 983고지(후에 피의 능선으로 명명) 공격도 승인함으로써 미 제10군단은 해안분지 동서 양측방의 고지군 점령을 위한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때 군사령관은 ① 양호한 날씨와 미 제5공군의 항공지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격개시 시간에 융통성을 가질 것과, ② 983고지 공격도 한국군부대를 운용하되 ‘포복작전’과 상호 연관지어 실시하도록 강조하였다.⁶⁰⁾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은 해안분지 서측 고지군과 동측(서화계곡 동측) ‘낙시바늘 능선(J형 능선)’⁶¹⁾의 하단부(1031고지)를 공격하고, 제10군단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 제1군단은 이 능선의 상단과 중간에 위치한 884고지와 924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 제10군단장(Clevis E. Byers 소장)은 장차 해안분지 확보라는 작전목표를 염두에 두고 그 전단계로 포복작전 개념과 군사령관 강조사항을 고려하여 8월 16일에 아래 요지의 공격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 군단은 983고지와 554고지를 공격함과 동시에 국군 제1군단과 협력하여 965고지-1031고지를 점령하며 해안분지 확보에 대비한다.
- 국군 제8사단은 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과 협조하여 965고지-1031고지를 점령하라. 이 작전 기간 중 국군 제5사단 1개 연대를 배속받아 캔사스선을 방어하라.
- 미 제2사단은 국군 제5사단의 1연대를 배속받아 983고지를 점령하라.
- 국군 제7사단은 554고지를 공격하라.⁶²⁾
- D일 H시는 8월 18일 06:30이다.

이로써 미 제10군단의 하계 제한목표공격작전이 속행되었으며, 적도 이미 2개월간의 교착기를 이용해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전은 한국전장에서 최초로 경험하는 진지전으로 발전하였다.

(1) 蘆田坪戰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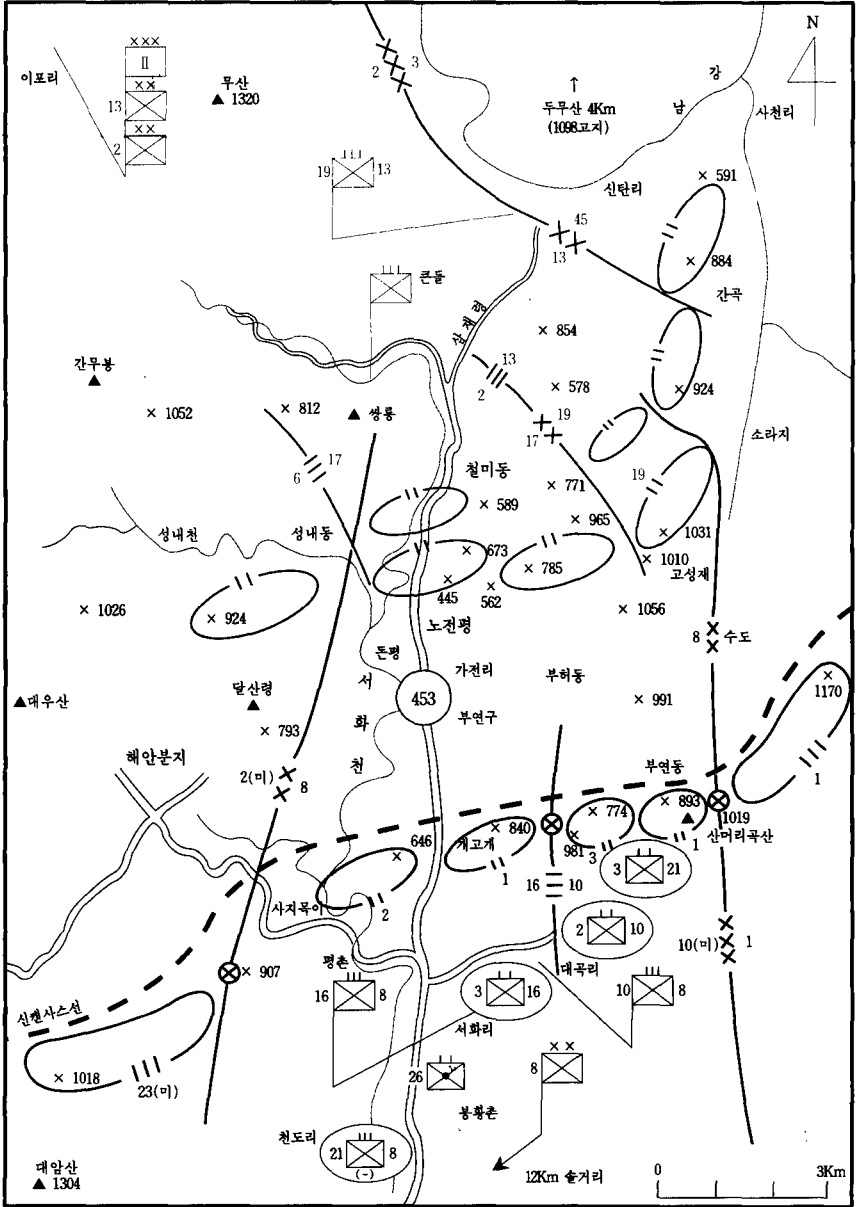
● 제1차 노전평 전투

국군 제8사단은 7월 20일 국군 제5사단과 교대하여 서화 부근 사지목이로부터 산머리곡산(1019고지)까지의 신캔사스선을 방어중이었으며, 노전평 부근의 445고지-1031고지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는 적 제2군단 예하 제2사단(제17연대) 및 제13사단(제19연대)과 대치중이었다.⁶³⁾

제8사단장(崔榮喜 준장)은 군단 작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사단의 임무가 965고지-1031고지 점령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 고지군의 공격에 용이한 지형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사단 자체의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캔사스선을 방어중인 좌전방 제16연대

114 제 2 장 軍事分界線 協商과 軍事狀況의 發展

노전평 전투전 피아의 대치상황(1951. 8. 1)



(배속 : 대전차 공격대대)와 우전방 제10연대가 주저항선을 방어한 채 각 연대 1개 대대와 대전차 공격대대를 사단 전초선인 가전리-부허동-고성재로 추진하여 적의 전초진지인 노전평의 445고지-785고지-1010고지선을 선점하기로 결심하고 8월 9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좌전방 제16연대는 제3대대로써 445고지-무명고지를, 대전차 공격대대로써 562고지-785고지를 공격하여 적의 끈질긴 저항을 잠재우고 다음날 이를 점령하였다. 우전방 제10연대도 제3대대로써 1010고지를 공격하여 10일에 점령하였으며 그후 몇 차례의 역습을 격퇴한 대대는 13일에 제1대대와 부대 교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부대 교대간의 취약점을 간파한 듯 이날 적의 주간 역습에 이 고지를 피탈당하였다. 제1대대는 다음날(14일) 제2중대를 주공으로 여러 차례 돌격을 실시한 끝에 간단없는 포지원 사격에 힘입어 이들을 격퇴하고 고지를 재탈환하였다. 사단은 곧 이들 고지군에 전초를 설치하는 한편 제21연대를 캔사스선의 중앙에 투입하여 주저항선의 방어력도 강화하였다. 한편 대전차 공격대대는 제21연대 제3대대로 교대시켜 원복초치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포복작전계획상의 낚시바늘 능선 하단고리부분을 확보하고 줄기에 해당하는 1031고지 공격 준비에 들어갔다.

● 제2차 노전평 전투

제8사단은 445고지-1010고지를 점령하고 차후 임무를 위한 준비를 갖추던 중 이틀이 지난 8월 16일에 군단으로부터 1031고지-965고지 공격명령을 받았다. 이때 제5사단 제27연대도 배속받았다.

1031고지는 북으로 남강에 이르기까지 924고지-884고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종격실 능선에서 가장 높아 주변을 감제하는 중요한 지형지물이었다. 965고지는 1031고지에서 서로 뺨은 능선상의 고지로서 철미동 일대의 소양강 상류계곡을 직접 감제하는 고지였다. 이 중 1031고지에는 여전히 인민군 제13사단 제19연대가, 965고지에는 제2

사단 제17연대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사단의 주임무인 1031고지 점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제10연대에 부여하기로 하고 배속받은 제27연대(-)로 하여금 제10연대가 점령한 주저항선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형을 고려 965고지는 중앙의 제21연대가 1개 대대로써 탈취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군 '포복작전'의 본작전인 965고지와 1031고지 공격작전이 8월 18일 06:00에 포병지원사격하에 시작되었다.

1031고지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10연대는 이날 제3대대가 고성재에서 주공, 제2대대가 1056고지에서 조공, 그리고 제1대대를 예비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공격 초일 제9중대를 선두로 1031고지로 공격하던 제3대대는 다음날에는 제9중대와 배속받은 연대 수색중대가 동측방으로 기동하고 제10·제11중대가 정면에서 공격하여 돌격선까지 진출하였다. 조공인 제2대대도 제1차 노전평 전투에서 탈취하였다가 그 후 작전상 물러난 바 있는 1010고지를 재점령하고 1031고지 서측 950고지를 공격하였다.

지뢰지대와 적의 방어사격을 극복하고 힘들게 돌격선으로 진출한 양개 대대는 돌격을 감행하고 육박전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적의 진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둔좌되었다. 그러나 공격 3일째인 8월 20일 줄기차게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제3대대는 제10중대가 정면으로, 그 밖의 중대가 좌우 측방으로 전개한 후 3면에서 일제 공격을 감행하여 끝까지 진지를 지키려던 적을 물리치고 1031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날 제2대대도 1031고지 서측 1km 950고지를 점령하였다. 양개 대대는 이날 밤부터 다음날까지 계속된 적의 역습을 격퇴하였다.

한편 중앙의 제21연대 제3대대는 경계진지방어 임무수행상 785고지에서 공격 초일과 2일에 각각 1개 중대씩 투입하여 965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적의 진전에서 둔좌되었다. 사단장은 이 대대를 좌전방연대인 제16연대에 배속시켜 전초선 방어임무는 제16연대가 인수하고 제21연대 제3대대는 공격작전에 전념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8월 20일 대대는 2개 중대로 병진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돌격과정에서 또 실패하였다. 그것은 고지 직후방의 엄폐진지에 대기하고 있던 예비병력이 아군의 돌격이 시작될 때 일제히 뛰어나와 수류탄을 던지며 저항하였기 때문이었다. 제16연대장은 제21연대 제3대대가 목표를 점령하지 못한 채 손실만 입게 되자 21일 공격부대를 제16연대 제2대대로 교대시켰다. 이때 1031고지가 이미 탈취되었기 때문에 제16연대도 다음날(22일) 공격시부터 사단의 화력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었고 또한 제10연대의 1개 대대가 1031고지로부터 965고지로 측방 공격을 하도록 협조하였다.

22일 8부 능선까지 진출한 제16연대 제2대대는 다음날 아침 제10연대 제1대대의 측방지원 공격을 받으며 공격을 재개하였다. 대대는 비가 내려 항공지원도 받지 못한 가운데 정면과 좌우로 전개한 3개 중대가 좁은 기동공간과 기암절벽 사이를 포복으로 기어올라 적진에 돌입, 백병전을 벌여 마침내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역습에 고지는 다시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다음날(24일) 대대는 사단 수색중대까지 배속받아 제10연대 제1대대의 측방지원공격하에 재공격에 나서 재차 이 고지의 주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제8사단은 8월 18~24일까지 전투에서 북한군 2개 연대를 괴멸시키고 1031고지와 965고지 탈취하였다. 연대는 이 일주간의 전투에서 포로 57명, 사상 938명의 전과를 올렸지만 전사 90명, 부상 536명, 실종 17명이나 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전투의 승리가 피의 대가라는 전장의 진리를 말해주는 듯하였다.

이런 대가를 치르고 국군 제8사단이 1031고지를 확보함으로써 미 제10군단은 낚시바늘 능선상의 군단목표 점령임무를 완수하였다. 이로써 철미동까지 서화계곡의 기동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상 해안분지 동측 가장자리 능선상의 적이 버티기 어렵게 되었다. 후에 제8사단은 1031고지에는 ‘대통령고지’, 965고지에는 ‘벤플리트고지’라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였다.

● 제3차 노전평 전투

제8사단이 제2차 노전평 전투 후 965-1031고지 선에 전진진지를 구축하며 캔사스선 중심을 확대한 반면, 적측에서는 인민군 제3군단 제2·제13사단이 패퇴하자 제15사단을 투입하여 802-854고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제8사단장은 이 무렵의 9월 8일에 하달된 군의 9월 제한목표공격 작전 지침에 따라 854고지를 목표로 부여받고 공격계획을 수립하여 군단장의 승인을 득하였다. 이 전투는 9월 10일 06:00에 개시할 예정이었다. 854고지는 소양강과 남강지류의 분수령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 감제지형으로 사단방어선을 남강 남쪽까지 추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지였으며, 동시에 이 고지가 해안분지 북동쪽을 감제하고 있어 해안분지 일대에서 작전중인 우군부대의 동측방 방호를 위해 반드시 탈취해야 하였다. 이 전투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띤 전투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전투간 제8사단은 좌인접 미 제1해병사단의 포병지원은 물론 항공지원과 동해안으로부터 함포지원까지 유례가 드문 정도의 우군 화력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 전투가 전개되기에 앞서 8월 말까지 ‘남시바늘능선’ 공격작전의 일환으로 국군 제1군단이 1031고지 북쪽의 그 머리에 해당되는 924고지와 884고지를 점령함에 따라 사단은 884고지 남쪽지역까지 부대를 추진하여 854고지를 남쪽과 동측에서 압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작전을 개시할 수 있었다. 이에 사단은 751고지-924고지-1031고지-965고지-695고지-562고지를 연하는 능선에 제10연대, 제21연대, 제16연대 주력을 배치하고 공격작전을 준비하였다.

당초 사단은 중앙에 배치된 제21연대를 주공으로 854고지를 공격하되, 북쪽의 제10연대는 1개 대대로 854고지 북쪽 무명고지를 점령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제21연대는 854고지 남쪽의 578고지를 탈취 후 854고지를 공격하며, 제16연대는 2개 대대로 제21연대 방어진지를 인수하고 1개 대대로 제21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도록 기동계획을 수

립하였다.

사단은 계획대로 9월 10일 06:00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 주공인 제21연대는 제1대대가 중간목표 578고지와 무명고지(“나”고지)를 탈취하고 제2대대는 854고지를 공격하였으며, 조공인 제10연대는 854고지 북쪽의 무명고지(“가”고지)를 점령하고 제16연대는 작일(9일) 771고지와 589고지를 탈취한데 이어 이날 사단 서측방의 무명고지(“다”고지)를 점령하여 주공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공격 초일에 854고지 공격의 중간목표를 탈취한데 이어 조공이 854고지의 북쪽과 남서쪽에서 주공의 공격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자 11일에 제21연대는 3개 대대를 모두 854고지 공격에 투입하였다. 제1대대는 “나”고지에서 좌측방으로, 제3대대는 578고지에서 정면으로, 제2대대는 전날의 돈좌된 위치에서 공격을 재개하였다. 대대들은 고지 8~9부 능선까지 이르렀으나 그때 적의 반격에 제1대대가 분산되자 연대장은 부대를 “나”고지·578고지·765고지 일대로 물리어 급편진지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사단장은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1개 연대로는 목표 탈취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3개 연대를 집중하기로 결심하였다. 9월 12일에 항공지원과 동해안의 제77·제95 기동함대의 합포지원을 받으며, 주공인 제21연대는 2개 대대 병진으로 정면공격을 하고 제16연대와 제10연대는 “가”·“다”고지를 확보한 채 다른 1개 대대로 측방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적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 이날의 공격도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나 차후공격을 준비하였다.

9월 13~14일의 공격도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어 8~9부 능선까지 진출하였지만 그곳에서는 적 자동화기의 화망을 뚫지 못하고 돈좌되었으며, 9월 15일에는 제16연대를 주공으로 하여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였다. 포로진술에 의하면 적도 이 고지 전투에 이른바 ‘영웅’칭호를 받은 자들을 많이 투입하며 고수에 사력을 다하였다는 것이었다.

16일 계속된 공격에서 주공 제16연대는 854고지의 정상 6개 봉우리 중 동남쪽의 1개를 점령하였으나 곧 적의 역습으로 물러났으며, 우측방에서 공격한 제10연대는 1개 대대가 여전히 854고지 북쪽의 “가”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의 동측 봉우리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9월 17일에 제16연대는 8부 능선에서 배사면으로부터 나온 적이 투척한 수류탄 공격에 둔좌되어 물러났으나 제10연대는 작일 확보한 봉우리를 발판으로 무반동총을 쏘아 적진을 강타하는 한편 연막치장을 하면서 일제히 돌진하여 제2중대를 선두로 854고지 주봉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다음날(18일)에는 15일부터 제16연대 방어진지까지 인수받아 사단의 좌전방을 방어하는 한편 1개 대대로 공격작전에 참여하면서 다소간의 부대정비를 한 제21연대가 3개 대대를 모두 투입하여 854고지 서남쪽의 3개 봉우리를 점령하고, 제10연대가 북쪽 봉우리까지 점령함으로써 9일간의 혈전 끝에 마침내 854고지를 완전히 탈취하였다.

사단은 이 제3차 전투에서만도 2,157명을 사살하고 163명을 포로로 하는 등 다대한 전과를 기록하였으나 322명이 전사하고 1,443명의 부상에 115명이 실종되는 희생을 치렀다.

당시 854고지 탈환에 주역을 담당했던 제21연대장 전부일(田富一) 대령(중장 예편)은 그때의 작전상황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고하였다.⁶⁴⁾

적정이 불명확하여 적의 규모를 1개 대대로 판단하였으나 1개 연대병력이었으며, 특화점 공격에서 주도면밀한 공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돌격전투가 미약하였다. 또한 소대장과 선임하사관이 모두 부상당하여 지휘자가 없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희생의 대가로 제8사단은 3차의 노전평 전투를 통해 군단이 의도한 ‘낙시바늘’능선의 줄기와 갈구리에 해당하는 목표고지를 점

령함은 물론 854고지를 탈취함으로써 방어선을 남강 남쪽까지 추진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해안분지를 공격하는 군단 주공부대의 작전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서화계곡의 도로망 확보라는 전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였다.

(2) 피의 稜線戰鬪

미 제10군단의 중앙사단으로서 해안분지 남쪽의 캔사스선을 방어중인 미 제2사단은 8월 14일 국군 제8사단이 1031고지 공격작전을 펼 때 해안분지 서측의 983고지(수리봉), 후에 피의 능선(Bloody Ridge)⁶⁵⁾으로 널리 알려진 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

당시 미 제2사단은 제9연대를 두밀령 일대에, 제38연대를 비아리에, 제23연대를 해안분지 남쪽 고지에 배치하여 장평리로부터 평촌까지의 신캔사스선을 방어중이었으며, 제38연대는 1개 대대로 대우산에 정찰기지를 운용하고 있었다.

사단의 좌전방 3km 북쪽에 위치한 이 983고지는 문동리와 사태리 계곡을 빗장처럼 가로지르는 731-983-940-773고지로 이어진 8km 횡격실 능선의 주봉이며 남쪽으로는 경사가 급하여 적의 방어에는 유리하나 아군의 공격에는 대단히 불리한 지형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지로부터 사단의 좌전방 방어진역이 후방까지 감제관측되어 이 지형은 사단으로서의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형국과 같았다. 이 고지 공격은 방어상의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고 장차 공격작전의 발판확보는 물론 해안분지 공격을 위한 서측방 위협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적도 이 고지가 갖는 전술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983고지에는 인민군 제5군단 제12사단 제1연대와 940-773고지에는 인민군 제2군단 제27사단 제14연대를 배치하여 2개 사단으로 고지를 방어중이다. 적은 이 고지에 아군의 포격에도 견딜 수 있는 수 백개의 엄체호를 구축하고 반사면에도 유개교통호로 연결된 축성을 하는가 하면 진전

에는 4~5,000개의 상자형 지뢰를 매설해 놓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호언 장담하고 있었다.⁶⁶⁾

●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의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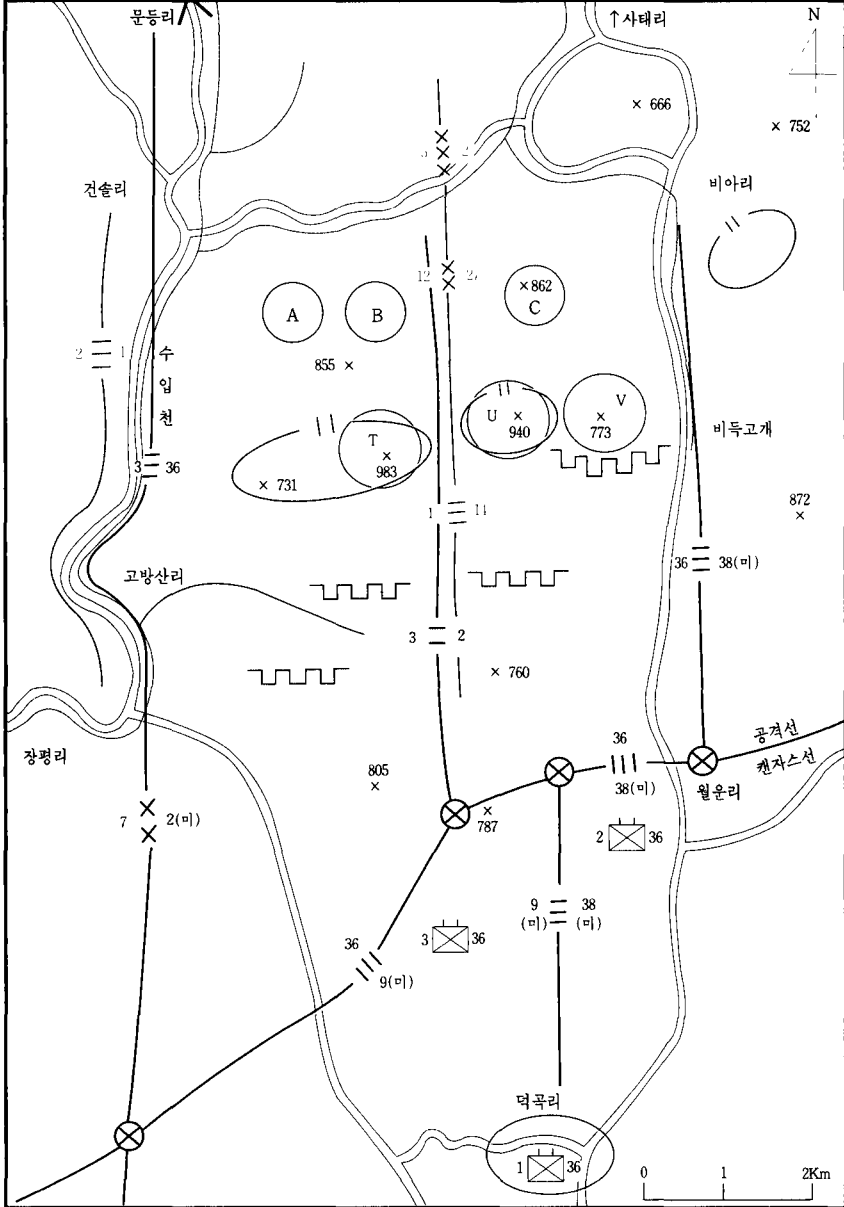
미 제2사단장(Clark L. Ruffner 소장)은 “한국군으로 하여금 전투경험을 쌓게 하여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군사령관의 지침에 따라 배속받은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로써 이 공격작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는 8월 16일에 제36연대장 황엽(黃燁) 대령에게 “8월 18일 06:00 공격을 개시하여 983-940-773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사단장은 제36연대장에게 군단 및 사단 포병의 지원조치는 물론 공중지원과 동해상의 미조리함으로부터 함포지원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5일부터 포병사격 및 항공폭격이 실시되었고 18일 공격 당일에는 7개 포병대대 126문의 화력이 집중된 공격 준비사격에 이어 06:30에 제36연대는 제3대대가 좌전방에서 983고지를, 제2대대가 우전방에서 940 및 773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부대는 5~7부 능선까지 전진하였을 때 적의 심한 포격에 노출되었으며 적진 가까이로 접근하자 지뢰지대에 봉착한데다 더욱이 적의 엄체호로부터의 사격을 제압하지 못해 전진이 둔화되었다. 그러나 공격부대들은 그곳에서 물러나지 않고 급편방어에 들어가 우군의 지원화력을 요청하며 적의 지원사격을 차단하고 적진을 강타하는 한편, 접근로상의 지뢰지대 통로개척작업을 계속하였다. 이날 밤에는 4km의 공격 정면에 200문의 포가 집중지원하였으니 km당 50문이 지원에 참가한 대기록을 수립하였다.⁶⁷⁾

밤을 지새운 지원사격에 수목은 덩치만 남게 되고 바위도 깨지고 언덕이 평지로 변하는 등 산의 외형이 변모하였다. 적의 엄체호도 위장이 노출되었으나, 아군 역시 기동 도중 은폐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제5사단 제36연대의 피의 능선 공격계획



공격부대는 두 번째 날 여명을 기하여 포병 지원사격의 연신과 동시에 공격을 속개하였다. 포격으로 노출된 경계진지를 제압하며 파괴된 지뢰지대를 통과, 적진에 접근하였으나 사격이 연신되자마자 후사면 엄체교통호에 대기하고 있던 적이 전사면 진지에 투입됨으로써 돌격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연대장은 최초에 의도한 대로 일거에 목표탈취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선 우측의 940고지와 773고지를 먼저 탈취할 복안하에 연대예비 제1대대를 우전방에 투입하되 제2대대장의 지휘하에 940-773고지를 조속히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양개 대대장의 협의로 이들은 2개 중대씩 조를 지어 중앙의 제5·제7중대는 940고지를 목표로, 좌익의 제1·제3중대는 747고지로, 우익의 제2·제5중대는 773고지로 공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중대는 미 제72전차대대 B중대 1개 소대와 보전조를 편성, 비아리계곡으로 진출하여 비득고개 일대에 773고지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이날 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5중대 특공대는 제2중대가 확보한 비득고개 쪽으로 우회한 후 773고지 후사면으로 접근하여 제2중대의 지원하에 수류탄을 투척하며 돌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제5중대(-)도 정면에서 적진으로 진입하였고 제2중대도 돌격에 가담하여 혼비백산한 적을 축출하고 이날 자정을 넘기면서 20일 02:00 773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에 고무되어 제1·제2대대(-)가 남쪽과 서남쪽에서 각 조(2개 중대)별로 상호지원하에 940고지를 공격하였으나 9부 능선에서 적의 기관총 사격과 수류탄 투척을 제압하지 못하고 물러나고 말았다. 전날 중간목표(731고지)를 점령한 제3대대는 이날 예비 제11중대를 우측방으로 투입하여 수리봉 공격을 계속하였다. 21일 저녁 제2대대장은 773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제5중대를 제외한 5개 중대로써 남쪽·남서·남동쪽 능선의 3개 방향에서 940고지에 대해 동시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중 남쪽에서 돌격한 제6중대가 진내로 뛰어들투를 계기로 다른 중대들도 진내로 진입하여 적을 구축하는 와중에 20:00경 제6중

대 병력에 의해 정상이 탈취됨으로써 940고지를 확보하였다. 이때 제 6중대의 병력은 20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세 번째 날 대대예비까지 투입하여 3개 중대 병진으로 주봉인 983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돌격선까지 진출하지도 못한 채 역시 돈좌되었다. 이중 제11중대는 21일 밤새 제2대대가 이미 점령한 940고지 쪽으로 우회기동하여 22일 날이 밝을 무렵 940고지와 983고지 사이의 무명고지를 점령한 후 은밀하게 983고지 후사면으로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포병 지원사격과 사격연신을 반복하며 그 공간을 틈타 병력을 고지 후사면으로 조금씩 투입하여 2개 분대를 투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적은 사격이 연신되자 전방에 대해 방어사격을 가할 뿐 후사면에는 급경사이고 사각지대이어서인지 적병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중대장은 투입된 병력으로 하여금 돌격을 하되, 적이 보이지 않으면 총을 쏘지 말고 기도비닉을 유지하여 돌진하도록 명령하였다. 마침내 중대는 후사면에 전개한 병력이 선봉으로 고지 정상에 올라섰다. 적은 아직도 전사면에 대해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중대는 고지를 점령한 후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이 소리에 놀라 적은 측방으로도주하기 바빴다. 이리하여 제11중대는 총 한발 쏘지 않고 피의 흘림이 없이 제3대대가 공격을 개시한지 6일만인 22일 11:30 983고지를 점령하였다.⁶⁸⁾ 곧 제3대대의 다른 중대도 정상으로 올라와 재편성을 하였다. 이로써 제36연대는 피의 능선을 완전히 점령하였으며 제3대대를 983고지, 제2대대를 940고지, 제1대대를 773고지에 재배치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진지를 강화하였다. 이날 밤 983고지에 대한 적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제3대대는 다음날까지 계속된 적의 1차 역습을 격퇴하였다. 연대는 24~25일에는 확보한 진지를 강화하고 적의 역습발판을 제거하려는 기도에서 피의 능선 북단 세 개의 고지를 점령하려 하였으나 이미 많은 병력손실을 입은 연대로서는 역부족이었다.

26일 02:00에는 군단예비로 있다가 새로 투입된 적 제6사단 제13연대에 의해 983고지가 포위되었다. 제3대대는 사주방어로 전환하여 정상으로 물러나며 육박전을 벌이며 저항하였으나 계속된 파상공세를 막지 못하고 결국 고지에서 철수하였다. 이로써 어렵게 탈취한 983고지를 적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이때 제2대대와 제1대대도 적의 공격을 받아 간신히 940고지와 773고지를 지탱하고 있었다. 983고지에서 밀려난 제3대대는 병력을 수습하여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때 연대장은 983고지 좌측방으로 미군이 이미 투입되고 있으므로 제3대대를 940고지로 철수시켜 제2대대와 함께 고지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26일 오후 983고지는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제36연대는 940고지와 773고지를 확보한 채 방어전을 벌이었다. 이와 같이 상황이 악화되자 미 제2사단장은 26일 11:00에 피의 능선 남쪽에서 캔사스선을 방어중인 미 제9연대장에게 “제36연대를 지원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이날 밤 제9연대 제2대대가 940고지로 추진되었다.

이때 미 제2사단장은 제9연대장에게 제36연대장과 협조하여 983고지를 탈환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9연대 제2대대(-)가 역습준비를 하고 있던 8월 27일 아침 적의 역습이 먼저 시작되었다. 이들은 773고지의 제1대대를 공격하면서 983고지와 전방 양개 방향에서 940고지를 공격해 왔다. 미 제9연대 제2대대(-)는 제36연대가 적의 역습을 격퇴한 후 이날 오후 983고지 탈환작전을 시작하였다. 제9연대 2대대(-)는 포병 지원사격하에 983고지를 공격, 돌격을 몇차례 반복하였으나 피해가 심해 다시 940고지로 물러났다. 뿐만 아니라 아군은 이날 밤 계속된 적의 공격을 막지 못해 940고지, 773고지까지 피탈당함으로써 피의 능선을 점령한지 5일만에 모두 상실하였다. 이날(27일) 전개된 야간전투에서 미 제9연대 제2대대 한 참전자는 “제36연대가 밀릴 때 밀고오는 인민군과의 사이에서 피아를 구분할 수 없어 혼란과 전장공포증에 빠져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 미 제2사단의 전투

미 제2사단장은 상실한 피의 능선을 탈환하기 위해 27일 국군 제5사단장에게 전력이 약화된 제36연대를 교대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미 제9연대와 새로 배속된 제5사단 35연대로써 각각 940고지와 773고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공격개시 시간은 8월 28일 09:00였다.

제35연대는 8월 28일 09:00에 역습을 개시해 773고지를 탈환하였으나 적의 야간역습에 피탈당하였다가 다음날 주간 재공격을 감행해 다시 이 고지를 탈환하였다. 미 제9연대도 28일 먼저 940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돌파구를 열지 못하였다.

그러나 8월 28일 군단장의 작전확대방침에 따라 군단예비대인 국군 제5사단과 미 해병 제1사단이 전선으로 투입됨을 계기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작전상황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것이 피의 능선 전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었다.

피의 능선 서측에서는 국군 제7사단이 9월 2일에 901고지와 554고지를 탈취하였으며, 동측에서는 해안분지 남쪽에 투입된 국군 제5사단이 9월 3일 가칠봉 동북쪽 서희령을 점령하고 미 제38연대로부터 가칠봉을 인수한 후 그 서북쪽 1211고지를 공격하였다.

이 무렵 미 제2사단은 제9연대 동측에서 대우산을 확보하고 있던 제38연대가 가칠봉을 점령한 후 국군 제5사단에 인계한 다음 피의 능선 후방, 진고개의 666고지와 752고지를 장악함으로써 비아리-사태리 계곡으로부터 적의 증원을 차단하였다. 또한 제9연대 서측에는 제23연대가 투입되어 9월 5일 983고지 북쪽이며 두타연 남쪽의 855고지를 점령함으로써 문동리 방면에서 피의 능선 방향으로의 증원로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좌우측방에서 우군이 전선을 피의 능선 후방까지 밀어올리는 상황에서 제9연대의 공격도 계속되어 9월 3일 상실한 773고지를 먼저 탈환한 후 다음날에는 940고지를, 그리고 9월 5일에는 수리봉 983고지를 재탈취 확보하였다.

그런데 940고지와 983고지는 아군이 고지에 올라섰을 때 적은 이미 다 철수하고 없었다. 즉 무저항하에 점령하였다. 이는 그간의 전투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여 전력이 약화된데다 피의 고지 좌우측의 요지요부인 두타연과 진고개 일대가 피탈됨으로써 적의 증원은 고사하고 포위의 위협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9월 3~5일 밤 사이에 적이 철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1951년 8월 18일부터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와 그후 미 제2사단 제9연대가 연이어 투입되어 전개한 피의 능선(983-940-773고지) 전투는 인접부대가 적에게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속개되어 9월 5일 제9연대가 983고지를 재점령함으로써 18일간의 혈전 끝에 종료되었다.



전투 후의 피의 능선 모습

이 고지 전투에서의 손실은 고지의 명칭이 표방하듯 엄청났다. 아군의 손실은 전사 326명, 전상 2,032명, 실종 414명, 도합 2,722명으로 1개 연대에 상당하는 규모였다. 이 중 국군 제36연대의 피해는 전사 132명, 전상 816명, 실종 122명 계 1,070명이었다. 따라서 이 전투에서 미군의 손실이 국군의 손실보다 더 컸다. 적의 손실은 15,0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⁶⁹⁾

이 전투는 이미 전선이 교착된지 3개월 동안에 강력하게 편성된 진지에 대한 공격인데다 적도 한치의 땅도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로 인명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항함으로써 피아 전의(戰意)의 대결장이 되어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전투를 지휘한 제36연대장 황엽(黃燁) 대령은 후일 당시의 참상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미 포병부대의 지원사격에도 적의 거점이 파괴되지 않아 병사들의 육탄공격에 의존해야만 하였다. 이 전투에서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수목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가한 아군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적의 지뢰와 근접전투로 인한 손실이었으며 골짜기가 피바다를 이룰 정도의 처절한 전투가 계속되었다.⁷⁰⁾

한편 당초 한명의 희생 없이 983고지를 점령한 당시 제36연대 제11중대장이었던 정창호(鄭昌鎬) 중위는 그 요체가 초월공격이나 축차투입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투입하여 기습을 달성한 데 있다며 “공격작전시 새로운 방향으로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히 전례가 “난공불락의 적 요새도 무혈점령이 가능하다”는 실례로 전수되기를 바란다고 회고하였다.⁷¹⁾

(3) 亥安盆地戰鬪

1951년 8월 말 미 제2사단이 피의 능선 전투에서 목표를 점령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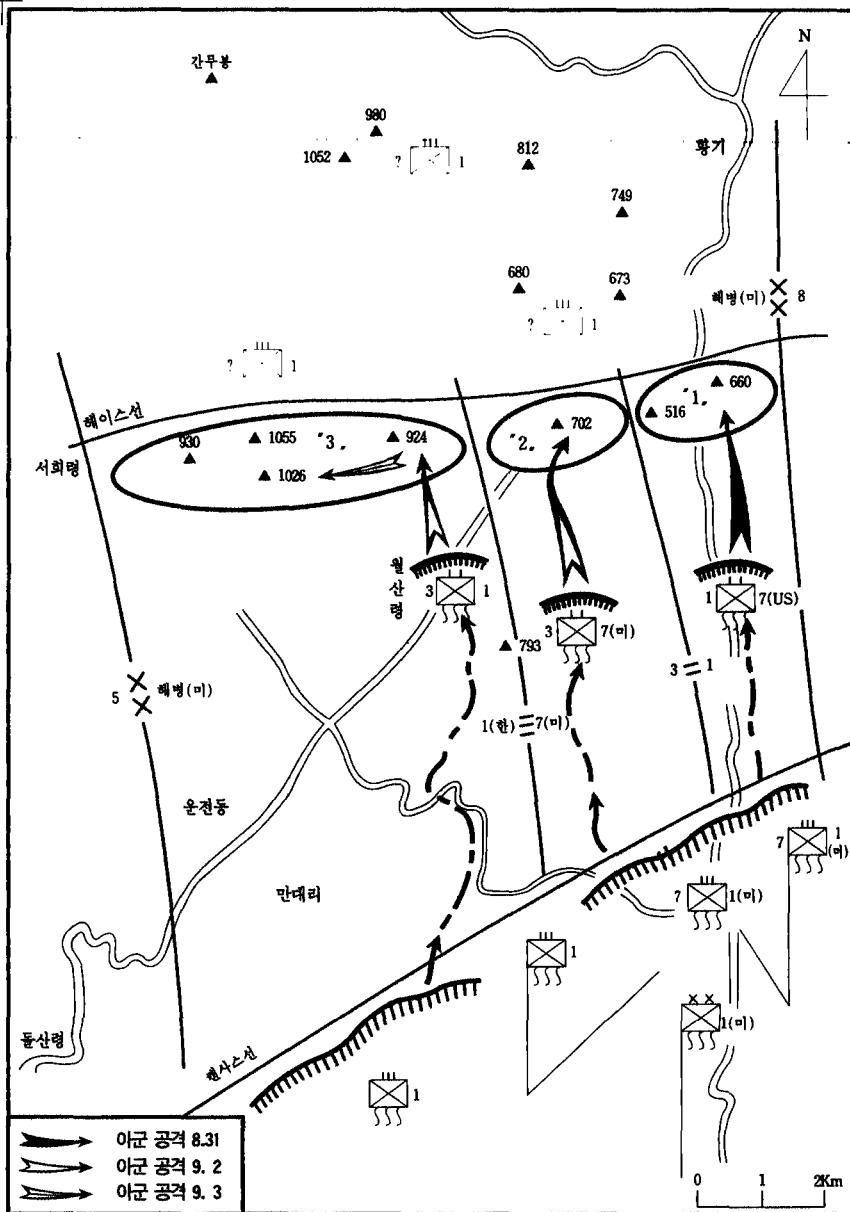
못하고 고전이 계속되자 군단장은 그 원인이 적의 전력을 이곳에 집중하도록 허용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병력증원을 차단함과 아울러 화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군단 전역으로 작전을 확대, 적에게 압력을 가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결심에 따라 그는 군단 정면 약 10km 북쪽 박달고개-가칠봉-서희동-성내동에 이르는 해안분지 북측 고지군에 연한 작전통제선(Hays Line)을 설정한 다음 예비인 미 제1해병사단과 국군 제5사단까지 전방으로 투입하고 8월 31일에 각 사단별 공격목표를 부여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군단예비로 있던 미 제1해병사단이 해안분지를 공격하게 되었고, 이 사단의 서에서는 국군 제5사단이, 동에서는 제8사단이 병행 공격하였다.

미 해병 제1사단(배속:국군 해병제1연대)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명령을 받고 28일 흥천에서 평촌으로 이동하여 미 제2사단과 국군 제8사단 방어지역 일부를 인수받아, 만대리로부터 평촌까지 해안분지 남쪽의 캔사스선으로 진출하였다. 사단은 8월 30일까지 국군 해병제1연대와 미 제7해병연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나머지 2개 연대를 예비로 확보한 채 공격준비에 들어갔다. 이때 국군 해병제1연대는 해안분지 남쪽 능선에 제1대대와 제2대대를 배치하고 제3대대를 예비로 하여 일면 방어, 일면 공격준비에 들어갔다.

● 제1단계 작전

당시 사단이 부여받은 공격목표는 해안분지 북측 일련의 횡격실 능선상의 1026, 924고지와 해안분지 북동쪽의 702, 660고지군이였다. 이 중 1026-924고지군은 국군 해병제1연대에, 702-660고지군은 미 제7해병연대의 목표였다. 해병사단 공격계획의 특징은 캔사스선의 방어부대가 일부 부대로써 주저항선을 방어한 채 작전통제선상의 목표를 공격한다는 것이였다. 이 무렵 이곳에는 적도 부대 교대를 실시하여 인민군 제3군단이 제2군단 지역을 인수하였으며 그중 제1사단이 해안분지 북측 방어선에 투입되였다.

해병제1연대의 해안분지 전투



한편 사단으로부터 1026고지와 924고지(목표 3)⁷²⁾ 탈취임무를 부여 받은 해병 제1연대장 김대식(金大植) 대령은 8월 30일 해안분지 남단의 방어진지 인수를 완료하자마자 곧 아래 요지의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⁷³⁾

연대는 8월 31일 06:00를 기하여 공격, 목표 3을 점령한다. 제1대대는 1026고지를, 제3대대는 924고지를 점령하고 제1대대의 전진을 지원하라.

이때 연대장은 기동로가 해안분지 동측 가장자리 능선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 제3대대가 공격을 선도하여 924고지를 탈환하고 제1대대는 그 뒤를 후속하다가 1026고지를 공격하도록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공격개시 전날 목표까지의 중간지점 793고지까지 진출하여 월산령에 전초중대를 배치하고 다음날의 공격준비를 하였다. 이와는 달리 우전방의 미 제7해병연대는 2개 대대 병진으로 공격하되 좌익의 제3대대는 해안분지 동측 가장자리 능선을 따라 702고지를 점령하고 우익의 제1대대는 소양강 계곡 도로를 따라 516고지와 660고지를 점령하기로 기동계획을 수립하고 공격준비를 하였다.

1951년 8월 31일 국군 해병제1연대는 제3대대가 793고지에서 출발하여 월산령에서 전초중대와 합류한 다음 924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목표 1km 전방까지 전진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완강함은 고사하고 잘 매설된 지뢰지대에 봉착하여 전진이 둔화되었다. 이날 김대식 연대장이 전방 중대에 나갔다가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어 후송되자 부연대장 김동하(金東河) 중령이 연대장을 대행하여 공격부대를 다시 793고지까지 물리고 다음날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미 해병연대도 좌익의 제3대대는 702고지 공격에서 역시 적의 강력한 저항과 매설된 많은 지뢰로 인하여 공격이 정체되었으나 우익의 제1대대는 목표 “1”(516고지-660고지)을 점령하였다. 다음날 9월 1일 미 해병제

7연대 제3대대는 09:00에 702고지 공격을 재개하여 견고한 진지에서 집요하게 저항한 적을 격퇴하면서 전진을 하다가 백병전 끝에 10:55 702고지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다음날 공격 개시 3일만에 702고지 전방의 602고지도 점령함으로써 사단목표를 모두 점령하였다.

한편 국군 해병제1연대(-)는 9월 1일 우익부대인 미 해병제3대대가 702고지를 점령함에 따라 이 부대의 작전지역을 통과하여 924고지를 측후방으로 우회하여 기습공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예상외로 측방의 방어와 저항도 완강하여 격전을 거듭할 뿐이었다. 연대장은 이때 월산령에 대기중인 제1대대 제1중대를 차출하여 정면에서 공격중인 제10중대를 초월 공격하도록 하였다. 제1중대도 역시 적의 저항과 지뢰로 인하여 고전하였다. 이때 중대 특공대가 처음으로 장비한 화염방사기로 적의 기관총 토치카를 잠재우자 일제히 돌진하여 924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때 많은 병력 손실을 입어 적의 역습을 방어하지 못해 안타깝게도 피탈당하였다.

국군 해병대의 목표 점령이 늦어지자 미 해병제1사단장은 미 제5해병연대로 하여금 국군 해병이 담당할 캔사스선 방어임무를 인수하도록 하고 국군 해병제2대대도 공격에 운용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9월 2일 국군 해병제1연대(-)는 항공포격과 포병사격 지원하에 제3대대(제9중대)와 제1대대(제3중대)가 병행하여 지뢰지대를 돌파하고 돌격을 감행한 결과 마침내 924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날 적은 지원사격에 많은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일 제1중대의 공격에 많은 손실을 입어 전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제3대대는 새로이 투입된 제2대대에 924고지 방어임무를 인계하고 예비로 전환되어 월산령에서 재편성에 들어갔으며, 제1대대는 924고지에서 제2대대의 1026고지 공격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다음날(9월 3일) 미 해병제1사단장은 국군 해병의 1026고지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24고지를 미 해병제7연대에 포함되도록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였다. 국군 해병은 새로이 공격부대로 나선 제2

대대가 새벽에 924고지로 가해온 적의 역습을 격퇴한 후 이날 08:00 항공 및 포병의 지원하에 여명공격을 개시하여 격전 끝에 목표전방 100m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적의 기관총 사격과 수류탄 투척에 희생자가 속출하고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 전방 중대를 후속하던 제5중대가 투입되어 제2소대 소총수가 포복으로 접근, 수류탄을 기관총 진지에 투척하여 이를 잠재웠다. 이 순간 돌격소대를 진두에서 지휘하다가 이미 50여 개의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쓰러졌던 제5중대 제1소대장 손진천(孫晋天) 소위가 “고지를 점령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며 다시 몸을 일으켜 유혈이 낭자한 오른손을 높이 들어 “제1소대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소대원이 돌진하고 중대원이 합세하여 일제히 돌격, 목표 1026고지를 점령하였다.

제2대대는 도주하는 적을 근접추격 700m 북쪽의 1055고지까지 탈취함으로써 연대목표 점령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국군 해병과 미 해병은 해안분지 북쪽과 동쪽의 고지군을 탈취하고 해안분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상자를 내고 특히 이 전투에서 국군 해병은 지형의 특징상 기동로가 없어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측방으로 우회하여 좁은 공간에서 목표를 공격, 해안분지 확보에 가장 중요한 고지인 1026고지(모택동고지)와 924고지(김일성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국군의 명예를 드높이였다.

● 제2단계 작전

이 전투 후 해안분지 북쪽에 주진지로 편성했던 인민군 제1사단은 간무봉으로 후퇴하여 괴멸된 제3연대를 예비로 전환시키고 제14연대를 이 봉우리에서 동측으로 뺀 1052고지-812고지-749고지에 전개하여 새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미 해병제1사단은 9월 8일에 하달된 9월의 제한공격 지침에 따라 부여된 북측 간무봉에서 사단 정면으로 뺀 능선상의 749고지를 점령할 목적으로 공격작전을 재

개하게 되었다. 이 목표는 간무봉 일대의 적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해안분지에 대한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사단은 1단계 작전을 끝낸 후 약 1주간의 부대정비를 한 다음 9월 11일부터 공격작전을 펴 9월 20일까지 격전과 격전 끝에 749고지를 점령하고 해안분지 북쪽 5km 812고지까지 탈취하였다. 사단은 812고지 탈취로 작전목표를 달성하고 해안분지를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때 군단으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자 펀치볼작전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1951년 9월 13일 미 해병제161헬리콥터 수송대대가 ‘윈드밀(Wind Mill)’이란 긴급 공수작전을 실시하여 18,848LB의 보급품을 전장에 수송하고 74명의 부상자를 후송하였다. 이 작전은 9월 19일에도 또 한 차례 실시되었으며, 이는 최초로 시도된 헬리콥터 공수작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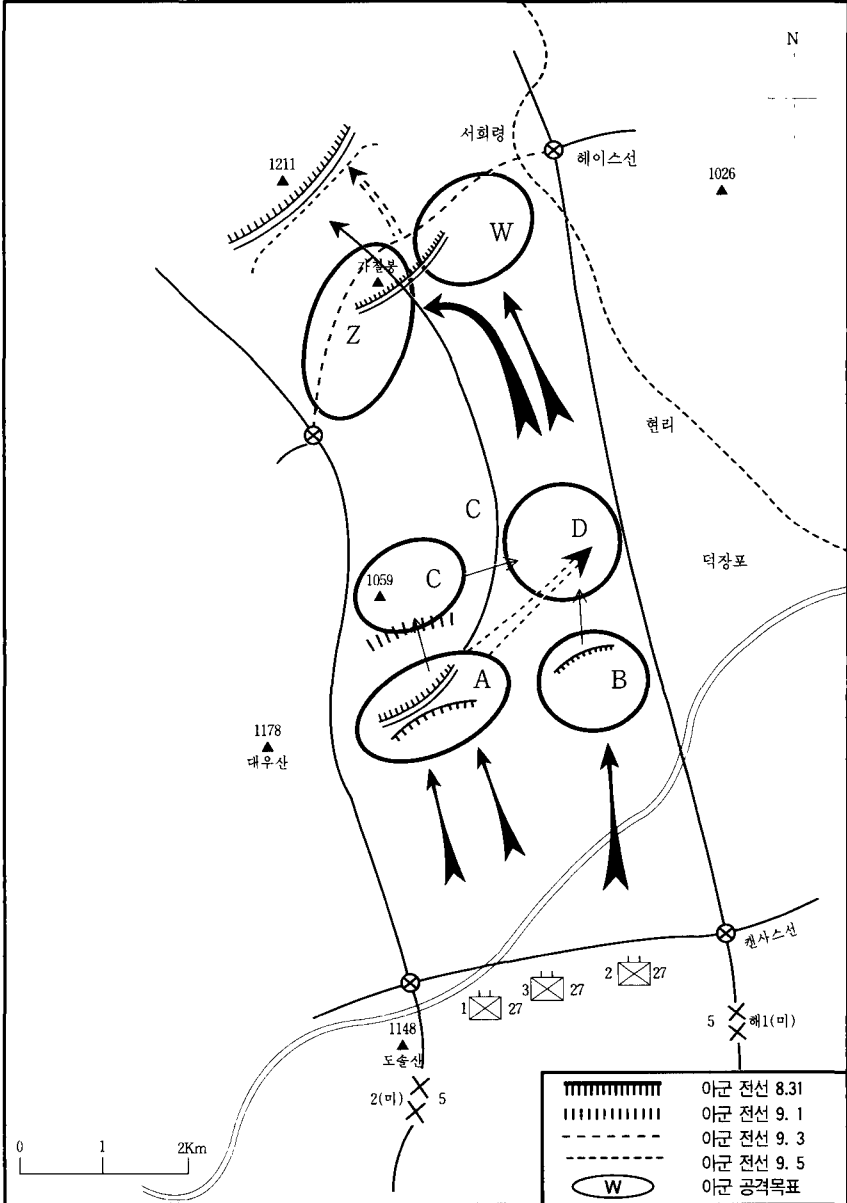
이 전투에서 미 해병사단과 국군 해병연대가 해안분지 동측 가장자리와 서화계곡 기동로를 이용해 목표를 공격하였는데, 이는 해안분지 양측방 사단이 병행 공격하여 측방 방호를 해주었으며 특히 국군 제8사단이 노전평 전투를 통해 서화계곡 기동로과 그 동측 ‘뉘시바늘 능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4) 加七峰地區戰鬪

국군 제5사단은 군단예비로 있다가 8월 28일 군단장의 새로운 작전방침에 따라 미 해병제1사단과 더불어 전방으로 투입되어 해안분지 남단의 좌익 캔사스선에 투입되었다.

사단장(閔機植 준장)은 제35연대를 좌, 제27연대를 우로 미 제2사단 제23연대가 점령하고 있던 도솔산-만대리(동남 3km) 선의 해안분지 남쪽을 인수하고 피의 능선 전투를 치른 제36연대는 창리에 예비

가철봉지구 전투경과



로 두어 재편성을 서둘렀다. 사단장은 8월 29일 06:00에 공격을 개시하여 군단작전통제선(Hays Line)상의 목표(가칠봉 동북쪽 능선-서희령)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부여받고 이 임무를 제27연대에 부여하는 한편 캔사스선의 방어임무는 제35연대가 전담하도록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 가칠봉-서희령으로 진출

제27연대장은 명령대로 8월 29일 06:00에 공격을 개시하여 좌인접 미 제2사단 제38연대와 긴밀한 협조하에 해안분지 서단 고지들을 횡단하면서 792고지-오유리-상평-개래덕이를 차례로 점령하고 9월 3일에는 사단목표인 가칠봉 동북쪽 능선과 서희령을 점령하였다. 사단은 다음날 9월 4일 미 제2사단과의 전투지경선 조정으로 서측으로 정면이 2km 확대되면서 미 제38연대로부터 가칠봉(1243고지)을 인수함과 아울러 그 서북 1.3km 지점의 1211고지 공격임무를 부여받았다.

당시 해안분지는 북한군 제2군단이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미 미 제10군단의 국군 제8사단과 국군 제1군단이 낚시바늘 능선(J Ridge)을 공격하며 해안분지 동벽을 위협하자 이곳을 그들 제3군단에 인계하고 자신들(제2군단)은 서벽의 방어에 주력하였다. 이들 중 국군 제5사단의 전방에는 인민군 제27사단 제32연대가 전개하고 있었는데, 미 제38연대와 국군 제27연대의 진격에 큰 타격을 입고 물러나고 제7연대가 1211고지에 투입되어 새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사단의 공격목표 1211고지는 대우산-가칠봉-매봉(1290)을 잇는 능선상의 한 봉우리로서 가칠봉에서 큰 계곡 건너 서북방에 우뚝 솟은 감제고지이다. 이 고지는 사단방어선(Hays Line)을 완전히 감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 능선과 그 북방 931고지(후에 단장의 능선으로 명명) 동측방에 위협이 되는 고지였다. 따라서 이 고지의 공격은 해안분지의 안전한 확보와 미 제2사단의 전투를 지원하는 의미를 가진다.

● 제27연대의 공격(9. 5~9. 16) : 1211고지 1차 점령

제5사단장은 9월 4일 1211고지 탈취명령을 부여받자 당시의 연대 상황을 고려 가칠봉-서희령을 점령중인 제27연대로 하여금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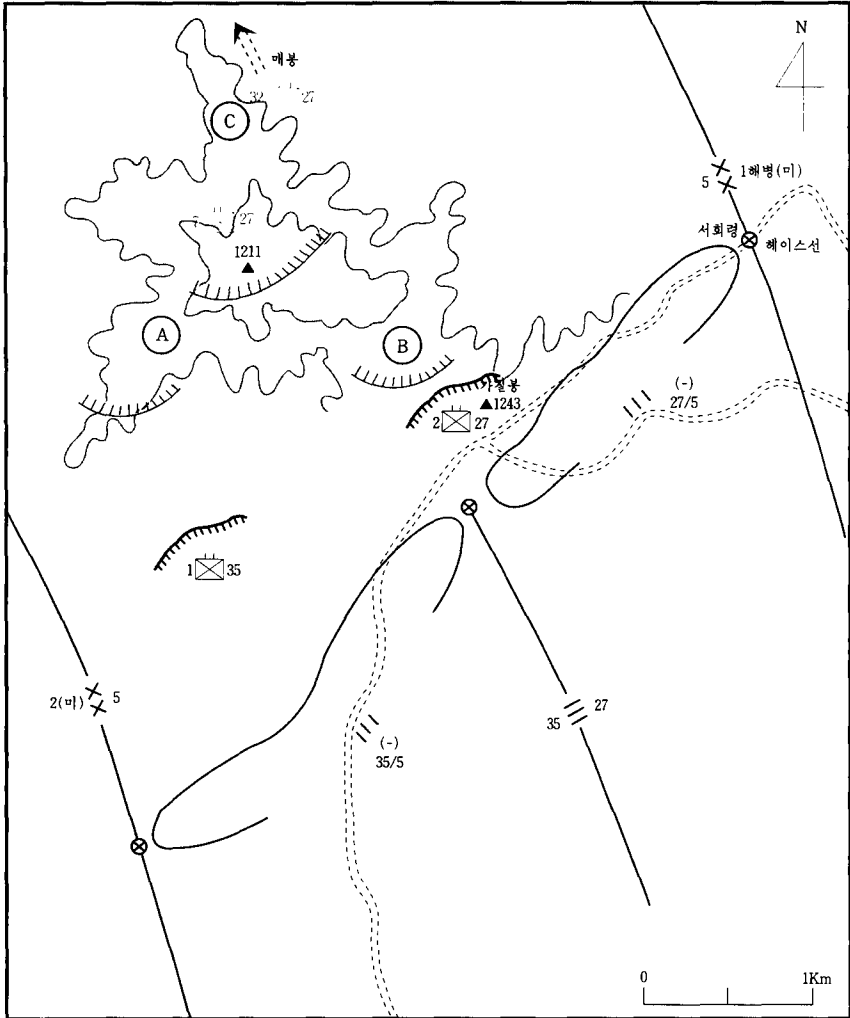
제27연대는 가칠봉-서희령에 배치된 제1, 제2대대의 지원하에 예비로 있던 제3대대로 9월 5일 08: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 사단 예비인 제36연대는 골말까지 전방으로 진출하여 전방연대를 지원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제27연대의 공격이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전이 없자, 사단장은 캔사스선의 제35연대로 하여금 1개 대대로서 캔사스선을 계속 방어하는 한편 연대(-)는 헤이스선(Hays Line)으로 진출하여 제27연대와 2개 연대(-)로 방어편성을 하는 한편, 우전방 제27연대는 1개 대대로 1211고지를 공격하고 좌전방 제35연대는 1개 대대로 1211고지 서남쪽 0.5km 지점의 무명고지㉔를 점령하여 제27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사단은 부대배치 조정과 공격준비를 마치고 9월 9일 05:00를 기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27연대 제2대대는 새벽녘에 1211고지 동북쪽 능선으로 우회하여 공격을 폈으며 제5중대가 제6중대의 지원하에 적진에 돌진하여 이날 16:15에 1211고지 정상을 점령하였다. 대대는 제35연대 제1대대의 지원하에 1211고지 서북으로 적을 추격하였으나 그때 역습부대에 의해 포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었다. 양개대대는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철수를 단행하여 1211고지에 급편진지를 편성하려 하였으나 다시 밀리어 그 서남측 능선과 가칠봉으로 복귀하여 부대를 수습하였다.

이날 적은 제27사단 제7연대마저 1211고지에서 패주하자 제13사단 제23연대가 임무교대차 투입되면서 제5사단 공격부대를 밀어붙였다.

제5사단장은 이러한 새로운 적의 출현에 대비해 캔사스선을 방어중인 제35연대 1개 대대도 그 임무를 사단예비 제36연대 1개 대대에 인계 후 헤이스선으로 추진하여 이 선의 방어력을 강화조치하였다.

1211고지 공격계획



그리고 가철봉 부근의 2개 연대에 사단공병 1개 중대씩을 배속하여 단시일내에 방어진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국군 제5사단이 연대를 재배치하고 가철봉 부근 진지를 강화하여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인 9월 13일에 적 제13사단을 교체해 제2사단이 투입되어 제17연대로써 1052고지-1211고지에 방어편성을 하고 제4연대는 매봉(1290고지)에, 제6연대는 서희리에 배치하여 중심을 강화하며 1211고지 부근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5사단장은 적의 방어진지가 더 굳어지기 전에 이를 점령할 결심을 하고, 제27연대로 하여금 가철봉선의 우반부 방어책임을 제35연대에 인계하고 3개 대대로써 1211고지를 탈취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27연대는 제1대대로 1211고지 서북쪽의 무명고지를 점령한 다음 남쪽과 동쪽에서 공격하는 제2대대와 협공으로 목표를 탈취하며 제3대대를 예비로 하는 기동 계획하에 9월 16일 04:00 공격준비사격의 연신과 때를 같이하여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공격에서 연대는 1211고지 서북 0.8km 지점의 무명고지㉠나 동남쪽 0.7km 지점의 무명고지㉡도 확보하지 못한 채 가철봉-서희령 선으로 복귀하였다.

● 제35연대의 공격(9. 17~9. 19)

이날 사단장은 공격부대를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공격을 한 제27연대는 추가로 추진된 제36연대 제3대대와 함께 헤이스선을 방어하고 제35연대로 공격작전을 펴 목표를 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제35연대장은 9월 17일 12:00에 제1, 제3대대의 지원하에 제2대대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대대는 1개 중대는 무명고지㉡ 방향으로, 대대 주력은 1211고지 남쪽에서 공격하였으나 역시 실패하고 원위치하였다. 다음날은 제1대대가 무명고지㉡로, 제2대대가 1211고지 남쪽에서 제3대대의 지원하에 공격하여 몇 차례 돌격까지 실시하였으나 둔좌되었다. 이날 야간 돌격대로 차출된 제3대대의 1개 중대가 1211

고지와 무명고지㉔ 사이의 안부로 진출하여 1211고지 동측방을 기습함과 때를 같이하여 양 대대가 1211고지로 세 번째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돈좌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2개 연대가 교대로 공격을 하였으나 돌파구를 열지 못하자 사단장은 사단예비 제36연대를 공격작전에 투입할 복안하에 부대의 재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19일 제35연대가 계속 1211고지를 공격하는 가운데 제36연대가 전방으로 추진되어 제27연대로부터 헤이스션 방어임무를 인수하고 제27연대는 캔사스션으로 철수하여 이 선 방어와 더불어 부대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제35연대는 이날도 제1대대와 제2대대가 무명고지㉔와 1211고지를 기습하였으나 적의 저항에 돈좌되어 물러나 급편진지를 편성하는 등 전일의 양상을 되풀이하였다. 사단장은 사단이 보유한 105mm 야포나



연대장과 참모들이 가칠봉에서 작전을 숙의하고 있다.

57mm·75mm 무반동총으로서도 적의 거점이 파괴되지 않는가 하면 수류탄 투척에 의존하는 공격방식으로도 손실만 속출할 뿐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군단장에게 항공폭격을 요청하였다. 곧 전폭기 3개 편대가 목표상공에 출현하여 화산폭발을 연상하듯 폭격을 가하였다. 이어서 사기백배한 제2대대가 1211고지를 공격하여 적진에 도달, 돌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지형지물을 교묘히 이용한 적 거점은 항공폭격에도 파괴되지 않은 듯 초연 속에서 일제히 내뿜는 적의 사격에 또다시 돌격이 저지되고 말았다. 제1대대도 마찬가지로 무명고지㉔ 적전에서 돈좌되었다.

● 제35·제36연대의 공격(9. 20~9. 22)

이렇게 되자 사단장은 20일에 캔사스선의 제27연대 제3대대를 헤이스선의 우일선에 추진하여 좌일선의 제36연대 제3대대와 같이 가칠봉—서희령을 방어하도록 하고, 제35연대와 제36연대(-)로 남북 양 방향에서 협공하여 목표를 탈취하기로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날 제35연대는 고지 남쪽에서 제36연대(-)는 동북쪽으로 우회하여 적진을 공격하였다. 제35연대는 제1대대의 지원하에 제2·제3의 2개 대대로 돌격하였으나 적의 화망을 뚫지 못하였으며, 제36연대는 제1대대가 1211고지 북쪽능선으로 우회하여 무명고지㉔를 점령 후 목표고지를, 제2대대가 가칠봉 동북쪽 능선으로 우회하여 1211고지—무명고지㉔ 간의 안부를 탈취한 후 목표고지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36연대도 21일까지 계속 공격을 하였지만 1211고지 북쪽능선으로 우회나 안부 점령에 실패하였다. 한편 이날 제35연대는 공격제대를 교대하여 제2대대가 1211고지를, 제1대대가 무명고지㉔를 공격하였으며 제3대대는 목표고지 서남측 능선으로 기동 중 우군의 오폭세례를 입어가며까지 주공 제2대대를 지원하였으나 이날의 공격도 허사였다.

사단장은 9월 22일 군단장의 작전지도에 따라 1211고지 공격을 일

단 중지하고 헤이스선의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전력을 보강하여 재 공격을 하기로 결심하고 부대배치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캔사스선의 제27연대(-1)가 다시 우일선으로 추진되어 좌일선의 제36연대와 함께 2개 연대로 헤이스선을 방어하였으며, 제35연대는 다음날 운천리에 집결 사단예비로 전환하였다.

● 제35연대의 공격(9.28)

사단이 부대를 재편성하며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인 9월 26일 미 제2사단이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어 공격을 일단 중지하고 새로운 방책을 강구하기로 하는 등 군단의 지휘 초점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때 군단장은 이 원인 중의 하나인 동측방으로부터의 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5사단장에게 조속히 1211고지를 기필코 탈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제5사단장은 약 5일간 부대정비를 끝낸 사단예비 제35연대로써 9월 28일 10:00에 공격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사단장의 요청으로 공격 개시 1시간 전에 6개 편대의 전폭기가 30분간에 걸쳐 1211고지 일원을 폭격하였고 그후 군단포병과 사단포병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보병연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날 제35연대는 이미 1211고지 일원에 대한 지형을 잘 알고 있으므로 1211고지를 중심으로 서남, 동남, 서북 능선의 고지군에 모두 7개의 목표번호를 부여하고, 제2·제3의 2개 대대로써 공격을 하되, 좌전방 제2대대는 서남쪽 능선을 따라 1211고지를 탈취 후 서북쪽 능선을 점령하고, 우전방 제3대대는 동남쪽 능선을 따라 1211고지를 점령 후 서북쪽 능선을 확보하여 적의 역습을 차단한다는 기동계획하에 전진을 계속하였다. 예비 제1대대는 제2대대 뒤의 무명고지를 점령하고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제35연대는 가로놓인 계곡을 넘어 제2·제3대대가 각기 서남·동남 능선을 공격하였으나 역시 적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 다시 전폭기의

공중지원을 받고 제1대대와 제27연대 제2대대가 좌우 전방대대의 공격에 가담하였지만 돌파구를 열지 못하였다. 다음날 29일에는 제1대대를 서남 능선에 투입하고 제2대대를 그 서측방으로 돌려 3개 대대로써 야간공격으로 전환하여 지원화력을 최대로 이용하고 특공대도 투입하며 대대장이 진두지휘를 하였으나 역시 적의 기관총, 수류탄 공격을 극복하지 못해 한때 서남 능선의 무명고지㉑를 점령하였을 뿐 공격에 진척이 없었다.

9월 30일에도 01:00부터 제2대대가 서남 능선으로, 제3대대가 동남 능선으로 야간공격을 시작하여 한때 목표에 0.3~0.4km 근접한 봉우리를 점령하였으나 역시 최종 목표공격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날 잡은 포로진술에 의해 이곳에 배치된 적 제2사단 제17연대는 전력 약화되어 다음날 제4연대와 교대할 예정임이 밝혀졌다.

● 사단 총공격(10.1~10.2) : 1211고지 2차 점령

사단장은 적의 부대 교대기의 취약시간에 일거 목표를 점령한다는 복안하에 사단 총력을 투입하여 공격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제35연대는 연대 좌일선으로서 1개 대대로 1052고지로부터의 적의 측방위협을 견제하면서 2개 대대로 1211고지 서북 능선상의 무명고지㉒를 공격하고, 제36연대는 사단 우일선으로서 1개 대대로 헤이스선을 방어하고 2개 대대로 제35연대 우측에서 1211고지를 공격하며, 제27연대는 1개 대대로 1211고지 동남 능선상의 무명고지㉓를 점령한 다음 제36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도록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제36연대는 10월 1일 11:00에 제3대대가 서남 능선의 중복을 타고, 제2대대는 제27연대의 무명고지㉓ 공격을 지원하다가 상황을 보아 동측 능선을 타고 1211공격에 나서기로 하였다.

제3대대는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가칠봉 서측 계곡을 횡단하여 최초 제11·제10 양개 중대 병진대형으로 공격을 하다가 적의 측방위협이 거세지자 포병엄호사격을 실시한 다음 제9·제10중대로 양 측방을

견제 엄호하면서 제11중대를 정면으로 투입하였다. 제11중대는 중대장(鄭昌鎬 중위)의 진두지휘하에 적진 50m까지 진출하자 적의 기관총 사격과 수류탄 공격이 난무하였다.

제11중대장은 강중사가 지휘하는 제1소대로 하여금 정면에서 돌격하는 시늉을 하여 적을 고착시키는 한편 좌우에 기관총을 설치하여 전방의 적이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고 60mm 박격포로써는 후방의 적이 증원되지 못하도록 목표고지 후방에 사격을 가하다가 박격포 사격이 맞는 순간을 이용하여 자신은 제3소대 병력을 이끌고 선두에서 고지를 우회하여 후사면으로 신속히 이동하였다. 박격포 사격이 계속되는 동안 몸을 숨기고 있던 적들은 제3소대 병력이 후사면으로 이동한 것을 발견하고 후방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강중사가 정면에서 돌격을 감행하여 눈깜짝할 사이에 적진에 돌입하였다. 적들은 당황하여 도망하기 바빴다. 중대장과 제3소대도 돌격에 가담하여 1211고지 정상을 점령하였다. 이때 60mm 박격포 반장 고태용 하사가 중대장의 몸동작을 보고 60mm를 적의 도주로에 발사하였다.⁷⁴⁾ 이때가 10월 1일 17:40경이었다. 곧 제9·제10중대도 고지로 올라와 잔적을 소탕하고 재편성을 하여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이날 제35연대도 1211고지 서남 능선을 점령한 후, 제36연대의 1211공격에 적진의 혼란한 틈을 이용해 북서 능선의 무명고지㉔도 점령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07:00 자욱한 안개 속으로 밀려온 적의 역습에 1211고지의 아군은 방어진이 돌파되면서 포위되기 시작하자 제36연대 제3대대가 철수함으로써 어렵게 탈취한 1211고지를 적에게 다시 내어주고 말았다. 제36연대를 비롯해 사단이 재탈환에 노력하였으나 허사였다.

이러한 때인 10월 3일 사단이 좌인접 미 제38연대의 책임지역을 인수하면서 작전지역이 확대되자 공격을 일단 중단하고 부대배치를 재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35연대는 좌일선으로서 미 제38연대지역

까지 포함하여 박달고개-가칠봉 남쪽 능선까지의 헤이스션을 점령하여 841-1052고지의 적과 대치하였다. 제27연대는 유일선으로서 가칠봉 서남 능선-서희령까지 점령지역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제36연대는 사단 중앙의 가칠봉 부근에 집결하여 이를 방어하면서 그 남쪽에서 재편성을 하였다.

● 제27연대의 공격(10.8~10.9) : 1211고지 3차 점령

그런데 이 무렵 전방의 적이 파괴된 1211고지의 진지를 보수하면서 국군 복장을 한 정찰대를 대우산까지 침투시켜 아군 병사를 납치해가는 등 정찰활동을 강화하자, 사단장은 제36연대로 하여금 우전방 진지를 모두 담당하게 하고 제27연대를 예비로 돌려 1211고지 공격 임무를 부여하였다.

10월 8일 제27연대는 제35연대와 제36연대의 각 1개 대대가 1211고지 서남 및 동남 능선으로 공격하여 지원을 하는 가운데, 제3대대가 정면에서 제1대대는 제2대대의 후속하에 동남 능선을 타고 공격을 전개하였다. 이때 연대는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57mm/75mm 무반동총의 지원사격을 적진에 가하며 기동하였다. 정면에서 공격한 제3대대가 1211고지에 접근하자 적의 포탄이 쏟아졌지만 양측 능선에서의 아군의 공격에 위협을 받게 되자 적의 화력이 분산되는 기회를 포착, 제3대대는 적의 취약진지를 집중 공격하며 적총안을 우회하여 적진에 돌입, 목표 1211고지를 세 번째로 탈취하였다.

그러나 동남 능선을 공격한 제1대대나 이를 초월한 제2대대는 중도에서 저지되어 1211고지에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제3대대는 목표만 점령하였지 주변 적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포격을 집중하면서 패주한 적 제4연대 주력이 제17연대의 지원하에 역습을 가해왔다. 제27연대 제3대대도 고지 정상주위에 사주방어로 전환하여 포병 지원사격을 요청하며 저항하였으나 사상자가 누증하고 탄약이 떨어져 더이상 적의 파상공세를 막을 수 없어 이날 밤(10월 8~9일) 포

위망을 돌파하고 철수하였다. 사단은 제35연대를 좌, 제36연대를 우 일선, 그리고 제27연대 1개 대대를 중앙으로 헤이스선 방어를 강화하며 제27연대 주력은 가칠봉 남쪽에서 재편성을 하였다.

이처럼 제5사단은 1951년 9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연대별로 또는 3개 연대로써 1211고지를 공격하여 세 번에 걸쳐 목표를 탈취하였으나 그때마다 적의 역습에 이를 상실하고 결국 10월 14일, 단장의 능선 전투가 종결될 무렵 그 동측의 841고지를 점령하면서 가칠봉 부근 전투를 종결하였다. 비록 1211고지는 탈환하지 못하였으나 이 끈질긴 전투로 국군 제5사단이 박달고개-가칠봉-서희령 전선을 굳게 지켜 해안분지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함과 아울러 단장의 능선 전투에도 그 동측방 위협을 차단함으로써 큰 기여를 하였다.

제5사단은 10월 20일에, 40일간이나 교전과 혈전을 벌인 이 전선을 국군 제3사단에 인계하고 양양으로 이동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사단이 이 전선에 교대로 투입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군 제5사단이 확보한 841고지-가칠봉-서희령 선이 최전방 전선이 되었다.

(5) 白石山(1142)戰鬪

● 백석산전투 전초전

국군 제7사단은 1951년 8월 18일, 미 제10군단이 ‘포복작전(Operation Creeper)’을 전개할 때 미 제2사단이 군단의 주공으로서 해안분지 서측 능선확보의 일환으로 피의 능선 공격작전을 펴게 되자 주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의 능선 서측 554고지 공격임무를 부여받았다.

당시 제7사단은 양구 서북방 파로호 남쪽 캔사스선과 그 북측 신 캔사스선을 제5·제8연대로써 방어하는 한편 제3연대는 그 북측 전초선(Badge Line)을 점령하고 있었다. 대치중인 적은 인민군 제5군단 이하 제32사단과 제12사단의 일부로서 제32사단은 백석산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883고지-901고지-554고지에 구축한 강력한 방어진

지를 근거로 남쪽 고지에 전초부대를 추진하며 정찰활동을 전개중이었다.

제7사단장(金容培 준장)은 사단의 작전지형상 우측방의 554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는 먼저 사단 중앙의 적 주저항선을 점령해야 한다는 임무분석 결과에 따라 8월 18일부터 작전을 개시하여 20일까지 883고지 및 양갈래고지, 901고지를 점령하였으나(등매동-송정동 부근 전투), 883-901 양 고지는 적의 역습에 상실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이 무렵 우인접 미 제2사단에 배속된 국군 제36연대가 983고지를 탈취하였다가 상실하는 등 쟁탈전을 벌임에 따라 피의 능선에 대한 서측방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883-901고지 전투를 접어두고 먼저 군단에서 부여한 목표 554고지 남쪽 2km 536고지를 8월 26일에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8월 말 군단이 피의 능선 공격이 부진하자 이곳으로 집중되는 적의 지원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군단예비를 투입하면서 전 사단으로 하여금 일제히 공격작전을 전개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자, 국군 제7사단은 미 제2사단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8월 31일부터 사단 동측방의 901고지-554고지를 공격하여 9월 2일까지 이를 점령하였다.

9월에 접어들어 901-554고지를 점령하자 사단(李成佳 준장)은 군단의 '전선 밀어올리기' 작전 개념에 따라 지난번 점령하였다가 피탈당한 883고지를 9월 7일부터 다시 공격하였다. 제5연대, 제8연대, 제3연대를 교대로 투입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강력해 이를 탈취하지 못하자 9월 16일에는 3개 연대를 모두 투입하였다. 이때 제8연대가 883고지 측후방의 743고지를 탈환하여 적의 증원을 차단하고, 제5연대가 서측방의 892고지를 탈취하여 적의 전력을 분산 약화시킨 틈을 타 제3연대가 격전 끝에 9월 18일 883고지를 점령하였다. 사단이 이처럼 어렵게 탈환한 883고지는 백석산 남쪽 2.2km 거리에 있으며 동측의 901고지와 함께 백석산에 이르는 주요한 발판이 되는 고지였다.

이와 같이 국군 제7사단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1개월의 격

전을 치르며 892-883-901선의 적 주향선을 점령함으로써 피의 능선 전투에 대한 조공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백석산 공격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사단은 이들 전투에서 대체로 기상이 불량하여 항공지원이나 포병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지 못한 가운데 준비된 적의 진지를 공격함으로써 많은 손실을 입어 병력이 7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원화기 중 박격포도 6문이 모두 가동되지 않는 등 부대의 재정비가 시급히 요망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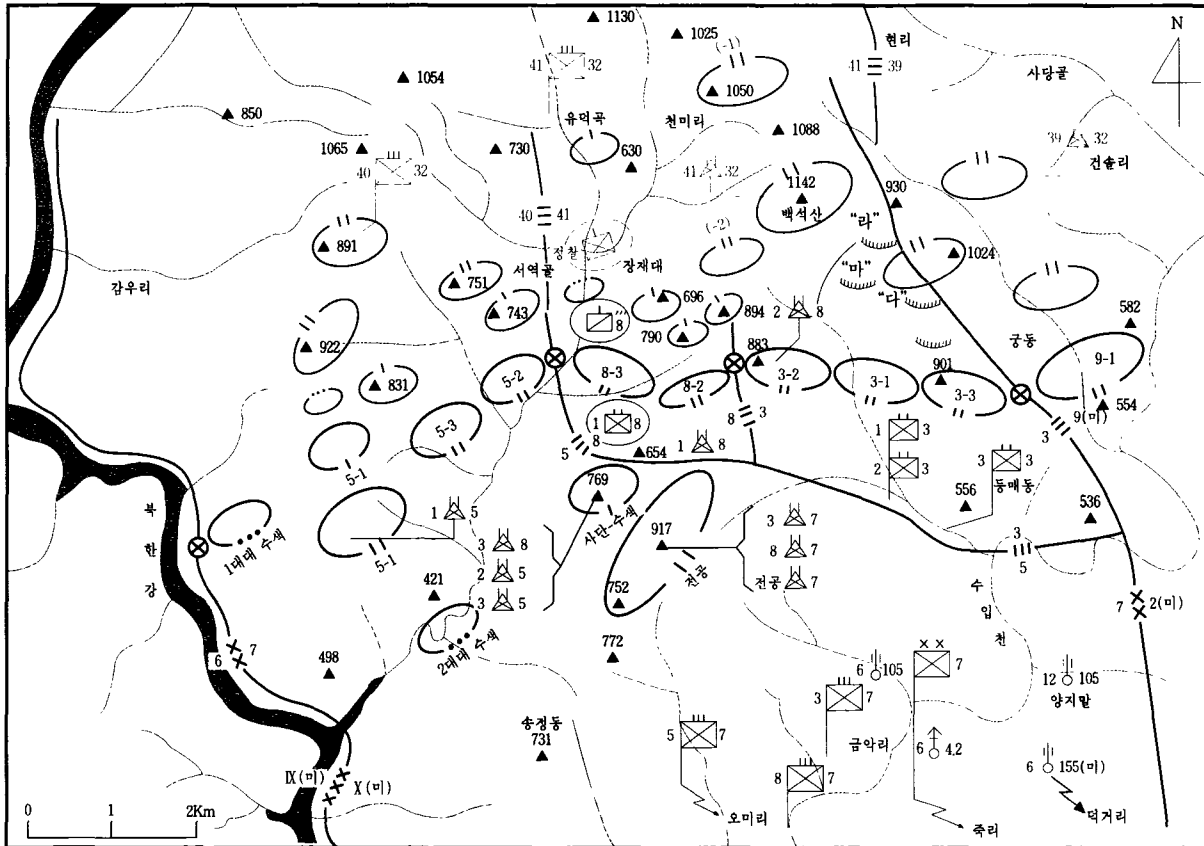
● 백석산전투 제1차전

군단장(Clovis E. Byers 소장)은 제7사단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9월 20일에, 제8사단과 교대한 후 군단예비로 전환하도록 명령하였다. 동시에 제8사단은 노전평 부근의 방어선을 미 해병제1사단에 인계하고 9월 23일까지 인수준비를 완료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이때 군단의 전환은 주공인 미 제2사단이 단장의 능선 공격을 시작한지 1주일이 경과했는데도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촛토를 뺏고 빼앗기는 격전만을 반복할 뿐 전세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미 제2사단장은 백석산·동남쪽 2km 지점의 1024고지를 공격하여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단장의 능선 서측방의 위협을 제거하려 하였다. 이 보고에 접한 군단장은 백석산을 점령하지 않고는 1024고지 공격만으로는 미 제2사단의 작전목적인 적의 병력분산 강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비록 교대명령이 주어진 상황이지만 국군 제7사단으로 하여금 백석산을 공격하도록 수정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제7사단은 교대준비를 취소하고 즉각 백석산(1142) 공격준비태세로 전환하였다.

이때 제7사단은 풀무터-궁골까지, 격전을 치러 점령한 892고지-743고지-883고지-901고지를 연한 10km의 정면에 좌로부터 제5·제8·제3연대 순으로 3개 연대를 모두 전방 배치하고 적과 대치중에 있었다. 대치중인 인민군 제5군단 예하 제32사단과 일부 제12사단은 883

백석산전투 피아 배치(1951. 9. 23)



150 제 2 장 軍事分界線 協商과 軍事狀況의 發展

고지와 901고지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백석산을 정점으로 이들 고지 쪽으로 뻗은 양 능선에 축차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백석산을 결사고수할 태세이었다.

백석산(1142고지)은 지대내에서 가장 높은 고지로서 화천저수지는 물론 단장의 능선까지 감제관측이 가능하며, 만일 이를 탈취한다면 적은 어은산(1277고지) 남쪽까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지역 작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요 지형지물이었다. 군단으로부터 백석산 공격명령을 받은 사단장 이성가(李成佳) 준장은 작전지역을 분석한 후 제8연대가 주공으로 883고지에서 좌측 능선 접근로를 타고 공격을 하며, 제3연대는 901고지에서 우측 능선을 타고 공격하되, 접근로상의 1024고지를 공격중인 우인접 미 제2사단 제9연대가 이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는 제8연대의 공격을 지원토록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단은 9월 24일 제8연대가 주공으로 제1대대를 선두로 883고지 북측 약 800m 지점의 894고지를 공격하였으며 다음날 특공조가 적의 화기진지를 잠재우자 일제히 돌격하여 이를 점령하였다. 제3연대 제3대대는 동측에서 이날(9월 25일) 미 제2사단의 1024고지 공격에 호응하면서 전진하여 이 고지가 탈취될 무렵에는 서측의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제3연대 제3대대는 이곳에서 진지 재편성 중에 아군의 심한 포격을 피해 호수에 숨어 있던 군관 1명, 사병 8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9월 26일에 사단은 제3·제8 양개 연대로써 백석산 주봉 공격작전을 폈다. 그런데 사단은 이날 군단장으로부터 28일에 제8사단과 현 임무를 교대하도록 명령받고 있는 터이어서 기간내에 고지를 탈환하고 명예롭게 작전지역을 인계한다는 결의로 공격작전을 폈다.

우선 제3연대는 제1대대가 1024고지 서측을 점령한 제3대대를 초월하여 백석산 남동측 500m 1060능선을 점령하고 정상으로 치달았으나 적의 포격에 1060능선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제8연대는 제2대대를 선두로 894고지에서 공격을 속개하여 항공폭격과 포병지원을 받

으며 적의 중심진지를 축차적으로 격파하고 정상의 2개 봉우리 중 좌측 봉우리를 탈취하였다. 다음 단계로 마지막 우측 봉우리를 공격 중인데 우연하게도 제3연대를 화력지원하던 미군 전차(소대)의 직격탄이 공격대열에 작렬하여 순식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공격기세가 꺾이고 말았다. 이를 간파한 듯 곧 적의 역습이 이어졌고 대대는 좌측 봉우리만 지탱한 채 야간방어로 들어갔다. 이날(9월 26일) 비록 절반이기는 하나 제7사단의 백석산 점령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사단은 27일 백석산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 재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차 이날 새벽 적군이 먼저 역습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단장의 능선에서 교대한 후 제32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으로 투입된 인



제7사단장 김응배 장군이 미 제8군사령관에게 백석산전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민군 제12사단 소속 부대들이었다. 이 공격에 제8연대는 확보하고 있던 백석산 좌측 봉우리도 상실하였으며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제3연대도 1005고지로부터 적의 공격을 받았으나 우전방 제3대대가 격전 끝에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우인접 미 제2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1024고지를 빼앗겨 연대의 우측방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연대는 즉각 연대예비를 투입하여 이를 탈환한 다음 미군에게 인계하였다. 제7사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백석산 공격임무로 9월 28일 12:00부로 제8사단에 인계하고 육본예비로 전환되어 야전훈련소에 입소하였다.

제7사단은 지난 8월 18일부터 군단공격작전의 일익을 맡아 주공인 미 제2사단의 피의 능선과 단장의 능선 전투에 조공으로 지원하면서, 송현리-송정동으로부터 40일간의 공격작전 끝에 백석산까지 진출하는 전공을 세웠다. 제7사단이 백석산의 우반부까지 탈취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데는 우군 전차의 오폭격도 원인의 하나였지만 최종 목표 공격에서 제3연대와 제8연대 간의 협조가 미흡하였고 또한 적 역습에 대한 대응조치의 강구도 미흡한 점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밖에 앞서의 전투에서 발생한 손실로 전투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대 교대임무를 미리 하달함으로써 전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백석산전투 제2차전

제8사단은 군단지시에 의거 노전평 부근의 작전지역을 좌인접 미 해병제1사단에 인계하고 1951년 9월 28일부터 제7사단으로부터 백석산 공격임무를 인수하였다. 사단(崔榮喜 준장)은 제21·제16·제10연대를 북한강의 물어구로부터 문동리계곡의 궁골까지 전선에 배치하되 제10연대로써 백석산을 공격할 복안하에 백석산과 이에 이르는 양측 능선 접근로는 제10연대에 포함시켰다.

한편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제7사단과 대치한 인민군 제5군단 예하

제32사단이 그간의 피해로 인하여 물러가고 제12사단이 새로이 투입되었다. 제10연대는 9월 30일 제1대대를 서, 제2대대를 동으로 그리고 제3대대와 배속된 대전차 공격대대를 예비로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06:00까지 공격선으로 진출하였다. 공격제대는 이동 도중에 곳곳에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우군 전우 시체를 목격하고 이번 전투에서도 역시 적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하였다. 이들은 3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난 다음 제1대대를 주공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좌전방의 제1대대는 적의 방어사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폐물을 이용하여 가파른 산등성을 타고 올라 09:00경에는 선두 양개 중대가 일제히 돌격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몇 차례 돌격을 반복하며 적진의 일각을 돌파하고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적의 강제관측 사격에 이를 지탱하지 못하고 수류탄 축척거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우전방의 제2대대는 기동로의 경사는 완만하였으나 백석산 우측 봉우리로부터 완전히 강제관측되어 전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주공을 도우려는 기도에서 배속된 연대 수색중대를 우측방으로 투입하여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려 하였으나 역시 중간에서 돈좌되고 말았다.

제10연대장 정강(鄭剛) 대령은 양개 대대에 배속된 노무자를 이용하여 탄약과 식량을 보급한 후 10월 1일 제1대대 전방지역으로 나아가 소대장 이상 간부들에게 백석산 조기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날중으로 목표를 점령하도록 독려하였다.

연대장의 현지 지도를 받은 제1대대는 이날 이른 아침의 안개를 은폐로 삼아 재공격을 하였으며 3시간의 혈전 끝에 돌격선까지 육박하였을 때 안개가 거치자 우군 전투기 1개 편대가 백석산을 폭격하는 기회를 틈타 일제히 돌격을 개시하여 백석산의 좌측 봉우리를 점령하였다. 하지만 우전방의 제2대대는 이날도 여전히 백석산 바로 우측 1050고지의 적을 제압하지 못해 공격이 저지되었다. 이와 같이 제2대대의 공격을 저지한 백석산 우반부의 적이 좌반부에서 밀려난 적과 합세하여 곧 역습을 실시하였고 제1대대는 이를 격퇴하지 못해 다시

8부 능선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제7사단 상황의 재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제2대대는 책임을 통감하게 되었고, 이에 재공격을 감행하여 우측 봉우리 9부 능선에 도달하면서 공격에 호조를 보이자 좌측방의 위협을 느껴 적 역습부대가 제2대대 방향 쪽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제2대대의 공격이 적 역습부대를 끌어들이자 그간 재편성을 완료한 제1대대가 재공격에 나서 제1중대를 선두로 돌격을 감행하여 백석산 주봉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때 지원사격이 연신되고 후사면에 대한 항공폭격이 감행되는 가운데 제2대대도 제5·제6중대가 돌격을 감행하여 우측 봉우리를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6중대 공재호(孔在浩) 하사는 선두에서 대공포판을 등에 지고 단신으로 기암절벽을 기어올라 적의 기관총 진지를 수류탄으로 잠재우고 주변의 적 산병호에 급사격을 가하여 돌격의 기회를 여는 수훈을 세웠다.

이로써 제8사단은 전선을 인수한 후 2일간의 공격에서 백석산을 점령하였다. 백석산의 점령은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이 전선을 캔사스 방어선으로부터 10km 추진하여 군 및 군단의 작전목표를 달성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적의 주방어선이 최소한 이보다 5~10km 북측 1220고지와 어은산(1277)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우인접 단장의 능선과 문등리계곡을 감제할 수 있어 주공 사단의 작전에게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제8사단은 이후 군단으로부터 1050고지-1220고지-어은산에 이르는 고지군을 점령하여 서측으로 제9군단과 전선의 균형을 이루며, 동측으로 미 제2사단의 단장의 능선 전투를 측방에서 지원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사단은 이 작전을 3개 단계로 구분하여 전개하기로 하고 제1단계 : 1050고지(백석산 북서쪽 3km)선, 제2단계 : 1090(서) 고지선, 제3단계 : 1090고지(북)⁷⁵⁾(백석산 북서쪽 7km)선을 확보하기로 계획하였다. 사단은 10월 6일에 제1단계 작전을 개시하여 10월 12일까지 1050고지-726고지(양의대) 선으로 진출하였다.

그런데 이때 적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10월 10일부로 패퇴하던 북한군 제5군단이 후방으로 철수하고 중공군 제20병단 이하 제68군이 출현한 것이다. 이들은 1951년 5월 21일에 압록강을 넘어 원산방어에 임하다가 북한군이 패주하자 어은산-문등리로 투입되어 아군의 전진을 저지할 기도였다. 제204사단의 제612 및 제611연대가 국군 8사단 정면 백석산 북쪽으로, 제610연대가 미 제2사단 정면 문등리계곡으로 투입되어 아군과 조우하였다.

결과적으로 적의 부대교대간 혼란한 틈에 제1단계 작전목표선을 점령한 제8사단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곧(10월 13일) 제2단계 작전을 속개하여 10월 15일에 748고지-도피막-1090고지(서) 선으로 진출하였다. 사단은 적의 방어력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다음날 마지막 제3단계 작전을 시작하였다. 사단은 이 무렵 미 제2사단이 탈취한 1220고지를 10월 18일에 인수받아 이곳을 발판으로 최종목표 1090고지(북) 공격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사단은 1220고지가 주는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10월 28일까지 1090고지(남)과 1090고지(북)를 차례로 탈취하고 북한강 동안의 319고지-938고지-1090고지(북)선을 확보하였다.⁷⁶⁾

이로써 제8사단은 백석산 탈취 후 10월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의 전투 끝에 방어선을 북한강상의 황병동-통선골-바우골(암동)-1090고지(북) 그리고 동으로 안골(내동)로 이어지는 일련의 큰 계곡 남쪽의 횡격실 능선으로 추진하여 유리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군단의 방어선 개선목표와 우인점 제2사단의 단장의 능선 전투 지원 목표를 달성하고 작전을 종료하였다.

(6) 斷腸의 稜線戰鬪

● 제1차전(9. 13~9. 26)

미 제2사단은 피의 능선 전투에서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에 뒤이

어 미 제9연대를 투입하고 제23연대와 제38연대로써 측방지원을 하게 하는 등 사단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9월 5일 목표를 탈취하였다. 이 전투 후 사단은 9월 8일자 군의 제한공세: ‘밀어올리기 작전’ 방침과 군단명령에 따라 피의 능선 북쪽 894-931-851고지로 구성된 능선(단장의 능선)⁷⁷⁾을 공격하게 되었다.

단장의 능선은 피의 능선과는 달리 3개의 봉우리가 종으로 연결된 능선으로서 남쪽에서 공격한다면 3개의 목표를 차례로 공격해야 되는 지형이었다. 그리고 이들 봉우리는 정상 부근의 경사가 심하고 또 능선 전체가 숲이 무성해 지표면에 대한 항공정찰이나 관측이 차장되었다.

단장의 능선 중 894고지와 주봉 931고지를 포함한 문등리계곡에는 인민군 제5군단 예하 제6사단이 배치되어 있었고, 851고지와 사태리계곡은 제2군 예하 제13사단이 방어하였다. 적 제6사단은 피의 능선 전투가 진행중일 때 예비로서 이곳에 투입되어 진지공사를 하였고 또 피의 능선 전투 후 이 전투가 시작될 때까지 더욱 방어시설을 강화하여 피의 능선과 동일한 강도의 준비된 진지를 이미 구축하였다.⁷⁸⁾ 그리고 인민군 제6사단 서측에는 피의 능선에서 물러난 제12사단이 국군 제8사단 지역에까지 걸쳐 전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작전진행중의 10월 10일에는 중공군 제68군이⁷⁹⁾ 인민군 제5군단을 교대하며 제204사단과 제202사단 1개 연대가 이 전선으로 투입되었다.

이 공격작전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① 이 능선의 확보로써 문등리, 사태리계곡의 작전로를 장악할 수 있으며, ② 이 지역에서 적 작전의 중심지인 문등리를 무력화할 수 있고, ③ 이 능선으로부터 캔사스 방어선이 감제관측당하여 초래되는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으며, ④ 전선의 만곡부 제거라는 당초의 군단작전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적을 어은산(1277)-매봉(1290)-간무봉(1358) 선까지 구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성을 띠고 있었다.

미 제2사단은 피의 능선 전투 후 이를 주도한 제9연대를 예비로

전환시키고 제23연대를 피의 능선에 배치하였으며, 제38연대는 사태리계곡 동측에서 868고지-702고지를 공격중에 있었다. 사단은 단장의 능선 공격을 위하여 9월 11일 제9연대로 하여금 피의 능선을 다시 인수하게 하고, 제23연대(배속:프랑스 대대, 제38연대 제3대대)에 단장의 능선 공격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제38연대(-)는 사단 예비로 전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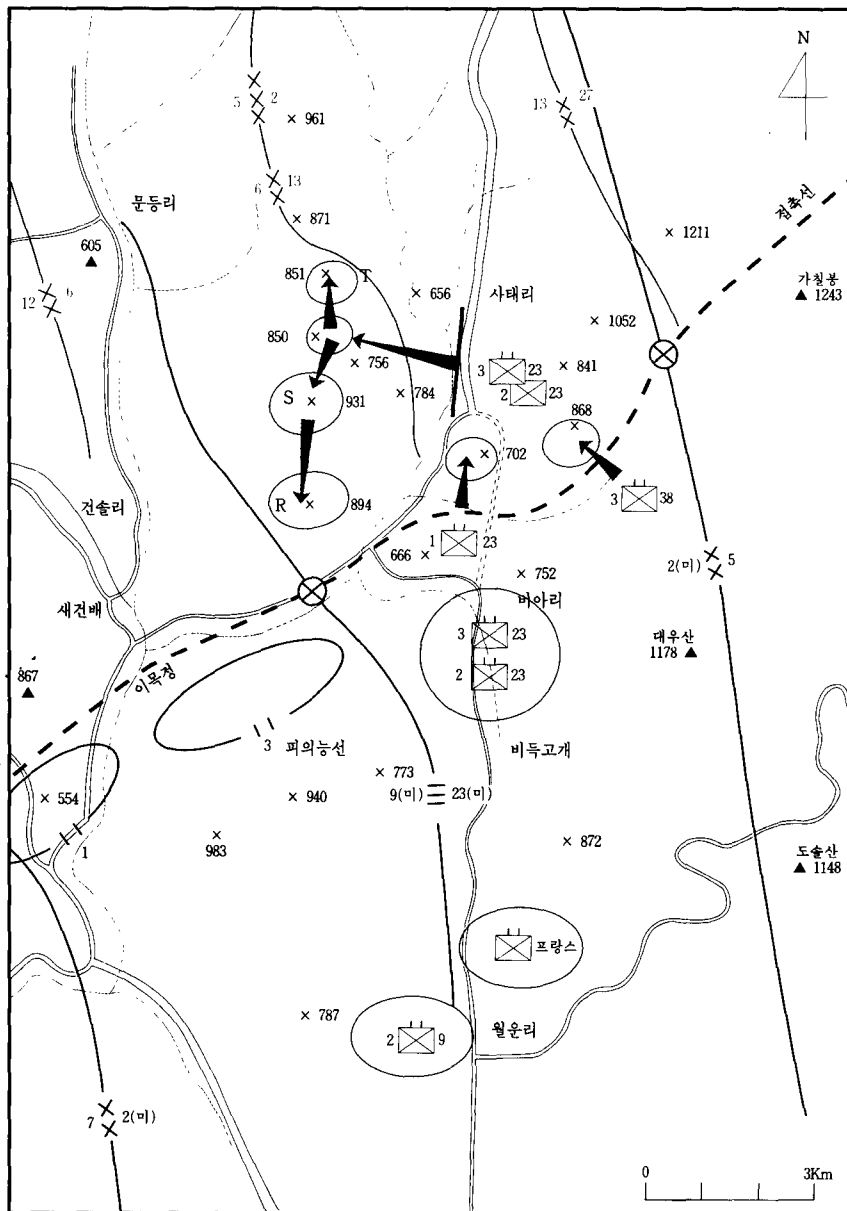
사단장은 제23연대에 먼저 제38연대가 공격하던 사태리계곡 동쪽의 868고지와 702고지를 점령하고 이를 발판으로 사태리 도로를 횡단하여 주봉 931고지와 북쪽의 851고지를 분리한 다음 1개 대대가 851고지를 공격하는 동안 나머지 대대가 931고지와 남쪽의 894고지를 공격하도록 작전지침을 하달하였다.

이는 이 능선을 남에서 북으로 축차적으로 목표를 공격하는 것보다 동측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전술방책이었다. 또한 제9연대는 제23연대가 남측의 894고지를 점령하면 그 서측 2km 728고지를 공격하여 문동리 방향의 작전도로를 개척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931고지 공격에 앞서 제23연대는 9월 12일에 제1대대가 702고지를, 배속된 제38연대 제3대대가 868고지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한 후 이곳에서 단장의 능선 공격을 준비하였다.

공격의 발판을 확보한 연대는 제1대대가 702-660고지에서 공격을 지원하는 가운데 제3대대를 선두로 제2, 3대대가 공격제대로써 931고지와 그 북측 851고지 사이의 무명고지(850고지)를 먼저 점령한 다음 제3대대가 851고지로, 제2대대가 931고지로 공격한다는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 프랑스 대대는 제38연대 제3대대가 확보한 868고지를 인수하여 측방방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단장의 능선 공격은 계획대로 9월 13일 80여 문의 포가 동원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6:00에 개시하였다. 제2·제3대대는 일단 삼태동-사태리계곡을 따라 지뢰를 제거하며 북으로 전진하였다. 그러나 적도 이때 제2·제3대대의 진로에 강력한 포병화력을 퍼부어 전진이 어

단장의 능선 공격계획(1951. 9. 12)



려웠다. 상당수의 피해를 입으며 사대리 남쪽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931고지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 하단부에 급편진지를 구축하였다. 그후 대대는 750-850고지 방향으로 공격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적의 포병화력은 물론 931고지와 851고지로부터 적 보병화기의 사격이 불바다를 이룬 듯하여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공격은 중간지점의 750고지 일대에서 고착되었다. 이런 와중에도 제3대대의 선두 L중대는 계곡을 따라 이 탄우를 무릅쓰고 약진을 거듭한 끝에 일몰 무렵 중간목표인 850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중대원은 약 30여 명이 채 못되었다. 본대는 750고지 부근에서 적의 포병화력에 여전히 고착되어 있었다. 중대는 850고지에 전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역습에 대비하며 밤새 포병지원사격을 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야간으로 인하여 정확한 사격유도가 불가능하였으며 지원사격의 공간을 이용해 쇄도한 적과 백병전을 벌이게 되었다. 결국 탄약이 바닥나 중대장(Pete Montfort 대위) 이하 30여 명의 중대원 전원이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단장의 공격작전 역시 피의 능선 공격의 재판으로 어려운 공격이 되리라고 판단한 사단장(Thomas E. De Shazo)은 공격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공격력을 더욱 증강하기로 하였다. 즉 적이 동측방 방어에 집중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제9연대를 남쪽에서 894고지 공격에 가담시켜 동쪽과 남쪽 2개 방향에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었다. 9월 14일, 양개 연대에 의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제23연대는 전일과 같이 2개 대대로써 공격을 하였으나 여전히 750고지의 급편진지에서 더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연대는 공격로 동측방으로부터 가해지는 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작일 제38연대 제3대대로부터 868고지의 진지를 인수한 프랑스 대대로 하여금 그 북쪽의 841-1052고지로 이어지는 능선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9연대는 155mm 중포와 4.2" 박격포 지원사격을 받으며 제72전차대대 B중대의 직사포로 적진의 화기진지를 강타하는 가운데 공격을 하여 일몰 무렵에 목표 894고지의 서남쪽 500m 지점의 무명고

지를 수중에 넣었다.

다음날(15일) 재개된 공격에서도 제23연대는 750고지 부근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프랑스 대대도 841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피해만 입었다. 그러나 제9연대 제2대대는 포병 화력의 지원하에 894고지를 공격하여 가벼운 손실을 입고 점령하였으며, 야간에 실시된 적의 역습마저 격퇴하고 고지를 확보하였다. 이날의 작전결과 적 제6사단의 방어중점은 주봉 931고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9연대가 단장의 능선 남쪽고지를 점령함에 따라 16일부터 제23연대는 931고지 공격에 전 대대를 다 투입하였다. 제1대대는 남쪽에서, 제2대대는 동쪽에서 931고지를 공격하였으며, 제3대대는 북쪽의 무명고지(850고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매일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였을 뿐 어느 대대도 돌파구를 열지 못하였다. 적 제6사단도 16일 이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입은 제1연대를 뒤로 돌리고 예비인 제13연대를 투입하여 931고지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⁸⁰⁾

이 와중에도 9월 20일 사단장이 교체되어 영(Robert N. Young) 소장이 부임하였다. 한편 이 무렵 제23전차 중대가 셔먼(Sherman) 전차 다섯대를 잃으며 프랑스 공병소대의 엄호하에 사태리까지 진출하여 여기에서 전차포로 제2·제3대대를 지원할 수가 있었다. 이들 전차의 지원을 받아 21일에 제3대대는 마침내 중간목표 850고지를 탈취하였다. 이는 931고지와 851고지의 적을 불리함은 물론 이미 남쪽의 894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므로 931고지를 고립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날인 9월 22일 제23연대는 제1대대가 프랑스 대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남쪽에서, 제2대대는 북쪽에서 931고지를 공격하고 제3대대는 850고지에서 그 북쪽 851고지의 적을 견제할 계획으로 공격을 하였다. 이날 남쪽에서 공격한 제1대대는 적의 저항과 탄우로 전진과 물러남을 반복하면서 적진 10m까지 접근하였으나 결국 적의 최후저지 화망을 뚫지 못해 물러났다. 북쪽에서 남으로 공격한 제2대대도

목표 500m 전방 무명고지(870고지)를 탈취한 선에서 피해가 너무 많아 더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돈좌되었다. 이 무렵 무스탕 전투기 2개 편대가 931고지와 851고지를 연속으로 폭격하였다.

다음날(9월 23일) 제9연대가 단장의 능선에 대한 서측방으로부터 적의 지원을 차단할 기도하에 문등리계곡 서측의 1024고지를 공격하는 가운데 제23연대의 931고지 공격은 계속되었다. 이날의 공격에서 이미 후방마저 차단되어 포위의 위험을 안게 된 적진이 흔들리는 징후가 나타났으며 이를 간파한 제1대대가 맹공을 가해 박모경에 최고봉인 931고지를 마침내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날밤(23~24일) 야포와 박격포 공격을 가한 후 문등리계곡으로부터 투입된 1개 연대규모의 적의 역습에 새벽 무렵 제1대대는 고지를 피탈당하였다. 그후 제1대대는 이 고지 북쪽에서 공격중인 제2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역부족으로 곧 물러나고 말았다. 9월 23~24일 밤 역습에 투입된 병력은 북한군 제12사단 제3연대였다. 적 제5군단도 이 능선 고수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3연대장은 지금까지 공격작전에서 제1·제2대대의 전력소모가 커 공격력이 약화되자 25일, 배속된 프랑스 대대를 931고지 공격에 운용하기로 하고 850고지로 투입하였으며, 프랑스 대대가 배치되었던 연대 동측방에는 역시 배속받은 제38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이날 제9연대는 1024고지를 점령하고 여기에서 115명이나 적을 사살하였다. 제7사단도 백석산 주봉을 공격중이었다. 이러한 상황 발전은 단장의 능선 공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다. 이 무렵 적 제6사단도 괴멸된 제13연대를 문등리계곡 통제에 요지인 건솔리 서측 867고지로 전환시키고 단장의 능선에는 제15연대를 투입하면서 전열을 정비하였다.⁸¹⁾

제23연대는 프랑스 대대가 북에서 남으로, 제1대대가 여전히 남에서 북으로 공격하고 제2대대는 850고지에서 엄호하는 한편 제3대대는 북쪽 851고지 적을 견제할 계획하에 9월 26일 아침까지 931고지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쏟아진 적의 박격포탄에 의해 프랑스 대대의 제2중대장과 포병 관측장교가 전사하고 박격포 관측수의 무전기가 파손되는 등 주공부대의 공격준비에 차질이 발생해 오후 13:30에야 공격을 개시할 수 있었다.

이날 작전이 시작된지 14일째인데, 이 동안 아군은 일일 평균 10,000여 발의 포탄을 소모하였으나 적의 유개진지가 파괴되지 않았음은 물론 적의 포병 특히 박격포가 제압되지 않았으며 이날도 1,000여 발의 박격포탄이 850고지 부근에 낙하하였다.

프랑스 대대는 자체의 57mm와 75mm 무반동총 및 기관총으로 공격부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81mm와 4.2" 박격포를 근접지원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다음 제3중대를 선두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23전차중대는 사태리계곡 깊숙히 진출하여 직사포탄으로 적의 엄체호를 공격하였으나 적의 박격포진지와 기관총진지를 파괴하지 못하였다. 제3중대는 이런 지원사격을 받으며 1개 소대를 동측으로, 1개 소대를 서측으로 우회시켜 공격하였다. 동측으로 공격한 소대는 가파른 단애 지역을 기어올라 적진 가까이 접근하였으나 서측으로 기동한 소대는 중간지점에서 적의 박격포 탄막사격에 돈좌되었다. 이에 동측 소대가 홀로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날 중대는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또한 후속하던 제2중대도 서측 소대를 초월하여 3차에 걸친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자동화기와 수류탄으로 구성된 적의 화망을 뚫지 못하고 물러났다. 한편 남쪽에서 공격한 제23연대 제1대대도 적의 박격포, 수류탄, 자동화기, 화력을 제압하지 못하여 역시 돈좌당하였다.

제23연대장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계속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면 사단장에게 사단의 작전을 확대해 문등리에서 931고지로 투입되는 적의 증원과 보급을 분산시켜 주도록 건의하였다. 2주간의 전투에서 발생한 사단의 손실은 1,670여 명이며 그중 제23연대의 사상자가 950명이나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연대

장은 만일 적의 증원만 차단해 준다면 연대는 당면한 적 제15연대를 약화시켜 단장의 능선을 탈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단장은 연대장의 건의를 수용하고 군단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의 능선 작전을 894고지를 확보한 채 9월 27일부로 일단 중단시킨 다음 문제점의 분석과 새로운 방책의 수립에 착수하였다.

● 제2차전(10. 5~10. 13)

사단장은 지금까지 작전을 ‘대실패(fiasco)’로 규정하고, 그 원인으로 부대운용에 있어 병력을 좁은 기동공간에 축차적으로 투입했다는 사실과 화력지원팀을 적절히 운용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적의 박격포에 의해 전체손실의 85%가 발생했다며 이를 제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아래와 같은 작전지침에 의거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 ① 사단의 3개 연대로써 전 사단포병과 전차의 지원하에 협조된 공격을 실시한다.
- ② 제72전차대대는 문둥리계곡으로, 보전협동 특수임무부대는 사태리계곡으로 진출하여 전 기갑력으로 보병연대를 지원한다.

이 작전지도 지침에 따라 10월 2일에 하달된 작전명령(Operation Touchdown)³²⁾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사단은 10월 5일 21:00에 공격을 개시하여 대치중인 적을 격멸하고 931고지-851고지 선을 반드시 확보한다.
- 2) 제23연대(배속:프랑스 대대): 931고지를 점령 후 851고지를 탈취하라. 연대 전차중대를 주력으로 하는 보전협동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사태리 부근의 적 화력을 제압하라.
- 3) 제38연대(배속:네덜란드 대대)
 - 최초 제23연대의 931고지 공격의 양공으로서 문둥리 도로 좌

우측의 적을 척결하고 공병대대의 도로개척작전을 엄호하라.

- 의명 문동리 도로 서측의 905고지-974고지를 점령 확보하라.
- 1개 대대로서 캔사스선을 방어하라(이 대대의 전용은 사단장의 승인을 요한다).

4) 제9연대

- 사단 서측방의 867고지-1005고지를 점령하라.

5) 제72전차대대 : 공병대대가 도로를 개척하는 대로 문동리로 돌진하여 적의 화력거점을 파괴하고 계곡 양안으로 진출하는 아군 공격부대를 지원하라.

6) 제2전투공병대대 : 10월 5일까지 고방산리-이목정 간의 작전로를 개척한 다음, 작전 진전에 따라 이목정-건솔리 간 수입천(水入川) 도로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제72전차대대의 본도(本道) 사용을 보장하라.

사단장은 이 작전을 아래와 같은 3개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1단계 : 먼저 주공인 제23연대가 보진협동으로 931고지를 점령한다.

이와 동시에 공병은 이목정-새건배 도로를 개척한다.

2단계 : 공병이 새건배-건솔리 간 도로를 개척한다. 제38연대는 도로 좌우변의 요충을 확보하여 공병작전을 엄호한다.

3단계 : 제72전차대대가 문동리로 돌진하여 적의 후방을 유린한다.

이와 동시에 제23연대는 851고지를 점령하고 제38연대는 전과를 확대한다.

이 방침에 따라 각 부대는 작전준비에 들어갔는데, 이 작전의 성공여부는 도로개척에 있었다. 이 도로는 등외 도로로서, 굴곡이 심하고 습지를 통과하거나 깊은 계곡의 애로로서 노퍽이 좁아 전차가 도로에 1대라도 정차하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제72전차대대

의 전차(M₄A₃) 60대의 기동여부가 이 작전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단장은 공병부대의 도로개척을 중시하였고, 포병도 전방으로 더 추진하여 연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10월 5일 21:30에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되어 약 300여 문에 달하는 사단 및 군단 포병이 적진을 강타하였다. 미 해병제1사단의 비행단도 문둥리계곡에 야간 항공폭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만 931고지에는 포사격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문둥리계곡에서 주로 화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제23연대는 이미 공격준비사격 실시 30분전에 부대기동을 시작하여 제2대대가 선두 공격제대로, 제3대를 예비로 894고지에서 931고지로 무조명 무지원 공격을 계속하였다. 프랑스 대대는 남쪽으로 931고지를 향해 양공을 감행하였다. 제1대대는 북쪽의 851고지를 견제 공격하였다.

선두의 제2대대는 곧 적의 사격을 받았지만 적은 이 공격에 모든 주의를 다 집중할 수가 없었다. 사단 포병이 적의 박격포진지를 공격하고 또 대박포전을 벌이었고, 프랑스 대대가 북쪽에서 양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야음과 적의 산만함을 틈타 제2대대는 제3대대의 지원하에 은밀하게 서서히 931고지로 접근해 갔다. 적진에 도착한 제2·제3대대는 화염방사기와 수류탄 그리고 소화기로써 병커 속의 적을 제압하고 10월 6일 03:00경 931고지 남쪽 절반을 점령하였다. 이들은 일출경 고지 북쪽에서 기어올라온 프랑스 대대와 연결하였으며 정오 이전에 931고지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제1단계 작전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는 적의 전력분산, 협조된 기만작전, 그리고 기습의 성공에 기인된 것이었다.

한편 제23연대의 931고지 공격 및 점령과 때를 같이하여 사단의 중앙 제38연대는 10일까지 새건배-문둥리 간 도로 서측의 636고지와 605고지, 905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사단이 문둥리 도로 축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사단 공병대대는 제38연대의 엄호하에 7일부터 새건배-건솔리 간 도로개척작전에 착수하여 9일까지

완료하였다. 서측방의 제9연대는 이목정 서측의 867고지를 확보한 다음 백석산 서북쪽의 1005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제23연대는 서측방으로부터의 적의 위협에서 벗어나 마지막 남은 851고지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10월 10일부터 제3단계 851고지 공격이 시작되었다. 먼저 851고지 서쪽에서는 제72전차대대가 제38연대 보병 L중대와 사단 공병소대로써 특수임무부대를 구성하여 문동리까지 진출하였고, 동측에서는 제23연대 전차중대와 프랑스 대대의 보병과 공병으로 편성된 스트루먼 특수임무부대(Struman TF)가 사태리로 진입하여 851고지를 양측방에서 차단하고 이 고지 공격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때 적도 851고지에 전력을 증강중임이 밝혀졌다.

중공군 제68군 제204사단이 붕괴되고 있는 문동리-단장의 능선상의 북한군 제5군단 예하 사단과 교대하기 위하여 투입되고 있었다.⁸³⁾ 제72전차대대는 문동리를 넘어서자마자 불의에 중공군과 조우하였으며 즉시 이들에게 공격을 가하여 큰 손실을 입힘은 물론 851고지 서측으로 이르는 적의 보급 및 보충선을 차단하였다. 적은 문동리계곡이 개통되어 전차가 진입할 상황은 생각조차 않은 듯하였다.

『항미원조전사』(역) p.192에는 당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제68군은 적 상황과 지형에 익숙치 않은 상황하에서 한편으로는 방어임무를 인수하면서 한편으로는 적군의 공격에 저항하였다. 10월에 이르러 아군이 방어임무 인수를 완료하였을 때 적군은 이미 아군진지 6km까지 돌입하였다. 아군은 그후 적 전차부대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문동리 도로 양측 지역에 대규모 대전차 장애물을 첨가한 대전차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1개 사단의 대전차 무기를 집중하여 대전차대대를 조직, 적 전차에 대한 방어를 전담케 하였다.

이런 가운데 제23연대는 851고지 공격을 진행하였다. 제1대대가 프랑스 대대의 지원하에 공격을 선도하고 931고지의 제3대대는 제1대대 서측에서 기동하였으며, 제2대대는 문동리 남쪽의 520고지를 점령하여 적의 증원을 차단하는 한편 서측방에서 851고지를 공격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제1대대와 프랑스 대대는 적의 병커를 하나하나 파괴하며 조금씩 조금씩 정상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북한군과 중공군은 죽거나 부상당할 때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다. 제3대대가 서측에서 851고지 공격에 가담하는 가운데, 프랑스 대대가 11일 야간에 제1대대를 초월하여 전방으로 나서 10월 13일 동이 틀 무렵 고지 정상을 점령하였다. 프랑스 대대는 전면에서 적을 계속 압박하면서 야음을 이용해 북측으로 우회한 일부 병력이 배후에서 공격하자 적이 이에 대응하는 사이에 전면에서 일제히 돌격하여 고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38연대도 사단 서측방에서 공격을 계속, 네덜란드 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974고지를 탈취하고 10월 15일 백석산과 어은산 중간 지점의 1220고지까지 점령하였다.

이로써 미 제2사단은 피의 능선 전투에 이어 9월 13일부터 1개월 여의 혈전 끝에 단장의 능선을 탈취하고 전선을 1220고지⁸⁴⁾-문동리-가칠봉(서측) 선까지 추진하였다.

‘단장의 능선’ 전투는 ‘피의 능선’ 전투와 함께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유엔군의 하계 및 추계공세 기간중의 전투 중 가장 격렬하게 치러진 전투였다.

미 제2사단은 피의 능선 전투에서도 많은 소실을 입었지만 이 단장의 능선 전투(9.13~10.13)에서 3,700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적의 피해는 인민군 제6·제12·제13사단과 중공군 제204사단의 피해를 합하여 21,000명으로 추산하였다.

이 단장의 능선 전투를 끝으로 미 제10군단은 전선을 931고지(북한강 동쪽)-1090고지-851고지(문동리)-가칠봉-802고지-884고지(소양강계곡 동측) 선에서 정리함으로써 하계-추계작전에서 주목표로 삼

은 전선의 만곡부를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3. 南江으로의 進出

국군 제1군단장(白善燁 소장)은 군이 하계공세의 서전으로 8월 중순에 ‘포복작전(Operation Creeper)’을 준비할 무렵 수도사단을 서, 제11사단을 중앙, 제3사단을 동으로 산머리곡산으로부터 향로봉산맥을 따라 거진까지의 신칸사스선을 방어중이었으며, 군단의 전선은 서부보다는 동부가 10km 복상한 상황에 있었다. 8월 14일 군단장은 군사령관으로부터 미 제10군단과 함께 포복작전에 참여하여 서화계곡 동측 ‘늪시바늘 능선(J Ridge)’의 줄기와 머리에 해당하는 924고지(향로봉 서북 7km)와 884고지(924고지 북 3km)를 탈취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때 좌인접에서는 미 제10군단 예하 국군 제8사단이 이 능선의 하단부에 해당하는 1031고지를 함께 공격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이로써 서화계곡의 도로망을 확보하여 해안분지의 동측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군 작전에 기여함은 물론 군단 서측 방어선을 남강까지 밀어올릴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무렵 군단과 대치중인 적은 인민군 제3군단(제1·제15·제45사단)으로써 남강 이남이며 향로봉산맥 북쪽, 즉 884고지-월비산 일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강력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었다. 군단장은 군사령관의 작전개념에 따라 1951년 8월 16일에, “수도사단은 924-751고지를 점령하고, 제11사단은 884-591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고지 공격은 이보다 3주전인 7월 27일에 실시하도록 계획된 바 있었으나 장마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두 전투 중, 보다 어렵게 전개된 제11사단의 884고지 전투에 대하여 상술하기로 한다.

(1) 884高地戰鬪

제11사단은 이때 군단의 중앙사단으로서, 향로봉(1293고지) 북쪽 1079고지로부터 건봉령까지 태백산맥의 준령 중 향로봉산맥을 가로타고 방어중이었다. 사단은 제20연대가 향로봉 북쪽 1079고지, 제13연대가 건봉령을 중심으로 주저항선을 편성하고 제9연대가 703고지와 건봉산 서측에 전진진지를 편성하여 전초 임무를 수행중에 있었다. 한편 대치중인 적은 인민군 제3군단 제45사단으로서 884고지 일대에는 제2연대가 배치되어 활동중이었다. 이들은 약 2개월간에 걸쳐 진전에 지뢰와 철조망 설치는 물론 유개호, 엄제호 등 진지를 구축하여 거점화하였다.

이 884고지는 남강 남쪽에 위치하여 사단의 주저항선을 깊숙히 들여다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보급로인 고성-사천리-원통에 이르는 453번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감제고지였다. 또 아군이 확보한다면 적을 남강 북쪽으로 구축하여 남강과 그 대안을 깊숙히 감제할 수 있는 주요 지형지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지는 군이 계획하고 있는 해안분지 포위작전상 꼭 확보해야 할 낚시바늘 능선의 머리부분으로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피아간 작전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형지물이었다.

제11사단장(吳德俊 준장)은 군단장의 명령을 받고 현 전선을 방어하면서 제9연대로써 이 고지를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제9연대장은 703고지에 추진 배치된 제1대대로 884고지를, 연대 특공대로 591고지를 점령하여 사단의 임무를 완수도록 하되, 건봉산 서측의 제2대대는 현 진지를 강화하면서 의명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며, 제3대대는 연대예비로써 측후방에 대한 경계와 아울러 공격제대가 목표를 탈취하면 이를 인수하도록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제9연대는 사단포병 및 동해안으로부터 유엔해군의 함포지원을 받으며 8월 18일 06:00에 남강지류를 건너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대대

는 884고지의 동측에서 제1중대를 중앙으로 나머지 중대를 고지 좌우로 전개하여 3면에서 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지형의 경사가 심한데다 적이 잘 구축된 진지에서 방어함으로써 전진이 부진하였다. 이때 중앙의 제1중대가 우측으로 우회하여 적의 좌측방 능선으로 육박, 수류탄을 투척하며 백병전을 전개하자 적이 분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대대가 일제히 적진으로 돌입하여 12:00경 884고지를 점령하였다(1차 점령).

사단이 사단목표인 동시에 군단목표이며 또한 군전략상의 전술목표이기도 한 이 고지를 탈취하자 이 전투를 주시하고 있던 군단장 백선엽 소장(휴전회담 대표 겸무), 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 총참모장 이종찬(李鍾贊) 중장으로부터 전공을 치하하는 전문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이날 좌인점의 수도사단도 924고지를 탈취함으로써 군지도부는 이날의 쾌거에 만족해하였다. 그러나 이는 너무 시기상조인 듯하였다.

적은 이날 함포사격의 세례를 견디지 못하여 물러난 듯 884고지 주변의 591고지, 602고지, 751고지 부근에서 역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또한 연대는 증원부대를 급파하여 동 고지 주변의 잔적을 구축하고 방어진지를 견고히 구축하려 하였지만 사단 및 연대방어 정면이 넓어 부대차출이 어려워 증원부대를 적시에 투입하지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오후부터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몰아쳐 제1대대는 시계와 사계가 극히 제한된 악조건하에서 방어를 해야 하였다.

대대는 하는 수없이 단독으로 일몰 후 사주 방어태세를 갖추었는데 곧 적의 포격이 시작되더니 주변 고지로 물러났던 적이 3개 제대로 무리를 지어 불량한 기상조건을 이용해 역습을 가해 왔다. 대대는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나 적의 파상공격을 막지 못하고 후사면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때 대대장은 고지 중복에서 병력을 수습하며 재공격을 준비하였다.

한편 연대 특공대는 제1대대보다 2km 북쪽에서 역시 사단목표 591고지를 공격하였다. 특공대도 지원사격을 요청해 가며 적의 저항을

극복하며 돌격을 3차례나 실시하였으나 결국 목표를 점령하지 못하고 원위치로 철수하였다.

제1대대는 다음날(19일) 미명 884고지 남쪽 간곡(間谷) 부근으로 철수한 후 포병 및 항공지원 사격으로 적진을 강타한 다음 재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번에는 제1중대를 예비로 돌리고 나머지 2개 중대로 공격하였는데, 우전방의 제2중대가 선봉으로 적진에 돌입하여 수류탄을 투척하며 함성을 지르면서 고지 정상으로 뛰어올라 육박전을 감행하였다. 이때 좌전방의 제3중대가 협공하자 적은 물러가기 시작하였으며 이 틈을 이용하여 대대가 고지를 완전히 탈환하였다(2차 점령).

대대는 우중에도 3개 중대로 사주 방어진지를 구축하며 재편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대는 기상, 지형, 보급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폭풍과 강우로 급조 유개진지 구축이 어려웠고 각종 화기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시계가 불량하여 적진탐색과 상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향로봉산맥을 넘어 보급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탄약과 식량보급이 부족하였다.

21일에 대대는 884고지에 대한 적의 공격 근거지마저 탈취한다는 복안하에 서쪽으로 1km 떨어진 602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우중에 정오경부터 도리어 이 고지와 남쪽 751고지로부터 적의 공격을 되받았다. 9시간이나 결전을 치렀다. 결국 시간의 경과에 따라 탄약이 바닥나는가 하면 대대장과 제2·3중대장이 부상을 입는 등 전투병력의 1/3이 손상을 입었다. 드디어 20:20경 계속되는 적의 공격에 좌익의 제3중대 진지가 무너지면서 고지를 피탈당하였다.

이로써 2번째로 확보한 884고지에서 물러난 제1대대는 간곡 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하면서 급편진지를 편성하였고, 대대 관측소는 703고지로 이동하였다.

다음날(22일) 연대장은 제1대대는 현 진지에서 적을 견제하도록 하고 사단장의 승인을 얻어 진봉산 서쪽의 전진진지를 확보중인 제2대

대로 하여금 제1대대를 증원하도록 하며, 제3대대는 600고지, 703고지의 전진진지를 계속 고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념하에 부대를 재배치하는 동안 연대와 사단에서는 재보급을 추진하였으나 기상불순과 지형의 험악으로 부진하였다.

제2대대는 건봉산 서쪽에서 철야 강행군으로 703고지에 도착한 후 23일 아침 남강지류에 이르렀으나 그간의 호우로 강물이 범람해 도보로는 건널 수가 없었다. 하는 수없이 사단공병의 지원을 받아 가교(假橋)를 설치하고 나무로 급조 도하장비를 만들어 22:00경에야 강을 건너기 시작하여 공격준비를 하였다. 따라서 장병들은 2일간의 철야로 많이 지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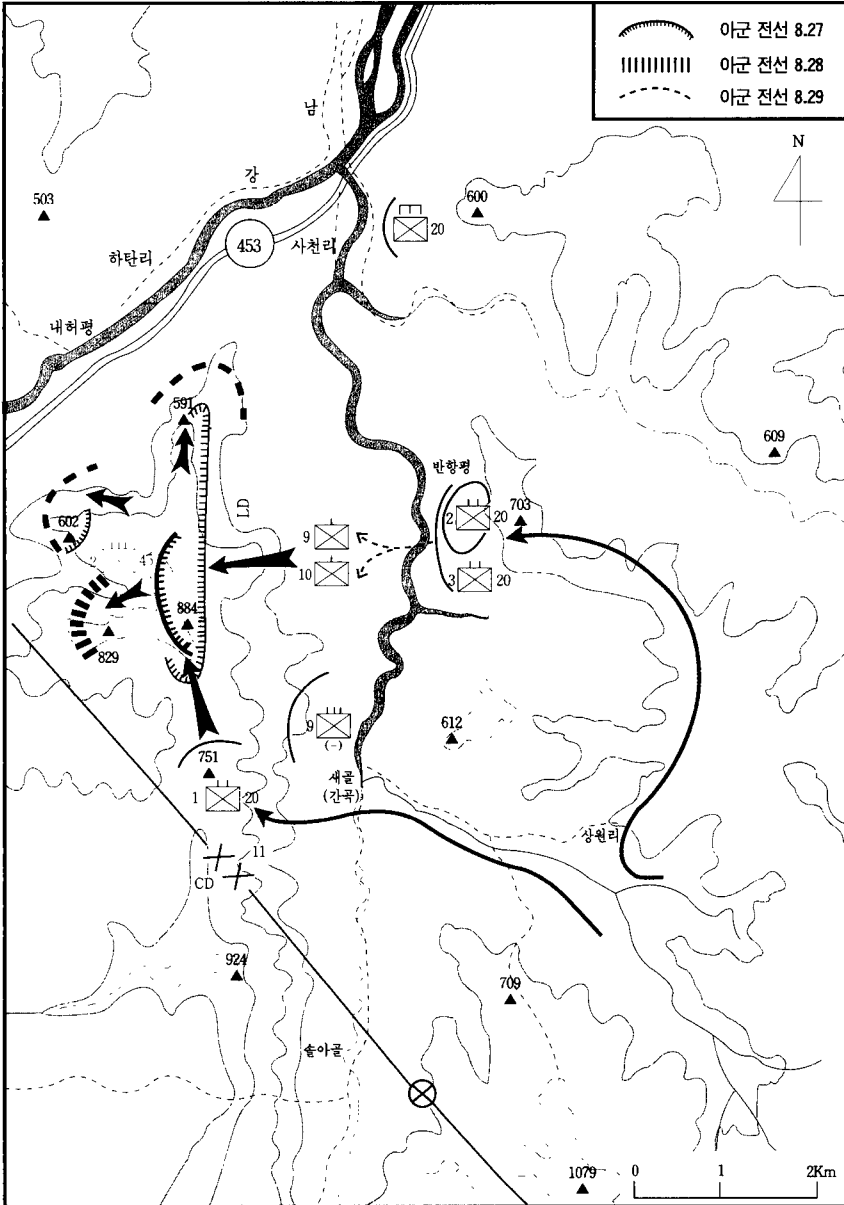
제2대대는 24일 여명에 3개 중대가 일제히 884고지 공격을 시작하였으며 09:30경에는 제1대대와 합세하여, 양개 대대 병진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였다. 다행히 이날 연대는 항공지원까지 받으며 적진까지 육박하였으나 적의 저항 또한 집요하여 돌파구를 열지 못한 채로 격전을 반복하였다.

이날 야간에 우일선의 제1대대 제3중대는 돌격대를 자청하여 우측으로 우회한 1개 소대가 측후방에서 적을 급습하자 적진에 혼란이 야기된 기회를 틈타 나머지 소대로써 사각을 찾아 접근한 다음 과감히 적진으로 돌입하였다. 이때 양개 대대가 일제히 돌격하여 저항하는 적을 격멸하고 세 번째로 884고지를 탈취하였다(3차 점령).

양개 대대는 적의 역습을 예상해 재편성을 하였으나 다음날(25일) 04:00경 적 2개 대대가 계속 밀려들어 18명이 전사하고 88명이 부상하는 등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다시 고지를 적에게 내어주고 후사면으로 밀려났다. 연대장은 이들 부대를 간곡 부근으로 철수시켜 급편 방어진지를 구축하면서 부대를 수습하였다.

이와 같이 제9연대가 3번이나 목표를 탈취하였으나 번번이 적의 역습으로 고지에서 밀려나 많은 손실이 발생하자 사단장은 제9연대의 임무를 제20연대로써 교대시켜 제20연대로 하여금 27일 06:00에

884고지 전투(1951. 8. 27)



공격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다음날(26일) 제20연대장은 주저항선의 제3대대를 703고지로 이동시켜 동측에서 884고지의 동측 배면을 공격하고, 제1대대를 751고지⁸⁵⁾로 추진시켜 884고지 서측을 공격하도록 하였으며, 제2대대에는 703고지에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884고지가 탈취되면 602고지, 591고지를 공격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연대 관측소는 1079고지에 설치하였다.

26일 오후부터 27일 새벽까지 각각 공격출발 진지로 이동을 완료한 제20연대는 이날 8월 27일 사단포병 제20대대와 군단포병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6:00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는 적의 집중되는 방어사격과 탄막사격에 고전을 면치 못하였지만 일보 일보 전진하여 백병전 끝에 고지의 북반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전사 22명, 부상 64명의 손실을 입었다. 751고지에서 공격을 개시한 제1대대는 일련의 종격실 능선을 타고 8부 능선까지 진출하였을 때 적이 수류탄을 굴리며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적진을 좀처럼 돌파하지 못하였다. 이때 대대장은 계속 돌진을 명하였고 제3중대가 30m 전방까지 육박하여 함성을 지르며 적진에 뛰어들자 진지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 순간에 대대가 일제 돌격하여 30분간의 격돌 끝에 884고지를 네 번째로 탈환하였다(4차 점령). 한편 연대는 8월 29일에 예비 제2대대가 602고지와 591고지를 점령함으로써 884고지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적은 다음날부터 9월 초까지 계속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연대는 이를 격퇴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전초선을 남강 남쪽의 884고지-591고지-600고지-작은 까치봉까지 추진하여 방어선을 개선하고 군단의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이 전투에서 적의 2, 3차 역습시 한번에 100여명의 손실을 입었고 마지막 목표탈취시에도 약 200명의 손실을 입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 물론 이 전투에서 적 제45사단의 손실도 포로 31명에 사살 1,252명으로 추산되는 등 대단히 컸다.

이에 앞서 수도사단이 8월 23일까지 924-751고지를 점령한데 이어 8월 27일 제11사단이 884-591고지를 탈취함으로써 국군 제1군단은 군계획에 의거 해안분지 공격을 위하여 전개한 그 동측 능선 점령 임무를 완수하였다.

(2) 月比山戰鬪

국군 제1군단은 8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924고지와 884고지를 점령한 다음 9월 6일에 단행된 군의 전선 조정에 의거 군단 서측의 방어선이 2km 축소됨을 계기로 향로봉-건봉산-까치봉-송현리(동해안)를 방어하게 됨에 따라 사단을 재배치하였다. 즉, 군단 좌익의 전선을 미 제10군단에 인계한 수도사단을 동해안으로 이동시켜 제11사단과 수도사단으로 주저항선을 편성하고 제3사단을 예비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9월 13~15일 사이에 제3사단 지역을 인수하였으며 제3사단은 양양으로 이동하여 야전훈련소(FTC)에 입소하였다.

이 무렵 인민군도 해안분지 일대에서 제2군단이 대타격을 받자 동해안에서 국군 제1군단과 대치중이던 제3군단을 서로 이동시켜 제2군단과 교대시켰으며, 동해안 지역에는 서부전선에서 재편성한 제6군단이 투입되었다. 적 제6군단은 제19사단을 남강 동안에, 제9사단을 고성으로부터 통천까지의 해안선에 배치하고 제18사단을 예비로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었다.⁸⁶⁾

이중 동해안의 수도사단과 대치한 제6군단 예하 제19사단은 까치봉 서북능선-월비산-351고지 부근에 주력을 배치하되 특히 월비산에 강력한 거점을 형성하여 아군의 전진을 저지하는 한편, 장차 공격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듯하였다. 그리고 제9사단은 고성 방어에 중점을 두고 적벽산-146고지-고봉리 선에 부대를 배치하였다. 이들은 아군의 기도를 탐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월비산은 459고지로서 이 일원에서 가장 높은 감제고지이며 적에

게는 남강 및 고성 의 확보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차후 공격작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고지였다. 반면 아군으로서도 남강의 통제와 고성 의 확보를 위해 또한 사단 주진지가 감제당하는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할 고지였다. 국군 제1군단장은 10월에 접어들어 군이 전개하고 있는 제한된 중심의 전선 ‘밀어올리기’ 작전의 일환으로 월비산을 점령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획득함은 물론 동해안의 적을 남강 북쪽으로 구축할 기도하에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이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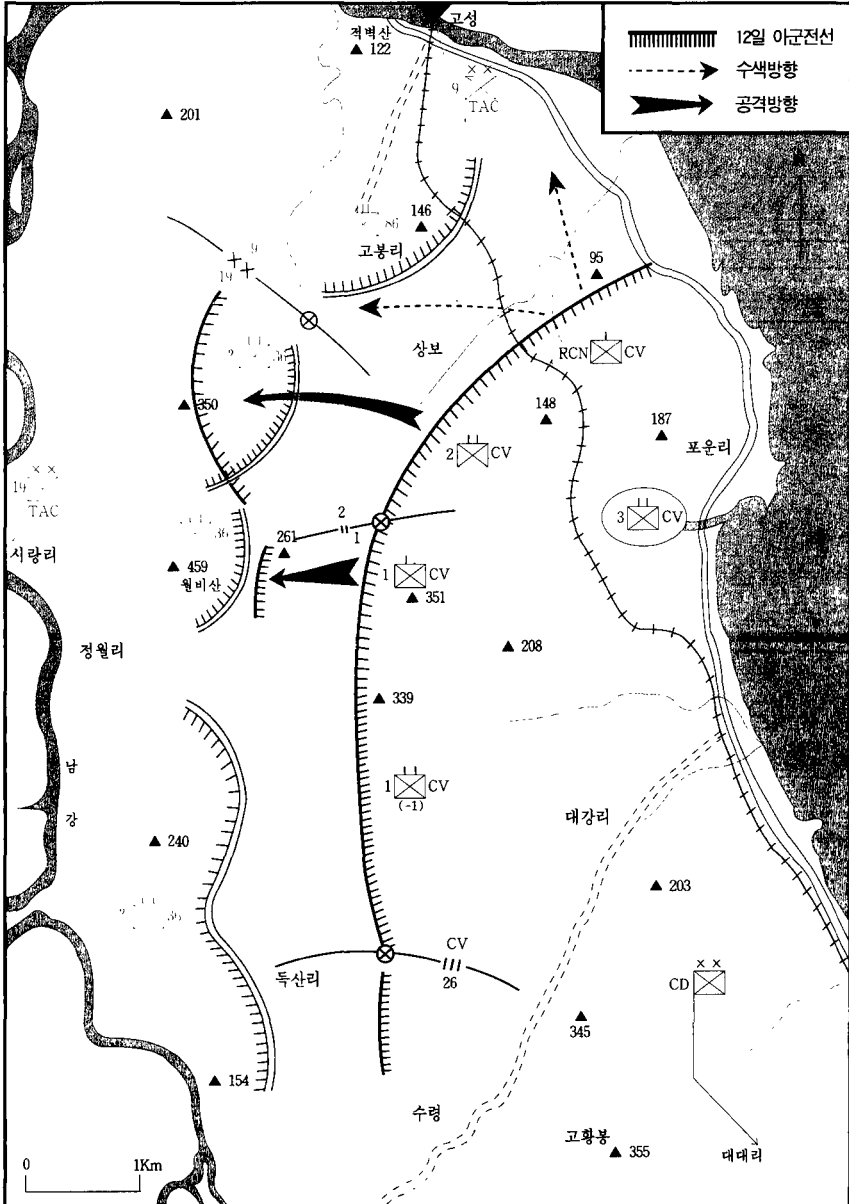
● 수도사단의 월비산·고성 탈환

당시 동해안으로 이동한 수도사단은 제1연대와 기갑연대를 전방으로, 제26연대를 예비로 하여 554고지-고황봉-36고지-강정(江亭)을 연하는 선을 방어하였다. 수도사단장(宋堯讚 준장)은 이중에서 월비산의 적과 대치한 제1기갑연대로써 본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10월 3일에 월비산 공격의 사전 포석으로써 351고지(월비산 동쪽 2km)-148고지(고성 동남쪽 3.5km) 선을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지형의 특성상 월비산으로의 공격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려는 복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기갑연대는 10월 10일에 사단포병과 군단을 지원하는 미 제196포병대대 1개 포대의 지원과 동해안으로부터 함포지원을 받아 가경지(佳境地)고개-명호리(明湖里) 선으로부터 노도와 같이 돌진하여 다음 날까지 7km를 진격, 351-148고지 선을 탈취하고 월비산 공격준비에 들어갔다. 이때 사단장은 예비 제26연대 제2대대로 하여금 기갑연대의 주저항선(고황봉-203고지-36고지) 방어임무를 인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기갑연대는 월비산 공격작전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기갑연대(李龍 대령)는 10월 12일 06:00에 월비산 공격을 개시하였다. 주공인 제2대대는 동측의 148고지에서 월비산 북쪽의 350고지를 점령한 다음 이를 발판으로 삼아 남쪽으로 공격하고, 제1대대는 조공

월비산전투 상황도(1951. 10. 12)



으로서 351고지에서 곧장 261고지를 경유하여 정면으로 월비산을 공격, 주공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연대는 공격준비사격으로써 월비산은 물론 350, 261고지 부근의 적의 진지와 장애물을 파괴함과 아울러 이 두 고지는 물론 고성 남쪽의 201, 146고지에까지 연막탄을 투하, 적의 관측을 완전히 차장하여 기동부대의 은폐를 도모하였다.

주공인 제2대대는 적과 10시간의 격전 끝에 16:00경 350고지를 점령한 다음 계획대로 월비산을 공격하였다. 후방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적진에 동요의 기미가 보이자 제2대대의 공격중대가 돌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열을 재정비한 적이 계속적인 저항을 함에 따라 결국 목표를 점령하지 못하고 350고지로 철수하였다. 같은 시간에 조공인 제1대대는 261고지를 점령하고 여러 차례 동측에서 월비산을 공격하였으나 적의 포격과 방어사격에 번번이 둔좌되어 261고지로 철수하였다.

다음날(10월 13일) 폭우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재공격을 감행하여, 제2대대는 월비산 8부 능선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수류탄을 굴러 내리며 대항하는 적을 제압하지 못하였다. 제1대대는 고전 끝에 월비산의 적진에 접근한 다음 일제히 돌격을 개시하자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5:00경에는 고지 동쪽의 일부를 확보하였다. 이때 엄체호로부터 1개 중대의 적이 뛰어나옴에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으며 여기에서 대대는 다시 밀려나고 말았다. 이날의 전투에서 포로 14명, 사살 355명의 전과를 기록한 반면, 아군도 전사 18명, 부상 77명 등 약 100명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연대장은 지난 2일간의 전투경과 분석에서 350고지 북쪽의 201고지와 146고지에 배치된 적을 격멸하던가 견제하지 않고는 월비산에 대한 증원을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공이 배후의 위협을 받아 공격에 집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예비인 제3대대를 투입하였다. 제3대대의 2개 중대는 350고지를 점령

하여 북쪽의 201고지로부터의 증원을 차단하였으며 나머지 1개 중대는 연대 수색중대와 함께 146고지를 급습, 적벽산으로부터의 적 역습을 구축하였으나 그후 적의 포격에 사상자가 속출해 148고지 부근으로 복귀하였다.

제1기갑연대장은 기필코 월비산을 탈취하기로 작심하고 10월 15일에 제3대대를 주공으로 삼고 나머지 대대를 조공으로 삼아 연대 총력을 경주하여 공격을 실시하였다. 제3대대는 350고지에서 제9중대를 선두로 북쪽에서 월비산을 공격하였고 제2대대는 주력으로써 서쪽으로 월비산을 우회하여 공격하는 한편, 제1대대는 제2중대를 선두로 261고지에서 월비산 동측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이날 폭우와 강풍이 멎은 모처럼의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맞아 포병과 항공지원을 받으며 공격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날의 공격은 3개 중대가 각 대대장의 지휘하에 3개 방향에서 목표로 향하였으며 중대간의 거리가 이격되어 상호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격제대는 적의 저항에 공격이 둔좌 직전의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제9중대가 접근로상에 배치된 적의 기관총 사격으로 고전하던 중 요청한 포병과 박격포 지원사격이 정확히 목표지점에 명중되는 틈을 타 이들을 제압하며 고지 정상으로 돌진하였다. 서쪽으로 우회한 제7중대는 정상을 향하는 진출중에 우군 항공기 오폭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목표로 돌격을 감행하였다. 제2중대도 적의 기관총 및 엄체호로부터의 사격에 고전하였으나 제1중대의 지원사격의 도움을 받아 활로를 찾으며 돌격선으로 진출하였다. 이와 같이 3개 방향에서 돌격선에 다다른 이들은 제7중대가 서측에서 먼저 진내로 뛰어들어 월비산 정상으로 차단자, 다른 중대들도 각기 돌격을 감행하여 각각의 목표를 점령함으로써 월비산을 탈취하였다.

이날 사단장은 월비산에 직접 올라와 장병들을 치하하고 훈장을 수여하였으며, 군단장도 고성외 관문 월비산 탈환을 치하하는 격려 전문을 보내왔다.

월비산을 탈취한 기갑연대는 제3대대를 월비산-350고지에, 제1대대를 339-351고지-덕무현에 배치하고, 제2대대를 148고지 남쪽에 집결시켜 고봉리-146고지로 진출태세를 갖추며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사단장은 다음날 16일에 예비인 제26연대를 전방으로 추진, 본래의 기갑연대 주저항선이었던 수령-강정까지의 진지를 인수시켜 동측의 제1연대와 연계하여 사단 주저항선을 형성하는 한편, 기갑연대는 새로 점령한 지역에 전초진지를 편성하도록 조치하였다. 기갑연대는 16~17일 자정경 월비산을 탈취하려는 적의 역습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였다.

사단장은 적이 일정기간의 정비 없이는 재공격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과확대를 명령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그대로 17일에 고봉리-146고지 선을 점령하고 19일에 공격을 재개하여 201고지-적벽산까지 확보하여 남강 남쪽의 적을 모두 구축하였다.

● 제11사단의 월비산 피탈

추계공세작전에서 월비산을 탈취하고 남강까지 진출한 수도사단은 11월 16~17일에 방어진역을 좌인접 제11사단에 인계하고 후방지역 공비토벌을 목적으로 새로 창설된 백야전사령부에 배속되어 호남지방으로 이동하였다. 제11사단장은 현 주저항선 방어임무를 수행중인 제13·제20연대는 그대로 두고, 예비인 제9연대로 하여금 수도사단의 주저항선을 인수하도록 하는 한편, 대전차 공격대대에 사단 수색중대를 배속시켜 월비산과 남강 이남의 전초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1개 사단방어진역을 1개 연대가 맡고 또한 1개 연대가 맡던 전초진지를 1개 대대(당시 대전차 공격대대는 2개 중대가 결한 상태였다)로 편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11월 16일부로 군예비로 야전훈련소(FTC)에서 교육중인 제5사단 제36연대를 제11사단에 배속 조치하였다.

반면 적 제6군단의 제19사단도 수도사단과의 전투에서 심대한 손실을 입어 재편성차 후방으로 물러나고 그 대신 제9사단이 남강 북방의 전선으로 진출하였다. 작전지역을 인수한 적 제9사단은 전초고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던 중 아군의 부대교대를 포착한 듯 교대 다음날(18일)부터 월비산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전투(제2차 월비산전투)에서 제11사단은 월비산과 구선봉까지 제9연대 정면의 전초를 모두 상실하였으며 한때 351고지도 상실하였다가 역습으로 되찾았다. 이후 월비산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 전투에서는 부대교대와 관련한 군의 지휘조치상의 문제 외에도 대전차 공격대대가 월비산에 투입할 때 2개 중대나 결한 상태이어서 전력이 부족하였으며 월비산 및 사단 전초에 투입 후 남강에 대한 경계를 충실히 하지 않아 적의 도하를 미리 간파하지 못해 기습적 공격을 당한 점 등 여러 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이 국군 제1군단은 하계-추계공세에서 남강 이남의 지역을 확보하여 방어선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수도사단은 38도선으로부터 80km 북쪽에 위치한 고성까지 진출함으로써 유엔군 전 전선에서 가장 북쪽으로 진출한 부대가 되었다. 그러나 동해안에서는 적의 동계공세를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여 월비산과 구선봉 북쪽의 전초고지를 빼앗김으로써 고성을 적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4. 漣川-鐵原 兵站線 確保

미 제1군단(John W. O'Daniel 중장)은 미 제10군단이 하계제한공세 작전을 통하여 해안분지를 확보하고 방어선을 개선하는 한편 그 마무리 단계로서 단장의 능선 전투를 치르고 있을 무렵, 서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추계공세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공작전(코맨도 작전: Commando)'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 작전은 당시 한강 하구-문산-연천-철원에 이르는 군단 방어선을 역곡천까지 약 10km 정도 추진하여 그곳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한다는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 작전의 목표선은 고랑포 동남 임진강 제방-사미천변의 사미촌-고왕산-마량산-임진강변 계호동-역곡천 남안의 고지군-281·395고지-철원북서 주도소-중가산-438고지-한탄천과 남대천의 합류지점 정연리를 연하는 선으로서 ‘제임스 타운선(Jamestown Line)’으로 명령하였다.

군단장은 이 작전으로 ① 방어선을 역곡천까지 추진하여 현재 점령 중인 와이오밍선의 방어력을 더욱 튼튼히 함은 물론 ② 연천-철원계곡의 병참선을 적의 포병사격이나 관측으로부터 방호하고 서울-철원, 철원-김화 간의 철로를 개통시켜 다가오는 겨울 차량에 의존해야 하는 보급제한을 해소하며 ③ 아울러 적의 균형을 파괴하고 아군이 정체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전략·전술적 이점을 고려하여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9월 말 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 작전으로 미 제1군단의 우익이 돌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인접 미 제9군단의 좌익 미 제25사단도 이 작전에 동참하도록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10월 2일에 군단장은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아래와 같이 각 사단에 임무를 부여하였다.⁸⁷⁾

- 1) 군단 좌익의 임진강을 방어중인 국군 제1사단은 판부리 서쪽 91고지, 146고지 일대(Moon)를 점령 방어하라.
- 2) 영연방 제1사단은 187고지, 고왕리 일대(Foster)와 마량산, 고잔리 일대(Moore)를 점령 방어하라.
- 3) 미 제1기병사단은 늪음고개, 346고지 덕은동 일대(Courson)와 347고지, 갈현리 일대(Craig)를 점령 방어하라. 또한 목표 크레이그를 탈취 후 우인접 미 제3사단의 목표 바틀러 공격을 지원할 준비를 하라.

- 4) 미 제3사단은 중토동-도밀리, 324고지-덕산리 일대(Butler)와 대마리-281고지-266고지-중어성 일대(Watts)를 점령 방어하라. 바틀러 목표는 북쪽과 남쪽에서 공격하되, 이것이 불가능하면 1개 연대를 좌인접 제1기병사단 지역으로 기동시켜 서쪽에서 공격하라.

그리고 미 제9군단의 제25사단은 좌전방 터키 여단으로 하여금 김화-평강 사이의 중간지점까지 전진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미 제1군단의 전방에는 좌로부터 중공군 제19병단 이하 제65군과 제64군이 임진강 연안에 배치되었으며, 역곡천 일대에는 제47군과 대치중이었고, 철원-김화 전방에는 제42군과 제9병단의 제26군이 평강으로 이르는 접근로를 방어하고 있었다.⁸⁸⁾ 그리고 예성강 서쪽에는 인민군 제1군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밖에도 남천점 남서쪽에는 제19병단의 제63군이, 이천-곡산 지역에는 제3병단 제12·제15·제60군이 전선예비로 집결하고 있었다. 전방에 배치된 당면의 적은 몇 개월간의 교착기를 이용하여 방어선도 강력히 편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월 2일에 평덕회로부터 “제19병단은 적의 공격에 단호히 저항하고 적군을 대량 살상하며 또 유리한 상황에서는 역습을 실시함으로써 적군의 공세를 분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어⁸⁹⁾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었다. 즉 중공군은 “적극방어, 계속저항, 반복쟁탈, 적군섬멸”이란 지도원칙아래 강력한 저항과 연속적 역습으로 방어선을 고수할 태세였다.⁹⁰⁾

미 제1군단의 특공작전은 10월 3일 이른 아침 1시간에 걸친 공격 준비사격에 이어 06:00에 시작되었다. 첫날 작전에서 좌익의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상의 주진지를 확보한 가운데 우전방 제15연대가 적의 저항을 받음이 없이 사미천 서안의 91고지와 146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군단목표를 점령하였다. 역시 우익의 미 제25사단도 터키 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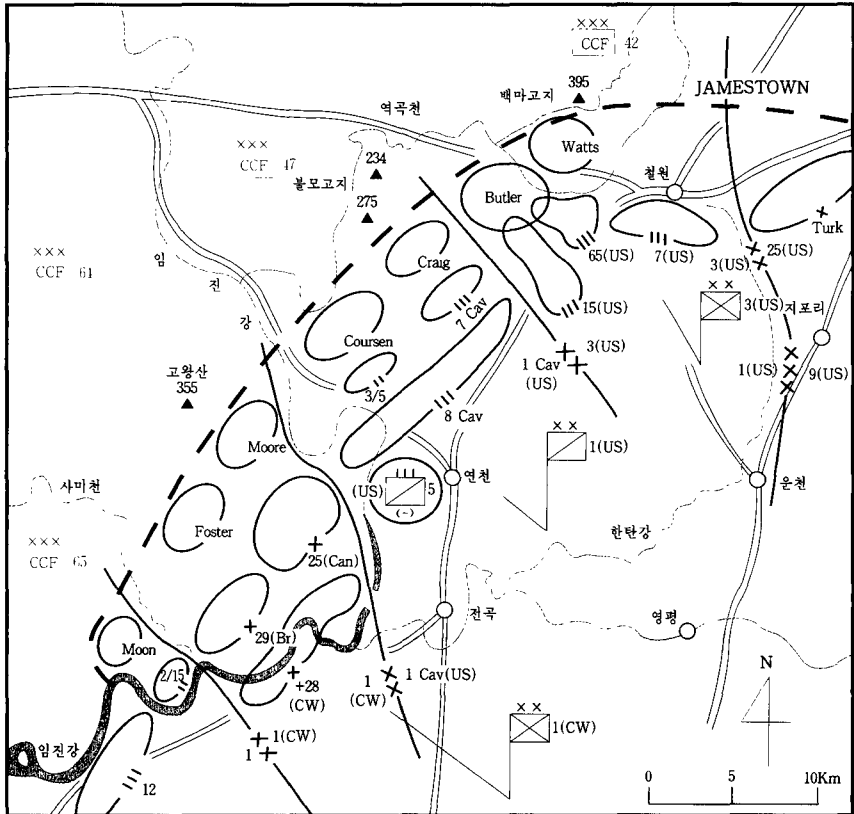
이 경미한 교전 끝에 이길리의 372고지를 점령하고 제14연대가 제임스타운선 동단의 정연리 북측 430고지를 집적없이 점령함으로써 사실상 작전목표선을 확보하였다. 이들 사단의 목표선은 정면과 중심이 모두 짧아 조기확보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양익 사단이 순조롭게 임무를 완수한 데 비해, 나머지 사단은 적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고 특히 중앙의 제1기병사단 공격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마치 단장의 능선 전투를 방불케 하는 조짐을 보이었다.

제1기병사단(배속:그리스 대대, 타이 대대)은 첫날 좌전방 제5기병연대가 목표 커스에 이르는 중간목표 222, 272, 346, 287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뺏고 빼앗기는 고전 끝에 222고지를 점령하는데 그쳤고 272고지는 6번의 공격에도 실패하였다. 우전방 제7기병연대는 제3대대와 그리스 대대 그리고 제2대대를 전방으로 하여 크레이그 목표 남쪽의 347고지, 313고지, 418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모두 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스 대대의 313고지 전투와 제2대대의 418고지 전투에서는 이날 하루에 3~4차례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으나 적은 백병전에서 밀려나지 않고 강한 저항을 하였다. 특히 중공군은 이날, 아군이 15,000발의 포탄을 발사한 데 반하여, 제2포병사단을 투입하고 그 대부분을 미 제1기병사단의 전진을 저지하는데 운용하였다.

제1기병사단 좌익의 영연방 제1사단은 우전방 제28연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여 이날 목표 무어 하단의 고잔하리-199고지를 점령한 데 이어 일부는 강한 저항을 격파하며 목표 포스터와 무어의 중간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제1기병사단의 우익 미 제3사단은 이미 목표 왓슨는 거의 점령한 상황이었으므로 공격의 초점은 바틀러 목표에 모아졌다. 왓스 탈취임무를 부여받은 중앙의 제7연대는 이미 395고지와 266고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공격 초일인 10월 3일 배속된 사단 수색중대가 중어성 남쪽 도로 교차점까지 점령지역을 확대함으로써 281고지만을 남겨두고

특공작전(Operation Commando)(1951. 10. 3)



있었다. 우익의 제65연대(-)(배속: 필리핀 대대)는 철원평야의 284고지와 증가산 일대까지 일부 부대를 추진 배치하여 제임스타운선을 점령하였다. 좌전방 제15연대는 목표 바틀러 남쪽 아월산(487고지)을 무혈 점령하고 천덕산(477고지)을 공격하였다.

다음날인 10월 4일도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격전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제1기병사단의 공격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제5기병연대는 이날도 346고지 공격에서 쌍방간 균형을 깨지 못하였고 272고지는 확보하였다가 상실하였다. 제7기병연대도 전날처럼 347, 313, 418고지

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그리스 대대는 313고지 공격에서 연일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제7연대 제2대대는 제8연대의 1개 대대를 지원받아 양개 대대로 공격하였으나 418고지를 점령하지 못하였다. 적은 고지에서 구축되면 인명을 고려치 않고 부대를 투입해 다시 되찾아갔다. 적은 중대 단위가 12정의 기관총을 운용하였으며 많은 양의 수류탄을 확보했다가 투척하였다. 아군은 바로 이 수류탄 공격에 많은 손실을 입었다. 이날 적은 예비인 제140사단을 투입하여 제1기병사단에 의해 심대한 타격을 입은 제139사단을 증원하였다. 따라서 제1기병사단은 중공군 제47군의 주력과 대결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5일에는 적의 방어선도 일부가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이날 제1기병사단의 우전방 중앙에서 313고지를 공격한 그리스 대대가 정상에 이르렀을 때 적은 시체 150구를 남기고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스 대대는 여기서 패잔병 12명을 포로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우측의 418고지도 무혈 점령하였다. 이로써 제7기병연대는 작전 3일째에 비로소 목표 크레이그의 저변을 확보하고 347고지와 334고지를 지척에 두고 있었다.

한편 영연방 제1사단은 10월 4일 중앙의 캐나다 제25여단이 187고지와 가마골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고 좌전방 제29여단이 187고지 서단으로 진출함으로써 목표 포스터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우전방 제28여단은 목표 무어와 포스터와의 중간에 위치한 고왕산(355고지)과 227고지를 점령하고 무어의 남단 일각을 차지하였다. 이 여단은 다음날 5일 공격을 재개하여 마랑산(317고지)과 그 서남의 217고지를 탈취함으로써 목표 무어를 완전히 확보하였다.

미 제3사단은 10월 4일 제15연대가 이틀째 공격에서 천덕산을 점령하였으나 적의 역습에 의해 다시 피탈당하였으며, 제7연대는 281고지까지 점령함으로써 목표 왓스를 완전히 확보하였다. 제65연대는 제2대대가 작일 점령한 제임스타운선에서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제15

연대는 10월 5일에야 천덕산을 점령한 다음 6일에는 적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324고지에 오름으로써 목표 바틀러를 점령하였다.

군단의 특공작전 개시 4일째인 10월 6일에도 가장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제1기병사단은 격전을 계속하였다. 제5기병연대가 적거리(赤巨里) 일대의 목표 커슨 남단 346고지 일대로 수색정찰대를 진출시켰으나 대대규모의 저항으로 원위치로 복귀하였으며, 제7기병연대는 배속받은 제8기병연대 제2대대가 갈현리 334고지를 점령하고 주야 두 차례에 걸친 적의 역습을 격퇴하였다. 포로들은 공격 초일에 부대가 많은 살상을 당하였으며 이미 식량과 탄약도 고갈되어 이날 역곡천 북방으로 5~7km 후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작전개시 5일째 10월 7일 이미 좌우인접 사단들이 목표를 확보한 가운데 제1기병사단도 공격에 박차를 가하였다. 우익의 제7연대는 제3대대가 그리스대대의 지원을 받아 부흥리 347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일몰 무렵 이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제1기병사단은 두 개의 목표 중 크레이그를 완전히 확보하였다.

그러나 좌익 제5연대의 공격은 이날까지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제7연대가 제5연대의 지원에 나서 제1대대로 하여금 커슨 목표의 하나인 287고지 공격임무를 인수 제2대대의 지원하에 이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이날 저녁 무렵 제7연대 제1대대가 커슨 목표의 동북 287고지를 점령하여 제5연대 목표의 일각을 파괴하였으나 적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무자비한 포병, 박격포, 전차포 사격도 튼튼한 적의 방어조직을 돌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항공폭격도 교묘한 참호조직으로 인하여 적의 방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346고지를 중심으로 한 230, 272고지에서는 10월 9일까지도 목표탈취를 위한 격전이 계속되었다. 이날로 군단은 '코맨드'작전을 일단 종결하였다. 비록 1개 목표가 남아 있지만 군단의 작전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1기병사단은 군단작전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목표 '커슨'

에 대한 공격작전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끊임없는 공격과 그들의 병력 및 탄약의 고갈로 그 효과가 10월 12일에야 나타나게 되었다. 이 날밤 적은 272고지를 포기하였으며, 다음날 제8기병연대가 접적없이 이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마지막 목표인 346고지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한편 이 무렵 군단 우익 제3사단 지역에서는 10일부터 사단의 전초임무를 띠고 학당리 338고지에 추진된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가 11일과 12일 자정 후 한밤중에 최후 저지사격에도 불구하고 진전에 접근한 중공군을 격퇴시켜 제임스 타운선 방어에 큰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 목표 커슨(Courson)에 대한 이 작전은 10월 15일에 시행된 새 작전계획(Polecharge)에 의거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제5기병연대는 제3사단으로부터 벨기에 대대를 배속 전환받아 346고지를 공격하고 제8기병연대는 필요시 제5기병연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16일부터 제5연대가 총공격을 실시하고 제8연대가 287고지로부터 346고지를 북동쪽에서 공격하였다. 18일에 가서야 강력하게 저항하던 적이 철수한 후에 제5연대가 346고지를 점령하고 230고지도 탈취하였다. 이어서 적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262고지의 탈취로 목표 커슨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19일까지 제1기병사단은 역곡천 남안의 목표를 모두 확보하였으며 적은 그 북쪽으로 철수하였다.

10월 3일부터 19일까지 중공군은 무엇보다 그들의 보급기지인 삭령을 방어하기 위하여 역곡천 남안에서 강력히 저항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공군은 이 작전에서 기본전술 교리인 유동방어(Fluid defense) 개념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고수방어를 실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공군의 전사에는 이 전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군은 적극방어, 계속저항, 반복쟁탈, 적군섬멸”의 지도원칙아래 강인한 저항과 연속적 역습을 실시하였다. 진지마다 모두 수차에서 10여 차례에 이르는 반복쟁탈전이 전개되었고, 아군의 어떤 중대는

10~30여 명이 남게 되었으나 진지를 여전히 고수하였다. ……

마량산 진지는 5차례나 뺏고 빼앗겼다. 217고지를 방어한 1개 중대는 갱도식진지(말밭굽형 동굴)에 의탁하여 하루 동안에 21차례의 적의 계속된 공격을 격퇴하였다.

이 특공작전 기간중에 중공군은 포로 500명을 포함해 21,000여 명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제47군의 전력은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이 중 76%인 16,000명은 제1기병사단에 의해 초래되었다. 아군도 제1기병사단의 2,900명을 포함해 모두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아군은 이러한 많은 희생의 대가로 작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방어선을 제임스타운선까지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후 상실한 진지를 되찾으려는 중공군의 공격도 되풀이되어 특히 제1기병사단과 영연방 제1사단지역에서는 전초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전투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 특히 1951년 11월부터 실시된 적의 동계공세에서 중공 제64군은 마량산과 고왕산에 대해 차례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해 왔다.

중공군은 11월 2~3일 영연방 사단의 좌전방 연대(캐나다 제25여단) 지역에 양공작전을 편 다음, 4일 조조에 우전방 제28연대가 방어중인 마량산(315고지)과 217고지를 공격해 왔다. 그들은 포격은 물론 7~8대의 전차까지 동원해 공격하였다. 아군도 포병사격과 항공폭격으로 대응하였다. 적은 인해전술과 파상공격으로 아군 방어진지를 돌파해 들어왔다. 역습도 실패함으로써 결국 지난 10월 초에 힘겹게 탈취한 이 고지를 상실하였다.

중공군은 11월 17일 밤에 역시 제28여단의 좌단인 고왕산 서쪽 227고지를 공격하였다. 야간공격에서 적에게 압도된 여단은 결국 이 고지를 상실하고 227고지와 고왕산(355고지) 사이의 안부(鞍部)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 무렵 단행된 사단전투지경선 조정과 이에 따른 부대 재배치의 결과로 사단의 우전방이 된 캐나다 제25여단 예하 R22^R대대가 문제의 안부진지를 인수하였고 그 동측 고왕산은 미 제3사단

에 인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부대배치의 조정을 알아챘는지 중공군은 바로 다음날인 23일 고왕산을 공격하여 2개 대대 병력으로 진지를 갓 인수한 미군을 몰아내고 말았다. 승세를 탄 적은 이날 19:20 능선을 따라 캐나다 R22^oR대대 D중대가 점령중인 안부진지로 쇄도하였다. D중대는 이들이 진전에 도착하자 기습사격으로 격퇴하였다. 1차 공격에 실패한 적은 21:30 227고지에서 중대의 서측 진지를 돌파해 들어왔다. 이때 제1파는 다발총으로 제2파는 철조망을 넘기 위한 명석을 휴대하고 제3파는 단검에 몽둥이를 매달고 나팔을 불며 돌격해 왔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전투 경험이 많은 중대장은 당황함이 없이 돌파되고 있는 진지에 진내사격을 요청하며 역습대를 투입하여 이들을 구축하였다. 캐나다 대대의 안부진지 고수로 다음날 미 제3사단도 고왕산을 역습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이들 전투에서 마량산을 상실한 반면 고왕산을 확보한 상황은 이후 열린 군사분계선 회담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결국 같은 상태로 휴전협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전투로 캐나다 R22^oR대대 D중대장 R'eal Liboiron 소령은 근무공로훈장(Distinguished Medal)을 수여받았다.

5. 金城地區 確保

군사령부의 하계제한공세전략에 따라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해안분지를 확보하고, 서부전선에서 미 제1군단이 연천-철원 도로 및 철로 축선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주저항선을 북으로 10km 정도 밀어올리기 작전을 시작하자,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장 (William M. Hoge 중장)도 군사령부의 이러한 전략개념에 따라 군단의 방어선을 개선함은 물론 적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10월 8일에 금성 진격작전계획을 군사령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당시 제9군단은 철원 동북 중산리-김화-화천 북방 적근산-백암

산-북한강선에 이르는 주저항선⁹¹⁾(Wyoming Line)에 미 제25사단, 국군 제2사단, 미 제24사단, 국군 제6사단을 배치하고 미 제7사단(-)을 예비로 확보중이었다. 군단은 중공군의 5월 공세를 격퇴 후 6월 말 이곳으로 진출한 이래 약 4개월에 걸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군사령관의 제한공격작전을 준비해 왔다.

대치중인 적은 중공군 제20병단 제67군으로서, 제200사단을 적근산 북쪽에, 제199사단을 백암산 북쪽에 전개하고, 제201사단은 금성 부근에 예비로 보유한 채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제67군은 지난 6월 중순에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도하, 입북(入北)한 부대로서 양덕에서 산악훈련까지 마친 다음 9월 10일을 전후하며 이곳에서 제27군과 교대하였다. 따라서 전투 경험이 부족한 반면 병력과 장비 보유율은 높으며, 전선을 인수한 후 기존 진지의 보강과 수색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제9군단이 작전의 목표로 한 금성은 현 전선으로부터 약 12km 북측 금성천변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천-평강, 원산-회양-창도리-평강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이곳을 지나고 또한 화천으로 남하하는 도로의 분기점이기도 한 교통의 요지이다. 따라서 이 작전은 병참선상의 요충을 확보하는 한편 오성산(1,062m)에 대해 위협을 가함으로써 철의 삼각지 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제9군단장은 이 작전을 군의 방침에 따라 단계별 제한공격작전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현 전선을 일단 5km 정도 밀어올려 금성천을 확보할 복안하에 제1단계 목표선을 하소리-풍동리-죽동-여문리-금성천 하구로 설정(Nomad Line) 하였다. 그런데 이때 군단의 좌익인 미 제25사단은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작전(Commando)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3개 전방사단으로 이 작전을 전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10월 10일에 하달된 군단 작전명령에 따르면 중앙의 미 제24사단

이 적근산과 주파령에서 17번 도로와 적근산으로부터 북으로 뻗은 능선 접근로를 따라 금성 공격을 주도하고, 그 좌우에 포진한 국군 제2사단과 제6사단이 외야동과 교암산 방향으로 협조된 공격을 전개 하도록 되었다.

이때 좌익의 미 제25사단에는 군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미 제1군단 작전에 협조하면서 평강에 대한 파쇄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⁹²⁾

이 무렵 적도 철원-김화 방면에서 아군의 공격작전이 전개될 것을 예상한 듯 증공지원군 사령관은 “제1선 부대에 경계를 강화하고, 긴급히 준비를 하여 만약 적이 공격하면 중요 지점을 반드시 굳게 고수 해야 하며,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⁹³⁾ 지시를 하달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공격작전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였다.

제9군단은 명령대로 10월 13일 일제히 공격작전을 개시하여 적 전선을 돌파하고 3일 동안 5km를 전진하여 16일에 목표선을 확보하였다. 제1단계 목표선(Nomad Line)을 점령하자 이날 군단장은 다시 약 4km를 전진하여 금성 남쪽 약 3km까지 전진하기로 결심을 하고, 공격 부대로 하여금 10월 17일부터 공격을 속개하여 하소리-외야동-봉화산-교암산-성동리-금성천 하구를 연하는 선(Polar Line)을 점령 하도록 명령하였다. 아울러 이 선을 점령하면 이곳에 강력한 전초저항선(OPRL)을 편성하고 공세적 정찰활동을 실시하면서 적과 접촉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3개 사단은 17일에 속개한 폴라선 진격과정중의 격전에서 많은 전과와 더불어 상당한 희생을 치른 다음 21일에 목표선을 확보하였다. 이 작전의 마지막 날(20일) 미 제24사단의 전차부대가 금성으로 돌진하여 시가를 제압함으로써 작전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도 금성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듯 자신들의 전차와 대전차 화기를 동원하여 이에 대응함으로써 아군 전차부대는 이곳에서 철수하였다. 이후에도 23일까지 적은 소대-중대 규모로 도전을 해왔으나 아군은 이들을 모두 격퇴하였다.

중공군의 전쟁사에도 이 금성지역 전투에 대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기술하고 있으며, 아군의 2단계 작전개시 직전인 16일에 중공 제 67군은 예비대인 제201사단을 투입하여 제199사단과 교대하였으며 병단예비인 제68군의 제202사단(一)을 금성 북방 6km 지점으로 추진하여 금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음이 밝혀졌다.⁹⁴⁾

또한 적은 이 작전 중 17번 도로상의 대전차 방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그들의 『항미원조전사』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⁹⁵⁾

전투 중 아군은 적 전차의 작전에 대해 특히 주의하여, 제1체대의 사단과 연대는 모두 대전차부대를 급히 편성하고 적 전차가 이용하기 쉬운 도로에 대규모 장애물을 설치하여 적군의 진격에 효과적인 저항을 함으로써, 적 전차가 감히 대담하게 돌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또한 대량 살상하였다.

특히 이 작전에서 국군 제2사단과 제6사단은 작전지역이 산악지형이고 금성천을 사이에 두고 있어 불리한 조건인데도 적의 집요한 저항을 격파하고 도로축선으로 공격한 기동력이 양호한 미 제24사단과 보조를 맞추어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 결과로 양개 사단은 작전이 종료되던 23일 군사령관으로부터 탁월한 전공에 대한 찬사를 받았다.

(1) 金化—金城 進擊作戰

국군 제2사단은 1951년 10월 초순 미 제9군단의 중앙 좌익 사단으로서 김화 동측 송동으로부터 바조봉—승암고개—적근산 서측 두목에 이르는 일련의 능선에 연하여 형성된 주저항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제31연대가 457고지—송동—방동의 좌일선에, 제32대가 785고지—734고지—두목의 우일선에 배치되었고, 제17연대는 예비로써 고비목과 말고개에 집결하였으며 사단사령부는 제궁동에 위치하였다. 사단은 지난 6월 중순 이곳으로 진출한 이후 지난 8월에 중공군이 점령

하고 있던 734고지를 공격하여 탈취하였고 9월 초 이들의 공격을 격퇴한 바 있어 사기가 높았다. 대치한 적은 중공군 제67군 예하 제200사단으로서 약 2km 북쪽 교전리-북정령-진현리-633고지 일대에 주력을 배치하고 그 경계부대를 회우-진현리 남쪽 600고지까지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금성에 이르는 접근로의 방어에 중점을 두고 중심깊게 배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2사단장(戚炳善 준장)은 10월 10일에 군단장으로부터 “금성진공 작전계획에 따라 군단의 좌익으로서 군단목표선(Nomad Line)상의 하소리-교전리-월봉산 지역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 명령을 수령한 사단장은 작전지역과 적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작전개념과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목표선이 일련의 횡격실 능선으로 되어 있어 공격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고지마다 별집처럼 견고한 축성진지로 구축되어 있어 강력한 화력의 집중과 이를 돌파할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서측방에 위치한 오성산(1062고지)으로 인하여 공격간 좌측방이 노출되므로 측방 엄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부대 전개나 운용을 순조롭게 하려면 사단 동측방으로 중심깊게 추진되어 있는 600고지, 633고지, 492고지의 적을 제압해야 한다.

사단장은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사단작전지역을 가로지르는 신촌-하진현을 연하는 기동로를 따라 적진을 양단한 다음 주공(제17연대+전차중대)은 노매드선을 목표로 돌진하고, 조공(제32연대)은 진현리의 492고지와 600고지의 적을 포위 격멸하며, 예비(제31연대)는 2개 대대로서 주저항선을 방어함과 아울러 1개 대대는 제17연대를 후속하다가 회우지역으로 진출하여 사단 서측방을 방호하며 제17연대의 공격작전을 지원하도록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진현리의 적을 포위 격멸하고 주공을 기만하기 위하여 조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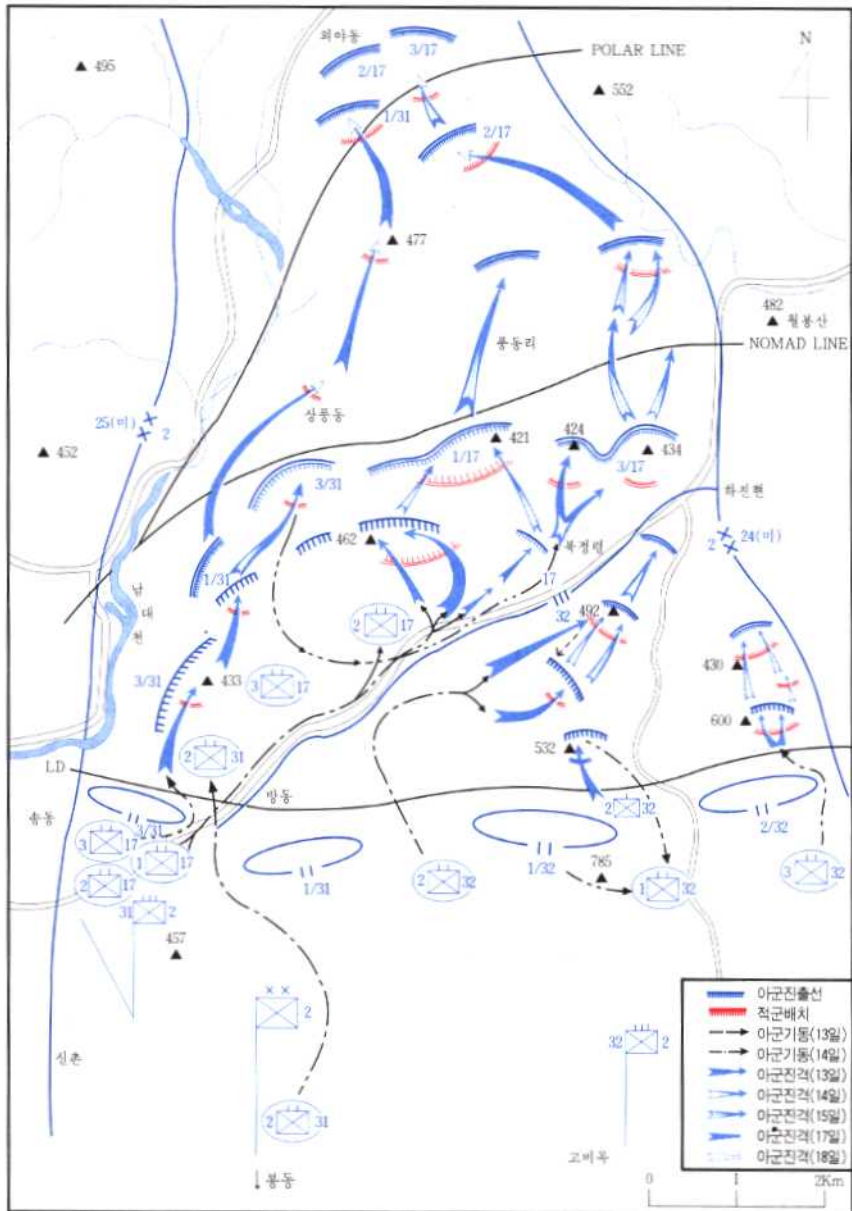
공격을 1시간 빨리 시작하도록 하였다. 즉 진현리의 적을 조공으로 고착 견제하는 동안 주공이 이의 후방을 차단함으로써 이들을 포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작전개념에 따라 10월 13일 05:00에 조공인 우익의 제32연대가 먼저 공격에 나섰다. 연대는 제2대대가 좌일선으로 492고지를, 제3대대가 우일선으로 600고지를 목표로 공격하였다. 제2대대는 중간 목표인 532고지를 큰 손실없이 점령한 다음 492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적의 야포탄 200여 발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적의 저항이 드세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연대는 포병 지원사격과 F-51전투기의 지원폭격을 요청한 다음 재공격을 가하였으나 적도 증원부대를 투입함으로써 이날 목표를 점령하지 못하였다. 반면 우전방의 제3대대는 화염방사기의 분사와 수류탄 투척으로 적을 제압하며 8시간의 전투 끝에 600고지를 점령하였다.

조공보다 1시간 늦게 공격을 개시한 주공 제17연대는 보전협동부대를 적진으로 투입하여 우선 북정령과 462고지를 점령하고 적진을 돌파 및 양단하는데 작전의 주안을 두고 있었다.

미 제25사단 전차중대(-)의 지원을 받은 제1대대⁹⁶⁾는 송동에서 이실골로 신속히 진출하여 북정령과 462고지를 공격하였다. 제1대대는 제1중대가 전차의 지원하에 화염방사기와 3.5"로켓으로 적의 화기진지를 제압하여 3시간의 격전 끝에 북정령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적이 남북으로 양단됨에 따라 사단의 작전기도는 일단 성공을 거두었으며, 제1대대는 남쪽의 적을 제32연대가 공격함에 따라 북정령 북쪽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때 462고지에서는 제2중대가 산중턱에서 고전을 치르고 있었다. 대대는 예비중대를 동측방으로 투입하였으며, 또한 F-51전투기 1개 편대의 10분간에 걸친 폭격 끝에 양개 중대가 협동공격을 퍼 적 103명을 사살하고 12명이 투항하는 전과를 거두며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한편 조공인 제3대대는 경미한 저항을 잠재우며 433고지를 점령하고 교전리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자

김화-금성 진격작전



정을 넘기면서 02:00부터 작일 치열한 전투 끝에 점령한 462고지에서는 적의 역습으로 격렬한 야간 전투가 벌어졌으며 이날(14일) 새벽녘에야 적이 물러갔다.

전날 적진의 돌파와 분리에 성공을 거둔 주공 제17연대는 14일 날이 밝자 예비인 제2대대를 북정령 동북으로 투입하여 주공의 정면을 좁히면서 3개 대대로 총공격을 실시하였다. 이 공격을 통해 각 대대가 이날 교전리, 421고지, 434고지를 점령함으로써 노매드선에 도달하였으며, 특히 제1대대는 421고지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기록하였다. 당시 이 전투를 지휘한 제1중대 제3소대 신임소대장 송기선(宋基善) 소위는 “당시 적의 진지가 견고하고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고참병들이 특공대를 자원하여 적진에 돌입하는 것을 보고 경탄해 마지않았다. 이처럼 고참병들의 용감한 공격으로 목표를 탈취하고 많은 전과를 올렸다.”며 그때 상황을 회고하였다.⁹⁷⁾

한편 제32연대는 전날 탈취하지 못한 492고지와 600고지 서북 능선(491고지) 공격을 계속하였다. 우익의 제3대대는 적의 감제관측하에 북으로 뺀 중격실 능선 접근로를 따라 공격을 가하여 일부 적이 우인접 미 제24사단지역에서 증원됨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교전 끝에 85명을 사살하고 7명을 포로로 하며 잔적을 구축하였다. 492고지를 공격한 좌익의 제2대대도 41명을 사살하고 포로 17명을 사로잡은 외에도 60mm 박격포 2문과 로켓 1문을 포함한 각종 소총 51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기록하였으나 84명의 사상자를 내는 희생을 치렀다. 한편 제31연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광삼리-하소리 선에서 사단 좌측방 방어에 임하였다.

노매드선에 도달한 사단은 다음날(10월 15일) 격퇴된 적이 방어선 전방에 새로운 저지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사단의 경계진지를 구축하겠다는 복안하에 노매선 북측 1km 살구정-풍동리-419고지 선으로 추격작전을 폈다.

제17연대는 우익의 제2대대가 월봉산 서북 1km 지점의 419고지를

공격하여 목표 전방에서 종일토록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계속하다가 서측으로 우회한 중대의 측후방 공격이 주효하여 혈전 끝에 이를 점령하였다. 좌익의 제1대대도 무난히 풍동리 무명고지 선을 확보하였다.

제31연대는 이날 광삼리-하소리 선에 주력을 배치하고 교전리 진지도 인수하여 사단 동측방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살구정까지 위력 수색대를 파견하며 남대천을 따라 탐색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32연대도 전방으로 진출하여 제17연대의 노매드선 진지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3일만에 사단은 작전목표선을 확보하는 한편 차후작전에 즉응할 수 있게 부대배치도 조정을 마치었다.

10월 16일까지 작전에서 노매드선을 확보한 사단은 17일부터 군단의 다음 단계 작전계획에 따라 폴라선으로 작전을 확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단의 폴라선 책임지역은 금성 서남방 3~5km 지점 미나리골-외야리-522고지를 연하는 선으로 약 4km 폭에 불과하였다.

사단장은 현 배치와 좁은 정면을 고려하여 전방 제17연대와 제31연대의 각 1개 대대로써 공격작전을 펴기로 결심하고, 제17연대는 522고지를, 제31연대는 외야리 일대의 고지군을 점령한 다음 이를 제17연대에 인계하도록 하였다. 이때 적은 2단계 목표선으로 설정한 고지군에 저지선을 형성하고 금성분지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단의 2단계 공격작전은 10월 17일 06:00에 시작되었다. 이날 서측의 제31연대 제1대대는 중간목표인 477고지를 점령한 다음 경미한 저항을 일소하고 외야리 목표를 무난히 탈취하였다. 그러나 사단작전의 중점이라 할 수 있는 522고지 공격은 이와는 달리 쉽지 않았다. 제17연대 제2대대는 중간목표를 점령한 다음 3개 중대를 동시에 전개하여 최종목표를 공격하였으나 적도 포격의 지원을 받아가며 완강하게 버텨므로써 돌파구를 열지 못하였다. 대대는 포병 지원사격을 집중한 다음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상황의 변화가 없었다. 이의 타개책으로 다음날(10월 18일) 예비인 제3대대가 제2대대를 초월

200 제 2 장 軍事分界線 協商과 軍事狀況의 發展

공격하였다. 제3대대의 공격도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으나 제10중대의 측후방 우회공격으로 적진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틈을 타 일제히 적진으로 돌진하여 522고지를 탈취하였다.

이와 같이 국군 제2사단은 군단내에서 플라선에 선착한 후 제17연대로써 이 선을 점령하고, 제31연대는 오성산의 적 견제에 중점을 두고 남대천에 연한 사단 서측방을 방어하는 한편, 제32연대는 노매드선의 진지를 확보한 채 금성 서남측을 방어하였다.

(2) 金城川·驕岩山 戰鬪

국군 제6사단은 군단이 노매드(Nomad)선으로 진격작전을 펴던 1951년 10월, 군단의 우전방 사단으로 백암산(1179고지)을 방어중이었다. 제7연대와 제2연대가 어민(Ermine)선인 백암산 후방 1057고지-782고지-수상리 선을 점령중이었고, 제19연대는 백암산 전방의 819고지-수고지-780고지 선에서 사단 전초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좌로는 미 제24사단, 우로는 국군 제8사단과 인접하였다.

당시 대치중인 적은 중공군 제67군 예하 제199사단이었다. 이들은 금성천 북안(北岸)의 585고지-여문리-529고지 선에 주진지를 구축하고 그 남안의 565고지-여내골-462고지 선에 1개 연대규모로써 경계진지를 구축하고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피아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작전지역은 서측에서는 금성천이 남으로 흘러 동으로 가로지르며 북한강과 합류하는가 하면, 동측에서는 북한강이 북으로 뻗어 양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산간지형이어서 도로망이 빈약해 전차 및 포병운용이나 보급지원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기동공간이 협소해 부대이동의 신속성도 결여되었다.

제6사단장(張都暎 준장)은 1951년 10월 10일에 미 제9군단장으로부터 “10월 13일 06:00에 공격을 개시하여 죽동-여문리-금성천 입구

를 연하는 노매드션을 점령하고 군단의 동측방을 엄호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 사단장은 작전지역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아래의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 1) 사단의 공격은 금성천과 산악지형으로 부대의 기동과 보급지원에 많은 제한을 받을 것이며, 특히 금성천을 적전 도하해야 하므로 이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 2) 사단 우익에는 제8사단 제21연대가 938고지를 공격중에 있으나 사단의 진격에 따라 동측방이 노출될 것이므로 이 적을 견제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 3) 사단이 금성천을 도하하면 포병의 진지변환간 화력지원이 중단될 것이므로 가능한 계속적 화력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 4) 장기간에 구축된 적의 견고한 진지를 공격하므로 특공대 운용 등 이들 진지를 제압할 특수전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애로의 타개책을 모색한 결과 사단장은 제7연대를 좌일선, 제19연대를 우일선으로 운용하되 비교적 도하가 용이한 좌일선의 제7연대로 하여금 565고지를 점령한 다음 금성천 대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제2연대와 수색중대는 현 경계진지선과 동측방을 방어하도록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포병은 주력이 금성천을 도하하면 동막동을 걸쳐 신촌(백암산 서북 7km)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이때에 항공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고, 좌인접 미 제24사단과는 포병 부대의 기동로 사용 우선권을 협조하였다.

또한 전방연대에 공병 1개 중대씩 직접 지원하여 장애물 제거와 기동로 개척에 운용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가용인원을 최대 동원하여 전방연대의 보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단은 이러한 개념의 작전명령(1951. 10. 12)에 따라 10월 13일 06: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좌익의 제7연대는 이날 819고지에서 금성천 남안의 565고지를 점령한 다음 다음날에는 광대골로 금성천을 도하

202 제 2 장 軍事分界線 協商과 軍事狀況의 發展

북서방향에서 472고지를 공격하여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우일선의 제19연대는 462고지에 배수의 진을 친 대대 규모의 적이 포병의 지원하에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이튿날에야 149명의 사상자를 낸 끝에 404명의 적을 사살하고 13명을 사로잡으며 이 고지를 점령하였다. 10월 14일, 교두보를 확보한 제7연대는 이를 발판으로 연대가 모두 도하한 다음 551-552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하지만 이날의 전투에서 25명이 전사하고 17명이 부상한 반면 374명을 사살하고 44명을 포로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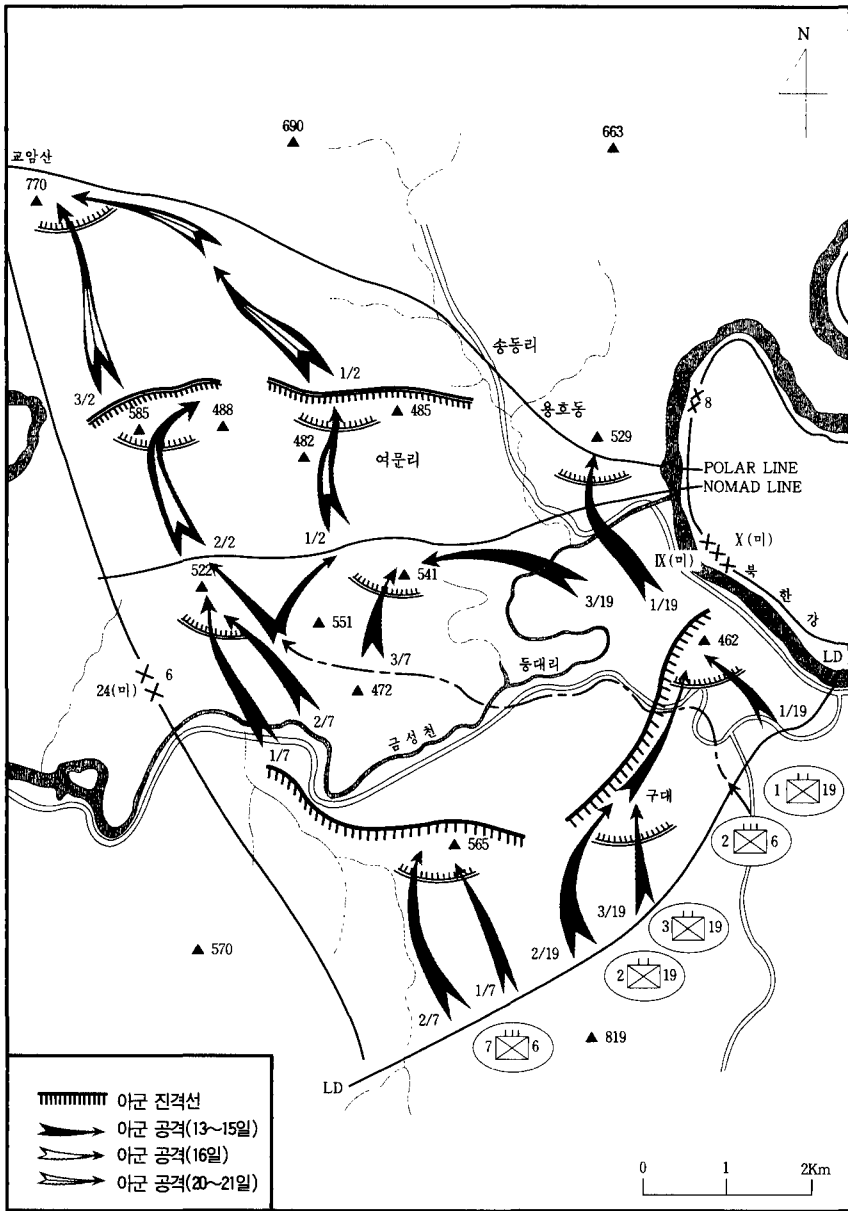
제19연대는 462고지를 점령한 제1대대의 엄호하에 15일 02:50에 양지촌에서 등대리로 도하하여 541-529고지를 공격하였다. 이날 연대 좌전방의 제3대대는 인접 제7연대의 지원을 받아 541고지를 점령하였으나 우익의 제2대대는 529고지(관망산)를 점령하지 못하였다. 이 고지는 북사면을 제외한 삼면이 급경사이어서 공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제19연대는 462-324고지에서 예비임무를 수행하던 제1대대를 투입하여 529고지를 야습하였으나 역시 좌절되었다.

그러나 사단은 이날까지 3일간의 전투에서 군단작전목표 노매드선을 확보하였으며, 제7·제19연대는 노매드선의 진지를 강화하며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고, 예비인 제2연대는 제3대대(+)가 금성천 남안의 진지를 유지하는 한편 2개 대대는 노매드선 전방으로 추진하여 정찰 활동을 하며 전초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때(10월 16일) 사단은 군단의 폴라(Polar)선 진출계획에 따라 교암산-송동리 선의 적을 격멸하고 이를 점령하라는 작전명령을 받았다.

사단장은 사단의 임무가 사실상 교암산 점령이며, 전투 정면이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작전을 전개해온 제7·제19연대는 노매드선을 방어하고, 예비인 제2연대로써 585고지-교암산 축선으로 공격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10월 17일 06:00에 공격을 재개한 제2연대는 작일부터 이미 제2대대가 585고지 방향으로, 제1대대가 여문리 일대로 진출하여 전초임무

금성천-교암산 전투



를 수행중이었으므로, 제2대대가 585고지를 정면에서 공격하는 동안 제1대대로 하여금 이 고지의 동측 후방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제2대대는 이날 육박돌격과 백병격투를 거듭하는 동안 12명이 전사하고 105명이 부상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혼전을 계속중이었고, 제1대대는 여문리에서 585고지 방향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였으나 도중 482고지에서 대대 규모의 적과 마주쳐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포로 진술에 의하면 전날밤 중공군 제67군의 예비 제201사단이 투입되었으며, 연대가 당면한 770, 585, 482, 485고지에는 그중 제602연대가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였다. 지형도 기복이 심하고 585고지나 770고지는 경사가 가파르는데다 적 예비대까지 투입되어 앞으로의 작전에 어려움이 겹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선 사단장은 제2연대가 585고지를 공격하는 동안 제19연대 1개 대대를 여문리 동북쪽으로 진출시켜 우전방의 적을 구축하는 한편 주공을 엄호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10월 18일 제2연대 제2대대는 585고지에서 증강된 대대 규모의 적과 육박전을 벌이며 맹공을 가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공격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다. 제1대대는 482고지에 대해 3면에서 포위망을 압축하는 동시에 특공대를 우측 배후로 투입시켜 고지를 탈취하자 곧 585고지 동측 능선으로 돌진하였으나 또다시 도중에 저지당하였다. 이때 사단은 탈취한 482고지를 제7연대에 인수시켜 제2연대는 585고지 공격에 집중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제19연대(제2대대)는 사단 우전방 용호동과 여문리 사이의 능선을 장악하고 측방 방호에 임하였다.

10월 19일 제2연대는 금성천 남안의 진지를 사단 수색중대에 인계하고 제3대대까지 집실리로 이동시켜 585고지 공격에 투입하였다. 10월 19일 제2연대 제2대대는 작일까지와는 달리 3개 중대를 585고지의 서측으로 우회시켜 공격을 하던 중 집실리로 추진된 연대예비 제3대대가 585고지 동측으로 치고 올라오자 적이 동요하는 틈에 좌우에서 양 대대가 돌격하여 육박전 끝에 585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에

앞서 제1대대는 특공대를 투입하여 적의 화기진지를 폭파하고 1개 중대를 동측으로 우회시켜 585고지 우측 능선상의 488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돌파구를 열지 못하던 차 예비 제3대대가 투입되면서 488고지 좌견부를 강타하자 적진의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양개 대대의 협동으로 이를 탈취한 다음 제1대대는 잔적을 소탕 및 추격하는 한편, 제3대대는 585고지의 제2대대를 지원하였던 것이다.

이 전투에서 연대는 예비대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방향으로 투입하여 작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아간에 많은 인명손실이 발생하였었다. 당시 제2대대장 송기덕(宋奇德) 대위의 후일 회고에서 “대대원의 50%가 손실되었으며 대대장도 부상당하여 후송되었다”고 하였다.⁹⁸⁾

중간목표를 탈취한 후 사단장은 제2연대를 주공, 제19연대를 조공으로 교암산과 폴라선을 점령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제7연대는 노매드선의 진지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제2연대는 10월 20일 제1·제3대대를 전방제대로 하고, 제2대대를 585고지에 예비로 확보한 채 공격을 계속하였다. 제3대대는 585고지에서 성산리계곡을 건너 교암산에서 남으로 뻗은 능선을 타고 공격을 하고, 제1대대는 488고지에서 북으로 종격실 능선을 타고 교암산 동쪽으로 우회하여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1대대가 약 1km 북방의 요지인 무명고지에서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과 방어사격에 공격이 둔좌되자 제3대대가 방향을 바꾸어 이 고지의 서측방으로 공격하여 적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면서 협공하였다.

이때 제1대대가 정면 돌격을 감행하여 87명의 적을 사살하고 14명을 포로로 하면서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제2연대는 585고지 탈취에 이어 교암산에 이르는 두 번째 난관을 돌파한 것이다. 제2연대는 21일 아침 계획대로 교암산 공격을 감행하였다. 제3대대는 성산리계곡을 넘어 공격하였고, 제1대대는 가파른 단애를 기어올라 동측으로부터 770고지를 공격하였다. 그런데 교암산은 정상에 가까울수록

높은 경사에다 암벽이 중첩하여 기동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제3대대는 지원사격을 요청해가며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적의 포격, 기관총 사격, 수류탄 투척에 돌격의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가 동측방에서 습격하자 적진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때 양개 대대가 돌격하여 백병전을 벌여 마침내 교암산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우전방의 제19연대는 이미 작일 경미한 적의 저항을 잠재우고 목표선을 점령한 다음 485고지-529고지 선에 방어배치를 하였다.

이로써 제6사단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혈전 끝에 백암산 선에서 금성천을 건너 교암산까지 탈취하고 플라산을 점령하여 금성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후일 제2연대장 송대후(宋大厚) 대령은 교암산의 적 특화점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57mm 무반동총, 화염방사기, 60mm 박격포로써 적의 화력을 제압하면서 특공대를 투입한 것이 주효하였다고 술회하였다. 또 당시의 제19연대 제3대대장(金明益 대위)도 이때에 처음 지급받은 화염방사기로 적이 은신한 석굴(石窟)과 총안을 제압하면서 돌격한 끝에 적 방어선을 돌파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특화점 진지공격에서 수류탄과 더불어 이들 근접운용화기의 협조된 운용이 대단히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희생을 치른 이 전투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전의 결과 예상한 대로 제9군단 동측방과 미 제10군단 사이에 전선의 만곡부가 형성되어 하나의 부수적 문제가 파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0월 말에 미 제9군단의 국군 제6사단은 교암산지역을 미 제24사단에 인계한 후 북한강 서안으로 이동한 다음 11월 중순 우인점 미 제10군단의 국군 제8사단 서측 연대(제21연대)를 배속받아 만곡부의 동측에 우람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949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용호동-949고지-973고지-석장동을 잇는 게리(Gary)선을 확보함으로써 양 군단간의 전선을 완만한 곡선으로 정리하였다.

10월 23일 미 제9군단의 폴라선작전의 종료는 사실상 유엔군이 7월 하순부터 전개한 하계·추계공세의 종료를 의미하였다. 이 금성진격작전에서 아군도 적의 준비된 축성진지를 공격함으로써 상당한 출혈을 입었지만 중공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 제67군이 11월 7일에 제12군과 교대하여 예비로 전환되었음이 후일 그들의 전사에서 밝혀졌다.⁹⁹⁾ 그간 유엔군측은 전 전선에 걸쳐 방어선을 개선하였고, 이를 통한 군사적 압력으로 중단된 휴전협상에 적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목적도 달성하였다. 특히 국군이 제한목표공격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방어선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음은 물론 전력과 전쟁지도력을 한 차원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 3 절 板門店 軍事分界線 協定

1. 接觸線 基準原則 合意

1951년 10월 25일 판문점에 설치된 대형 천막에서 본회담이 재개되었다. 이날 제27차 본회담은 오전에 교체된 대표들의 소개에 이어 연락장교들에 의해 작성된 안전협정(Security Arrangement)의 위반사항 공동조사 등 이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연락장교 공동사무소¹⁰⁰⁾ 설치에 합의한 후 오후부터 의제 2항 군사분계선의 토의를 위한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로 전환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공산군측은 중공의 등화(鄧華)와 교체된 변창무(邊昌武) 대장, 북한의 장평산(張平山)과 교체한 정두환(鄭斗煥) 소장이 새 대표로 참석하였고, 유엔군측에서는 백선엽(白善燁) 장군과 교체한 이형근(李亨根) 소장이 새 대표로 참석하였다.¹⁰¹⁾

지금까지 휴전회담은 군사분계선 설정안건을 놓고 7월 26일부터 논

란을 거듭하였지만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8월 24일에 중단되었으나, 그때 쌍방은 당초의 강경한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하여 타협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즉 공산군측은 38도선 이외의 선에 대한 토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시사하였으며, 유엔군측은 해·공군력의 효과가 현 전선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시사하였다.

이러한 회담 분위기에 따라 유엔군측은 이미 회담이 중단되기 전에 접촉선을 중심으로 4마일 폭의 비무장지대 설치방침을 수립하였고, 휴회 기간중에 회담이 재개되면 제의할 이의 구체적 안을 준비해 놓았다.

이날(10월 25일) 오후 재개된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양측 대표들은 상호 상대방이 새로운 안을 내놓기를 종용하던 중, 유엔군측이 먼저 준비된 안을 제시하였다. 유엔군측이 지도에 표시하여 제시한 군사분계선은 “서쪽의 예성강 하구에서 시작하여 강을 따라 12.8km 지점에 이르러, 동북방으로 커브를 돌고 다시 동쪽으로 곡선을 그려 개성 북방 6.4km 지점을 지나, 구화리를 경유하여 동북방으로 평강 남쪽 6.4



판문점에 설치된 휴전회담용 천막

km 지점, 화천저수지 북쪽 약 24km 지점을 지나, 동해안의 고성 동남쪽 18.4km 지점에 이르는” 선이었다.¹⁰²⁾

호데스(Henry I. Hodes) 소장은 이는 현 전선에 기초한 것이나 쌍방의 방어선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유엔군은 금성지구와 동해안에서 철수하고 공산군측은 개성지구에서 그만큼 철수할 것을 예상하여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기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날 공산군측은 유엔군측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제안을 내놓았다.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에게 방어가 불가능한 웅진과 연안반도를 양보하는 대신에 철원·금화·피의 능선과 단장의 능선·해안분지 지역을 그들이 갖겠다는 의도였다. 이상조(李尙朝)가 제시한 지도에 표시된 군사분계선은 “서해로부터 38도선에 접근한 선(接近線)을 따라 웅진반도를 횡단하여, 한강 바로 북쪽에 위치한 평원을 지나 칠운동 남서쪽, 점공리 서쪽, 원동리 남서쪽을 거쳐 동해안의 거진면 초도리에 이르는 선”이었다.¹⁰³⁾ 이때 적이 38도선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협상의 가능성을 비쳤지만 이대로라면 유엔군측은 중부와 동부전선에서 약 100마일에 걸쳐 최대 15마일까지 철수해야 되며 특히 서부에서도 개성을 완전히 적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따라서 유엔군측도 공산군측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 공산군측은 그들이 ‘상인(商人)’이 아니라며 거래할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이때부터 쌍방은 군사분계선에 관한 ‘홍정’을 하게 되었고 특히 개성지역 처리가 핵심이었다.

개성은 유엔군측으로서는 서울에 이르는 적의 접근로를 방어하는데 필수적이었고 공산군측으로서는 한반도 적화전략상 서울 공격의 양호한 발판이 되는 곳이었다. 이와 같이 개성은 군사적으로 피아의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왕조시대의 도읍지로서 한국 국민에게 정치적·심리적으로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의 ‘영토화’는 지역의 크기 이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아울러 개성이 38도선 이남이었던 점을 들어 한국정부도 이

의 회복을 강조하였고 한국측 수석대표도 협상에서 이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¹⁰⁴⁾ 공산군측은 처음에는 협의과정에서 중부 및 동부전선의 방어선을 직선화하기 위한 ‘홍정’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유엔군측이 개성을 집요하게 요구하자 ‘거래’ 자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호데스 장군은 개성에서 적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개성에서 회담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유엔군이 이를 점령하였을 것이다. 유엔군은 휴전협정이 조인되면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 연안 도서에서 철수해야 하므로 개성을 공산군측이 양보하는 것은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라고 주장하였다.¹⁰⁵⁾

이와 같이 아무런 성과 없는 토의가 며칠 계속된 후 10월 31일 공산군측은 오직 접촉선에 기초한 4km 폭의 비무장지대 설치안을 제시하면서 최선의 최종 제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그들의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을 포기한 대신 유엔군측의 현실적인 접촉선 안을 수용하되, 개성지역을 완전히 확보하자는 전략으로 판단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은 군사분계선에 대해 유엔군측이 당초 지도에 제시한 선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고려하였다. 거기에는 개성과 송악산을 군사분계선 남쪽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군측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산군측이 접촉선 원칙을 완전히 수용하자 유엔군사령관은 11월 2일 대표단에게 차선책으로 개성을 중립지대에 포함시키도록 협상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방책은 공산군측이 중부와 동부에서 분계선 조정에 동의함과 동시에 임진강 서안에 유엔군의 주저항선 전초의 설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개성을 양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2일간 유엔군측 대표는 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끈질긴 논쟁을 벌였으나 허사였다. 공산군측은 개성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11월 4일에 리지웨이 장군과 조이 제독은 당시 전선에 기초하여

약간의 조정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은 결국 공산군측이 38도선 복원 주장을 포기하고 유엔군측은 ‘해·공군력의 반영’ 주장을 양보한 선에서 타협의 산물로 실제전선(접촉선)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개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요약하면, 공산군측은 휴전회담을 군사적으로 쌍방의 접촉선보다 조금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개성으로 끌어들이 이곳을 중립화한 다음,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립위반사건을 날조해 그 책임을 유엔군측에 전가하고 회담을 지연 또는 중단시키며 유엔군측을 수세에 몰며 자극하였다. 유엔군측은 해명에 급급한 나머지 스스로 회담장소를 송현리, 즉 전선의 중앙지역으로 옮기자고 제안하였고, 쌍방은 접촉선상의 판문점을 새 협상장소로 결정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공산군측은 38도선 복원 주장을 포기하는 대신 당시 접촉선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자고 호응하는 제의를 하였다. 유엔군측은 한국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조기타결을 바라는 미국과 국제적 여론을 고려, 이 절충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군사분계선 의제 해결의 대타협의 장을 마련하였지만, 이 협상의 한 초점이었던 개성문제의 처리에서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만일 이 일련의 과정이 개성지구를 확보하기 위한 공산군측의 전략이었다면 유엔군측은 이에 달려든 셈이었다.

2. 接觸線의 基準時期 論爭

유엔군측은 1951년 10월 31일 공산군측이 제기한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한 4km 비무장지대 설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호데스 소장이 며칠간의 내부협의를 거쳐 11월 5일의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아래 요지의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유엔군측은 “접촉선에 중심을 둔 4km 비무장지대 원칙을 수락하지만 협상중에도 전투를 계속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그것은 휴전 조인시의 실제 접촉선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의제 2항에 대한 최종 합의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휴전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가 합의에 도달하여 이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 유엔군측은 합의된 군사분계선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각 3명으로 구성된 ‘참모장교’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¹⁰⁶⁾ 이어서 다른 의제 토의로 넘어가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군의 질문공세가 쏟아졌다. 그러나 유엔군측이 장차의 조정에서 개성도 배제될 수 없다고 하자 그들의 관심은 곧바로 유엔군측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었다. 공산군측은 의제 2항은 지금 합의하여야 하며 군사분계선을 다른 의제 토의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문제를 휴전이 조인될 때까지 미룸은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그들은 현재의 접촉선이 군사분계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데스 장군은 “현재의 접촉선은 휴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한다.”고 되받았다.

유엔군측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공산군측이 이번에 작업하는 군사분계선을 잠정합의가 아니라 영구적인 합의로 만들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협상은 다시 난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쌍방은 군사분계선을 접촉선으로 하고 비무장지대는 이에 기준하여 4km폭으로 설치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군사분계선을 확정짓는 시기에 있어 공산군측은 협상 당시의 접촉선으로, 유엔군측은 휴전 조인시의 접촉선으로 해야 한다고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전쟁과 휴전회담의 전략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쌍방이 어느

쪽도 양보하기 어려운 선택의 문제였다.

현재의 접촉선으로 확정되면 공산군측은 개성지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제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여유있게 협상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반면, 유엔군측은 개성을 포기하면서도 상대방이 나머지 의제에 관하여 지연전술을 적용할 경우 지상에서의 군사적 압력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는 사실상의 정전과 같아 차후협상에서 불리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이를 중시하여 휴전 유효일자외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융통성 없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관의 휴전전략을 잘 이해하나 협상을 너무 오래 끌면 휴전회담에서 개성문제와 접촉선의 군사분계선 결정시점과 같은 구체적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미국인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산군측이 38도선 주장을 양보하였는데 유엔군측이 사소한 문제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여론의 압력이 형성될 것을 우려하여 리지웨이 장군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할 수가 없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공산군측이 군사분계선에 대해 중요한 양보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너무 강하게 거부당할 경우 다시 그들의 최초 요구인 38도선 주장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두려워하였다.

이에 따라 미 합동참모본부는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수락하되 다른 의제들이 합리적인 기간—1개월 또는 그 정도내에 타결이 안 되면 군사분계선은 재협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입장에 대해 국무부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11월 14일 유엔군사령관에게 이 기조 위에서 군사분계선 타결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였다.¹⁰⁷⁾

리지웨이 장군은 이에 대하여 곧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였다. 그는 이 지시의 재고를 요청하면서 “어떠한 조정의 조건이나 다른 의제의 협정완료와 관계되는 어떤 요구조건하에서도 현행 접촉선을 수락한다면 앞으로 협상에서 공산군측의 비타협적 행동의 증가에 의해 명예로

운 휴전을 획득할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지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은 사실을 몰랐던 그는 다음 날 공산군측의 제안에 유예기간을 1개월로 제의하여 동의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를 협상대표들에게 전달하였다.¹⁰⁸⁾

워싱턴의 군사정치 지도자들은 협정의 조기 타결이라는 이점을 들어 공산군측의 제안을 수락하도록 지시하면서 공산군측의 안은 캔사스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엔군측의 입장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와이오밍선의 방호도 제공해주므로 이에 대한 동의가 양보라고 볼 수 없다고 고려하였다. 또 나머지 의제 타결기간을 1개월로 시한을 한정함으로써 시간지연작전에 썩기를 막아 공산군측으로 하여금 협상을 보다 촉진시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들은 리지웨이 장군에게 공산군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감소해서는 안 되나 다음 1개월간은 유엔군에게 유리한 접촉선의 변화도 적절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지상작전을 제한하였으며, 다만 해·공군작전은 이 협정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측 대표단은 회담이 다시 정제되는 것을 막음은 물론 의제 2항의 조기 타결을 목적으로, 11월 17일 아래와 같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¹⁰⁹⁾

1) 유엔군측 대표단과 북한 및 중공군 대표단은

- 가. 휴전시까지 적대행위가 계속된다는 합의사항을 재확인한다.
- 나.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현 접촉선을 잠정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고, 잠정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씩 2개의 선을 잠정비무장지대의 남북경계선으로 설정하는데 동의한다.
- 다. 상기 잠정군사분계선과 잠정비무장지대는 본회담에서 이 협정이 체결된 후 30일내에 휴전협정이 서명될 경우에만 유효하다는데 동의한다.
- 라. 휴전협정이 30일내에 조인되지 못하면, 분과위원들이 공동으

로 그 당시의 접촉선을 결정하고 이를 새로운 잠정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한다는데 동의한다.

공산군측은 며칠간 다방면에 걸친 질의와 신중한 검토 끝에 유엔군측 제안에 대체로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이었으나, 유엔군측의 안을 전적으로 수락하지 않고 1개월이 만료된 후일지라도 다른 의제가 타결될 때까지 그 선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군측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결국 11월 23일에 분과위원회는 상기 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3.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協定

1951년 11월 23일 쌍방 분과위원회에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에 관한 원칙에 타협을 이룸에 따라 이날부터 양측 참모장교들은 머리를 맞대고 실제의 지상 접촉선 결정작업에 들어갔으며, 또한 합동분과위원들은 의제 2항에 대해 본회의에 제시할 건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¹¹⁰⁾

- 1) 쌍방은 쌍방간의 실제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휴전협정에 명시한 시간에 이 선으로부터 2km씩 철수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는 원칙을 수락한다.
- 2) 상기 1항에 기술된 원칙에 따라 합동분과위원회는 즉시 현재의 접촉선을 결정하고 이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중간선으로 확정한다. 양쪽 대표단이 상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협정과 정확한 위치를 본회담에서 승인한 후 30일 이내 휴전협정이 조인될 경우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쌍방간 실제 접촉에서 발생하는 어떤 변화에도 관계없이 변경되지 않는다.
- 3) 휴전협정 조인시까지 적대행위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양측 대표단이 상기 2항에서 결정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협정과 정확한 위치를 본회담에서 승인 후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을 경우 분과위원들은 쌍방간 실제 접촉선에서 발생한 변화에 따라 상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휴전협정 조인직전에 수정해야 한다. 수정된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 조인직전의 쌍방간 접촉선과 꼭 일치해야 하고 휴전간 군사분계선으로 삼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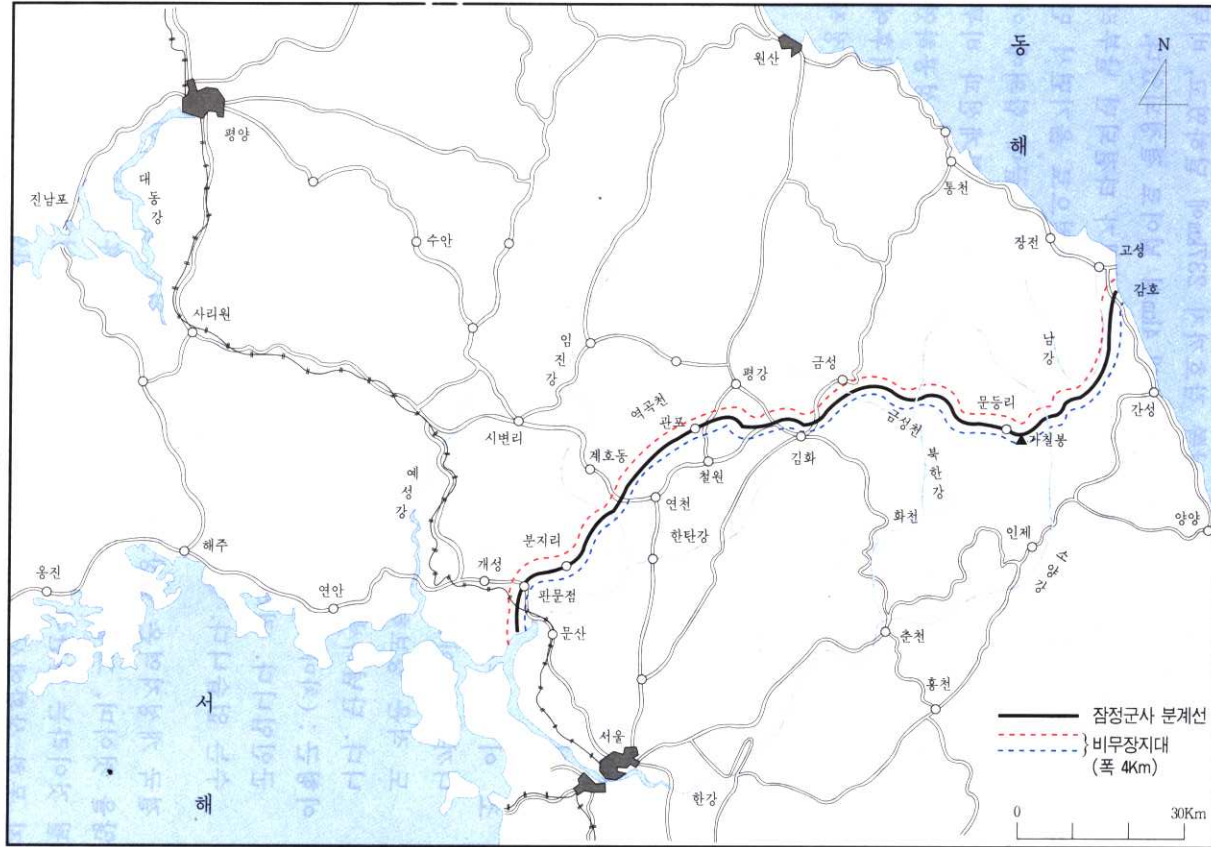
한편 참모장교들은 23일부터 시작한 접촉선 결정작업을 11월 26일에 완료하였다. 그들은 이를 2세트의 지도에 표시하고 쌍방이 서명함으로써 접촉선 협정을 끝냈다.

이때 참모장교들이 작성한 군사분계선은 다음과 같다.¹¹¹⁾

동해안 남강 하구 남쪽 3마일 지점에서 출발, 감호의 중심지를 지나 서쪽으로 뻗어 월비산 동남쪽 0.5마일 지점에 도달, 여기서 남쪽으로 덕산리·신대리·사비리·신흥리·놀목을 지나 소양강을 따라 북쪽으로 향한다. 다시 서쪽으로 꾸부러진 분계선은 소양강 2.5마일 지점에서 소양강과 갈리어 서남쪽으로 향하면서 가칠봉에 이어진다. 여기서 서쪽 사태리·건화리에 이르러 북쪽 송정에 연결된다. 서쪽으로 뻗은 이 선은 어운리 바로 북쪽에서 북한강을 건너 다시 서쪽으로 금성천변의 금성을 지나 서쪽으로 계속하여 김화 서북쪽 금곡리에서 한탄강을 건너 서쪽으로 이어 상가산·관포동·산명리를 거쳐 서남쪽 송현에 닿는다. 송현에서 북쪽으로 역곡천을 건너 같은 방향으로 송현리를 지나 계호동에서 임진강으로, 여기서 다시 기곡리·청정리 등을 지나 16마일 서쪽으로 뻗친 분계선은 판문점 비무장지대의 동쪽 끝으로 이른다. 그리고 여기서 급커브를 꺾어 남쪽으로 내려와 문산리 바로 서쪽 7마일 지점인 임진강 하구에서 멈춘다.

1951년 11월 27일 합동분과위원회를 거쳐 본회담에서 쌍방이 의제 2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서명함으로써 난항을 거듭해 오던 군사분계

잠정 군사분계선(1951. 11. 27)



제 3 절 板門店 軍事分界線 協定 217

선과 비무장지대 설치안이 확정되었다. 군사분계선은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남강 하구 남쪽 감호까지 237km에 달하였고, 비무장지대는 이를 중심선으로 남북 각 2km씩 4km의 넓이로 결정되었다.

이 의제 2항은 1951년 7월 26일, 휴전회담 의제가 타결되던 날부터 협상이 시작된 이래 회담장소까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옮기면서 만 4개월간에 걸친 회담에서의 설전과 전장에서의 열전 끝에 합의에 이른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측은 “집축선을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는데는 성공하였으나 협상 당초부터 개성을 중립지대로 허용하고 결과적으로 이후에도 이를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이는 이후 한국의 수도방위에 결정적 취약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당시 유엔군측 휴전회담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이형근(李亨根) 소장(대장 예편)은 그 회고록에서 임명될 때 이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개성 탈환’ 밀령(密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수석대표 조이 제독과 설전을 벌였으며 이의 회복을 집요하게 요구하자, 그는 아래와 같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¹²⁾

조 이 : 전투에서 빼앗긴 곳을 어떻게 테이블 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군인이라면 웅당 알아야 할 상식 아닙니까. 10년을 교섭해도 적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유엔군은 10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단념하세요.

이형근 : (차마 대통령의 명령이라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귀하가 그렇게 나온다 해도 개성을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탈환작전의 강행도 불가피합니다.

결국 개성지역은 협상으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공산군측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군사작전을 전개한다면 휴전회담 자체가 결렬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엔군측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잠정군사분계선 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 주 기 ■■■■■■■■

- 1) 공산군의 38도선 월경 : 북한의 6·25남침, 중공군의 신정공세, 중공군의 춘계공세. 유엔군의 38도선 월경 : 유엔군의 북진작전
- 2)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37.
- 3) 위와 같음.
- 4) 육군본부, 『판문점』(상), (이하 『판문점』(상)으로 약술), p. 88.
- 5)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47.
- 6)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38 ; *FRUS*, 1951, VII, pt. 1, p. 801.
- 7) *FRUS*, 1951, VII, pt. 1, p. 801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에는 2시간 10분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1차 사료의 기록에 따랐다.
- 8)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39.
- 9) *FRUS*, 1951, VII, pt. 1, p. 848 ; 사건일자가 자료에 따라 22일 또는 23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 자료에 근거하여 일시를 표시하였다.
- 10)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42~43.
- 11) *FRUS*, 1951, VII, pt. 1, p. 849.
- 12)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43.
- 13) *FRUS*, 1951, VII, pt. 1, pp. 873~875 ; 이 서한은 9월 2일 19:00에 판문점 유엔군측 연락장교에게 전달되었으며, 수신은 리지웨이 장군, 발신은 김일성·팽덕희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문서작성일은 9월 1일부였다.
- 14) 『판문점』(상), 1972, pp. 102~103 ; *FRUS*, 1951, VII, pt. 1, pp. 884~885.
- 15)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45.
- 16) *FRUS*, 1951, VII, pt. 1, pp. 906~910.
- 17) 『판문점』(상), p. 107. 리지웨이 장군 서한(1951. 9. 17)
- 18) 『판문점』(상), pp. 107~108 ; *FRUS*, 1951, VII, pt. 1, pp. 923~924. 김일

220 제 2 장 軍事分界線 協商과 軍事狀況의 發展

성·팽덕회 서한(1951. 9. 21)

- 19) 『판문점』(상), p. 108. 리지웨이 장군 서한(1951. 9. 23)
- 20) *FRUS*, 1951, VII, p. 965.
- 21) William H. Vatcher Jr., *Panmunjom*[이하 Panmunjom으로 약술], p. 73.
- 22)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46 ; 12세 소년 1명이 사망하고 그의 동생(2세)이 부상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이의 책임을 인정하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다.
- 23) *FRUS*, 1951, VII, pt. 1, pp. 1059~1060 ; *Panmunjom*, pp. 74~75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50.
- 24) 『판문점』(상), p. 123.
- 25) 『항미원조전사』, pp. 164~173.
- 26) 당시 유엔군측은 적의 엄체호의 강도가 8"포로써도 파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 27) 『丁一權 회고록』, p. 402.
- 28)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80.
- 29) 위의 책, pp. 80~81.
- 30) 『丁一權 회고록』, pp. 402~403.
- 31)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81.
- 32) EUSAK., *Command Report*(이하 EUSAK, Cmd. Rpt.로 약술), July 1951, p. 69 ; 미 제10군단 미 제2사단 제38연대는 해안분지 서측 능선 상의 요지요부인 대우산(1178고지)을 7월 26일부터 공격하고 있었다. 이는 군사령관이 장차 해안분지 공격에 대비해 7월 21일 이 작전을 계획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 33) EUSAK, Cmd. Rpt., July 1951, p. 81.
- 34) EUSAK, Cmd. Rpt., July 1951, p. 72.
- 35) 위의 책, p. 72.
- 36) EUSAK, Cmd. Rpt., July 1951, p. 64.
- 37) EUSAK, Cmd. Rpt., July 1951, p. 64 ; Robert K. Sawyer, *KMAG IN PEACE AND WAR*, p. 180 ; 총참모장과 리지웨이 장군이 협의시에는 200~400명으로 논의되었으나 시행시에는 250명(보병학교 150명, 포

- 병학교 100명)씩 순차적으로 파견하였다.
- 38) *KMAG IN PEACE AND WAR*, p. 181 ; 밴플리트 장군은 Thomas J. Gross 준장을 미 제9군단 부사령관 겸 FTC 소장으로 임명하여 야전 훈련소를 창설하도록 조치하였다.
- 39) 위의 책, pp. 175~176.
- 40) 위의 책, p. 64.
- 41) 이번 하계 공격작전은 이미 준비된 적의 축성진지를 공격하는 진지전이며 제한공격개념에 의거 이 진지를 공격함으로써 포복기동이 유일한 목표점령수단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작전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 42) *EUSAK, Cmd. Rpt.*, Aug. 1951, pp. 62~66.
- 43) 위의 책, pp. 79~80 ; 이 작전 ‘맹금의 발톱(Talons)’이라는 암호명으로 계획되었으나 곧 ‘아파치(Apache)’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 44) *EUSAK, Cmd. Rpt.*, Aug. 1951, pp. 47~48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86.
- 45) *EUSAK, Cmd. Rpt.*, Sep. 1951, p. 4.
- 46) 위의 책, Aug., p. 80.
- 47) *ABLE* 특수임무부대 : 국군 제3사단 1개 연대+미 해병제1사단 1개 연대전투단+155mm 곡사포대대(-)+1개 중포병대대+공병+함포지원팀으로 구성
- 48) *EUSAK, Cmd. Rpt.*, Aug. 1951, pp. 80~81.
- 49)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86~87.
- 50) *EUSAK, Cmd. Rpt.*, Sep. 1951, p. 35.
- 51) 위의 책, Sep. 1951, p. 40.
- 52) 이 작전계획 명칭은 ‘Cudgel’이 곤봉이란 뜻이지만 그 의미가 표방하는 뜻을 따라 ‘소타격작전’이라 의역하였다. 그리고 Wrangler는 악자지껄 다투다. 논쟁의 의미이나 작전규모로 보아 소타격작전과 대립되므로 대타격작전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 53)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97 ; *EUSAK, Cmd. Rpt.*, Oct. 1951, p. 4.
- 54)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97~98.

222 제 2 장 軍事分界線 協商과 軍事狀況의 發展

- 55) 위의 책, p. 98 ; EUSAK, Cmd. Rpt., Oct. 1951, p. 4.
- 56) EUSAK, Cmd. Rpt, Oct. 1951, p. 6.
- 57) EUSAK, Cmd. Rpt., Oct. 1951, pp. 9~30.
- 58) EUSAK, Cmd. Rpt., Nov. 1951, pp. 4~6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175~176.
- 59) 해안분지는 인제 북쪽 약 15km, 서로 사태리계곡과 동으로 소양강계곡 사이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亥安面) 은전동 중심의 직경 10km 크기의 분지지역을 일컫는다. 이 분지는 북쪽의 1026, 924고지, 서쪽의 가칠봉(1242), 대우산(1178), 남쪽의 도솔산(1304), 918고지, 동쪽의 달산령, 795, 908고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둘레의 빼죽빼죽한 산정과 고개의 모습이 그러한 모양의 술잔(punch-bowl)과 같다 하여 서양인이 집필한 전사에는 펀치볼로 명명되고 있다.
- 60) EUSAK, Cmd. Rpt., Aug. 1951, p. 60.
- 61) 당시 적이 점령하고 있던 591-884-924-1031-991-981-840고지를 연결한 능선의 형태가 낚시바늘(J)형처럼 생겼다 하여 J-Ridge(J형 능선)라 칭하였다.
- 62) 국군 제7사단은 미 제2사단의 983고지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조공으로서, 983고지 서측의 554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
- 63) 인민군 제2사단은 제4, 제6, 제17연대로, 제13사단은 제19, 제2, 제23연대로써 구성되었다.
- 64) 『한국전쟁전투사 노전평전투』, p. 105.
- 65) 피의 능선(Bloody Ridge)이란 이름은 1951년 8~9월에 벌어진 983고지 전투에서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많은 피를 흘린데 뒤이어 투입된 미 제2사단 제9연대도 역시 많은 출혈을 강요당한 전투상황을 미성조지(the Stars and Stripes) 기자들이 보도하면서 붙여졌다.
- 66) 『한국전쟁사』 제6권, p. 574. 이는 군에서 1951년 8월 2일 촬영한 항공사진과 정보판단에 의한 것이다.
- 67) 위의 책, p. 580.
- 68) 鄭昌鎬, 『죽다 남은 찌꺼기』, 송림문화사, 1994, pp. 60~69.
- 69)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86.

- 70) 『한국전쟁사』 제6권, p. 589.
- 71) 『죽다 남은 찌꺼기』, pp. 87~89.
- 72) 국군 해병제1연대는 적정이나 지형상 이 목표의 점령이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고 장병들의 전의를 고무하여 목표를 반드시 탈취하겠다는 취지에서 1026고지를 ‘모택동고지’, 924고지를 ‘김일성고지’라고 칭하였다.
- 73) 국군 해병제1연대는 연대장 김대식 대령이 8월 31일에 후송됨으로써 9월 1일부터는 부연대장 김동하(金東河) 중령이 연대장(대리)으로 본 작전을 지휘하였다.
- 74) 『죽다 남은 찌꺼기』, pp. 160~163.
- 75) 백석산에서 어은산에 이르는 능선에는 1090고지가 3개가 있다. 그중 어은산에 가까운 1090고지는 1090고지(북)으로, 이보다 남쪽에 있는 1090고지는 1090고지(남)으로 호칭한다. 그리고 이보다 남측 1220고지 서측에 있는 1090고지는 1090고지(서)로 칭하였다. 1220고지는 미 제2사단이 단장의 능선 공격작전의 일환으로 10월 15일에 탈취하였으며 제8사단은 이를 인수하였다. 1090고지 공격의 발판으로 삼았다.
- 76) 통선골의 938(DT 016414)고지는 군사지도와 전사에 따라 931 또는 938고지로 표기되고 호칭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938고지로 통일하였다.
- 77) ‘단장의 능선(Heartbreak Ridge)’이라는 이름은 이 전투에서 많은 전사상자가 발생해 심장이 찢어질 듯한 참상을 목격한 특파원들이 전투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heartbreak!(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데서 비롯되었다.(참조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86)
- 78)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98.
- 79) ① 『항미원조전사』, pp. 191~192 : 중공군 제68군은 1951년 10월 8~10일에 북한강 동안과 문등리계곡으로 투입되어 전력이 약화되고 피로에 지친 인민군 제5군과 교대하였다.
②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98.
- 80)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90.
- 81) 위의 책, pp. 90~91 ; 국방군사연구소,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사료 856, pp. 62~72.

- 82) 이 작전명령은 ‘Touch down’이란 암호명으로 하달되었다. 이는 “력비 시합에서 공을 상대방 골라인 뒤쪽 땅에 대다”는 뜻으로 이번 작전의 기동개념을 여기에 비겨 붙여진 이름이었다.
- 83)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사료 No. 856, p. 49 ; 북한군 제5군단은 1951년 10월 중순까지 심대한 손실을 입어 충공군 제68군에 의해 교대되었다. 이들은 고원-영흥-함흥지역으로 이동하여 재편성 및 해안 방어를 하였다.
- 84) 군단의 전투지경선 조정에 따라 10월 18일부로 1220고지는 국군 제8사단으로 인계되었다.
- 85) 751고지는 적이 점령한 고지로서 924고지와 더불어 수도사단의 목표였으나 수도사단은 이미 1951년 8월 23일까지 이들 고지를 점령하고 작전을 종결하였다.
- 86) 『한국전쟁사료 정기정보보고』(6), p. 975(1951. 10. 3).
- 87) EUSAK, Cmd. Rpt., Oct. 1951, p. 33 ; Foster : (CT 1414-1618-1717-1615) ; Moore : (CT 1721-1823-2123-2121) ; Courson : (CT 2631-2226-2127-2430) ; Craig : (CT 2733-2934-2932-2732) ; Butler : (CT 3235-3337-3536-3435) ; Watts : (CT 3538-3739-3837-3637).
- 88) EUSAK, Cmd. Rpt., Oct. 1951, p. 7.
- 89) 『항미원조전사』, p. 189.
- 90) 위의 책, p. 189.
- 91) 이 방어선은 군 전선으로서는 와이오밍선의 일부이나, 군단에서는 진격작전시 목표선을 어민(Ermine)선이라 칭하였다.
- 92) EUSAK, Oct. 1951, pp. 44~45.
- 93) 『항미원조전사』, p. 191.
- 94) 위의 책, p. 193.
- 95) 위의 책, pp. 192~193.
- 96) 국군사단은 이때까지도 전차를 편제하지 못하였다.
- 97) 『한국전쟁사』 제7권, p. 410.
- 98) 송기덕 증언, 1993. 8. 20, 국방군사연구소.
- 99) 『항미원조전사』, p. 195.

- 100) *FRUS*, 1951, VII, pt. 1, p. 1061 ; 공동사무소는 협정의 세부사항을 전체 협정과 일치되게 결정짓고, 협정의 적용을 감시하며, 위반사항을 공동조사하고, 행정적인 문제를 협의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였다.
- 101) 백선엽, 『군과 나』, p. 215 ;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인생』, pp. 69~70 ; 휴전회담 대표의 임기는 휴회기간중에 교대되었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본회담에서 신임장을 제시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였다. 따라서 백선엽 소장은 9월 2일에 해임되었어도 그의 임기는 10월 24일에, 이형근 소장의 임기는 10월 25일부터 각각 끝나고 시작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당시 제1군단장을 겸직하고 있던 백선엽 대표는 동부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자 군단장직으로 급거 원상회복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및 총참모장과의 사전협약 없이 새 대표가 임명되는 바람에 다소의 물의가 뒤따랐다.
- 102) 『판문점』(상), p. 127.
- 103) 위의 책, pp. 127~128.
- 104)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p. 70 ; 이승만 대통령은 이형근 소장을 휴전회담 대표로 내보내면서 그를 면담한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성을 꼭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성은 우리의 고도이며, 인삼, 쌀의 명산지일세. 설사 동부전선의 일부를 주더라도 개성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 105) *Panmunjom*, p. 31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115.
- 106) *Panmunjom*, pp. 82~83.
- 107)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65.
- 108) 위의 책, p. 66.
- 109) *FRUS*, 1951, VII, pt. 1, p. 1147.
- 110) *Panmunjom*, p. 85.
- 111) 『판문점』(상), p. 131.
- 112) 『군번 1번의 외길인생』, pp. 70~72.

제 3 장 軍事狀況의 小康과 休戰協商의 膠着

제 1 절 積極防禦 戰略과 軍事作戰의 小康

1. 防禦線의 塹壕化

(1) 積極防禦 戰略

국군과 유엔군은 휴전협상을 개시한 지 4개월 반 동안의 설전 끝에 1951년 11월 27일에 이르러 공산군측으로 하여금 38도선 주장을 철회하도록 하고 또 쌍방이 대치중인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피아의 지상군은 이미 합의를 본 군사접촉선인 문산 서측 11km 지점의 임진강 어귀, 판문점 서방, 삭녕 북방, 철원 서북방, 금화 북방, 금성 남방, 어운리, 문등리, 고성 동남방 6km 지점에 이르는 전장 237km에 달하는 전선에서 대치하여 휴전회담의 전개 상황을 주시하게 되었다.¹⁾

1951년 말 현재 쌍방은 다음과 같이 부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아군은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이 국군 제1·영연방 제1·미 제3·미 제25·국군 제9사단 등 5개 사단을 작전통제하여 개성 서남방의 서해안으로부터 철원 서북방에 이르기까지의 주저항선을,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이 미 제2·국군 제2·미 제24·국군 제6사단 등 4개 사단으로써 평강-금성-화천 방향을, 그리고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이 국군 제7사단, 미 제7·미 제1해병사단 등 3개 사단을 통제하여 관대리-현

리-덕곡-노전평 방면의 주저항선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군 제1군단이 제5·제11사단을 지휘하여 전선의 최동단이며 동해안에 연하는 남강 연안의 신탄리-고성(남쪽 감호) 방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후방지역에는 백야전전투사령부가 국군 제8·수도·제3사단을 운용하여 적의 패잔병 및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전선에 배치된 전력은 총 4개 군단의 14개 사단규모였다.²⁾

반면 적의 배치는 서해안 방면에 북한군 제40여단이 배치되었고, 그 우측으로부터 서부전선 일대를 중공군 제65·제63·제64·제39군 4개 군이, 중서부전선에 중공군 제42·제26·제12군이 그리고 중동부전선 일대에 중공군 제68군과 인민군 제2군단 예하 제13·제27사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는 동시에 동부전선에는 인민군 제3군단 예하 제45·제15·제1사단과 최동단에 북한군 제1군단의 제47사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적의 최일선 부대는 중공군 8개 군과 인민군 3개 군단 예하 6개 사단이었다.³⁾

쌍방은 휴전회담이 개시된 이후 전력의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1951년 말까지 공산군측은 그간의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어 중공군 642,000명, 인민군 225,000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아군은 국군이 10개 사단 47만 명으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고, 유엔군이 미군 7개 사단, 영연방군 1개 사단을 포함 33만 명으로 도합 80만 명으로써 이중 전방에 25만 명, 후방에 55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다.⁴⁾

공산군측은 병력뿐만 아니라 포병화력도 대폭 증가시켰다. 1952년 초 그들은 전선에 710문의 야포를 갖고 있었으며 포술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그들의 포격은 점차 정확해지고 8문 내지 10문을 동시에 집중사격하는 방법을 진지의 위치를 바꿔가며 사용함으로써 유엔군의 대(對)포병사격을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⁵⁾ 그들은 이외에도 전차 및 자주포로 장비한 3개 기갑사단을 전선에 배치할 정도로 지상군을 증

강시켰으며, 공군력도 대폭 강화하여 만주에 공군기 1,25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⁶⁾ 그러나 유엔군은 포병의 화력에 있어 공산군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공산군의 포병이 유엔군의 방어선을 위협하게 되자 유엔군은 155mm 곡사포와 8"곡사포 등의 중포병을 강화하여 주로 보병에 대한 근접화력지원을 제공하는데 사용하였다.

잠정 휴전선의 결정은 휴전회담 개시 이래의 국부적이면서도 격렬하던 진지쟁탈전을 일시 중지시켰으며 전선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지상전은 아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새로운 대진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후의 아군작전은 진지를 강화하고 그 전진진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공세방어를 취하게 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이 계속하여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당시 지상작전의 규모와 빈도는 협상의 추이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아군은 협상이 주요쟁점을 둘러싸고 난항에 빠질 경우 이를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적으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조건을 수락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군사작전을 전개 한다는



중공군 82mm박격포 사격이 집중되고 유엔군이 대피하고 있는 모습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유엔군은 이른바 적극방어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제한목표 공격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적에게 전투력의 소모와 출혈을 강요하면서 공격기도를 분쇄하려 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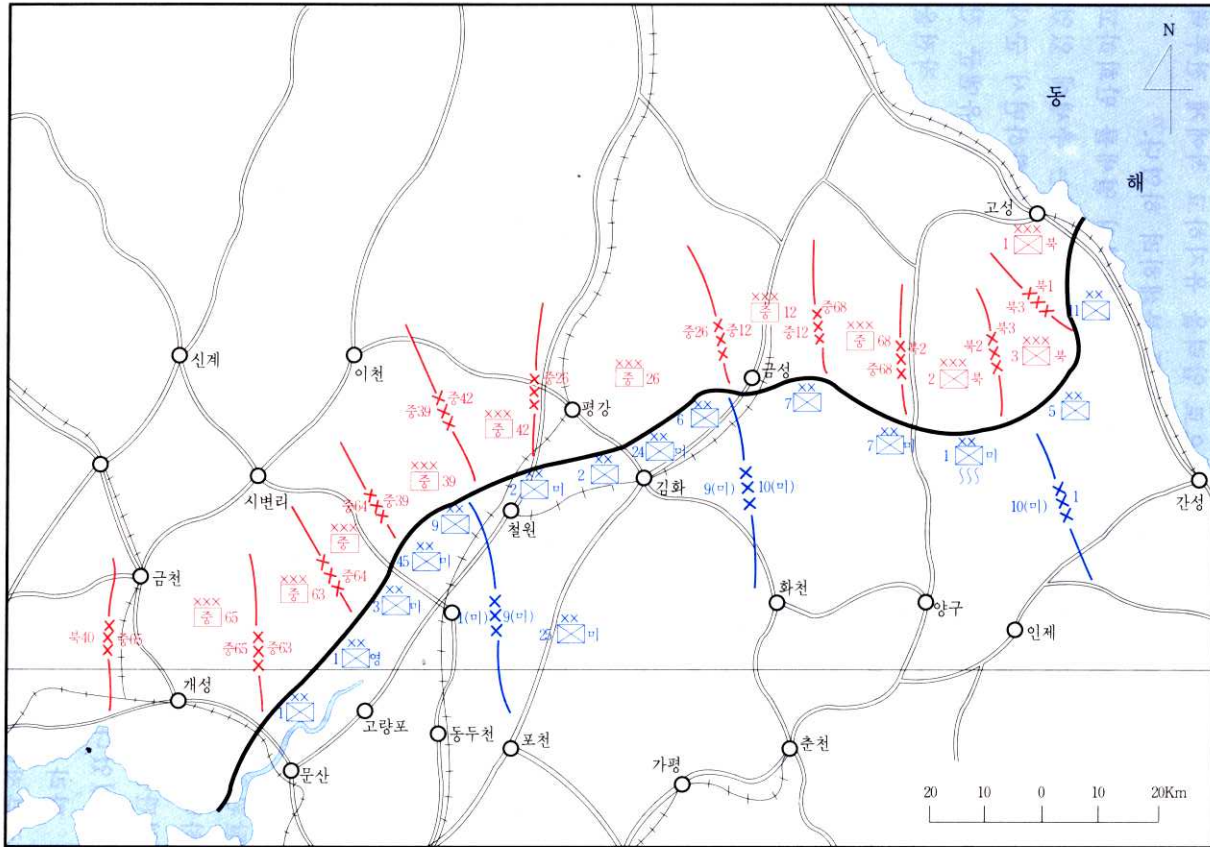
반면 적은 되도록 휴전협상 기간을 끌면서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혈안이 되었고 그들의 진지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적은 유엔군의 사기를 꺾고 일부 빼앗긴 진지도 탈환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여 휴전회담에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전략하에 유엔군 진지 중 돌출되어 있거나 취약한 진지를 선정하여 공격한다는 작전을 수립하고 있었다.⁸⁾

쌍방이 대규모 공세를 중단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군사분계선 설정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협상을 통하여 조기 종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공세는 협상을 결렬시킬 우려가 있었으며, 둘째, 상대방의 강력한 방어진지를 공격할 때 효과보다 희생이 훨씬 크리라는 점이었다.⁹⁾ 즉, 적을 격멸하기 위한 전면 공세는 소득에 비하여 매우 엄청난 전투력의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협상의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편,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자마자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는 예하 부대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적대행위가 계속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8군은 의제2항의 합의조건 이행에 성의를 다하는 한편 협상이 부당하게 지연될 경우 공격작전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공격작전이란 제8군사령부로부터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적의 공격으로 피탈된 중요 지형지물을 탈환하기 위한 반격에 국한한다는 것이었으며 불필요한 희생을 자제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예하 부대에 전달되자 일부 예하 지휘관들은 자기부대 병력사용으로 선뜻 모험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마저 있었다.¹⁰⁾

따라서 1951년 11월 27일 잠정 군사분계선의 결정은 그 이전까지 국부적이면서도 격렬하던 진지쟁탈전을 일시 중지시켜 전선은 소강상

1951년말 전선 현황



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쌍방은 교착된 전선에서는 전투보다 진지강화와 부대정비에 전력하였으며, 전초와 엄호부대 사이의 빈번한 탐색전과 소규모 전초진지 전투를 통하여 상호 접촉을 유지하였다.¹¹⁾

(2) 防禦線의 塹壕化

국군과 유엔군은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면서 방어태세를 강화하였으며, 공산군도 병력과 장비를 꾸준히 증강시키며 방어진지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무렵 진지로 연결된 쌍방의 방어선은 각기 다른 특징이 있었다.

공산군은 이전까지 폭우와 같은 유엔군의 포격과 폭격으로 야간에만 진지공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잠정 휴전선이 설정된 이후 이 기간을 이용하여 밤낮으로 진지공사에 전력하고 있었다.¹²⁾ 그들은 방어진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마지노선이나 독일의 서부방벽을 능가할 만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다. 적은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지의 후사면을 이용하여 땅굴과 참호를 파고 전 병력을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일부지역에서는 후방 40km의 지역까지 지하 보루를 형성한 진지가 있었으며 이런 진지는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연결되었다.¹³⁾ 거미줄처럼 파헤쳐진 고지 정상으로부터 깊이가 2m나 되는 여러 갈래의 교통호가 반사면을 따라 보급소나 취사장으로 보이는 동굴로 통하고 있었으며 또한 후방의 산기슭으로도 연결되어 있었다. 공중에서 보면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전 전선에 걸쳐 폭 20~30km의 커다란 개미집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다.¹⁴⁾

특히 중공 공간사에 의하면, “중공군은 1952년까지 갱도 7,789개 198.7km를 구축하였고 엄체호 75만개, 유개 및 무개 참호 길이 3,420km를 작업 완료하였으며, 북한군이 판 갱도는 총 1,730개 88.3km였고 각종 엄체호가 3만여 개, 참호길이 260km였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⁵⁾

적은 사격으로부터도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두상엄폐를 위해 통나무·바위·모래 등 무엇이든 사용하였다.¹⁶⁾ 예로써 국군 제5사단이 가철봉을 점령했을 때는 적은 진지 내에 1개 소대가 동시에 집결하여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까지 마련되어 있었을 정도였다.¹⁷⁾

적은 통상 고지를 점령했을 때는 즉시 참호를 파기 시작했다. 고지 정상 부근에서 아군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로부터 시작하여 고지를 일주하면서 참호 공사는 계속되었다. 공산군은 유엔공군과 중포병의 화력세례로부터 그들의 고정된 방어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군의 진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강력한 지하 참호에 병력과 장비를 수용하였다. 후사면으로부터 터널을 파기 시작하여 전사면까지 관통시키고 고지의 내부에 중형의 망상통로와 각종의 포좌를 만들어 거의 고지 전체를 거대한 보호 덮개로 축성하였다. 그들은 야포, 전차 등을 땅속에 은폐시켰다가 사격시에는 땅굴 입구로 끌어내어 사용하고 있었다.¹⁸⁾ 적은 방어진지 주변에는 몇 겹의 철로망으로 둘러싸고 진전에는 수많은 살상지뢰를 묻었다. 더욱이 그들은 진지 피탈시를 고려하여 제2선에 이르는 사이에 지뢰호를 파서 후퇴하면서 즉각 지뢰를 매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적의 방어진지의 구조는 공중 및 야포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매우 견고하게 설계되었다.¹⁹⁾

공산군은 이와 같은 지하요새들을 전투가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휴전회담이 시작된 첫째 동안에 주로 구축하였다. 그들은 확실히 회담의 책략을 통하여 시간을 벌어 방어력을 대폭 증가시켰던 것이다.²⁰⁾ 이때 구축한 진지에 대하여 모택동 선집 제15권에 “어떤 사단도 3개월의 식량을 보관할 지하창고가 있었으며 강당도 있어 생활은 대단히 좋다”고 평가하였으며, 북한 공간사에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기술되어 있다.²¹⁾

전 전선에 걸쳐 갱도를 기간으로 하는 방어진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특히 전술적으로 중요한 고지들과 지점들이 강화되었다. 우리

나라 산악지형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사명을 가진 갱도화된 축조물과 그것과 연결된 참호, 교통호들로 이루어진 갱도식진지 방어체계가 튼튼히 완성됨으로써 전선의 인민군 전투원들은 방어의 견고성을 더욱 높이고 적의 공격을 방어정면에서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갱도에는 그의 사명과 규모에 따라 전투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까지 갖추어짐으로써 인민군 전투원들은 적의 포위 속에 드는 경우에도 오랫동안 자립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적은 해안선의 방어진지도 지하요새화 하였다. 그들은 아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전 해안선에 수십만의 인원을 동원하여 해안선 진지를 구축하고 진지 주위에는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준비시켜 두었다. 해안선 진지는 지하요새와 함께 해안으로부터 후방지역에 많은 무개 참호를 파두었다. 이 참호는 해상으로부터 공격을 가하는 어떤 부대도 일단 육지에 상륙하면 참호를 하나하나 공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안을 따라서는 철조망을 설치하고 도처에 지뢰를 매설해 두었다.²²⁾

반면, 유엔군측도 방어진지를 공산군만큼 그렇게 견고하게 설치하지 못하였지만, 1차 세계대전시의 참호선에 가까운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유엔군은 화력의 우세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저항선을 주로 고지 전방의 전사면에 설치하고 있었다.

주저항선에는 개인호와 기관총 등 화기진지를 구축하고 교통호로 연결하였으며 중요지형 정상 부근에는 벙커 형태의 전방지휘소와 관측소를 설치하였다. 진지와 벙커는 잘 위장하였으며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야전축성은 공산군의 소규모 공세에는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주저항선 전방에는 완충효과를 갖게끔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초를 두었으나 주저항선 후방에 예비참호를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유엔군

진지는 공산군 진지에 비하여 중심이 너무 얇았다.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일련의 정찰기지를 운용하여 방어진대의 중심을 증가시켰다.

1951년 겨울 혹한의 기후는 다소 공산군측보다는 유엔군측에 유리하였다. 한풍이 휘몰아치는 추위 속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국군과 유엔군은 비교적 공산군이 위치한 북쪽 응달보다는 양호한 편이었다. 유엔군은 양지바른 남쪽에서 충분한 보급품과 난방기구 그리고 따뜻한 방한복을 지급받아 월동준비를 끝내고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반면 공산군은 보급품도 난방기구도 충분치 못한 가운데 하루 종일 음지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한층 더 추위에 떨어야 했다.²³⁾ 그러나 그들은 유엔군보다 신체적 곤란을 덜 받으며 혹심한 겨울 추위를 견디어 내었다. 오히려 보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유엔군은 많은 동상자를 내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찰과 매복을 자주 교대해야 했기 때문에 거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정도였다. 미 공간사에는 “공산군이 추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선천적인 순응성과 가난과 결핍을 이겨내는 정신력 그리고 엄격한 규율 때문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²⁴⁾

이와 같이 동해안으로부터 서해안에 이르기까지의 전 전선의 주저항선 방어진지는 중심 깊은 참호선으로 연결되면서 날로 강화되었고 그 결과 이전에 비해 훨씬 큰 희생과 손실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상대편의 방어선을 돌파하거나 또는 그 일각을 점령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게 되었다.²⁵⁾

따라서 쌍방은 출혈이 큰 대규모의 전면공세를 단념하게 되었다. 나도 살고 적도 살게 한다는 소극적 관념이 전선을 지배하는 가운데 유엔군의 사상률은 점차 낮아졌으나 적은 이와 같은 소강기간을 이용하여 전력의 균형을 회복한 다음 유엔군의 방어선에 또다시 중압을 가해오기 시작하였다.

그러하여 회담과 작전의 양면에서 그 어느 쪽도 상대방의 일방적 후퇴를 강요할 수가 없는 팽팽한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길고도 지루한 교착상태가 계속되었다. 일단 전선이 고정되면 피아간의

협상을 통해 작전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전쟁은 장기 소모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²⁶⁾ 그러던 가운데 잠정휴전 기간으로 합의된 기간이 지나고 있었지만 회담은 조금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2. 偵察戰의 展開

쌍방은 상대방에 대한 기선을 확보하고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상대 정보 파악이 중요시되었다. 이를 위해 정찰전과 아울러 전초의 전술적 운용이 지상작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²⁷⁾ 특히 수색정찰대 운용을 강화하였고 제한된 규모의 공세적인 전투정찰도 실시하게 되었다.

수색정찰은 적의 방어진지나 활동을 탐색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전투정찰은 매복, 습격 등의 활동으로 적 포로를 획득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운용되었다. 적도 정찰전을 전개하였다.

교착된 전선에서의 정찰활동은 주로 야간에 전개되었다. 따라서 부대는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진지주변에 철조망·지뢰·조명장비·부비트랩·네이팜통·백린 등을 설치하는 등 각종 장애물과 방호시설을 강화하였다. 또한 병사들은 국지경계를 강화하고 철조망을 통과하여 순찰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정찰대와의 작은 충돌로 전투가 확대되어 쌍방간에 수시간 동안 포격전이 전개되곤 하였다. 이때 쌍방의 병력은 진지 내에서 보호를 받아 인명피해가 거의 없으나 포격전이 끝난 후 장비를 점검하고 절단된 전화선을 보수하는 등 반복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하였다.²⁸⁾

공산군의 정찰대는 흔히 소대 내지 중대 규모로 드물게는 대대 규모로 편성되어 공중으로부터의 관측과 폭격을 피할 수 있는 야간에

국군 및 유엔군의 방어선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였다. 예로써 금성 동서방면에 배치된 중공 제12군은 1951년 11월 상순에서 1952년 1월 하순까지 정찰 활동을 805차례 실시하였으며, 이는 매일 평균 12개 반이 출동한 셈이었다.²⁹⁾

이에 비해 국군과 유엔군은 통상 중대 내지 대대 규모의 전투정찰대를 편성, 공산군 진지에 대한 위력수색과 교란을 목적으로 국부적인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주저항선에 배치된 전방 연대는 공산군의 야간침투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하여 수색정찰을 강화하였다.³⁰⁾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1월 29일에 68회에 달하는 수색정찰대를 전방에 투입하였으며,³¹⁾ 12월 한달 동안 제8군의 전부대가 전투정찰을 실시한 횟수는 247회에 달하였다.³²⁾

쌍방의 전투정찰대의 접전은 때때로 전략 전술적 요충지의 통제권을 다투는 작전으로 변하여 격전을 치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났다. 그러면서도 작전지역의 범위는 국부적으로 한정되기 마련이었다.³³⁾

이와 같은 정찰활동을 통하여 유엔군측은 주진지 전방의 유리한 지형지물을 통제하고 전초진지를 강화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공산군에게 전투력의 소모와 출혈을 강요하였다. 교착된 전선에서의 전투정찰은 최선의 훈련수단이기도 하여 이를 통해 장기간의 진지근무로 해이해지는 병사들의 정신상태를 바로잡고 후방에서 보충된 신병들로 하여금 실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음을 물론 짧은 시일 안에 장병들에게 고도의 전기를 연마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특히 담력과 용기를 기르는데 있어서는 야간정찰 이상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다.³⁴⁾

이외에도 국군과 유엔군은 전투정찰과 국지작전을 통하여 가능한 많은 수의 포로를 획득함으로써 적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정찰을 통한 포로획득은 적정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유엔군은 포로를 획득한 병사에게는 포상휴가를 줌으로써 정찰활동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포로를 획득하는 방법 가운데는 적의 전화선을 절단하고 그

부근에 며칠 밤 매복하여 기다리다가 수리병이 출현하였을 때 생포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우전이 전개되고 소총 사격에 의하여 적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데 비하여 포로를 생포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공산군측도 비슷한 상황이었다.³⁵⁾ 국군과 유엔군은 각 연대가 매일 밤 1개 조의 정찰대와 2~3개 조의 매복조를 투입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었다. 정찰대는 사전에 야간 매복요령 및 사격기술을 연마하고 실전과 다름없는 예행연습을 실시한 뒤에 투입되었다.³⁶⁾

그러나 정찰전의 성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적이 작전기간 동안 가벼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며 또 아군 병사들도 주기적인 정찰전의 실시로 인하여 다소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부의 정찰대는 적을 포획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대부분은 적과 사격전을 전개하여 피해를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국군과 유엔군은 정찰전을 통해 비록 포로를 통한 적정 파악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교착된 전선상에서 해이해질 수 있는 장병들을 긴장시키는 한편 귀중한 경험과 훈련의 기회를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3. 前哨陣地 戰鬪

(1) 1951年 冬季作戰

1951년 말 전선 상황은 유엔 당국이 협상을 통하여 전쟁을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결말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적의 지속적인 증원으로 쌍방의 세력이 점차 균형을 이루게 됨으로써 대규모 작전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었다.

미 제8군은 1952년 1월 중에 미 제1군단 포병들이 중포와 전차를 고지 정상에 추진하고 경사면에 구축된 적의 축성진지를 직접 사격하는 동안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제11사단을 제5사단과 교체하는 한편 제6사단(미 제9군단 배속)의 진지를 제3사단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였으며 또한 미 제45사단에 이어 제8군에 배속되어 전선에 배치된 미 제40사단을 미 제24사단의 진지를 인수케 하는 부대 교대를 실시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2월 2일 ‘빅 스틱(Big Stick)’이라 명명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유엔군사령관에 건의하였다. 즉 4월 5일 실시하기로 계획된 이 작전의 요지는 미 제1군단 정면을 북쪽 예성장선으로 추진하고, 미 제1해병사단으로써 동해안에 상륙 양공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예상되는 아군손실 11,000명으로 인해 승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홈 커밍(Home Coming)’ 계획을 22일 다시 제출하였다. 이 계획이 앞의 계획과 다른 점은 공격날짜를 4월 1일로 하고 공격시 국군만을 사용하며 상륙작전은 취소한다는 것이었다.³⁷⁾

결과적으로 상기한 제8군의 공격계획은 무산되었다. 그 이유는 “지상작전은 아군전선의 안전과 경계에 필요한 정찰 및 역습만으로 제한한다”는 유엔군사령관의 작전방침 때문이었다.

한편, 제8군은 2월 초 위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각 부대가 실시하고 있던 타성에 젖은 수색정찰전의 반복 실시를 극복하고자 ‘크랩 업(Clam up)’이라는 유인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은 ‘침묵작전’으로 불리었으며 아군이 전선에서 일체의 점적활동을 중지하고 철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적을 유인한 후 반격으로써 포획한다는 것이었다.³⁸⁾

이에 따라 전선의 양상은 장기 교착상태에서 때때로 공격행동을 취할 때는 다만 전초진지 주위의 주요고지를 목표로 쟁탈전이 전개되곤 하였다. 대부분 전선에서는 연대급 이하의 전초진지 쟁탈이 반복된 소위 소부대전투의 연속이었으며 거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³⁹⁾

이 기간 동안 수행된 전초진지전은 '51년 동계작전과 '52년 춘계작

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전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杜梅里 부근 戰鬪

이 전투는 1951년 12월 28~1952년 1월 8일 간에 문산 정면의 임진강 북쪽 두매리 부근에서 국군 제1사단과 중공군 간에 벌어진 전형적 전초진지 쟁탈전이었다. 당시 국군 제1사단은 주저항선을 임진강 북안의 사천-백학산-사미천을 연하는 선으로 추진하여 좌전방에 제11연대를, 우전방 두매리 남쪽에 제12연대를 배치하고 제15연대(-)를 예비로 확보하고 적과 대치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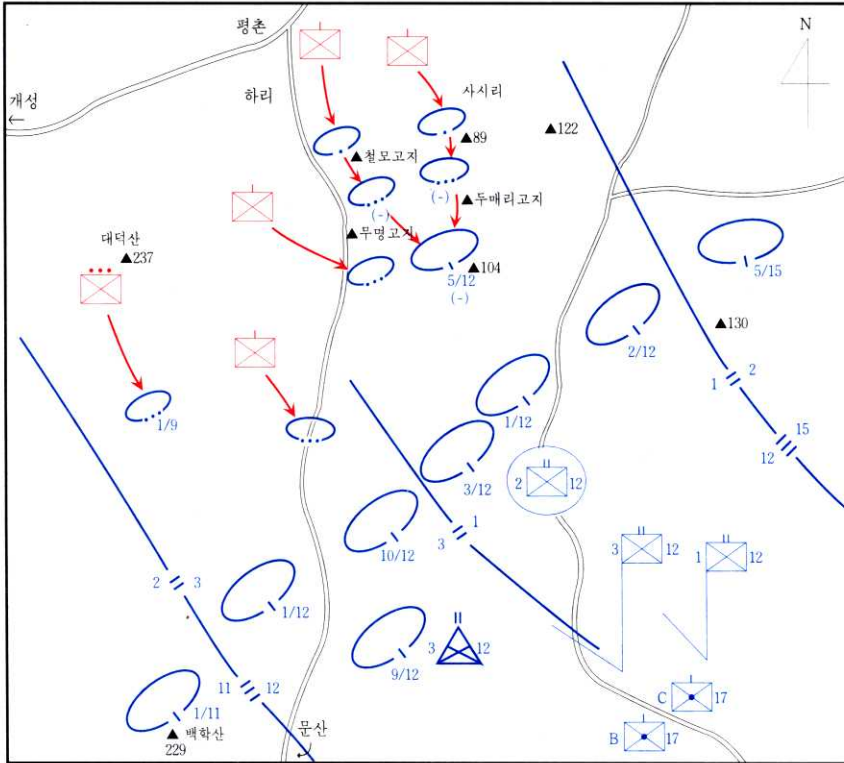
사단 정면에는 중공 제63군 예하 제188사단이 지휘소를 마산동에 개설하고 주력을 용호산-망회산-반용산 선에 배치하여 경계부대를 비지산-대덕산 전면으로 추진, 아군의 동정을 살피면서 주야로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적 병력은 7,500여 명으로 예상되었으며 122mm 야포 1개 대대와 105mm포 1개 중대 그리고 전차 1개 소대가 전후방 일대에 분산 포진하고 있었다.

국군 제12연대는 배속받은 제15연대 제2대대를 포함 제1, 제3대대를 일선에 배치하고 예비인 제2대대 제5중대로 두매리 부근의 전초진지 방어를 전담하게 하였다.

중공군 제188사단 예하 제523연대는 12월 28일 16:00 제5중대의 분견대가 확보한 철모고지 전방 300m에서 신호탄과 함께 104고지와 두매리고지 일대를 향해 포격을 개시하면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제17포병대대에서는 미리 준비한 탄막사격을 집중하였으며, 미 제999포병대대는 적의 예상 포진지에 대하여 대포병사격을 실시하였다.

16:15 적은 제5중대의 분견대가 점령한 철모고지와 89고지에 2개 중대 규모로 공격함으로써 진전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철모고지의 분견대는 적의 공격 일파를 저지한 다음 고지 남쪽 300m 무명고지로 철수하였으며, 89고지의 분견대도 두매리로 철수하였다.

두매리고지 부근 전투



전방의 양개 소대는 적이 진전으로 진입하자 포병사격을 유도하면서 사격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사격전이 전개되는 동안 모든 유개호가 파괴되고 적이 진내로 돌입하자 양 소대는 결국 104고지로 철수하였다.⁴⁰⁾ 이때 연대에서 요청한 F-51전폭기가 두매리와 무명고지 일대의 적을 강타하고 포병사격도 적진에 집중되었다.

적은 18:00부터 다시 전차포의 지원하에 104고지 좌우측 능선을 따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중대는 지원포병의 사격지원을 받아 진전의 적에게 저지사격을 가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로 돌파될 위기에 처하였다. 중대는 달려드는 적에게 수류탄과 백병전으로 혼신의 혈전 끝

에 마침내 적을 격퇴하였다.

29일 연대장은 차기작전을 위하여 반드시 상실한 전초고지를 확보하기로 결심하고 역습으로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명령을 수령한 제2대대는 제6중대에 무명고지를, 제7중대에 두매리고지를 각각 공격하도록 하였다.

06:30 제6, 제7중대는 조금리의 공격개시선을 점령하고 약진하기 시작하였다. 09:20 제7중대는 두매리고지 100m 앞까지 진출하여 적을 압박하였다. 중대는 다소 고전하였으나 마침 선봉에 나선 제2소대가 사각지대로 진입하여 목표 50m까지 근접하였으며, 중대 주력이 적의 동쪽진지를 향해 돌진하여 수류탄을 투척하고 진내에 돌입하여 마침내 10:10 진지를 탈환하였다.

중대는 수차례 반복된 적의 역습을 받아 그때마다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접근을 저지하였으나, 탄약이 소진되고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전력이 급격히 감퇴되어 14:30 철수하고 말았다.

한편, 무명고지를 향해 돌진한 제6중대는 가파른 지형을 고려하여 우회공격을 기도하고 있었다. 중대는 먼저 고지 일대에 포병사격을 요청하여 포격을 집중한 후 주력이 즉시 돌격선까지 진출하여 소대규모의 적과 격돌하였다. 주력이 혈전을 전개하는 동안 제3소대가 목표 우측으로 우회하여 적의 좌측배로 육박한 다음 적진으로 돌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대 주력이 정면에서 돌격을 감행하여 마침내 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제6중대 역시 적의 반격을 받아 중대본부 요원과 화기소대 일부까지 투입하여 적을 격퇴하였으나 다시 돌파될 위기에 처하였다.

한편 양개 중대의 역습상황을 살피고 있던 연대장은 당면의 적세로 목표탈취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열의 재편을 도모한 후에 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6중대에 104고지를 확보하게 하고 그 우측에 제7중대를 배치하였다. 제5중대는 주진지로 복귀시켜 재공격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30일이 되어 대대장은 제5중대를 다시 일선에 기용하여 제17포병 대대의 화력지원 아래 두매리고지에 대한 재역습을 단행하였다. 중대의 선봉은 적전 30m에 이르러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공격이 돈좌되고 있었다.

대대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적전에 81mm 박격포 사격을 집중하였다. 중대는 공격의 돈좌로 난전을 치르다가 13:00 일제히 적진으로 돌진을 전개하였다. 중대장은 포격을 유도하여 적의 거점 하나하나를 제압하는 한편, 제3소대로써 적의 측방에 대하여 충격격을 가하였다.

이리하여 주도권을 쟁취한 중대는 14:00 모든 화력을 동원하고 돌격을 전개하여 마침내 적진에 돌입할 수 있었으며, 수류탄과 자동화기로 적을 제압하였다. 중대는 이 돌격에서 17명이 전사하고 41명이 부상을 입는 손실을 입었으나 적의 병력은 궤멸하여 살아서 도망친 자가 10여 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전과를 올렸다.

중대는 고지를 점령한 즉시로 대대에 증원을 요청하고 진지 재편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적은 중대가 증원을 받기도 전에 전차포 등 직사포탄 100여 발을 집중하면서 좌우능선으로 역습을 재개하였다. 중대는 역경 속에서도 포병사격을 요청하면서 또 한차례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며, 결국 명령에 따라 철수함으로써 고지를 적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중대는 적 300명을 사살하고 23명이 전사당하는 격전을 전개하여 얻은 고지를 끝내 확보하지 못하고 104고지 후사면으로 물러났다.⁴¹⁾

두매리 부근의 전투는 1952년 초로 이어졌다. 사단장은 두매리고지가 주요 감제고지이며 차후 공격의 전진 발판이므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제12연대에 탈환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2연대 제3대대가 탈환임무를 부여받았다.

1952년 1월 3일 08:00 105mm 야포 18문과 155mm 야포 6문, 그리고 4.2" 박격포 8문이 일제히 포문을 열어 두매리고지 일대를 집중사격하였고 곧이어 전폭기 4대가 측방 엄호포격을 실시하는 가운데 제3대

대는 적진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전방제대인 제10, 제11중대에 전차소대를 각각 배속하고 전력을 강화한 다음 좌우능선으로 나뉘어 분진하였다. 좌전방인 제10중대는 무명고지를 향해 약진 공격하여 7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적진 30m까지 육박하였다. 이때 제1소대의 김학명 중사 외 5명의 특공대원이 적의 화기진지를 격파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중대 주력이 일제돌격을 실시하여 적 47명을 사살하고 3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달성하면서 마침내 13:10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중대 역시 계속되는 적의 역습을 받고 제17포병대대의 지원사격하에 몇 차례 격퇴하였으나 적 2개 중대의 파상적 공격을 받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우전방 중대는 전차포로써 적진지를 제압한 다음 돌격을 감행하여 동사면으로 우회돌격한 제3소대가 적진으로 돌입하였으며 동시에 중대 주력이 돌격하여 적진을 유린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곧바로 적의 역습을 받기 시작하여 진내에서 백병전까지 실시하면서 적을 저지하였으나 결국 14:00 진지를 이탈하여 병력을 수습하였다.

사단에서는 탈환작전이 부진한 원인과 적진의 추이를 검토분석한 후 제15연대에 다시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1월 5일 여명 제15연대는 제1대대를 좌전방으로 제3대대를 우전방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는 제11, 제9중대를 전방에 전개하고 제10중대를 후속시켰다. 이에 양 중대는 목표고지 배후에 포격을 집중하도록 요청하고 제11중대가 격전 끝에 89고지를 확보하고 배후에서 두매리고지로 공격을 계속하였다. 중대는 제2소대의 특공대가 돌격로를 개척하면서 적진으로 돌입하여 마침내 목표고지를 탈환하였다. 제10중대는 신속히 148고지로 방향을 전환하여 소대규모의 적을 격멸하고 122고지와 148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좌전방인 제1대대는 제2, 제3중대를 좌우로 병진공격하여 압박하였다. 양개중대는 고지 동사면의 돌출부로부터 적의 자동화기사

격을 받아 공격이 돈좌되었으나, 제2중대가 포병의 지원사격하에 공격을 재개하여 적진 20m 앞까지 육박한 다음 혈전을 전개하여 마침내 무명고지를 탈취하였다.

그러나 적은 곧이어 제17포병대대와 미 제1군단 포병대대의 집중포격에도 불구하고 두매리고지로 전력을 집중하여 역공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는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물리치려 하였으나 89고지가 무너지고 이어 두매리고지마저 상실되고 말았다.

다음날 1월 6일 연대장은 제1대대로 하여금 두매리고지를 탈환하도록 함으로써 이날도 치열한 격전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돈좌되어 화력전만을 교환하였다. 제15연대장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탈환전에서 적이 많은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것은 역습부대의 대량투입과 화력의 증강때문으로 판단하고 대포병 화력을 강화하면서 제3대대에 탈환명령을 하달하였다.⁴²⁾

제3대대는 대덕산과 두매리고지의 적화력을 포병의 집중사격으로 제압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0중대는 전차포의 지원하에 적진으로 진입하였고 특공대로써 적의 화기진지를 제압한 후 일제돌격을 감행하여 11:00 마침내 두매리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이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적의 역습이 이어졌다. 적은 2개 중대규모로 역습을 개시하는 한편 3개 중대병력이 후속하였다. 대대는 1시간 동안의 분전 끝에 결국 다시 적에게 고지를 내어주었다.

사단장은 적에게 많은 출혈을 강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두매리고지 서남쪽 무명고지로부터의 측방사격때문이라 판단하고 먼저 이를 탈취하도록 명령하였다. 제12연대 제3대대가 이번엔 이 무명고지 공격을 시작하였다. 대대는 특공대를 양측으로 투입하여 적을 교란하면서 일제돌격을 감행하여 오후 무렵 무명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곧이은 적의 역습을 받고 사단 가용포의 집중포격하에 저지하였으나 다시 고지에서 물러

서고 말았다.

사단장은 적이 많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역습을 가해오자 다시 제15연대 제3대대와 제12연대 제3대대를 투입하여 일거에 무명고지와 두매리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전황은 이전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고지를 탈환한 후 곧이은 적의 역습을 받아 다시 피탈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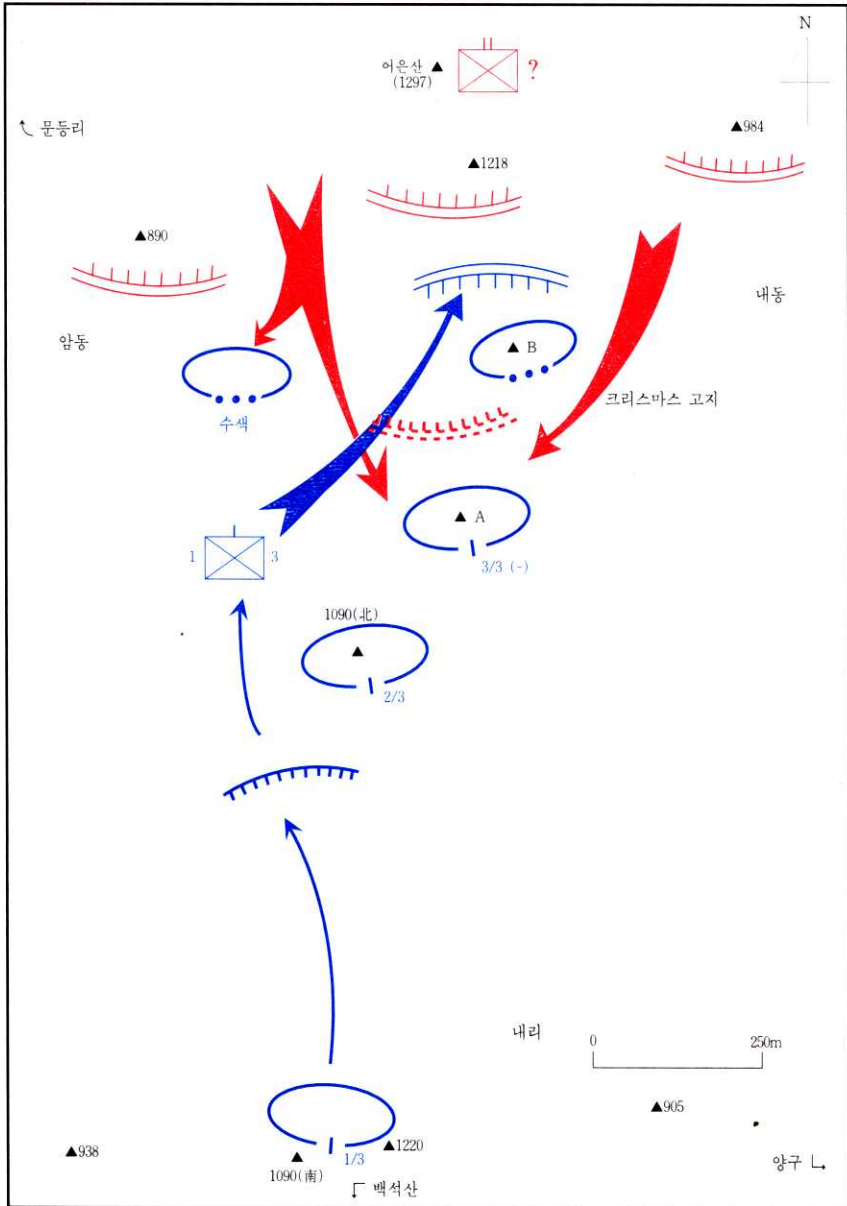
사단은 군단의 명령에 의하여 8일로서 전투를 종료하였다. 이 작전에서 사단은 비록 두매리고지를 상실하였지만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기간 중 사단은 적 사살 1,611명, 포로 4명의 큰 전과를 올렸으며, 전사 129명, 부상 585명, 실종 2명의 손실을 입었다. 사단은 제15연대를 임진강 남안의 원진지로 복귀시키고 제12연대를 104고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초진지를 구축하게 하는 한편 위력수색을 전개하도록 하였다.⁴³⁾

2) 크리스마스高地(1090) 부근 戰鬪

크리스마스고지 전투는 1951년 12월 25일을 전후하여 어은산 일대의 중공군 제204사단이 백석산 북방의 국군 제7사단의 최북단 전초진지⁴⁴⁾인 1090(북) 부근 무명고지에 대하여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격전이 전개된 전투로써 후일 크리스마스 전투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 고지는 어은산과 백석산을 연하는 종격실 능선상의 고지들인데, 피아가 현 주저항선에서 조금이라도 물러나지 않으려는 의지의 충돌로써 생탈전이 되풀이되었던 것이다.

당시 중공군 제204사단은 제612연대로서 어은산을 주축으로 890고지-1218고지-984고지를 연한 선에서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있었고, 국군 제7사단은 1951년 11월 중순 국군 제8사단과 교대하여 이곳에 투입된 후 이미 중공군 제204사단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한 바 있었다.

크리스마스고지 부근 전투



12월 24일 당시 1090고지 부근에서 적의 주접근로를 방어하고 있던 제3연대는 적이 1090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도를 사전 봉쇄하기 위하여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어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에도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날 적은 17:40경 20여 명의 정찰대가 무명고지(B) 일대의 진전을 탐색하다가 전초소대와 조우한 뒤 물러간 후 곧이어 120mm와 82mm 박격포탄 400여 발의 공격 준비사격과 동시에 1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해 왔다.

적은 전초진지를 좌우로 포위 무명고지(B)를 탈환하고 그 기세를 몰아 1090고지(북)까지 기습공격을 기도하여 왔으나 동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3중대의 반격을 받아 많은 손실을 입고 무명고지(B)로 퇴각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대는 무명고지(B)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날까지 4차례나 공격을 전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철수하였다.

12월 26일 09:00 아군은 포병의 공격준비사격과 동시에 제1중대가 제3중대를 초월공격하여 적과의 일진일퇴 공방전을 반복한 끝에 14:30 고지를 장악하는데 성공하였으나 19:35부터 적의 야간공격을 받아 다시 피탈하였다.⁴⁵⁾

다음날 27일 아군은 강공으로 다시 무명고지(B)를 탈취하였으나 적의 새로운 증원부대로 보이는 약 2개 중대병력이 18:30에 기습공격을 가해 옴으로써 탄약의 소모로 진지를 지탱하기 어려워 또다시 철수하였다. 그러나 28일 06:00 제1중대가 재차 공격을 감행하여 치열한 백병전 끝에 09:50 무명고지 정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⁴⁶⁾

이후 1952년 초에 들어 크리스마스고지를 중심으로 몇 차례 소규모 충돌이 있었으나 대체로 소강상태를 이루었으며, 2월 11일에 또 한차례 이를 탈취하려는 적과 전투를 벌이었다(제2차 크리스마스고지 전투). 이때 아군은 이른바 클램 업(Clam Up), 즉 침묵작전 개념에 따라 포로획득에 최후선 목표를 두고 전초에서 적을 유인 격멸하려는 전술을 적용하고 있었다. 당시 부대교대로 무명고지(A)에는 제3연대

제2중대가, (B)에는 제2중대의 1개 소대가 전초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2중대는 2월 11일 크리스마스고지를 비워 놓고 적의 접근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자정 무렵 사단의 우전방 제5연대의 중앙 정면인 내동계곡에 2개 분대규모의 적이 위협사격과 동시에 제2대대의 경계진지에 접근하였으나 대응치 않자 그대로 복상하였다.

12일 01:35 적은 2개 대대규모로서 압동계곡의 연대 좌전방 제3대대의 경계선을 침투하고자 기도하였다. 그러나 적은 아군 경계조가 진지를 비워 놓고 그 남쪽 주진지로 철수하면서 설치한 인계식 지뢰에 촉발케 되자 지뢰지대로 오인하여 퇴각하고 말았다. 20:30 적은 다시 1개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증강하여 21:15 무명고지의 탈환을 기도하였다. 유인격멸의 호기를 맞은 중대는 적이 진전에서 수류탄 투척거리에 육박할 무렵 전 중대의 화력과 대대 81mm 박격포 화력을 기습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적을 격퇴시켰다.

13일 적은 다시 무명고지를 탈환하고자 02:25 박격포 사격지원하에 중대규모로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아군의 방어중대는 악전고투 끝에 진지를 사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적은 재차 1개 소대규모의 증원 부대를 투입하였으나 격퇴되었다.

이리하여 연대는 적의 수차례에 걸친 공격을 격퇴하여 휴전협상에서 쌍방의 주저항선을 설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크리스마스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전투결과 제1차전투에서 아군은 적 172명을 사살하고 5명을 포획하였으며, 전사 22명, 부상 109명, 실종 21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제2차전투에서는 4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하였으며 전사 9명, 부상 9명의 손실을 입었다.⁴⁷⁾ 그러나 연대는 원래 목표로 한 포로획득에는 실패하였다.

이 무렵 포로를 획득하기 위해 중동부전선의 미 제2사단에 배속된 네덜란드 대대는 공산군 전초진지인 평강 남방 10km 별고지(430고지)를 공격하였으며, 미 제7사단에 배속된 콜롬비아 대대도 김화지구 적의 전초진지(400고지)를 기습하여 그들의 방어시설을 파괴하였다.⁴⁸⁾

(2) 1952年 春季作戰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은 4월 1일 제한된 진격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2개의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먼저 ‘츨 스틱(Chop Stick) 6’은 증강된 국군 1개 사단으로 미 제9군단 정면에서 평강까지 진격함으로써 현 제9군단 전선을 금성-평강선에서 정제한다는 것이고, ‘츨 스틱 16’은 국군 제1군단으로 하여금 남강하구(고성)까지 진격케 함으로써 그 당면의 전선을 남강선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2개의 제한된 공격계획은 다같이 강력한 항공 및 포병지원의 수반이 전제된 것이었으며 작전성과에는 부수적으로 훈련의 효과도 있는 것이었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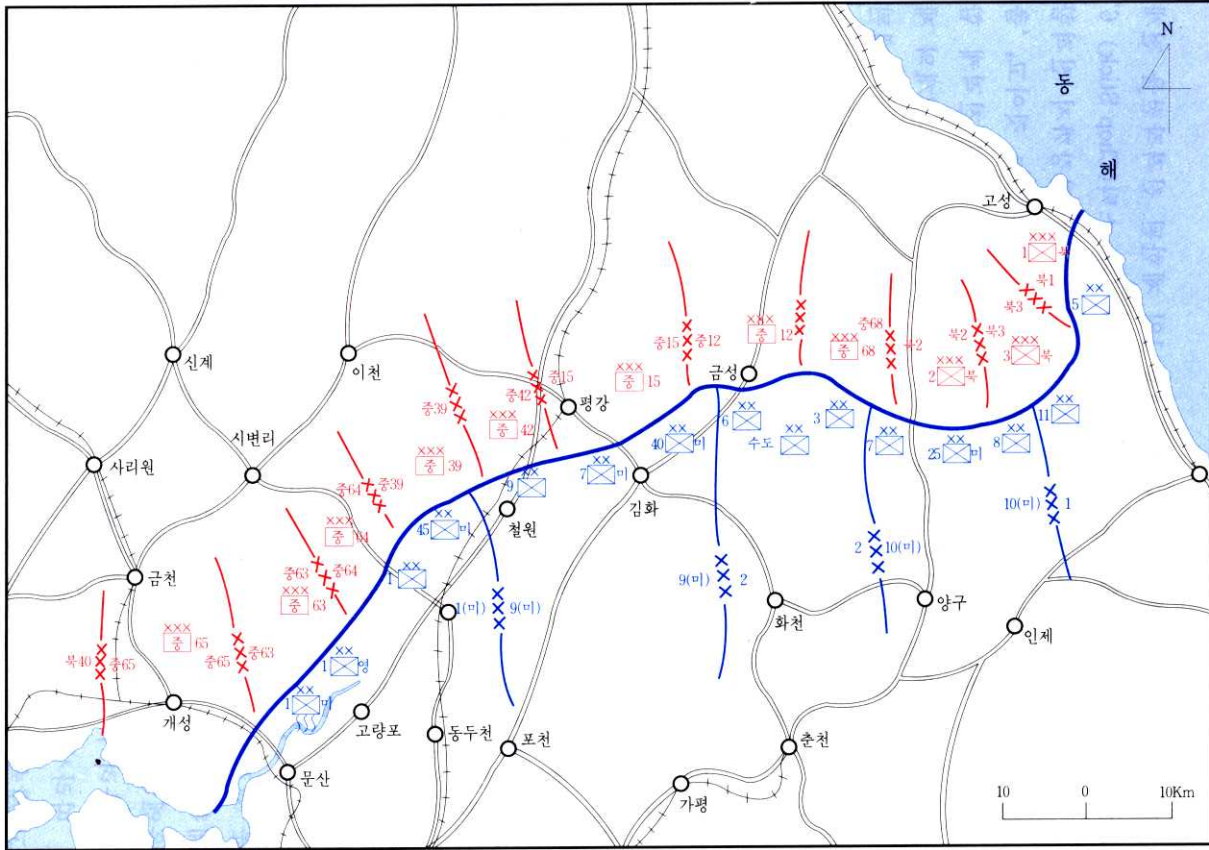
그러나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츨 스틱 6’은 목표선의 지형이 방어선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다만 ‘츨 스틱 16’은 미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승인하였다.

제한된 공격작전이지만 이 계획의 승인으로 전선에서는 일시 활기를 되찾는 듯하였으나, 이 작전은 4월 28일 그간 공전의 난황을 거듭하던 판문점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측이 이른바 ‘일팔타결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의 분위기를 저해할 작전은 피한다는 밴플리트 장군의 결정에 따라 29일 무기한 연기되었다.

일팔타결안이 제시된 뒤로도 4월, 5월 기간 동안 회담은 공전을 되풀이하고 있었으며 전선상황 역시 경미한 수색전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에 6월 10일 밴플리트 장군은 다시 ‘츨 스틱 6’의 계획과 유사한 공격계획인 “제9군단 정면에서 한국군으로 하여금 평강 북쪽의 새로운 진지선으로 진격케 함으로써 철의 삼각지대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휴전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성과에 비해 예상되는 손실이 크다는 것이었다.⁵⁰⁾

따라서 1952년 봄의 전선상황도 여전히 대규모 공격작전을 보류하고 계속 정찰과 기습을 통하여 적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⁵¹⁾ 이리

1952년 4월 전선 상황



하여 대전상태는 1951년 말과 비슷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쌍방의 방어진지는 더욱 굳어져 있었으며, 다만 아군의 경계선 및 주저항선의 요부에서 소규모 공방이 전투 초점이 될 뿐이었다. 이 기간 동안 실시된 대표적인 전초진지 전투는 다음과 같다.

1) 泗川江 부근 戰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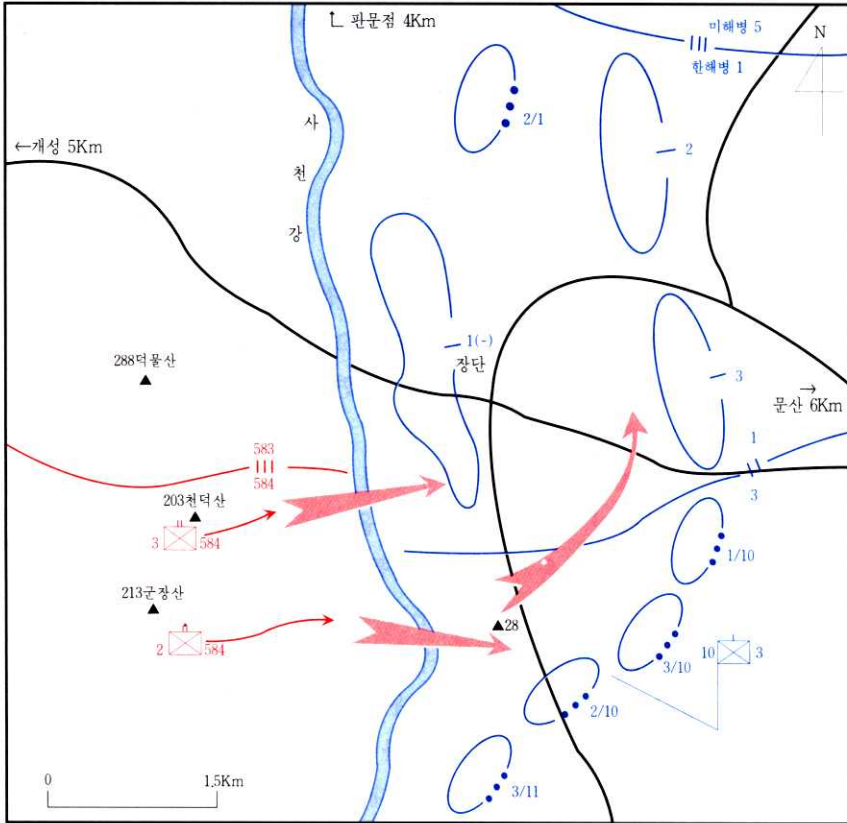
1952년에 접어들어 국군과 유엔군은 휴전회담의 진전에 따라 수도 서울의 방위에 역점을 둔 군사적 보완책으로 전 전선에 걸쳐 부대를 재배치하는 한편 부대의 인원, 장비의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중동부전선 편치불 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 해병제1연대는 미 해병제1사단과 함께 3월 17일 서부전선으로 이동하여 임진강-사천 및 한강하류와 서해안 일원의 주저항선을 인수하여 서울로 이르는 적의 주접근로인 개성-서울가도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해병제1연대는 국군 제15연대로부터 사천강 이동의 진지를 인수하여 제3대대를 좌전방, 제1대대를 우전방, 제2대대를 예비로 하여 좌인접 미 제1장갑수륙 양용차대대와 우인접 미 해병제5연대와 연계하였다. 연대 지역은 백연리의 155고지를 정점으로 하여 사천강을 따라 소능선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외에는 대부분 개활지로서 적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연대는 진지를 인수한 후 적의 기습에 대비하여 야간정찰과 진지 보강작업에 주력하였다.

이때 연대와 대치한 적은 중공 제65군 제195사단으로 예하 제584연대가 우전방, 제583연대가 좌전방, 그리고 제585연대가 예비대로 각각 사천강 서쪽의 덕물산-천산산-군장산 등 전술상 양호한 고지군을 점유하여 강 동쪽 아군의 전초진지와 주저항선 일대의 개활지를 감제하고 있었다.

지형은 대체로 황격실을 이루고 있어 적의 방어에 유리할 뿐 아니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진지

사천강 부근 전초진지전



와 화력을 보강하고 모든 진지는 거점화되었다.

부대교대 후 포격과 더불어 야간기습을 감행하던 적은 4월 1일 22:00 일제히 포문을 열고 2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대대 전투지경선 부근에서 사천강을 건너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적의 포격은 비교적 정확하여 진지의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연대지휘소마저 위협하였다.⁵²⁾ 곧이어 적 1개 중대가 제1대대 전초중대인 제1중대의 좌측방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제1중대는 155mm 야포의 지원하에 중대의 전 화력을 집중하여 좌측

후방으로 침투한 적을 격퇴하였다. 한편 주저항선의 제3중대 전방에서도 22:40 지뢰의 폭발로 적의 침투가 폭로되면서 치열한 총격전이 전개되었다. 대대장은 화력을 제3중대지역으로 전환하면서 일부병력으로 주요 후방침투로를 차단하였다.

한편 이 무렵 제3대대 지역에서도 제10중대가 적의 선두부대와 교전을 벌이면서 매복조가 철수하자 곧이어 제2소대 지역과 본부지역으로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제1, 제3소대는 적의 후속부대를 차단하기 위해 화망을 구성하고 있었으나 적의 주력은 24:00 이미 제2소대와 중대본부 전면으로 진입하였다. 중대는 밀려드는 적을 향해 사격을 집중하면서 2시간여에 걸친 일진일퇴의 혈전을 전개하였으나, 아군의 포진지가 파괴되고 시간이 갈수록 밀리게 되어 일단 87고지 후방능선으로 철수하였다.⁵³⁾ 이때 대기중이던 연대 예비 제2대대가 증원차 출동하였다.

적의 기습으로 제1, 제10중대 진지일각이 적중에 들어가자 곧바로 연대장은 주저항선을 회복하기 위해 예비제2대대에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제2대대가 공격개시선에 도달할 무렵 이미 상황은 상당히 변화되고 있었다.⁵⁴⁾ 즉 이미 제1, 제3대대에 의한 역습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양 대대는 주저항선 전방에 있는 적의 예상 퇴로와 사천강 연안에 포격을 집중하고 곧이어 제1, 제10중대가 돌격을 감행하여 적을 일거에 격퇴하였다. 적은 예상치 못한 역습을 받아 우왕좌왕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어 양개 중대는 좌우측방으로 분산된 적을 소탕하기 시작하였고 주저항선과 전초진지를 회복하였다.

적은 이번 작전에서 많은 손실을 입어 이후 정찰 및 기습활동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반면 연대는 여세를 몰아 몇 차례 적의 전초진지를 공격하여 많은 전과를 달성하였다. 4월 5일 야간 제10중대 2개 소대가 치밀한 포지원 계획하에 적 전초진지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적 12명을 사살하고 적진에 큰 타격을 주는 등 전초진지상의 확고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⁵⁵⁾

이후에도 피아간에 전초진지 기습전은 반복되었으며, 5월 18일에는 미 제45사단에 배속된 필리핀 제19대대전투단도 연천 북방 아스널·이리고지상에서 연대규모의 중공군의 공격을 백병전으로 맞서 고지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였다.⁵⁶⁾

2) 575高地 戰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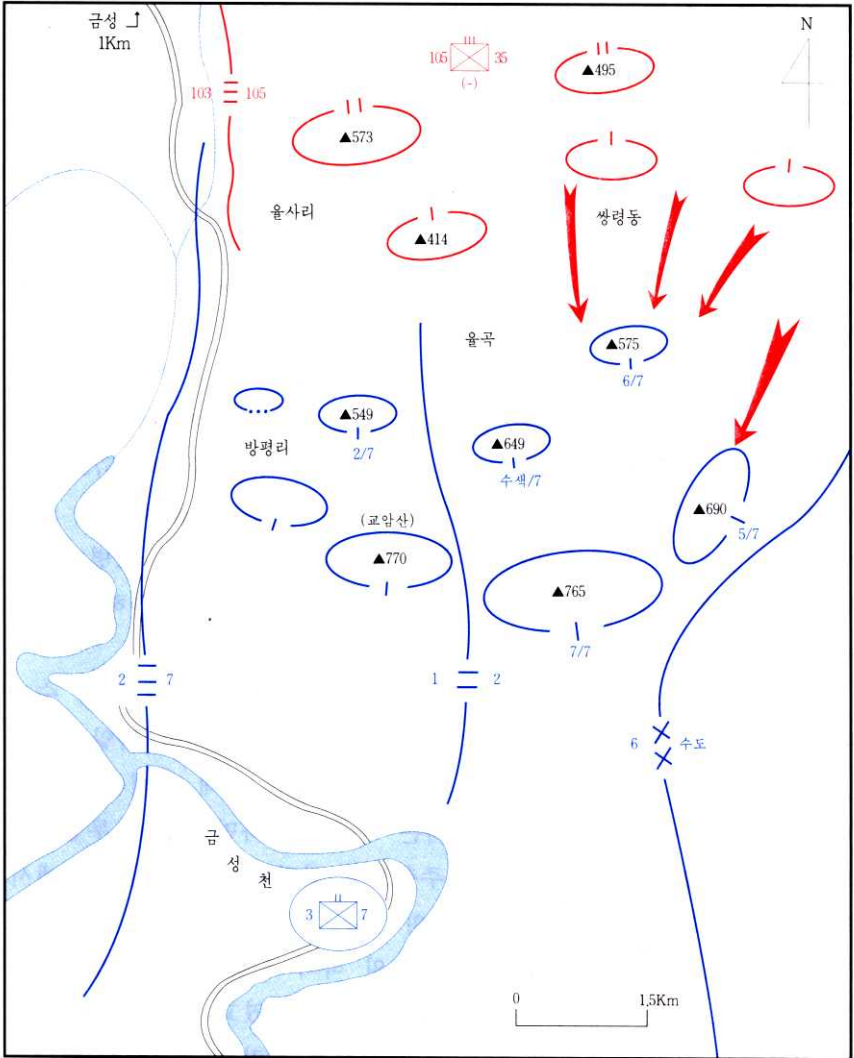
이 전투는 제6사단이, 사천강 전투와 비슷한 시기에, 중동부전선에서 치른 전초전투였다. 제6사단은 1952년 3월 28일 제2, 제7연대를 좌우 전방으로 하여 미 제40사단이 방어하던 금성천 북방의 봉화산(477)－사천리－계암－442고지－교암산(770)－765고지－690고지를 연한 미조리선상의 주저항선을 인수하고 제19연대는 예비로 죽동에 확보, 전선을 방어하였다.

사단은 제2군단의 좌익으로서 좌로는 미 제9군단 예하의 미 제40사단, 우로는 수도사단과 연결을 유지하고 적의 공격기도를 사전에 분쇄, 주저항선을 방어하기 위하여 전초진지를 강화하고 수색과 매복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사단장 백인엽 소장은 주진지를 보강하고 제7연대 정면 575고지를 비롯한 전초진지를 강화하여 접적을 계속 유지하도록 강조하였다.

사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12군 예하 제31사단 일부와 제35사단 일부로서 병력은 6,000명이며 제32포병사단 제406포병연대의 직접지원을 받고 있었다. 적은 방어에 역점을 두면서 전초진지에 대한 국지적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 판단되었는데 그 경우 575고지로 지향될 것이라 추단되었다. 575고지는 주저항선인 765고지－690고지에서 북으로 돌출된 요충으로서 울사리－쌍령동 일대를 감제하여 적의 수색활동을 제어하고 정확한 포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4월 16일 아침부터 계속된 적의 교란사격은 저녁 무렵부터 제6중대가 점령하고 있는 575고지로 일제히 집중되었다. 575고지 일대는

575고지 전투



삼시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분초에서는 2개 중대규모의 적이 울곡 부근의 개활지를 횡단하여 분진 접근증임을 관측하였다. 적은 690고지-649고지를 견제공격하여 증원을 차단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575고지를 탈취하고자 기도하는 것이었다.

제7연대장은 즉각 제27포병대대와 미 제300포병대대에 포병제압사격과 차단사격을 요청하였으며, 제2대대장은 제8중대 81mm 박격포와 배속중인 4.2"박격포 사격을 575고지 일대로 집중하면서 제5중대와 연대 수색중대에 575고지에 대한 측방엄호와 증원대세를 갖출 것을 명령하였다.

제6중대는 야간수색과 매복차 출동 대기중인 각 소대를 전투배치하였다. 적의 집요한 포격은 산병호와 교통호를 파괴하였다. 이때 일제히 포문을 연 아군 105mm 야포는 울곡 부근의 개활지와 575 북사면과 계곡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다. 19:50 집중포격을 헤치고 쇄도한 적은 포위와 돌파의 양면작전을 기도하였다. 중대는 포병대대의 탄막사격하에 지뢰를 계속 폭파시키고 최후 저지사격을 가하면서 적을 격퇴하였다.

정면으로 쇄도한 적 주력은 그 일부가 우회하여 우인접 연대 수색중대의 증원을 차단하는 가운데 북쪽 능선으로 침투하여 좌일선 제1소대 진지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이에 제1소대는 연대 수색중대의 측방 지원사격하에 서남쪽으로 우회하는 적을 견제하면서 57mm 무반동총과 2.36"로켓포 그리고 기관총을 주축으로 화력을 집중하여 진전에서 적을 격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적의 일부가 북쪽 능선으로 쇄도하면서 수류탄을 투척하였고 1개 분대규모의 적이 진내로 침투하였다. 소대는 백병전의 전개와 동시에 전 화력을 집중하였고, 결국 적은 노출된 지형에서 화망에 휩싸여 20여 구의 시체를 유기한 채 퇴각하였다.

잠시 후 적은 다시 직사포와 박격포,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면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27포병대대는 다시 진내사격을 방불케 하는 탄막사격을 개시하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자정 무렵 적의 일

부가 진전으로 쇄도하면서 처절한 근접전이 전개되었다. 적은 직사포와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였고 서북쪽 능선으로 일단의 적이 또다시 쇄도하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진내로 침투하였다. 제1소대는 수류탄을 투척하고 끝이어 치열한 혈전을 거듭하였다. 결국 소대는 적을 격퇴하고 돌파된 진지를 회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두지휘하던 제1소대장이 적탄에 맞아 호국의 신으로 산화하였다.

적은 또다시 서북쪽과 동북쪽 능선으로부터 일제히 공격을 재개하였다. 중대장은 정상을 중심으로 사주방어로 전환한 다음 가용화력을 적진에 집중하였다. 증강된 2개 중대규모의 적은 삼면을 포위한 채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진전으로 육박하였다. 중대장의 진두지휘하에 사격전을 전개하고 수류탄을 투척하여 접근하는 적을 총검으로 저지하는 혈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중대장(金致永 중위)이 총탄에 맞아 복부관통상을 입었으나 계속하여 병사들을 독전하였다. 중대는 혼연일체가 되어 마침내 적의 파상공격을 격퇴하였으며 날이 밝을 무렵 적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중대가 진지를 보장하면서 재편성에 착수하고 있을 때 대대장으로부터 여세를 몰아 반격으로 진지를 회복하라는 명령이 접수되었다. 중대장 대리는 포병 지원사격을 서북능선 쪽으로 유도한 다음 제2, 제3소대로 반격에 나섰다. 서북능선으로 돌진할 무렵 적의 역습을 받아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적진에 수류탄을 투척하던 제2소대장이 장렬하게 산화하였다. 협소한 능선상에서 적탄에 휩싸인 중대는 적진지를 탈취하지 못하고 부득이 제1소대가 확보한 정상부근의 진지로 철수하였다.

제6중대는 15시간에 걸친 격전을 통하여 극도의 피로와 속출하는 사상자를 내면서 용전분투하여 적을 진전에서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중대는 이 전투에서 적 100여 명을 사살하여 진지를 고수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소대장 2명을 포함한 24명의 전사자와 74명의 부상자를 내었다.⁵⁷⁾

3) 662高地 戰鬪

이 전투는 1952년 초에 중동부전선 949고지 전방에서 제3사단이 클램 업(Clam Up) 작전개념에 따라 작전중 대치한 중공군과 치른 전초진지 전투였다.

제3사단(백남권 준장)은 1952년 1월 12일부터 국군 제6사단의 작전 임무를 인수, 미 제9군단의 우익으로서 개리(Gary)선상의 949고지를 중심으로 북한강으로부터 석장리 간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전선을 방어하였다. 제23연대는 사단 중앙일선으로서 949고지-739고지를 연한 주저항선을 확보하였으며, 제3대대 제9, 제10중대로써 사단 전투지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로상의 무명고지(550)와 662고지에 전초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당면의 적은 중공 제12군 제35사단 제104연대와 제68군 제203사단 제607, 제609연대로써 좌패리-북한강 돌출부-679고지-674고지-송정-암리를 연하는 일대에 거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연대(李寬植 대령)는 적을 유인하여 타격을 주고 포로를 획득한다는 작전방침에 따라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0일 04:00 제9중대는 완전철수를 가장하면서 연대 수색중대 및 제10중대에 662고지-무명고지의 전초진지를 인계하였다. 전초진지상의 양 중대는 철저한 침묵과 위장으로 적의 정찰대를 유인하였으나 별 징후가 없다가 14일 야간 적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2월 15일 01:50 적 1개 소대규모가 수색중대 우측 제2소대 정면으로 접근하였다. 소대는 적을 지근거리까지 유인한 다음 지뢰를 폭발시키면서 일제사격을 가하였다. 적은 순식간에 대열이 흩어지고 분산도주하였다. 소대는 추격전을 전개하려 하였으나 이때 고지 서북까지 우회침투한 2개 중대규모 적의 일제사격을 받아 실패하였다.

02:25 적은 고지로 포격을 집중하면서 일제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포격으로 진지가 파괴되거나 노출되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

다. 포격간에 계속 침투한 1개 소대규모의 적은 제10중대와 간격을 뚫고 수색중대의 좌측방을 위협하였으며 또 증강된 2개 소대규모의 적이 정면으로 침투하면서 돌파를 시도하였고 또다른 2개 소대의 적이 동북능선으로 침투하여 수색중대 제2소대를 협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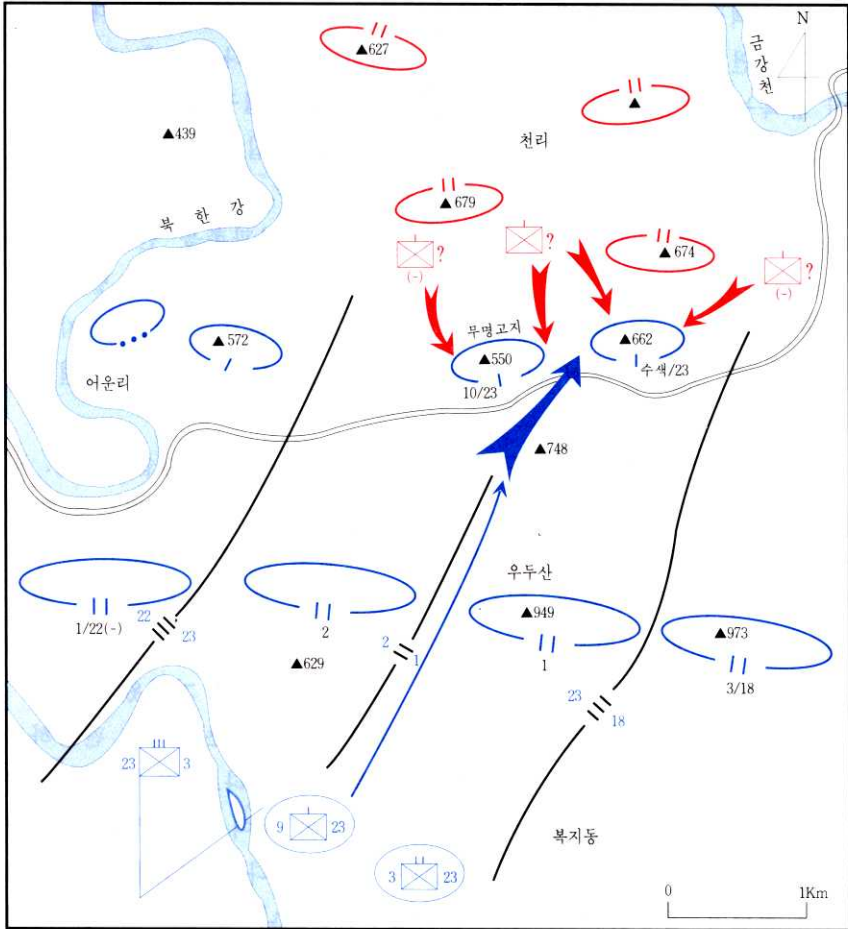
03:25 삼면으로 공격을 받은 중대는 사격을 집중하여 적의 강습을 저지하였으나 제2소대 진지가 위기에 처하였다. 소대장은 기관총사수와 부사수가 전사하자 기관총 진지로 달려가 기관총을 난사하였으나 후속하는 적의 수류탄 공격을 받아 결국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⁵⁸⁾ 산병호 일각이 무너진 소대는 수류탄전과 육박전으로 적을 저지하였으나 중대 정면을 공격하던 적의 일부가 소대의 우측배를 위협하여 불가불 철수하게 되었다.

적은 서측방을 차단한 가운데 그 주력이 동쪽으로 강습하였다. 병력면에서 절대 열세한 중대는 사방에서 밀려드는 적의 공격으로 인해 05:30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제10중대의 엄호사격하에 748고지 일대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적의 정찰대를 유인하여 포로를 획득하고자 한 이번 작전은 예상을 뒤엎은 적의 공격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요 전초진지인 662고지를 적중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제10중대는 662고지 서남쪽 무명고지에 전초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는데 01:50에 서북능선을 타고 적 1개 분대가 진전으로 접근하였다. 곧이어 2개 소대규모의 적이 중대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중대는 적을 진전 50m까지 유인한 다음 지뢰를 폭발시키면서 화력을 집중하였다. 적은 분산도주하였으나 얼마후 박격포 지원사격하에 일부를 우회시켜 좌측배를 위협하였다. 적은 중대를 삼면으로 포위한 채 산발적인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적의 동향은 중대를 포위 견제하는 가운데 수색중대의 662고지를 탈취하려 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중대장은 예비 제2소대에 우측방으로 침투한 적을 역습하도록 명령하였다. 소대는 일제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삼면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일진일퇴의 격

662고지 전투



전만을 전개하였다.

한편, 연대장은 수색중대의 662고지의 피탈을 보고받고 제3대대에 고지탈환을 명령하였다. 제3대대 제9중대가 고지탈환 임무를 부여받고 공격에 나섰다. 09:30 제9중대는 제10중대 진지 부근으로 진출한 다음 14:00 제10중대의 엄호사격하에 일제공격을 개시하였다. 중대는

제1소대를 동쪽으로 우회시키고 주력은 무명고지 동북능선을 따라 662고지로 돌진하였다.

적은 57mm 직사포와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저항하였으나, 제11포병 대대의 집중사격으로 진지가 제압되었다. 중대는 즉시 돌격하여 수류탄을 투척하고 백병전을 전개하여 마침내 17:05 고지를 장악하였다. 중대는 진지를 재편성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제23연대는 고지에 대한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공병 1개 중대의 지원하에 3중의 철조망과 500여 개의 지뢰를 매설하였다. 이후 적은 이 전초진지 탈취기도를 단념하였는지 소극적인 정찰전으로 전환하였다.⁵⁹⁾

이와 같이 1951년 동계와 1952년 춘계 전초진지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의 형태로 돌아간 듯하였다. 정적인 상황, 철조망 및 복잡한 교통호로 둘러싸인 중심방어, 기관총의 위력, 포병 및 박격포 사격에 중점을 둔 점, 계속적인 정찰 및 기습 등은 모두 제1차 세계대전의 전선상황과 흡사하였다.

물론 다른 점도 많았다. 예로써 항공기 발달, 독가스 사용의 금지, 디디티 발명으로 전염병이 줄어든 점 등의 차이가 있었다.⁶⁰⁾ 또다른 중요한 차이는 쌍방의 군사력이 완전히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진지전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쌍방 모두가 군사적 이유보다는 전쟁을 협상을 통하여 종결지으려는 동기에 의하여 당시에 형성된 전선을 초월한 과감한 진격을 자제함으로써 스스로 진지전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한편, 전투원들에게 진지전은 기동전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평소에 훈련은 기동전 위주로 실시하였으므로 생소한 진지전에 대하여 적응이 잘 안되었다. 심리적으로도 야전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진지에 앉아 있을 때 더 불안해지고 더 피로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진지전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진지 내에 앉아서 총격 내지 포격전만을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틈이

날 때마다 진지를 강화하고 전방지역에 대하여 수색정찰을 실시하고 적의 심상찰은 움직임에 대하여는 제한적 기동공격 또는 포격을 실시하였다.⁶¹⁾

유엔군은 진지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병력을 수시로 교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1951년 후반부터 유엔군은 병사들에게 전방근무 9개월, 후방근무 18개월의 복무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완료되면 다른 병력과 교대하도록 조치하였다.⁶²⁾

전체적으로 볼 때 1951년 11~1952년 4월까지의 지상전에는 약간의 기습작전이 전개되었으나, 쌍방이 점령하고 있는 방어진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공산군은 진지에 박혀 있다가 주로 야간에 작전을 전개하는 반면, 유엔군은 주로 주간에 활동하였으며 지상에 대한 압력이 시들어감에 따라 점차 공중전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⁶³⁾

전쟁이 정적인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자 사상자의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유엔군사령부가 추정 한 적의 사상자는 1951년 10월에 8만 명, 11월에 5만 명, 12월과 1952년 1월에 2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후로 4월 말까지 매달 1만 1천 내지 1만 3천 명으로 줄었다. 반면 유엔군의 손실도 10월에 2만 명, 11월에 1만 1천 명, 12월과 1월에 각각 3천 명으로 감소되었으며 2월부터 4월까지 매월 2천5백명 선 이하에 머물렀다.⁶⁴⁾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 전초진지전에서의 주도권은 아군측에 있었으나, 진지전의 장기화 추세는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협상에서도 아군측에 유리할 수 없었다.⁶⁵⁾

4. 共匪討伐作戰

(1) 後方地域 共匪 活動

1951년 말 아군의 후방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비들은 국군과

유엔군의 총반격 이후 퇴로가 차단당한 인민군 패잔병이 호남·영남 지역의 지방공비들과 합류함으로써 점차 전투력을 재정비하고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전투근무지원 시설을 위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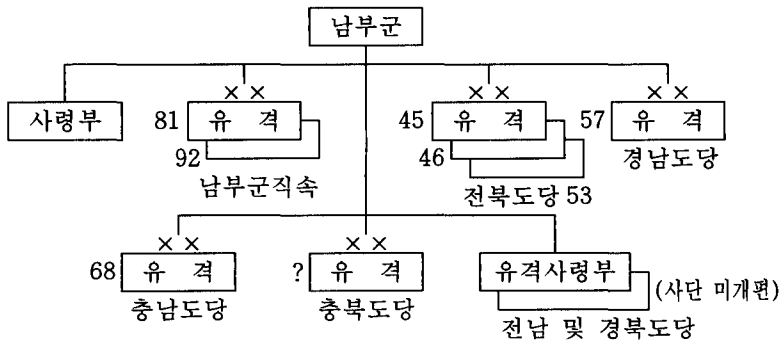
이들 공비들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실시한 국군 3개 사단(제11사단, 제8사단, 제2사단)의 토벌작전으로 대부분 격멸되었으나, 산악지대로 분산 도주한 일부 공비들은 재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⁶⁶⁾

육군본부는 호남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던 공비의 수를 총 4,000명 정도로 판단하였다. 그중 핵심적이고 전열이 정비된 부대는 남부군 원래의 직속부대인 제81사단, 제92사단과 경남도당 사단인 제57사단, 그리고 전북도당 사단들이었다. 이들은 여·순반란군 출신 중 생존해 있던 인원과 북한군 전투부대의 낙오병들로 구성되었다.⁶⁷⁾

공비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덕운산·회문산·속리산·불갑산·백아산·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두고 호남지구 각처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로 차단, 식량약탈, 지서습격, 차량기습, 통신망 절단, 살인, 방화와 같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들은 집단으로 소도시와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총락을 일정기간 점령하여 식량을 약탈하며 양민을 납치하는 등 대담한 행동을 서슴없

남부군 편성표



이 자행하다가 급기야는 철도 파괴, 군용열차 습격, 무기와 보급품의 약탈 등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리산 부근의 운봉·곡성·하동 등지에 출몰하여 여러가지 행동으로 양민들을 위협하는 한편, 남원-구례-순천에 이르는 전라선 철도를 파괴하고 군용열차를 습격하여 무기와 보급품을 약탈하는 등 아군 후방지역을 극도로 교란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군사작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민심의 동요와 국민사기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다.⁶⁸⁾

(2) 討伐作戰

육군본부는 후방지역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호남지역에서 준동하는 공비를 섬멸할 목적으로 2개 사단으로 공비토벌을 위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판단에서 유엔군측과 한국정부 간의 의견이 일치되어 결정된 것이었다.

첫째, 전선에서의 쌍방의 대진으로 인하여 동계기간 아군이 공세를 취하지 않는 한 전황의 큰 변동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전선에 투입된 병력 중에서 2개 사단규모는 차출이 가능하다. 둘째, 산속에 거점을 둔 공비토벌에 가장 유리한 시기는 낙엽기이다. 셋째, 국군의 재편성과 실전경험을 쌓기 위한 훈련을 겸하여 후방지역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⁶⁹⁾

이리하여 1951년 11월 25일 백야전전투사령부(이하 백야사)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사령관에 국군 제1군단장 백선엽(白善燦) 소장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수도사단, 제8사단, 서남지구전투사령부 및 경찰부대가 배속되었다.⁷⁰⁾ 백야사는 전주로 이동하여 11월 26일부로 서남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金容培 준장)으로부터 서남지구 공비토벌 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서남지구전투사령부와 배속된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⁷¹⁾ 육본은 백야사의 설치에 따라 수도사단(宋堯讚 준장)과 제8사단(崔榮禧 준장)을 속초와 춘천에서 호남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작전계획 제26호(1951. 11. 16)를 하달하였다.⁷²⁾ 이에 따라 백야사는 양개 사단의 6개 연대를 기동타격대로,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된 경비부대와 예비연대 그리고 경찰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⁷³⁾

1. 백야전전투사령부

가.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다음 4개 단계로 구분하여 작전을 수행하라.

- (1) 제1기 작전 : 공비들의 강력한 거점인 지리산지구에 전 부대로 공격을 감행하라. 작전완료 일정은 12월 10일로 예정한다.
- (2) 제2기 작전 : 2개 지역에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여 일부 부대는 전북지역의 강력한 공비거점에, 다른 일부 부대는 경남지역내 공비거점에 각각 투입하라. 작전완료 일정은 12월 30일로 예정한다.
- (3) 제3기 작전 : 제1·제2기 작전지역에 대한 재수색으로 잔적을 격멸하라. 작전의 완료 일정은 1월 10일로 예정한다.
- (4) 제4기 작전 : 일부 부대로 하여금 공비가 침투한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공비를 격멸하도록 조치하라.

나. 각 부대는 항시 어떤 지역에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의명 전방지역으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2. 서남지구전투사령관은 현 담당지구의 작전지휘권을 백야전전투사령관에게 인계하고 그의 지휘하에 들어가라.

3.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

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풍기-상주, 충주-상주 선을 차단하라.

나. 의명 24시간내에 백야전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4. 치안국장

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충주-대전-전주 선과 천안-강경 선을 차단하라.

나. 의명 24시간내 백야전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5. 협조지시

가. 작전은 엄격한 통제하에 기동타격부대와 저지부대 그리고 거점수비대로 구분 실시하되, 기동타격부대는 주력을 포착 격멸하는데 사용하고, 저지부대는 충분한 중심을 두고 배치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 저지하면서 기동타격부대를 지원하라.

나. 각 지구 공비의 거점이 괴멸되면 기동타격부대는 분산된 잔적을 격멸하기 위하여 기동력을 활용, 타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할 준비를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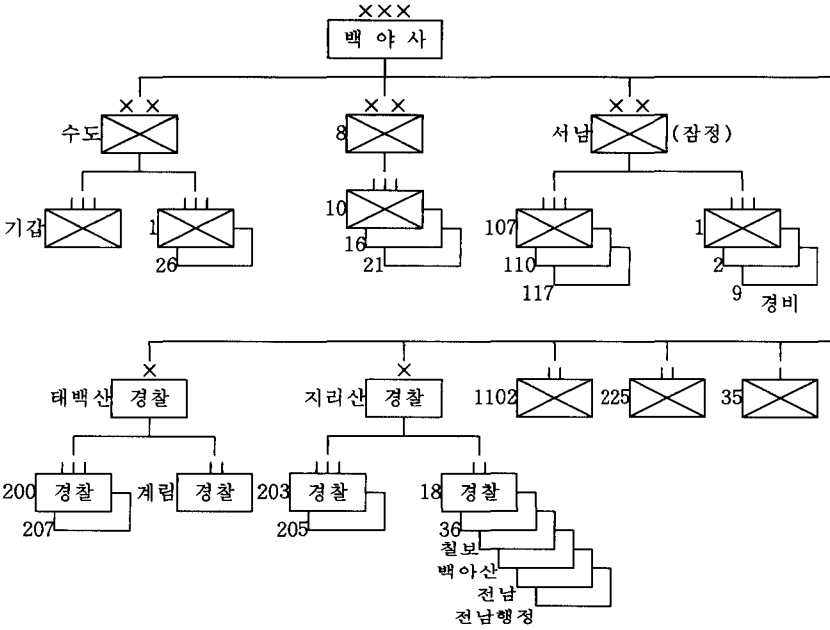
다. 각 단계별 작전에 있어서 저지부대는 기동타격대를 신속히 후속하여 공비의 재편성을 방지하라.

백야사는 육군본부의 작전계획에 따라 양개 사단의 6개 연대를 기동타격대로,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된 경비부대와 예비연대 그리고 경찰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정부는 12월 1일 서남지방에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공비토벌작전을 위한 일단계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민간인의 이동을 통제하고 마을간의 전화교신을 차단하였다.

이리하여 12월 2일부터 백야사는 호남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전면 개시하였다.⁷⁴⁾

이 작전은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각 단계별 작전은 엄격한 통제하에 기동타격부대와 저지부대 그리고 거점수비대로 구분 실

백야전전투사령부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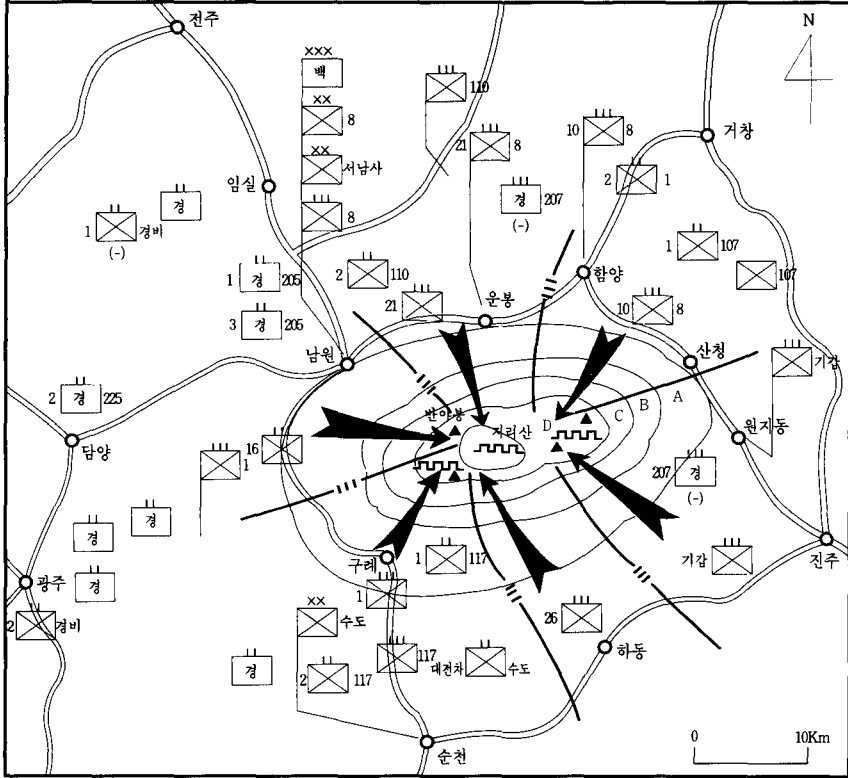
시되었다. 기동타격부대는 공비의 주력을 포착 섬멸하고, 저지부대는 충분한 중심을 두고 배치하여 공비의 퇴로를 차단 저지하면서 기동타격부대를 지원하는데 운용되었다.

1) 第 1 期 作戰(1951. 12. 2~14)

제1기 작전에서 백야사는 수도사단을 지리산 남쪽에, 제8사단을 지리산 북쪽에 각각 배치하여 지리산 지역을 크게 포위한 다음 이들 부대를 기동타격부대로, 그밖의 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하여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공비의 근거지를 일거에 분쇄하고 아울러 반복 수색으로 그 잔당을 색출하였다.

수도사단은 공격 첫날부터 제8사단과 협조하면서 포위망을 압축하

제1기 작전 상황



였다. 이의 일환으로 예하 3개 연대는 구곡산·내대리·984고지·형제봉·송정리·파도리를 잇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다음날 기갑연대는 공비의 은거지 색출에 주력하였으며, 제26연대는 목계리(청암면)－운수리(화개면)로 진격하다가 등촌리에서 공비를 추격하였다. 제1연대는 불당마을 동쪽에서 조우한 공비 300여 명과 교전하여 격멸하였다.

이어 4일과 5일 통제선 일대에 대한 전면공격이 전개되었다. 기갑연대는 거림－세석, 법계사－1398고지로 진출하였고 2일간의 전투에서 사살 34명, 생포 510명의 전과를 올렸다. 사단의 중앙에 배치된

제26연대는 산청 및 하동군계와 도계를 따라 수색작전을 전개하면서 대성리로 진출하는 동안 공비 72명을 사살하고 79명을 포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수도사단은 2일부터 6일까지 제1기 전반기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7일부터 후반기 작전으로 전환하였다. 후반기 작전은 사단 담당지역 일대에 대한 반복 수색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14일까지 계속되었다.

제8사단은 공격 첫날 천마산·650고지·734고지·덕주산·삼봉산·380고지·왕산을 연하는 통제선을 점령하였다. 배속된 제110예비연대(-)와 제107연대(-)는 사단 기동타격부대의 공격에 호응하여 공비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다음날 사단은 통제선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여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이어 6일까지 최종 목표인 벽소령, 1248고지, 1134고지, 1806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전반기 작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사단은 7일부터 후반기 작전으로 전환하여 분산 은거중인 공비를 탐색하기 위해 공격 역순으로 진출하면서 반복 수색을 계속하였다.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배속된 제203경찰연대(-)를 순천으로부터 화개장으로 진출시켜 저지진지를 점령하도록 하고, 잔여부대로 예상되는 공비의 준동에 대비하여 주요지역을 경비하고, 다른 한편 토벌부대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단을 살포하고 지상방송, 공중방송 등을 실시하였다.

제1기 작전 기간 중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종합 전과는 공비 사살 1,715명, 생포 1,710명, 귀순 132명, 소총 509정, 자동화기 86정, 수류탄 676발, 백미 769석, 벼 416가마에 달하였으며, 잔여공비들은 지리산 일대의 유리한 지형과 은거지를 버리고 토벌부대를 피해 분산 잠적하였다.⁷⁵⁾

2) 第 2 期 作戰(1951. 12. 16~52. 1. 4)

제2기 작전에서는 분산된 공비를 근거지별로 각개 격파하기로 결정하고, 거점을 포위 공격하는 전반기 작전(1951. 12. 19~28)과 공비

의 잔당을 수색 격멸하는 후반기 작전(1951. 12. 30~52. 1. 5)의 2개 단계로 구분하고, 수도사단과 제8사단 그리고 서남지구전투사령부로 하여금 지역별로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⁷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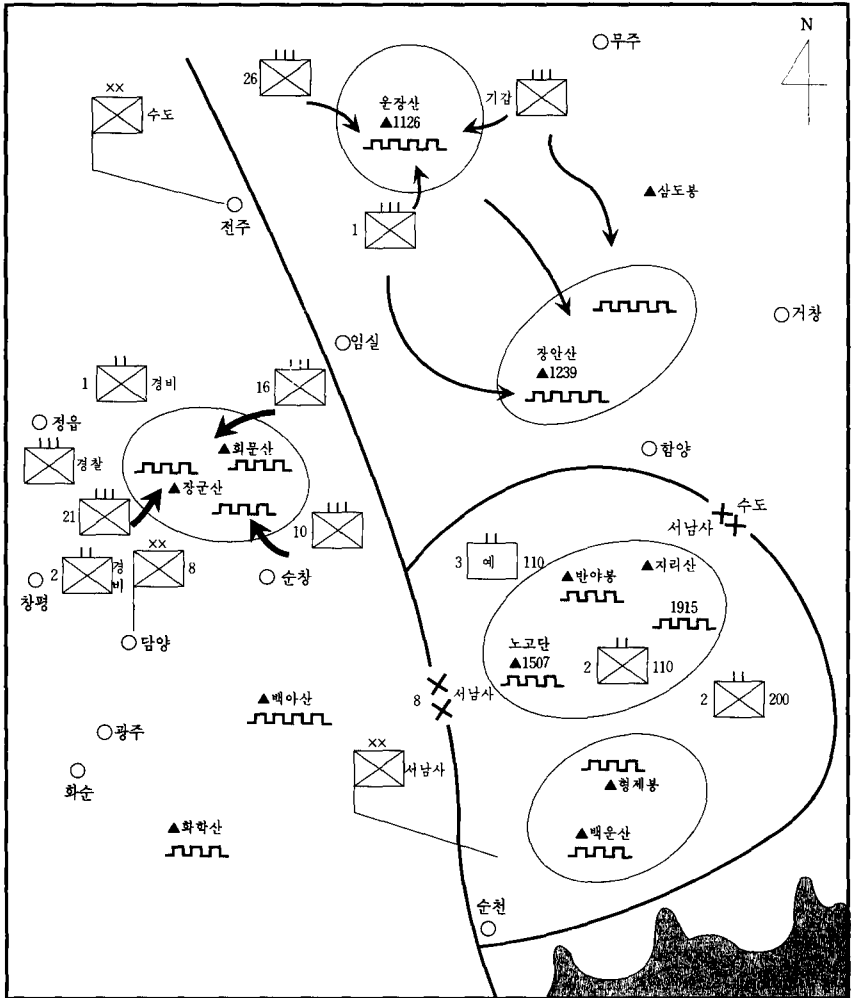
제2기 작전은 전주를 주목표로 하여 그 주변의 산악으로 공격을 변경하였다. 12월 19일부터 1월 4일에 이르기까지 국군 제8사단과 수도사단은 고지를 오르내리며 험한 지형 속에 숨어 있는 게릴라를 함정에 넣도록 모색하였다.

수도사단은 12월 15일부로 현지 작전임무를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인계하고 전주 북동 운장산으로 이동하였다. 사단은 19일 06:00 3개 연대로 포위망을 형성하였으나 공비들이 이미 운장산 주봉 쪽으로 잠적하였으므로 접전이 없는 가운데 62개의 근거지를 파괴하며 운장산 중턱까지 진출하였다. 다음날부터 일제공격을 재개하여 운장산 수색 작전을 전개하고 토벌부대는 도주하는 공비주력을 추격하여 격멸하였다. 일부의 공비가 다시 장안산 방면으로 도주하자 사단은 이 일대에 병력을 집중투입하여 28일까지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다시 후반기 작전을 재개한 사단은 일부의 공비가 삼도봉에서 새 근거지를 구축하려 하자 기갑연대를 무주에, 제1연대를 거창에, 그리고 제26연대를 함양에 각각 전개한 다음 삼면에서 일제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은 지역내 주봉을 수색하면서 공비의 주력을 포착하는 즉시 일격을 가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도주하는 잔당을 추격하여 황석산에서 격멸하였다.

제8사단은 노령산맥 남서 회문산·장군봉·신선봉·내장산 일대에 은거중인 공비를 격멸하기 위해 전술배치를 완료하였다. 사단은 19일 06:00 임실-순창 선에서 9개 대대가 각각 담당지역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 주력부대는 회문산 부근의 공비 은거지를 파괴하고 종성리, 금평, 자양리 선까지 진출하였다. 제10연대는 장군봉 일대와 산내면, 복흥면 일원에 대한 수색작전을 전개하고 공비의 주요 거점인 신선봉, 내장산, 백양산을 집중공격하였다.

제2기 작전 상황



사단은 12월 30일부터 다시 후반기 작전을 재개하였다. 사단은 회문산 일대에 은거한 공비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제10연대를 회문산에 잔류시키고 나머지 2개 연대와 배속부대로 백아산을 전면포위하였다. 지구별로 포위망을 형성하게 된 각 부대는 포위망을 압축하면

서 1월 3일까지 5일 동안 수색작전을 계속하였다.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지리산 일대에 재집결을 기도하던 공비들을 격멸하고 아울러 이들의 주요거점을 수색하였다. 서남지구사는 19일 제110예비연대 제3대대가 반야봉 동쪽 1585고지 일대에서 공비를 소탕하였으며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가 거림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0예비연대 제2대대는 거림 부근에 출현한 200여 명의 공비와 4시간의 교전을 치른 끝에 이들을 완전 소탕하였다. 서남지구사는 26일부터 천왕봉에서 약 200여 명의 공비를 포착하여 수도사단 제26연대와 합동으로 이를 격멸하였으며, 후반기 작전에서도 지리산지구에서 저지부대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따라서 백야사는 작전이 개시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공비 약 4천 명 이상을 사살하고 약 4천여 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달성하였다.⁷⁷⁾

3) 第 3 期 作戰(1952. 1. 4~1. 31)

호남지구의 공비들은 백야사가 펼친 대대적인 소탕작전으로 지휘체제가 와해되고 대부분의 근거지가 파괴되자 유격활동에 유리한 지리산지구로의 재집결을 기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백야사는 지리산·백운산·덕유산에 전투부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공비잔당을 격멸할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⁷⁸⁾

이에 수도사단은 사단 주력으로 지리산과 백운산을 차례로 포위 공격하는 한편 일부 부대로 하여금 장안산, 팔공산, 천황산 일대의 공비를 격멸하도록 하였다. 사단은 12일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지리산 중심지역인 삼정리, 천왕봉, 거림, 노고단, 반야봉을 잇는 선을 수색한 후 22일까지 지리산 중심지역 일대에서 반복수색을 전개하였다. 사단은 계속하여 24일부터 350여 명의 공비들이 집결하고 있는 백운산지구의 토벌작전을 개시하였다. 사단은 27일 목표에 도달하자마자 반복 정밀수색을 전개하여 공비를 소탕하였다. 사단은 제3기 작전 중

공비사살 1,867명, 포로 1,155명의 전과를 달성하였으며, 전사 68명, 부상 96명의 손실을 입었다.

제8사단은 회문산(제10연대), 신선봉(제16연대), 백야산(제21연대), 화학산(제107예비연대), 조계산(제205경찰연대)의 5개 지구에 병력을 전개하였다. 사단은 4일부터 일제 공격을 감행하여 8일까지 대대적으로 공비를 소탕하였으며, 1월 말까지 작전지역내 소탕작전을 계속하였다.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배속된 제9경비대대가 운장산 지구로부터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12일 대불산 일대의 공비를 소탕하였으며, 제203경찰연대가 덕유산을 포위한 후 이를 압축하면서 반복수색을 전개하였다. 또한 제18전투경찰대대는 무주·영동 간 보급로를 경비하면서 공비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따라서 백야사는 제3기 작전에서 공비들의 핵심지도자로 활동하던 자들을 대부분 사살하거나 포획하였다.

4) 第 4 期 作戰(1952. 2. 4~3. 14)

백야사는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271호(1952. 1. 20)에 따라 제8사단과 함께 전선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사령관 백선엽 중장(1952. 1. 12 진급)은 제4기 작전(1952. 2. 4~3. 14 : 별칭, Rat Killer작전)을 지휘하다가 제8사단이 2월 5일 전선으로 복귀하고, 백야사도 2월 6일부로 전선으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작전을 수도사단에 인계하였다.

수도사단은 최초 백야사가 계획한 대로 백야산·모후산·조계산 지구에 대한 소탕작전과 반복수색을 전개하였다. 제1연대는 조계산 북쪽에, 제26연대는 조계산 남쪽에 전개하여 4일 조계산으로 기습공격을 단행하였다. 양 연대는 협공으로 목표를 점령한 다음 7일까지 조계산 일대에서 반복수색을 계속하였다. 백야산에 배치된 경찰대대와 모후산에 배치된 전남 경찰대대는 공비의 탈출로를 차단한 가운데 소탕전을 전개하였다.

서남지구사는 덕유산·장안산·천황산 지역 일대에서 작전을 전개하

였으며, 지리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는 제205경찰연대가 주축이 되어 함양—순천 동쪽 지리산·백운산 지역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새로 창설된 경찰의 손 부대(손계천 총경)는 칠보·계림 양개 경찰대대로 전주·임실·남원·담양·정읍을 연하는 선에서 회문산 지역의 공비를 소탕하였다.⁷⁹⁾

이 작전이 종료되자 3월 14일부로 수도사단은 그 임무를 서남지구 전투사령관에게 인계하고 다시 전선으로 복귀함으로써 백야사가 기도했던 모든 임무는 완수되었다. 제1기에서 제4기까지의 작전기간 중 백야사의 전과는 사살·포로·투항 등을 포함하여 1만 6천여 명에 달하고 노획무기는 3천여 정을 상회하였다.⁸⁰⁾

이로써 육군은 1951년 11월 25일 백야사를 전주에 설치한 이래 12월 초순부터 그 이듬해 3월 14일까지 호남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한 결과 남부군을 비롯한 공비 주력을 격멸하였다. 백야사는 육군본부계획에 따라 수도사단에 작전임무를 인계한 후 춘천으로 이동, 미제9군단에 배속되었으며, 곧이어 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 1952년 4월 5일부로 제2군단으로 발족하여 예하에 수도, 제3, 제6사단을 두고 금성 방면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5. 後方地域 遮斷作戰

국군과 유엔군은 지상작전이 교착상태에 빠져 회담을 진전시키지 못하자 공군에게 현상 타개의 기대를 걸게 되었으며, 그것은 전선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런 추세였다. 제공·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해공군은 적을 계속 강타하고 교란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군은 동서해역을 철통같이 봉쇄하는 한편 전후방 시설에 대한 포격을 강화하였으며, 공군은 적 병참선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전선 전력증강을 최대한 방해하였다.⁸¹⁾

후방차단작전은 적 후방의 주요 보급시설과 교통망을 조직적으로 파괴하여 적의 전선부대를 고립시키고 휴전협상의 조기타결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차단작전은 공격지원보다는 오히려 적이 총공격을 하기 위하여 탄약과 보급물자를 저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예방조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방어작전이었다.⁸²⁾

1951년 8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실시한 스트랭글(Strangle : 교살)작전은 전방의 적 주력부대를 후방 보급원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의 대표적 차단 폭격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적의 주요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교량·제방·교차로·정거장·차량·열차 등을 목표로 하여 미 제5공군·해군항공대·해병항공대를 포함해 국군과 유엔 항공기가 합동으로 대대적 폭격을 실시하는 작전이었다.⁸³⁾

유엔 공군의 전폭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산군 항공기의 요격과 대공포화가 작렬하는 그들의 후방 깊숙히 진입하여 곳곳에 산재한 여러 비행장을 폭격함으로써 항공작전 수행을 마비시켰으며, 철도를 비롯하여 주요 보급로와 기동로에 대한 차단포격으로써 후방전력을 완전히 교란시켰다.⁸⁴⁾

전반적으로 전선교착 이후 유엔군 공군작전은 근접항공지원보다 전략적 차단포격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하였다. 그 예로써 1951년 11월부터 1952년 4월까지의 기간 중 월평균 출격횟수가 근접지원의 경우 1,200회였던 데 비하여 차단포격은 9,000회 이상에 이르렀던 사실에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⁸⁵⁾

1952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유엔 공군은 주요 철로에 대한 차단목표에 매 8시간마다 반복포격을 단행하여 노반까지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우수한 조종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공산군 항공기를 격퇴하고 동일목표에 집중포격을 가하는 차단작전을 계속하였다.⁸⁶⁾

동년 2월 공산군이 대공방어 대책을 마련하여 전선의 고사포를 철도업소에 전용하자, 유엔 공군은 먼저 제트 전투기로 고사포를 제압한 후 폭격기로 철도 등을 공격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⁸⁷⁾

그러나 이러한 차단작전은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효율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기후가 고르지 못한 봄이 되자 유엔 공군의 철도공격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결과적으로 공산군은 철도망을 정비할 시간을 얻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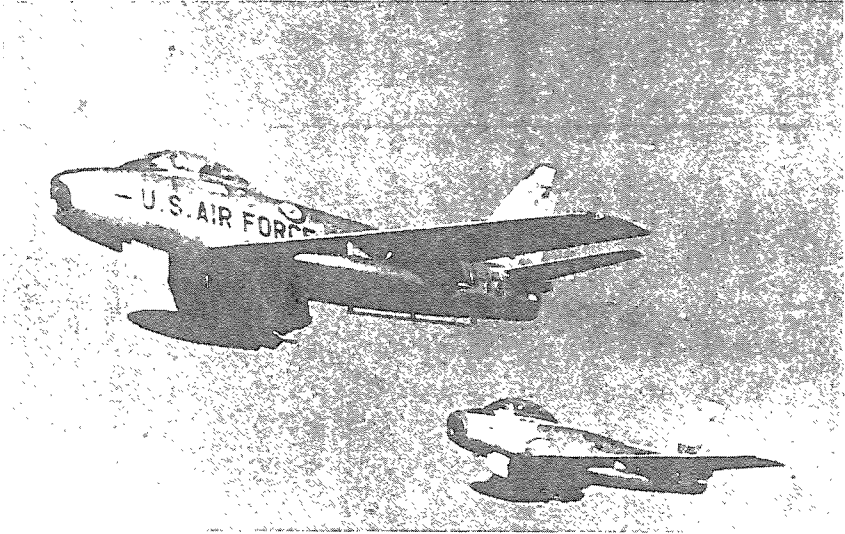
따라서 유엔 공군은 1952년 3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전술적 변경을 시도하여 해군전술에 기초한 세추레이트(Saturate : 집중폭격)작전으로 전환하였다. 이 작전은 일정한 철로 구간에다 24시간 동안 계속 공군의 파괴력을 집중시켜 적의 철로보급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그 예로써 유엔 공군은 3월 25일, 26일 양일간 정주와 신안주 사이의 철로에 대해 폭격을 집중하였으나 기대한 만큼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전폭기 307대, 전투기 161대, B-26 8대가 철로폭격에 운용되었으나 공산군은 파괴된 철로를 6일만에 수리하였던 것이다.⁸⁸⁾

세추레이트 전술에 의한 철로 공격에 있어 유엔 공군은 야간과 불량한 기상조건하에서도 폭격을 계속할 기술이 부족하여 효율성에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또한 동시에 여러 곳을 공격할 가용 항공기의 부족이라는 제한사항도 이 작전의 효율성에 문제로 제기되었다.

4월 말에 이르러서 차단작전은 큰 진전이 없었다. 이 무렵 적의 대공화망도 조직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유엔 공군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반면에 작전의 효과는 크게 감소되었다.⁸⁹⁾

한편, 적의 공군기도 점차 증가하여 차단작전중인 국군과 유엔 공군기를 공격하였다. 통상 60~80대의 MIG전투기가 수풍댐 근처를 편대 비행하다가 MIG회랑으로 진입하는 F-86전폭기를 일시에 대량으로 공격하는 전법을 구사하였다. 적의 공군은 1952년 1월까지의 주로 F-86전폭기 1대에 MIG-15전투기 8~9대가 동시에 공격하는 전술을 운용하였다. 특히 1951년 12월 F-86전폭기에 의해 31대의 MIG-15기가 격추되자 1952년 1월 하순부터 적극공세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에 적의 공군기는 통상 청천강 북방까지 고 고도와 저 고도로 남하하면서 일부는 차단비행중인 F-86전폭기에 도전하고 다른 대부분의 편



유엔 공군의 F-86과 공산 공군의 M-15

대는 폭격기에 공격을 가하였다. 도전횟수는 1952년 1월에 8회, 2월에 6회, 3월에 8회, 4월에 9회, 5월에 25회로 급증하고 있었다.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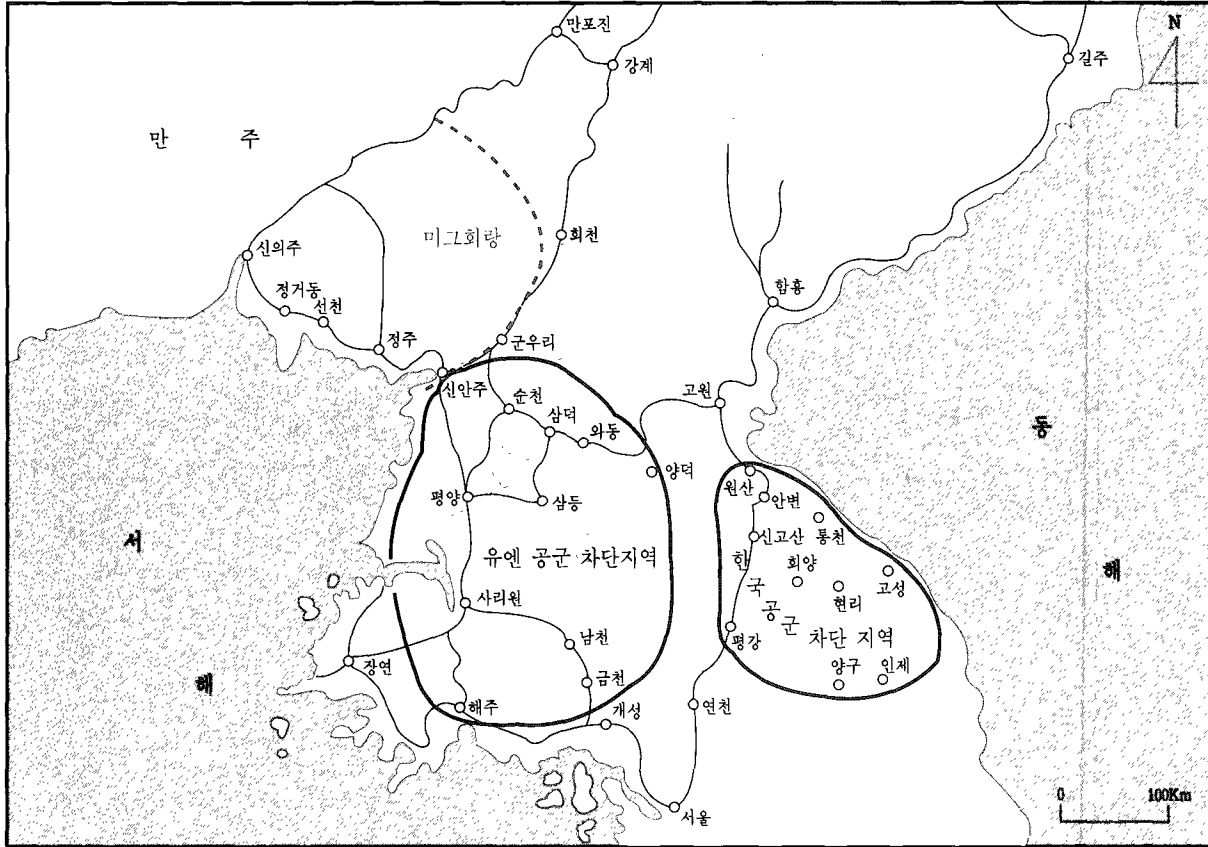
이 무렵 유엔 공군의 후방차단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공군도 눈부신 활약을 전개하였다. 강릉기지로 전진한 국군 공군은 1951년 12월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원산-황주 지구의 차단작전에 참가하였다. 이 작전에서 국군 공군은 매일같이 출격하여 주요 철로와 보급로를 비롯하여 공산군의 군사시설을 폭격하였다. 한국 공군은 1951. 12. 3~1952. 3. 26 기간 중 적 철도 327개소, 군용건물 405동, 포진지 105개소, 보급품집적소 123개소, 탄약고 3개소, 병커 94개소, 교량 15개소, 철로 6개소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F-51전폭기 3대가 추락하는 손실을 입었다.

특히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는 유엔 공군이 500회 이상의 출격으로도 차단하지 못한 평양 부근의 승호철교를 파괴함으로써 용맹을 떨쳤다. 1952년 1월 15일 강릉기지를 이륙한 F-51전폭기 2개편대 6대가 적 지상포화가 작렬하는 가운데 초 저고도 침투공격전술을 사용하여 승호철교의 2개 경간을 폭파하는데 성공하였다.⁹¹⁾

한편, 해군 함정도 공군의 차단작전을 지원하여 적지에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해군은 비행할 수 없는 악천후 기간을 선택하여 적의 연안 철도에 구축함 5인치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함포사격으로 철도를 완전히 절단할 수는 없었으나 계속적인 요란사격으로서 적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순양함 세인트 파울(St. Paul)과 3척의 구축함은 수시로 청진 일대에 8인치와 5인치 함포를 사격하였다. 이 함포는 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차단작전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⁹²⁾

대부분의 해군 함재기들도 차단폭격에 참여하였다. 제트기의 철도 파괴 능력은 탁월하여 종전 같으면 하루에 복구 가능했던 것을 같은 공격으로 3일 이상 복구해야 하는 파괴효과를 거두었다. 1월 중 에섹스(Essex)호 등 3척의 항공모함은 철도공격에 전념하여 길이 1,500~5,000m의 지역에 집중포격을 가했다. 이것은 공군에서 실시한 것과

후방지역 차단작전



제 1 권 積極防禦 戰略과 軍事作戰의 小 康 279

같은 점목표 정밀폭격이 아니라 중요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밀유단폭격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 전체가 파괴되고 어떤 곳은 10일간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지상의 제한목표가 그러한 것처럼 어느 한 지점만을 공격했을 경우에는 상대방도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정면이 확대되었을 때는 대응수단이 궁해지는 것이다.⁹³⁾

후방지역 차단작전이 작전상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지만, 적의 장비 및 보급품 수송을 전연 불가능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공산군 차량은 야간에 차단된 철도와 주요 보급로를 따라 전선으로 향하여 남하하고 있는 것이 종종 포착되었다. 이들은 철도 수리공사에 전력을 경주하여 폭파된 철도가 24시간이 못되어 복구된 사실이 항공사진 정찰로 밝혀지기도 하였다.⁹⁴⁾

공산군측은 각 7,700명의 기술자를 보유한 3개의 철도조직을 주어로 동원하여 철도수리에 전력을 기울였다. 철도의 피해가 증가되자 이의 수리를 위해 북한은 정규병력 3개 여단을 포함한 50만 명을 상시 철도에 배치시켜 놓았다. 각 지역에 50명씩 배치하여 10명 1개조의 감시반이 6km마다 철로를 감시하였던 것이다.⁹⁵⁾

적은 철로 교각이 폭격을 받아 이동식 교각을 매일 밤 사용하면서 철로를 이용하였다. 그들은 파괴된 시설, 도로, 철로를 수리복구하거나 신설하고 그런 작업을 주로 야간이나 악천후를 이용하여 실시함으로써 보급선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전방에 있는 적 보병들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필수적인 보급품을 수령하고 동계피복도 제대로 지원 받았다. 적은 민간인까지 동원하여 총력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사적이었다.⁹⁶⁾

공산군은 보급열차를 유엔 공군의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간에는 터널에 은폐하였다가 야간에 이동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다. 특히 탄약과 연료화차는 중앙에 위치하게 하여 유엔 공군기가 터널 입구를 폭격하여도 입구만 잠시 막힐 뿐이었다. 유엔군의 전략 폭격은 다만 적의 보급량을 제한하고 보급속도를 지연시킴으로써 공

격의 빈도와 규모를 줄이는 데에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전쟁 그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은 될 수 없었다.⁹⁷⁾

이에 대해 중공의 공간사에는 “중공군 공군·고사포병·공병·후방근무부대 간의 밀접한 협동과 작전은 유엔 공군의 교살전 기간에 비록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으나 유엔군이 바라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작전은 전체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이 작전의 의의에 대하여 제8군사령관은 “차단작전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적은 많은 철도역을 시변리나 평강 북쪽에 건설하여 몇 배에 달하는 포탄을 우리 머리 위에 퍼부었을지도 모른다. 차단작전이 적의 보급을 멈출 수는 없었으나 전투능력을 약화시킨 주요인이 된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였다.⁹⁹⁾

이렇듯 후방지역 차단작전은 휴전회담의 재개로 인하여 지상군 작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작전의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다른 한편 적의 병참지원 능력을 파괴하고 전선전력 증강을 차단하여 대규모 공세작전을 억제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제 2 절 休戰協商的 停滯

1. 停戰과 休戰細部事項의 協商

(1) 雙方의 協商基調와 提案

의제 제3항 휴전과 휴전세부사항은 쌍방이 어떻게 정전을 실행하고 전쟁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보장하며 또 그것의 실

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어떤 기구를 설치할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였다.

유엔군과 공산군측은 이미 잠정 분계선에 대한 합의를 보기 전부터 이 의제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분계선 설정문제가 타결된 1951년 11월 27일 이후부터는 의제 제3항의 문제가 큰 난제로 부각되었다.¹⁰⁰⁾

먼저 공산군측 남일이 의제 제3항에 대하여 그가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만을 수락한다면 아주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1) 휴전이 조인되자마자 곧 모든 전투는 중지한다.
- 2) 모든 군대는 휴전 조인 3일내에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한다.
- 3) 모든 무장부대는 5일 이내에 도서와 해상을 포함하여 군사분계선 쪽으로 철수한다.
- 4) 무장부대는 비무장지대로 진입할 수 없으며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력의 사용을 금지한다.
- 5) 쌍방은 동수의 군사정전위원을 지명하며, 이들은 협정의 이행을 공동으로 감시·책임진다.¹⁰¹⁾

이에 대하여 유엔군측의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쌍방이 적대행위 재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군측은 의제 제3항의 내용을 공산군측에게 상기시키면서 ‘사격중지, 감독기관의 구성과 기능 및 권한’이 근본적인 고려사항임을 지적하고 준비된 다음과 같은 7개 원칙을 주장하였다.¹⁰²⁾

- 1) 협정 조인 후 24시간내 사격을 중지하고, 이는 쌍방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부대가 준수한다.

- 2) 협정의 각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수의 양측대표로 구성된 공동감시기구를 설치한다.
- 3) 협정 조인 후 쌍방의 병력, 보급, 장비 및 시설의 증강을 금지한다.
- 4) 군사정전위원회는 감시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 감시소조로서 전 한국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 5) 쌍방 군대는 지상군·공군·해군이든 정규군·비정규군이든 상대방이 통제하는 영토에서 철수한다.
- 6) 특별히 상호 합의한 부대를 제외한 어떠한 부대도 비무장지대 내 진입을 금지한다.
- 7) 군사지휘관은 비무장지대를 휴전협정 조항에 맞게 관리한다.

의제 제3항에 대한 쌍방의 제안 비교¹⁰³⁾

유엔군측 제안	공산군측 제안
1. 휴전협정 조인 후 24시간내 효력 발생, 모든 부대가 이를 준수	1. 휴전협정 조인일로부터 모든 적 대행위 중지
2. 쌍방 동수의 인원으로써 합동감독기관 설치	2. 공동감독책임을 질 정전위원회를 구성할 동수의 인원 임명
3. 휴전 조인 후 군사력의 증강 금지	3. 모든 무장부대는 휴전협정 조인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의 후방·연안도서·해역으로부터 철수
4. 군사정전위원회의 자유로운 감시기능 보장	4. 휴전협정 조인 후 3일 이내에 모든 무장부대는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
5. 모든 군대는 상대방의 관할지역으로부터 철수	5. 무장부대의 비무장지대 출입금지, 군사행동 금지
6. 합의된 지역 외에는 비무장지대에 무장부대 주둔 금지	
7. 쌍방 군사지휘관은 비무장지대의 해당지역을 각각 관리	

유엔군측의 견해가 제시된 후 쌍방대표들은 상대방의 제의사항을 검토하였다. 남일은 유엔군측의 부대, 보급품, 장비 및 시설증가에 대한 제한과 감시반이 전 한국을 자유로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에 대하여 집중적인 공격을 하였다.¹⁰⁴⁾

공산군측은 28일 회의에서 한국에서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한국문제를 최종적으로 평화로이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북한의 시설복구 특히 비행장 복구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수락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¹⁰⁵⁾

유엔군측은 이를 반박하며 공산군측이 외국군 철군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공산군측의 5개 항은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이른바 ‘평화의 가교’로서는 너무도 제한사항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계속해서 유엔군측은 7개 항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군사력 증강 금지는 유엔군사령부가 추구하는 휴전협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¹⁰⁶⁾

이로써 쌍방이 주장하는 초점은 명백해졌다. 다시 말하면, 공산군측의 ‘모든 외국군의 철군’과 유엔군의 ‘군사력 증강 금지 및 이를 감시하는 권한’으로 압축되었다. 유엔군측이 군사시설의 증강을 반대한다고 한 것은 본질적으로 비행장의 건설 또는 복구를 의미하였다. 이는 곧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측이 휴전기간 중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에 따라 의제 제3항은 앞으로 유엔군측 제안의 제3조(군사력의 증강 금지)와 제4조(군사정전위원회의 자유로운 감시 기능)가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軍事力 增強 禁止와 監視

유엔군측 수석대표 조이 중장은 12월 1일 제32차 휴전회담의 기초 연설에서, 공산군측이 계속 주장하는 외국군의 철수문제는 군사회담의 범주 밖이라는 점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전력증강을 제한하는 조항

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휴전 조건에 불가결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통하여 유엔군측의 입장을 명백히 주장하였다.

- 1) 휴전 기간 중 쌍방은 군대 또는 군사요원을 한국에 증강하지 않는다.
- 2) 쌍방은 한국내 군사장비 및 물자의 보유수준을 휴전협정 발표 당시에서 증가하지 않는다.
- 3) 휴전협정 제조항의 준수를 감독하기 위하여 쌍방인원으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와 공동감시반은 전 한반도를 자유로이 통행하고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지상·해상·공중의 출입구와 교통중심지를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이 위원회는 한반도 전역에서 공동으로 공중감시 및 사진정찰을 실시하고 비무장지대를 공동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 4) 우리는 한국으로부터의 외국군 철군문제는 본 휴전회담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관계국 정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질 주제임을 명확하게 밝혀 둔다.¹⁰⁷⁾

공산군측은 여전히 유엔군측 요구를 거부하면서 북한내에 비행장을 증설함으로써 휴전 기간 중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권한이 있다고 단호히 주장하고 아울러 유엔군의 철군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쌍방은 1주일간이나 자기들의 주장을 고수하면서 상대방의 제안을 반대한다는 설전을 거듭하였으며,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의 제안이 북한의 재건과 복구를 방해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심지어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 극언하였다.¹⁰⁸⁾

12월 3일 공산군측은 이 문제의 타협을 위해 처음으로 양보를 해왔다. 공산군측은 1주일 전에 제안했던 5개 원칙에 다시 다음과 같은 2개 원칙을 추가하여 제안하였다.

- 1) 차후 정치회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전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쌍방은 어떠한 구실로도 병력이나 장비의 도입을 금지한다.
- 2) 중립국 감시기구를 군사정전위원회와는 독립적으로 비무장지대 외의 출입 항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설치한다.¹⁰⁹⁾

이와 같은 새로운 공산군측의 제안은 유엔군측이 모든 부대와 장비에 대한 완전한 제한이나 또는 중립국의 초청 감시문제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엔군 대표들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유엔군측은 이에 대한 적의 동기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침을 받기 위해 시간이 필요함으로써 19개의 질문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넘길 것을 제안하였다.¹¹⁰⁾ 이에 대해 공산군측은 그들이 제안한 7개 원칙을 먼저 수락한다면 그러한 절차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겠다고 언명하였다. 다음날 12월 4일 제35차 휴전회담에서 공산군측은 의제 제3항에 대한 토의를 분과위원회에 위촉하는 유엔군측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¹¹¹⁾

이날 오후 분과대표들이 회동하자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인원의 교체도 할 수 없으며 장비의 보충도 해서는 안되며 시설복구 문제는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또 그들도 감시기구의 설치 및 중립국의 이용에 관한 개념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면서 쌍방이 합의하는 항구에서 따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¹¹²⁾

이어 12월 5일 분과회의에서 공산군측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비무장지대로 제한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중립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국가는 한반도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은 국가로서, 예를 들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이 고려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부가해서 스위스가 중립국이 될 수 있으며, 스웨덴과 덴마크는 유엔군측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 국가들도 중립국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¹¹³⁾

유엔군측 수정안과 공산군측의 반응

유엔군측의 수정안	공산군측의 반응
1. 모든 군대는 휴전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모든 적 대행위를 중지한다.	1. 수락
2. 쌍방의 모든 무장부대는 휴전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72시간 내에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한다.	2. 수락
3. 일방측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부대는 휴전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고서 5일 이내에 타측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철수한다.	3. 유엔군은 모든 연안 도서에서 철수해야 한다.
4. 특별히 쌍방이 상호 동의한 경찰적 성격의 무장부대를 제외하고 비무장지대에는 어떠한 무장부대도 들어가는 안 되며, 또한 비무장지대에서는 어떠한 군사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4. 수락
5. 쌍방은 전 휴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공동책임을 수행할 군사정전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수의 인원을 지명한다.	5. 합의
6. 휴전의 안정화를 보증하기 위하여 쌍방은 휴전협정 발효시에 보유하고 있는 이상으로 부대·인원·장비를 증가해서는 안 되며 군사시설을 재건·복구해서도 안 된다.(제한조항)	6. 반대 발효후에는 어떠한 인원·부대·물자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군사시설의 재건복구 제한은 내정간섭이다. 우리는 강압적인 휴전은 바라지 않는다.
7. 1) 군사정전위원회와 합동조사반은 한국 전역에 걸친 주요 병참선과 상호 동의한 육·해·공의 통관항 및 통신센터를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2) 군사정전위원회는 전 한반도 상공에 있어서의 공동 공중관찰과 사진정찰의 권리를 가진다. 3) 군사정전위원회는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감시할 권리를 가진다.(감시조항)	7. 중립국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이것과 휴전위원회와의 구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후방지역에서는 중립국 감시반이 통관항만을 감시한다. 감시반의 행동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중사찰은 내정간섭이다. 우리는 감시당하는 휴전은 요구하지 않는다.
8. 군사정전위원회는 동위원회가 조직되고 인원이 구성되어 부여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낼 때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8. 합의

이에 유엔군측은 12월 6일 지금까지 쌍방간에 제기된 취지와 쟁점을 감안하여 그 해결안으로서 공산군측이 제안한 7개 조항을 수정하여 앞의 표와 같은 8개 항목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유엔군측 제안의 특징은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며 특히 공산군측의 용어와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공산군측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그러나 제6항 제한사항과 제7항 감시조항은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원안 그대로였다. 제7항에서 자유사찰은 철회하였지만 공중사찰을 제기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이었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제한조항과 감시조항을 놓고 독립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중립국 참가문제와 연안 도서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회담을 요구하며 공박하였다.

계속된 회의에서 결국 12월 7일 의제 제3항의 문제점은 4개로 줄어들었다. 첫째, 새로운 부대의 도입금지, 둘째, 시설 특히 비행장 건설, 셋째, 근해도서의 지휘, 넷째, 감시반의 구성 및 이들과 군사정전 위원회와의 관계 등이었다.¹¹⁴⁾

유엔군측은 이러한 입장에 관한 협상지침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최종입장으로서 상기 사항 중 1항은 고수하고, 제3, 제4항은 공산군측의 견해를 수락하며, 제2항에서 비행장 외 모든 시설의 복구에 반대는 철회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¹¹⁵⁾ 드디어 11일 워싱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훈령을 받았다.

- 1) 인원의 교대와 보충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유엔군측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
- 2) 시설을 복구하는 문제는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으나, 비행장에 관한 문제가 휴전을 성립시키는 데 최후의 장벽이 된다면, 이를 반드시 정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 3) 마지막 단계에서 유엔군부대가 분계선 북방에 있는 도서에서 철수한다.
- 4) 중립국 감시반을 사용하는 문제에 합의해도 되지만 선정될 중립국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감시반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또한 동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¹¹⁶⁾

지침을 하달받은 유엔군측은 다음날 의제 제3항의 미결사항에 대한 포괄적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즉, “분계선 북방 연안의 도서와 영해로부터 유엔군측이 철수하고, 쌍방이 수락할 수 있는 중립국이 감시반에 인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에 동의한다. 반면, 공산군측은 인원의 교체와 장비보충을 허용하고, 중립국 감시반을 군사정전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비행장의 건설과 복구를 금지하는 유엔군측 주장은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¹¹⁷⁾

이후 계속된 협상에서 공산군측이 병력교체에 월 5,000명 선을 허용하는 등 중립국 감시기구 운용에도 다소의 진전은 있었으나 12월 중순까지도 여전히 쌍방은 인원교체와 장비보충,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 지상 및 공중감시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유엔군사령관은 군사분계선 협정과 관련된 30일의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의제 제3항 협상마저도 난항에 부딪쳐 있는 만큼, 협상기간의 최소연기와 더불어 본국에 상황판단 보고를 하고 지침을 요망하였다. 당시 워싱턴 당국은 휴전 후 정치회담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당분간은 휴전이 유일한 합의사항(협정)이 되리라는 판단하에 휴전협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에 기초를 두어 12월 19일 새로운 훈령을 하달하였다.

쟁점이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태도를 정하지 않으며 공산군측이 새로운 안을 제기하면 이를 재조정한다. 그러나 회담의 중단은 원치 않으며 만일 중단될 경우에는 그 책임이 전적으

로 공산군측에게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¹¹⁸⁾

유엔군측은 30일간의 기한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훈령을 받은 다음날 12월 20일 의제 제3항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회의진행을 돕기 위해 참모장교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공산군측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만일에 유엔군측이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를 제한하지 않고, 중립국 감시반은 한정된 지역만 감시하며, 공중감시 요구를 철회한다.”는 사항에 동의하면 휴전시에 있어서 인원교체와 장비보충에 대한 유엔군측의 제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¹¹⁹⁾

쌍방의 견해 차이점¹²⁰⁾

미결 사항	쌍방의 주장	
	유엔군측	공산군측
1. 인원교체와 장비보충	1. 휴전발효시의 수준에서 제한없이 인원교체와 장비의 보충보급을 실시.	휴전발효후 인원의 교체는 월간 5천명 이내로 하되, 정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보충은 불가.
2. 지상 및 공중감시	1. 지상감시는 출입항과 주요 교통중심지에서 자유로이 실시. 2. 감시기구는 군사정전 위원회하에 둬.	1. 지상감시는 한정 출입항에서만 실시. 2. 공중감시는 불필요. 3. 감시기구는 별도로 운용.
3.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	휴전의 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쌍방은 비행장을 현 상태로 유지.	비행장 건설 및 복구를 제한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
4. 근해도서 지위	군사분계선 연장선 북쪽 도서에서 철수	군사분계선을 동해안에서는 동쪽으로, 서해안에서는 서남쪽으로 연장한 어떤 선 북쪽의 연해와 도서에서 철수

유엔군측은 지난 19일의 훈령에서 비행장 건설의 부분적 제한·자유로운 감시활동 보장·공중감시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기 때문에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임시 휴전 기한이 끝나는 1951년 12월 27일에는 그 동안 참모장교회의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회담을 가진 결과 의제 제3항에 대한 쟁점이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나 몇 가지 미결사항이 남아 있었다. 그에 대한 쌍방의 견해 차이점은 앞의 표와 같은 것이었다.

(3) 飛行場 問題의 留保

의제 제3항의 미결사항 중 쌍방이 모두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최대 현안은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문제였다. 유엔군측은 그 동안의 토의에서 비행장 건설과 복구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공산군측은 이 문제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반대해 왔다.

12월 29일 유엔군측은 만일 적이 본질적인 수정 없이 유엔군측의 나머지 제안사항을 수락한다면, 항공감시를 포기하겠다고 제의하면서 다른 문제에 관한 또 하나의 타협안을 내놓았다. 이는 곧 공중감시 요구를 철회하는 대가로 비행장 문제에 대한 공산군측의 양보를 유도하려는 제안이었다. 공산군측은 제의가 일보 진전된 것이지만 본질적이 아닌 표현상의 양보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협상은 분과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참모장교급에서도 시도되었으나 진전된 것이 없었다.¹²¹⁾

몇 차례의 회의를 거듭함에 따라 다음날 30일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의 제안이 일보 진전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유엔군측이 제시한 양보만 받아들이고 비행장 문제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처럼 비행장 문제를 놓고 비난과 역비난이 되풀이되었으며 유엔군측의 설

득과 공산군측의 반박으로 회담은 진전 없는 답보 상태에서 해를 넘기게 되었다.¹²²⁾

휴전회담이 시작된지 5개월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인 의제 4개 항목 중에서 일단 타결된 것은 제2의제인 군사분계선 문제뿐이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이제 새로 협상을 해야 하므로 완전하게 타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1952년에 접어들면서 판문점에서는 정초의 휴식도 없이 매일같이 입씨름으로 하루하루 허송하였는데, 유엔군측이 비행장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공산군측은 ‘내정간섭·주권침해론’으로 대응하면서 상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월 9일 공산군측은 다만 비행장의 복구에 관한 모든 관련사항을 무시한 것을 제외하고, 12월 29일의 유엔군측 제안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즉, 첫째, 전투기를 제외한 인원·무기·탄약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중립국 감시반을 군사정전위원회의 산하에 둔다는 것이었다.¹²³⁾ 그러나 공산군측은 공중감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제안은 몇몇 사소한 문제점에 대해서 양보를 나타내었으며 중요한 장애물인 비행장 문제는 아무런 양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측에서 거부하였다.¹²⁴⁾

따라서 의제 제3항은 그 동안의 쟁점이 되어온 지상감시 문제와 인원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산군측이 양보하고 공중감시에 대해서는 유엔군측이 양보함으로써 타협을 이루었으나 비행장 문제는 진전 없는 답보 상태가 계속되었다.¹²⁵⁾

그러나 1월 10일 유엔군사령관은 “비행장 문제가 휴전성립에 유일한 장애가 되고 있다면 이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 단, 의제 제3, 제4, 제5항의 나머지 사항이 완전히 합의될 때까지 비행장 문제의 토의를 연기하라.”고 하는 미국정부의 훈령을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유엔군측은 태도를 변경하여 비행장 문제 토의를 연기하고 견해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¹²⁶⁾

결국 1952년 1월 25일 유엔군측은 쌍방의 참모장교들에게 비행장 문제는 제외하고, 의제 제3항 중 미결된 세부사항을 해결하며, 이미 도달한 잠정 합의사항을 골격으로 하는 문서작성 임무를 부여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예상과는 반대로 공산군측이 1월 27일 이 절차에 동의함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휴회에 들어갔으며, 이날부터 참모장교회의가 개최되었다. 비행장 문제는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다.¹²⁷⁾

1952년 1월 27일 첫날 회의에서 유엔군측 참모장교들은 비행장 문제를 포함하여 현안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여 협정초안을 제출하였다. 유엔군측 초안은 월간 75,000명의 인원교대를 허용하고 남한에는 10개소, 북한에는 12개소의 출입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중립국 감시요원에게는 조사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다.¹²⁸⁾

공산군측은 의외로 유엔군측 제안을 받아들여려 하였다. 유엔군측 참모장교들은 적이 제의한 대부분의 수정사항을 하나의 진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병력교체는 유엔군의 75,000명과 공산측의 5,000명의 폭이 너무 커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근해의 5개 도서, 즉 38도선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군사분계선의 적측에 속하며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5개 도서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근해도서의 지위를 군사분계선의 연장에서 설정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한국대표 유재흥(劉載興) 소장은 공산측이 영해를 12마일로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에게 의견을 타진한 후 영해를 3마일로 제한하여 38선이남 서해안 일대의 전략적 도서를 확보하도록 유엔군측에 건의하였다. 유엔군측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공산군측에 제안하였으며, 공산군측도 당시 유엔군이 38도선 이북의 제해권까지 장악하여 주요 도서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수정없이 동의하였다.¹²⁹⁾ 따라서 이 도서

들은 유엔군측이 보유하게 되었다.

결국 1주일 동안의 참모장교회의에서도 추가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은 정전위원회산하 합동감시반을 15개에서 10개로 줄이도록 결정한 것과 38도선 이남에 위치하고 있는 서해 5도를 유엔군측이 맡아서 관리하기로 결정한 정도가 고작이었다.

(4) 中立國 監視國 問題

의제 제3항에 대한 협상은 비행장 문제와 인원교대 등 세부문제 외에도 1952년 2월에 접어들어 중립국 감시기구의 구성국가 문제로 또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2월 1일 쌍방은 감시기구의 명칭을 ‘중립국감시위원회’라고 정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유엔군측에서 감시위원회 구성국으로 스위스·스웨덴·노르웨이 3개국을 제의하였으며, 공산군측은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소련을 지명하고 양측이 동시에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엔군측은 소련을 거부하고 그 대신 노르웨이를 제외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소련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유엔군측은 소련 거부안을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

단지 이 경우에 있어 중립국이란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였는데 공산군측은 소련의 참전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유엔군측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유엔군측은 휴전 후 휴전선 이남에서 활동하는 것을 수용하기를 꺼려함으로써 공방이 계속되었다.¹³⁰⁾

결국 의제 제3항에 대한 협의는 2월 중에 인원교대에 관해 35,000명의 상한선에 합의를 보고 3월 15일에는 감시출입항을 남북 각각에 5개 지역¹³¹⁾으로 하기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등 세부사항에 진전을 이루었으나 비행장 복구 및 중립국 감시기구 구성문제로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었다.

2. 捕虜交換 協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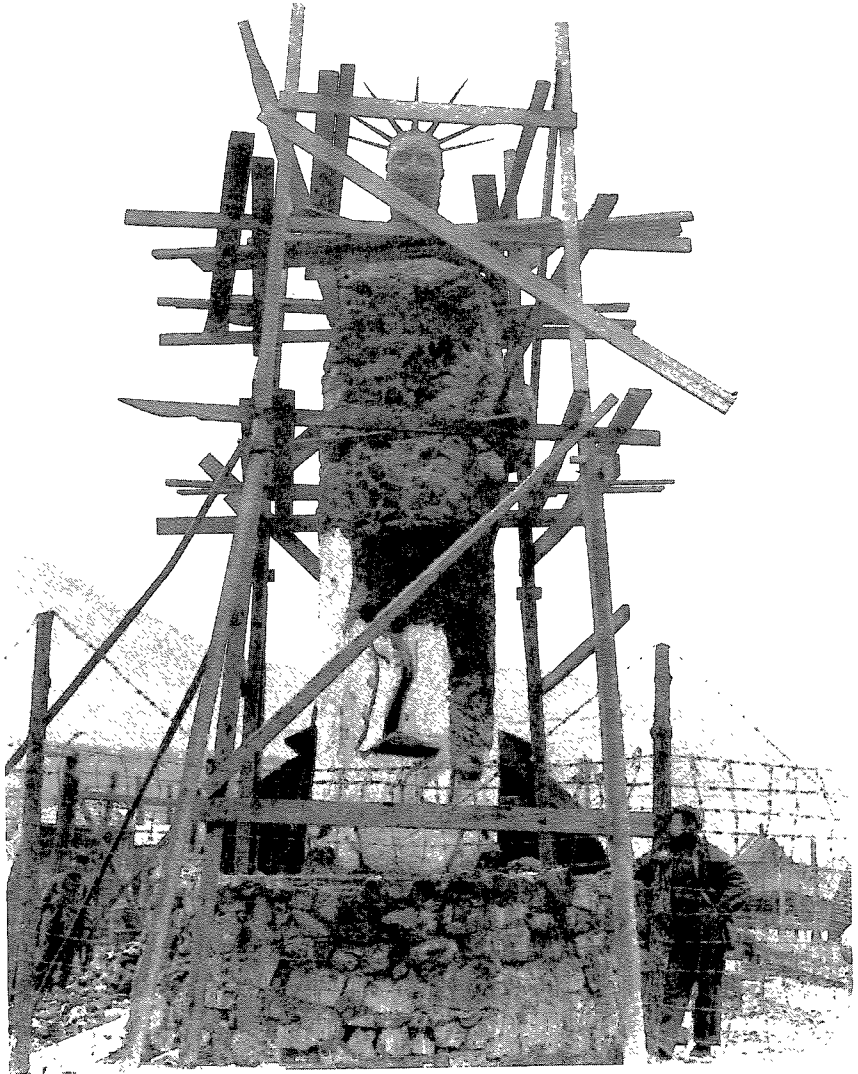
(1) 雙方의 提案과 爭點

포로교환 협상(의제 제4항)은 의제 제3항의 협상이 분과위원회로 넘어간 12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유엔군측은 11월 27일 의제 제3항을 협상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를 토의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이때에서야 협상에 들어가게 되었다.

회담벽두에서 공산군측은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포로를 휴전 협정 조인 후 즉각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군측은 포로를 공정하고 적합한 기준에 따라 조기 포로교환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회담의 첫 단계로 전체 포로명단의 교환,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요구하였다.¹³²⁾

포로교환 협상은 표면상으로 비교적 간단한 것처럼 보였다. 쌍방이 서로 인정한 제네바협약 제118조에는 그 서두에서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석방되고 송환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군이 수천 명의 일본과 독일의 전쟁 포로를 오랫동안 억류시켜 전쟁복구에 동원한 것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행동 재발을 막기 위한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다. 많은 수의 포로가 송환을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 협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¹³³⁾

그러나 포로 가운데에는 패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귀국을 원치 않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기나라의 정치체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3국을 택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귀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협약에는 이와 같은 사항은 예측하



송환을 원하지 않는 공산군 반공포로들이 자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유여신상을 건립하였다.(1952. 5. 1)

지 못하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바로 의제 제4항의 토의에 있어 쟁점이 되었다.¹³⁴⁾

제네바협약 후 이러한 사실이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유엔군측이 수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공산군 포로가 송환을 불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국군으로서 공산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인민군에 강제 편입되어 다시 국군에 포로된 자와 중공군 포로 중국부군 출신이 각기 대한민국과 자유중국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포로심문 과정에서 한 포로가, “우리들은 북한군의 포로가 된 국군이며 강제로 북한군의 전열에 가담케 되었다. 우리들은 북한에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데서 문제가 대두되었다.¹³⁵⁾

이러한 특수상황에 따라 유엔군측은 송환을 원하는 포로만 송환시키는 자원송환 원칙을 관철하되, 공산군측에 억류된 유엔군 포로도 모두 안전하게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략으로 1:1 교환방식을 주장할 방침이었다. 반면에 공산군측은 협약의 표면상의 문구에 기초하여 모든 포로의 강제송환을 주장하며 전체 : 전체 교환방식을 주장하고 나섰다.¹³⁶⁾

포로로 억류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는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강제로 북한이나 중공으로 송환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조약에 따라 이들 수만 명의 희망을 무시하고 공산군에게 인도할 것인가, 이 불행한 사람들을 인도주의에 따라 구할 것인가, 구하려고 한다면 조약의 규정에 위배하여 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12월 15일 속개된 합동분과위원회에서 무엇보다도 포로 정보파악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유엔군측은 1) 포로의 식별(국별 명단), 2) 포로 수용소의 위치, 3) 포로수용소별 인원 수, 4)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수용소 출입허용 등에 관한 자료의 교환을 요청하였다.¹³⁷⁾ 그러나 공산군측은 협정시 전체 포로를 교환할 것을 토의하자고 맞섰다.

이러한 논의가 일고 있을 때 최초로 포로문제에 관한 희미하나마

전진될 기미가 보이게 되었다. 12월 18일 적측이 포로의 명단과 기타 자료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교환은 같은 날 이루어졌으며, 그 후 회담은 4일 동안 휴회에 들어가고 양측은 상대에 의하여 제공된 목록을 신중히 검토하였다.¹³⁸⁾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적이 제출한 명단에 크게 실망하였다. 공산군측이 제출한 명단은 예상하였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다만 국군 포로 7,142명, 유엔군 포로 4,417명(그중 미군 3,198명) 총 11,559명만을 제시하였던 것이다.¹³⁹⁾ 이는 전쟁초기에 북한측이 발표한 것만 하더라도 포로는 6만 5천 명을 상회하며, 국군과 유엔군측이 추정한 아군 실종자도 국군 8만 8천 명, 미군 1만 1천5백 명 이상이었으므로 그 차이는 너무도 컸던 것이다.

공산군측이 제시한 유엔군 포로내역¹⁴⁰⁾

소 속 국	인 원(명)	소 속 국	인 원(명)
한 국	7,142	호 주	6
미 국	3,198	남 아(공)	4
영 국	919	일 본	3
터 키	234	캐 나 다	1
필 리 핀	40	그 리 스	1
프 랑 스	10	네 덜 란 드	1
계 : 11,559명			

한편 유엔군측이 적에게 건네준 포로명단은 총 132,474명으로서 그 중 북한인 95,531명, 중국인 20,700명 그리고 전 남한인 16,243명이었다. 공산군측도 유엔군이 제출한 명단에 대단히 불만이였다. 그들은 실종자를 18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었는데 약 132,000명만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4일간의 휴회를 마치고 12월 22일 개최된 합동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이 제출한 한 명부에서 44,259명이 부족하고 또 다른 명부에서 1,456명이 부족하다”고 비난하였다.¹⁴¹⁾

이에 대하여 유엔군측은 남한 출신의 많은 민간인이 전쟁의 와중에서 잘못 생포되었거나 귀측에 강제 입대당한 사실을 밝혀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류에 속하는 포로 중 귀측에 자원입대한 자들은 제외하고 37,000명을 민간인 피수용자로 재분류하였으며 그외에도 16,000명이 조사중에 있지만 이들도 민간인으로 판명되면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유엔군측의 입장을 밝혔다.¹⁴²⁾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군에 강제로 편입된 국군을 모두 석방해야 하며 강제로 편입된 민간인 포로를 돌려보내서는 안되며, 납치당한 모든 민간인은 복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엔군측에 전달하였다.¹⁴³⁾

이리하여 포로명부를 확인한 쌍방은 모두 실망과 불신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상대방에 대한 중오심이 굳어지게 되어 포로문제는 더욱 어렵게 되어 갔다.

이에 대해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의 설명요지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포로의 송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거주지가 아니라 반드시 포로가 복무했던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공산군측은 주장하고 나왔다. 제네바협약 제4조에는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도 적국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공산군측의 주장을 그르다고만 할 수도 없었다.¹⁴⁴⁾

유엔군측은 이를 기피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반박하였다. 즉, “공산군측이 억류하고 있는 1만 1천여 명과 유엔군측이 억류하고 있는 13만 2천여 명을 교환시킨다는 것이 옳은가. 또 의제 제3항을 토의할 때 귀측은 휴전성립 후에 군사력 증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 주장하였는데 전체교환을 하게 되면 귀측에게 10개 사단에 해당하는 인원이 증가된다. 그리고 전쟁초기에 귀측이 발표한 전과만도 포로가 6만 5천 명 이상인데 포로명부에는 국군 포로가 불과 7천여 명만 등재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¹⁴⁵⁾

12월 24일에도 같은 논쟁이 계속되었다. 병상포로들의 교환을 거부

한 공산군측은 이날 포로와 그 가족간의 서신교환에는 동의하면서 포로로 억류 중이던 미 제24사단 사단장 딘 소장이 그의 가족에게 보내는 서신을 유엔군측에 수교하였다. 딘 소장의 서신은 바로 포로들의 서신교환의 시초가 되었다. 공산군측은 유엔군사령관이 지난 21일 요청한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북한포로수용소 방문 허가’에 대한 회신을 유엔군측에 전달하였다.¹⁴⁶⁾ 이는 공산군측이 포로에 대하여 ‘가장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포로수용소에 대한 국제기구의 방문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다분히 자기 선전에 주안을 둔 답변이었다.

1951년 성탄절도 아랑곳없이 회의는 연일 계속되었으며 양측의 비난과 맞비난이 12월 26일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의 전체 : 전체 교환 제안을 사기이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것은 적 포로 130,000명에 대하여 유엔군 포로 12,000명 미만의 석방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공산군측은 앞서 국제적십자사로 통보한 보고서에서 누락된 한국 주민 44,000명도 송환할 것을 주장하고 12월 18일에 그들에게 건네준 명단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대응하였다.¹⁴⁷⁾

결국 30일간의 임시휴전 기간은 공산군측에게 군비증강의 기회만 만들어 준 셈이 되고 말았다. 기진맥진 상태의 공산군측은 한달 동안에 전투력을 재정비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짐으로써 공세작전도 펼칠 수 있는 만큼의 전열을 갖추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포로협상은 1951년 말까지 포로의 숫자에 대한 공방과 교환방식의 시비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2) 自願送還과 強制送還

1952년의 새해에 접어들면서 유엔군측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였다. 유엔군측은 민간인 피수용자도 의제 제4항에 포함하여 타

결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여 공산군측으로 하여금 원칙적인 동의를 얻어내었다. 이것은 억류 민간인이 휴전협정 발효시 그들이 각각 원하는 지역(한국 또는 북한)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려되었다.

이 문제는 군사적이라기보다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지만 공산군측은 이에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¹⁴⁸⁾ 이에 고무된 유엔군측은 1월 2일 포로교환에 민간인 송환문제를 통합한 유엔군측안을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제안하였다. 이것의 핵심은 포로와 민간인의 자원송환에 있었다.¹⁴⁹⁾ 그 성명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해결 방안으로 포로는 석방과 동시에 자기의 군대로 돌아가거나 적측에 입대하거나 그것은 포로 자신의 의사에 맡긴다는 방식이다. 자유송환의 원칙은 물론 민간인 포로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인도적이다. 석방시 포로의 의향을 묻는 기관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적당하다. 이렇게 하여 자국군에 돌아가고 싶은 포로는 휴전기간에는 서로 전력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먼저 1:1로 동수를 교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수교환에서 남은 자 중 본국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억류한 측에 재차 적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서케 하고, 본국 송환을 거부한 자에게는 다시 무기를 잡지 않도록 선서케 한다. 이것 이외에 공정하고 평등한 송환방식은 없다.¹⁵⁰⁾

유엔군측의 포로교환 제안에 대한 공산군측의 반응을 예기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음날 3일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의 성명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거부하면서 “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노예 거래가 아니며 20세기가 노예제도의 야만적인 시대가 아니다”라고 맹렬하게 비난하였다.¹⁵¹⁾

이 무렵 변영태 외무장관은 “대한민국과 중국인 포로의 강제송환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북한인 가운데서도 교화된 공산주의자나 치유불가한 공산주의 동조자들만 송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군측에 전달하였다.¹⁵²⁾

쌍방대표들이 자원송환이나 강제송환이나를 둘러싸고 1주일간이나 입씨름을 벌였지만 아무런 결말을 보지 못하자, 1월 8일 유엔군측은 최초의 안이 몇 가지 점에서 모호하다는 적의 불평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욱 구체적인 안을 제의하였다. 즉, 그 요지는 “같은 수로 교환 후에도 송환을 원하는 포로가 유엔군측 감시하에 남는 경우에 그들을 지체없이 송환하되 공산군측은 이들에게 적대행위를 허락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¹⁵³⁾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것보다 공산군측에 더 이로울 것이 없었다. 공산군측은 유엔군측 입장이 제네바협약의 위반이며 민간인 송환을 위하여 포로를 인질로 사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비난하였다.¹⁵⁴⁾

이와 같이 1952년 1월 중순까지 6개월간의 회담은 5개의 의제 중 2개의 의제에서 교착되고 말았다. 협상자들은 사소한 몇 가지 소항목에 관하여는 합의하였으나, 비행장 복구와 포로송환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강경하였으며 문제의 본질이 타협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¹⁵⁵⁾

공산군측이 모든 포로의 교환을 고집하는 데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만약 개개인의 선택에 의한 송환이 결정되면 많은 포로들이 송환을 거절할 것은 자명하고 그 결과로 이후부터는 전선의 군인들이 자진해서 유엔군측에 투항하게 될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유엔군측에 남게 되는 포로들이 공산정권의 내막을 폭로할 경우 그들은 자멸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다른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¹⁵⁶⁾

공산군측이 제네바협약을 그들 나름대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나서자 유엔군측도 제네바협약에는 송환비율이나 송환방법이 구체적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와 맞서게 되었다. 이리하여 휴전 회담은 한동안 제네바협약의 유권적인 해석을 둘러싸고 마치 국제법 토론의 장소가 되다시피하여 매일같이 회담이 끝난 뒤에는 쌍방대표들이 각기 제네바협약을 연구검토하는 데 몰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이 제시한 포로명단의 차이를 이용해 주도권을 행사해 나갔다. 공산군측은 최초의 목록에 계급과 단대호를 추가해 줄 것을 요망하였다. 그들은 원 명단에는 나와 있지는 않으나 포로들에 관한 많은 요약보고서에 나타난 1,456명의 명단을 원하였다. 그들은 제네바에서 받은 목록에서 뽑았으나 유엔군측이 제시한 최초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44,000명의 명단을 원하였다.¹⁵⁷⁾

1월 28일 유엔군측은 정확한 포로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공산군측에 제공하였다. 새로운 명부에는 총 132,080명이 등재되었고 그 내역은 중공군 포로 20,720명과 북한군 111,360명으로 지난번보다 394명이 적었다. 유엔군측은 그 이유로 394명은 민간인 억류자로서 그후 민간인 억류자 수용소로 이송되었다고 해명하였다.

한편, 44,000명의 민간인 명부는 준비되어 있었으나 공산군측이 이미 공표한 65,000명 이상의 포로명부와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¹⁵⁸⁾ 공산군측은 제의를 무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유엔군측은 이날 '1.2제의'에 기초하고 '자원송환원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합의에 접근한 내용을 중심으로 14개항으로 된 '포로협정 초안'을 공산군측에 제시하였다. 다음날 공산군측은 송환원칙에 대한 합의가 세목의 합의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유엔군측안을 일단 거부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의 새로운 포로명부와 포로에 관한 휴전협정 초안을 접수하고부터는 협상진행에 진일보하는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월 3일에 공산군측은 자원송환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엔군측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물론 전체 : 전체 교환을 요구한 것이었으나,¹⁵⁹⁾ 모든 포로들이 송환 후에는

재차 전투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문제, 북한 및 중공의 적십자요원을 포함시킨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수용소 방문 문제, 포로 및 민간인 송환위원회의 구성문제 등 많은 양보의 흔적이 보이는 제안이었다.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이 협상에 대해서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교환방법은 일단 차후로 미루고 세부사항의 타결을 시도하였다. 유엔군측은 지금까지 모호하다고 지적된 ‘송환될 포로들의 재차 전투행위 참가 금지’ 조항에 대해서 민간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한국전쟁에서만 한한다고 제시함으로써 공산측의 동의를 얻어내었다. 이와 같이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자 2월 6일부터 쌍방은 참모장교회의로 들어가 포로협정안 작성에 착수하였다.¹⁶⁰⁾

협상의 사소한 점들도 다음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합의에 도달하였다. 2월 13일 회의에서 공산군측은 자원송환 대 강제송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측간에 의제 제4항에 대하여 원칙상 차이가 없다고 인정하였다.¹⁶¹⁾ 송환방법에 관해서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도 강제송환의 방식을 수락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었다.¹⁶²⁾

2월 14일 공산군측에 의해 제출된 초안은 더 많은 양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초안은 교전당사국의 적십자 요원으로 구성된 팀이 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포로를 돌보고 또 송환을 돕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¹⁶³⁾ 그러나 송환방식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이 이 문제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협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협정초안에 관한 실무작업이 끝나자 회담은 2월 29일 송환원칙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분과위원회로 되넘어갔다. 그러나 포로협상은 유엔군측이 거제도에 수용된 포로 중 민간인과 자원송환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월 17일 친공포로의 폭동이 돌발하자 공산군측이 이를 호재로 휴전협상에서 공세를 취함으로써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었다.¹⁶⁴⁾

결국 난항을 거듭해 온 포로문제는 1952년 2월 말까지 자원송환이나 강제송환이나 교환방법만을 제외하고 거의 타결이 되었다. 하지만 교환방법은 포로 폭동사건과 결부되어 그후 휴전회담의 최대쟁점이 되었다. 휴전협상자들 가운데 누구도 전쟁이 앞으로 18개월을 더 지속된 후에야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리라고는 전망할 수 없었다.

3. ‘雙方關係國政府에 建議’ 協定

제5항 ‘쌍방관계국정부에 건의’는 의제 협의시 공산군측이 외국군의 철수문제를 의제에 포함하자고 집요하게 요청함에 따라, 이는 정치적인 문제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휴전실현 후에 쌍방의 정치회담에서 다루도록 ‘관계국정부에 건의’라는 항을 추가하자고 한 유엔군측 대안을 공산측이 수용함으로써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 의제는 의제 제3항 협의와 관련하여 한때 거론된 적이 있었으나 유엔군측이 의제 제3, 제4항에 대한 초안을 제시한 후, 1952년 1월 31일 마지막 남은 의제 제5항도 다른 나머지 문제와 함께 토의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공산군측이 2월 3일 수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¹⁶⁵⁾

유엔군측은 휴전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외국군의 철군문제와 협상에서의 미결문제를 단순히 정치회담에서 토의한다는 의미로 의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군사범위 외의 정치회담에 참가할 구체적인 인원이나 신분·회담의 기능과 형태 등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토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공산군측은 ‘관계국정부에 대한 건의’라는 어구에 정치적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으며, 장차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철군시켜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 정치회담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¹⁶⁶⁾

이리하여 2월 6일 본 회담에서 의제 제5항이 다루어지게 되었다.¹⁶⁷⁾ 회담이 시작되자 공산군측은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휴전이후 3개월 이내에 양측은 북한과 중공정부를 일방으로, 유엔과 관련있는 제국 정부를 타방으로 하는 대표를 임명하여 정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제 제5항의 논제로서, 첫째,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 철수, 둘째,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특별건의서, 셋째, 한국평화에 관한 기타문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보충설명에서 셋째 논제는 한국문제와 관련된 극동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⁶⁸⁾

공산군측의 제안을 예의 검토한 유엔군측은 2월 9일 본 회담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제의하였다.

한국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령관들은 각측 정부와 관계당국, 즉 일방 북한과 중공, 타방 유엔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제문제가 최고 수준의 정치회담 또는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 처리될 방침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첫째, 한국으로부터 비한국군의 철퇴, 둘째,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셋째, 평화에 관한 기타 한국문제.

양측의 안은 대동소이한 것 같으나 유엔군측은 회담대표에 대한민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 논제를 한국문제에 국한시켰다. 공산군측은 이튿날 유엔군측의 수정제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치회담에서 한국의 제문제만이 아니라 극동의 다른 제문제에 대해서도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⁹⁾

문제의 초점은 유엔군측 주장인 ‘한국평화와 관련된 기타 한국문제’로 할 것인가 공산군측의 ‘한국평화와 관련된 기타 제문제’로 할 것인가에 있었다. 미국은 정치회담의 범위를 한반도 내에 축소시키려는데 비해 공산군측은 한국평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의제 제5항에 대한 세부사항 토의 중 참가국 선정과정에서 공산군측은 예상과는 달리 북한과 중공을 제시하고 소련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을 참가시키자는 제안에는 묵살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유엔 가맹국의 전부가 전쟁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엔을 참가시키는 것에도 반대했다.¹⁷⁰⁾

조이 제독은, 공산군측이 휴전 후 한국문제를 토의하는 회담에 유엔이 참가해야 한다는 유엔군측 주장에 반대하자, ‘한국 내에 있는 중공군이 지원군’이라고 한 공산군측의 주장을 들어 ‘중공은 정치회담에 참가 자격이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였다.¹⁷¹⁾

이에 공산군측은 무기휴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으나 2월 16일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즉, “쌍방의 군사령관들은 한국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이 발생된 후 3개월 내에 고위 정치회담 교섭을 통하여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가 철군하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해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쌍방 관계제국정부에 건의한다”라고 제시하였다.¹⁷²⁾

이에 조이 제독은 적의 초안의 문안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락하자고 제의하였다. 유엔군측은 2월 17일 부분적인 용어해석을 첨부하여 적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즉 유엔군측은 ‘외국’이란 국군 이외의 군대를 의미한다는 것과 ‘등’이란 한국문제 이외의 것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수락하였던 것이다.¹⁷³⁾ 따라서 의제 제5항은 유엔군측이 공산군측의 수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휴전협정 제4조 제60항으로 명문화되었다.¹⁷⁴⁾

의제 제5항이 합의에 이르는 데에 11일 밖에 걸리지 않았으므로 이 때까지의 회담에서 가장 좋은 기록이었다. 그러나 쌍방이 이에 대하여 쉽게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합의가 나중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분히 무시될 수 있을 가능성을 많이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 3 절 一括妥結 摸索

1952년 3월 초에 접어들었을 때 휴전회담은 의제 제3항의 비행장 문제와 중립국 감시위원회 구성문제, 제4항 포로문제로 인하여 교착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제 제3, 제4항의 쟁점은 쌍방에게 군사적 승리를 대신한 정치적 승리를 위한 목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협상이 정체되자 3월 9일 유엔군측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총체적인 타결방법을 모색하게 되어 두 가지 방안을 안출해 내었다.

첫번째는 공산군측에게 최후통첩을 하되 일정한 양보를 포함시켜 완전한 휴전협정문을 제시한다는 것이었다.¹⁷⁵⁾ 이는 적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수락하던가 아니면 협상을 끝내고 적대행위를 재개하던가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방책이었다.¹⁷⁶⁾

두 번째는 적에게 공개적인 최후통첩을 하지 않고 완전한 휴전협정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유엔군측의 최종적인 안이며 다만 어투상의 약간의 변경만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적측에 통보하여 수락을 강요하는 방책이었다.

이 가운데 제1방책은 정부의 결심이 필요하고 최후통첩이 거절되었을 경우 전 전선에서 대대적인 작전을 전개하게 되는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휴전협상을 진척시키는 데에는 보다 신속하며 유리한 방안으로 고려되었다.

이중 한 개의 안을 제의한 후 유엔군측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이 내용에 대한 추가적 협의를 거부하며 수락을 강요하는 한편, 협상자체를 파기하지 않기 위해 연락장교 논의는 허용하지만 유엔군측의 ‘입장은 불변이며 추가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휴전협상상의 중요한 시점에서 무력사용의 시사와 확고부동한 태도만이 협상타결에 이를 수 있다는 대표단의 판단하에 협상전략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안은 모두 최후통첩의 성격을 띤 것이었으며 차이점은 시간제한을 둔 것과 두지 않은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은 협상이 중단될지도 몰라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즉 미국정부는 공산군측에게 최후통첩이라는 강경책을 쓰는 일을 원하지 않았고 또 일괄타결안에 최후통첩의 뜻을 함축시키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 또한 두 방안이 모두 최후통첩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시기상조라 생각하였다.¹⁷⁷⁾

리지웨이 사령관은 합동참모회의로 제출한 상황평가보고서를 통해 “공산군측이 휴전을 원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회담에 임하는 공산군측의 태도는 점점 강경해져서 날로 유엔군측 대표를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고 언급하고 가급적 다수의 한국전쟁 참전국이 유엔군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든가 아니면 무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등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단호한 정책수립을 촉구하였다.¹⁷⁸⁾

또한 리지웨이 장군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소련의 회원문제는 2개의 중요한 문제, 자원송환과 비행장 문제를 교환조건으로 일괄타결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¹⁷⁹⁾

유엔군사령관의 보고와 건의를 받은 유엔군측 정책당국은 합동참모본부가 중심이 되어 방책을 모색한 끝에 3월 14일 중립국 감시문제도 분리하지 않고 포로송환 문제와 비행장 문제를 한데 묶어 일괄타결하기로 정책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때 최후통첩은 하지 않고 세 가지 해결방안을 포함해 완전한 협정문을 작성하여 공산군측에 제시하되, 이것이 유엔군측의 최종적이며 변경 불가능한 입장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그대로 수락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때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군측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공산군측으

로 하여금 수락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힘의 위협 대신에 고위급 정치적 선언으로 대처하려는 조이 제독의 대안과 같은 것이었다.¹⁸⁰⁾

미국과 동맹국들은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일괄타결안이야말로 정체사태에 빠져든 휴전협상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하게 되었다.¹⁸¹⁾

다음날 미 합참은 이 계획의 시행 준비지시를 하달하며 리지웨이 장군에게 일괄타결 방안이 적의 태도에 보다 큰 영향을 줄 것이며, 만일 거부되어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유엔군측은 국제적 여론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¹⁸²⁾

한편, 유엔군측은 포로문제에 대한 적측의 입장을 좀더 탐색할 목적으로 회담을 참모장교급 협상으로 되돌릴 것을 제의하였고, 적도 동의하여 3월 16일 참모장교들이 다시 의제 제4항을 토의하기 시작하였다.¹⁸³⁾ 참모장교들은 의제 제4항에 관하여 거의 1주일간을 토의하였는데, 약간의 희망이 있었다. 3월 22일 적측이 만일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공언하였다. 동시에 포로목록 토의에 있어서도 그들은 포로 중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포로명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¹⁸⁴⁾

3월 25일 참모장교들은 비공개 회의로 들어갔다. 유엔군측은 적이 시사한 점을 고려하여 명단의 수정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유엔군측은 ‘강력하게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포로들을 송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공산군측도 재분류된 남한지역 거주자였던 포로 44,000명에 대하여는 자원송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명백히 받아들였다.

공산군측은 유엔군이 보유하고 있는 약 132,000명의 포로 중 그들이 원 고향이 남한이었던 약 16,000명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역시 동의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이 수용하고 있는

중공군 포로가 송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생각할 것도 없다고 공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엔군측에서는 4월 1일 중대한 전술적 실수를 범하였다. 적이 협정에 의거 복귀하게 될 포로의 수에 관하여 대체적인 숫자 판단을 요구하였을 때, 유엔군측은 짐작으로 약 116,000명이 될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132,000명에서 남한지역 거주자 출신 16,000명을 뺀 북한과 중국태생 포로의 대략적인 숫자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된 적은 즉각 명단의 점검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원칙의 토의는 그 작업 이후에 재개하도록 권고한다고 주장하였다. 4월 4일 양측은 유엔군측이 더 정확한 대체적인 숫자를 제시할 때까지 휴회할 것에 동의하였다.¹⁸⁵⁾ 적의 태도로 보아 100,000명 이상의 포로가 송환된다고 판단되면 곧 협정에 이를 것 같이 보였다.

비공개회의를 통해 포로문제에 관한 공산군측의 의도를 간파한 유엔군측은 휴회 후 4월 8일부터 ‘분산작전(Scatter Operation)’ 계획하에 포로조사와 분류를 실시하였다. 4월 13일까지 심사를 한 106,376명 중 31,231명만이 송환을 희망하였다.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나머지 포로까지 고려하더라도 송환 희망자는 약 70,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것은 유엔군측이 비공개회의에서 발설한 116,000명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숫자였다.¹⁸⁶⁾

유엔군측 참모장교들이 4월 19일 회의에서 70,0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였을 때 상대방은 “전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 “협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라는 항의를 하는가 하면 4월 25일에는 비공개회의마저 취소하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유엔군측은 이에 본회의를 소집하여 일괄타결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28일 본 회담이 열리자 유엔군측 수석대표는 미결된 3개의 문제인 비행장 재건, 포로교환, 중립국감시위원단 구성 등에 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괄타결안을 제시하였다.¹⁸⁷⁾

- 1) 유엔군측은 휴전기간 중 비행장 건설 또는 복구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는다는 공산군측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는 귀측이 포로와 중립국감시위원단에 관한 아측의 입장을 수락한다는 조건부라는 점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 2) 공산군측이 억류하고 있다고 통고한 약 12,000명의 아군병력과 송환을 반대하지 않고 유엔군측의 수용소 내에 수용되어 있는 약 70,000명의 포로를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포로를 송환한다.
- 3) 중립국감시위원단은 양측이 수락할 수 있는 4개의 중립국 대표로 구성한다.¹⁸⁸⁾

이는 몇주 동안 협상대표와 정책당국자간의 협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한 안이었다. 이때 유엔군측 대표는 이 일괄타결안의 내용에 더하여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을 포함한 휴전협정 초안을 제출하였다.

다음 회의는 공산군측의 제안에 따라 5월 2일에 다시 재개되었다. 남일은 유엔군측 제안을 공박하였으나 하나의 중요한 양보의 말을 끝내었다. 그는 중립국감시위원단의 구성에 있어 지금까지 소련을 참석시켜야 한다는 공산군측의 주장을 포기하고 유엔군측안을 수락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다만 그 전제로 유엔군이 132,000명의 포로를 12,000명의 포로와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군측은 전체를 통틀어 수락하도록 제안한 것이지 개별 내용을 협상의 대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였다.¹⁸⁹⁾ 하지만 사실상 문제는 하나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제 협정의 유일한 장애물은 포로의 송환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느 쪽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유엔군측은 포로송환에 대해 포로는 석방되어야 하나 강제성을 배제하고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에 한해서 상대방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산군측은 포로 각 개개인 의사를 참작하는 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포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라 하더라도 강제송환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맞섰다.¹⁹⁰⁾

따라서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을 주시하면서 본질문제가 아닌 주변적인 술책에 매달리고 있었다. 유엔군측은 비강제송환을 도덕적인 문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공산군측은 포로수용소 내에서 발생한 폭동과 소요를 이용하려 하였다.¹⁹¹⁾

유엔군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과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회담을 계속하면서 적을 수세로 몰아넣는 한편, 아울러 범세계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방안을 갖고 일괄타결안의 본질적 토의를 가급적 피하면서 유엔군측 입장의 정당함을 계속 설득하였다.¹⁹²⁾ 이와 같이 포로문제가 교착상태에 이르자 이는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일괄타결안을 제안한 시점에서 휴전성립의 근본적 쟁점은 포로처리 문제였다. 포로의 처리는 쌍방의 정치적 명분이 걸려 있는 사안이었으며, 군사작전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수 없게 된 전제하에서는 협상의 승리 또는 정치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쟁점이었다. 이때 거제도 포로사건이 위기로 치달아 이 쟁점은 더욱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¹⁹³⁾

제 4 절 捕虜收容所 事件

1. 北韓의 工作과 捕虜 暴動

판문점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1952년도에 접어들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유엔군측의 입장에 대단히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쟁 초기부터 포로수용소에서는 종종 폭동·시위·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큰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공군이 참전한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랐다. 철수시 유엔군은 포로를 즉각 부산주변으로 집결시켰다.¹⁹⁴⁾ 이때(1951.1 현재) 포로의 수가 137,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안보상의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주된 해상 보급 및 증원의 주요 항인 부산지역의 군수작전에 방해가 되었다.

유엔군측은 포로들을 안전하고 그리고 작전에 부담이 없는 곳으로 재배치할 방안을 연구 끝에 결과적으로 남해안의 거제도에 격리수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거제도는 면적이 약 240평방km밖에 되지 않고 숙영지의 건설이나 포로의 처리에 적합한 평지가 거의 없으며 발가벗은 암석지대였다. 그곳에는 이미 200,000명 이상의 주민과 피난민이 거주하고 있었다.¹⁹⁵⁾ 따라서 이 많은 포로를 수용할 적지는 못되었다.

1951년 1월에 4개의 장소를 선정하여 철조망 울타리를 치고 각 구역에는 8개의 막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달 말에는 50,000명의 포로가 거제도로 옮겨졌다. 32개 막사는 각각 700~1,200명의 포로를 수용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실제 그 인원의 5배 가량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¹⁹⁶⁾

실제로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이러한 과밀한 수용에 있었으며 그밖에 경계병의 부족과 경계 미숙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1951년 가을 무렵에는 북한군 130,000명과 중공군 20,000명 도합 150,000명의 포로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이때부터 곧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로 국군 경계병과 포로들과의 알력에서 비롯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포로가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공산군측에서 친공포로들을 조정하여 폭동을 유발시킨데 있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상급관할지휘관인 제2군수사령관은 경계병의 숫자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고 미군부대를 추가로 요청한 결과 1951년 12월에 그 병력이 국군과 미군을 포함 9,000명이 되었지만 포로사건은 심화되었다.¹⁹⁷⁾

수용소에서는 반공포로들과 친공포로들이 과별을 조성하여 수용소

내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세력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을 상호 격리 수용하는 한편 송환 희망포로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포로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1951년 11~12월 2달간 3만 7천 명의 포로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1952년 1월 재조사에 착수하여 2월까지 격렬하게 거부한 제62수용소 포로 5,600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포로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¹⁹⁸⁾ 제62동은 친공포로들이 완전히 장악하여 조사단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2월 18일 오전 조사팀이 조사준비를 하여 제62동에 진입하였을 때 포로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미군 1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포로측에서는 55명이 즉석에서 사망하고 22명이 후에 사망하였으며 140명이 부상당하였다.¹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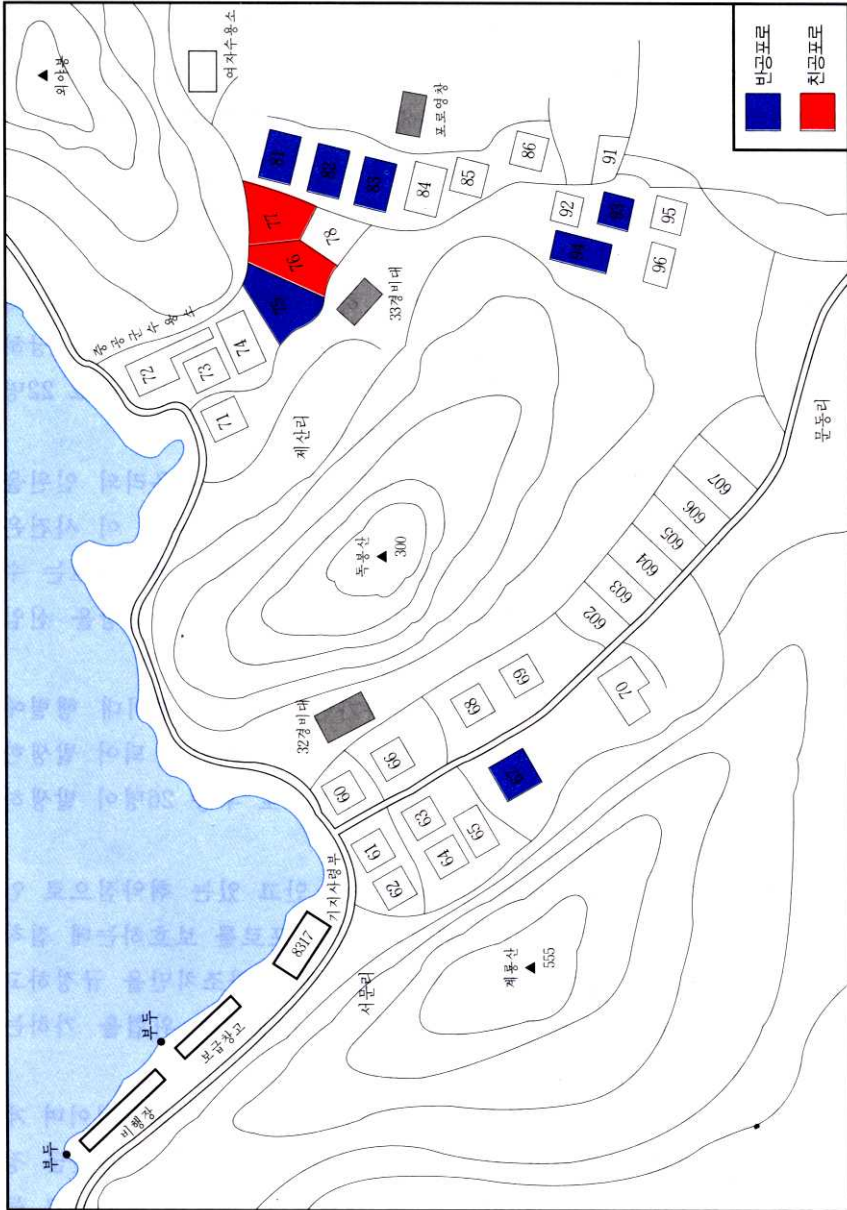
이에 2월 23일 판문점 공산군측 대표단은 “수많은 우리의 인원을 야만적으로 학살한 유혈사건”이라며 항의를 하였다. 분명 이 사건은 유엔군측 대표단에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는 수용소내 규율을 확립하기 위하여 돛드(Francis T. Dodd) 준장을 신입 수용소장으로 임명하였으나, 폭동과 사건은 계속되었다.²⁰⁰⁾

3월 13일에도 포로막사 옆으로 지나가던 포로 및 경비대 행렬에 막사 내의 포로들이 무차별 투석전을 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충돌에서 포로 즉사 10명, 치명상 2명, 부상으로 후송 26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었다.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협약이 안고 있는 취약점으로 인하여 포로를 적절히 다룰 수가 없었다. 이는 포로를 보호하는데 집착한 나머지 포로에 대한 대우와 포로수용국의 제한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포로가 조직체를 형성하여 포로수용국에 위협을 가하는 사태에 대응할 조항은 담고 있지 못하였다.²⁰¹⁾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이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포로로 투항하여 침투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북한군 정치보위부 소속이었는데 그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수용소로 들

거제도 포로수용소 배치도



어간 다음 특별 지시를 수행할 대원을 훈련시키는 것이었고, 들제는 판문점 공산군측 휴전회담 대표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다.²⁰²⁾ 그밖에도 이들은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거제도도 잠입하여 포로지도자들과 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침투하자 친공포로 조직이 결성되기 시작하고 포로수용소 내의 병원은 첩보를 교환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친공포로의 본거지로 활용되었다. 북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은 포로수용소내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배후에서만 활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²⁰³⁾

친공포로의 최고 지휘자는 북한 장교 수용소 제66수용소에 이학구 총좌였다. 뒤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는 북한으로부터 밀명을 받고 일부러 포로가 되어 수용소 내 포로들의 실질적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유엔군은 수용소를 여단 단위로 분류하고 1개 수용소에 5천명에서 1만 명까지 수용하여 대대·중대·소대·분대로 편제하였다. 여단장 밑에는 부여단장과 비서가 있었고 대대에는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서기장이 있었으며, 이밖에 수용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포로경찰인 감찰대가 편성되어 있었다. 당시 이학구는 이름뿐인 포로 지휘관의 뒤에 숨어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포로들을 조종하였다.²⁰⁴⁾

친공포로들이 포로수용소 내에서 조직을 강화하여 세력을 넓혀 나가자 반공포로들이 이에 맞섰다. 자연히 이들간에는 유혈충돌이 발생하였다. 경비병들이 야간에는 수용소 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충돌하였으며 폭행과 살인이 자행되었다.²⁰⁵⁾

수용소 내에서 정훈교육과 직업 및 기술교육이 실시되었다. 친공포로들은 정훈교육에는 극렬히 저항하면서도 철물 제조교육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를 제조하였다. 유엔군의 포로에 대한 보급은 대단히 좋았다. 친공포로들은 이 보급품을 빼돌려 자금을 만들고 이 자금으로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썼다.²⁰⁶⁾

2. 巨濟島 捕虜收容所長의 被拉

1952년 5월 6일 제76포로막사의 포로들은 경비병에 의한 폭행과 수용소 내의 금품수색을 구실로 헌병대대장과의 면회를 요청하였다. 헌병대대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약속받은 포로들은 다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포로수용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dots 준장은 포로명단 작성을 위해 면담에 응하기로 하였다.²⁰⁷⁾

5월 7일 오후에 dots 장군은 제76수용소 출입구에서 포로 대표와 면담 중 일단의 포로들에게 납치되어 인질로서 안으로 끌려들어갔다. 수용소장이 포로들에 의해 계획된 음모에 빠진 것이었다. 피랍은 제2군수사령관을 통해 즉시 제8군사령관에게 보고되었다. 제8군사령관은 승인없이 무력사용에 의한 구출작전은 불허한다는 지시를 내렸으며 미 제2군수사령관은 설득에 의한 구출을 시도하였다.²⁰⁸⁾

한편 포로수용소장 납치에 성공한 포로들은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수용소측의 허락을 받아 포로수용소 내의 모든 포로지도자들을 제76포로수용소 막사로 모이게 하였다. 포로들의 최초요구는 각 막사간에 전화 시설을 갖추고 포로조직을 인정하라는 등 7개 항이었다.²⁰⁹⁾

제8군사령관은 이 사건에 긴급대처하기 위해 미 제1군단 참모장 콜슨(Charles F. Colson) 준장을 신임 수용소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는 콜슨 준장을 통해 dots 준장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서를 포로들에게 전달하였다.²¹⁰⁾ 아울러 콜슨 준장은 수용소 주변에는 기갑부대를 배치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실제로 콜슨 준장은 5월 10일을 목표로 제76포로수용소를 무력진압할 계획을 세웠다.²¹¹⁾

그러나 포로들은 이에 대해 강경히 맞서 다음과 같은 대담한 요구조건을 내세웠다.

- 1) 포로수용소측은 야만적인 행동, 소총·기관총·유독성가스·세균무기 사용 및 원자탄 실험을 중지하라. 그리고 국제법에 명시된 포로의 인권과 개인생활을 보장하라.
- 2)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민군과 중공지원군의 자원송환을 즉각 중지하라.
- 3) 수천 명의 인민군과 중공지원군 포로를 영구히 그리고 불법적으로 채무장시켜 노예로 만드는 강제 조사를 즉각 중지하라.
- 4)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로 구성된 포로대표단을 승인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라. 동 포로대표단은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회신을 접수하면 돛드 장군을 돌려보내겠다.²¹²⁾

리지웨이 장군은 이러한 요구사항과 돛드 장군의 석방에 어떠한 힘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밴플리트 장군에게 이들 포로의 요구사항 특히 가스와 세균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수락하면, 세계여론에 있어 유엔군측의 입장에 헤아릴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급송하였다. 그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지만, 만일 5월 11일 아침까지 개선될 조짐이 없다면 그 포로들에 대한 필요한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강조하였다.²¹³⁾

그러나 콜슨 준장은 제76포로막사를 공격하면 즉시 다른 포로막사에서 대규모 탈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었고 또 무력진압을 위해서는 민간부락을 소개시켜야 하므로 망설이고 있었다. 콜슨 준장은 포로단체를 인정하였지만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재량권 밖의 문제였다. 그는 타결책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포로대표에게 보냈다.

즉, 포로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약속하지만, 인민군과 중공지원군 포로의 자원송환 문제는 판문점에서 토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포로수용소장 권한 밖의 문제이고, 포로의 강제심사나 개인심사는 철회할

수 있으며, 포로대표단 조직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내용이였다.²¹⁴⁾

그러나 친공포로들은 콜슨 준장의 회신에 대하여 확정적인 공약이 못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때 콜슨과 돛드 준장과의 전화통화가 있었는데 돛드는 “포로들이 살해된 적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포로들이 필수적이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콜슨은 돛드의 제의에 동의하고 일단 포로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 1) 본관은 유엔군에 의해 포로가 살해되고 부상당한 유혈사건이 있었음을 시인한다. 그리고 포로들은 앞으로 국제법에 의거하여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관은 권한 내에서 난폭한 행동과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만일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본관이 질 것이다.
- 2)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의 자원송환에 대해서는 판문점에서 토의중에 있으며, 포로수용소장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 3) 포로심사에 대해서는 돛드 장군이 석방된 후에는 포로의 재무장은 물론 강제조사를 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통보한다.
- 4) 포로대표단은 돛드 장군이 동의하고 본관이 승인한 세부사항에 따라서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로써 구성된 조직을 승인한다.²¹⁵⁾

이러한 약속을 얻어낸 친공포로들은 돛드 장군을 5월 10일 저녁 석방하였다. 그러나 콜슨이 포로들에게 한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다. 돛드 준장이 석방된 후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인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²¹⁶⁾은 즉각 콜슨의 협정을 공갈에 의한 것이라고 무효를 선언하였다.²¹⁷⁾ 그는 포로들이 그들 자체 조직 지휘자들의 사주에 의한 폭동의 결과로써 사망하였고, 또 이곳 포로수용소에는 국제적십자사 대표나 기자단 대표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²¹⁸⁾

클라크 장군은 콜슨 장군을 즉각 해임하고 제2사단 부사단장 보트너(Haydom L. Boatner) 준장을 신임 수용소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또한 즉시 거제도 경비대를 증원하도록 명령하여 5월 20일까지 제187공정 연대전투단과 전차 1개 대대를 증강시킴으로써 전체병력이 14,820명에 달하였다.²¹⁹⁾

돗드의 피랍사건은 휴전회담석상에서 공산군측에게 좋은 선전무기가 되었다. 5월 9일 회담석상에서 수석대표 남일은 콜슨의 회신문에 기초하여 “끝없는 일련의 유혈사건이 유엔군측 포로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엔군의 이른바 포로조사라는 것이 공산군측 포로들을 강제로 잡아 두려는 음모임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고 선언하였다.²²⁰⁾

다음날 남일은 “유엔군측은 포획당한 우리의 인원을 강제로 유보시키려고 오랜 기간에 걸쳐 고안한 당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야만적인 조치를 계획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의 그러한 성명은 휴전협상을 지연시키려는 ‘빨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된 선전’이었다.²²¹⁾ 유엔군측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포로들에 대한 인권존중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특히 보급면에서는 오히려 국군의 경비병력보다 양호한 대우를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포로들은 의도적으로 수용소 내에 침투한 공작원의 조종에 따라 휴전협상에서의 공산군측의 입장을 지원하며 유엔군측의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결국 4월 28일 유엔군측에서 제안한 일괄타결안도 포로사건과 맞물리어 타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제 5 절 細菌戰에 대한 舌戰

공산군측은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포로수용소 사건을 정치선전

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도 유엔군측이 만주와 북한지역에 세균전을 감행하였다고 하며 또 다른 선전공세를 펼쳐 유엔군측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였다.

이러한 선전공세는 이미 1951년 5월 북한외상 박헌영이 “미국인들이 북한지역에 천연두균을 살포하고 있다”고 비난의 포문을 연 데서 비롯되었다.²²²⁾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여론화된 것은 1952년 2월 2일 파리의 유엔총회에서 소련 대사 말리크가 북한이 조작한 비난을 되풀이하러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측이 유독성가스를 살포하였다”고 한 그의 연설에서 비롯되었다.²²³⁾ 곧이어 소련의 모스크바 방송은 “유엔군측이 북한지역에 간첩을 보내어 우물에 독약을 넣고 천연두, 장티푸스균을 살포했다”고 주장하였다.²²⁴⁾

2월 하순에 평양과 북경의 방송이 “미국은 지난 1월 28일과 2월 17일 사이에 세균을 지닌 많은 양의 곤충을 북한지역에 조직적으로 투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 비난은 전세계를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신문에 다양하게 게재되었다. 그들은 미국이 대포로 세균을 발사하였으며, 감염된 파리, 달팽이, 설치류 등을 비행기로 투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2월 27일에 발행된 회보를 통하여 그것들을 거짓된 것으로 규정하였다.²²⁵⁾

1951년에 당시 북한지역에는 장티푸스·콜레라·발진티푸스·천연두 등의 전염병이 만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2년에 다시 전염병이 만연된다 해도 공산군측으로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²²⁶⁾ 따라서 공산측의 주장은 다분히 전염병을 유엔군측의 세균전의 결과로서 비난함으로써 이완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계책이었음이 분명하였다.

유엔군측은 즉각 3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세균전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강력히 부인하였으며, 공산군측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다만 한 신문에 유엔군 항공기가 눈이 오는 기후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파리를 평양 북방에 살포하였다고

설명한 사진만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의 선전공세는 3월과 4월에 계속되어 유엔군측이 병균에 감염된 거미, 벼룩, 탄저병균을 전염시키는 갑충과 들쥐를 투하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기세를 돋우었다.²²⁷⁾ 3월 7일 북경 라디오 방송은 2월 28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미 항공기가 한만 국경선에 전염병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곤충과 병든 해충을 투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공수상 주은래도 다음날 미국에 대한 경고방송을 하였다. 그는 미국이 중국영토의 침입, 세균전의 이용, 그리고 무분별한 폭격과 기총소사에 의한 중국인민의 살인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였다.²²⁸⁾

리지웨이 장군은 3월 4일의 세균전에 대한 비난이 일반적인 선전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구체적인 비난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적은 국내 청중을 위해서나 세계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단순히 선전을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적은 그들의 영토 내의 전염병을 은폐시키기 위한 연막차장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셋째, 적은 세균전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 세균전의 실시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²²⁹⁾

1952년 3월에 노르웨이의 수도에서 열린 ‘세계평화회의 집행위원회’에서 중공과 북한 대표는 이 기구에 과학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만주와 북한에 보내어 진상을 파악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친공산권 인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3월 14일 말리크 유엔주재 소련대사는 다시 미국이 세균전을 전개하였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3월 20일 중공의 신화사 통신은 세균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사진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 사진들은 미국이 투하했다는 한 줌의 병든 곤충을 제시하였으며, 세균폭탄이라고 주장한 것을 그린 것들이었다. 과학 및 군사전문가들은 이들 주장을 세균폭탄은 미 공군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할 때

사용한 폭탄과 사실상 같은 형태의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완전한 사기라고 반박하였다.²³⁰⁾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의 주장이 증거제시가 없는 사실무근한 주장이라고 부인하였다. 또한 유엔 참전국들도 공산군측이 터무니없는 선전을 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측의 계속되는 선전공세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동요하는 기미를 보이자 유엔군측은 사태수습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진상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의하였다. 공산군측은 국제적십자사가 미국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이유를 거부하였다. 공산군측의 세균전 주장이 계속되자 변영태 외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²³¹⁾

최근에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이 세균전을 하였다고 연일 선전을 하고 있다. (중략) 이러한 선전 모략의 동기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데도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민중의 원성을 사게 되자 이를 타인에게 전가하자는데 있다. (중략) 공산군측이 국제적십자사의 공정한 조사를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4월에도 국제적십자사는 중공과 북한이 비난한 것과 관련하여 그들의 영토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적은 미국이 거제도의 공산군 포로에게 세균전 무기를 시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투쟁을 확대해 나갔다.²³²⁾ 5월에 접어들면서 공산군측은 지난 1월에 격추당한 두 명의 미군 조종사로부터 세균폭탄을 북한에 투하하였다는 자백을 만들어 내었다. 유엔군측은 그 자백문을 공산군들이 부르는 대로 받아 썼으며 협박하에 서명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되받았다.

공산군측의 세균전과 관련된 선전은 뚜렷한 상황설명이나 물증이 없어 더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잠잠해졌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포로폭동이 점차 확대되면서부터 세균전을 다시 선전자료로서 이용하였다. 5월 15일 공산군측 수석대표는 평양시와 선천군 일대에 유엔군측

이 세균을 살포하여 중공군이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³³⁾ 이에 대하여 클라크 사령관은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서 화생방전을 기도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선수치는지도 모른다고 역공세를 가하였다.²³⁴⁾

공산군측의 허세를 중지시키려는 노력에 실패하자 미국의 유엔대표 그로스는 6월 18일 국제적십자사와 국제적인 과학자들로써 세균전 비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결의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였다. 그 결의안은 소련의 거부권에 의해 부결되었다.²³⁵⁾

중공은 세균전 조사를 위한 ‘국제과학위원회’를 구성, 1952년 7월에 현지를 조사하여 작성했다고 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친공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총 50건의 사건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중공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균전에 관한 기록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²³⁶⁾ 특히 상기위원회가 내놓은 증거는 소련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은 전염병 방역 특수대원들이 미리 세균전 증거들을 뿌려두고 조사위원회를 그곳으로 안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²³⁷⁾

이처럼 1952년 여름 공산군측은 세균전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켜 유엔군측을 궁지에 빠뜨리려 하였다. 심지어 유행성감기도 유엔군이 살포한 세균 때문이라고 선전하였다.²³⁸⁾ 이러한 공산군측의 세균전 선전은 1952년 여름이 지나면서 유엔군측이 공중포격을 재개하고 아울러 세계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유아무야 되었다.

결국 공산군측의 세균전 주장은 대내적으로 만연되고 있던 전염병을 유엔군측의 세균전 결과로서 책임을 전가하여 국내 전열을 정비하고, 다른 한편 세계여론을 이용하여 당시 진행중인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측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날조된 주장은 끝내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주 기

-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p. 137.
- 2)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6권, 1987, p. 355.
- 3) 위의 책, pp. 351~352.
- 4)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 C : GPO, 1966), pp. 283~284.
- 5) 위의 책, p. 94.
- 6) 위의 책, p. 200.
- 7) 육사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p. 576.
- 8)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1994, p. 53.
- 9) U.S. Army, *Korea : 1951~1953*, USGPO, 1956, p. 205 ;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5권, p. 234.
- 10)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968, p. 128.
- 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7권, 1974, p. 479.
- 12)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27. 중공의 공간사에는 이에 대해 “중대급 이하의 분대 단위가 정찰과 역정찰, 매복과 역매복, 기습과 강습 등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유엔군의 진영에 소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력부대의 진지공사를 엄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p. 65.
- 13)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 haper & Brothers, 1954), p. 96.
- 14) 육군본부(역), 『한국전쟁』 제9권, p. 65.
- 15) 『중공군의 한국전쟁』, p. 64.
- 16)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31.
- 17) 안용현, 『한국전쟁비사』 제4권, 경인문화사, 1992, p. 105.
- 18)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27.
- 19) 『한국전쟁 휴전사』, p. 140.

- 20)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 96.
- 21) 북한 사회과학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7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 121~122.
- 22)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 97.
- 23)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29.
- 24) 위의 책, pp. 130~131.
- 25) 육사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p. 576.
- 26) 위의 책, p. 577.
-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7권, p. 479.
- 28) Max Hastings, *The Korean War*(New York : Simon and Schuster, 1987), pp. 272~273.
- 29) 『중공군의 한국전쟁』, p. 65.
- 30)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35.
- 31) 미 육군성전문 제4170호, 육군본부(역), 『한국전쟁』 제9권, p. 65 재인용.
- 32) 육군본부(역), 『한국전쟁』 제9권, p. 65.
- 33) 육사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p. 578.
- 34)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188~192.
- 35) 위의 책, p. 279.
- 36) 육군본부(역), 『한국전쟁』 제9권, pp. 65~66.
-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7권, pp. 17~18.
- 38) 위와 같음.
- 39)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p. 130~131.
- 40) 제12연대 제2대대 제5중대장 김영준 대위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7권, p. 609.
- 41) 위의 책, pp. 588~595.
- 42) 제15연대장 김진위 대령 증언, 위의 책, p. 609.
- 43) 위의 책, pp. 595~608.
- 44) 제7사단은 938-1090(남)-1220-905고지 선에서 주저항선을 설치하고 압동-1090고지(북) 부근고지에서 적과 대치중이었다.
- 45) 제3연대 제1중대장 이석철 중위, 위의 책, pp. 576~577.

328 제 3 장 軍事狀況의 小康과 休戰協商의 膠着

- 46) 위의 책, pp. 561~569.
- 47) 위의 책, pp. 569~576 ; 육군본부, 『전사연구』 제9집, pp. 37~47.
- 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요약』, p. 153, p. 180.
- 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pp. 9~11.
- 50) 위와 같음.
- 51)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35.
- 52) 연대 작전주임장교 조성준 대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p. 500.
- 53) 제3대대 중화기중대 81mm 박격포 사수 진일식 일등수병 증언, 위의 책, p. 500.
- 54) 연대 작전주임장교 조성준 대위 증언, 위의 책, p. 500.
- 55) 위의 책, pp. 493~499.
- 56) 『한국전쟁요약』, p. 164.
- 57) 육군본부, 『전사연구』 제9집, pp. 267~277.
- 58) 제23연대 수색중대 제1소대장 김치국 소위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7권, p. 586.
- 59) 위의 책, pp. 578~585.
- 60) 위의 책, p. 134.
- 61)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5권, p. 234.
- 62) 육군본부(역) 『한국전쟁』 제9권, p. 79.
- 63)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39.
- 64) 위의 책, p. 143.
- 65)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15.
- 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p. 183.
- 67) 위의 책, p. 184.
- 68) 『한국전쟁 휴전사』, p. 143.
- 69) 위의 책.
- 70)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13호(1951.11.25).
- 71) 『대비정규전사』, p. 186.
- 72) 육군본부 작전계획 제26호(1951.11.16).

- 73) 『대비정규전사』, p. 190.
- 74)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32.
- 75) 『대비정규전사』, pp. 192~200 ;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32.
- 76) 『대비정규전사』, pp. 200~208.
- 77)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32.
- 79) 위의 책, pp. 215~217.
- 80) 『한국전쟁 휴전사』, p. 142 ;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의 증언에 의하면, 작전기간중 공비귀순자가 많이 발생하고 부대의 피습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양민의 민심을 얻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진술하고 있다. 『한국전쟁비사』 제4권, p. 120.
- 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7권, p. 479.
- 82)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27.
- 83) 육사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p. 579.
- 84) 『한국전쟁 휴전사』, p. 146.
- 85)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192.
- 86) 『한국전쟁 휴전사』, p. 146.
- 87)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41.
- 88) 위의 책, p. 141.
- 89) 위와 같음.
- 90)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pp. 900~904. 적의 이러한 작전에도 불구하고 적은 아군에 비해 큰 손실을 입고 있었다. MIG-15전투기는 1952년 4월에 44대, 5월에 32대가 격추된 데에 비해 유엔전폭기는 1951년 1월과 6월 사이에 불과 8대만이 격추되었다.
- 91) 위의 책, pp. 876~879. 이날 6대의 F-51 전폭기는 폭탄 12발과 로켓탄 20발을 목표에 집중하고 도합 4,700발의 기총세례로써 철교 2개의 경간을 완파하고 2개의 경간을 강타하는 한편, 포진지 6개소와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비롯하여 병커 3개소와 건물 1동을 완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제10전투비행전대장 김신 대령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7권, p. 695.
- 92)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27.

330 제 3 장 軍事狀況의 小康과 休戰協商의 膠着

- 93) 육군본부(역), 『한국전쟁』 제10권, p. 119.
- 94) 『한국전쟁 휴전사』, p. 146.
- 95)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41.
- 96)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5권, p. 245.
- 97) 육사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p. 579.
- 98) 『중공군의 한국전쟁』, p. 61.
- 99) 1952년 3월 19일 뱀플리트 서한, 육군본부(역), 『한국전쟁』 제10권 p. 65 재인용.
- 100)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41.
- 101) *FRUS*, 1951, Vol. 7, p. 1187 ; 위의 책, p. 94.
- 102) *FRUS*, 1951, Vol. 7, p. 1188 :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95.
- 103) 『한국전쟁 휴전사』, p. 150.
- 104)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93.
- 105)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96.
- 106)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93 ; 『한국전쟁 휴전사』, p. 151.
- 107) 『한국전쟁 휴전사』, pp. 152~153.
- 108) 위의 책, p. 154 ;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93.
- 109) *FRUS*, 1951, Vol. 7, p. 1229 ;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96.
- 110)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93.
- 111) 위의 책, p. 94.
- 112) 위의 책, p. 94.
- 113) 『한국전쟁 휴전사』, pp. 157~158.
- 114)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97.
- 115) 위의 책, pp. 97~98.
- 116) 『한국전쟁 휴전사』, p. 159.
- 117) 위의 책, p. 160.
- 118) 위의 책, p. 163.
- 119) 『한국전쟁 휴전사』, p. 165.
- 120) 위의 책, p. 165.
- 121)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04.

- 122) 위의 책, p. 104.
- 123) 『한국전쟁 휴전사』, p. 167.
- 124)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08.
- 125) 육군본부(역), 『한국전쟁』 제10권, p. 173.
- 126) 『한국전쟁 휴전사』, pp. 167~168.
- 127)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09. 참모장교회의 임무는 합분위의 합의사항을 성문화하는 것과 인원의 교체 장비의 보충보급, 출입항의 선정, 중립국 감시반의 구성과 감시요령 그리고 연안도서로부터의 병력철수문제 등을 토의하는 것이었다. 같은 책, p. 168.
- 128) 위의 책, pp. 147~148.
- 129) 국방부 전편위, 『한국전쟁연구』 제2집, 1966, p. 455.
- 130)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p. 149~153.
- 131) 공산군측 감시출입항으로서는 신의주·청진·만포진·홍남·신의주, 그리고 유엔군측 감시출입항으로서는 부산·인천·강릉·군사·대구가 각각 선정되었다.
- 132) 위의 책, p. 126. 제네바 소재 국제적십자사는 한국전쟁 발발시에 교전당사자들에게 한국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미국은 국제적십자사에 상병포로 협정과 제네바협정의 상충에 따른 법의 적부에 관계없이, 협정의 인도적인 원칙 특히 제네바협정 제3조에 따를 것”이라는 보장을 하였다.
- 133)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135~136.
- 134) 『한국전쟁 휴전사』, p. 172.
- 135) 육군본부(역), 『한국전쟁』 제10권, p. 196. 유엔군측은 1950년 9월과 10월 중에 적이 많은 국군 포로를 만주로 이동시켰다고 비난하였다. 이들 포로들은 얼마간의 정치교육을 받은 후 북한군 제6, 제7, 제8군단에 배속되었다. 적은 전 국군을 30% 이상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1951년중 유엔군에 대항하여 억지로 싸워야만 하였다. 1950년 12월부터 1951년 8월까지의 한국군 포로는 북한군 제2, 제3, 제5군단에 배속되었다. Msg, CINCFE 64762 to DA for JCS, 5 Mar 52, DA IN 112454.
- 136)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28.

- 137) 『한국전쟁 휴전사』, p. 172.
- 138)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141.
- 139)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29 ;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04.
- 140) 『한국전쟁 휴전사』, p. 175. 일본인은 후에 미국 국적으로 판명되었다.
- 141)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04.
- 142) 위의 책, p. 123.
- 143)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97.
- 144) 『한국전쟁 휴전사』, p. 176.
- 145)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05 ; 『한국전쟁 휴전사』, p. 177.
- 146) 『한국전쟁 휴전사』, p. 178.
- 147)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31. 과거 대한민국인으로 재분류된 이들에 관한 유엔의 입장은, 유엔군사령관이 재분류된 이들의 완전한 명단을 워싱턴으로 제출하면서 적이 그것을 통고받을 수 있도록 제네바 주재 국제적십자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그 명단이 국무성에 의해 1951년 12월 26일까지 제네바로 실제 통보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 이리하여 적은 이 사람들에게 대한 토의가 시작되었을 때 이들이 포로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고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 148) 『한국전쟁 휴전사』, p. 179 ;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32.
- 149)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06.
- 150) 『한국전쟁 휴전사』, pp. 180~181.
- 151)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34
- 152) 위의 책, p. 198 재인용.
- 153) 『한국전쟁 휴전사』, pp. 181~182.
- 154)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39.
- 155) 이것은 비행장 문제(의제 제3항)의 토의를 연기하고 다른 의제의 토의를 진행하려는 제안과 관계되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공산군측이 받아들일 것인지 의심하였으나, 동의할 수도 있다는 기대하에, 유엔군측이 즉각 다른 의제의 합의를 목표로 태도를 바꾸어 새로운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Msg CINCFE CX 61505 to DA

for JCS, 12 Jan 52, DA IN 19740).

- 156) 『한국전쟁 휴전사』, p. 182.
- 157)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54.
- 158) 『한국전쟁 휴전사』, p. 185.
- 159)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55.
- 160) 위의 책, pp. 154~156.
- 161) 위의 책, p. 156.
- 162) 위의 책, pp. 198~199 재인용.
- 163) 위의 책, p. 156.
- 164) 위의 책, p. 170. 이 항은 극동군사령관이 합참으로 제출한 협상 일일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 165) 『한국전쟁 휴전사』, p. 187. 의제 제5항에 관한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리지웨이 장군에게 왜 유엔위원단 방식이 정치회담보다 더 좋은지 설명하였다. 첫째, 회담이 확대되어 한국문제 이외의 다른 주제를 포함할 위험을 피할 것이며, 둘째, 유엔의 노력에 보다 큰 융통성을 부여할 것이라 하였다.(Msg, JCS 900323 to CINCFE, 5 Feb 52).
- 166)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14.
- 167) 위의 책, p. 115. 이때 유엔군측 대표단의 교체가 있었다. 후랜바후 대신 해리슨을, 이형근 대신 유재홍을 각각 임명함으로써 이들이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 168)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45 ;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15.
- 169) 『한국전쟁 휴전사』, p. 189.
- 170) 위의 책, p. 189.
- 171) 위의 책, pp. 194~195.
- 172)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16.
- 173) 위의 책, p. 116.
- 174) 『한국전쟁 휴전사』, p. 196.
- 175) 위의 책, p. 204.
- 176)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63.

334 제 3 장 軍事狀況의 小康과 休戰協商의 膠着

- 177) 『한국전쟁 휴전사』, p. 205.
- 178) 위의 책, p. 206.
- 179)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64.
- 180) 위의 책, p. 165.
- 181) 『한국전쟁 휴전사』, p. 206.
- 182)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65.
- 183) 위의 책, p. 172.
- 184) 위의 책, p. 177.
- 185) 위의 책, p. 178.
- 186) 유엔군측의 7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관심은 4월 17일 합동참모본부로 “북한인 포로와 중국인 포로의 최대인원을 강제송환하지 않고 공산측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했을 때 명백히 표명되었다.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538.
- 187) 위의 책, p. 186 ; 『한국전쟁 휴전사』, p. 207.
- 188) 『한국전쟁 휴전사』, p. 207.
- 189) 위의 책, p. 131
- 190) 위의 책, p. 210.
- 191)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232.
- 192) 위의 책, pp. 233~235.
- 193) 위의 책, p. 188.
- 194) 포로수용소는 부산을 비롯하여 서울, 인천, 수원, 원주, 논산, 이리, 광주, 영천, 마산 등에 위치하였으며 그밖에 전국적으로 임시수용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 195)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67.
- 196)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61.
- 197) 위의 책, p. 162.
- 198) 위의 책, p. 162 ;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p. 170~171.
- 199)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62.
- 200) 위의 책, p. 162.
- 201)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68.

- 202) 위의 책, p. 169.
- 203)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p. 50~51. 유엔군사령부는 거제도 및 기타 지역 포로수용소에서의 폭동과 다른 문제들이 공산군 고급사령부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지시는 고도로 훈련된 첩자에 의하여 포로수용소로 전달되었다.
- 204)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p. 168~169 ; 제83수용소 여단장 이관순 증언, 육군본부, 『판문점』(상), 1972, p. 260 재인용.
- 205) 『한국전쟁 휴전사』, p. 213.
- 206) 위의 책.
- 207)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74.
- 208) 위와 같음.
- 209) 위의 책, p. 176.
- 210) 『한국전쟁 휴전사』, p. 216.
- 211) 위와 같음.
- 212) 위의 책, pp. 216~217 ;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91.
- 213)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91. 리지웨이 장군은 이 조치에 대하여 자신의 저서에서는 “전쟁포로가 나의 으뜸가는 관심사였지만, 그들의 취급권한은 육군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주책임은 밴플리트 장군에게 있었으므로 나는 곧 그에게 그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다”로 하였다.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1967, pp. 210~213.
- 214)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77.
- 215) 『한국전쟁 휴전사』, pp. 217~218.
- 216) 클라크 장군의 임명은 나토군사령관 아이젠하워 원수가 1952년 11월로 예정된 차기 미국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내정되어 퇴역하게 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리지웨이 장군이 임명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 본토 지상군사령관인 클라크 대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5, 제15군 사령관을 역임하여 야전경험이 풍부하고 전후 오스트리아 강화조약에 마셜 미 국무장관 대리로서련측과 직접 협상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1952년 5월 12일 유엔군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178 ;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90.

336 제 3 장 軍事狀況의 小康과 休戰協商의 膠着

- 217)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92. 당시 리지웨이 장군이 보유한 지휘 관직은 극동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극동육군사령관, 류큐열도사령관이었으며, 1952년 4월 28일 일본평화조약 조인으로부터 연합군총사령관 직위는 없어졌다.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30~34.
- 218)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92.
- 219) 위의 책, p. 193.
- 220) 『한국전쟁 휴전사』, p. 219.
- 221)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193.
- 222) David Rees, *Korea : The Limited War*(London : Macmilan, 1964), p. 354.
- 223)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225.
- 224) 『한국전쟁 휴전사』, pp. 201~202.
- 225)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226.
- 226) 『한국전쟁 휴전사』, p. 202.
- 227) 위와 같음.
- 228)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226.
- 229) 위의 책, p. 227.
- 230) 위의 책, p. 229.
- 231) 『한국전쟁 휴전사』, p. 203.
- 232)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230.
- 233) 『한국전쟁 휴전사』, pp. 203~204.
- 234) David Rees, *Korea : The Limited War*, p. 358.
- 235) 위의 책, p. 230.
- 236) *Korea : The Limited War*, p. 359.
- 237) 위의 책, p. 359.
- 238) 『한국전쟁 휴전사』, p. 204.

제 4 장 休戰協商의 決裂과 軍事作戰의 再開

제 1 절 戰爭 두 들의 軍事狀況

1952년 후반기에도 쌍방은 전 전선에 걸쳐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으나 대규모의 전면공세를 실시할 태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휴전 회담장에서는 서로 유리한 휴전조건을 쟁취하려는 협상이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쌍방은 그 결과를 주시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6월 초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지역에서 소규모 제한공격인 소위 카운터(Counter) 작전을 실시하여 미 제45사단이 진 지정면의 주요 감계고지를 점하고 있는 적의 전초들을 탈취한 후 방어진지를 강화하였다.

그 작전의 결과 아군은 역곡천 북안의 백마(White Horse)고지(395), 화살머리(Arrowhead)고지(281), 티본(T-Bone)고지(290)와 역곡천 남안구릉의 포크참(Porkchop)고지(255), 불모(Old Baldy)고지(266) 등 11개 목표를 장악하여 전초진지를 강화하였으며, 이로써 차후 보다 유리한 지형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적의 역습이 시작됨에 따라 이들 중 중요 전초에서의 쟁탈전은 계속되었고, 이어 전 전선에 걸친 전초진지 쟁탈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전투는 대체로 피아간에 주진지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보다 유리한 전초진지를 장악하여 각기 방어태세를 강화하려는데 주안이 있었다.

1952년 후반 아군과 공산군의 전선 부대배치 상황은 다음과 같다. 7월 초 아군은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이 미 해병제1사단(배속: 국군 해병제1연대)·영연방 제1·미 제3·미 제2사단 등 4개 사단을 작전통제하여 개성 서남방의 서해안으로부터 철원 서북방에 이르기까지의 주저항선을 담당하였다.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이 국군 제9·미 제7·국군 제2·미 제40사단(예비) 등 4개 사단으로써 금성 방면을, 그 우측에 국군 제2군단이 국군 제6·수도사단·국군 제3사단 등 3개 사단을 통제하여 화천 방면의 전방 주저항선을 각각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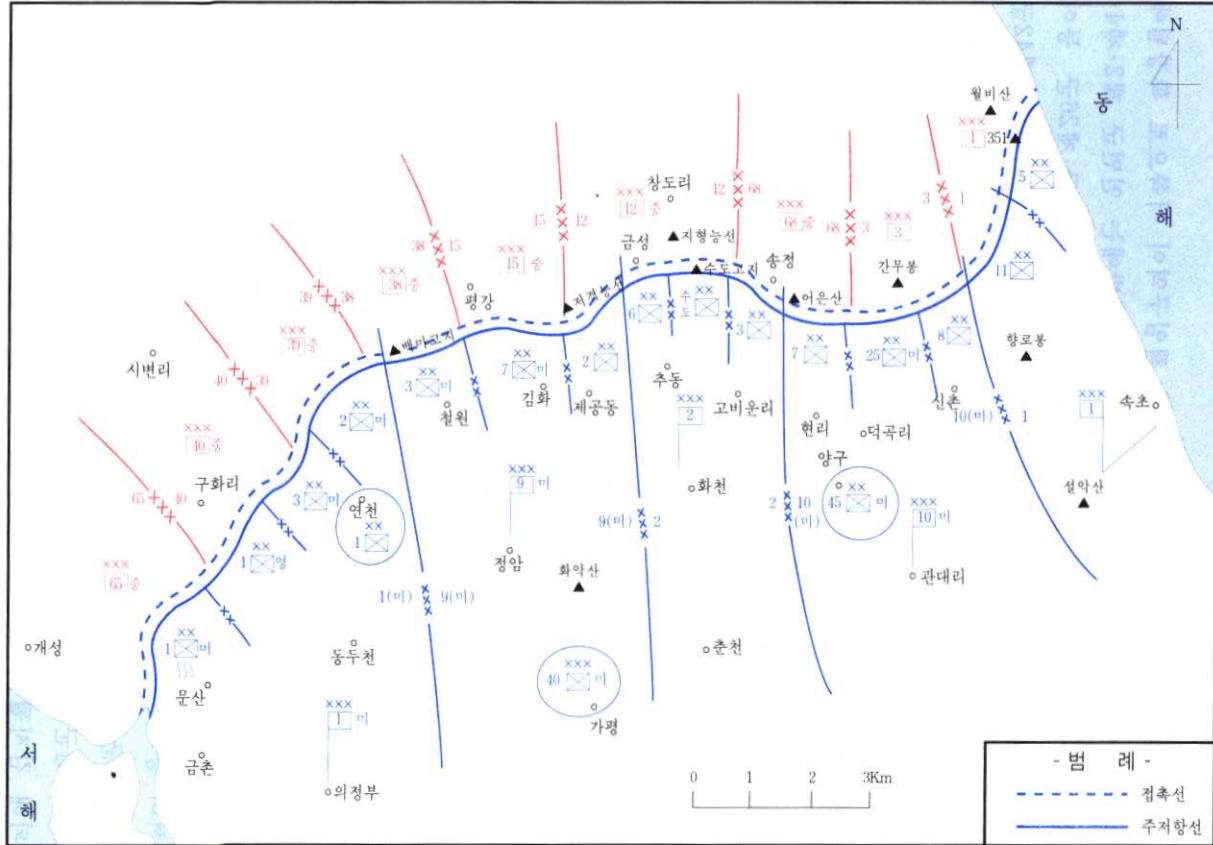
중동부전선에서는 미 제10군단이 국군 제7·미 제25·국군 제8·미 제45사단(예비) 등 4개 사단으로써 양구 북방의 방어를, 그리고 최동단에는 국군 제1군단이 국군 제11·제5사단 등 2개 사단으로 동해안까지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선에 배치된 전력은 총 5개 군단의 17개 사단 규모였다¹⁾(국군 제1사단은 1952. 7. 6~8. 1 후방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군단내에서는 부대이동이 실시되어 9월 27일 미 제10군단 예하 국군 제8사단이 미 제45사단과 교대하여 부대교육에 임하고, 10월 2일 미 제1군단 예하 국군 제1사단이 미 제3사단과 교대하여 전선에 투입되었다. 또한 동월 25일에는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40사단이 미 제25사단 지역을 인수하고 미 제25사단은 예비로 전환되었다.²⁾

반면 공산군의 배치는 7월 초 현재 서부전선 일대에 중공군 제65·제63·제40·제39군 4개 군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중서부전선에 중공군 제39·제38·제15군이 그리고 중동부전선 일대에 중공군 제68군과 인민군 제2군단 예하 제13·제27사단이 각각 배치되었다. 동시에 동부전선에는 인민군 제3군단 예하 제45·제15·제1사단과 인민군 제1군단 제47사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적의 최일선부대는 중공군 8개 군 24개 사단과 인민군 3개 군단 예하 9개 사단 총 33개 사단이었다. 제2선에는 중공군 3개 군 9개 사단과 인민군 1개 사단 등 총 10개 사단과 동서해안에 배치된

1952년 하반기 전선상황(1952. 9. 1)



인민군 5개 군단 및 중공군 6개 군 등 11개 군(군단)이 후방에 배치되어 있었다.³⁾

8월경 인민군 제2군단은 제3군단의 책임구역이 서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후방으로 이동하였으며⁴⁾ 그에 따라 후방에는 인민군 제2·제4·제5·제6·제7·제8군단과 중공군 제42군·제64군·제47군·제26군 등이 부대재편과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⁵⁾ 국군 정보분석에 의하면, 제42군은 그다지 큰 손실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동해안 지역으로 이동한 후 신병훈련과 동시에 해안경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⁶⁾

한편 중공군은 9월과 10월에 전선 인수를 위해 입북한 제23·제46·제24군을 제38·제40·제15군 작전지역으로 각각 투입하여 방어임무를 교대시켰으며, 제12군을 동해안 방면으로 이동시켜 해안 방어력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1. 共產軍의 軍事力 增強

전선이 교착된 상황하에서 공산군측의 군사력은 날로 보장되고 있었다. 1952년 7월 초 적은 중공군 63만 명, 북한군 28만 명 총 91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9월에 이르러서는 1,008,900명으로 증가되었다.⁷⁾

결과적으로 적 병력은 회담이 개시된 이래 10개월 동안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거의 1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적이 회담기간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은 10월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 972,000명으로 감소되었다가 다시 11월에 지상전투가 감소되면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⁸⁾

공산군측은 병력뿐만 아니라 포병화력도 대폭 증가시켰다. 그 사실은 유엔군 진지로 날아오는 모든 구경의 포탄수가 늘고 있다는 것에 의해 감지될 수 있었다. 적은 1952년 4월 전선에 710문의 야포를 보

유하고 있던 것이 6월 말경에는 884문으로 증가시켰으며 포술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또한 그들은 진지의 위치를 바꿔가며 포격함으로써 유엔군의 대포병사격을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적의 포병사격능력은 일일 8,000발에서 43,000발로 증가되었으며, 1952년 말까지 공산군측은 소련으로부터 10개 고사포대대의 장비를 보충받았다.⁹⁾ 그러나 포병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엔군이 단연 압도적이었다.¹⁰⁾

공산군은 포병의 증강 이외에도 1952년 7월에 520대의 전차 및 자주포로 장비한 중공군 2개 기갑사단과 인민군 1개 기갑사단 및 2개 기계화사단을 전선에 배치할 정도로 전력을 증강시켰다.

한편, 적의 공군력에도 유사한 변화가 진행되어 총 500기로부터 1,250기로 대폭 강화되었다. 제트전투기도 450대에서 800대로 증가되었으며 이에는 중국에 전개된 400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1952년에 들어와 적은 공군 2개 전투사단을 4개 사단으로 증가하고 겸하여 1개 폭격사단을 새로이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적 공군은 북한 상공에서나마 아군 폭격기대에 활발하게 도전해 오기 시작하였다.¹¹⁾

이 무렵 모택동(毛澤東)이 공중전의 강화를 역설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들의 비밀전문에 의하면, 그는 김일성이 그 자신에게 “공군의 행동반경을 단지 압록강선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이를 평양 근교까지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수도의 군사시설 및 산업시설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 준비된 야간폭격 편대를 적진 깊숙히 투입시켜 비행장, 보급품, 집결지 등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또한 공중전을 과감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전문을 그대로 스탈린(Joseph V. Stalin)에게 긴급 타전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스탈린은 북한의 어려운 사실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¹²⁾

한편 적은 오랫동안의 교착된 기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군수문제도 크게 개선시켰다. 당시 국군 정보보고에 의하면, 적의 군수상황은 유엔 해·공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한국전선에 투입된 이래

어느 때보다 더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¹³⁾ 인민군에 충당되고 있던 모든 보급품은 소련·중공·동독·몽고·헝가리 기타 소련 위성국가로부터 추진되고 있었다. 연료 역시 소련으로부터 보급을 받고 있었으나 그 양은 부족한 편이었다.

적의 장비보급 중 가장 부족한 것은 통신장비 부문이었다. 그것은 당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지원요청 전문에 “현재 공산군은 통신장비가 지극히 부족하다. 그것은 소련과 중공에서 전혀 추가 지원된 적이 없으며 현재 어느 곳에서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한데서 확인된다.¹⁴⁾

대체로 적 병력의 주부식은 1일 1인당 800~1,000g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며,¹⁵⁾ 적이 주요 지상작전을 전개할 경우 5~10일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보급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1952년은 공산군이 병력·화력·공군력·방어진지 등 모든 면에서 대폭적으로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전선에는 그들이 전면적인 대공세를 준비한다는 징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산군 측은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었지만, 그것이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들은 유엔군측이 제시한 휴전조건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차후 공세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었다.

2. 유엔軍의 戰力 再整備와 國軍의 戰力 向上

정부는 1952년 초부터 휴전과 유엔군의 철군이 예상되자 휴전후의 국방을 고려하여 국군의 증강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방부는 1952년 4월 5일에 국군 제2군단을 재창설한 데 이어 육군의 규모를 10개 사단에서 20개 사단으로 증편하려는 계획을 재추진,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¹⁶⁾ 한국 유엔대표단도 미국이 추가로 10개

사단의 무장을 지원해 주고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었다.¹⁷⁾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1년전인 1951년 4월 24일에 이와 비슷한 안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미국 합참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이 국군의 증강을 지지하게 되고 1952년 5월 유엔군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에 따라 비로소 증강 계획은 실현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는 부임 직후 다음과 같이 국군의 증편을 강조하였다.¹⁸⁾

나는 극동군사령관으로 첫번째 보고를 받은 후 우리가 한국육군을 최대한도로 증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중략) 아울러 한국군



국군 제2군단 창설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과 밴플리트 제8군사령관

의 기술이 허용하고 장비가 가용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군과 해군 부대도 증강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은 앞으로 전체 실링은 20개 사단을 위해 소요되는 숫자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그 숫자는 655,000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¹⁹⁾ 즉, 확장안은 “자국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능력이나 한국 단독의 자체 증강계획과는 관계없이 다만 군사적 필요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²⁰⁾

국군의 증강안과 관련하여 그는 먼저 6월 19일 국군의 병력 실링을 우선 종전의 250,000명선에서 363,000명선으로 상향 조정할 복안 하에 군증원병력 92,100명과 추가로 경찰의 치안유지를 보강하기 위한 6개의 경보병연대 병력 9,458명에 대한 지원을 즉각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4일 후인 6월 23일 그는 전선상황을 검토한 후 밴플리트 장군과 토의를 거쳐 한국육군 2개 사단을 추가로 창설함과 더불어 병력을 415,046명으로 확장할 것을 건의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유엔군의 방어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엔군 예비의 확보는 바로 국군의 확장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 무렵 정부에서도 국군 증강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도모하고 있었다. 그중의 하나로 6월 18일 양유찬(梁裕燦) 주미대사가 먼저 미 국방부와 의회에 “한국 공군양성 3개년 계획” 상정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심의를 맡은 미 합참은 한국육군을 종전대로 묶어 두고 대신 공군과 해군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²¹⁾

그러나 7월 17일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Lawton J. Collins) 대장의 방한(訪韓)을 계기로 제8군과 극동군 당국이 역설한 한국육군 증강안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미 합참에서는 육군 2개 사단 증강계획이 다시 토의되었다. 그 결과 콜린스 장군은 “극동군사령관이 요청한 한국 육군의 증강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하

였다.²²⁾

그 동안 육군본부는 제8군과 협의를 거쳐 카투사의 정원을 27,000명으로 증강(미 7개 사단과 영연방 사단에 각 2,500명, 기타 전투지원부대에 7,000명)하고 사단창설에 따르는 인력보충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²³⁾

미 합참은 양유찬 대사가 제의한 공군 양성계획과 클라크 대장의 지상군 증강계획을 일괄 재검토한 후 공군을 당분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육군과 해병대 및 카투사의 실링을 종합하여 463,000명으로 책정하여 9월 하순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²⁴⁾

군수상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합동참모본부는 국군의 증강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이 한국육군 12개 사단과 6개 독립연대 그리고 한국육군과 해병대의 전체 실링 463,000명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인가하기 위한 필요한 승인을 받아주기를 건의한다.

미 합참의 국군 증강안은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미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다.²⁵⁾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는 예비 비축품과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에서 각각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52년 10월 말 한·미 양 정부는 한국육군의 병력수준을 250,000명에서 463,000명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동년 11월 말부터 사단을 증편하기 시작하였다.²⁶⁾

이 무렵 한국공군은 4천의 병력과 F-51 17대, 기타 경정찰기, 수송기 및 훈련기 29대를 보유하였으며,²⁷⁾ 해군은 1만 6천의 병력과 50여 척의 정찰정, 소해정, 상륙용주정을 보유하였다. 해병대는 1952년 10월 1일 제1연대와 지원부대를 통합하여 해병제1연대전투단을 창설하고 도서부대를 꾸준히 발전시켜 연대규모로 증강하였다.²⁸⁾

육군본부는 국군의 증강안에 따라 10월 말 제12, 제15 2개 사단과

6개 독립연대의 창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12사단과 3개 독립연대(제53, 제55, 제56연대)는 12월 말 작전에 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15사단과 나머지 3개 연대(제57, 제58, 제59연대)는 늦어도 이듬해 1월 말까지 전선투입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²⁹⁾

육군은 이미 4월 28일 3개의 경장비연대(제37·제38·제39연대)를 창설한 바 있는데 그중 제38, 제39 양 연대는 창설과 동시에 포로수용소 경비에 임하고, 제37연대는 독립연대로서 전방의 미 제9군단 예비로 활용되었다. 이어 6월 13일 다시 같은 성격의 3개 연대(제50·제51·제52연대)를 창설한바, 제50연대는 함양지구의 공비유격에 투입되고 제51, 제52 양 연대는 독립연대로서 각각 미 제1군단과 국군 제2군단에 배속되어 실전훈련을 쌓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10월 30일 2개 사단의 증편안이 확정되자, 육군본부는 11월 8일에 동 6개 경보병연대를 중장비연대로 개편함³⁰⁾과 아울러 동일부로 양양에서 제12, 제15사단사령부와 6개 경보병연대(제53~제59연대)를 다시 편성하였다. 이 중 제12사단은 제53·제55·제56연대를, 제15사단은 제57·제58·제59연대를 각각 임시로 배속받아 자체의 부대 편성과 아울러 이들 연대의 훈련에 임하였다.³¹⁾

이어 제12사단은 제37·제51·제52연대가 중장비연대로의 개편작업이 완료된 12월 10일부 동연대들이 사단의 정식 견제부대로 편입되어, 미 제9군단에서 교육훈련을 끝내고 12월 27일 미 제10군단 전선에 투입되어 미 제40사단의 진지를 인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제15사단도 제38·제39·제50연대로써 개편을 보게 되었으며 11월 8일 신편된 연대는 뒤따라 창설된 다른 사단의 기간으로 전용되었다.³²⁾

한편, 클라크 대장은 12개 사단안은 임시변통에 불과한 것이라 판단하여 증편안이 승인된 다음날인 11월 1일에 다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 지상군의 20개 사단 확장계획을 함참에 건의하였다.³³⁾

- 1) 한국육군을 1953년 8월까지 20개 사단으로 확장한다.
- 2) 2개 군단을 6개 군단으로 증가하여 추가 창설사단을 지휘하게 한다.
- 3) 신편사단은 16주간의 훈련 후 전투임무를 부여하며 마지막으로 창설되는 사단도 1953년 말에는 전투준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 4) 한국군 2개 사단의 편성이 완료될 때마다 유엔군 1개 사단이 예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며, 1953년 5월까지의 유엔군 사단들이 그 임무를 한국군 사단에 인계할 수 있을 것이다.
- 5) 이 계획에 의하면 1954년 중반까지 미군 4개 사단과 2개 군단 사령부의 재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문제의 결정은 다음 해로 넘겨지게 되었으나 적어도 이 요청으로 대규모 국군 증강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 무렵 유엔군이 구상하고 있던 국군 증강안의 목표는 “훈련된 인력·지휘력·장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곧 전 전선을 국군이 담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⁴⁾

한편, 보병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포병도 괄목할 성장을 보였다. 지난해 미 합참은 한국의 지형이 험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포병의 기동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재보급의 난점과 더불어 훈련된 포병요원이 부족하다는 등을 이유로, 국군 1개 사단에 105mm 1개 대대만을 보유토록 하였으나(미군은 105mm 3개 대대와 155mm 1개 대대 보유), 1952년 5월 27일 사단당 105mm 3개 대대와 155mm 1개 대대의 완전편제를 갖추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은 이미 지난해 창설을 본 바 있는 4개의 155mm 독립포병대대(제96·제97·제98·제99대대)에 이어, 6월 16일 4개 대대(제91·제92·제93·제95대대)를 증편하였다. 그리고 1월부터 시작한 2개의 105mm대대로 구성되는 포병단의 창설에도 박차를 가하여 12월 말까지 12개의 포병단(제1·제2·제3·제5·제6·제7·제8·제9·제10·제11·제12·제

15포병단)을 창설하였다.³⁵⁾

이들 신편 155mm 독립포병대대와 야전포병단은 미 제5포병단에서 포병 종합훈련(RSOP)을 마치고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자 각 사단에 예속되었다. 이로써 105mm 1개 대대로 편제되어 있던 보병사단은 3개의 105mm대대와 1개의 155mm대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³⁶⁾ 이들은 1953년 1월부터 사단포병단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밖에 육군본부는 전차부대도 1951년 2개 전차중대에서 1952년에 6개 전차중대로 증강하였다.³⁷⁾

제 2 절 捕虜協商의 決裂

1. 雙方의 戰略과 代案

(1) 共產軍側의 戰略과 代案

1952년 7월부터 두달간의 전선상황은 장마로 인하여 대체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으나 9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후 10월에 접어들어 판문점의 휴전회담이 포로문제를 중심으로 결렬상태에 돌입하자, 유엔군은 적 후방의 전력시설인 수풍발전소와 부전·장진 등의 각 발전소에 대하여 대규모의 전략폭격을 가하게 되었다.³⁸⁾

적은 유엔군의 공중공격에 대하여 지상부대로써 보복을 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적의 공격방향은 전선이 비교적 북으로 돌출된 중부 전선상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백마고지·저격능선 등에 집중되고 있었다.³⁹⁾ 이러한 적의 의도는 이 무렵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전문내용에 잘 나타난다.⁴⁰⁾

우리는 적과의 장기적인 전투에서 적극적인 군사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군사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소극적인 수비를 계속하면 적은 우리의 힘을 간과할 것이며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인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항공폭격을 계속할 것이다.

공산군의 작전 기기도 물론 휴전회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유엔군의 군사작전에 대응하려는데 있었다. 특히 중부전선에 있어서의 주요 전략요충을 점령하여 아군의 주저항선을 제압함과 동시에 차기 대공세를 위하여 유리한 신진지를 구축하려는 기도였다.

적은 이러한 기도를 달성시키고자 국군 제2군단 및 미 제9군단 정면에 잘 훈련된 사기왕성한 정예부대를 투입하였으며 특히 저격능선에는 4개 사단 병력을 배치하여 철의 삼각지대상의 아군 주저항선을 엿보고 있었다.⁴¹⁾

한편, 적은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유엔군의 공중공격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평양 근교와 압록강 주변에 유엔군 포로수용소를 배치해 놓고 있었으며, 또 압록강 수풍댐이 위치상 한·만국경 선상에 놓여 있고 또 발전소 자체가 북한과 중공의 공동관리하에 있는 점을 고려, 유엔군이 폭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공산군은 포로수용소에서의 충돌사건을 유엔군측이 공산포로를 강제 억류시키려는 것에서 야기된 사건이며 유엔군측의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모든 공산포로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휴전회담에서는 쌍방의 협상대표들이 여전히 포로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유엔군측은 어떠한 포로도 그 자신의 의사와 달리 공산치하로 강제송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 무렵 1952년 6월 말경의 유엔군측 포로면담 결과 총 169,944명의 포로 중 약 49%인 83,722명이 송환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숫자는 앞서 공산군측에 통보한 70,000여 명보다

13,222명이 증가한 것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측은 적이 이 숫자에 근거한 포로교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⁴²⁾

포로분류를 위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공이 다소 그들의 입장을 완화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이 무렵 중공은 두 개의 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첫째안은 중공군 포로 2만 명과 북한군 포로 9만 명을 송환기준으로 해결하거나 중공군 포로 2만 명이 포함된다면 총 10만 명 기준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대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포로는 휴전 후 복귀할 수 있다고 유엔군측과 협정을 하되,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는 판문점으로 이송하여, 이곳에서 중립국가와 양측 적십자사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포로와의 면담을 통해 송환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중周恩래(周恩來)는 첫째안이 수락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측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였다. 당시 포로조사 결과 중공군 포로중 중공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숫자가周恩래가 고려하고 있는 숫자에 1/3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중공은 인도정부를 중재자로서 이용하면서 보다 우회적인 외교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징후를 보였다.⁴³⁾ 그래서 미국은 영국 외무성을 통하여 주(周)의 둘째안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인도정부에 통보하였다.

중공과 인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오고 간 후, 인도의 통고에 따르면 중공은 '재분류'에 관한 그들의 안이 유엔군측에 의해 수락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워싱턴에서는 중공이 둘째안과 유사하게 어떤 해결을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돌연 7월 14일 중공의 입장이 갑자기 변화되었다. 영국 외무부가 중공의 제안에 관해 문의를 하였을 때 중공은 다만 첫째안에 관심이 있을 뿐이며 둘째 기준으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도정부를 통해 통고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측으로서는 판문점 회담의 추가적인 성과를 기다려 보는 것 외에 방법이 없게 되었다.⁴⁴⁾

한편 소련은 1952년 6월 27일 유엔의 한 관리를 통해 미국대표와

가진 비공식 대담에서 쌍방이 제네바협약에 관한 각각의 해석 및 적용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는 송환원칙의 적용에 따른 곤란함을 고려하여 여러 나라의 적십자사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 원칙의 적용을 감독한다는 양해 사항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전체송환의 수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접촉에서 소련측은 실제로 한국전쟁의 휴전을 원한다고 말하였다.⁴⁵⁾ 미국은 이것이 주(周)의 두 번째 안과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인도-중국 경로에 기대를 걸고 있는 터이라 더이상의 추진을 보류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제안도 인도-중국의 경로가 무용하게 되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후 소련측이 더이상 토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국무부는 포로문제에 관하여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소련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이를 주소 미국대사 케난(Kennan)과 협의의 중이었다. 이때 미국은 송환을 결정한 83,000명의 공산군 포로와 공산군측이 수용하고 있는 12,000명의 유엔군 포로와 교환하며, 나머지 공산군 포로는 비무장지대로 이송하여 인도나 기타 중립국가 감시하의 면담을 거쳐 귀환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었다.

이 제안은 클라크 장군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는 소련이 한국전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는 않았으나, 소련 지도자들에게 외교적 호소를 한다는 것은 유엔군측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도리어 유엔군측이 공산군측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로써 판문점에서의 협상은 공전이 되풀이되었다.⁴⁶⁾

우리는 전장에서 북한의 군사목표에 대한 공중공격의 계속적인 강화로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성명발표나 판문점에서의 행동에 있어서도 단호해야 한다. 이러한 단호함은 우리 정부나 동맹국 정부 양자의 적절한 성명이나 행동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어야 함이 필요하다.

(2) 유엔軍의 戰略과 代案

판문점에서 포로교환문제를 놓고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1952년 6월 하순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중부전선에서 현 전선을 평강 북쪽에 설정한 새 방어선(Duluth Defense Line)까지 추진하기 위한 제한 공격계획을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에게 건의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철의 삼각지대를 완전히 확보할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고 평강 부근에 집결된 적의 부대와 비축된 전쟁물자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클라크 장군은 이 작전이 “휴전협상에 미칠 민감성과 아군의 사상자”를 고려하여 그 건의를 유보시켰다. 즉, 강력히 요새화된 적의 전선을 돌파해야 하므로 소독에 비해 희생이 너무 클 것이며, 또 적의 강력한 반격에 대처할 유엔군의 가용한 예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⁴⁷⁾ 이 계획은 6개월 전에도 계획하였다가 취소된 바 있었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 압력뿐”이라는 전략하에 유엔군사령관의 주장대로 상대적으로 아군의 피해가 적게 발생하는 공중공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유엔군측은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지금까지 수풍댐과 발전소를 공격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 평양 근교의 군사목표에 대해서도 회담 개시 이후 일년간 공격을 유보하고 있었다.⁴⁸⁾

이 두 지역에 대한 유엔군측의 대대적인 공격 결정은 군사적인 의미에서만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공산군측이 휴전회담을 지연시키거나 폐기할 경우 중국 본토에 대한 폭격도 불사하겠다는 시사였다.

이 무렵 유엔 공군기에 의한 북한지역 수력발전 시설 폭격은 1952년 6월 23일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7월 1일 해리슨(William K. Harrison) 장군은 본회에서 타협적인 어조로 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양측이 모두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다만 포로에 관한 의제만이 미해결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 후 이에 관한 제51항의 초안을 다음과 같이 낭독하였다.⁴⁹⁾

각측이 수용하고 있는 모든 전쟁포로는 이 휴전협정이 발효될 때에 가능한 한 빨리 석방하고 송환한다. 그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휴전협정의 조인에 앞서 각측에 의해 교환 점검된 명단에 따라 실시한다.

이 제안은 지난 4월에 유엔군측에서 제안했던 것을 거듭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공산군측이 7월 3일 다음과 같이 다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었다.⁵⁰⁾

- 1) 모든 포로는 국적과 출신지역에 따라 재분류한다.
- 2) 포로의 명부는 조속한 송환의 진행을 위해 재점검하여 작성한다.
- 3) 공산측은 북한인민군에 편입되었다가 유엔군 포로가 된 남한출신의 한국인 포로들을 북한으로의 송환 대신 고향인 남한지역에 남게 하는 것을 유엔측에 동의한다. 그러나 외국인 포로에 대해서는 그가 유엔군 출신이건 중화인민군 출신이건 각기 출신지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포로문제에 대한 공산군측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자, 해리슨은 공산군측이 원칙뿐만 아니라 제51항 자체의 표현도 수락한 것으로 클라크 장군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7월 4일 선임장교회의에서 해리슨 장군이 상황을 오판하였음이 드러났다.⁵¹⁾

제51조에 기술된 “각측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전쟁포로”라는 구절에 대하여, 유엔군측은 포로 중 송환에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힌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포로들을 의미하였음에 반하여, 공산군측은 1951년 12월 18일에 교환된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모든 포로 중 다만 전쟁전 38도선 이남에 거주하였던 포로를 제외한 모든 포로를 의미

한 것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⁵²⁾ 공산군측은 아직도 공산치하에 끌려가느니 차라리 자살하겠다며 송환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공군 포로전원을 강제송환하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7월 6일 회의에서 공산군측은 숫자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다.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인원이 ‘재심사’명단에 오르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2만 명의 중공군은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일은 “만일 당신들이 점검하여 작성한 명단이 사실에 가까운 숫자를 반영하고 중공의용군 포로 2만 명을 포함한다면 전쟁포로 송환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해리슨 장군은 “누구도 물리적으로 당신들의 통제하로 복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응수하였다.⁵³⁾

다음날 클라크 장군은 합참으로 공산군측이 포로숫자문제를 끌어들이었다고 지적하고, 유엔군측 대표단이 송환 포로와 한국에서 석방할 포로의 수에 대한 수정된 숫자를 제시하도록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 숫자는 총 121,000명으로서 최종 심사결과 송환자 82,900명(북한인 76,500명, 중공인 6,400명)과 전쟁전 남한 주민 38,100명이 포함되었으며 남한 주민 중 11,700명은 전쟁포로이고 나머지 26,400명은 이미 석방된 민간인 억류자였다. 클라크 장군은 유엔군 포로도 비슷한 분류로 요구할 예정이었다.⁵⁴⁾

유엔군측은 7월 8일 비밀회담에서도 포로교환문제로 인한 교착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설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도 공산군측 남일은 유엔군이 거제도에서 공산군측의 포로 2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비난하고 나왔다.⁵⁵⁾

공산군측은 7월 15일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비밀전문에 의하면, “우리는 만일 적이 양보하지 않거나 협상을 결렬시키면 전쟁을 계속해야 하며, 적은 전쟁을 통해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의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자신의 입장을 단호히 견지해 나간다면, 유엔군측은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⁵⁶⁾

이때부터 쌍방의 냉전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휴회도 전과 같이 서로의 제안과 양해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언하고 퇴장해 버리는 양상이었다. 이렇듯 판문점 회담은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포로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용한 논쟁을 거듭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2. 選擇的 提案 協商과 無期休會

1952년 8월까지 회담은 무의미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8월에는 휴회가 빈번하였다. 포로문제에 대한 해결은 지난 4월 이래 조금도 범위가 좁혀진 것이 없었다. 그 속에서도 유엔군측에서는 무엇인가 해결하려는 노력만은 버리지 않고 있었으나, 전선에서의 사상자는 더욱 늘어만 갔다.

1952년 8월 3일, 11일, 19일 회의에서도 공산군측의 장광설이 끝난 후 유엔군측의 요청으로 각각 1주일간의 휴회가 반복되었다. 결국 8월 27일 회의에서 또 휴회가 선언되자 회담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⁵⁷⁾

이 무렵 모스크바에서 중·소 회담이 개최중에 있었기 때문에 미대통령은 지체되고 있는 휴전 회담에 관한 특별성명의 발표를 보류하고 있었으며, 미국무부와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민간인 억류자를 석방하겠다는 유엔군사령관의 건의를 승인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판문점에서는 공산군측의 비난이 계속되자 유엔군측 수석대표가 또다시 포로송환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였다.⁵⁸⁾

유엔군측 수석대표는 8월과 9월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재검토한 후, 이제 유엔군측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작성하여 공산군측에게

마지막 타결안을 제안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타결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측이 또다시 반대한다면 회담을 무기한 휴회시키던가 아니면 공산군측과의 협상을 끝내던가 양자택일의 시점에 이르렀다고 결론지었다.⁵⁹⁾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군측이 유엔군측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휴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결론적으로 공산군에 대한 군사압력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시달하였다.

반면 공산군측은 스탈린이 모택동에 보낸 비밀전문에 의하면, 스탈린 자신은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⁶⁰⁾

1. 지상·해상·공중에서 쌍방의 군사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
2. 국제규범에 따라 모든 전쟁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
3. 중공 의용군을 포함한 외국군대를 조선에서 2~3개월내 철수시키며 한국인들 자신이 직접적인 관계국들과 한국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포함한 기타 국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시하에 한국 통일정신에 입각하여 한국문제를 조정할 것.

한편 포로교환문제로 하여 양측대표들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대립되어 있던 9월 20일 유엔군총사령부에서는 “포로심사 결과 민간인으로 판명된 1만 1천명의 억류자를 10월 1일부터 6주일 내에 모두 석방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⁶¹⁾

그러던 중 유엔군측에서 일괄타결안을 제출한지 만 5개월이 되던 9월 28일 회담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은 침체되어 있는 포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장문의 성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세 가지 선택적 타결안을 제안하였다.⁶²⁾

- (1) 제 1 안 :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쌍방관리하의 모든 포로는 석방 및 송환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포로의 석방

및 송환은 휴전협정(초안) 제3조의 각항에 의거하여 개시하여야 한다. 포로의 교환 및 송환에 대한 의무는 비무장지대 내에 합의된 교환지점까지 포로를 이송함으로써 완수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포로들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포로의 성명은 국제적십자위원회 합동적십자반 또는 합동군사반 등의 일원 혹은 전체가 참석한 앞에서 합의된 포로명단에 의거 대조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포로는 협정에 따라 완전 송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점검시 포로가 억류당하여 왔던 측으로 돌아갈 의사를 표명하면 즉시 동 요청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포로들은 원하는 측의 관리하에 들어갈 것이며 이 포로의 관리측은 동 포로에게 비무장지대로부터 한반도 내의 관리지대까지 수송수단을 제공한다. 물론 개개인(포로로서 억류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자격이며 휴전협정(초안) 제 52항에 의거하여 재차 한국전쟁 전투에 참가할 수 없다.

- (2) 제 2 안 : 휴전협정이 효과를 발생하는 즉시 송환을 희망하는 모든 포로는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송환을 거부하는 모든 포로는 상호합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쌍방의 군사적 관리로부터 벗어나며 상호합의한 국가 혹은 군대 중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국가의 대표에게 회견 가능한 비무장지대 내에서 소집단형태로 인도되어야 한다. 이 포로들은 회견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그들이 선택한 측으로 갈 자유를 가진다. 전술한 절차는 각측의 군사대표가 있든 없든 다음의 단체 중의 일원 혹은 전체의 감시하에 수행된다. 1) 국제적십자위원회 2) 합동적십자반 3) 합동군사반
- (3) 제 3 안 : 휴전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송환을 희망하는 모든 포로는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만일 병참능력이 허용한다면 휴전과 동시에 혹은 휴전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송환에 이미 반대의사를 표명한 동 포로들은 적당한 수로 구성

한 수개 집단으로 비무장지대 내 상호합의된 장소로 인도될 것이며, 그곳에서 군사적 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한다. 석방된 개개 포로들은 심문·회견·심사를 받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측으로 갈 자유를 가진다. 만약 희망한다면 국제적십자위원회, 합동군사감시반, 혹은 쌍방 적십자대표의 일부 혹은 전체의 감시하에서 송환거부 포로의 이동 및 처리에 동의한다.

해리슨 대표는 이러한 선택적 타결안을 제안한 직후 공산군측에 검토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10월 8일 11:00까지 10일간 휴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제안은 모두가 자유송환이란 인도적인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엔군측으로서는 그 어느 것이나 휴전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엔군측에서 제안했던 어느 제안보다 양보한 것이었으며 또한 유엔군측의 최종안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의 남일은 10월 8일의 회담에서 공산군측은 선택적 타결안에 대해 “유엔군이 제시한 방안이 비록 새로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종전까지의 불합리했던 요구를 숨기기 위해 형식과 방법을 달리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논평하여 지난 1월부터 계속 고집해 오고 있던 강제송환 원칙을 되풀이하고 나왔다.⁶³⁾

유엔군측 해리슨 대표는 10월 8일의 회의에서 선택적 제안이 공산군측에 의해 거부되자 회담의 무기휴회를 선언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측이 선택을 공산군측에 넘겼고 이후의 문제는 공산군측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유엔군측이 강제송환을 반대하고 공산군측이 전원송환을 고집하는 한, 어느 한편이 정치적 피해를 감수하고 양보하지 않는 이상 절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기에 이르자 공산군측은 10월 9일 방송을 통해 유엔군이 고의로 휴전회담을 결렬시켰다고 책임을 전가하였다.⁶⁴⁾

이제 휴전회담은 미궁에 빠져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정력과 시간을

소모시켜 왔던 포로교환 문제를 놓고 결렬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그것은 협상이 개시된지 15개월만에 그리고 유엔군측이 1952년 4월 28일 일괄타결안을 전달한지 약 6개월만에 중단되어 다시 재개되는 1953년 4월 25일까지 근 6개월간 무기휴회로 들어갔다.

3. 유엔의 妥結 努力

휴전협상은 개막된지 15개월만에 포로송환에 대한 쌍방의 기본입장의 차이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무기휴회로 들어갔다. 특히 유엔군측은 일괄타결안, 선택적 제안 등을 제의하며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측으로서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1952년 가을과 겨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 무렵 정부의 입장은 “협상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공산측에게 병력과 무기를 증강시켜 주는 계기밖에는 되는 것이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10월부터 국민들의 휴전반대운동은 더욱 가열되었다. 즉 10월 25일 부산에서 많은 학생들이 “통일없는 휴전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휴전반대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연일 각 도시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휴전반대 궐기대회가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었다.⁶⁵⁾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에 회담결렬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비난을 계속하는 한편 판문점 주변에서 유엔군측이 중립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포로수용소에서의 폭동사건을 빌미로 정치적 선전을 강화하였다. 유엔군측의 군사적 압력도 회담에서의 공산군측 양보를 얻어내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휴회기간중에도 판문점에서 연락장교간의 접촉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사태전환을 위한 계기를 만들지는 못하였다.⁶⁶⁾



국민들의 휴전반대운동

마침내 유엔군측이 1952년 10월 14일에 개최되는 제7차 유엔총회에서 그 타결책을 모색하기로 함으로써 휴전을 위한 노력은 유엔으로 장소를 옮겨가게 되었다. 원래 자유진영은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토의할 경우 공산군측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해 왔으나, 포로문제만을 남겨 놓은 현시점에서 조기해결 가망성이 보이지 않자 미·영 양국이 그 태도를 바꾸어 공산군측에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그 교섭장소를 유엔으로 옮기는데 의견 일치를 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공산군측도 1952년 9월 중순 이미 유엔군측이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에 대비하여 멕시코·인도·버

마 등 각국 입장을 검토하는 한편, 유엔군측 입장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하도록 결정하고 있었다.⁶⁷⁾

당시 유엔 회원국들의 편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참전 16개국을 포함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위성국가군 그리고 아시아·아랍 등 중립국가군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러한 분포에 불만을 가진 소련은 유엔총회 개최 초부터 유엔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국들이 한낱 미국의 정책도구에 불과하다는 평가아래 외상 비신스키(Andrei Y. Vyshinsky)로 하여금 “미국이 휴전회담의 결렬을 획책하였다”라고 비난하게 하였다. 이제 공산군측의 휴전회담의 선전무대가 판문점에서 유엔총회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10월 24일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은 공산군측이 포로의 비강제송환이라는 기본원칙을 수락한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영국을 위시한 우방 20개국의 지지를 받아 공동제안으로 소련과 중공에 포로의 자원송환 원칙에 기초한 휴전에 동의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 요지의 결의문을 제출하였다.⁶⁸⁾

- 1) 한국휴전의 달성을 위하여 미국이 그 동안 노력하여 온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 2) 포로송환문제는 자원송환 원칙을 견지하기로 총회에 요청한다.
- 3) 중공과 북한정부에 대하여 무익한 유혈을 피하는 휴전을 수락하라고 통고한다.

그러나 소련은 이에 반대하여 비신스키 소련대표가 11월 10일 유엔총회 석상에서 1) 전쟁의 ‘직접 관계 당사자’와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국가로 11개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2) 이 위원회의 감독아래 한국전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며, 3) 포로송환은 이 위원회의 임무로 하되 강제송환을 원칙으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련대표는 미국을 포함한 21개국이 주장하는 포로 자유송환안을 판문점의 휴전교섭을 결렬시키며 전쟁을 연장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비난하였다.⁶⁹⁾

이렇게 미·소 양대 진영의 의견이 정반대로 대립되자 인도를 비롯한 아랍과 중남미 제국(諸國)들이 중재에 나섰다. 각국의 제안 중에는 송환거부자 문제를 후일의 회담으로 미루자고 하는 캐나다의 제안도 또 송환거부자의 임시 피난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처리하자는 멕시코의 제안도 들어 있었지만, 특히 총회의 관심을 끈 것은 인도의 제안이었다. 인도는 11월 17일 메논(V. K. K. Menon) 대사가 앞장을 서서 비신스키와 절충하는 한편, 중공측의 의사까지 타진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결의안을 내놓았다.⁷⁰⁾

1) 포로의 석방송환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스위스·스웨덴 등 4개 중립국으로 포로송환위원회를 구성하되, 2) 포로에 대해서는 송환에 반대하거나 혹은 송환을 중용하기 위한 강제력의 사용을 금한다. 3) 포로 전원을 비무장지대로 옮겨 송환위원회에 인도한다. 4) 4개국 위원회는 송환협정의 해석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裁定)위원을 지명한다. 5) 고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포로는 귀국을 허용한다. 6) 전쟁당사자가 각측의 포로에 대해 그들이 송환될 권리가 있음에 대한 ‘해설’을 한다. 7) 휴전이 성립된 90일 이후에도 귀국을 원치 않는 포로들은 송환위원회에서 정치회담으로 넘긴다.

그러나 인도의 제안은 미국의 즉각적인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송환위원회의 책무가 모호하며 심문기간 90일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고 특히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들은 정치회담에 넘긴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였다.⁷¹⁾ 그러나 인도안은 광범한 지지 특히 영국·캐나다·프랑스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은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인도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데

신증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포로를 강제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포함한 명확한 수정이 없는 한 수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결의안에 포로의 강제송환을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반영한다면 인도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자 인도대표는 다시 “만일 정치회담에서 30일 이내에 송환불원포로 처리를 타결하지 못할 경우 포로는 유엔 자체로 이관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대해서 소련은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한국에서 휴전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포로문제를 11개국 위원회로 이관하여 강제로 송환하도록 하는 길뿐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수정된 인도안을 지지하고 자국안을 철회한 가운데 인도안과 소련안이 12월 3일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여졌다. 그 결과 인도안이 54대 5로 가결되고 총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되었다. 유엔총회의 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⁷²⁾

- (1) 휴전협정 초안 제37항에 해당하는 4개국, 즉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의 대표로서 구성되는 포로송환위원단을 설치한다.
- (2) 포로의 석방 및 송환은 1949년 3월 12일부 ‘포로취급에 관한 제네바협정’, 확립된 국제원칙과 관행 및 휴전협정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실행한다.
- (3) 포로송환에 있어, 포로에게 강제를 행사하여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 폭격을 가하거나 또는 그들의 인격을 능욕하지 못하며, 어떠한 목적이든 인간적으로 대우한다.
- (4) 전 포로는 억류측의 군사적 관리와 수용으로부터 합의된 비무장지대 내의 교환장소에서 합의된 숫자로 송환위원단에 이관한다.
- (5) 10월 16일부 김일성과 팽덕희의 서한에서 제안한 포로의 국적 및 본적별 분류는 즉시로 실행한다.

- (6) 상기 분류 후, 즉시 포로는 자유로이 본국으로 귀환하며, 관계 당사자는 편의를 도모한다.
- (7) 쌍방은 포로송환에 관계 있는 특히 자유송환 사항을 포로에게 고지하며, 자신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설명할 자유와 편의가 부여된다.
- (8) 쌍방 적십자단은 송환위원단의 업무에 조력하며 포로와 접촉할 수 있다.
- (9) 포로는 송환위원단에 모든 유관한 문제를 건의 또는 통고할 자유와 편의가 부여된다.
- (10) 상기 제3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도, 본 송환협약에 규정된 것은 위원단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11) 본 송환협약은 전 포로에게 주지되어야 한다.
- (12) 송환위원단은 그들의 의무와 임무를 수행하는데 요청되는 정당한 협조를 전쟁당사자, 위원단의 대표단정부, 유엔회원국가에게 의뢰할 권리가 있다.
- (13) 위원단의 의견이 상충될 시 다수결로 정하며, 다수결이 불가능할 시 제네바협약 제132조와 다음의 조항에 합의를 본 심판인이 결정권을 가진다.
- (14) 송환위원단은 심판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인 임명이 처음 회합에서 3주일이 되도록 정해지지 않으면 총회에 위임한다.
- (15) 송환위원단은 휴전 후 그의 기능이 위임되는 기관 및 감시반과 더불어 심판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자를 약정한다.
- (16) 쌍방 당사자가 송환협정에 동의하고 심판인이 지정되는 때에는 휴전협정 초안이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
- (17) 휴전협정 서명 후 90일의 기한이 종료하는 때 본 제안 및 기타 협약에 따라 송환되지 않은 포로의 처리는, 그들의 역류의 종료일자를 포함하여 휴전협정 초안 제60조에 규정된 정치회담으로 위임한다. 만약 그후에 30일이 되도록, 회담에서 그들의 장

래가 규정되지 않았을 시는, 그들의 보호의 책임 및 이에 부수 되는 처리는 그들에 관한 모든 문제를 국제법에 의하여 엄정히 처리할 국제연합으로 위임한다.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과 중공에 이 결의안을 수락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이 피어슨(Lester B. Pearson) 의장의 메시지와 함께 발송되었으나, 중공의상 주은래(周恩來)가 12월 14일, 북한의상 박헌영(朴憲永)이 12월 17일, “포로의 자원송환은 제네바협약과 국제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유엔은 교전당사국의 일방이므로 유엔의 결의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였다.⁷³⁾ 이리하여 인도안에 걸었던 모든 희망은 공산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무렵 후방지역의 포로수용소에서 소규모 폭동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12월 14일에는 거제도 인근 봉암도(峰岩島)에서 수용된 친공포로들이 북한(남일)의 지령을 받아 폭동을 일으켰다. 이의 진압과정에서 85명이 사망하고 113명이 중상을 입었다.

공산군측은 그 이튿날 판문점에서 “유엔군이 봉암도에 수용되어 있는 공산군포로를 대량학살했으며 이와 같은 유엔군측 행위의 이면에는 한국전쟁을 계속 확대시키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비난하였다.⁷⁴⁾ 유엔주재 소련대표 그로미코는 피어슨 의장에게 봉암도 포로사건의 조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유엔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정식의제로 상정할 것을 가결하기에 이르렀다.⁷⁵⁾ 물론 12월 22일 총회에서 이 안은 45:5, 기권 10으로 부결되었다.

한편, 한국전쟁에서의 휴전문제가 유엔에서 자유진영과 공산군측의 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휴전에 대한 열망이 커져 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으며, 한국전쟁은 선거운동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다.

아이젠하워(D. D. Eisenhower) 공화당 후보는 “아시아인의 전쟁은



미국 대통령 당선자 아이젠하워의 한국전선 시찰

아시아인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군을 10개 사단에서 20개 사단으로 증강시키고 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여 휴전을 기대하던 유권자들의 호감을 샀다. 그는 당선 후 선거공약에 따라 12월 2일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내한(來韓)하였다.⁷⁶⁾

결과적으로 그는 유엔군이 상대하고 있는 공산군은 아무리 설득해도 협상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며 오로지 행동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트루먼 행정부의 유화정책을 벗어나 강경한 조치를 통하여 한국전을 종결짓겠다는 적극적인 대공정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⁷⁷⁾

제 3 절 地上作戰：高地爭奪戰의 激化

1. 臨津江－驛谷川 前哨陣地 爭奪戰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1군단장 켄달(Paul W. Kendall)중장은 1952년 7월 중순 미 제9군단으로부터 미 제2사단을 배속받고 미 제45사단을 미 제10군으로 전환조치함에 따라 미 해병제1사단(배속: 국군 해병제1연대)－영연방 제1사단－미 제3사단－미 제2사단 순으로 전방에 배치하고 임진강 하구에서 철원에 이르는 전선을 담당하였다.⁷⁸⁾

이때 군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65군이 개성, 제40군이 구화리, 제39군이 삭녕, 제38군이 마장리 일대에 배치되었고 제60군이 곡산, 제63군이 배천(白川)에 예비로 집결하고 있었다. 적은 전초진지 방어작전을 펴면서 아군의 국부공격에 대비해 하달된 조·중(朝中)연합사령부의 전술적 반격계획에 따라 추계공세를 준비하였으며, 9월 18일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는 2개 단계로 계획된바 제1단계작전은 9월 18~10월 5일까지, 제2단계는 10월 6~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다.

군단은 지난달까지 우익인 미 제45사단으로 소위 카운터(Counter)작전을 전개하여 철원 서쪽 역곡천변의 주요 고지군을 확보한 뒤로 적의 반사적인 역습을 받아 고지쟁탈전을 반복하기에 이르렀다. 주로 미 해병제1사단이 벙커(Bunker)고지에서, 미 제2사단이 불모(Old Baldy)고지에서, 국군 해병제1연대가 사천강 일대의 전초진지에서, 국군 제1사단이 텃시(Tessie)와 닉키(Nickie) 양고지의 쟁탈전에 이어 베티(Betty)와 노리(Nori)고지에서 각각 쟁탈전을 수행하게 된다.

불모고지, 포크찹(Porkchop)고지, 티본(T-Bone)고지 일대에서의 전투는 7월 중순 미 제2사단이 진지를 인수한 이후 여름내내 계속되었다. 특히 포크찹고지(234m)에서는 미 제2사단에 배속된 타이 대대가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중공군 2개 연대의 공격을 격퇴하고 동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대대는 그 용감성을 인정받아 ‘작은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⁷⁹⁾

반면, 임진강 일대에서의 전선은 장마로 인하여 7월까지 비교적 소강상태로 유지되었으나, 장마가 끝나자 전초고지에서는 다시 전투가 격화되어 8월에 들어서 미 해병사단이 적의 공격에 맞선 분전 끝에 벙커고지를 확보하였고, 9월에 국군 해병연대가 다시 사천연변에서 격전을 수행하여 연대가 전투단으로 개편된 10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거둬하였다.

이 기간 임진강 북방 고왕산(355고지)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캐나다 제25여단은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한때 위기를 맞았으나 돌격부대의 끈이은 역습으로 적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⁸⁰⁾ 한편, 미 제3사단은 9월에 켈리전초를 적에게 넘긴 채, 다시 군단에비인 국군 제1사단과 교대하였다.

이 무렵 10월에 들면서 아군은 적의 제2단계 공세인 ‘10월 공세’를 맞아 피아간에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때 군단에서는 프랑스 대대가 화살머리고지(281m)에서 우인접인 백마고지의 제9사단과 아울러 중공 제38군의 침공에 맞서 격전을 치른 것을 비롯해 국군 제1사단은 고양대 부근에서, 해병제1연대는 사천강에서 격전을 치렀다.⁸¹⁾

11월의 군단 정면은 대체로 소강상태였으나, 12월 초 국군 제1사단이 적의 침공에 맞서 노리 및 벤티고지에서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전투가 전초진지를 놓고 쟁탈전을 반복하는 양상이었으므로 군단의 주진지는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 벙커高地 부근 戰鬪

1952년 7월 초 미 제1군단의 좌익사단으로 김포-판문점-사미천에 이르는 진지를 방어하고 있던 미 해병제1사단장 셀든(John T. Selden)

소장은 8월까지 국군 해병제1연대를 사천강—판문점에 계속 배치하고 예하 3개 보병연대는 주기적으로 부대교대를 실시해 번갈아 우일선과 중앙에 투입하여 예하 2개 연대를 판문점—사미천 선에 배치하고, 1개 연대를 예비로 보유하여 주저항선 방어에 주력하였다. 이 전투가 전개될 시 미 해병제1사단은 좌전방에 국군 해병제1연대, 중앙에 제1연대, 우전방에 제5연대를 배치하고 제7연대를 예비로 확보하고 중공 제40, 제65군과 대치하고 있었다.⁸²⁾

사단이 점령한 주저항선은 적이 점거한 대덕산(236) 일대의 고지군에서 거의 감제되는 표고 150m 정도의 고지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가운데에서 판문점 동남 5km 백학산(229)이 유일한 고봉으로 주진지상의 요충이었다. 사단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그 전방에 견고한 전초진지의 유지가 필요하였다. 적도 백학산을 목표로 공격을 집중하게 됨으로써 대덕산과 백학산에 이르는 5.5km 지역, 즉 사단 중앙에 배치된 미 해병제1연대(제2대대) 지역의 전초진지인 병커고지(122), 58고지, 56고지가 격전장이 된 것이다.

정면의 중공 제40군 제118사단(鄧岳)은 제352, 제354연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207고지—망해산(272)—대덕산(236) 일대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우익에 중공 제65군 제194사단(趙翁教) 제180연대와 연계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군의 제한공격 기간을 이용해 보급을 추진하여 양호한 사기와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8월부터 점차 특정 지점에 대하여 공격을 시도하는 공세방어로 전환하고 있었다.⁸³⁾

8월 9일 01:00 적은 미 해병제1연대의 전초진지 일대로 기습공격을 개시하였다. 1개 소대 규모의 적이 제2대대 E중대 전초진지인 58고지 일대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고지를 일거에 유린한 다음 계속 주저항선으로 밀어닥쳤다.

대대는 탄막사격을 요청하여 이를 격퇴함과 아울러 E중대로 하여금 역습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중대는 즉시 역습소대를 편성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4:00 역습을 개시하였으나 지형의 불리와 사계의 불

량으로 공격이 돈좌되고 말았다.

곧이어 10:00경 연대예비인 제1대대의 A중대에서 차출된 증강된 1개 소대가 E중대 1개 소대의 지원을 받아 두 번째 역습을 감행하였다. 역습부대는 목표고지 남쪽으로 진출함으로써 치열한 총격전을 전개하였다. 공격부대는 일진일퇴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11:05 전초진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증원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적의 맹렬한 포격과 반격을 받아 다시 주저항선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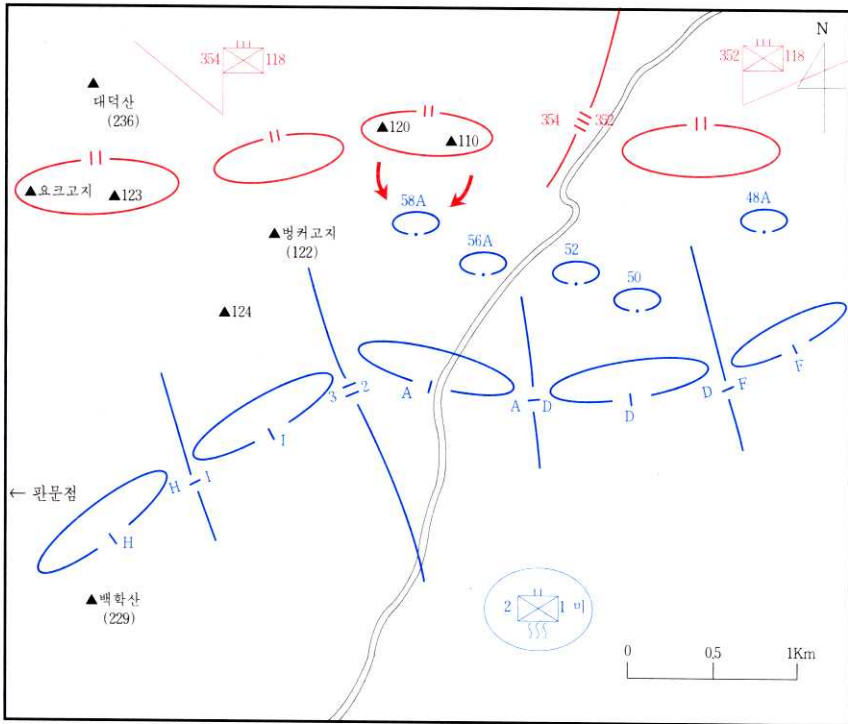
이에 연대장 레이어(Walter F. Layer) 대령은 제1대대 C중대에 다시 58고지의 탈환을 명령하였다. 중대는 22:45 목표지점을 우측방으로부터 기습하고자 은밀히 전진하여 01:05 일제 돌격을 감행하였다. 진지에 돌입한 병사들은 발악하는 적과 격렬한 육박전을 전개하여 목표를 탈환하였으나, 중대병력으로 증강된 적의 반격을 받아 다시 주저항선으로 철수하였다.⁸⁴⁾

결국 58진지는 적으로부터 감제되어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쟁탈전에서 탈환에도 실패한 채 연대병력이 적의 포격에 상당수 희생되었다. 이는 이 전초가 적의 전초고지로부터 완전히 감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연대에서는 58진지가 지형과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 유지가 곤란하며 전술적 가치가 적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전초진지로서 58고지 서남방 1km 지점에 위치한 병커고지(122)를 선정하고 이 고지를 확보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8월 11일 D중대가 58진지에 대해 양공을 하는 동안 주공으로 B중대가 제2대대장의 작전 지휘아래 122고지에 대한 기습을 감행하였다. 공격 선두 1개 소대가 적의 경미한 저항을 제압하면서 고지정상으로 돌진하여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는 동안 다른 1개 소대가 고지 우측 기습의 적과 격돌 끝에 격퇴하였다.

다음날 02:30 B중대는 선두소대가 122고지 정상을 탈환하자 노무대원을 배속받아 참호보강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5:00경 적의 집중적인 포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진지마저 파괴됨으로써 부

빙커고지 전투



특이 고지 동측방으로 이동하였다.

적은 계속하여 19:00 무렵 2개 중대규모로 B중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중대는 상황이 절박할 무렵 제3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투입된 I중대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적을 격퇴하였다.⁸⁵⁾ 이날 전투에서 아군은 34명이 전사하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큰 손실을 입었으나 적절한 지원부대의 투입으로 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

이때 사단은 빙커고지의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1개 정찰소대를 122고지 서남 1km 124고지에 배치하고 사단 보충대 전 병력을 제1연대 지역에 투입하였다. 또한 제7연대 3대대 잔여병력을 제1연대 제3대대에 배속시키는 한편, 제1연대 각종 지원포와 기관총을 122고지

능선에 대한 탄막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때 대대에 배속된 노무대원(KSC)이 동원되어 필요한 자재를 고지에 추진하고 참호공사를 지원하게 되었다.⁸⁶⁾

8월 13일 자정 무렵 적의 공격이 재개되어 병커고지 동측 제2대대 F중대의 전초(48A고지)와 주저항선에서도 격전이 전개되었다. 해병들은 박격포 등의 지원을 받으며 주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적의 공격을 진전에서 물리치면서 끝내 진지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F중대장은 1개 소대를 투입하여 48A고지를 포위한 적을 격퇴시켰다.

한편 01:30 무렵 또다른 1개 대대규모의 적이 병커고지 서남쪽 경사지에 위치한 제1연대 제3대대 I중대 진지에 포격을 가한 다음 공격을 자행하였다. 중대는 우일선과 중앙에서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였으며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져 갔다.

제1연대 제3대대장은 배속받은 제7연대 제3대대 중 I중대 일부를 병커고지로 증원시켰으며, 사단에서도 해병제5연대 1개 중대로 F중대를 보강하고 G중대를 병커고지로 투입하여 최후결전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사태는 호전되어 해병은 순식간에 적을 격퇴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포병연대가 9기의 로켓포로 진지방어를 엄호하고 전차부대가 아군진지에 접근하는 적에 포격을 집중하였다.

이날 정오 무렵 제7연대 제3대대 H중대가 122고지 진지 인수명령을 받아 교대를 시작하였으며, 그밖의 제7연대 증원부대는 이날 오후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이날 전투에서만 제1연대는 적 사살 470여 명과 부상 625명의 전과를 달성하고 아군 31명, 전사 254명 부상의 손실을 입었다.⁸⁷⁾

날이 저물자 적은 판문점 동쪽 700m 제3대대 좌전방 전초진지와 병커고지에 대해 공격을 재개하였다. H중대는 협조된 저지사격으로 증강된 1개 중대규모의 적을 저지하였다. 적은 곧 122고지 동쪽으로 우회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대대의 적절한 탄막 및 조명탄 사격에 이은 공격으로 대부분 포착 섬멸되었다.

다음날 미명 적은 58A 전초진지 서북쪽에서 벙커고지로 기관총사격을 집중하면서 소대규모로 122고지로 공격을 가하였으나 즉각 격퇴되었다. 제3대대장은 제1대대 A중대로부터 1개 소대를 지원받아 동고지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8월 15일 01:00 122고지 좌단부를 방어하던 해병이 적의 소규모 공격을 격퇴하였으나 교전은 잠시 후 124고지-122고지 일대로 확대되었다. 중대는 벙커고지를 우회기습하려는 적을 발견하고 즉시 대대에 연락하여 전차포와 야포의 탄막사격을 실시하였다.

적은 아군의 방어망을 돌파하고자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강력한 화력에 밀려 04:00 무렵 완전히 격퇴되었다. 오전 무렵 H중대는 제1연대 제1대대 B중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주저항선으로 복귀하였다.

8월 16일 자정 무렵 적은 다시 1개 대대규모로 122고지 북쪽으로부터 협공을 시도하였다. 중대는 계속된 적의 과상공격으로 방어망의 일각이 돌파되는 위기에 처하였으나, 증원된 제7연대 3대대 I중대와 함께 03:15까지 백병전까지 전개하는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적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⁸⁸⁾

이와 같이 미 해병제1사단은 8월 9일부터 16일까지 벙커고지(122m)에 가해진 적의 7차에 걸친 침공을 혈전 끝에 격퇴하여 전초진지를 지키고 주진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 사단은 적의 공격이 집중된 제1연대에 사단 예비대와 인접연대의 예비까지 지원하여 적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강력한 포병지원과 적절한 항공지원의 제공도 적의 집요하고도 축차적인 공격을 격파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전투는 비록 낮은 전초진지에서 치러졌지만, 사단이 적 사살 570명, 부상 1,500명의 전과를 달성한 반면 전사 92명, 부상 529명의 희생을 치렀으니 얼마나 치열했었는가를 알 수 있다.⁸⁹⁾

(2) 泗川江戰鬪

미 해병제1사단이 판문점 동남방 임진강 유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사단의 좌익 사천강에서는 국군 해병제1연대가 지난 4월에 이어 재차 격전을 벌이었다.

국군 해병제1연대는 3월 중순이래 미 해병제1사단 좌익부대로서 임진강구에서 판문점 남쪽까지의 11km 주저항선과 김포반도 방어를 담당하여 2개 대대를 사천강 동쪽에 배치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확보하는 한편, 김포반도에도 1개 대대를 전개하고 있었다.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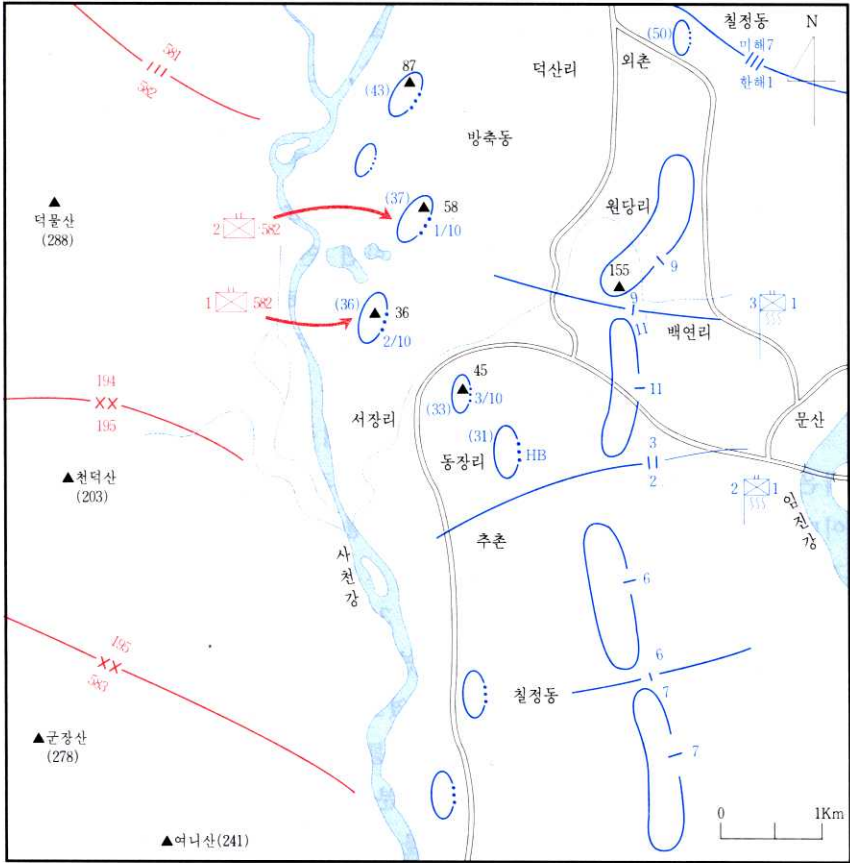
사천강을 사이에 두고 해병제1연대와 대치한 적은 중공군 제65군으로서 천덕산(203)을 경계로 삼아 제194사단(제582연대)을 아군 우전방대대 정면에, 제195사단(제584연대)을 아군 좌전방대대 정면에 배치하고 제193사단은 개성 서북쪽에 예비로 확보하고 있었다.⁹¹⁾

해병제1연대가 점령하고 있는 사천강 동쪽은 155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표고 50m 미만의 구릉과 전답으로 된 개활지이며 또한 임진강을 배후에 두고 있었다. 적이 점령한 사천강 서안 일대는 여니산(241)－김장산(278)－천덕산(203)－덕물산(288) 등의 횡격실고지군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형은 적의 방어에 유리하고 아군은 적의 감제하에 놓여 있었다.

작전지역은 대체로 7~8월 간에는 임진강의 수위가 높아져 사천강의 도하가 어려울뿐더러 지대가 낮고 진흙땅이어서 부대기동이 제한되었다. 그리하여 피아간 공히 포격전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가 9월에 이르러 기후와 지형의 제약이 해제되자 그간의 전선 소강상태를 깨고 연일 강력한 화력지원하에 기습과 정찰을 계속하였다.

해병제1연대장 김석범(金錫範 준장)은 8월 말부터 사천강이 도섭 가능하게 되자 주저항선 부대로 하여금 전초진지를 강화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9월 6일 18:00 적이 대대 전초진지에 포탄을 집중하면서

사천강 부근 전투



증강된 1개 중대규모가 기습적으로 사천강을 도하하여 마산동에 있는 제10중대의 전초진지를 포위하였다.⁹²⁾

중대 전초진지는 사천강 도하지점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적진 1km내에 위치하며 연대 주저항선으로부터는 2.5km 떨어져 있었다. 이날 내습한 적은 그 동안 제3대대와 정면으로 대치하여 접촉하고 있던 중공 제582연대 제2대대였다.

최초 적은 연대 주저항선 일대와 제10중대 지휘소 및 대대 관측소

등을 포격하여 교란시키려 하였으며, 전차와 자주포가 대안에 출현하여 도하부대를 엄호하였다. 아군은 전초진지가 적의 지근거리에서 감제되고 있었으므로 화기엄체호와 개인호, 포진지 등을 모두 이중으로 구축하여 포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도하한 적이 제2소대의 혼비고지(36진지)를 포위하자 중대장은 도섭지점에 배치된 잠복조를 비롯한 수개의 잠복정찰조를 철수시키고 사주방어로 진지를 고수하도록 하는 한편 연대에 포병지원을 요청하였다. 곧이어 적의 일부가 교통호까지 돌입하자 피아간에는 수류탄 투척에 이어 총검의 육박전이 전개되었다. 수적으로 우세한 적이 진지 일각으로 진출하자 중대장은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⁹³⁾

잠시 후 전초진지상에 VT탄의 탄우가 집중되자 진내를 장악하려던 적은 순식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우왕좌왕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지하호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해병들이 일제히 돌격하여 적을 격퇴하였다.⁹⁴⁾

적은 수차에 걸친 파상공격으로도 36진지를 점령하지 못하자 공격 목표를 제1소대의 37진지로 수정하였다. 제1소대는 적이 진전에 나타날 때마다 최후저지사격으로 저지하였고 포지원사격으로 적의 집결지와 진입로를 차단하였다. 결국 37진지를 공격하던 적은 그 동안의 전투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였음인지 분산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연대는 적이 양개 전초진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철수하려는 기색이 보이자 36진지와와의 연결과 아울러 아직 포위하고 있는 잔적을 격멸하기로 하고 제9중대로 하여금 37고지로 역습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미 해병제1사단은 155mm포 지원을 계속하면서 양개의 전초진지는 반드시 확보하라는 명령을 연대에 하달하였다. 이는 만약 연대가 진지를 실패한다면 주저항선이 위협을 받아 임진강까지 철수되어야 하고 인접 부대 작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⁹⁵⁾

이러한 혼전 상황에서도 고지의 병사들은 끝내 진지를 사수하고 있었다. 제9중대장은 7일 03:00 전차 1개 소대의 지원하에 1개 소대를

역습부대로 편성하여 36진지로 투입하였다. 역습부대는 잔류부대와 함께 잔적을 소탕하는 한편 36고지 전방까지 진출하여 사천강 일대로 분산퇴각하는 적에 위협사격을 가하였다.⁹⁶⁾ 이후 이 고지는 적을 혼비백산시켰다 하여 혼비(魂飛)고지라 불렸다.

대대는 36진지에서 적을 격퇴하자 곧 진지방어에서 큰 손실을 입은 제10중대를 제11중대와 교대시키고 다시 전초진지를 구축하고 장애물을 시설하여 진지를 보강하였다.

적은 그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간에 기만전까지 벌이면서 9월 19일 18:00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재침을 감행하였다. 적은 이날 15:00 혼비고지(36진지) 전방에서 소부대를 도하시켜 양동작전을 전개한 후 18:30 주저항선 일대에 포격을 가하고 주공지역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초진지(36-37-33-31)에 전차포격을 집중하면서 2개 중대 규모로 파상공격을 전개하였다.⁹⁷⁾

이에 연대장은 미리 계획된 야간기습작전을 중지시키고 제3대대 방어병력을 증강시켰다. 제3대대는 제9, 제10중대에 측후방을 엄호하도록 하고 제11중대에 접근중인 적에게 일제사격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곧이어 적은 36진지에 주공을 지향하여 결사적으로 육박하였다.

19:30 적은 증원부대와 합세하여 쏟아지는 포격을 틈타 필사적으로 진내로 육박하였으며, 진내에는 대낮과 같이 밝힌 조명탄하에서 처참한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적의 도하부대는 연대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원되어 36진지를 사방으로 포위하였고 수차례의 파상공격으로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전투의 양상은 호내와 호외의 대결이 되었다.

결국 36진지상에는 또 한번의 VT탄 진내사격이 실시되었으며,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적은 많은 손실을 입고 분산되었다. 그러나 잠시 후 적은 다시 병력을 증원시켜 진내 병커를 파괴하면서 진지 일각에 압력을 가하였다.⁹⁸⁾

대대장은 즉시 역습부대를 편성하여 36진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20

일 01:00 역습부대는 포지원사격하에 돌격하여 진지 외곽을 포위한 적과 백병전까지 전개하여 마침내 적을 구축하였다.

잠시 후 사천강 도하지점이 아군포격으로 봉쇄되자 적은 강력한 포 지원하에 부대를 재편하여 다시 36진지를 공격하였다. 미처 진지를 재편성하기도 전에 불의의 적 공격을 받은 역습부대는 8시간 이상의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진지를 적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이때 연대에서는 사천강 도하지점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고 미 해병 전폭기가 적의 집결지를 강타하여 증원부대를 차단하였다.⁹⁹⁾

10:00 다시 연대장으로부터 진지 탈환명령을 받은 제3대대 제9중대가 전차 2개 소대의 엄호하에 반격에 나섰다. 전차소대와 105mm포, 4.2"박격포가 36진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다. 중대는 전차 1개 소대를 선두로 보전협동 돌격을 개시하였다. 중대는 적의 집중적인 포화를 헤치며 진전까지 진격하였다.

이때 공격부대를 지원하는 전폭기가 2차에 걸쳐 적의 진지와 도하지점에 네이팜탄과 VT탄을 작렬시켜 적의 증원부대를 차단하고 포진지를 침묵시켰으며, 공격부대와 같이 진격한 전차는 적진에 직격탄을 퍼부어 대안의 적 전차와 자주포를 제압하였다. 공격부대는 14:00 진지의 철조망을 넘어 노도와 같은 함성과 더불어 적진에 육박함으로써 마침내 36진지를 재탈환하였다.¹⁰⁰⁾ 이와 같이 연대는 그 동안 인해전술과 포격으로 사천강의 전초진지를 점령하여 사단 주저항선을 위협하려던 적의 기도를 끝내 좌절시켰다.

이후에도 연대는 10월 초부터 추계공세를 개시한 중공군을 맞이하여 2차에 걸친 대공세를 물리치면서 전초진지전을 반복하였다.¹⁰¹⁾ 연대는 2일 적의 공세로 시작된 연 6일간의 전투에서 적의 대병력을 격멸하여 그들 공세를 단시일내에 그 전초진지선에서 저지하게 되었다. 또한 연대는 31일 적으로부터 전례없이 치열한 집중포격과 전초진지 일대의 공격을 받아 일시 진지의 일부가 피탈되는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과감한 역습을 전개하여 끝내 진지를 고수하였다. 연대는

그 동안의 전투에서 약 1,550여 명의 적 병력을 사살하고 아군 전사 66명, 부상 262명의 희생을 입으면서 진지를 고수하였다.

국군 해병제1연대가 점령하고 있는 이 장단지역은 아군으로서는 임진강 북안에서 개성-서울 1번국도의 방어에 요지일 뿐만 아니라, 휴전시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권 방어에 전초가 되고, 적으로서는 최소한 임진강까지의 진출에 발판이 됨으로써 전초진지를 놓고 피나는 쟁탈전을 되풀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3) 不毛高地 부근 戰鬪

미 제9군단 예비로 있다가 미 제1군으로 배속된 미 제2사단은 1952년 7월 17일 미 제45사단으로부터 군단 좌익 덕은동-281고지 일대의 역곡천 남쪽 주진지 및 전초진지를 인수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장 루프너(David L. Ruffner) 소장은 제23연대(배속:프랑스 대대)를 좌전방 역곡천 동안 진지에, 제9연대(배속:타이 대대)를 우전방 동광리 동쪽 천덕산 일대의 진지에 배치하였으며, 제38연대 제3대대와 네덜란드 대대를 예비로 확보하였다.¹⁰²⁾ 당초 미 제45사단은 6월의 카운터작전으로 역곡천 남안에서 적을 격퇴하고 방어에 유리한 전초진지를 확보하였으나 이를 되찾으려는 적의 역습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¹⁰³⁾

따라서 사단의 전초진지인 불모고지(266)-포크참고지(255)-에리고지(191)에서는 매일 공방전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특히 불모고지는 역곡천 바로 남안의 주요 감제고지로서 북·서·남쪽의 삼면을 모두 통제할 수 있어 피아 모두에게 중요하였다.¹⁰⁴⁾

중공 제38군(江擁揮)은 제113사단 제338·제339연대와 제117사단 제349·제350연대 및 제115사단 제344연대를 전선에 배치하고 나머지 연대 및 제116사단을 예비로 둔 가운데 포병 10개 대대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¹⁰⁵⁾ 이들은 역곡천 북안의 주요 감제고지를 차지하여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적은 아군의 부대 교대를 틈타 7월 17일 야간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대규모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제23연대 전초진지이며 제2대대 F중대가 교대중인 불모고지에 접근하였다.¹⁰⁶⁾

22:50 대대규모의 적이 계속되는 포지원하에 전초진지로 육박하기 시작하였다. F중대가 고지에서 분진을 계속하는 동안 대대는 23:30 E중대를 투입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7월 18일 E중대가 고지에 진출했을 때 이미 고지정상은 피탈되었다. 중대는 즉시 역습을 감행하여 뺏고 빼앗기는 악전고투를 연속하였으나 결국 15:00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제23연대는 제3대대를 투입, 불모고지의 적에 대한 재반격을 실시하였다. 16:55에 K중대가 전차의 지원하에 E·F중대와 합세하여 반격을 개시하였으나 이 또한 적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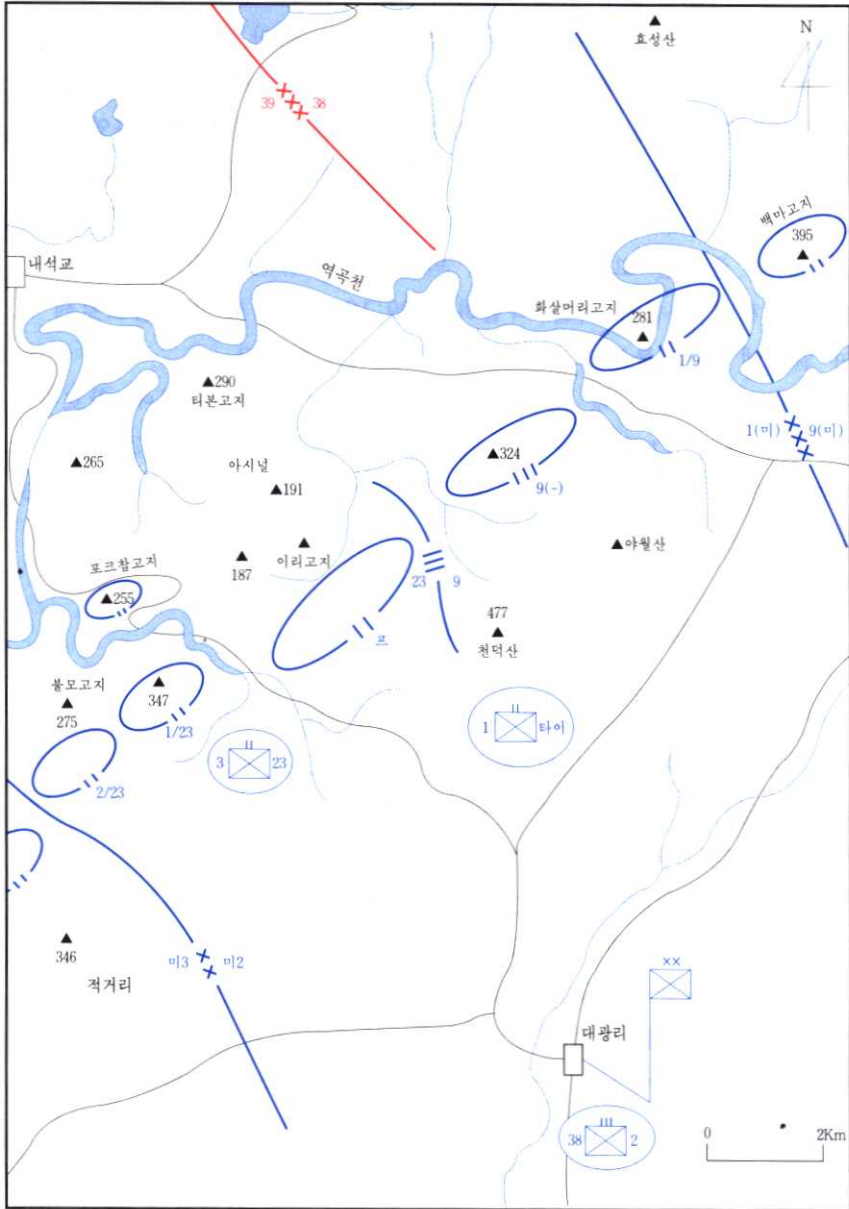
연대는 이날 야간에 다시 1개 대대규모의 공격부대를 편성하여 재반격을 개시하였으나 역시 진출이 지연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려 진흙탕 속에서 공격이 둔좌되고 말았다. 특히 B중대 경우 20여 명밖에 남지 않는 손실을 입으면서 철수하였다.¹⁰⁷⁾

다음날 아침부터 대대는 I·L중대로 공격을 재개하여 몇차례 반격을 실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적의 집중포화를 받아 많은 병력손실을 입은 채 실패하였다. 이날 제2사단 제38연대 제1·제2대대가 인천에서 전곡 일대로 집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제45사단과의 진지교대를 완료하였다.

제23연대는 불모고지 탈환을 위해 계속 반격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연일 계속되는 강우로 인하여 도로·교량이 유실되어 병력 일부가 고지 동남 일부를 차지한 채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제1대대가 공격부대로 선정되어 제3대대와 진지교대를 한 후 후방에서 1주일간 계속되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리틀 조(Little Joe)라고 명명된 반격작전 훈련(예행연습)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 작

불모고지 부근 상황



전은 제37야포대대가 직접지원하며 사단 공병대대 B중대와 전차 및 중박격포중대 등이 지원하도록 되었다. 또한 사단 항공정찰이 행해지고 별도의 통신대책과 진진에 따른 보급대책까지 모두 마련되었다.¹⁰⁸⁾

마침내 7월 31일 22:00 비가 개이자 대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A·C중대는 병진하여 목표로 진격하였다. 양 중대는 적의 포격이 집중되는 가운데 고지 양면으로부터 적의 방어진을 압축하였다.¹⁰⁹⁾ 다음날 04:25 양 중대는 고지 정상까지 약진하여 수류탄을 투척하고 백병전을 전개하여 마침내 적을 격멸하고 09:10 정상에서 합세함으로써 10여 일만에 다시 불모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연대는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주간 동안의 항공지원하에 참호작업과 지뢰 매설, 그리고 통신망 가설에 주력하였다. 이후 제2사단은 간헐적인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소규모 수색·정찰전을 전개하면서 불모고지를 방어하였다.¹¹⁰⁾

(4) 高陽堡·臨津江 부근 戰鬥

국군 제1사단은 불모고지 전투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1952년 10월 1일, 군단예비에서 군단의 중앙 미 제3사단의 작전임무를 인수하여 좌로는 영연방 사단, 우로는 미 제2사단과 병행하여 임진강 동서안, 역곡천 남안을 연한 주저항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사단장 박임항(朴林恒) 준장은 제15연대를 좌전방, 제12연대를 우전방으로, 그리고 제11연대를 예비로 하여 임진강 서안 신촌-동안 264고지-고작동-역곡천 남안 음지촌-양지촌을 연한 선(제임스타운 선)상의 주진지를 확보하고 텃시(Tessie, 150)-닉키(Nickie, 130)-소(小)노리고지(Nori, 110)-199고지-250고지-168고지 일대의 전초진지를 점령하였다. 사단 장병들은 2개월간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전투력이 우수하고 사기가 왕성한 편이었다.¹¹¹⁾

작전지역은 평균 200~300m 내외의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고 경계

진지는 물론 주저항선의 일부도 적의 감제하에 놓여 있었으며, 임진강이 역곡천과 합류하여 'S'자로 흐르면서 좌전방 연대의 작전지역을 양단하고 있어 방어에 불리하였다. 특히 좌전방 연대의 전초진지인 텃시-닉키-노리고지는 마량산(315)보다 낮은 능선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수의 진이 되어 유지가 어려웠다.

작전기간 중 날씨는 계속 청명하였으나 새벽의 짙은 농무로 인하여 관측 및 항공지원에는 제한을 받았다.

제15연대는 배속된 연대수색중대의 각 1개 소대가 전초임무를 수행중인 취약한 텃시고지 및 닉키고지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추면서 진지를 보강하고 있었다. 연대는 제17야전포병대대에 하 A·B포대, 미 제58 및 제9야전포병대대, 미 제72전차대대 A중대 및 공병 제3중대 1개 소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보급도 극히 양호한 편이었다.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39군(鐘偉) 제116사단(張峰)으로서 거의가 국부군의 투항병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군사훈련과 전투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산악전에는 우수한 편이었다. 그러나 아군의 부단한 폭격과 포격으로 인하여 보급과 사기는 저조한 편이었다.¹¹²⁾

사단이 교대한지 6일째인 1952년 10월 6일 중공군 제116사단은 사단 작전지역에 맹렬한 포격을 가한 후 19:55경 제348연대가 예비대인 제2대대로써 제15연대 제3대대 전초고지인 텃시고지 및 닉키고지를 공격하였다. 적은 2개 중대규모로 나뉘어 양 고지를 공격, 20:15 고지전면 50m까지 접근하였다.¹¹³⁾

연대수색중대 전초소대가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적의 공격준비사격에 철조망, 지뢰, 교통호가 거의 파괴되어 역부족이었다. 전초소대는 교통호에서 적을 저지하며 저항하였으나, 적의 포격에 통신마저 두절되어 지원사격을 받지 못하였다.¹¹⁴⁾

전초소대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적은 다발총을 발사하며 투항을 강요하였으며, 21:50 좌우측으로 각각 1개 소대씩 우회하여 진지를

포위하는 동시에 아군의 철수로를 차단하였다.¹¹⁵⁾ 전초부대는 최후저지사격을 요청하면서 진지를 고수하였지만 점령될 위기에 처하였다.

연대는 전초가 적에게 점령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탈환하기 위하여 연대수색중대 1개 소대와 지원받은 사단수색중대 2개 소대로 다음날(10월 7일) 08:20 동고지에 대하여 역습을 실시하였다.

연대수색중대 1개 소대가 텃시고지로, 사단수색중대 2개 소대가 닉키고지로 각각 진출, 8부 능선까지 도달하여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고지상의 적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아 공격이 둔좌되고 말았다.¹¹⁶⁾

한편 사단장의 지시로 배속받은 제11연대 제10중대가 도착하여 제3대대장은 자대의 제10중대와 진지교대를 시킨 다음 제10중대 2개 소대로 텃시고지를, 1개 소대로 닉키고지를 각각 공격하였다. 15:10 1개 소대는 진출 도중 사단수색중대 2개 소대와 합류하여 닉키고지 8부 능선까지 진출하고 2개 소대는 연대수색소대와 합류하여 텃시고지로 일제돌격을 재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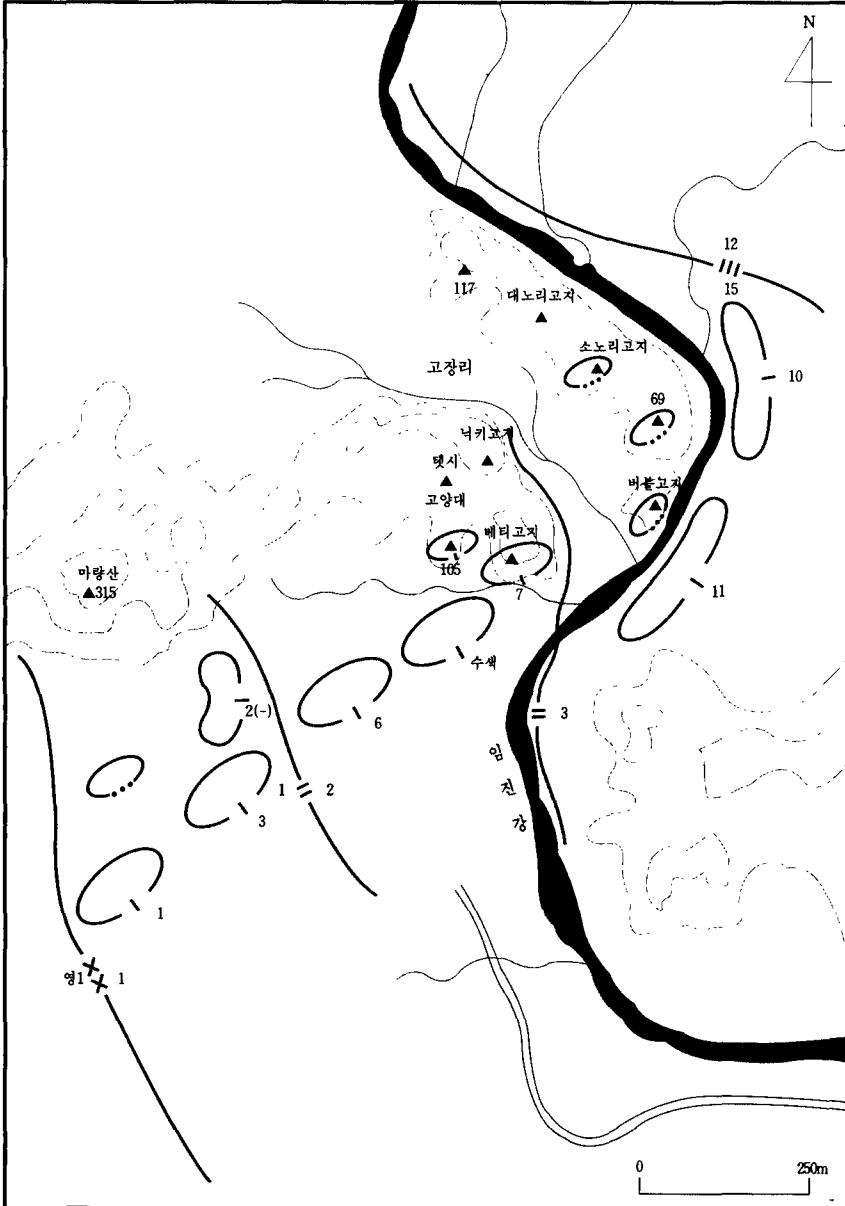
이번 역습에는 연대 4.2" 박격포는 물론 포병지원사격과 F-80전폭기의 지원까지 받았으나, 적의 발악적인 수류탄 투척과 저항으로 인하여 공격이 둔좌되었다. 이에 제10중대 병력을 수습하여 다음 공격에 대비하였고 사단수색중대 및 연대수색중대는 후방으로 철수하여 부대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대대장은 다시 10월 8일 미명 제10중대 주력으로 닉키고지에 대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중대는 03:00 기습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포병·전차·항공의 지원하에 닉키고지를 재차 공격하였으나 역시 적의 집중적인 화력을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¹¹⁷⁾

사단장은 그 동안의 탈환전이 거듭 무위로 끝나게 되자 다시 사단 예비 제11연대 제3대대를 제15연대에 배속시켜 집중적인 역습을 감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제15연대 제3대대장은 제11연대 제3대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제15연대 제9, 제11중대를 209고지 남단에 집결시켰다.¹¹⁸⁾

제15연대장은 기필코 닉키와 텃시고지를 탈환하기로 결의하고 제3

고양대·임진강 부근 전투



대대 1개 중대가 포병의 집중지원하에 텃시고지로 양공을 전개하고 주력으로 닉키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11중대가 10월 9일 01:00 공격을 개시 105고지를 일격에 탈취한 후 텃시고지를 공격하는 가운데 제9, 제10중대가 닉키고지로 약진하였다. 그러나 공격부대는 일시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공격이 둔좌되었으나 사단장의 독전을 받고 다시 12:00 공격을 재개하였다.

공격주력은 F-80전폭기의 공중공격과 포병의 제압사격에 뒤이어 미 제72전차대대 A중대의 전 전차가 닉키고지로 포격을 집중한 가운데 돌격을 재개하였다. 공격부대는 진전에서 쏟아지는 적의 진내사격과 호 속에서 자동화기와 수류탄으로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맞아 6차례에 걸친 돌격에도 불구하고 목표점령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¹¹⁹⁾

이때 16:30 사단을 방문하여 전투상황을 보고받은 군단장이 진전 없이 손실만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일단 역습을 중지하고 현 진출선에서 전초진지를 확보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사단은 현 진출선에서 전초진지를 재편성하기에 이르렀다.¹²⁰⁾

따라서 제15연대는 3일간의 혈전에도 불구하고 전초진지인 텃시, 닉키고지를 피탈된 상황하에서 역습을 중지하고 그 남쪽 약 500m 지점의 105고지-베티(Betty)고지 선에 전초진지를 새로이 편성하였다.¹²¹⁾

이후 사단은 당시 군단의 작전목표의 하나인 포로획득에 주력하면서 역습재개의 호기를 노리고 있었다. 이 무렵 군단의 지시(10월 22일)로 사단은 작전지역을 서쪽으로 다소 조정함을 계기로 제11연대를 좌전방에 투입하고 제15연대를 예비로 확보하는 한편, 연대의 전투지경선도 임진강을 경계로 조정함으로써 임진강이 연대의 방어지역을 종단하던 취약점을 해소하였다. 이때 제51연대가 사단에 배속되어 측후방과 후보급로 경계를 담당하였다.

11월에 접어들어 사단은 포로획득과 적 전초기지 파괴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11일에는 다시 좌전방 부대교대로 제15연대가 일선으로 나섰다. 이 무렵 적도 부대교대를 하여 중공 제47군 예하

제140, 제141사단이 사단과 대치중이었고 제139사단을 예비로 보유하였다.¹²²⁾

다시 좌전방 연대가 된 제15연대는 105고지-베티고지-소노리(Nori) 고지를 연하는 선에 전투전초를 설치하고 전투정찰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소노리고지는 배수의 진에 삼면이 적에게 노출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어 진지의 확보나 보급 및 전투근무지원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었다.¹²³⁾

12월 11일 01:00 적은 그 동안의 소강상태를 깨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틈을 이용하여 제15연대 방어전면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적 연대규모가 공격준비사격에 뒤이어 소노리고지와 베티고지로 주공을 지향하고 대거 침공함으로써 주저항선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¹²⁴⁾

소노리고지 제9중대 정면에는 중공군 1개 대대가 양측방에서 집중 돌파를 시도하고 일부 병력이 후사면으로 포위를 꺾하였다. 중대는 2파, 3파로 몰밀듯이 밀려오는 적의 파상공격에 결국 고지를 내어주고 말았다. 반면 베티고지상의 제7중대는 용전분투 끝에 적을 물리치는데 성공하였다.¹²⁵⁾

이때 연대장은 적의 기도가 전면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기작전에 유리한 전초진지를 탈환하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노리고지를 역습하도록 하였다. 08:00 제15연대 제3대대는 예비 제11연대 수색중대의 지원을 받아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전 30m지점에서 수류탄과 자동화기로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에게 돈좌당하였다. 대대는 곧이어 병력을 수습한 후 재공격에서 적진을 돌파하고 고지를 점령하였으나, 잇달은 적의 역습에 재차 고지를 상실하고 말았다.

사단장은 제15연대의 역습이 무위로 끝나게 되자 사단예비인 제11연대를 투입하였다. 사단장은 소노리의 상실로 주저항선이 적에게 위협받고 있었으므로 기필코 이를 탈환하도록 강조하였다.¹²⁶⁾ 그러나 제11연대는 제2대대가 공격에 실패하자 곧이어 제3대대를 투입하였다.

공격계획을 완성한 제3대대장은 사단장과 미 제1군단장의 배석하

에 계획을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협소한 공간에 대규모 부대투입은 회피해야 한다는 것과 소노리고지 방어의 발판인 그 북쪽 대노리고지의 탈취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대대는 목표를 소노리와 대노리의 탈취에 두고 증강된 1개 중대규모를 투입하되 상황진전에 따라 예비대를 후속시키기로 하였다. 공격에 앞서 12개 포병대대가 소노리고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으며, 유엔 공군기 B-26 6대가 목표지점을 폭격하였다.¹²⁷⁾

12일 오후 공격을 개시한 제11연대 제3대대 제9중대는 소노리고지에서는 7부 능선상에서 적의 집중포화와 수류탄 세례를 받아 공격이 둔화되고 있었으나, 대노리고지를 공격한 중대는 전차소대의 지원하에 1개 소대를 우회시켜 대노리고지를 확보하였다.¹²⁸⁾ 당시 사단정보참모의 증언에 의하면 대노리고지 공격을 시종 지켜본 미 제1군단장은 감탄사를 연발하였다고 한다.¹²⁹⁾ 그러나 중대는 대노리고지를 계속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음날 대대는 계속하여 제11중대를 소노리고지로, 제10중대를 대노리고지로 투입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전폭기 편대가 40분간 걸쳐 적에 집중폭격을 가하였으며, 뒤이어 약 100분에 달하는 포병의 공격 준비사격이 실시되었다.

09:30 공격을 개시한 대대는 제11중대가 고지 7부 능선상에서 일시 공격이 둔화되었으나 일부 병력을 측후방으로 투입시켜 마침내 목표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¹³⁰⁾ 이 무렵 대노리고지를 공격중인 제10중대는 많은 병력 손실을 입으면서 철수하고 있었다.¹³¹⁾

전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단장은 대노리고지 탈취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격부대의 철수를 명령함과 동시에 혈전 끝에 탈환한 소노리고지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¹³²⁾

이 작은 전초진지 쟁탈전에서 사단도 많은 인명손실을 입었지만 중공군 제140사단 제420연대도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여 예비로 전환되고 군단예비인 제139사단이 투입되어 사단과 대치하였다.

2. 鐵原－金化地區의 決戰(Showdown 作戰)

철원－김화지구의 중서부전선에서는 미 제9군단이 7월 중순 국군 제9·국군 제7·미 제2사단을 전방에 배치하고 미 제40사단을 예비로 확보하여 중공 제15·제38군과 대치하고 있었으나 여름 동안 별다른 접전없이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인민군과 중공군이 아군 전초에 대하여 대대적인 선제공격을 전개하였으며, 국군과 유엔군측에서도 이에 맞서 제한적이나 적극공세를 취함으로써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고, 10월에 접어들어 절정에 달하였다.

기간 중 군단 좌익의 제9사단이 10월 6일부터 백마고지에서 혈전을 벌이었고, 이날 좌인접 미 제2사단에 배속된 프랑스 대대가 중공군 1개 연대로부터 화살머리고지 공격을 받았으나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치열한 근접전까지 수행하여 동 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¹³³⁾ 한편 군단 우익에서는 백마고지에 대한 적의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이 10월 14일 김화 북쪽의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선제 공격하였다.

따라서 기간 동안 군단 정면의 주요 전투는 철의 삼각지대에서 유리한 통제권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철원에서는 적이 백마고지를 선제 공격하였고, 김화에서는 아군이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특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 白馬高地 戰鬥

백마고지(395) 전투는 1952년 10월 6일부터 철원 북방 395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9사단이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받고 10일 동안 혈전을 수행한 끝에 이들의 격퇴에 성공한 전투이다.

군단 좌익의 제9사단은 이 전투가 벌어지기 1년전인 1951년 10월 17일부터 철원지역의 주저항선에 투입되어 좌로는 395고지(백마고지) 우로는 중강리까지 11km의 철원평야를 방어하고 있었다.

사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38군(江擁輝) 예하 제114사단 제340, 제324연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제113사단이 좌인접 미 제2사단 정면에, 제112사단이 제38군 예비로서 수정덕산 부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왜식장총, 다발총, 중기관총, 무반동총, 박격포 등으로 장비되고 보급·훈련 등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단의 주저항선은 대부분 철원평야를 가로지르는 개활지였으며 다만 좌단의 395고지 부근만 구릉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적이 효성산(619)을 비롯한 유리한 고지들을 장악하여 사단 방어지역을 감제하고 있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아군은 방어에 취약하였다. 특히 주저항선 5km 전방에 위치한 봉래호는 작전지역의 역곡천을 범람시킬 수 있어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사단장 김종오(金鐘五) 소장은 9월 22일부로 좌전방에 제30연대, 우전방에 제29연대를 배치하고 제28연대를 예비로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배속받은 제51연대도 대대단위로 운용하면서 주저항선을 방어하였다. 이중 백마고지 방어를 담당한 제30연대는 395고지에 제1대대를, 중마산 일대에 제2대대, 역곡천 남안에 예비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있었다.¹³⁴⁾

사단은 당시 적의 기도를 395고지를 탈취하여 철원평야를 제압하는 동시에 차기 대공세를 위한 발판을 구축하며 철원을 중심으로 한 광범한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중부전선에서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고 아군을 크게 위협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¹³⁵⁾

기간 동안 기상은 대체로 청명하였으며, 야간에도 월광으로 인하여 비교적 관측이 양호하였다. 청명한 날씨는 아군의 항공지원에 유리하였다.

이 무렵 전 전선에 걸쳐 적의 공세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정찰

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차 10월 3일에 중공군 군관 1명이 귀순하여 “중공군 제114사단이 10월 4~6일 사이에 백마고지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사단은 395고지 방어병력을 2개 대대규모로 증강하고 사단에비로 하여금 즉각 역습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10월 6일 아침부터 국군 제9사단 정면에 포격을 집중하던 적은 봉래호 뚝을 파괴하여 역곡천을 범람시키며 중공군 제38군 제114사단이 19:15 제30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395고지 일대로 공격해 들어왔다. 적은 제340연대가 1개 대대를 고지주봉에서 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능선으로 투입하고, 1개 대대를 주봉으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이날밤 적과 3차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격퇴하였다.¹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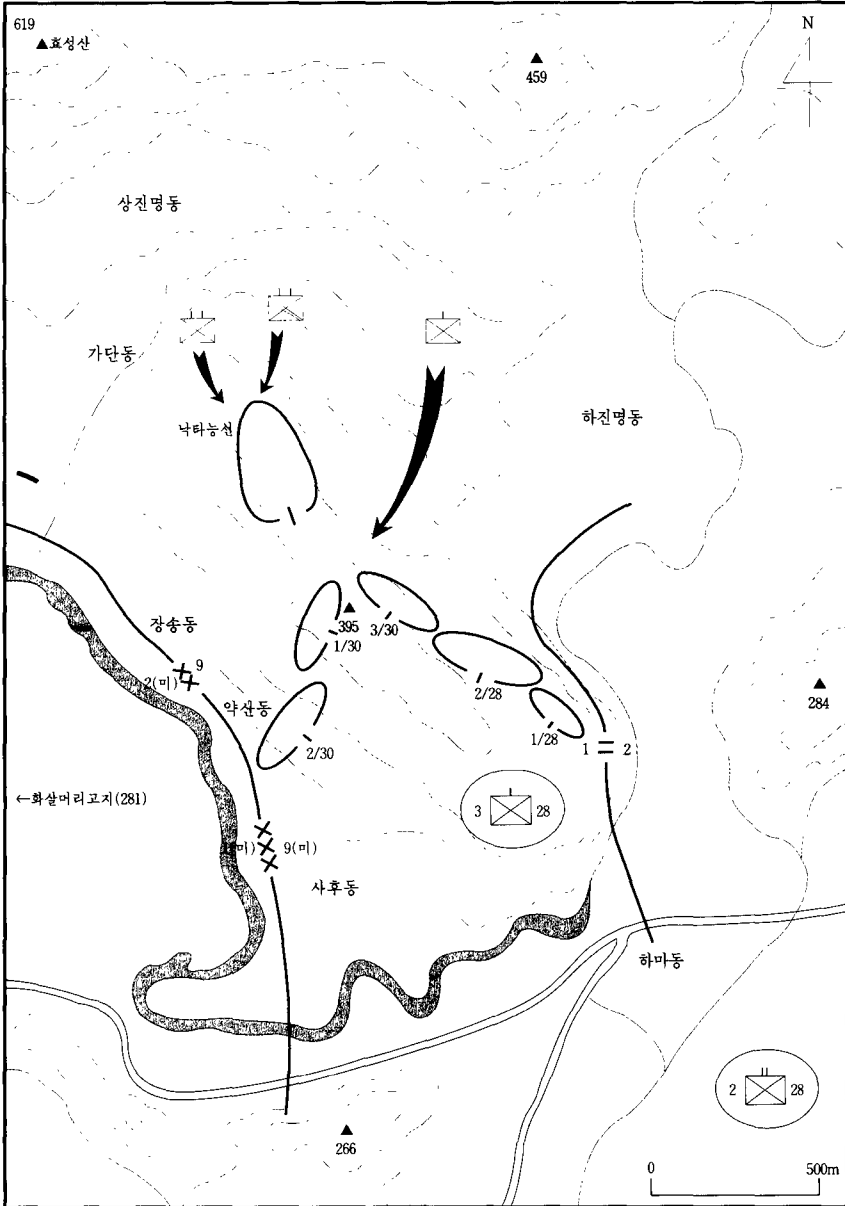
중공군은 이날밤 395고지 공격에 앞서 좌인접 미 제2사단 방어지역이며 395고지 서남방 3km 지점의 화살머리고지(281)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는 395고지에 대한 양동작전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고지에 배치된 프랑스 대대는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근접전투를 벌여가며 적의 파상공격을 방어하였다.

다음날 밤 395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중공군은 2개 대대로 전초진지를 포위하면서 계속 압력을 가하였으며, 국군은 제30연대가 일시 고지 정상으로부터 철수하였으나 약 2시간 후 사단으로부터 탈환 명령을 받은 제28연대가 역습을 감행함으로써 이를 다시 탈환하였다. 연대는 탈환 즉시 적의 반격에 대비하여 진지를 강화하는 작업에 주력하였다.¹³⁷⁾

10월 8일 새벽 고지 일대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자 적은 제5차 공세를 재개하였다. 이날 적은 전날까지의 공격이 여의치 못하자 중공군 제38군 예비인 제112사단 제334연대를 투입하였던 것이다.

국군 제28연대 장병들은 사력을 다하여 이에 맞섰으나 짙은 안개로 포병 및 항공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08:10 주봉을 적에게

백마고지 전투



피탈당하고 말았다. 사단은 17:00 제28연대 제3대대를 투입 또다시 반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적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장장 8시간 여의 격전을 거듭한 끝에 23:05 마침내 주봉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5차에 걸친 밀고 밀리는 치열한 공방전에서 제28, 제30 양연대는 거의 재편성이 불가피할 정도로 많은 병력 손실을 보았다. 사단은 적 포로의 진술을 기초로 적의 공격이 당분간 계속되리라 판단하고 배속된 국군 제51연대를 우일선에 투입하고 제29연대를 백마고지에 운용할 복안으로 사단에비로 전환하였다.¹³⁸⁾

9일 밤 자정이 지나면서 중공군은 또다시 집요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근 3시간에 걸친 과상공격으로 밀어닥친 적은 새벽 03:00고지 주봉과 그 우측능선의 일부를 다시 수중에 넣는데 성공하였다.

날이 밝자 사단은 적이 점령한 고지정상에 17,700발의 포탄과 항공기에 의한 화력을 집중투하하고 이날밤 제29연대로 하여금 역습을 전개하도록 하였다.¹³⁹⁾ 연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자정 무렵 고지 주봉을 점령하고 적을 격퇴하였다.



백마고지 전투를 지원중인 국군 제53전차중대의 M-36전차 전차병들이 포탄을 재적재하고 있다.

중공군도 결코 이 고지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세였다. 10일 새벽 적은 정상을 향하여 개미떼처럼 기어오르고 있었으며 04:00 무렵부터 피아간에는 수류탄 투척전과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으나 국군 제29연대 제1대대가 주봉에서 9부 능선으로 철수한 후 제2대대의 증원을 받은 후 역습을 감행, 이날 06:30 다시 정상을 탈환하였다.¹⁴⁰⁾

10월 11일 밤 고지는 다시 중공군의 수중으로 넘어갔으나 12일 아침 반격 제30연대가 제29연대를 초월공격함으로써 이를 재탈환하였으며 다시 적의 반격을 받아 피탈되었다. 이에 제28연대가 다시 밀고 밀리는 육탄전을 10월 15일까지 계속한 끝에 탈환에 성공하였다.¹⁴¹⁾

이어 제29연대가 기세를 몰아 395고지 북쪽 낙타능선상의 전초진지를 탈환하게 됨으로써 적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거의 궤멸상태에 이른 중공군 제38군은 예하 사단을 축차로 철수시켜 전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화살머리고지의 프랑스 대대도 많은 인명손실을 입었지만 끝까지 진지를 확보하였고, 이로써 좌익으로부터 백마고지에 미치는 적의 위협을 차단하여 제9사단의 백마고지 방어에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군 제9사단은 10월 6일부터 중공 제38군의 공격을 받아 연 10여 일간 12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하여 7회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수행한 끝에 395고지를 확보하였다.

395고지는 이러한 격전의 결과 벗겨진 그 고지의 모습이 백마(白馬)의 외상(臥像)과 비슷하다 하여 이후 백마고지라 불리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 제38군은 총 9개 연대 중 7개 연대를 투입하여 그중 1만여 명이 전사상 또는 포로가 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국군 제9사단도 총 3,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9사단은 전투기간 중 적시 적절한 예비대의 투입 및 부대교대 등으로 부대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목표 탈취를 위한 투지를 견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포병 및 항

공화력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¹⁴²⁾

결국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9사단은 철의 삼각지를 지배하기 위한 적의 전략적 기도를 꺾고 끝내 고지를 확보하였다.

(2) 狙擊稜線 및 三角高地의 쇼다운(Showdown)作戰

철원을 방어한 국군 제9사단의 우측에는 미 제7사단과 국군 제2사단이 김화를 방어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은 철원평야 동쪽의 증가산으로부터 김화 북쪽 하감령까지, 국군 제2사단은 하감령에서 동북쪽으로 하소리에 이르는 주저항선에서 오성산(1062)을 확보하고 있는 중공군 제15군의 제45사단과 대치중이었다. 당시 적 제45사단은 오성산에서 김화로 뻗어 내린 능선상의 고지군에 전초진지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그중 상감령 고개 동서의 삼각고지(598)와 저격능선(580)의 전초는 미 제7사단 및 국군 제2사단의 전초진지로부터 불과 200m 거리에 있어 아군 진지를 감제관측할 뿐만 아니라 김화방어에도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2년 여름부터 공격작전을 펴는 적이 가을에 접어들어 전 전선에서 작전의 주도권을 잡고 아군 전초진지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였고 그 일환으로 군단의 서측방 백마고지에 대한 공격도 실시하였다.

이에 제8군사령관 뱀플리트 장군은 이와 같이 공세로 나오고 있는 적을 수세로 몰아넣고 아군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는 김화 북쪽 방어선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제9군단의 공격작전 계획을 승인해 주도록 유엔군사령관에게 건의하였다. 이는 오성산 부근의 중공군 전초 가운데 삼각고지와 저격능선 2개소를 목표로 선정하여 국군과 유엔군 1개 대대가 각각 1개 목표를 탈취하도록 하되, 군단의 화력과 항공근접지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단기간에 작전을 종료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작전은 아군이

공격작전을 감행할 능력이 있다는 ‘힘의 과시’라는 의미에서 소위 쇼다운(Showdown) 작전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작전은 휴전협상이 결렬된 10월 8일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적극 추진되었다.¹⁴³⁾

이에 군단장 젠킨스(Reuben E. Jenkins) 소장은 즉시 다음날 “미 제7사단과 국군 제2사단 각각 1개 대대로 삼각고지(598)와 저격능선을 탈취한 후 적의 공격에 대비한다”는 군단작전계획을 하달하여 만반의 공격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¹⁴⁴⁾

국군 제2사단은 1952년 6월 29일부로 김화지역에 진출하여 미 제40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하면서부터 이곳의 방어에 임하게 되었다.¹⁴⁵⁾ 사단은 남대천 북방 일련의 능선을 따라 편성된 주저항선에 예하의 제32, 제31, 제17연대를 배치하고 제37경보병연대를 예비로 확보하고 있었으며 그중 제32연대는 저격능선 남쪽에 배치되었다. 미 제7사단은 한탄강 좌우로 서방산(717)과 오성산(1062)에서 뺀 고지군에 주저항선을 편성하였으나 양개 사단 공히 지형적으로는 불리하였다.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15군(秦基偉) 예하 제44, 제45사단으로서 삼각고지와 그 전방에는 제45사단 제135연대가, 저격능선과 그 전방에는 동 사단의 제133연대가 배치되어 있었다.¹⁴⁶⁾

저격능선은 국군 제2사단의 주저항선 정면 500여m 전방에 위치한 약 500m 길이의 능선으로서 표고는 580m 정도이다. 이 능선은 남쪽 봉우리(A고지)와 북쪽 봉우리(Y고지) 그리고 동쪽으로 뺀 돌바위 능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저격능선 좌측에 위치한 삼각고지는 역삼각형 형태의 고지군으로서 남쪽의 제1봉인 598고지를 중심으로 동북쪽 800m 제2봉(제인러셀고지), 서북쪽 900m에 돌출한 제3봉(파이크봉) 등 세 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저격능선과 삼각고지 사이에는 상감령이라고 불리는 고개가 있다.¹⁴⁷⁾

10월 14일 05:00 드디어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은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에 대해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군단예하 16개 포병대대의

280문의 포가 일제히 공격준비사격의 포문을 열었으며, 유엔 항공기의 근접항공지원이 개시되었다. 포병의 사격으로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는 물론 오성산 전체가 섬광과 포성으로 지각이 무너지는 듯하였다.¹⁴⁸⁾

그러나 이에 앞서 백마고지 전투가 전개됨으로써 많은 지원화력이 제9사단으로 전환되어 5일간 끝내려는 쇼다운 작전은 최초 계획대로 지원화력을 받을 수 없어 작전의 차질이 예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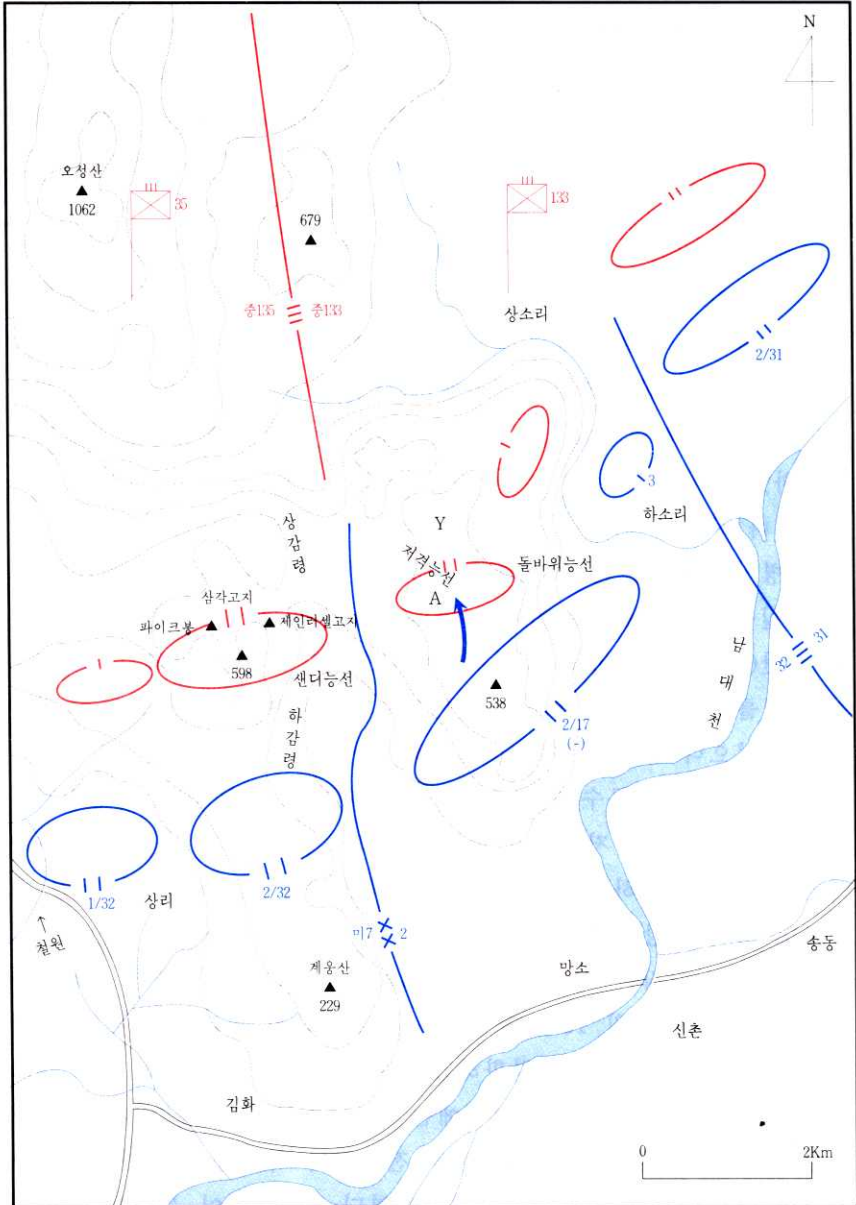
국군 제2사단(丁一權 중장)의 좌익 제32연대의 예비인 제3대대는 제9, 제10중대를 좌우 공격부대로, 제11중대를 예비로 하여 저격능선으로 향하였다. 공격부대는 적의 탄막사격을 헤치며 전진하였다. 06:00 경 매봉과 돌바위고지까지 진출한 대대는 적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하였으나, 15:20 결국 저격능선상의 중심목표 Y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부대는 이날 야간 중공군 제45사단 제133연대의 반격을 받아 백병전까지 치르는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였으나 부득이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은 채 철수하고 말았다. 이 무렵 삼각고지를 공격한 미 제7사단(Waynes C. Smith 소장)의 제31연대도 제인 러셀고지와 598고지 일대를 점령하려고 적의 참호선까지 진출하며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결국 원위치로 철수하였다.

적은 수류탄을 무수히 투척하고 소화기탄을 난발하며 형성장약과 폭뢰를 터트리면서 저항함은 물론 그들의 지원사격과 아군의 지원화력의 포탄이 낙하하는데도 미친 듯이 참호전을 전개하는 등 어떤 희생에도 고지를 방어하려 하였다.

국군 제2사단장은 다음날 즉시 제17연대 제2대대에 다시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 10월 15일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17연대 제2대대가 공격을 재개하여 목표를 탈환하였으나, 적의 역습에 밀려 철수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인 10월 16일에는 국군 제17연대 제2대대와 제32연대 제2대대가 협조된 공격작전을 전개하여 목표를 탈취한 다음 중공군의 역습까지 물리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부대들도 마찬가지로

삼각고지 및 저격능선 전투



가지로 중공 제133연대와 제134연대의 끈질긴 공격을 받고 3일 동안 공방전을 반복하다가 끝내 저격능선을 빼앗기고 10월 19일 밤에 또 다시 원진지로 되돌아서게 되었다.

한편 삼각고지를 공격하던 미 제7사단 병력은 16일 정상인 598고지 일대를 점령한 후 파이크봉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여 한때 이 고지의 적을 축출하기도 하였으나 필사적인 적의 역습을 막지 못해 19일 이를 상실하였다.¹⁴⁹⁾

10월 20일 이후에도 같은 양상의 치열한 공방전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으며 국군 제2사단은 적시적절한 부대교대를 실시하면서 저격능선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10월 23일에는 중공군 제45사단이 파이크봉에서 삼각고지로 또 한차례 공격을 가해 왔다. 이때 삼각고지를 점령한 미 제7사단 제32연대는 물론 이에 배속된 에티오피아 대대도 이 고지 서측으로 접근하려는 적의 공격을 저지함으로써 삼각고지 방어에 큰 기여를 하였다.¹⁵⁰⁾

이 무렵 10월 25일부로 국군 제2사단은 군단지시에 따라 미 제7사단의 삼각고지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의 작전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¹⁵¹⁾ 제2사단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단 예비인 제37경장비연대를 주저항선 우측의 외야동에 배치하고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제31연대를 삼각고지에 투입하였다.

삼각고지의 작전을 인수한 제31연대는 중공군과 몇 차례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을 전개하였으나, 30일에 이르러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삼각고지를 상실하고 계웅산 일대로 철수하였다. 전날 중공군 제29사단이 제45사단과 교대하여 저격능선에 투입되어 있었다. 다음날 군단은 31일부로 국군 제9사단 제30연대를 국군 제2사단에 배속시켜 삼각고지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부대이동을 완료한 제30연대는 11월 1일부터 삼각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수차례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많은 병력 손실을 입은 채 탈환에 실패하였다.¹⁵²⁾

그러던 중 미 제9군단장은 11월 5일부로 삼각고지 작전을 중지하

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군단장은 소다운 작전이 개시된 이래 병력 손실만 가중되는데다가 저격능선마저 위협받게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¹⁵³⁾

따라서 국군 제2사단은 저격능선작전에 주력하게 되었고, 중공군 또한 이 지역으로 집중하여 저격능선의 결전에 의해 승패가 가름되는 판국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얼마 동안은 예상과는 달리 쌍방은 정찰 활동에 주력하고 본격적인 공격작전은 전개하지 않고 있었다.

11일 사단은 A고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부대를 교대하여 제17연대를 예비로 돌리고 대신 제32연대를 저격능선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날 연대는 제1대대가 중공군으로부터 대대규모의 공격을 받아 A고지를 상실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반격작전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¹⁵⁴⁾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삼각고지 전투가 종결된 후 11월 9일에 중공군 제12군 제31사단이 저격능선으로 증원되어 제29사단과 합세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다시 제32연대에 주저항선의 방어임무를 맡기고 제17연대에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제17연대 제1대대가 즉시 공격에 나섰다. 대대는 화력과 병력을 A고지로 집중, 2시간 동안의 과감한 돌격전을 전개하여 마침내 동 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 여세를 몰아 돌바위고지를 공격, 일거에 탈환하였다.¹⁵⁵⁾

13일 22:00 중공군은 대규모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한 후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A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1시간 반 동안 혈투를 전개하면서 대항하였으나 자정 무렵 진지가 돌파되어 피아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분산철수하게 되었다.

연대장은 즉시 제3대대로 반격을 개시하여 A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적의 맹렬한 저항으로 돌바위고지를 확보하는데는 실패하였다. 이에 제2대대가 돌바위고지 탈환임무를 부여받았다.¹⁵⁶⁾

11월 17일 07:00 제2대대는 제1야전포병단의 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하여 2시간여 교전 끝에 동 고지를 탈환하였다. 이로써 제17연대는 마침내 저격능선상의 A고지와 돌바위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¹⁵⁷⁾

적의 반격은 11월 25일까지 계속되었으나 제2사단은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였으며 이날 군단명령에 따라 방어임무를 제9사단에 인계하고 군단예비로 전환하여 부대정비에 들어갔다.¹⁵⁹⁾ 아군은 저격능선상의 고지로부터 돌바위를 연하는 능선 일대에 주저항선을 추진하여 계속 반격해 오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적은 그 동안 42일간의 저격능선전투에서 사살 3,772명, 추정사살 11,023명, 포로 72명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적 제45, 제31사단은 오성산 후방으로 철수 재편성 및 정비에 임하였으며, 제29사단은 12월 1일 저격능선 전투임무를 제12군 제34사단에 인계하고 부대정비에 임하였다. 아군 역시 국군 제2사단이 그 동안의 반격작전에서 전사 1,096명, 부상 3,496명, 실종 97명의 큰 피해를 입었다.¹⁵⁹⁾

군단의 쇼다운 작전 계획에 따라 전개된 저격능선과 삼각고지 전투는 제8군이 이해에 마지막으로 시도한 공격작전으로, 당초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의 각 1개 대대로써 5일간이면 성공리에 작전을 종결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였으나, 결과는 의외로 국군 제2, 미 제7사단의 거의 전 부대를 투입되고도 42일간이나 지속된 기간 중 최대규모의 혈전이 되었다. 정면의 중공 제15군이 강력한 방어의지를 보인 까닭으로 삼각고지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한 끝에 급기야 군단이 이를 단념하게 됨으로써 저격능선만을 계속 확보하게 되었다.¹⁶⁰⁾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은 저격능선전투에서의 승리로 유리한 전초진지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군의 기세를 꺾음으로써 전 전선에 걸쳐 작전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휴전회담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3. 金城川 부근의 決戰

휴전회담이 개최된지 1년이 지나도록 포로송환 문제로 진전을 보

지 못하고 좌초된 상태에서 적은 아군 정면에 강력한 국지공격을 감행, 회담을 유리한 방향으로 타개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금성천 부근의 국군 제2군단(白善燁 중장, 7월 23일부터 劉載興 중장)은 1952년 4월 5일 화천에서 재창설된 다음 미 제9군단으로부터 금성~북한강 동안까지의 전선을 인수하고 제6·수도·제3사단을 배속받아 이곳 중동부 전선을 방어중이었다. 당시 군단의 주저항선은 금성 남쪽 3km 봉화산-교암산-663고지-북한강 동안 어운리-949고지-973고지-통선골로써 이미 1951년 추계공세 때 주로 국군이 제한공세작전에서 확보한 선이었다.

이때 군단의 방어중점은 금성의 통제를 최우선으로, 주저항선의 주요 고지군을 확보하여 17번 도로, 103번 도로, 그리고 949고지에서 북한강으로 이르는 적의 접근로를 봉쇄함은 물론 주저항선 전방에서 적의 공격을 격퇴, 현 전선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군단과 대치중인 적은 중공군 제12군과 제68군 일부로 판단되었다. 제12군은 제67군과 교대한 군으로서 제31사단을 국군 제6사단 전방의 금성 북쪽에, 제35사단을 수도사단 전방의 을사리(672고지)-747고지-좌수동(748고지)에 배치하고 제34사단을 창도로에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 제68군은 제12군과 연하여 북한강 동안 어운리에서 문등리 간 전선을 담당하였으며 그 이하의 제203사단이 국군 제3사단과 대치중이었다.

이러한 대치 국면에서도 국군 제2군단이 이곳의 방어임무에 투입된 이래 쌍방이 주로 진지강화와 정찰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전선은 소강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국군 제2군단장이 6월 10일에 각 사단으로 하여금 적정탐지와 적진파괴 및 교란을 목적으로 한 제한목표공격을 실시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전투, 주로 전초진지 쟁탈전이 재연되었다. 이 작전에는 1개 대대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부대를 운용하도록 하였다(이 작전은 'Back Shot'작전이라 칭하였다).¹⁶¹⁾ 이 선제공격에 적의 하계 및 추계공세가 이어짐으로써 1952년 후반에는 군단 전역에서 전

초진지 전투가 전개되었다.

그중에서도 수도사단 전초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 제3사단의 949고지 북쪽 전초 독수리고지(572고지) 및 피의 고지(748고지), 그리고 제6사단 정면이며 금성 동측 2km 지점의 A, B고지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1) 首都高地 및 地形稜線戰鬪

당시 수도사단은 군단의 전투지경선 조정(1952. 6. 16)에 따라 군단의 중앙사단으로서 교암산 동측 765고지-690고지-663고지-북한강 동안 어운리 선을 주저항선으로, 575고지, 지형능선(690고지에서 동북쪽으로 뻗은 1km의 능선), 수도고지(663고지 북 500m, 610고지) 등에 전초를 운용중이었다. 이때 사단은 여호고개-여문리를 경계로 좌전방에 제1연대, 우전방에 제26연대를 배치하고 제1기갑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사단 정면의 중공 제12군 예하 제35사단은 수도사단의 전방 572-495-594-747-714-748-472고지 선에 방어편성을 하고 있었다. 이 사단은 야전경험이 풍부한 부대로 산악 유격전에도 능숙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들 진지의 대부분이 동굴화되어 있었다. 이들은 전선 부근에 약 1개월분의 보급품을 저장하고 있는 외에 전투시 개인당 5~6일분의 식량을 지급함으로써 일정기간 전투를 지속할 수 있었다.¹⁶²⁾

따라서 피아는 울사리-쌍령동-여호고개-좌수동-북한강을 잇는 일련의 횡격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립한 형국이었다. 그런데 적의 일부 전초는 그 계곡을 넘어 지형능선 하단, 여호고개 남쪽 621고지까지 추진되어 아군의 방어에 전자는 가시와 같기도 하고 후자는 비수와 같기도 하였다.

이에 수도사단장 송요찬(宋堯讚) 준장은 백쇼트 작전계획이 하달되자 이 두 곳의 적을 제거할 목표하에 “사단은 제1연대 1개 대대가

404 제 4 장 休戰協商의 決裂과 軍事作戰의 再開

지형능선 하단을, 제26연대 1개 대대가 621고지를 목표로 7월 8일 01:00 공격을 개시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여 군단장의 승인을 받아 6월 말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다.¹⁶³⁾

수도사단은 7월 8일 01:00 공격준비사격과 아울러 제26연대 제2대대(-)가 621고지로, 제1연대 제3대대가 지형능선으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은 가랑비로 인한 농무로 기도비닉 유지에 유리한 반면 적정판단의 어려움이 있었다.¹⁶⁴⁾

제2대대는 제7중대 제3소대가 선두에서 공격, 적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면서 일시 고지 정상을 장악하였으나, 고지 서북쪽의 적으로부터 역습을 받아 물러났다. 지형능선으로 향한 제3대대는 사단포병의 지원사격으로 적의 직사화력의 거점을 침묵시키면서 지형능선 하단의 3개의 무명고지 ㉠-㉢를 차례로 석권하였다. 그러나 선두 제9중대는 미처 진지를 재편할 여유도 없이 양면에서 적의 포격을 받아 ㉢고지는 포기하고 말았다.¹⁶⁵⁾

다음날 21:00 ㉠-㉢고지를 장악하고 있던 제11, 제10중대도 적의 집중적인 반격을 받았다. 양고지에서는 각각 피아가 뒤엉킨 치열한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대대장은 ㉠고지만은 끝내 확보하려 하였으나 다음날 미명, 적세를 감당할 수 없었다.¹⁶⁶⁾

지형능선과 수도고지에 대한 제한공격이 무위로 끝난 후 전선은 8월 초까지 다시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사단은 7월 말부터 제1연대를 예비로 돌리고 제1기갑, 제26 양연대로 주저항선을 정비하여 진지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던 중 8월 5일 적이 소강상태를 깨고 수도고지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20:00 적은 사단 주저항선 일대에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하고, 진전에 매설된 네이팜탄과 지뢰를 폭파시켜 공격로를 개척하였다. 23:30 예상대로 중대규모의 적이 수도고지 북사면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¹⁶⁷⁾

제26연대 제11중대는 2차례에 걸쳐 진전에서 적을 격퇴하였으나,

수도고지의 전초소대가 적의 포격에 견디지 못하여 주진지인 663고지로 철수하고 말았다. 적은 그 기세를 몰아 663고지 일대로 압박해 오고 있었다.¹⁶⁸⁾

그리하여 6일부터 8일까지 수도고지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사단장 이용문(李龍文) 준장(7월 9일부)은 수도고지가 주진지에 너무 근접한 점을 고려하여 제1연대 제2대대를 제26연대에 배속시켜 주진지를 강화하였다. 제26연대장은 6일 탈환한 수도고지를 다음날 다시 적에게 내어주자, 이날 배속된 제1연대 제2대대를 역습부대로 투입하여 재탈환하였다.¹⁶⁹⁾

이와 같이 수도사단의 전선은 7월과 8월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서 각각 한차례씩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전개되었으며, 그 뒤 8월 중순에 접어들어서 다시 교착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9월 6일부터 다시 적은 공격을 재개하였다. 18:50 적은 맹렬한 공격준비사격을 가한 후 19:00 1개 중대 병력을 선두로 한 1개 대대로 추산되는 후속부대가 수도고지 좌우 계곡으로부터 공격하여 왔다.¹⁷⁰⁾

이 고지를 방어 중이던 제26연대 제5중대는 최후까지 분전하였으나 적의 포화에 의한 극심한 피해와 병력의 열세로 수도고지가 적에게 유린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1소대는 소대장 홍창원(洪昌源) 소위 이하 전원이 전사하는 비운을 맞았다. 연대는 20:50 제10중대로 최초 역습을 실시한 이후 6차에 걸쳐 탈환전을 전개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¹⁷¹⁾

이에 제1연대가 탈환임무를 부여받았다. 9월 9일 20:00 연대 제5·제6중대는 공군의 근접지원과 군단 포병의 지원하에 공격을 개시 23:00 목표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연대는 수차례 적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끝내 고지를 사수하였다.¹⁷²⁾

한편 지형능선상에는 기갑연대가 적과 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9월 6일 18:40 적은 기갑연대 제5중대가 배치된 지형능선과 제6중대가 배치된 575고지에 맹렬한 공격준비사격과 더불어 각각 1개 중대

병력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왔다. 지형능선상의 전초소대는 21:05 수명의 생존자만이 철수하면서 능선을 적에게 내어주고 말았다.¹⁷³⁾

연대는 6일 21:30 제5중대의 1차역습을 시작으로 6차에 걸친 역습에도 불구하고 탈환에 실패하였다. 이에 9월 14일 03:35 제1연대가 제9·제10중대의 7차에 걸친 치열한 역습으로 탈환에 성공하였다. 연대는 이후 9월 20일까지 수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격퇴하면서 진지를 사수하였다. 사단은 9월 6일부터 2주간에 걸친 격전으로 사상 2,406명의 전과를 달성하였으며, 아군도 전사 455명, 부상 1,419명, 실종 61명의 피해를 입었다.¹⁷⁴⁾

사단은 그후 10월 6일부터 4일간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 재개된 적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나, 8일 제1기갑연대가 575고지를 상실한 후 끝내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후 사단은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진지보강과 철저한 경계태세로 전환하였다.¹⁷⁵⁾

결국 수도사단은 중공 제35사단을 맞이하여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서 4개월이나 공방의 혈전을 반복하여 이를 확보하였으나 575고지를 잃은 상태에서 군단지시(제42호)에 의해 10월 25일 현 주저항선을 제8사단에 인계하고 미 제8군의 예비로 전환되었다. 한편 중공 제35사단은 575고지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지형능선과 수도고지 작전에 실패하여 전투력이 반감된 상태에서 10월 말 제67군 예하 사단과 임무 교대하였다.¹⁷⁶⁾

한편 수도사단이 수도고지와 지형능선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좌인접 제6사단(白仁燁 준장)은 제2연대(宋大厚 대령)가 6월 11~12일에 중공군 제31사단 전초인 금성 동측 2.5km A고지와 2km B고지를 탈취하여 아군의 전초(GOP)를 설치하였다. 이들 두 무명고지는 적으로서는 금성 동측방을 방호함은 물론 17번 도로를 방어하고 차후 공격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고지였다. 제6사단이 이를 탈취함으로써 적이 금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적의 동측 후방에서 17번 도로를 따라 금성으로 병력과 보급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계지대의 중심을 그만큼 신장하기도 하였다.

이후 적은 여러 차례 이를 탈환하기 위해 역습을 해왔으나 제6사단은 이 전초를 계속 확보하였다.

(2) 독수리高地 및 피의 高地 戰鬪

수도사단의 우익 제3사단은 북한강 동안의 어운리-송정-통선골까지의 전선을 방어하였으며, 440-949-973-780고지군을 연하는 선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그 전방에 많은 전초를 운용하였다. 사단은 적의 추계공세가 시작될 무렵의 1952년 9월에는 제22연대를 서, 제23연대를 동, 제18연대를 예비로 적과 대치중이었다. 사단의 방어중심이며 적의 주공격목표로 판단된 949고지를 포함해 북한강 동안의 방어부대인 제22연대는 북한강 동측과 949고지에 대한 적의 공격을 조기에 경고하고 저지하기 위하여 어운리 572고지(독수리고지)와 949고지 북쪽 748고지(피의 고지)까지 전초를 추진 배치하였다.

사단에서는 양 전초진지가 공격당할 경우 제18연대를 역습부대로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 계획에 따라서 155mm 곡사포 18문, 105mm 곡사포 18문 등 포병지원화력도 이 정면으로 집중시키고 있었다.¹⁷⁷⁾

9월에 접어들면서 점차 적의 공세기도가 탐지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강 상류 좌안에 있는 좌인접 수도사단의 수도고지 전투가 치열해지는 전황의 긴박성과 더불어 사단 정면에서도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949고지 일대에 배치된 제22연대는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수색 활동을 전개하여 적의 기도탐지에 주력하였다.

사단과 대치중인 중공군 제68군 제203사단은 어운리-송정-암동 북쪽과 북동쪽의 횡격실 능선과 고지군에 주진지를 형성하고 아군 전초선에 가까이 전초진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적은 차기작전에 유리한 아군 주진지의 중심인 949고지를 점령할

목적으로 공격준비를 해왔으며, 먼저 그들의 작전수행에 큰 방해를 받고 있는 독수리고지와 피의 고지를 점령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122mm 유탄포 및 105mm 유탄포 35문 등 각종 포 77문을 이 일대로 집중시키고 있었다.¹⁷⁸⁾

9월 28일 야간 중공군 제203사단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이날 22:10 적은 적색신호탄 6발을 신호로 122mm 포 등 각종 포탄을 제22연대의 전초진지인 독수리고지(제7중대), 피의 고지(제2중대)와 사단 주저항선 일대에 전례없이 집중적으로 퍼붓기 시작하였다. 적의 포격으로 일순간에 전초진지 제7, 제2중대와 대대간의 모든 통신망이 마비되었다.¹⁷⁹⁾

곧이어 적은 1개 대대를 독수리고지에, 1개 대대를 피의 능선 고지에 투입하여 침공을 개시하였다. 적의 침공을 예상하고 있던 양 전초중대는 진전 30m까지 적을 유인하여 혈전에 혈전을 거듭하며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위기에 처하고 있었다. 이에 연대장은 즉시 제6중대를 독수리고지로, 제1중대를 피의 고지 일대로 지원하도록 하였다.¹⁸⁰⁾

전초진지의 전황은 28일 자정을 넘어서면서 더욱 치열해졌다. 중공군의 기도는 제203사단 주력을 제22연대의 정면에 집중하여 949고지를 비롯한 주저항선상의 감제고지군을 점령함으로써 북한강유역 일대를 제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9일 미명부터 독수리고지 제7중대는 제6중대의 지원을 받아 완강하게 적을 저지하였으나 시시각각으로 적의 압력을 받아 고지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피의 고지에서도 06:15 제2중대가 제1중대의 지원을 받아 적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적의 후속부대가 피의 고지 좌측능선으로 포위하였으므로 불가불 철수하게 되었다.¹⁸¹⁾

사단장(白南權 준장)은 적을 전초진지선에서 저지한다는 결의하에 예비로 대기중이던 제18연대에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05:00 제18연대는 제1대대가 독수리고지로, 제2, 제3대대가 피의 고지 일대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군단장도 주저항선의 일각이 긴박하다고 판

410 제 4 장 休戰協商의 決裂과 軍事作戰의 再開

단, 제6사단에 배속중이던 제52전차중대 중 1개 소대를 이날 12:00부로 제22연대 주저항선으로 투입하였다.

제18연대 제1대대가 독수리고지 7부 능선까지 진출하였으나 피아를 가리지 않는 적의 무차별 탄막사격으로 인해 많은 병력손실을 입고 있었으며, 제2대대도 피의 고지 서남측에서 공격이 둔화되고 있었다. 이 무렵 유엔공군 F-86 1개 편대가 내이팜탄과 기총소사로 적의 집결지를 집중 강타하였다. 그러나 적은 아군의 집중적인 차단공격에도 불구하고 고지 배사면에서 방어전력을 강화하고 있었다.¹⁸²⁾

사단장은 주저항선 전방의 방어중심을 보강하는 한편, 역습주력을 748고지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572고지를 역습중인 제18연대 제1대대를 철수시켜 748고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대기중이던 제3대대를 748고지에 대한 역습주공으로 투입하였다.

제18연대 제2대대가 1일 01:00 적의 집중적인 포화를 헤치며 748고지 8부 능선까지 진출하였다. 대대는 진전 40m까지 육박하여 일제 돌격을 개시하여 일시 주봉을 탈환하였으나, 끈이은 적의 반격을 받아 철수하였다. 다시 탈환의 주공임무를 부여받은 제3대대가 역습을 재개하였다. 대대는 적의 측방화력을 제압하면서 8부 능선까지 진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공격이 둔화되어 피의 고지 남단과 동측능선으로 철수하였다.¹⁸³⁾

사단장은 제18연대의 역습이 실패하게 되자 다시 동 대대와 제22연대 제1대대를 주공으로 투입하고 제18연대 제1대대를 예비로 후속하게 하는 가운데 다음날 미명 일제공격을 재개하였다.¹⁸⁴⁾

2일 04:00 제3대대가 재역습에 실패하자 다시 17:20 제22연대 제1대대가 제3대대의 진출선을 초월하여 진출하였다. 각 중대는 적의 집중포화 속에도 불구하고 사선을 차례로 돌파하면서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전진하였다.¹⁸⁵⁾

대대는 적의 자동화기 거점을 수류탄으로 제압하면서 돌격을 감행하였다. 대대장은 지금까지 아군의 역습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적의 자동화기 거점을 파괴하지 못한다 있다고 판단, 일제들격에 앞서 1개 소대를 진전 50m까지 진출시켜 적의 화력거점을 파괴하는데 성공하였다.

곧이어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각 중대가 일제들격을 감행하였으며 마침내 19:45 주봉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사단장은 즉시 예비인 제18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적의 역습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후 양대대는 몇 차례 적의 반격을 받았으나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아 고지를 확보하였다.¹⁸⁶⁾

국군 제3사단은 5일간의 전초진지 쟁탈전에서 전사 109명, 부상 384명의 손실과 적 사살 664명, 추정사살 161명의 전과를 달성하면서 572고지는 조기에 포기하고 748고지를 확보하였다.¹⁸⁷⁾ 572고지는 적이 장악한 능선 끝에 위치하여 보급이나 병력증원도 곤란하였고 전술적으로 사단방어에는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았다. 그러나 휴전회담과 휴전선의 설정을 고려한다면 이 전초의 피탈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다.¹⁸⁸⁾

4. 北漢江－昭陽江 地域의 混戰

미 제10군단은 여름 국군 제7사단을 좌익으로 미 제25사단을 중앙으로, 그리고 국군 제8사단을 우익으로 북한강 동안(통선골)으로부터 소양강 계곡까지 이미 여러 차례 격전을 치른 바 있는 1090고지－단장의 능선－812고지－854고지에 이르는 전선을 방어중이었다. 군단은 7월 18일 미 제1군단으로부터 미 제45사단(필리핀 대대 배속)을 배속 받아 이를 잠시 양구 부근에 예비로 확보하였다가 9월 25일 우익인 제8사단과 교대시켰다.¹⁸⁹⁾

이 과정에서 군단 우익지역에서는 제8사단이 9월의 부대교대 직전 812고지－854고지의 전초진지에서 인민군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12

월 다시 이 전선을 인수한 미 제45사단도 신편된 국군 제12사단과의 교대를 앞둔 25일에 또 한차례 인민군의 공격을 분쇄하였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미 제25사단과 교대한 미 제40사단이 11월 단장의 능선 북단 851고지에서 인민군의 침공을 받았으나 이를 지켜내었으며, 좌익에서는 기간중 주저항선을 계속 담당한 제7사단이 10월 중순 중공군으로부터 1090고지 부근의 공격을 받아 크리스마스고지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군단의 주진지는 다른 전선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 1090高地 부근 戰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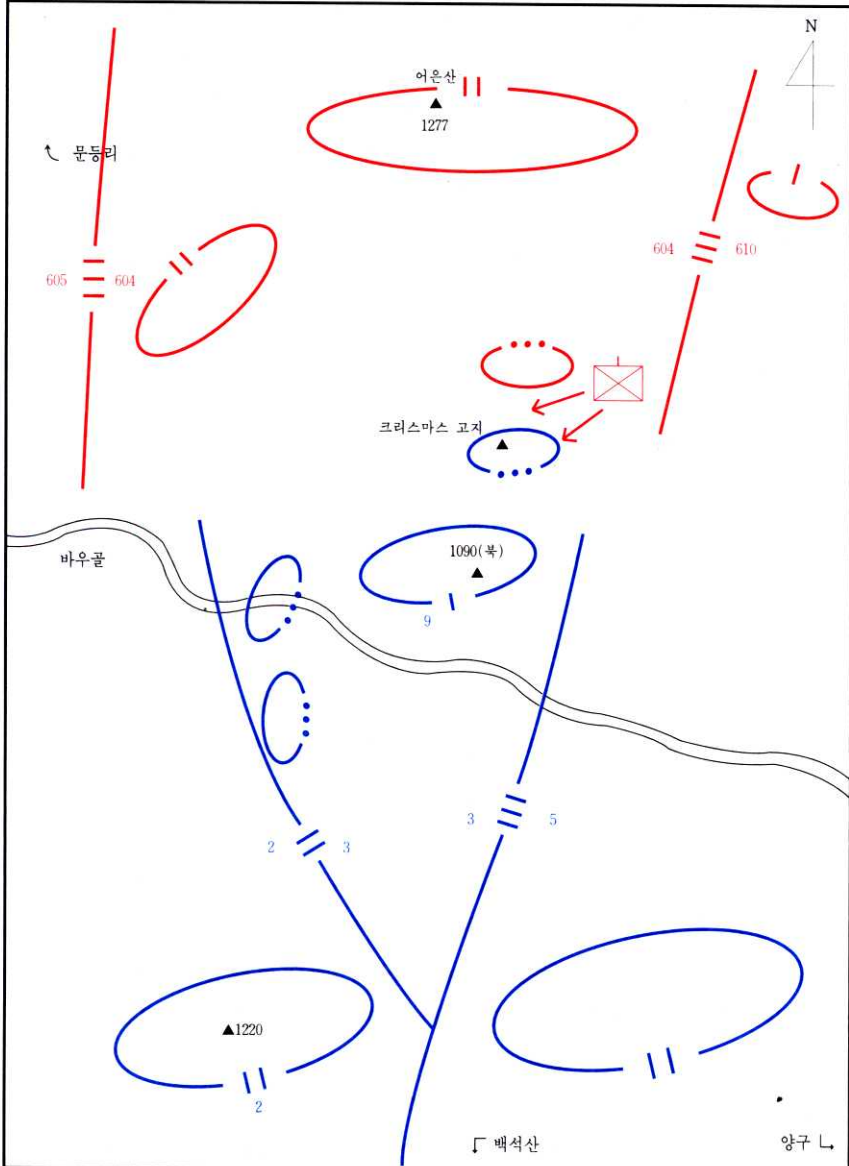
군단의 좌익으로서 북한강 동안 통선골-1220고지-내동의 주저항선을 방어중인 국군 제7사단은 1952년 2월 중순 1090고지 부근에서 격전을 치른 이후 수색 및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적과 대치중이었다. 7월 중순 사단은 육군본부의 부대신편계획에 따라 신병과 추가장비를 보충받아 전투부대 위주로 개편을 완료하여 제3연대를 좌전방, 제8연대를 우전방에 배치하고 제5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였다. 1090고지(북)은 제3연대 제3대대 제9중대가 방어하고 있었다.¹⁹⁰⁾

연대는 적이 불원간 1090고지를 재공격할 것이라 판단, 견고한 전초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각종 지뢰를 전면에 매설하여 전초진지를 계속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아군의 장비는 우수한 편이었으며 양호한 보급으로 사기도 높았다.

정면의 적 중공군 제68군 제202사단은 어은산을 주축으로 그 전방 890-918-1218-984고지군에 주저항선을 편성하고 그 전방으로 전초진지를 추진하여 아군과 대치중이었으며, 1090고지 북쪽에는 그중 제604연대가 배치되어 추계공세에 즈음해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¹⁹¹⁾

작전지역은 북한강과 수입천 사이의 험준한 산악으로 어은산(1277

1090고지 전투



고지)에서 1220고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종격실 능선이 솔구네미-바우골-내동으로 연결되는 큰 계곡에 의해 남북으로 양단되어 있다. 피아는 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대치중이었으며 1090고지(북)은 이양 단된 능선 중앙에서 북으로 돌출된 고지였다.¹⁹²⁾

10월 6일 일몰과 더불어 제3대대와 대치하고 있던 중공군 제604연대가 제3대대 제9중대의 전초진지인 크리스마스고지를 기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또다시 격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적은 공격준비사격 후 22:00 야음을 이용하여 1090고지 북방 약 300m에 위치한 크리스마스고지를 점령한 다음 1090고지에 이르는 능선접근로를 따라 쇄도하기 시작하였다.¹⁹³⁾

중대는 적을 지근거리까지 유인, 네이팜지뢰와 수류탄의 연발로 기선을 제압하면서 적을 저지하였다. 대대장은 적의 기도가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고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포병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대대에비 제11중대로 제9중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미명 적은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들은 접근로가 협소한 탓인지 1개 소대 병력을 앞세우고 1개 소대를 후속시키면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16포병대대의 탄막사격이 일제히 집중되었으며, 중대는 전 화력을 집중하여 1090고지(북) 전방에서 적을 격퇴하였다.

전황을 주시하던 대대장은 즉시 크리스마스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제11중대를 투입하였으나, 중대는 병력 열세와 지리의 열세로 실패하고 말았다.¹⁹⁴⁾ 이에 연대장은 적의 기도가 연대전력을 축차로 약화시킨 다음 방어중심지인 1090고지를 탈취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하고 1090고지 고수를 위한 방어준비에 주력하였다.

제3대대가 제10중대를 1090고지 주봉에, 제9중대를 그 북쪽에 배치하여 진지보강에 주력하던 무렵, 13일 20:00 1090고지 일대로 적의 공격준비사격이 재개되었다. 곧이어 적 1개 대대가 치열한 포지원하

에 대대 정면으로 침공하였다.¹⁹⁵⁾

대대는 각종 포로서 정면 일대에 맹포격을 가하였으나 적이 계속 강력한 아군의 화망을 뚫고 제9중대 좌익으로 접근하였다. 중대는 최후저지사격과 백병전까지 치르면서 적을 저지하였다. 중대는 집요하게 파상공격을 계속하는 적에 대해 포지원과 제11중대의 사격지원을 받아 00:10경 마침내 적을 격퇴하였다. 이 무렵 사단 지원포병이 1277고지로 분산 철수하는 적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였다.¹⁹⁶⁾

연대는 주진지에 이르는 전술요충인 1090고지(북)를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사단 주저항선 방어의 관문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전투 이후 제7사단은 1090고지를 비롯한 전초진지에 철조망과 대인지뢰, 네이팜지뢰 등을 설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력을 더욱 강화하였다.¹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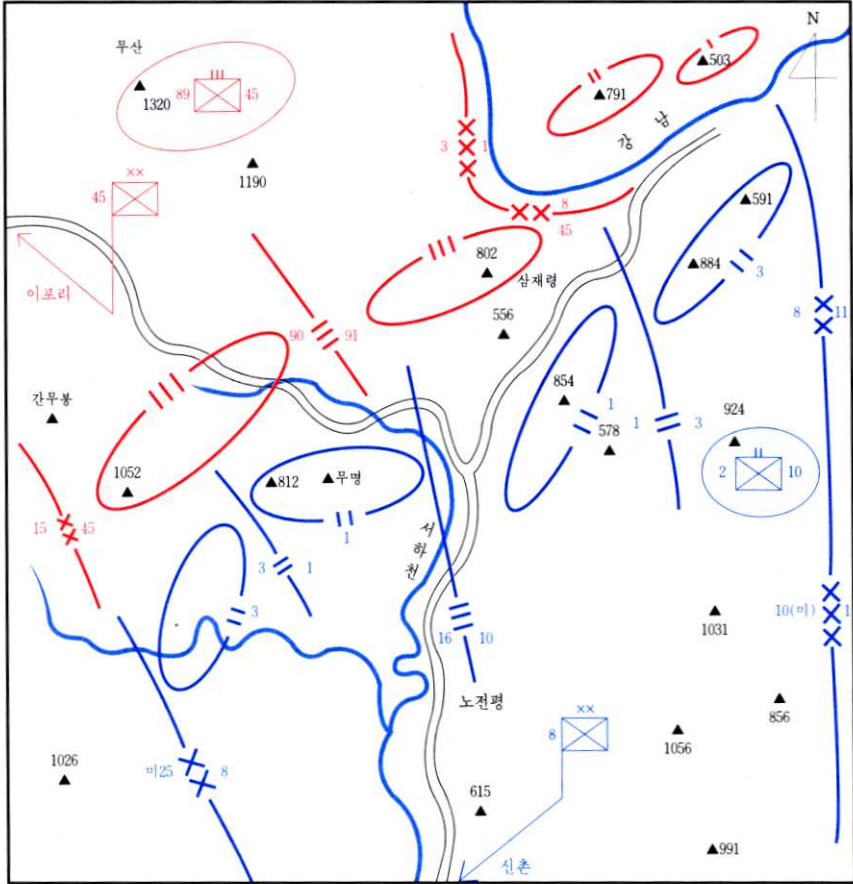
(2) 854·812高地 戰鬪

국군 제8사단은 854고지 전투를 치른 뒤 만 1년만인 1952년 9월 다시 인민군의 공격을 받아 공방전을 치르게 되었다. 사단은 백석산 지구 전투 후 전주지구에서 공비소탕전을 수행하던 중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어 전선으로 이동, 1952년 3월 미 제1해병사단으로부터 군단의 우익전선을 인수하여 노전평 북방 854-812고지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¹⁹⁸⁾

사단은 전선을 인수한 이후 8월까지 인민군과 대치한 상황에서 미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미 제7함대의 함포지원하에 1일 평균 1,000여 발의 포격을 가하는 포격전을 전개하는 한편 적정파악을 위한 소규모 수색정찰전을 반복하고 있었다.

사단의 작전지역에는 소양강이 방어지역을 양단하는 한편 황기 부근에서 “Y”형상으로 갈라져, 이 양 지류가 피아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방어지역 동측에는 남강이 북동쪽으로 흘러 지형상 방어에

812-854고지 전투



유리하였다. 그러나 소양강 상류에는 무산(1320)과 간무봉에서 사단방어지역으로 뺀 능선을 적이 점령하고 있어 사단전방 방어지역과 주 보급로(철미동-서화-인계)가 적에게 감제되어 방어에 불리하였다.

이와 같이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1052-802고지 선에 주저항선을 형성한 사단 정면의 적 인민군 제45사단은 휴전회담 기간의 전선 소강상태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그 진지를 더욱 보강하였다. 기간중

수집한 적정에 의하면, 이들은 9월 중순 대공세를 실시할 가능성이 농후하였으며, 그럴 경우 그 주공목표가 854·812고지일 것으로 판단되었다.¹⁹⁹⁾

국군 제8사단장 김익렬(金益烈) 준장은 제16, 제10연대를 주저항선에 배치하고 제21연대를 사단 예비로 확보하여 방어진지를 계속 보강하였으며, 그 결과 9월에 이르러서 방어진지를 대폭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인민군의 공격은 9월 21일 18:00에 개시되었다. 마침 이날은 사단의 현 방어임무를 군단 예비인 미 제45사단에 인계하기 하루 전으로서 적이 마치 진지교대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들은 3시간의 집중포격을 실시함과 동시에 21:10에 2개 대대로 812고지를, 22:40에는 1개 연대로 854고지를 공격해 왔다. 사단은 적의 공격시간 격차와 병력의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적이 812고지로 양공하면서 854고지로 주공을 집중할 것으로 판단하였다.²⁰⁰⁾

제10연대 좌전방 제1대대는 중앙의 854고지에 제2중대를 배치하고, 우측 705고지에 제3중대를, 좌측에 제1중대와 연대 수색중대(-)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제2중대 정면으로 중공군의 파상공격이 집중되었다. 중대는 혈전 3시간여 만에 대대의 긴급 철수명령으로 854고지의 정상에서 일단 철수하여 고지 동남쪽 854고지에 이르는 능선상에 저지진지를 급편하였다.²⁰¹⁾

또한 적은 조공의 일부로서 제3중대의 705고지로 2개 중대를 투입하였으며 특히 제2중대와외 전투지경선인 계곡을 따라 침투해 들어왔다. 중대는 혈전 끝에 자정이 지날 무렵부터 적과 백병전까지 전개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²⁰²⁾ 그러나 중대원 전원이 필사의 정신으로 적에게 돌파당했던 진지의 일각을 탈환함과 동시에 마침내 적세를 완전히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제16연대 정면의 적이 이날 854고지 공격보다 30분 앞선 22:10부터 1개 대대를 투입하고 이어 2개 대대를 후속시키면서 제1대대

812고지 전면에 압력을 가해 왔다. 적의 기도는 대대 방어선을 돌파하기보다는 사단의 화력을 유인하여 854고지로 향한 그들 주공의 전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계략인 것으로 판단되었다.²⁰³⁾

그러나 이곳에는 이미 적정과 지형 등을 감안하여 적의 예상 접근로상에 계획된 화집점에 차단사격이 집중되었다. 여기에 미 제254전차대대의 1개 소대와 동해안의 미 제7함대의 함포사격이 가세하여 적의 공격대열을 강타하였다.²⁰⁴⁾

이 무렵 제10연대는 제1대대가 적의 공세에 밀려 03:30에 854고지를 상실하고 말았다. 제1대대는 즉시 전차대와 미 제2박격포대대의 4.2" 1개 중대와 대대 중화기중대의 지원을 받아 적에게 사격을 집중하였다. 05:00 무렵 854고지를 탈취한 여세를 몰아 돌파구를 확대하려고 했던 적은 아군의 과감한 협공과 지원포의 집중사격으로 인하여 마침내 급편진지로 위축되고 말았다.

이로써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한 연대는 공중에서의 근접지원과 함포의 지원사격을 요청하여 854고지 북사면에 대한 차단탄막을 형성하는 가운데 제2대대로 역습을 전개하였다. 역습 30분전부터 대규모 공격준비사격이 개시되었다. 이때 미 제145포병대대를 비롯한 7개 지원포병대대 및 미 제245전차대대와 제5공군 편대, 제7함대 등이 적을 집중 강타하였다.²⁰⁵⁾

공격선을 출발한 제2대대는 경사지를 오르는 불리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면서 전과를 확대해 나갔다. 이로써 대대는 854고지를 완전히 회복한 다음 진지를 재편성하여 적의 반격에 대비하였다.²⁰⁶⁾

이 전투에서 특기할 사항은 동해안에 파견된 미 제7함대의 함포지원과 군단포병을 총동원하여 854고지에 포격 집중함으로써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탈환할 수 있었던 점이다. 국군 제8사단은 이후 9월 25일부터 방어책임지역을 미 제45사단에 인계하고 부대 정비와 교육훈련에 들어갔다.²⁰⁷⁾

5. 南江 南岸의 爭奪戰

전선 최동단 방어를 맡은 국군 제1군단은 1952년 1월 초 제5사단이 군단에 배속됨을 계기로 제11, 제5 양개 사단으로서 남강 남안의 주진지를 확보하여 인민군 제1군단 예하 제47, 제9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때 제11사단은 군단 좌익 남강에 연한 사천리-554고지를, 제5사단이 군단 우익 554고지-감호까지 고성 남쪽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남강이라는 천연의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는 제11사단지역은 대체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으나, 제5사단 정면에서는 적이 고성 남쪽 월비산을 확보하고 있어 그 남쪽 351고지 등 제5사단의 전초와 주저항선을 공격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국군 제5사단장 장창국(張昌國) 준장은 5월 27일 제27연대가 육군 예비에서 원복하자 7월 초 제36연대를 좌전방, 제35연대를 우전방, 제27연대를 예비로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351고지 전초진지 방어를 담당한 제35연대는 주저항선에 제2대대만을 배치하고 전초진지에 제1, 제3대대를 배치하여 전초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²⁰⁸⁾ 사단은 편제상의 지원포병 1개 대대와 1개 중박격포중대 외에 군단 포병대대와 미 극동함대 및 미 제5공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화력면에서 적보다 우세하였다.

반면 이때 인민군 제9사단은 제86연대를 국군 제35연대 정면에, 제47사단은 제2연대를 국군 제36연대 정면에 각각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 수색정찰 활동을 빈번히 전개하는 동시에 보급품 수송을 전방에까지 점차 증가시키고 있어 적이 곧 공격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었다.

작전지역은 고성까지 북으로 돌출되어 있으나 남강의 방호를 받고 351고지에서 554고지까지 일련의 능선에 방어선을 형성함으로써 아군에게 유리하였다. 적은 고성 남쪽에 배수의 진을 형성하였으나 월

비산을 확보하고 있어 국지적으로는 감측관측의 이점을 누렸다.

기간중 기상은 대체로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나 때로 강우가 있었으며, 아침은 동해안 특유의 짙은 안개로 관측이 불가능하여 기습 작전에 유리한 반면 포병 및 항공지원에는 불리하였다.

인민군 제9사단 제86연대는 351고지 공격에 앞서 정예부대를 선정하여 장기특수훈련을 실시한 후 이곳으로 투입되었다. 이들은 7월 6일 월비산을 경유 351고지와 사이에 있는 무명고지에 투입되어 정찰대와 공병대와 함께 3일 동안 351고지와 무명고지 사이에 매설된 지뢰와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²⁰⁹⁾

7월 10일 22:00 인민군 제86연대가 대규모의 공격준비사격을 개시한 후 대대 규모의 이 정예부대가 제3대대 제9중대가 배치된 351고지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대는 양면에서 적의 급습을 받아 진지의 일부가 돌파되고 말았다.²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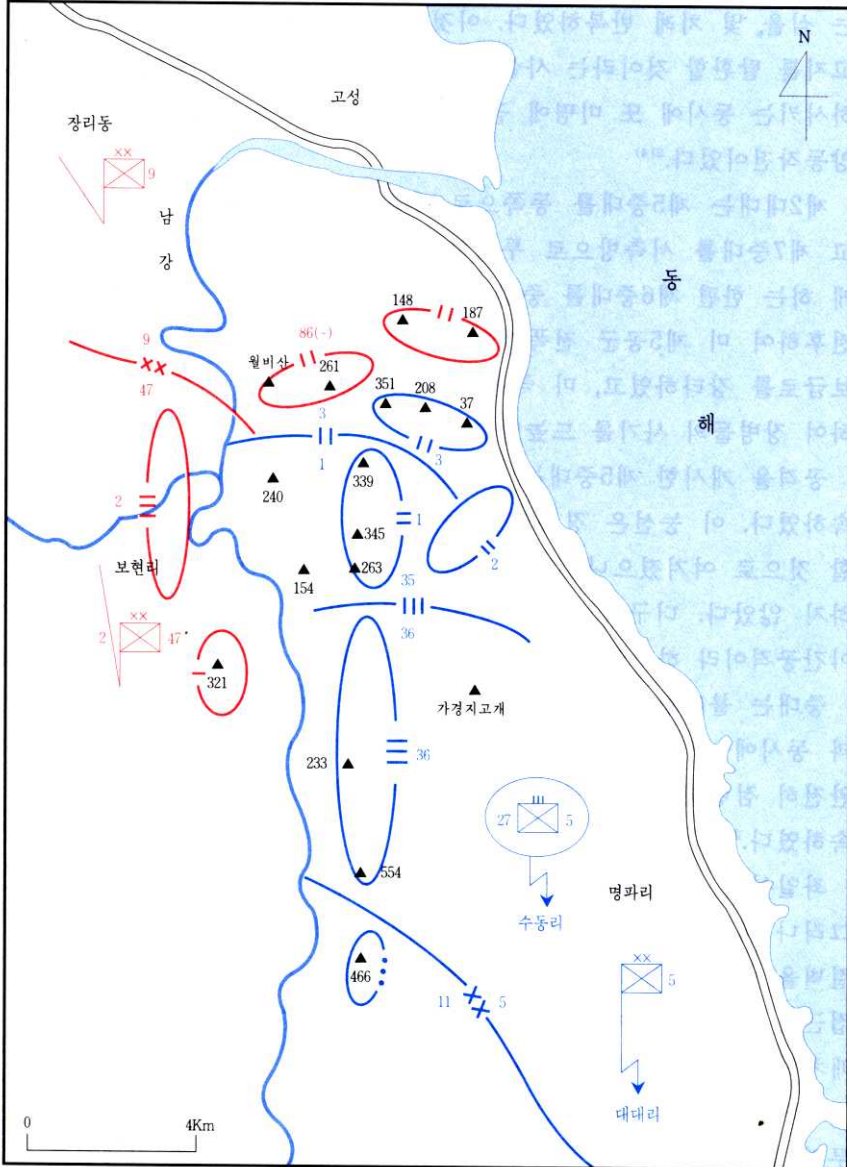
이에 사단장은 다음날 사단수색중대와 제27연대 제2대대를 제35연대에 배속시키는 한편 즉시 1개 대대로 역습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제35연대는 배속받은 제27연대 제2대대를 주저항선에 투입하고 그곳의 제2대대가 11일 14:15 동서 양측방을 우회하면서 능선을 따라 적의 탄막을 헤치며 적전으로 진출하였다.²¹¹⁾ 그러나 공격부대는 적의 측방화력과 자동화기의 집중사격을 받아 실패하였으며, 곧이어 재개된 제3대대의 몇 차례 공격도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사단장은 12일 제27연대와 제35연대를 임무교대시켜 제27연대로써 동 고지를 탈환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적의 화망을 돌파하지 못하여 4, 5차에 걸친 거듭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력손실만 입은 채 진전이 없었다.²¹²⁾

사단은 이와 같은 제27연대의 현상황을 감안하여 탈환임무를 다시 제35연대에 부여하였다. 연대장은 고지피탈의 책임을 통감하고 13일 20:30 제2대대를 351고지로 투입하여 역습을 전개하였다.²¹³⁾

이에 앞서 연대는 적을 기만하기 위해 20:00부터 트럭 10대를 동

351고지 전투



원하여 고지하단까지 갈 때에는 불을 켜고 돌아올 때는 불을 끄게 하는 식을 몇 차례 반복하였다. 이것은 아군이 대병력을 투입하여 351고지를 탈환할 것이라는 사실을 적에게 암시함으로써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또 미명에 공격을 기도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양동작전이었다.²¹⁴⁾

제2대대는 제5중대를 동쪽으로 우회시켜 동측방에서 돌격하게 하고 제7중대를 서측방으로 투입하여 22:00까지 공격개시선에 진입하게 하는 한편 제6중대를 중앙에서 후속하게 하였다. 공격개시 시간을 전후하여 미 제5공군 전폭기들이 고지상공을 누비면서 적의 진지와 보급로를 강타하였고, 미 극동함대의 함포가 계속 고지 정상을 강타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였다.²¹⁵⁾

공격을 개시한 제5중대는 동측능선을 따라 야음을 틈타 전진을 계속하였다. 이 능선은 경사가 심하지 않아 돌격선까지의 전진이 용이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그 동안의 폭격과 포격으로 전진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더구나 돌격선에서 적진까지는 경사가 이루어져 있어 야간공격이라 하더라도 적의 집중화력을 피할 수 없었다.

중대는 불리한 지형을 감안하여 특공대로써 적의 기관총을 제압함과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였다. 중대는 23:30에 351고지 동측진지를 완전히 점령하고 여세를 몰아 적을 추격하여 정상을 향해 돌진을 계속하였다.²¹⁶⁾

좌일선의 제7중대도 서측방능선을 따라 적진을 향해 전진하였다. 그러나 서측능선은 동쪽과는 달리 경사가 가파르고 곳에 따라 천애의 절벽을 이루고 있었으며, 접근로상에 설치된 지뢰와 기관총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다. 이에 중대장은 선두에 전투경험이 많은 고참병들을 배치하여 진로를 개척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험준한 비탈길을 기어올라 돌격준비를 갖추고 있을 무렵 벌써 반대편에서 제5중대가 함성을 지르며 돌격을 감행하는 중이었다. 제7중대도 때를 같이하여 돌격을 개시하였다. 적이 이미 전

의를 상실한 때라 양개 중대는 파죽지세로 적을 격퇴하여 주봉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²¹⁷⁾

이로써 351고지 탈환작전은 만 3일간 동안 수차에 걸친 공방전으로 그야말로 고지를 선혈로 물들이는 혈전이였다. 사단은 이 전투에서 적 44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획득하고, 아군 68명이 전사하고 467명이 부상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고지를 탈환한 후 제35연대 제2대대는 공병 1개 중대를 투입하여 진지와 교통호를 보수하고 지뢰, 철조망 등을 설치하면서 방어진지를 보강하였다.

사단은 그후 몇 차례의 소규모 침공을 격퇴하다가 11월 9일 적 대대 규모의 공세를 받아 한때 동 고지를 상실하였으나 적에게 진지 재편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과감한 역습을 전개하여 재탈환에 성공하면서 고지를 확보하였다.²¹⁸⁾

제 4 절 海·空軍의 壓迫作戰

유엔군은 1951년 후반 크리퍼 작전을 시작으로 지상에서 제한목표 공격작전을 감행하는 한편 동시에 공군력을 집중한 후방차단작전(Air Interdiction)을 실시하여 적의 병참선에 대타격을 가하였으며, 이 후방차단작전은 스트랭글(Strangle), 세추레이트(Saturate)로 전술에 변화를 가하며 1952년 전반기까지 실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은 휴전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1952년 4월에는 ‘일괄타결안’을 제안하였지만 여전히 포로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적의 의지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유엔군사령부는 지금까지의 공군전술 전략개념을 바꾸어 북한 내에 있는 결정적인 군사전략목표를 반복적으로 폭격하여 적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공산군이 휴전협상에 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군사적 압박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공군력뿐이다”라고 강조하였다.²¹⁹⁾

미 극동공군사령관 웨일랜드(Otto P. Weyland) 대장도 “전투작전상의 미심장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작전의 범위는 주요목표와 복합목표 및 목표체계 파괴가 포함되도록 확대되었다”고 밝혔다.²²⁰⁾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52년 후반기 유엔 공군은 군사적 목표달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한 전술 및 항공전략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항공압박(Air pressure) 전략을 계획하였다. 극동공군사령부에서 제출한 이 작전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²²¹⁾

- 1) 대공작전과 비행장의 파괴로 제공권을 유지한다.
- 2) 적의 보급품, 장비, 시설 및 인원을 파괴 혹은 손상시킨다.
- 3) 적의 보급품, 장비 및 병력의 이동을 지연시킨다.
- 4) 지상군을 근접지원한다.

항공압박작전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 제공권 획득, 둘째, 적에게 최대한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것, 셋째, 지상군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지속적인 공중공격으로 적의 장비, 보급품, 시설 및 병력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과 동일한 목표를 매일 강타하여 적에게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유엔군은 이러한 전략에 근거하여 북한 발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위한 해·공군·해병항공대의 합동작전을 계획하였으며, 1952년 6월 23일에 개시된 북한 발전시설에 대한 공격은 개전 이래 최대의 것이었다. 제5공군과 해군 및 해병항공대에서 차출된 500대 이상의 항공기로 편성된 합동특수기동부대가 수풍, 부전, 장진, 허천발전소를 공격하였다.²²²⁾ 이 작전은 한국내의 거의 모든 항공력을 총동원하는 최초의 대규모 작전으로서 4개의 발전소를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었다.

수풍발전소 폭격에는 23일 제4, 제52전투요격비행단의 약 180대 이상의 F-86전폭기들이 폭격기를 엄호하기 위해 미그회랑을 초계비행하였으며, 제7함대 기선인 항모 박씨(Boxer)호를 비롯하여 프린스턴(Princeton)호, 필리핀 씨(Philippine Sea)호에서 출격한 해군 F-9F전투기들이 압록강안의 적 대공포진지를 강타하였다.²²³⁾

동시에 해군 F-4U와 F-9F전투기 약 72대가 급강하 폭격을 감행하여 거대한 발전소의 건물 및 변전기를 폭파하였으며, 뒤이어 제5공군 F-84 및 F-80전투기 120대가 같은 목표에 폭탄과 로켓탄으로 정밀공격을 가하였다. 이 공격으로 적의 발전소의 대형 변압기와 발전기 등이 파괴되었다.²²⁴⁾

아울러 유엔 해·공군은 동부지역의 발전소도 공격하였는데, 항공모함에서 접근하기 쉬운 허천발전소는 해군함재기들이 공격하였으며, 부전 및 장진발전소는 미 제5공군과 해병대 전폭기들이 강타하여 발전소 건물과 변압기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날의 작전에서는 처음 적의 대공포격에 격추된 해군함재기 5대를 제외하고 모두 무사히 귀환하였다.²²⁵⁾

유엔 해·공군은 북한발전소를 영구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공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6월 24일과 26일, 27일 연속하여 장진 및 부전발전소를 강타하여 동해안 수력발전소에 치명타를 가하였다.²²⁶⁾

수풍발전소에 대한 두 번째 폭격은 9월 12일 야간에 실시되었다. 이 작전에 제307, 제98전폭비행단과 제19전폭전대의 B-29중폭격기 31대가 집중폭격을 감행하였으며, 야간 침투기인 B-26경폭격기들도 목표지역을 계속 초계비행하였다.²²⁷⁾

이와 같이 유엔 해·공군에 의해 발전소 시설이 거의 마비되자 북한은 이의 급속한 복구를 위해 소련에 122만kW 용량의 변압기 60대와 전압옥외시설 측정변압기 등의 장비를 11월 15일까지 지원해줄 것을 긴급요청하였다.²²⁸⁾

수송발전소에 대한 두 번째 폭격 후 4개월 후인 1953년 2월 15일에는 발전기 2대가 다시 가동되는 것 같아 세 번째 폭격이 실시되었으며, 이로써 북한의 발전체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한편, 유엔 해·공군은 7월 초 심리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평양을 폭격하기로 결정하였다. 평양 공습은 미 제5공군과 미 해병항공대 및 해군함재기의 합동작전이었다.

유엔 해군은 두 척의 항모 프린스톤호와 리차드호에서 91대의 함재기를 동원하고 주로 제5공군의 엄호아래 폭격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미 공군의 F-84썬더 제트기가 적의 대공포를 선제공격한 연후에 F-4U 코르세어(Corsair)와 AD 스카이라이더(Skyraider)기가 뒤따라 적의 시설물에 폭탄을 투하하는 순서로 되었다.²²⁹⁾

항모 함재기들은 원산 여도에서 출격하였다. 함재기들의 공격목표는 평양 동남 탄약보급소와 수송부대 그리고 사령부와 병사(兵舍)를 비롯하여 공장과 기관차정비소 및 차고 등이었으며, 다른 목표는 미 제5공군 미 해병항공대, 호주 공군 그리고 제95기동부대의 항모 오션(Ocean)호의 함재기가 담당하였다. 이들 유엔 공군의 활동은 미그기와의 공중전에 대비하고 함재기의 폭격을 가능하도록 대공포를 제압하는 것이었다.²³⁰⁾

7월 11일 평양 대공습에 미 제5공군과 미 해군함재기 822대를 3파로 나누어 폭격하도록 하였으며, 이날 밤 쇼오란통제를 받은 54대의 B-29중폭격기가 8개의 군사목표를 강타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엔 공군은 F-84전투기 1대와 해군항공기 2대를 상실하였으나 평양에 있는 적의 보급품집적소, 공장, 병력집결소, 철도시설, 대공포진지 등 복합목표를 공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사진정찰 결과 29개의 목표 중 최소한 3개의 목표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2개 지역을 제외한 전 목표지역이 심하게 파괴된 것으로 판명되었다.²³¹⁾

이날 평양에 투하된 폭탄만 하여도 11시간에 1,400여 톤의 폭탄과 23,000갤런의 네이팜탄이었으며 대부분이 목표물에 명중되어 1,500여

개의 건물이 파괴되고 900여 동의 건물에 피해를 주었다. 북한은 이날의 공격에 대하여 계속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었으나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되었다.²³²⁾

극동 공군은 8월 4일 다시 평양에 대한 제2차 공습을 감행, 제5공군 전폭기 284대가 평양 동쪽 북한군사령부를 공습하여 건물 80동, 연료집적소 1개소, 대공포진지 등을 파괴하고 적병 다수를 사살하였다. 이어 극동 공군은 8월 29일 다시 3차 공습을 단행, 이날 총 1,080대의 공군 및 해군전투기와 36대의 한국공군 F-51전폭기가 3차에 걸쳐 평양의 45개 군사목표지역을 강타하여 31개 목표에 심한 피해를 주는 전과를 얻었다.

3차에 걸친 대규모 공습 결과 극동 공군의 평가에 의하면, 평양시는 당분간 재건 불가능상태라고 판단되었다. 유엔군은 이후에도 평양시내의 특수목표에 대한 정밀조준폭격을 계속하였다.²³³⁾

이밖에 유엔 해군은 해상에서 대규모 함포사격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7월 5일 제77기동부대의 전함 아이오아(Iowa)호는 원산항을 7시간 동안 포격하여 해안포 및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였으며, 7월 15일 제95기동부대의 미 구축함 오렉(Orleck)호는 동해의 양도-청양 간에서 적의 보급열차를 함포사격하여 15개의 객차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7월 중 유엔 해군함대가 동해안에서 적 열차를 폭파한 전과는 총 28량에 달하였다.²³⁴⁾

유엔 해군은 9월 1일 제7함대 휘하 항모 에섹스(Essex)호와 프린스톤호, 박씨호에서 도합 144대의 함재기가 출격하여 북한에서 가장 큰 정유보급지인 아오지 정유공장 일대를 폭격하였으며, 10월 8일 제7함대 함모 3대에서 출격한 89대의 함재기와 극동 공군 중폭격기 B-29 10대와 함께 고원 일대의 고사포진지·철로·통신망·부대·보급시설 등을 파괴하였다.²³⁵⁾

그후 11월 17일에는 제77기동부대의 함재기들이 청진 일대의 해안 철도 시설과 공장, 광산들을 폭격하였으며 미주리(Missouri)함 및 헬

레나(Helena)함이 합세하여 5회에 걸쳐 청진 시가를 포격하였다. 유엔 해군은 1952년 후반 해상작전에서 구축함 톰슨(Tompson)호, 시어스(Searce)호, 바탄(Bataan)호 등이 피격되는 손실을 입었다.²³⁶⁾

이밖에 유엔 해·공군은 1952년 후반 지상전투가 점차 치열해지면서 수차례의 근접항공 지원작전을 병행하였다. 미 극동 공군과 해병대 및 국군 공군과 우방연합국 공군기들이 지상군의 고지쟁탈전을 근접지원하기 위해 매일 평균 2천여 회 이상의 출격을 감행하였다.

특히 제5공군은 지상군의 쇼다운(Showdown)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항공기를 출격시켰다. 이 작전에서 공군기들은 2,217회에 걸쳐 미 제7사단과 국군 제2사단의 근접항공 지원작전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10월 중 유엔 공군이 실시한 총 근접항공지원 4,488회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²³⁷⁾

주 기

- 1) 국군정기작전보고 제55호(1952년 7월 16일).
- 2)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7권, 1957, p. 6.
- 3) 국군정기정보보고 제198호(1952. 7. 16) ; 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항미원조전사』, 1991, 세경사, pp. 75~76.
- 4) 『육군전사』 제7권, pp. 1~2.
- 5) 위의 책 ; HFEC G-2, *Hisy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5, 1952, p. 43.
- 6) 국군정기정보보고 제185호(1952. 7. 3 ; 17:00).
- 7) 『항미원조전사』, pp. 221~222.
- 8)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59.
- 9) 외무부,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952. 12. 29.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p. 172.
- 10)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New York : Doubleday, 1967), p. 218.
- 11) 『육군전사』 제7집, pp. 1~2.
- 12)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952. 7. 18. 12:00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p. 158. ; 같은 자료, 제2권, p. 63.
- 13)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254.
- 14)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952. 12. 29.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pp. 172~173.
- 15) 『육군전사』 제7권, pp. 1~2.
- 16) 『한국전쟁사』 제8권, pp. 335~336. 1952년 7월 초 유엔군의 지상부대는 지원부대를 갖춘 6개의 미 육군사단과 1개 미 해병사단 등 259,400명의 미군, 국군 10개 사단 약 25만 명, 기타 유엔회원국 지원부대 23개 대대 33,700명으로 구성되었다.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255.

430 제 4 장 休戰協商의 決裂과 軍事作戰의 再開

- 17)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214.
- 18) 위의 책, pp. 214~215.
- 19) 위의 책, p. 344.
- 20) 위의 책, p. 344.
- 21) 『한국전쟁사』 제8권, p. 22.
- 22)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261.
- 23) 『한국전쟁사』 제8권, p. 22. 카투사의 총인원은, 1952년 9월 26일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합참 각서에 따르면, 그 계획이 시작된 이래 매월 평균 약 13,000명이었다. 『미국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p. 555.
- 24)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555.
- 25) 위의 책, p. 265. 국군 확장계획은 미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나 미 의회가 미 육군이 국군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받아 왔으며, 국군에 제공된 장비의 보충을 포함하여 미 육군을 위한 자금요청을 승인한 만큼, 암묵적으로 그 계획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같은 책, p. 557.
-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요약』, p. 74.
- 27)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220. 공군은 1952년 6월 18일 제2정찰비행전대를 해체하고 조종사 훈련업무를 전담할 제15교육비행전대를 창설하였다.
- 28) 위의 책, p. 83.
- 29) 국군 제12사단 제37·제51·제52연대 국일명(육) 제207호(1952. 11. 8).
국군 제15사단 제38·제39·제50연대 국일명(육) 제207호(1952. 11. 8).
- 30) 국본 일반명령(육)제207호(1952. 11. 8)
- 31) 『한국전쟁사』 제8권, p. 23.
- 32) 위의 책, pp. 22~23.
- 33) 『국방사』 제2집, p. 336.
- 34)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39.
- 35) 위의 책, p. 76.
- 36) 육군본부, 『병과별부대역사』, 1959, pp. 47~48.
- 37) 위의 책, p. 60.

- 38) 수풍발전소는 만주에 있는 공산측 전쟁기구에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곳으로 이 댐과 6기의 발전기는 극동 최대의 것이었다. 그러나 유엔군은 그 위치가 한만경계선에 근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1952년 6월 23일 까지 항공폭격을 보류하고 있었다. Mark W. Clark, pp. 71~72.
- 39) 『한국전쟁사』 제8권, pp. 9~20.
- 40)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952. 7. 16. 12:00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p. 157.
- 41) 위의 책 ;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비밀전문에 의하면, “이 무렵 육군부대들의 군사행동시 적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몇몇 전선에서 국지전적인 공격을 병행하는 것이 긴요하다고”하였다.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952. 7. 16. 12:00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p. 158.
- 42)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273.
- 43) 위의 책, pp. 274~275.
- 44) 위의 책.
- 45) 위의 책, p. 275.
- 46) 위의 책, p. 277.
- 47) 위의 책.
- 48) 양대현, 『역사의 증언 휴전회담 비사』, 형설출판사, 1993, p. 252.
- 49) 위의 책, p. 253.
- 50) 위의 책, p. 253.
- 51)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281.
- 52) 위의 책, pp. 281~282.
- 53) 위의 책.
- 54) 위의 책, p. 282.
- 55) 이원복, 『전쟁과 협상』(하), 대림기획, 1989, p. 28.
- 56)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952. 7. 15. 03:00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p. 157.
- 57) 『한국전쟁 휴전사』, p. 224.
- 58) 『전쟁과 협상』(하), p. 31.
- 59) 『한국전쟁 휴전사』, pp. 224~225.
- 60)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952. 9. 17.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p. 164.

432 제 4 장 休戰協商의 決裂과 軍事作戰의 再開

이와 동시에 스탈린은 전쟁포로의 20%를 잠정적으로 억류시키는 문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전쟁포로들을 송환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소련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중국이 전적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 61) 『전쟁과 협상』(하), p. 35.
- 62) 『한국전쟁 휴전사』, pp. 225~228.
- 63) 『전쟁과 협상』(하), p. 39.
- 64) 『한국전쟁사』 제8권, p. 27 ; 해리슨 중장은 10월 8일 마지막 회담이 결렬되던 날 무기휴회를 선언하면서 공산측 대표 남일에게 “더이상 할말이 없다”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민족의 증언』 제5권, p. 90.
- 65) 『전쟁과 협상』(하), p. 49.
- 66) 『한국전쟁 휴전사』, p. 245.
- 67)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952. 9. 17.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p. 164.
- 68) 『한국전쟁 휴전사』, p. 247 ; The Text of American Proposal dated Oct. 22, 1952, *Draft Resolution on Korea*, U.S. Dept. of State Bulletin, Vol. 27, p. 680. 미국의 1952. 10. 24. 결의안은 20개국의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21개국 결의안’이라 불려졌다.
- 69) 비신스키는 지금까지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한국과 국경을 접하는 제국을 기필코 포함하는 기타의 정부”라고 막연하게 표현하였지만, 제7차 유엔 정치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그것을 한국위원회라고 명명하면서 그 구성국으로 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공·인도·미얀마·스위스·체코·북한 및 남한으로 발표했다. 『역사의 증언 휴전회담 비사』, p. 260.
- 70) 『한국전쟁 휴전사』, p. 247 ; 『한국전란 3년지』, pp. C5~6.
- 71) 인도정부는 1952년 11월 2일 중공정부의 진의를 타진하기 위하여 공한을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송환시 강제력 사용금지, 중립국송환위원회 설치, 포로들이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그들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었다. 그러나 중공정부는 이 제안에 대해 답변이 없었다. 『역사의 증언 휴전회담 비사』, p. 258.
- 72) 『한국전란 3년지』, pp. C9~C10.
- 73) 소련대표 비신스키는 11월 24일 총회석상에서 인도안의 부당성을 노

골적으로 반대하면서 미국과 영국에 대해 비난하였다. 『한국전란 3년지』, p. A20.

- 74) 봉암도 사건은 1952년 12월 14일 봉암도에 있는 9천명의 포로 가운데 3천6백명이 수용되어 있던 6개 수용소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공산주의자들은 봉암도 사건을 최대한 이용하였고 국제적십자사까지도 유엔군이 포로통제를 너무 엄격하게 했다고 비난하였다. 『전쟁과 협상』, p. 81.
- 75) 『한국전쟁 휴전사』, p. 249.
- 76) 『전쟁과 협상』(하), p. 89.
- 77) 『역사의 증언 휴전회담 비사』, p. 269.
- 78) 『한국전쟁사』 제8권, p. 17.
- 79) 『한국전쟁 요약』, p. 170.
- 80) 위의 책, p. 156.
- 81) 위의 책, p. 162.
- 82) 『한국전쟁사』 제8권, pp. 596~597.
- 83) 위의 책.
- 84)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12.
- 85) 위의 책, p. 213.
- 86) 『한국전쟁사』 제8권, p. 604.
- 87) 위의 책, pp. 607~608.
- 88)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13.
- 89) 『한국전쟁사』 제8권, p. 610.
- 90) 위의 책, pp. 501~502.
- 91) 위의 책, p. 502.
- 92) 위의 책, pp. 503~504. 연대에서는 6일 야간 제3대대에 포로획득을 위해 수색정찰전을 수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었다. 해병 제8089부대 작전계획 제18호(1952. 9. 5. 12:00).
- 93) 제10중대장 노원근(盧元根) 중위 증언. 위의 책, p. 516.
- 94) 위의 책, p. 505.
- 95) 위의 책, pp. 506~507.
- 96) 위의 책, p. 507. 전차중대 박용구(朴容九) 중위 증언. 같은 책, p. 517.

434 제 4 장 休戰協商의 決裂과 軍事作戰의 再開

- 97) 위의 책, pp. 508~509. 이날 연방지휘소에서는 미 해병제1사단장 폴락(Pollac) 소장이 방문하여 미 해병사단을 지원중인 전폭기로 하여 금 36진지 탈환에 출격하도록 요청하였다. 같은 책, p. 515.
- 98) 위의 책, p. 510.
- 99) 위의 책, pp. 512~513.
- 100) 위의 책, pp. 514~515.
- 101) 위의 책, pp. 515~516.
- 102) 제2사단 제38연대는 선두인 제3대대에 이어 7월 19일 새벽 제1, 제2대대가 인천으로부터 신답리, 전곡 일대에 집결하게 되며, 이로써 사단은 전선교대를 완료하게 된다.
- 103)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p. 204~205 ; 『한국전쟁사』 제8권, p. 589.
- 104) 『한국전쟁사』 제8권, p. 576.
- 105)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제8권, p. 205.
- 106) 위의 책, pp. 210~211.
- 107) 『한국전쟁사』 제8권, p. 591.
- 108) 위의 책, p. 592.
- 109)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제8권, p. 211.
- 110) 위의 책, pp. 211~212 ; 『한국전쟁사』 제8권, pp. 592~594.
- 111) 『한국전쟁사』 제8권, pp. 448~449. 국군 제1사단 작전명령 제84호(1952. 10.1. 06:00). 사단은 8월 7일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96호(8. 1)에 의해 남부지구경비사령부로부터 배속 해제되고 미 제1군단 예비가 되었으며, 10월 1일 미 제3사단의 작전임무를 인수하였다.
- 112) 위의 책, p. 449.
- 113) 위의 책, p. 452.
- 114) 제15연대 수색중대 송태호(宋泰鎬) 하사 증언. 위의 책, p. 466.
- 115) 위의 책, pp. 453~454.
- 116) 위의 책, p. 454.
- 117) 위의 책, p. 457. 제11연대 제9중대장 김지선(金智善) 대위 증언, 같은 책, p. 491.
- 118) 위의 책 ; 제11연대 제3대대장 최일영 중령 증언, 같은 책, p. 491.

- 119) 위의 책, pp. 460~461.
- 120) 위의 책, pp. 463~464.
- 121) 위의 책, p. 465.
- 122) 국군 제1사단 작전지시 제86호(1952. 11. 11).
- 123) 『한국전쟁사』 제8권, pp. 468~470.
- 124) 위의 책, p. 473 ;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68.
- 125) 『한국전쟁사』 제8권, p. 478. 제11연대 제9중대장 김지선(金智善) 대위 증언, 같은 책, p. 491.
- 126) 국군 제1사단 작전명령 제89호(1952. 12. 11. 12:00).
- 127)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p. 268~269 ; 제11연대 제3대대장 최일영 중령 증언, 『한국전쟁사』 제8권, p. 491.
- 128) 『한국전쟁사』 제8권, p. 483.
- 129) 위의 책, pp. 484~487.
- 130) 위의 책, pp. 488~489.
- 131) 박관옥(朴寬煜) 일병은 미 제1군단장의 추천으로 미 은성훈장을 수여받았다. 위의 책, p. 489 ;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69 ; 제11연대는 그 동안 전투에서 사살 350여 명, 추정사살 255명의 전과를 거두었으나 아군 또한 전사 145명, 전상 412명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한국전쟁사』 제8권, p. 490
- 132) 위의 책, pp. 490~492.
- 133) 『한국전쟁 요약』, p. 162.
- 134) 『한국전쟁사』 제8권, pp. 310~311. 국군 제9사단 작전명령 제85호(1952. 10. 4. 08:00).
- 135) 위의 책, pp. 311~312 ; 육군본부, 육군 정보보고, 1952. 10. 2.
- 136) 위의 책, pp. 316~321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전투』, pp. 60~65.
- 137) 『백마고지전투』, pp. 76~82.
- 138) 『한국전쟁사』 제8권, pp. 331~335, 국군 제9사단 작전지시 제65호(1952. 10. 8. 02:00), 제66호(1952. 10. 8. 12:00), 국군 제9사단 작전명령 제86호(1952. 10. 8. 20:00).

436 제 4 장 休戰協商의 決裂과 軍事作戰의 再開

- 139) 국군 제9사단 작전명령 제87호(1952. 10. 9. 07:00).
- 140) 『한국전쟁사』 제8권, pp. 335~340 ; 『백마고지전투』, pp. 156~189.
- 141) 『백마고지전투』, pp. 192~213. 13일 오후 이승만 대통령이 미 제8군 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을 대동하고 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에게 백마고지전투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142) 『한국전쟁사』 제8권, pp. 367~369 ; 『백마고지전투』, pp. 258~266. 백마고지전투를 지휘한 김종오 소장은 1952년 10월 26일부로 육사교장으로 전임하고 김점근 준장이 사단장으로 부임하여 저격능선전투를 지휘하게 된다.
- 1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pp. 9~11 ;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p. 222~223.
- 144) 제9군단 작전명령 제32호(1952. 10. 9. 20:00) ; 『한국전쟁사』 제8권, pp. 13~14.
- 145) 미 제9군단 작전명령 제28호(1952. 6. 29).
- 146) 『저격능선전투』, pp. 18~21 ; 위의 책, p. 377.
- 147) 위의 책, pp. 16~18.
- 148) 『한국전쟁사』 제8권, p. 379.
- 149)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p. 315~316.
- 150) 『한국전쟁 요약』, p. 183.
- 151) 위의 책, pp. 401~402 ; 『저격능선전투』, pp. 79~96.
- 152) 『한국전쟁사』 제8권, pp. 416~417.
- 153) 위의 책, pp. 423~424 ; 『저격능선전투』, p. 103.
- 154) 위의 책, pp. 426~428.
- 155) 『저격능선전투』, pp. 116~119.
- 156) 『한국전쟁사』 제8권, pp. 428~429.
- 157) 위의 책, pp. 430~431. 국군 제2사단 작전명령 제115호(1952. 11. 18. 06:00).
- 158) 위의 책, pp. 433~436.
- 159) 위의 책, pp. 438~439 ; 『저격능선전투』, p. 131.
- 160) 미 제9군단은 작전명령 제33호(1952. 11. 18. 17:00)를 하달하여 11월

25일 06:00부로 국군 제2사단과 제9사단을 교대하도록 하였다.

- 161) 『한국전쟁 전투사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p. 20.
- 162) 위의 책, pp. 12~14.
- 163) 위의 책, pp. 14~16.
- 164) 『한국전쟁사』 제8권, p. 144.
- 165)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pp. 27~31.
- 166) 『한국전쟁사』 제8권, pp. 145~150.
- 167) 위의 책.
- 168) 위의 책, pp. 153~155.
- 169)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pp. 57~60.
- 170) 위의 책, pp. 74~75.
- 171) 『한국전쟁사』 제8권, pp. 161~168.
- 172) 위의 책, pp. 172~196 ;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pp. 107~109. 다음날 9월 14일 신태영 국방부장관은 “수도고지 방어작전에서 보여준 수도사단의 용전은 임전무퇴의 전통과 화랑정신의 결실이었으며, 그 공훈은 길이 빛날 것이다”라고 격려 담화를 발표하여 수도사단의 전공을 치하하였다.
- 173) 『한국전쟁사』 제8권, pp. 168~170.
- 174)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pp. 115~126.
- 175) 『한국전쟁사』 제8권, pp. 242~246.
- 176) 위의 책, p. 243.
- 177) 『육군전사』, pp. 49~50.
- 178) 『한국전쟁사』 제8권, p. 111.
- 179) 『육군전사』 제7권, pp. 50~51.
- 180) 『한국전쟁사』 제8권, pp. 114~116.
- 181) 위의 책, p. 119.
- 182) 위의 책, pp. 117~119.
- 183) 위의 책, pp. 124~125.
- 184) 『육군전사』 제7권, p. 51.
- 185) 『한국전쟁사』 제8권, pp. 127~128.

438 제 4 장 休戰協商의 決裂과 軍事作戰의 再開

- 186) 위의 책, pp. 128~130 ; 『육군전사』 제7권, pp. 52~53.
- 187) 『육군전사』 제7권, p. 53.
- 188) 『한국전쟁사』 제8권, pp. 130~132.
- 189) 위의 책, pp. 14~15.
- 190) 위의 책, pp. 95~96 ; 『육군전사』 제7권, p. 119.
- 191) 『육군전사』 제7권, pp. 117~118.
- 192) 위의 책, p. 117.
- 193) 『한국전쟁사』 제8권, pp. 97~99.
- 194) 위의 책, pp. 99~100.
- 195) 위의 책, pp. 100~101.
- 196) 위의 책, pp. 101~106.
- 197) 위의 책, p. 106.
- 198) 위의 책, p. 85.
- 199) 『노전평전투』, pp. 11~17.
- 200) 『한국전쟁사』 제8권, p. 85 ; 『노전평전투』, pp. 108~112.
- 201) 『한국전쟁사』 제8권, pp. 87~88.
- 202) 위의 책, pp. 88~89 ; 『노전평전투』, pp. 118~125.
- 203) 위의 책, p. 90.
- 204) 위의 책, p. 90 ; 『노전평전투』, pp. 126~128.
- 205) 위의 책, pp. 91~92 ; 『노전평전투』, p. 128.
- 206) 『한국전쟁사』 제8권, pp. 92~93.
- 207) 위의 책, pp. 93~94.
- 208) 위의 책, pp. 38~39.
- 209) 『한국전쟁사』 제8권, p. 38 ; 『전장사례연구』 제3집, p. 21
- 210) 위의 책, pp. 39~40.
- 211) 위의 책, p. 41.
- 212) 위의 책, pp. 42~48.
- 213) 위의 책, pp. 49~50.
- 214) 위의 책, pp. 50~52 ; 『전장사례연구』 제3집, p. 22.
- 215) 『한국전쟁사』 제8권, pp. 52~53.

- 216) 『전장사례연구』 제3집, p. 23.
- 217) 『한국전쟁사』 제8권, pp. 53~55 ; 『전장사례연구』 제3집, p. 23.
- 218) 위의 책, pp. 55~66.
- 219)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29.
- 220)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쟁사』, p. 908.
- 221) 공군본부, 『유엔공군사』(하), 1978, p. 49.
- 222) 제7함대사령관 조셉 클라크 중장은 해군기가 북한발전소 폭격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해군의 급강하폭격기와 전투기들을 제5공군 폭격군에 통합할 것을 허락하였다.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29.
- 223) 『한국전쟁사』, p. 913.
- 224) 위의 책, pp. 912~916.
- 225) 『유엔공군사』(하), pp. 154~155.
- 226) James A. Field, *History of U.S. Naval Operations*, Deptment of the Navy, p. 256.
- 227) 『한국전쟁사』, pp. 915~916.
- 228) 『소련비밀외교문서』 제4권, 1952. 7. 13. 소연방 내각회의 결의, p. 153. 소련은 북한이 지원 요청한 발전소 장비들을 동독에 의뢰하여 제공하도록 조치하였다. 같은 문서.
- 229) 『유엔공군사』(하), pp. 151~152 ; 『한국전쟁사』, p. 911.
- 230) 위의 책 ; 오일정유 시설의 공격은 합참의 특별승인을 얻어 수행되었으며, 합참은 소련국경으로부터 12마일 이내의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 일반정책이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하였다. 『미국합동참모본부 한국전쟁』(하), p. 555.
- 231) 『유엔공군사』(하), p. 152.
- 232) James A. Field, *ibid.*, p. 109.
- 233) 『유엔공군사』(하), p. 151.
- 234) 『한국전쟁사』 제8권, p. 675.
- 235) 위의 책, p. 677.
- 236) 위의 책, p. 678.
- 237) 『한국전쟁사』, pp. 920~922.

제 5 장 敵의 最後攻勢와 休戰調印

제 1 절 國際情勢의 變化와 休戰兆朕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휴전, 특히 포로송환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는 동안 국제 사회에서는 휴전에 대한 열망이 커져 가고 있었다. 1952년 12월 13일 국제적십자사 집행위원회는 전쟁의 즉각적인 종결과 제네바협약에 따른 상병(傷病)포로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5:2로 가결시켰으며, 이 결의의 내용이 곧 1953년 2월 유엔총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양측은 우선 제네바협약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상병포로 교환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

한편 선거 공약에서 조기에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선언했던 미국 신임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1953년 2월 2일 국회에 보내는 연두교서에서 미 해군의 대만 봉쇄를 철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공을 압박하였다. 중공은 지금까지 중공 본토에 대한 장개석 대만 정부의 군사적 위협에 별 부담을 갖지 않고 한국 전선에만 모든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었지만, 대만 중립정책 포기 of 천명으로 군사적 및 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었다.¹⁾ 미국의 이러한 방침은 공산진영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휴전협상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1953년 3월 5일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V. Stalin)이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한 것이었다. 스탈린의 사망은 국제정세와 한국

전쟁에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가 사망한 후 소련의 국내정세는 후계자들이 그의 정책을 답습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스탈린의 후계자 말렌코프(Georigi M. Malenkov)가 3월 5일 정권을 인수받음으로써 새로운 노선으로의 정책변화를 암시하였다. 유엔군측에서는 소련 정치 무대에 새로운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을 평가할 시간이 필요했다. 미국이나 민주 우방국들은 말렌코프 행정부가 취하고자 의도하는 노선의 시사를 조심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소련의 비밀외교문서에 의하면, “소련정부는 3월 19일 이제까지 취해 온 노선을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세계평화구축이라는 면에서 전쟁의 중지는 모든 국민의 이해, 특히 중국과 북한 인민의 근본적인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북한과 중국에 전달하였다.²⁾ 이어 소련은 3월 21일 최초로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미국과 영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소련정부는 한국전 발발 이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영국인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석방 교섭에 나서겠다고 시사하였으며,³⁾ 또 독일 문제에 있어서 유럽 공동방위조약에서의 서독 인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화적인 반응을 보이었다. 이제 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중공이 전쟁의 종식을 원할 경우 곧바로 휴전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었다.

이 무렵 북한-소련 간 비밀전문에 의하면, 당시 북한의 김일성(金日成)도 “우리측이 한국전쟁의 종결과 평화달성에 관한 주도권을 잡을 때가 왔다”고 하여 소련의 노선에 따를 것을 밝히고 있었다.⁴⁾ 따라서 유엔군측은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변화된 외교 노선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제 2 절 傷病捕虜의 交換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은 국제적십자사의 결의 내용을 고려하여 1953년 2월 22일 제네바협약 제109조⁵⁾에 의한 상병 포로의 즉각적인 교환을 제의하는 다음과 같은 서한을 판문점의 연락 장교단을 통해 공산군측에게 발송하였다.

국제적십자사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한국전쟁의 양측 교전국이 성의의 표시로서 제네바협약의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상병포로를 송환함으로써 제네바협약의 인도적 제 조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망한 바 있다.

귀하에게 반복 천명해 온 바와 같이 휴전회담의 진행중 유엔군측은 처음부터 제네바협약의 인도적인 제 조항을 진지하게 준수해 왔으며 특히 억류되어 있는 상병포로에 대한 제네바협약 조항을 실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유엔군측은 제네바협약 제109조에 의거하여 이송할 수 있는 중병 혹은 중상 포로를 즉시 송환할 용의가 있다. 본관은 귀측에 억류되어 있는 중상병(重傷病) 유엔군 장병의 송환을 즉시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바이다.

유엔군측 연락장교는 교환조건의 공정한 검토와 제네바협약 제 109조에 의거한 중상병포로의 상호 교환을 위한 필요한 협정을 하기 위하여 귀측 연락장교와 회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⁶⁾

공산군측은 한동안 이에 관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역시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스탈린의 죽음은 공산군측의 휴전협상 태도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련 각료회의에서는 클라크 장군의 제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북한과 중국에 권고하였다. 즉, 병상포로 교환 제의에 긍정적으로 회신하며, 중국측은 정전

협정을 해결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며, 또한 중국측 성명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⁷⁾

따라서 공산군측은 김일성과 팽덕회(彭德懷) 명의로 클라크 장군에게 보낸 1953년 3월 28일자 회신에서 휴전협정 전이나 회담재개 전이라도 언제나 상병포로들을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해 왔다.

귀측이 쌍방에 억류되어 있는 중상병포로들에게 제네바협약의 조항을 적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므로 귀측과 동일한 의욕의 표시로서 우리측은 전쟁중 양측 상병포로를 교환하자는 귀측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 제안은 제네바협약 제109조의 조항에 의거하여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전투중 상병포로를 교환하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이 포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초래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세계 인민이 갈망하고 있는 한국 휴전이 달성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측 휴전회담 대표자들이 즉시로 판문점에서 회담을 속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아측 연락장교는 회담 재개 일자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귀측 연락장교와 회합할 용의가 되어 있다.⁸⁾

공산군측은 상병포로의 교환뿐만 아니라 나아가 휴전회담의 재개를 제안하였던 것이다. 중공 외상 주은래(周恩來)도 3월 30일 북경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그 자신의 정부는 물론 북한정부를 대변하여, 포로의 제한된 교환을 승인하고 그것이 전쟁의 해결을 이룩하는 데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다음 요지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상병포로 교환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은 전쟁포로 전체의 원만한 해결과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적대 행위의 종결을 보장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체 전쟁 포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시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대표단들은 적대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상병포로의 교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하고 전쟁 포로문제의 전체적인 해결을 위해 애를 써야 한다.⁹⁾

중공의 성명은 분명 종전의 주장을 양보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다음날 북한측도 소련의 권고대로 이를 지지하는 정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같은 날 유엔총회에서는 휴전회담이 유엔의 목적에 따라 한국에서 휴전을 조속히 성사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하였으며, 미합참도 공산군측이 회담재개에 동의한 것은 포로문제에 대해 유엔군측의 견해에 따를 의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¹⁰⁾

이와 같이 회담재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던 1953년 3월 31일 유엔군사령관은 공산군측에 연락장교회의를 통해 상병포로 교환과 판문점 휴전회담의 재개를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¹¹⁾

- 1) 1953년 2월 22일 본관의 서한에 회답한 3월 28일자 서신을 받고 만족의 뜻을 표시하는 바이며, 육군 장성이나 해군 제독을 대표로 하는 연락장교단이 가능한 한 조속히 상병포로 송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정을 맺기 위하여 판문점에서 회합할 것을 제안한다.
- 2)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하에 실시하는 상병포로 교환이 포로 문제의 가장 원활한 해결책이라는 귀하의 견해에 동의한다. 본관은 첫 단계로서 휴전회담의 본회담 속개를 위해 연락장교회의를 지시할 것이다.
- 3) 본관은 모든 중상병포로의 송환을 협의하기 위해 아측이 제안한 연락장교회의 일시에 대한 귀측 결정을 조속히 통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4월 1일 소련 외상 몰로토프(Watscheslow M. Molotow)도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북한과 중공의 입장을 지지하며 한국에서 휴전을 성립시

키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다 음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3월 28일자 상병포로 교환에 대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의 서한 에 회답한 북한군최고사령관 김일성 및 중공 지원군사령관 팽덕희 의 회신이 발표되었다. 중공정부와 북한정부는 상병포로 교환에 대 한 제안에 동의할 것을 언명하였고, 모든 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 과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협정에 도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 였다. 소련정부는 중공 및 북한의 제안이 전적으로 공정하다는 것 을 인정하며 또한 그의 실현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 만약 중공 및 북한 정부의 대표들이 이에 포함된다면 유엔은 한국 휴전에 관하여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이에 다음날(4월 2일) 공산군측은 연락장교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 고 제안했던 유엔군사령관의 서한에 대해서 “우리들은 귀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바이며, 아측 연락장교단은 상병포로 교환을 사전에 타협하 고 휴전회담 재개 일자를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6일 판 문점에서 귀측 연락장교단과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왔다.¹³⁾

따라서 4월 6일 쌍방의 연락장교들이 판문점에서 재회하였다. 양측 은 다니엘(John C. Daniel) 제독과 이상조(李尙朝)가 연락장교들을 인솔 하고 판문점에서 상병포로 교환을 위한 첫 번째 회합을 가졌다. 이날 회합에서 다니엘은 판문점에서 상병자들을 보내고 받아들이는데 필요 한 시설들을 즉시 설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 루어진 후 7일 이내에 하루 500명의 포로들을 송환할 준비가 되어 있 다고 하였다. 이에 이상조는 공산군측이 제네바협약 제109, 제110조¹⁴⁾ 에 해당되는 모든 상병자들의 송환을 원한다고 지적하였다.¹⁵⁾

첫날 회합에서 양측이 제시한 교환 방법의 요지는 유엔군측이 인원 수에 따라 교환할 것을 제의했던 반면,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의 제안

을 기본적으로 수락하면서 제네바협약 제110조의 내용을 첨가한 국적별 교환을 제의한 것이다. 다음날도 회의는 속개되었으며 유엔군측은 교환 포로들의 국적과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교환하고 행정적인 세부 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장교를 임명하자고 제의하였다. 4월 8일 교환 숫자에 관해 쌍방이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산군측 : 아측이 귀측에게 송환할 수 있는 상병포로의 수는 약 600명이며, 그중 약 450명은 한국인 상병포로이고, 약 150명은 비한국인 상병포로라는 것을 통고하는 바이다.

유엔군측 : 귀측이 송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상병포로의 수는 귀측이 시사한 포로 총수에 비추어 보아 불신할 정도로 적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송환 포로 수를 재고려할 것과 상병포로라는 의미를 확대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군측이 송환할 용의가 있는 약 700명의 중국인 및 약 5,100명의 한국인 상병포로 총수를 귀하에게 제시하겠다.¹⁶⁾

결과적으로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으로부터 포로 12,000명 중 상병포로 600명이라는 실망적인 제안을 받았으며, 반면에 적측은 포로 132,000명 중 상병포로 5,800명의 유엔군측의 제안에 크게 만족하는 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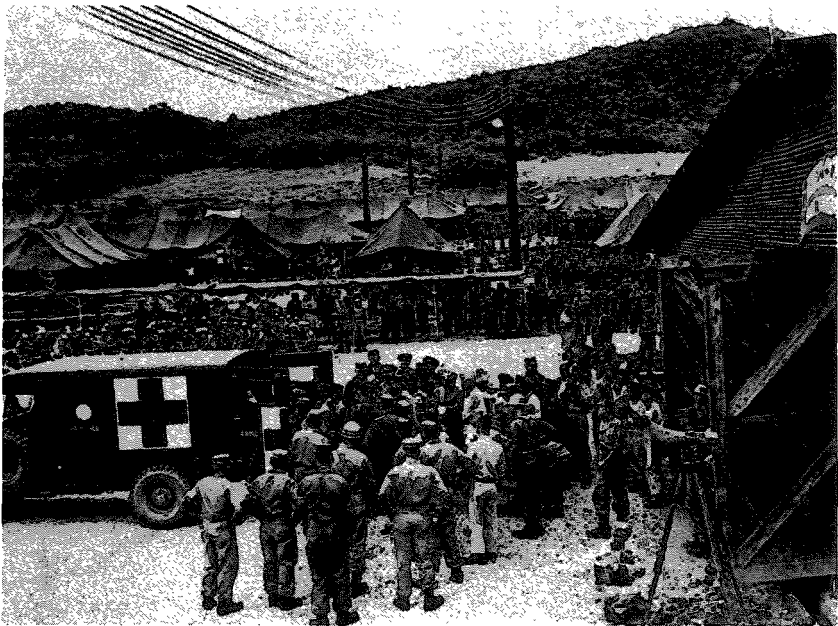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회담은 계속되어 양측 장교들이 4월 9일 상병포로 송환 원칙에 대한 종합 토론을 마친 후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작성해 나갔다. 송환기간 중 판문점 경비병은 양측 공히 30명으로 증가시키도록 하였고, 유엔군측은 명시된 노선을 이용하여 포로들을 5대의 차량으로 회담 지역까지 이송하는 것에 동의하였다.¹⁷⁾ 이리하여 4월 11일 드디어 쌍방간에 상병포로 교환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전반적인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병포로 송환은 본 협정 조인 후 10일 이내에 판문점에서 시작한다. 공산군측은 1일 약 100명 정도의 상병포로를 송환하며, 유엔

군측은 25명을 단위로 하여 1일 약 500명 정도의 상병포로를 인도한다. 상병포로는 성명, 계급, 포로번호 혹은 군번을 포함하여 국적별로 준비한 명부와 함께 인도한다. 송환기간 중 상병포로를 개성과 문산으로 수송할 모든 철도 및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며 판문점에 이르는 자유 통로의 통과는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¹⁸⁾

유엔군사령부가 리틀 스위치(Little Switch)라고 명칭을 붙인 상병포로 송환은 늦어도 4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0일 이내로 완료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유엔군은 즉시 공산군 상병포로들을 거제도과 제주도 등에서 판문점으로 이송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에 송환 대상자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더 많은 유엔군 포로를 송환해 오기 위해 공산군 상병포로



병상포로의 귀환

상병포로 송환 내역

유엔군측	인원(명)	공산군측	인원(명)
북한군	5,194	한국군	471
중공군	1,030	미군	149
민간인 억류자	446	영국군	32
		기타	32
계	6,670	계	684

를 550명 더 추가하겠다고 공산군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4월 23일 추가 송환에 동의하였다가 3일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송환을 완결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유엔군측은 적의 태도에 양보하는 기색이 없자 5월 3일 마지막 송환포로들의 수송을 완료했다. 이로써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 5,194명, 중공군 1,030명 그리고 민간인 억류자 446명 도합 6,670명을 공산군측에게 넘겨주었다. 반면 공산군측은 684명(한국인 471명, 미국인 149명, 영국인 32명, 터키인 15명, 콜롬비아인 6명, 호주인 5명, 캐나다인 2명, 그리스인·남아프리카인·필리핀인·폴란드인 각각 1명)을 판문점으로 송환하였다.¹⁹⁾

제 3 절 捕虜交換 協定과 反共捕虜 釋放

1. 捕虜交換 協定 締結

1953년에 접어들어 국제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국과 소련은 공히 지도자가 바뀌었으며, 공산군측의 최고사령부도 휴전협상에 다소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자세의 변화가 포로 문제에 관한 진정한 양보의 표시인지 그 여부는 재개된 협상의

성공이 달려 있는 문제였다. 유엔군측은 상병포로 송환을 협상하면서 본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지금까지 유엔군측이 포로 교환 협상에 있어서 고수해 온 원칙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 1) 소련과 그 위성 국가는 중립국으로 수락될 수가 없다. 유엔군사령관은 스위스와 스웨덴 순으로 택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이것이 실패할 경우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훈령을 문의하도록 한다.
- 2) 포로는 한국에서 수용해야 하며, 한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송환불원자의 이동은 고려될 수 없다.
- 3) 송환불원자는 중립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간 수용된다. 유엔군사령관은 수용기간 60일을 주장하였으나 90일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
- 4) 송환불원자에게 강압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5) 만일 송환불원자가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중립국은 그를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
- 6) 중립국은 포로 송환여부에 관하여 최종권을 가진 기관이 된다.
- 7) 송환불원자는 합의된 기간이 만료될 때에 중립국가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석방한다.²⁰⁾

이에 대해 3월 3일 공산군측 주은래는 종전의 강제송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 “휴전 교섭의 쌍방 당사자가 정전 후 즉시 송환을 원하는 쌍방에 수용중인 전 포로를 송환할 것과 송환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머지 전 포로를 중립국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여 중요한 양보를 표명하였다.²¹⁾ 그의 제안은 다음날 김일성의 동의를 받았다. 공산군측의 견해는 상병포로협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을 무렵인 4월 9일 공산군측 남일(南日)에 의해 유엔군측에 전달됨으로써 휴전협정 타결에 가장 밝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명백히 포로송환원칙에 입각해서 어느쪽이던 피억류 포로들의 본국 송환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여하한 강압적인 수단도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와 중공측은 유엔군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이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위 강제송환 또는 폭력에 의한 송환이란 문제는 전혀 존재치 않으며 우리는 항상 이러한 주장에 반대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 의거해서 우리는 협박과 압력에 짓눌려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는 나머지 본국 송환을 두려워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들을 어느 한 중립국에 인도해 주고 우리측의 설명을 통해 점차 그같은 우려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의 제안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중립국의 의미, 포로들의 인수 장소, 설득반의 범위, 송환불원자들의 최종처의 결정 문제 등 다소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문제를 상세히 검토하였다.²³⁾ 4월 17일 유엔군측 수석 대표는 회담재개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서한을 공산군측에 전달하였다.

- 1) 본관은 본회담 재개에 부수되는 제 문제의 협의를 유엔군측 연락장교단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 2) 귀측이 유엔군측 제안을 수락하거나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 3) 중공 외상 주은래와 북한 수상 김일성의 성명서에 비추어 유엔군측은 다음과 같은 협정이 포로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가. 중립국은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를 취급하는 데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스위스와 같은 국가일 것.

나. 직접 송환되지 않는 포로들은 편의를 위해 중립국 관리하에 있는 한반도내 수용소로 이관할 것.

다. 중립국은 그들의 수용소에 수용된 포로들이 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60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한 후 평화적 처리를 위한 준비를 할 것.

- 4) 유엔군측은 쌍방 대표 전원이 참석하는 회담에서 상당한 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다시 휴회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²⁴⁾

유엔군측의 제안은 공산군측에 기선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군측의 초기 제안을 수락하든지 아니면 그들 자신의 건설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전한 것이었으며, 또 중립국으로 스위스를 선정하고 이 중립국은 송환불원자들의 수용소를 한국 내에 다 둘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²⁵⁾ 한편, 유엔에서는 한국 휴전 문제를 총회에 상정할 필요 없이 판문점에서 매듭짓도록 하자는 브라질 대표의 발의가 60:0으로 통과되어 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²⁶⁾

유엔군측 다니엘 제독은 본회담을 4월 23일에 재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공산군측 대표들이 25일로 정한 후 다시 26일로 연기하였다. 이렇게 하여 판문점 회담은 6개월만에 다시 재개되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본회담이 재개되자 첫 회의에서 공산군측 수석 대표는 3월 30일자 주은래의 성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개항을 제안하였다.

- 1) 휴전협정 후 2개월 이내에 양측은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포로들을 송환한다.
- 2) 그 익월에는 송환불원자 모두를 어느 중립국에 보내어 그 나라의 사법권에 인계한다.
- 3) 그 다음 6개월간의 기간을 정해서 송환불원자의 소속국들은 그들과 대담도 하고 설득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설을 가져야 한다.
- 4) 기간중에 마음을 돌리는 모든 포로들은 본국으로 송환시킨다.
- 5) 6개월간의 설득 기간 말에 가서도 끝내 중립국 수중에 잔류되어 있는 포로들의 처리 문제는 휴전협정에서 마련한 정치회의에서 결정한다.

6) 중립국에 체제하는 송환불원 포로들의 모든 비용은 그 포로 소속국에서 부담한다.²⁷⁾

공산군측이 내놓은 이 제안은 유엔군측의 제안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유엔군측의 견해와 다른 부분은 중립국 선정 문제, 수용소의 위치, 보호 및 설득 기간, 중립국의 보호 기간 이후 송환거부포로 처리 문제 등이었다. 유엔군측은 포로들을 중립국으로 이송시켜 6개월 동안 설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만일 그러한 목적이라면 60일간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중립국으로 포로 이송을 주장한 공산군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다.²⁸⁾

그러자 공산군측은 4월 29일 중립국을 아시아 국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선택 의사를 처음으로 비추었으나 역시 국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남일은 또한 6개월이란 설득 기간도 유엔군측의 반대에 비추어 그 기간에 대해서 상호 토의해 보겠다는 의사를 비추었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중립국이 선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대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공산군측은 5월 2일 회담시 남일이 인도, 버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내의 적절한 중립국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유엔군측은 스위스와 스웨덴을 더 선호하였지만 위 국가 중 한 국가를 지명하면 공산군측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를 질문해 보고, 만일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경우 파키스탄으로 지명하기로 내부방침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중립국으로 포로를 이송시키는 일은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설득 기간은 4개월까지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에 5월 4일 회담시 유엔군측 수석 대표 해리슨(William K. Harrison)은 유엔총회가 인정하는 파키스탄을 중립국으로 지정하자고 제의하였다.²⁹⁾ 공산군측 대표단은 이를 거부하고 며칠간 공전기가 지난 5월 7일 포로문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안'을 제시하였다.

- 1) 쌍방은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2개월 이내에 휴전협정(초안) 제3조 제51항의 관계 조항과 쌍방에 의하여 교환되고 검토된 확정적인 포로 명부에 입각하여, 원 소속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모든 전쟁 포로들을 방해함이 없이 집단적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 2) 직접 송환되지 않는 억류 포로들의 본국 송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휴전협정 초안 제2조 제37항에 규정되어 있는 폴란드, 체코, 스위스, 스웨덴의 4개국과 쌍방에 의하여 합의를 본 인도 등 5개국이 각각 임명하는 동수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한다.
- 3) 본 제안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접 송환될 포로들을 제외한 쌍방의 모든 포로들은 원 억류 장소에서 억류측의 군사적인 관리와 수용에 벗어나며, 본 제안의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들을 인수하고 관리할 중립국 송환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한다.
- 4) 직접 송환되지 않는 포로들을 인수하여 수용하게 될 때 동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그 관리를 인수한 후 4개월 이내에 그 포로들이 두려움없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지시키고, 모든 포로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원 억류 장소에 설득 인원을 보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그를 위한 시설을 즉시 준비하여야 한다.
- 5) 동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이 포로들을 인수하고 관리한 후 4개월 이내에 설득되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포로들은 동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송환을 추진해야 하며 억류국은 여하한 방해도 가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포로 송환을 위한 행정적 세부사항은 중립국 송환위원회와 양측이 토의를 거쳐 확정한다.
- 6) 본 제안의 제4항과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4개월의 기한이 만료될 때, 만약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남은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다면 그들의 처리는 휴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규정된 정치적

답에 일임한다.

- 7)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관리기한내 본국 송환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포로에 대한 모든 경비는 그들이 속하고 있는 국가에 의해서 지출되어야 한다.
- 8) 본 제안의 각 조항과 이에 따른 협정은 모든 포로들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³⁰⁾

공산군측의 8개 항목 제안은 송환불원포로가 한국 외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를 포기하고 또 송환불원포로에 접촉 기간을 6개월이 아닌 4개월 안을 수락한 것이었으나, 4개월의 시한이 끝나면 잔류 송환불원포로는 정치 협상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유엔군측 해리슨 장군은 5월 9일 이 제안에 대해 정치회담에서 토의된 후에도 남는 송환거부포로의 처리 문제,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운영 방식 등 의문점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군측은 포로들은 모두 복귀할 것이므로 잔류포로문제는 없을 것이며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³¹⁾ 이에 유엔군측에서는 내부적으로 5월 10일 다음의 사항만 적절히 수정된다면 협상안을 받아들일도록 결정하였다.

- 1) 5개국 위원회는 절차 문제를 제외하고 만장일치의 의사 결정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한다.(이는 인도가 폴란드 및 체코와 제휴함으로써 비강제 송환원칙이 위원회 내에서 묵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2) 만일 정치협상에서 30일 내에 포로 문제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그 포로들을 석방하고 민간인 신분을 부여한다.
- 3)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송환불원포로들을 억류하고 있는 측이 지정한 장소에서 관리한다. 인도는 그 위원회를 도울 모든 무장 부대와 운영 요원을 제공하고 위원회의 의장을 내며 또한 그 위원회의 집행기관 역을 담당한다.³²⁾

그러나 이 대안은 한국정부가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수정작업을 필요로 하였다.³³⁾ 즉, 정부 대변인 갈홍기(葛弘基)는 소련의 위성국들이 송환불원포로를 감독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5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은 클라크 장군에게 한국인 송환불원포로가 여러 국가로 형성된 어떤 집단, 특히 공산주의자에 의해 통제되는 나라로 인도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더군다나 인도를 중립국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클라크 장군은 모든 한국인 포로는 휴전이 발효되자마자 곧 석방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으며, 5월 13일 해리슨 장군이 수정된 다음과 같은 신제안을 공산군측에 제시하였다.

- 1) 공산군측은 송환불원포로 전원을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동 위원회는 중공인 송환 불원포로들의 관리를 인계받고 한국인 포로들은 휴전과 동시에 북한이든 한국이든 안주할 곳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보유한 채 일반인의 자격으로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공산군측에서는 송환위원회의 5개 구성국인 인도·폴란드·체코·스위스 및 스웨덴이 각각 같은 수의 포로 경비 병력을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오직 인도군만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 3) 공산군측의 제안은 송환불원포로들의 최후 처리에 있어서 애매한 채로 남아 있었지만 유엔군측에서는 포로들의 정치적인 망명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³⁴⁾

이에 공산군측 대표 남일은 유엔군측의 제안을 “협상을 지연시키고 포로들을 강제 구금하려는 수작”이라고 비난하면서 거부하였다. 해리슨 장군은 회담의 원활한 재개를 위해서 4일간의 휴회를 요구하였으

며 다시 5월 25일까지 연기하였다. 이동안 극동과 위싱턴의 군사·정치지도자들은 포로송환에 관한 유엔군측의 최종안을 준비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클라크 장군은 적이 최후 조건을 수락하지 않고 재차 장기간의 휴전이 있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개성을 폭격제한지역에서 해제하여 공중작전을 확장하고 그후로도 계속 개성 주위에서 국지전을 전개할 계획들을 세웠다.

미국의 정책입장은 기본적으로 소득 없는 회담의 지연을 원하지 않았다. 5월 23일 위싱턴의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의 최종 입장이 반영된 결의안을 완성하여 합참을 통해 유엔군사령관에게 전달하였다. 합참은 공산측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클라크 장군이 건의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중립지대에 관한 모든 협정이 무효임을 적측에 통고하며 모든 송환불원포로를 석방하도록 인가할 계획을 갖추어 놓았다.³⁵⁾

한편 합참은 최종 제안에 내포된 양보 사항이 한국정부를 실망시킬 것을 염려하여 클라크 장군과 브릭스(Ellis O. Briggs) 주한미대사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최종 제안은 인도의 결의안과 대체로 일치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³⁶⁾

- 1) 미국은 5개국 관리위원회를 모든 무장 부대와 관리 요원은 인도가 전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수락한다.
- 2) 휴전이 발효되는 날에, 송환불원 한국인도 중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위원회로 인계한다.
- 3) 그 위원회는 만장일치보다는 다수결원칙에 기초하여 활동한다.
- 4) 관리기구에 관한 권한위임사항은 공산군측이 중립국 관리하에 있는 포로들에게 위협이나 강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아래와 같은 제반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 가. 각 위원회의 구성 국가(인도 제외)에 할당할 직원의 수 제한.
 나. 포로 면접에 허용되는 대표의 수 제한.
 다. 포로의 면담은 그 위원회의 각 회원국 대표의 면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
 라. 송환 희망을 표명하면서 포로가 제시한 모든 증서는 위원회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해 효력.
 마. 모든 일에 신문 보도진의 접근 허용.
 바. 포로에 대한 접촉 기간을 90일로 제한.
 사. 나머지 송환불원포로의 정치 협상에 의한 처리. 그렇지만 정치회담에서는 그 포로들을 포로가 최초 그 관리위원회에 인계된 후 120일(정치회담에서 30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유엔총회로 이관하여, 총회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 때까지 포로는 그 위원회의 계속적인 관리하에 둔다.³⁷⁾

이 제안은 유엔군측이 아직도 포로의 자유송환 원칙만은 고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공산군측의 8개 항목 제안을 대체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5월 25일 양측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회합을 가졌을 때 해리슨은 비밀회의의 형식으로 진행시키자고 제안하였으며 공산군측 남일이 이에 동의하였다.

유엔군측은 포로 교환에 대한 최종안을 전달했으며, 공산군측은 이의 검토를 위해 1주일간의 휴회를 요청하였다. 공산군측이 유엔군 안을 즉시 거절하지 않고 휴회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유엔군 대표들을 상당히 고무시켰다.

유엔군사령관은 5월 27일 이 제안에 내포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일성과 팽덕희에게 서한을 보내었다. 그는 포로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해결책을 수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뒤 “나는 당신들이 오랜 시일을 끌면서 실없는 논쟁만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당신들이 아직도 휴전회담의 성패가 달려 있는 유일한 논점에 대한 우리 대표단의 대안을 긴급히 그리고 심각하게 숙고해 줄 것을 바란다. 만일 휴전을 원한다는 당신들 정부의 말이 진실된 것이라면 당신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³⁸⁾

이 무렵 미 합참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책(NSC147)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문제의 종결을 위해 전쟁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으며, “핵무기의 전략적 전술적 운용”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작전들이 최대한 기습과 최대의 충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증되어야 한다는 극비사항이었다.³⁹⁾

반면 유엔군측의 ‘5·25제안’에 대해 한국정부는 절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휴전협정을 받아들인느니 차라리 한국군을 유엔군으로부터 철수시켜 한국의 통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하였다.⁴⁰⁾ 정부의 반대 이유는 이 제안이 한국정부와 사전에 토의된 것도 아니며, 인도군이 한국 영토에 들어온다는 점, 송환 불원포로들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설득케 한 점 등이었다. 한국대표는 이른바 ‘5·25 최종안’이 제안되던 날 이 안에 대한 강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스스로 휴전회담에 불참하였다.

본회의는 6월 4일에 가서야 재개되었다. 남일이 유엔군측 제의의 한 구절을 수정하긴 했어도 근본적으로 원안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 남일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당신측이 5월 25일에 제시한 새 제안에 동의한다”고 하고, 이어 그는 완전한 포로송환협정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한가지 점에서 유엔군측 입장과 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송환불원자와 관련하여 유엔총회에 아무런 역할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정치회담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송환불원자는 석방한다는 것이었다.

6월 7일 참모장교들은 포로 취급의 관련 조항에 대한 최종적인 세칙을 완결짓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나머지는 사소한 것들이었으며 양측이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세칙은 즉시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다음날 8일 수석 대표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다.⁴¹⁾ 이리하여 드디어 1년 반 동안의 협상 끝에 송환불원포로의 송환원칙에 관한 긴 논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날 양측이 서명한 송환불원포로 송환을 위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²⁾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휴전 후 모든 포로에게 그들이 송환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쌍방은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 및 인도에게 송환거부포로를 관리할 위원국에 지명되었다는 것을 통고하고 승낙을 요청할 것.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그 본부를 판문점 부근의 비무장지대에 설치하고 동일한 구성 국가로 조직되는 부수 기관과 그 위원을 중립국위원회가 포로를 감시하는 장소에 배치할 것. 쌍방 대표는 동 위원회와 그 부수 기관의 임무 수행 상황을 시찰할 수 있으며, 동 시찰은 설명 과정과 면담 과정에 포함된다.

제 2 조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군대와 운영 요원은 인도에 의하여 제공되며, 인도 대표는 제네바협약 제132조⁴³⁾에 의하여 심판자와 중립국 송환위원회 감독 및 의장이 된다. 여타 4개국 대표들은 각각 동수의 보좌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수는 5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 조항에 의하여 제공되는 군대는 소규모의 헌병으로 제한한다.

제 3 조 상기 제1조에서 규정된 포로들에 대하여 송환을 저지할 목적으로 어떤 종류의 압력이나 위협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제 2 장 포로의 감시

제 4 조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송환을 반대하는 모든 포로

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억류국에 의해 한반도에서 설정된 지점의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이관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포로수용소의 관리권을 장악할 경우 억류국측 군대는 그곳으로부터 철수하여야 하며 전 조항에서 지적된 지점은 인도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된다.

제 3 장 포로 설득

제 8 조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관리를 인계받은 후 90일 이내에 포로 소속국이 해당 포로들에게 그들의 권한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설득 대표들은 포로 1천명당 7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총계 5명 이하는 안 된다.

제 4 장 포로 처리

제 10 조 중립국 송환위원회 혹은 부수 기관은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이 신청한 신청서의 유효성을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 11 조 전쟁포로관리를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이관한 후 90일이 되면 제 8 조에 규정한 대표들의 포로 면담은 종료하게 되며 나머지 송환거부포로들은 정치회담에 이관된다. 본 정치회담은 이 문제를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며, 동 회담기간 중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계속하여 전쟁 포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120일 이내에 정치회담에서 처리에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된 해당 포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선언에 의하여 전쟁 포로의 신분으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반공포로들의 신임을 얻게 되어 심리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한국전쟁 포로협상에서 대두된 전쟁 포로의 비강제송환 정신은 후일 국제법 체계의 일부로 반영되었다.

이제 휴전이 결정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

와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951년 11월 이후 변경된 군사 상황을 반영하여 군사분계선을 재협상하는 것이었다.⁴⁴⁾

전쟁의 종식이 눈앞에 다가오자 6월 중순 이목의 초점은 휴전에 이르는 마지막 협상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처리되기에 앞서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예측 불허한 사건이 야기됨으로써 휴전협정에 큰 장애요인으로 부각되었다.

2. 反共捕虜 釋放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상이 열리기 전부터 “이 나라를 분단하는 조건이 포함된 소위 평화안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고간에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특히 포로송환문제에 있어 “송환불원포로 즉 반공포로는 휴전과 동시에 석방되어야 한다. 반공포로를 소련 위성국이나 친공 중립국으로 인정되는 국가로 구성되는 송환위원회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또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휴전회담은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이 관철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으며, 6월 8일 유엔군측과 공산군측 협상 대표들은 한국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포로교환협정에 조인하였다.

이날 클라크 장군은 이대통령을 방문하여 포로교환협정이 조인되었음을 보고하고 휴전협상 타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이미 이대통령은 휴전반대 표명을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대통령은 이틀 전인 6월 6일 헌병총사령관 원용덕(元容德) 장군을 경무대로 불러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휴전회담이 우리나라의 뜻과 달리 진행되고 있고, 더구나 북쪽으로 가기를 반대하고 있는 반공포로들을 인도군의 심사에 맡겨서 교환한다고 하니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들을 석방하고자 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연구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⁵⁾

이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단안은 반공포로를 공산진영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이념적인 측면, 외교적 주도권의 장악, 반공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의지, 휴전협상에 전쟁 당사국인 한국의 주장이 전혀 참작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 반공포로들의 열망과 그들이 제출한 직간접적인 탄원 등 제문제의 신중한 고려 끝에 내려진 것이었다.⁴⁶⁾ 대통령으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헌병총사령관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1) 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해도 포로 석방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 2) 설사 합법적인 절차는 무시한다고 해도 실제로 포로수용소의 관리를 미군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들의 동의나 협조를 얻지 않고는 포로 석방이 곤란하다.
- 3) 반공포로를 석방하려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나, 국방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 배제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이용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
- 4) 헌병총사령관은 각 군 헌병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포로수용소 경비를 하고 있는 육군 헌병을 움직이기가 어렵다.⁴⁷⁾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용덕 장군은 제네바협약 전문 가운데 “포로 교환은 의무적이 아니다”는 것과 “전쟁 포로는 그들을 관리하는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는 규정에 착안하여, 설사 국군의 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다 해도 한국은 교전 당사국으로서 영토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휴전회담장에서 포로교환협정이 체결된 날인 6월 8일 이대통령은

원장군의 보고를 받고 즉시 “오늘부터 육·해·공군의 모든 헌병은 헌병총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또 그 자리에서 반공포로 석방 명령서도 하달하였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반공포로 석방 명령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원장군 외에 진헌식(陳憲植) 내무장관과 휴전회담 대표 최덕신(崔德新) 소장 그리고 갈홍기 공보처장이었다.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알리지 않았다.⁴⁸⁾

한편, 미국은 6월 초부터 병참관구사령관 헤렌(Thomas W. Herren) 장군의 포로에 관한 정보 보고를 포함하여 한국의 정세에 관한 일일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 보고서들은 반공포로 중에 어떤 격렬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반적인 위협에 대한 증거가 되기는 하였으나, 어떤 것도 그 행동이 임박하였다는 특별한 경고를 보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유엔군사령관은 6월 8일에 “대탈출을 위한 조직적 계획의 징후는 없다”라는 보고를 하였다.⁴⁹⁾

6월에 들어서면서 휴전회담의 진척이 가시화되자 한국 곳곳에서는 휴전 반대 쫓기대회가 열렸다. 그 때문에 미국이 곤혹스러워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회담의 진전을 멈추지는 않았다. 이런 시점인 6월 7일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준 비상 계엄령이 하달되었다. 정부에서는 도미 중에 있던 육군참모총장 백선엽(白善燁) 대장 이하 전장병에게 긴급 귀국 명령을 내렸으며, 유엔군측 휴전 대표단에서 한국 대표를 소환하였다.⁵⁰⁾

6월 9일 헌병총사령관은 육군헌병사령관 석주암(石主岩) 준장, 부사령관 송효순(宋孝淳) 대령, 제3처장 홍구표(洪龜杓) 대령 등을 호출하여, 반공포로 석방의 명령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육군 헌병 경비부대가 실력으로써 수용소를 접수하여 반공포로를 석방한다”는 내용을 결정하였다.

6월 13일 두 번째 회의에서 원장군은 보안 문제를 고려하여 처음 회의에서 결정한 방안을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포로를 석방한다”고

계획을 수정한 다음 15일 자정 거사 일을 '6월 18일 24:00'로 결정하는 작전명령을 작성하였다. 그는 광주·마산·부산·영천·논산 각 지구별로 밀사를 선발하여 작명을 하달하였다.⁵¹⁾ 3만 6천명의 반공포로들이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右 : 탈출과정에서 부상당한 반공포로가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
下 : 반공포로가 탈출하고 난 후 텅 빈 마산 제 7포로수용소(1953. 6. 18)



18일 새벽 01:30경 작전보고 제1신이 접수되었다. 부산지구수용소가 석방에 성공하였다는 보고였다. 곧이어 다른 수용소에서도 작전에 성공하였다는 보고가 잇달았다. 그러나 영천수용소만은 거사 직전에 미군측에 석방 기도가 탐지되어 실패하였다. 따라서 부산·광주·논산·마산·영천·부평·대구 각 수용소에서 총 27,388명의 포로가 탈출 석방되었다.

원장군은 18일 새벽 04:00 대통령에게 거사 성공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나서 05:30에는 갈홍기 공보처장과 만나 협의하고 중앙방송국으로 달려갔다. 06:00 정각 원장군은 전국민에게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담화문’을 방송하였다.⁵²⁾

본직은 1953년 6월 18일 24:00를 기해 관하 지휘관에게 한인 애국 포로수용소 접수를 명하였다. 본직은 신성한 조국 주권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이를 명령하였으며, 이는 국제 공범인 제네바협약 총칙 제12조에 의거하는 것이다. 본직은 한국민의 열화 같은 민족정기에 호응하여 이를 감히 실천하는 바이다. 그 결과는 유엔 제국가의 이익에 공헌 있을 것을 확신하며, 몽매에도 잊지 못하는 북진 통일을 전취하려는 한민족의 자유권의 엄숙한 발동임을 내외에 선언하는 바이다. 세계 우방은 한민족의 애절한 이 행동을 적시하여 국제 공약의 엄정한 이행과 공산 침략 분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이제 애국 동포에 고하노니, 포로수용소 인근에 소재하는 부대, 경찰관, 애국청년단 및 일반 주민들은 본직이 지휘하는 헌병의 본 임무 수행에 절대적인 협조가 있기를 요망하며, 민족존망지추(民族存亡之秋)의 간두(檻頭)에 서게 된 한민족의 철석 같은 의사를 끝까지 한사결행(限死決行)하여 자유 수호와 반공 평화 확립의 세계사에 이 업적이 길이 빛나도록 일사분란, 분골정신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편, 6월 18일 새벽 02:00 대구의 육군총참모장 백선엽 장군의 관

사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처음 병참관구사령관 헤렌 소장은 “한국의 경비원들이 직무를 이탈하였다”고 격렬히 항의하면서 포로들을 재수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군사고문단장 로저스(Gordon Rogers) 소장과 테일러(Maxwell D. Taylor) 미 제8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이 역시 전화를 걸어 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백장군의 전화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곧 유엔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반공포로 석방은 대통령 자신의 책임하에 단행한 것이다. 아침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해 주었다.⁵³⁾ 대부분의 반공포로들이 탈출에 성공한 사실을 확인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제네바협약과 인권 정신에 의하여 반공한인포로는 벌써 다 석방시켜야 할 터인데 유엔 당국들과 또 이 포로를 석방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우리의 설명을 들은 분들은 동정상이로나 원칙상이로나 동감을 가질 것으로 나는 믿는 바이다. 그러나 국제상 관련으로 해서 불공평하게도 그 사람들을 너무 오래 구속했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유엔이 공산군측과 협의할 조건이 국제적 관련을 더욱 복잡하게 해서 필경은 우리의 원수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 민족에게 오해를 주는 흠상(欠喪)을 일으킬 염려가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흠상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내가 책임을 지고 반공한인포로를 오늘 6월 18일자로 석방하라고 명령하였다. 각 도지사와 경찰관들에게 지시하여 이 석방된 포로들을 아무쪼록 잘 지도, 보호케 할 것이나 다 그 직책을 수행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우리 모든 민족이나 친구들이 다 협조해서 어디서든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믿는 바이다.⁵⁴⁾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측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의 자문들은 한국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⁵⁵⁾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이

사건이 휴전회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정부의 공모 증거를 강조하고, 수용소내의 미군들이 탈출을 막기 위해 애썼으나 허사였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⁵⁶⁾

오늘 심야부터 새벽 사이에 약 2만 5천명의 북한군 반공포로가 부산·마산·논산·광주에 있는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였다. 대한민국 고위 당국에서 발표한 성명서들은 한국정부 고위 당국이 비밀리에 이와 같은 행동을 계획하고 신중한 협조 아래 반공포로 석방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포로수용소 경비를 위해 배치된 한국군 경비부대는 탈출을 방지하지 않았으며, 한국군 경비병과 포로 간에 결탁이 있었던 것을 입증해 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포로수용소장과 수명의 행정 요원으로 한정되었던 송환 거부 포로수용소 근무 미군들은 오늘 발생한 집단탈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한국군 경비병과 포로들이 공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다량의 무독성 가스와 기타 최루가스의 사용은 포로 탈출이 심야를 이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등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소총 사격으로 9명의 포로가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하였다. 미군의 피해는 없었다. 오늘 오후 1시 현재 976명의 탈출 포로가 재수용되었다. 각 주둔지와 송환거부 포로수용소에 잔류하고 있던 한국군 경비는 미군 부대로 대치되었다.

한편, 한국 국민들은 탈출 포로들을 따뜻하게 대하여 음식과 숙소를 제공해 주었으며 심지어 영웅으로 취급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행정기관과 국민들이 포로들에게 옷을 주고 민가에 숨겨 주어 미군 당국의 재수용 노력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각 반공포로수용소의 석방 현황은 표와 같다.

반공포로 석방에 관한 공산군측의 최초 반응은 다음날인 6월 19일 아침에야 나타났다. 그들은 통역관 회의와 비무장지대의 세부 작업을 책임진 다른 참모장교회의도 취소하였다. 6월 20일 본회담이 재개되

반공포로 수용 및 석방 현황(1953. 7. 2현재)⁵⁷⁾

(단위 : 명)

포로수용소	수용포로 총인원	석방된 포로	사망	잔류수용인원			
				부상	체포	미탈출	계
부산지구 거제리제2수용소	3,065	392	1		116	2,556	2,672
부산지구 가야리제9수용소	4,027	3,930				97	97
광주제5수용소	10,610	10,432	5	8		165	173
논산제6수용소	11,038	8,024	2	2	336	2,674	3,012
마산제7수용소	3,825	2,936	3	11	144	731	886
영천제3수용소	1,171	904	1		116	150	266
부평제10수용소	1,486	538	47	60	39	802	901
대구제4수용소	476	232	2		180	61	241
계	35,698	27,388	61	81	931	7,236	8,248

있을 때 적의 대표는 유엔군측이 포로 석방을 함에 있어 이승만과 교묘하게 공모하였다고 비난하는 김일성과 팽덕희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제출하였다.⁵⁸⁾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정부와 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휴전에 이승만 일당이 포함되는가? 만일 포함되지 않는다면 한국측의 휴전협정 이행을 위한 어떤 보증이 있는가? 만일 포함된다면 그때 귀측은 포로 25,952명 모두를 즉각 책임지고 회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 주어야 한다.⁵⁹⁾

한편, 6월 20일 이대통령은 클라크에게 서신을 보내어, 장차 있게 될 정치회의가 한국 통일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역설하면서 현재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전쟁에서 실현되지 않는 통일이 정치회의에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하

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정치 협상이란 그것이 항상 그러했듯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서신의 결론 부분에 가서 그는 반공한국인포로의 석방 행위는 유엔군으로부터 한국군을 철수하겠다는 견해와는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상황이 오면 그는 그것을 사전에 클라크와 협의하겠다고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다.⁶⁰⁾

반공포로 석방 사건은 이대통령이 어떠한 일이라도 단독으로 단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모든 국군과 군사시설이 유엔군사령관의 지휘아래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 대통령이 휴전회담을 결렬시키기로 결심만 한다면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어떠한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파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해 주었다. 비록 한국민의 뜻과는 달리 휴전회담이 추진되었지만, 반공포로 석방은 강대국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하는 국가로서 지닐 수 있는 강력한 자주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⁶¹⁾

제 4 절 政府의 反休戰政策과 韓美會談

1. 政府와 國民의 反休戰運動

유엔군측이 공산군측과의 휴전협상을 거의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고 있을 때, 한국측과의 관계는 도리어 악화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최초 협상이 제기될 때부터 휴전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 무렵에 들어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의 몇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휴전협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 1) 한국에서 모든 중공군 철수
- 2) 북한 공산군의 무장해제
- 3) 어떠한 제3세력도 국제적 회의에서 북한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
- 4)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완전히 인정하고 보장⁶²⁾

이들 공개적인 성명은 판문점 휴전협상의 진전 상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전보다 더욱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휴전 반대 데모와 대중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한국의 이러한 반대는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⁶³⁾ 1953년 4월 16일 워싱턴으로 주한 미국 대사와 한국 병참관구사령관에 의해 작성된 한국 정세에 관한 다음과 같은 공동평가서를 제출하였다.

휴전에 관한 한국측의 분명하고 확고한 반대는 통일에 대한 강한 소망, 1950년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기억, 중·소의 힘과 정치적 압력에 대한 인식, 장차의 피침시 미국의 원조가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만일 이대통령이 자체의 군사력을 독립적으로 운용해서 자신의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예고성이 없고 결과에 대한 사전 적절한 고려 없이 기회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 때문에 위험하다. 상황은 절박하나 이대통령은 미국이 전후 경제 원조를 제공할 것이며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국 통일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장한다면 무마될 수 있을 것이다.⁶⁴⁾

실제 이 무렵 이대통령은 4월 11일 기자 회견에서 “휴전회담을 반대하며 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고 그 결의를 나타내었으며, 4월 21일 국회도 이대통령의 결의를 지지하고 ‘휴전 반대 및 북진통일

결의안'을 채택하였다.⁶⁵⁾

3일 후 이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중공군이 압록강 이남에 잔류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동의한다면, 그는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통보하였으며, 또 “만일 싸워야 한다면 그는 단독으로서도 싸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⁶⁶⁾

4월 27일 유엔군사령관이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였다. 이 회담에서 논의된 중요한 문제는 유엔군과 중공군의 동시 철군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소련이 침략할 경우 미국의 원조 보장, 그리고 평화가 확보될 때까지 해상 봉쇄와 공중 방어에의 계속 및 국군의 증강 등 안전 보장조치가 강구되어야 유엔군은 철수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⁶⁷⁾

또한 포로교환에 관한 이대통령의 반대의 초점은 공산국가와 인도군이 남의 나라 땅에 주둔하도록 하려는데 있었다. 실제로 유엔 대표단의 한국 대표가 자체의 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스위스가 송환 위원회의 의장직을 가지고 모든 포로 관리 부대를 관리하되 이들을 제주도에서 국한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었다.⁶⁸⁾

이대통령은 5월 8일 자신을 방문한 클라크 장군에게 “휴전을 반대하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으며, 포로 관리차 인도군이 한국 내에 입국한다면 내 명령으로 송환거부 포로들을 석방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⁶⁹⁾

그러나 이 무렵 미국은 휴전을 앞당기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클라크 장군은 브릭스 대사와 함께 5월 25일 아침 이대통령을 방문하여 적에게 제안할 송환거부포로에 관한 유엔군측의 최종안을 설명하였다. 그들은 이대통령에게 휴전협정에 협력할 경우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설득하였다.⁷⁰⁾

그러나 이대통령은 클라크 장군과 회견한 뒤 “당신들은 모든 유엔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싸워 달라고 누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의존한 것이 우리의 실수였다. 나는 현재 정세하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내가 협력하겠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⁷¹⁾

유엔군측의 최종안은 한국정부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였으며 심한 반발을 초래하였다.⁷²⁾ 우선 휴전회담 한국측 대표는 회담 참석을 거부하였다. 한국측 대표의 휴전회담 참석 거부는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를 대변한 것으로 유엔군측이 제시한 상기의 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국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시사한 것이었다. 회의 참석을 거부한 한국군 대표는 한국정부 및 군 지휘관들과 신중하게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항의 서한을 유엔군측 수석 대표에게 전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다.

나는 항상 한국 국민이 생각하고 또 휴전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5월 25일의 제안 속에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 일반 문제에 대한 의견**

- 1) 유엔군측이 양보한 중요 문제 중 첫 번째는 1953년 5월 13일 유엔군측 제안에 의하여 송환을 거부하는 한국인 포로를 석방하겠다는 제안을 철회한 것이다.
- 2) 제2의 양보는 관리 기간의 연장과 포로 문제를 정치회담과 유엔총회에 넘긴다는 점이다.
- 3) 과반수 다수결원칙은 공산군측에 유리하다.

*** 포로의 태도 결정에 대한 의견**

- 4) 친공산국가인 인도의 미지수의 군대가 소련의 위성국으로 볼 수 있는 체코, 폴란드 요원과 함께 우리 영토 안으로 들어와 치외법권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 5) 군대 이외에 150명 이상의 공산군측 공작원이 합법적으로 한국 내에 들어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 6) 협정의 전 조항을 포로에게 알려 준다는 것은 원칙상으로는 타당한 것 같으나 젊은 포로들이 회유와 협박을 겸한 공산주의의 정치 요원과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인지 예상할 수 없다.

* 결 론

1953년 5월 25일자 유엔군사령부의 제안은 유엔군측이 공산군측의 강제송환 기도에 굴복한 것을 의미한다. 금번 신제안 속에 한국 국민의 견해와 건의를 반영한 한마디의 말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유감이다.

* 건 의

1953년 6월 1일 이후 공산군측에 제시될 신제안을 작성할 것이며, 이 신제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미리 동맹국과 선의의 협의를 할 것. 다시 말하면 신 제안은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충분한 협의하에 작성할 것.⁷³⁾

이와 같이 한국정부는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도 계속 싸울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휴전으로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려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번복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우리의 동의 없이 휴전협정을 조인한다면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사태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전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하여 유엔군측 대표단은 한국 대표에 의해 회담 비밀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었다.⁷⁴⁾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국군이 유엔군으로부터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하여 세 가지 우발 상황을 상정한 ‘에버레디(EVERREADY)’ 계획을 준비하였다. 1953년 5월 22일 클라크 장군이 워싱턴에 제출

한 이 계획은 상황1(한국군이 유엔군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상황2(한국군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상황3(극단적으로 한국군과 군중이 유엔군에게 공공연히 적대시할 경우)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⁷⁵⁾

상황 1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작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

유엔군사령부 산하의 미군은 주요 도시 주변의 중요 지역과 시설을 방호하기 위하여 철수준비를 시작한다. 미 해·공군은 경계태세로 돌입하고 전방지역에 대한 보급을 감소시키며 한국정부와 군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증가시킨다.

상황 2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개시할 때 :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부대의 철수를 단행하고 긴요하지 않은 시설을 폐쇄한다. 한국군 경비부대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대체시키며, 중요 시설과 통신소의 경비를 강화한다. 시민의 이동은 억제한다.

상황 3 한국군과 군중들이 공공연히 유엔군에게 적대 행위를 할 때 :

유엔군과 유엔군에 협조하는 한국군은 자위상의 위치로 철수한다.

이상 세 가지 상황이 어느 경우에서나 필요하다면 유엔의 이름으로 계엄령의 선포, 의견을 달리하는 군사 및 민간 지도자의 체포, 군정의 선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합참은 클라크의 군정계획 부분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한국정부에 의해 중대한 위기가 조성된다면 부대의 보존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하였다.⁷⁶⁾

유엔군측은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월 25일의 제안을 기초로 하여 협상을 지속시켜 나갔으며, 이대통령은 6월 6일 유엔군사령부 5·25제안을 “수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선(先) 한·미방위조약, 후(後) 유엔군과 공산군의 상호 철군을 요구하는 다음의 성명을 발표하였다.⁷⁷⁾

유엔군의 신제안은 본 정부에서 수락할 수 없으므로 대안을 제출한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동시에 한국에서 철군하는데, 이 안건을 실시하기 전에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다.

- 1) 한반도를 어떤 나라 혹은 여러 나라에서 침략할 때는 미국이 한국과 즉시 자동적으로 공동 방위한다.
- 2) 미국은 한국에 무기와 탄약과 병참 물자를 충분히 보급, 방위 능력을 향상시켜 미국 시민이 참전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 3) 미 해공군은 계속 주둔하여 공산군이 재침할 수 없도록 한국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먼저 체결되는 조건하에 한반도에서 공산군과 유엔군이 동시 철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대통령은 미국의 계속적인 군사 원조, 그리고 공산군측의 침략 재개시 즉각적인 군사 개입, 그리고 새로운 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미 해공군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곳에 계속 잔류시킨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⁷⁸⁾

한국과 미국정부와의 줄다리기는 계속되었다. 이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이날, 유엔군사령관은 미대통령의 상호방위조약 교섭 용의와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 1) 휴전이 성립되어 수락된 후에는 미국은 필리핀·호주·뉴질랜드와 체결된 것과 같은 조약에 준하여 속히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용의가 있다.
- 2) 미국정부는 하원의 예산 책정액으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경제 원조를 계속하여 중공업과 농업을 재건할 것이다.
- 3) 미국은 유엔의 일원으로서 한국 통일을 위하여 평화적 수단에 의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또한 미국은 휴전 후에 올 정치회의 개최 이전과 그 회의 중에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즉, 이것은 미국이 1) 한국의 통일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계속 추구 하되, 이를 정치 협상에서 중심 과제로 하며, 2) 휴전 결정과 수락 직후,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의 조약과 같은 상호방위 조약을 협상하고, 3) 전후 경제 원조를 계속한다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⁷⁹⁾

그러나 이대통령은 휴전협정이 곧 성립되리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으며 이미 모종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클라크 장군의 제안에 대해 “너무 늦었다”라고 하였으며, “중공군이 한국 땅에 머물러 있는다면 한국이 생존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⁸⁰⁾

이대통령은 이미 6월 6일부터 반공포로 석방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었으며 남한 전역에 임시 비상경계령을 발하고 모든 미국 주재 한국 관리들을 귀국 조치시킴과 동시에 한국측 휴전회담 대표들을 소환하여 휴전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⁸¹⁾

다음날 7일 클라크 장군이 이대통령을 회유하려고 하였지만, 이대통령은 “한국정부는 현재의 휴전조약을 결코 수락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그것이 자살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계속 싸울 것이고, 이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조치도 자유로이 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당시 클라크 장군은 이대통령과의 대담 결과 그의 완고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이대통령은 중립국으로서든 기타 무엇으로든 인도군의 한국 입국을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인도군이 한국 내에 있다는 것을 참느니 오히려 자기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유엔군사령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송환불원포로들을 석방해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닥쳐올 사태에 대한 최초의 적극적인 경고였던 것이다.⁸²⁾

6월 8일 한국 국민의 기대에는 아랑곳없이 포로송환협정이 조인되었다. 포로송환협정의 조인은 사실상의 휴전 성립을 예고하는 것이었

으며, 가장 많은 피를 흘린 한국 국민의 의사가 도외시된 것이었으므로 국민들의 휴전 반대운동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전례 없었던 반미 감정의 징후가 한국 전역에서 일기 시작하고 휴전 반대 시위가 그 빈도나 규모면에서 증가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국군증강계획의 중단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한국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⁸³⁾

1953년 6월 12일 애치슨은 이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어 외관상으로는 정치회담에 대비한 협조 목적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도록 워싱턴으로 초청하였다. 이대통령은 이 초청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으나 그 당시로서는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대답하고 덜레스 장관을 한국으로 초청한다고 응수하였다. 이에 미 국무장관은 그 자신이 과중한 업무로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신 그는 “우리의 휴전 후 정책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극동담당차관보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을 파견할 것”을 제의하였다.⁸⁴⁾

6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환영한다고 통보하는 한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전달하였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얼마나 난국에 직면하고 있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겁니다. 국군 전 장병을 위시하여 인적 손실과 물적 타격 등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가 한국에서 유엔의 활동에 협조해 온 것은 오로지 우리와 우리의 친구가 다 한국 통일과 침략자 응징이란 동일한 목표에 움직인다는 단 하나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은 그의 본래의 목적을 포기하고 공산주의자들과 휴전협정에 조인할 모양입니다. 더욱이 유엔군측은 이러한 휴전협정 문제에 있어서 공산군측과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이 협정에 협력하라고만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협정이 한국의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정을 결코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전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변경시키는데 유화주의자가 주효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⁸⁵⁾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 반대 입장은 분단을 극복할 민족국가 완결에 그 목표를 두었다. 강대국 정치가 미결의 장으로 남겨 놓은 분단을 이어간다는 것은 한민족의 고통을 그만큼 연장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이 다시 이념으로 갈라져 대결과 전쟁의 재연이라는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므로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사의 한 단위도 채 되지 못하는 분단국이 장래의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이 국가의 운명을 세계 질서의 흐름에 맡겨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휴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2. 韓·美 會談

한·미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을 때 미국은 한국정부를 설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한국정부는 반공포로를 석방한 후에도 휴전 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유엔군사령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한국인들이 부산과 인천항 등에서 유엔군의 지원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대규모의 거센 데모가 전국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에 미대통령은 로버트슨 차관보의 즉각적인 파환을 결정하였고, 로버트슨은 콜린스 장군과 함께 한국이 휴전을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덜레스 장관의 서신을 휴대하고 한국으로 출발하였다.

로버트슨 특사 일행은 1953년 6월 24일 도쿄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즉각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브릭스 주한미대사, 그리고 머피(Robert D.

Murphy) 주일미대사를 만났다. 가능한 한 빨리 휴전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그들은 만일 이대통령이 계속 비타협적이면 로버트슨이 그에게 유엔은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데로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미대통령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⁸⁶⁾

6월 25일 로버트슨 특사가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는 공항에서 휴전협정 및 포로 교환과 장차의 정치회담에 연관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방한 목적을 공개하였다. 이들은 다음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이대통령과 회담에 들어갔다. 두 사람 간에는 열띤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어느 정도 토의된 후 이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약정하에 휴전협정을 수락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 1) 나머지 한국인 반공포로는 비무장지대로 이송,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인도한다.
- 2) 정치회담에도 시한 제한(90일)을 둔다.
- 3) 미국은 한국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한국 육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하는데 지원을 계속한다.
- 4)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즉각 보장한다.⁸⁷⁾

로버트슨 특사는 이대통령이 요구한 조건들의 수락 여부에 대해 본국 정부에 문의하였으며, 6월 27일 다음과 같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회신을 이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 1) 가능할 경우 한국인 송환불원포로는 비무장지대로 이송한다. 중국인 송환불원포로는 제주도에서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인도한다.
- 2) 미국은 정치회담에 일방적인 시한 제한을 부과할 수 없으나 90일이 끝날 때, 회담의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한국과 협조하에 회담에서 철수를 고려하고자 한다.

- 3) 미국은 경제 원조와 20개 사단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을 제공한다.
- 4) 미국은 필리핀과 유사한 상호방위조약을 기꺼이 협상하고자 하나, 미국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것을 보증할 수 없다.⁸⁸⁾

미국의 입장은 전쟁 수행과 종전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권능을 인정하고, 유엔군사령부와 공산군측이 합의하는 휴전협상을 준수하며, 상호 동의에 의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 지휘권 아래 머물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제안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였지만 다음날 비망록을 통해 “상호방위조약을 휴전협정 체결 이전에 매듭짓고, 정치회담이 결렬될 경우 특히 중공군이 북한에서 철군하지 않을 때 전투를 재개하며, 유엔군사령부가 전쟁을 승리로써 해결하여 공동의 대의를 도모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한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지휘 아래 둔다.”는 새로운 사항을 제시하였다.⁸⁹⁾

미국 협상자들은 이에 대단히 당황하였으며 한국측이 제시한 조건들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이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휴전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클라크 장군이 공산군측에게 회담을 재개하자고 주장하는 응답을 보내고, 로버트슨 특사가 이대통령과 만나 이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대통령은 정치회담이 결렬될 경우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원하고 있었다. 로버트슨 특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 그는 미국무장관과 협의한 후 7월 2일 다음과 같은 비망록을 작성하여 다음날 이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 1) 현존하는 필리핀과의 조약 방향에 따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협상은 즉각 시작할 수 있으나 비준은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 2) 한국이 공산군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를 위하여 군을 해·공군을 포함 약 20개 사단 수준으로 건설, 유지하는 것을 원조한다. 이 약속은 의회의 승인과 예산 할당 조건부이다.
- 3) 한국이 생활 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군을 지탱해 나가며, 경제 자립을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된 경제지원계획을 착수한다. 이 역시 의회의 승인 조건부이다.
- 4) 휴전조인 후 정치회담의 공동목표에 관하여 이대통령과 회담한다.
- 5) 정치회담에서는 한국 통일과 중공군의 철수를 이루기 위하여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노력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만일 90일 후, 그 회담의 무익함이 판명되고 공산측이 그 회담을 선전 목적이나 한국을 난처하게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면 미국은 한국과 함께 그 회담에서 철수하여 한국 통일을 목표로 한 다른 조치에 관해 협의한다.⁹⁰⁾

미 특사는 미국 대통령이 휴전회담 결렬시 전투를 재개하겠다는 언질을 주지는 않았다고 전달하였으며, 이와 함께 준비된 상호방위조약의 초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부는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휴전협정 조인을 미루기를 원하였지만 로버트슨 특사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만 하였다.

이대통령은 “우리는 정치회담이 실패할 경우, 만일 미국이 우리와 더불어 한국 통일이 이룩될 때까지 전투를 다시 시작할 것을 명확히 보증만 한다면 휴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그는 휴전전 중공군의 철군을 주장하지 않고,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한국 영토로 진입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포로를 비무장지대로 이동시키는데 협력하겠다고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음과 같은 보다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하였다.

- 1) 한국의 법적 관할권은 두만강 및 압록강 이남의 지역, 즉 전통적인 한국 영토에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양국 정부는 인정한다.
- 2) 동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 원조를 계속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한반도와 근해에 미군의 육·해·공군기지를 설치한다.
- 3) 일방이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다른 일방은 즉각 자동적으로 개입하며, 침략의 적용 범위는 일방의 본토뿐만 아니라 섬, 군대, 선박, 비행기까지 포함한다.⁹¹⁾

한국정부의 상호방위조약 초안은 미국측의 초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대통령은 미국의 7월 2일자 비망록에 대하여 계속 비판하면서, 7월 7일 그의 입장을 담은 회신을 로버트슨에게 전달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제1항 상호방위조약의 제안은 상원의 비준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수락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군사 및 경제 지원에 관한 제2항과 3항은 지난번 합의 사항과 일치하지만 한국 육군 확장의 최종 목표는 그의 의견으로는 20개 사단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후 목표에 관한 4항은 수락하였으며, 5항 정치회담에 관하여, 그는 만일 회담을 실패할 경우 철수하겠다는 미국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국이 새로운 전쟁에 참가하거나 혹은 국가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군사작전의 재개시 한국에게 적어도 도덕 및 물자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⁹²⁾

이에 대해 이대통령에게 보낼 서한에서 델레스 국무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보장을 함에 있어 법적 가능성까지 언급하였다. 정치회담을 기다리지 않고 상호방위조약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신속히 국회 비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버트슨 특사는 이 서한을 7월 8일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이대통령은 국군을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철수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휴전 후 국군이 비무장지대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⁹³⁾

이-로버트슨 협상은 7월 9일 절정에 이르렀다. 비공개회담에서 이대통령은 양측이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서 휴전을 수락하며 시한을 명시함이 없이 국군을 유엔군사령관 휘하에 두기로 약속하였다.⁹⁴⁾

이날 회담에서는 송환불원포로의 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클라크 장군은 한국인과 중국인 송환불원포로를 비무장지대로 이동시키는 데에는 어려운 군수상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재확인하였으며, 적의 대표단도 그러한 제의에 동의할 것이라는 신념을 피력하였다. 이대통령은 인도군의 남한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으며, 클라크는 그들을 비행기로 비무장지대까지 직접 수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⁹⁵⁾

이 회담 후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날 7월 9일에 상호방위조약의 초안 수정과 함께 자신이 앞서 약속한 것을 명료하게 정리한 서한을 로버트슨 대사에게 전달하였다. 그 서한에서 그는 지금까지의 회담 진전 사항을 요약한 다음 한국정부의 동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밝혔다.⁹⁶⁾

중공군의 철수와 휴전협정이 조인되기 전에 한국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하고, 송환불원포로의 처리를 위한 3개월간의 활동 기간을 수락하며(그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주장 대신에), 이들 포로의 비무장지대로의 수송에 유엔군사령부와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두 가지 양보는 어떠한 외국군 부대(인도나 혹은 어떤 나라로부터 오던 간에)도 남한 땅에 발을 들여 놓지 않으며, 3개월간의 심사 후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석방되기를 원하는 모든 한국인 포로는 그렇게 석방하고, 송환을 불원하는 모든 중국인 포로는 대만으로 수송한다는 양해하의 조건부이다.

이대통령은 상호방위조약의 비준을 얻는 문제에 대하여 양해하고 의회의 다음 회기에 비준도 족하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는 “우리는

휴전하에서 취해지는 어떠한 대책이나 조치가 우리 국가의 생존에 해가 되지 않는 한 휴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으며, 또 “우리의 가장 기본적 국가 목표이며 소망인 우리 나라의 재통일은 정치적이며 평화적으로 성취하는 데에 전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협력하려고 애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⁹⁷⁾

1953년 7월 11일 이대통령과 로버트슨은 최종 회담을 가진 후 마침내 1953년 7월 12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하였다.

- 1) 휴전성립 후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고 약속한다. 이를 위해 미국측은 국무장관 델레스가 조약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갖도록 상원 의원들을 설득한다.
- 2) 미국측은 장기간의 경제 원조와 2억 달러의 제1회 원조를 공여한다. 그밖에 유엔군총사령관은 휴전이 조인되는 즉시로 95만 달러에 해당하는 1,000만 파운드의 식료품을 한국민에게 공급한다.
- 3) 90일이 경과하여도 휴전 후의 정치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할 때에는 한·미 양국은 동 회담에서 철수하여 한국 통일에 관한 장차의 행동을 토의한다.
- 4) 이미 계획된 대로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하고 이에 적당한 해·공군력을 증강한다.
- 5) 정치회담 개최 이전에 공동목표의 모든 국면을 토의하기 위해 고위 한미 회담을 개최한다.⁹⁸⁾

로버트슨 특사 일행은 12일 서울을 떠나 귀국하였다. 서울과 워싱턴에서는 동시에 두 나라가 이-로버트슨 회담이 한국의 휴전, 포로의 처리 및 장차의 체휴를 위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제 유엔군측은 협상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아직 유엔군측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예상되는 장애 요인, 즉 공산군의 최종 공세, 한국의 협정 준수에 관한 보증을 요구하는

공산군측 대표단의 압력, 이-로버트슨 협정에서 불명하게 남아 있던 문제에서 기인된 한국정부와의 최종적인 어려움 등이 남아 있었다.

제 5 절 最後의 軍事作戰

1. 戰爭 세 돌의 軍事狀況

1953년 초, 휴전회담이 여전히 중단된 상황에서 전선은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때 쌍방은 1952년 말까지 계속된 치열한 고지쟁탈전 후 전선정비를 하면서 휴전회담의 최대 걸림돌인 포로문제의 조기타결을 목표로 하되 자신들의 입장 관철을 위한 영향력의 행사, 휴전과 관련하여 보다 양호한 방어선의 확보, 그리고 정치·심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종결 등 군사·정치적 목적에서 새로운 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군사전략의 모색에 분분하였다.

공산군측은 이러한 맥락에서 1953년 3월까지 방어력의 강화와 공세역량의 축적에 집중한 다음, 4월 20일부터 시작한 상병 포로교환이 계기가 되어 4월 26일 중단된 휴전협상의 본회담이 6개월만에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하계공세, 즉 휴전전 ‘최후의 공세’라 칭하는 대공세를 취하였다. 반면 유엔군측은 협상을 통한 전쟁의 조기종결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군사작전의 확대를 스스로 억제함으로써 수세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군측이 휴전회담을 지연하며 군사력을 줄곧 강화하자, 유엔군측도 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국군의 20개 사단 증강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유엔군사령관은 만주폭격을 포함한 확전계획을 건의하였다. 또한 트루먼 행정부를 뒤이은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 교착상태를 타개할 방안으로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다각적 압박전략을 신중히 모

색하였다.

이러한 유엔군측의 책략이 주효하여 전쟁발발 세 돌을 맞아 제한전쟁이나 확전이나의 막바지 기로에서 공산군측이 ‘5·25 최종안’을 수용함으로써 포로 의제의 극적인 타협을 이루게 되었고, 적의 마지막 공세의 분쇄와 때를 같이 하여 휴전 조인에 이르게 되었다.

(1) 유엔軍側의 壓迫戰略

1953년도에 접어들어 유엔군사령관은 기존의 제한목표 공격전략으로부터 확전전략으로의 전환과 항공압박작전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적의 군사력은 점증하는 데다 제한목표공격전략이 적을 휴전협상으로 끌어들이려는 강제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중 확전전략은 1월 21일에 출범한 미 아이젠하워 정부의 기존 정책을 대신할 정책의 모색과 결부되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미국의 기존 대한정책은 1951년 12월 20일에 채택된 NSC 118/2로서 “소련, 대만 또는 중공의 유엔의식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국전쟁을 해결한다”는 목표하에 휴전은 한국정부가 38도선 이남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국군을 북한군의 재침을 억제할 수 있도록 증강하는 한편 외국군의 점진적 철수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일 휴전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확전가능성에 대비하고 가용부대 범위내에서 군사작전 규모를 증대하며 북한으로 전진 제한사항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공 공군기지 폭격은 대통령 승인사항으로 유보하였으며, 중공 해상봉쇄도 재검토 대상으로 남겨 두었다.⁹⁹⁾

요약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로 38도선 약간 북쪽의 현 접촉선에서 휴전을 추구하며 실패시에는 북한으로 북진작전을 전개하되, 만주나 중국으로의 확전을 재검토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음이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의 선거공약대로 한국전쟁의 명예로운 조기 휴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1952년 12월 2~5일 전선 방문을 계기로 후에 “조그만 고지에 대한 소규모 공격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상작전의 계속이 무익하다”고 확신하고 새로운 방책의 선택과 적용을 원하였다.¹⁰⁰⁾

따라서 1953년 2월부터 새 대한정책의 모색, 특히 전쟁의 조기종결을 위한 방책의 강구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무렵 전선에서는 적의 군사력 증강이 현저하게 이루어져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을 놀라게 하였으며, 그는 1953년 2월 11일, 전선의 위험증가에 미 합동참모본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은 테일러(Maxwell D. Taylor) 중장이 밴플리트 대장의 후임으로 제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날이기도 하였다. 클라크 장군은 우선 중공 지상군 1~3개군(군단)이 입한(入韓)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실제로 중공은 3월 말까지 4개 군을 새로 투입하였다), 특히 만주기지에 적(중공 및 북한)의 공군력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유엔군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는 “적이 개성을 군사작전기지로 이용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적은 개성을 서부전선의 부대를 정리하고 재보급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대부대의 집결은 물론 포병 기갑부대도 주둔중이며 중공군 몇 개군의 지휘소도 위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¹⁰¹⁾

클라크 장군은 이러한 적정의 변화로 이미 4개월전에 수립된 유엔군사령부 작전계획 8-52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고 합동참모본부와 대응방책의 강구를 협의하였다. 이 계획은 확전조치를 통해 적으로 하여금 유엔군의 휴전조건에 응하도록 군사적 압력을 가하여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서 ① 전선을 평양-원산 선까지 추진하고, ② 중국과 만주를 폭격하며, ③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④ 특히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제한사항 제거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²⁾

클라크 장군은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관한 상황보고를 하면서 그

대응방안으로서 무엇보다 가용부대로써 강력한 방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력과 장비 및 군수품을 언제나 완편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병력증강과 관련하여 미군 및 유엔군의 증원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는 국군의 20개 사단 증편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추진하여 결국 4월 22일에는 이를 확정지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적의 전력증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 후 북한의 재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하였다. 특히 휴전이 되면 중장비 도입이 협정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국군의 증강은 그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5월 1일에는 제3군단이 재창설되고 6월 18일 제 26·제27사단의 창설로 전쟁 세 돌까지 8개 사단이 추가 창설됨으로써 국군은 3개 군단 18개 사단의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적의 공중전력 위협에 대하여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자동적으로 만주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적의 공중공격 규모가 유엔군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외의 적 공군기지 공격 필요성이 제기될 때 건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통보받았다.

끝으로 개성지역의 위협에 대하여, 공산군측이 분명히 개성 제한지역에서 1개 사단급 규모의 공세를 취할 경우 이를 안전협정의 위반으로 해석하고 반격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데 합동참모본부의 동의가 있었다.

특히 적 공군의 위협과 개성지역의 성역 남용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관심을 끌었으며,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쳤다. 이와 같은 적 군사력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책의 강구와 때를 같이하여, 새 정부가 NSC 118/2의 대안으로 검토해 온 한국전쟁의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책이 NSC 147(1953. 4. 2)로 성안되어 4~5월중에 대통령과 안전보장회의에서 검토되었다. 이는 미국이 전쟁을 군사적으로 확대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결정해야 할 정책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여기에 제시된 대안은 당초 1953년 3월 27일 미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6개 방안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A·B·C 3개 방안은 전쟁을 한반도에 국한시키는 것이며, D·E·F 3개 방안은 전쟁을 중국 본토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¹⁰³⁾

방책 A : 적에 대한 군사적 압력은 본질적으로 현행 수준으로 계속 하는 한편 한국군을 증강한다.

방책 B : 지상작전의 확대를 고려함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해·공군작전을 계속한다.

방책 C : 협조된 지상작전을 전개하여 한반도의 허리부분(평양-원산)에 방어선을 설치하되, 이와 더불어 공세적 해·공군작전을 계속한다.



제3군단 인제 관대리에서 재창설(1953. 5. 1)

방책 D : 만주와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중공격과 해상봉쇄를 포함하여 군사작전을 단계적으로 확대 강화한다. 지상작전도 강화한다.

방책 E : 방책 D에 추가하여 한반도의 허리부위로 지상작전을 전개한다.

방책 F :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와 공중공격을 포함하여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시하여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구축한다.

NSC 147의 방책은 그후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합동참모본부에 의해 계속 검토가 되었으며, 결국 5월 20일 합동참모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하여 합의를 본 휴전협상이 실패할 경우 적용할 방책은 대안 D·E·F를 통합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다.¹⁰⁴⁾

중국과 만주에 대한 직접적인 해·공군작전과 대체로 한국의 허리 부분에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한 협조된 공세작전을 통합하여 적에 대한 군사작전을 확대 강화하며,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전을 준비한다.

- a. 한국에서 정예의 공산 군사력을 파괴한다.
- b. 한국이나 극동에서 또다른 침략을 위한 적의 능력을 감소시킨다.
- c. 미국-유엔의 조건으로 적이 휴전을 수락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 d. 한국군이 작전에서 더 큰 책임을 맡도록 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이 방책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계획 8-52의 부대소요 수정은 물론 그 계획 중 핵무기의 사용에 관한 검토가 요망되었다. 이에 따라 이 방책은 유엔군사령관·태평양사령관·전략공군사령관에게 통보되었으며, 클라크 장군은 이들의 협조를 얻어 그의 작전계획 8-52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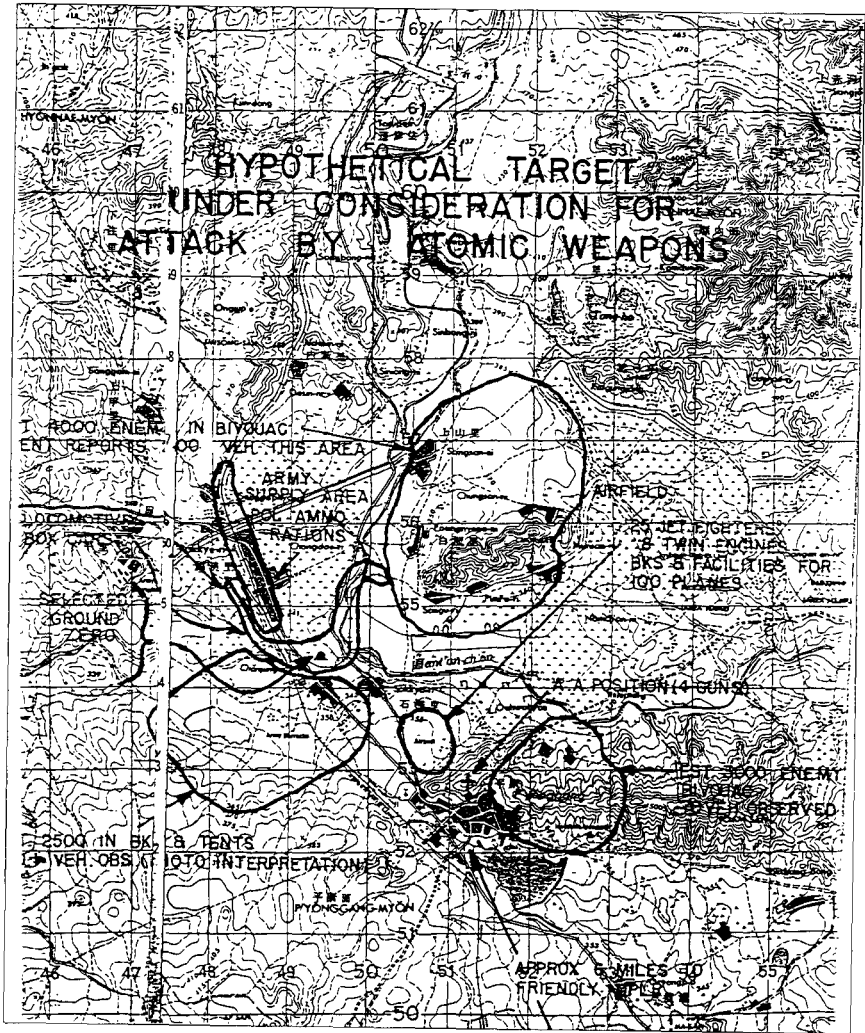
정에 착수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을 요하는 사항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계획 8-52나, NSC 147을 성안함에 있어 핵무기 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 초기인 1950년 7월부터 핵무기 사용을 검토한 바 있으며, 중공군 개입시에는 전술 핵무기의 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그후 가상타격훈련까지 실시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예로써 1951년 9월 15일자 극동군사령부의 ‘핵표적분석(Atomic Target Analysis)’이라는 극비문서에 의하면, 극동미군은 당시 피아의 접촉선 북방 10km 평강지역을 핵표적의 하나로 선정하고 가상핵타격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이 확인되었다.¹⁰⁵⁾ 당시 평강에는 적의 부대, 포진지, 유류 및 탄약보급소, 비행장 등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아군의 중부전선(철원-김화) 방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군측이 휴전회담을 계속 지연시키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핵무기 운용문제가 다시 적극적 검토대상이 되었다. 이 문제는 1953년 2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자신이 개성에 대해 전술 핵무기 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적은 이곳이 중립지대란 점을 악용하여 많은 병력과 보급품을 집결시켰으며, 클라크 장군은 이곳에 적의 부대와 물자가 ‘꽉 찼다’(Chock full of enemy troops and materiel)고 평가하였으며,¹⁰⁶⁾ 이를 발판으로 한 적의 공격은 서울 방어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후 이의 운용계획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획위원회에서 1953년 3~4월 NSC 147을 준비하는 동안 전쟁의 종결수단의 하나로 신중히 검토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판문점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공에게 정교하게 암시하였다.¹⁰⁷⁾ 뿐만 아니라 NSC 147과 관련한 회의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종결짓기



미 극동군사령부가 핵무기 공격을 고려한 평강과 가상표적
 (평강 북서 2.5km 지점에 지상원점(GZ)을 선정하고
 40KT 핵무기로 이들을 타격할 계획이었다.)

위한 극단의 수단(dire means)을 고려하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중공과 소련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1953년 초 아이젠하워 정부의 핵무기 사용책략과 같은 때에 발생한 스탈린의 사망(1953. 3. 5)이라는 대사건은 한국전쟁을 확전으로 상승시키지 않고 휴전회담을 촉진시키는 촉매가 되었다.¹⁰⁸⁾

훗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의 보좌관 애담스(Sherman Adams)에게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가져온 것은 핵전쟁의 위협이었다”¹⁰⁹⁾고 솔직한 대목을 보아도 핵무기 전략이 협상의 타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증명되고 있다. 또한 그는 그의 회고록에서도 이 점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휴전회담은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빠진 채 진전이 없고—회담은 당시에 휴회중이었다—전쟁도 마찬가지로 교착되어 나로서는 이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측에서 어떤 결정적 조치(definite measures)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적에게 [휴전협상에]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을 경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며 적 대행위를 한반도에 국한시킬 책임을 더이상 지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떠한 세계적 신사협정에도 구속받지 않을 생각이었다. 인도와 대만해협 그리고 판문점 휴전협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도에 관한 메시지(word)를 신중하게 흘렸다. 우리는 이것이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귀에 반드시 들어갔으리라고 확신했다. 곧 휴전협상이 개선될 조짐이 나타났다.¹¹⁰⁾

유엔군측은 휴전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핵위협’ 외에도 항공압박(Air Pressure)작전을 북한지역의 저수지 폭파로까지 확대하였다. 유엔 공군은 제공권을 장악, 적의 공군을 청천강 북쪽에 묶어 놓고 항공압박작전의 일환으로 1953년 2월에 수풍발전소를 세 번째 폭격한데 이어 5~6월에는 북한지역의 주요 저수지를 폭격하였다. 이는 북한의

농업경제를 황폐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유보해 왔으나 이것의 폭파가 군사작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적의 전의를 저상시켜 휴전조건의 수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최후의 선택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 공군은 1953년 5월 15~16일에 자산(慈山)저수지를 폭파하였으며 그 물이 군우리-순천-평양 간의 3개 철교를 휩쓸어 병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5월 21일과 29일에는 권가저수지도 폭격하였다. 또한 6월에는 구성, 덕상저수지도 폭격하였다. 그러나 적도 자산저수지 폭파로 심대한 수해를 입게 되자, 저수지물을 방류함에 따라 그후의 저수지 폭파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¹¹¹⁾ 하지만 수력발전소 파괴와 저수지 폭파 등 항공압박작전은 적에게 경제·군사·심리적 면에서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가하였다. 결국 ‘핵위협’과 ‘항공압박’은 적을 굴복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中共軍의 夏季攻勢戰略

중공은 1953년 1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유엔군측이 전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그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구주연합군사령관을 역임한 원수 출신인데다 1952년 한국 방문후 미국 내부에서 전쟁확대 논의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중공군은 “유엔군이 공산군의 견고한 전선 정면 진지에 맞서 재래식 공격을 감행하면 그 대가가 엄청나게 클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의 우세한 전력을 이용하여 동서 해안에서 상륙을 실시하고 정면 공격과 배합해 나가는 방안을 가장 효과적인 방책으로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산군은 지구작전·적극방어라는 기존의 작전을 고수하면서 대상륙작전 준비를 1953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해안방어, 특히 서해안 방어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¹¹²⁾

이러한 전략판단과 결정하에 중공은 3월 말까지 4개군 제1·제16·제54군 제130사단과 개편된 제33사단 및 제138사단을 투입하고 1개 전차사단과 8개 포병연대 규모의 추가적인 부대를 한반도로 이동시켜 대상륙 및 대공수 방어에 중점을 두고 동서 해안지역 방어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대배치조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서해안부대 연합지휘부와 동해안 지휘부를 별도 구성하여 이들 부대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5개 철도 공병사단과 5,000명의 철도요원을 투입하여 철도의 건설과 수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¹¹³⁾ 이들은 4월 말까지 4개월동안 연인원 6천만 명(일일 50만 명)을 동원하여 양해안에 종심 10km에 달하는 2중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정면 전선과 해안의 방어진지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들은 이에 앞서 이미 2월 말까지 탄약과 식량비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식량은 120일분을 확보하였다.¹¹⁴⁾

공산군측이 대상륙작전 준비를 완료한 1953년 4월 이들의 총병력은 180만 명으로써 그중 중공군이 19개 군 135만 명, 북한군이 6개 군단 45만 명이였다. 그들의 병력과 화력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진지는 견고하였고 작전물자도 충분하였으며 사기도 높았다. 다만 새로이 투입된 7개 군 1개 사단(제1, 제16, 제21, 제23, 제24, 제46, 제54군, 제33사단)은 견고한 진지에 대한 공격작전면에서 경험이 부족하였다.¹¹⁵⁾ 이처럼 전력이 강화되자 공산군은 삼면에 제2선까지 기본적으로 진지공사가 완성된 3월 하순부터 4월에 접어들어 전 전선에서 중대급 이하 소규모 목표에 대해 선별적으로 공격작전을 감행하기 시작하였으며,¹¹⁶⁾ 5월 5일에는 드디어 하계공세(전역적 반격작전)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¹¹⁷⁾ 이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전역의 목적은 “적군을 섬멸하며, 부대를 단련시키며 경험을 쌓게 하고 또 판문점의 회담에 협력하는데 있다. 동시에 아군의 현 방어상태를 적절히 개선하는 것이다.” 적군의 배치상황에 따라 서부전선에서는 미군, 동부전선에서는 국군을 각각 공격대상으로 한다.……

반격작전은 통일과 분산이 상호 결합된 방법을 채택하되,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단계별 작전기간은 10일, 휴식준비는 5일이다……

반격전역은 6월 초에 시작하여 7월 상순에 종결할 예정이다. 일체의 준비공작은 5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엔군측에서는 적의 하계 공세의 목적이 한국측의 휴전반대 의지를 꺾으려는 압력수단이라고 판단해 온 것과는 달리 중공군의 부대훈련·회담지원·방어선개선 등 다목적용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아군의 소대급으로부터 대대급까지 모두 56개의 목표를 선정하고, 목표에 대한 정찰과 포로획득을 통해 병력과 화력의 배치, 진지구축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이에 따른 전투훈련(예행연습)을 반복 실시하였다. 특히 공격목표의 200m 전방에 갱도형 돌격출발진지, 즉 둔병동(屯兵洞)을 비밀리에 구축하거나 혹은 은폐지형에 잠복구(潛伏區), 즉 잠복호를 구축하는 등 치밀하게 공세준비를 하였다.¹¹⁸⁾

이와 같이 공세준비를 진행중이던 5월 11일에 중공지원군사령관은 당초 계획일정을 조정하여, 이미 준비가 완료된 적(유엔군) 중대급 진지에 대한 공격은 즉각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당시 막바지에 이른 포로협상에 긴밀히 협조하고 예정된 전역기도(戰役企圖)를 은폐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적의 하계공세는 조기에 시작되어 1953년 5월 13~7월 27일까지 76일 동안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점차 그 규모가 증가되고 치열도가 높아갔다. 또한 이 공세는 중공군이 최대의 전력을 투입하고 인민군과 연합으로 전 전선에서 실시하였는데, 중공군의 주력이 금성-화천 축선의 주로 국군 제2군단이 방어중인 금성돌출부지역에 지향되었다.

이에 따라 이 공세는 ‘중공군의 최후공세’, ‘금성돌출부전투’, ‘금성

전투' 등으로 칭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가장 강력한 공세인 제3차 본공세 개시일인 7월 13일에 근거하여 제3차 공세 및 전투만을 '최후공세', '7·13공세', '7·13전투'라고 칭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항미원조전사』에 서술된 적의 하계공세 개념을 고려하여 하계공세 전체를 최후공세로 보고 이를 3개 단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¹⁹⁾

중공군의 최후공세

단 계*	기 간*	투 입 부 대*	주공지향방향**	비 고**
1단계 (1차공격)	5.13~5.26	제23군, 제24군, 제67군, 제60군	금성돌출부 전초진지	전초전
2단계 (2차공격)	5.27~6.23	제46군, 제1군, 제23군, 제24군, 제67군, 제60군, 인민군	금성돌출부 우견부	6월공세
3단계 (3차공격)	6.24~7.27	제46군, 제1군, 제23군, 제16군, 제24군, 제68군, 제54군, 제60군, 제21군, 인민군	금성돌출부 전지역	7월공세

※ 중공군의 군은 통상 3개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군의 군단급 부대와 유사한 규모이다.

* 『항미원조전사』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 집필자가 분석하여 추가한 것이다.

2. 中共軍 最後攻勢 1段階 : 前哨戰

(1) 守勢에서 攻勢로 轉換

중공군의 최후 하계공세는 1953년 5~7월에 전개되었지만 그들은 이미 3월부터 수세로부터 공세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1~2

월에는 전력증강과 진지공사에 주력하다가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자 작전에 양호한 기후조건을 이용하여 유엔군 전초, 특히 서부전선의 유엔군 전초진지에 대하여 제한된 규모이지만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3월 3일에는 중공군이 미 제2사단의 전초인 사미촌 부근의 후크(Hook)고지를 공격하였으며 3월 하순에도 또 한차례 공격하였으나 격퇴되었다. 3월 17일에는 중공군이 역시 미 제2사단 방어선상의 355고지 고왕산(高旺山, Little Gibraltar)를 공격하였다. 미 제9연대는 약 100명의 사상자를 내며 이 355고지를 방어하였다.

3월 23일에는 중공군이 미 제7사단이 방어중인 역곡천 남안의 불모고지(275고지)와 포크참고지(234고지)를 공격하였다. 불모고지의 콜롬비아 대대(미 제7사단 배속)와 포크참고지의 미 제31연대 제3대대는 적의 공격을 예상하고 방어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콜롬비아 대대는 이날밤 불모고지 전초중대가 이미 며칠간의 계속된 적의 포격에 손실을 많이 입어 중대교대를 실시중이었는데 이때 적 대대규모의 공격을 받았다. 같은 시간에 포크참고지도 2개 중대규모의 공격을 받았다.

콜롬비아 대대의 A·B 양개 중대는 허를 찔려 전열을 가다듬어 적과 백병전을 벌이었으나 세(勢)부족으로 고지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사단은 24~25일 사단 예비까지 투입하여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탈환하지 못하였다. 한편 불모고지가 피탈되던 날 밤 포크참고지의 미군도 밀려났으나 시한신관포탄으로 계속 고지를 공격하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예비중대로써 역습을 실시하여 고지를 탈환하였다. 신임 사단장 트루두(Arthur G. Trudeau) 소장은 며칠간 공격준비를 하여 불모고지 재탈환전을 벌이려 하였으나 군사령관은 전쟁의 이 시점에서 “전술적 가치도 없는 전초진지를 그보다 값비싼 인적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수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 공격계획을 부결하였다. 이리하여 불모고지는 적의 것이 되고 말았다. 불모고지

전투에서 콜롬비아 대대는 전사 95명, 부상 97명, 실종 30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미 제7사단은 불모·포크참고지의 이 마지막 전투에서 300여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 및 실종되었다. 중공군의 손실도 600~800명으로 추산되었다.

불모고지에 못지않은 치열한 전투가 3월 말 판문점 북동 16km 지점, 미 제1해병사단 제5연대의 전초 베가스(Vegas, 157고지), 레노(Reno, 148고지), 카슨(Carson, 무명고지)에서 벌어졌다. 3월 26일 중공군은 이들 전초들을 공격하였으며 격렬한 근접전투 끝에 베가스와 레노 전초를 점령하였다. 제5해병연대는 야간에 즉각 증원부대를 보내어 탈환전을 벌이었다. 적의 강력한 포병, 박격포 그리고 소화기의 사격으로 실패하였다. 27일에는 1개 대대(+)로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진전이 없었다. 이에 가용화력으로 적진을 강타한 다음 28일 재차 역습을 실시하였다. 이때 레노 전초는 포기하고 2개 대대규모로 베가스고지를 집중 공격하여 탈환하였다. 그후 수개 대대의 적 역습을 격퇴하고 베가스고지를 확보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의 사상자는 1,300여 명으로 판단된 반면 미 해병부대도 118명이 전사하고 801명 부상에 실종 98명의 손실을 입었다. 베가스 전초는 가히 피로써 지켜진 고지였다. 이는 고지의 전술적 가치보다는 피아간 상대의 방어지의와 능력을 시험한 전투였다.

(2) 最後攻勢 1段階：前哨戰

중공군의 전초진지 공격은 3월 말 베가스고지 전투 후, 해빙기인 4월이 지나고 5월 중순경에 다시 시작되었다. 3월의 공격이 공세 이전의 신호로서 아군전력의 탐색에 주목적에 있었다면 5월의 공격은 바로 그들 하계공세계획의 제1단계 작전으로서 제2·3단계 작전의 전초전 성격을 띤 것이었다. 3월의 탐색전이 주로 서부전선 미 제1군단에서 벌어진 반면, 5월의 공격은 주로 중부와 중동부전선 미 제9군단,

국군 제2군단, 미 제10군단에 지향되었으며 그중 특히 금성돌출부로 집중되었다.

적의 하계공세가 시작된 무렵 전선은 한강하구-장단-판문점-수옥시-철원백마고지-김화저격능선-금성(남단)-교암산-관망산-949고지-내곡-황기(북 2km)-남강-동해안의 감호를 연한 선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중부전선의 화천북방전선이 금성 쪽으로 불거져 이 부분의 전선을 금성돌출부라 칭하였다.

이 돌출부는 김화저격능선-금성 남쪽 중치령·회고개-교암산-지형능선-수도고지-949고지-973고지-883고지를 연하여 형성되었으며, 폭 40km로 좌우인접 전선보다 최대 10km 북으로 불거져 있으며 그 정점은 금성에 근접해 있었다.

이 지역은 아군이 1951년 추계공세 때 확보한 후 1952년 적군의 추계공세 때도 그 명칭이 말해주듯 격전을 치르며 고수한 곳이었다. 이 돌출부 중 금성 남단으로부터 883고지까지는 국군 제2군단이 배치되었고, 금성(회고개) 서측에는 미 제9군단의 국군 제9사단 일부와 수도사단이 담당중이었다. 국군 제2군단은 적의 하계공세가 시작될 무렵, 주접근로인 회고개-교암산(17번 도로 축선)에는 제6사단, 지형능선-수도고지-북한강(103번 도로 축선)에는 제8사단, 그리고 그 동쪽으로부터 949-973-883고지에는 제5사단을 배치하고 국군 제3사단을 예비로 확보하였다. 제2군단 좌익의 수도사단은 회고개-하소리(117번 및 119번 도로 축선)를, 제9사단은 그 서측 저격능선을 방어하였다. 그리고 제2군단 동측에는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 제20사단이 병행하여 주저항선을 점령하고 있었다.¹²⁰⁾

반면 금성돌출부의 국군 제2군단과 수도사단 및 제20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20병단 예하 제67군(제199·제200·제201사단)과 제60군(제181·제179·제180사단)이 배치되었고, 제9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9병단 예하 제24군의 제72사단이 대치하고 있었다.¹²¹⁾ 제23군은 철원 서북 역곡천변에 전개하였다.

중공군은 5월 12일 제60군 제180사단의 국군 제5사단 전초 689고지(텍사스고지)공격을 시작으로 5월 13일부터 금성돌출부 정면의 전초진지에 대해 공격을 가해 왔다. 그런데 이 1차공격은 그들의 하계 본공세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4월 28일에 재개된 휴전회담을 지원하는 한편 본공세의 기도를 은폐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대급 이하 소규모 목표, 즉 전초진지에 국한하였다.¹²²⁾ 국군 제2군단과 제9사단 및 수도사단은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대부분의 이들 공격을 격퇴하였으나, 제8사단의 마제형 전초는 피탈되었다.

특히 적의 하계 제1차공세 서전으로 적이 공격한 689고지는 북한강 동측 아군 주저항선의 요충 973고지의 전초가 설치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지였다. 이 고지에서는 국군 제5사단이 이곳 주저항선을 인수하기 전인 4월(2~12일)에도 격렬한 쟁탈전이 벌어졌었다. 그때 제3사단 제18연대가 1개 소대로써 전초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중공 제181사단 제542연대의 공격을 받아 8번이나 빼앗겼다가 빼앗음으로써 이 전초를 지켰었다.

이때 피탈된 과호리의 마제형 진지(271고지)는 제8사단 제10연대의 전초로서 5월 13일 중공군 제201사단의 공격에 고지에서 물러난 다음 5월 17일까지 4차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 전투에서 전사 181명, 부상 262명, 실종 23명의 손실을 입은 반면 적도 아군에 의해 사살 789명(이중 431명은 추정사살), 포로 10명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아간에 이 소초를 두고 격전을 벌이었다.

이밖에 이 무렵 전개된 주요 전초고지 전투는 다음표와 같다.¹²³⁾

다음의 표에서 보듯 중공군의 하계 제1차 공격은 북한강과 금성천의 합류지점 부근(973고지, 과호리)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이어 전개한 제2차 공세가 이곳으로 지향될 것임을 시사하는 징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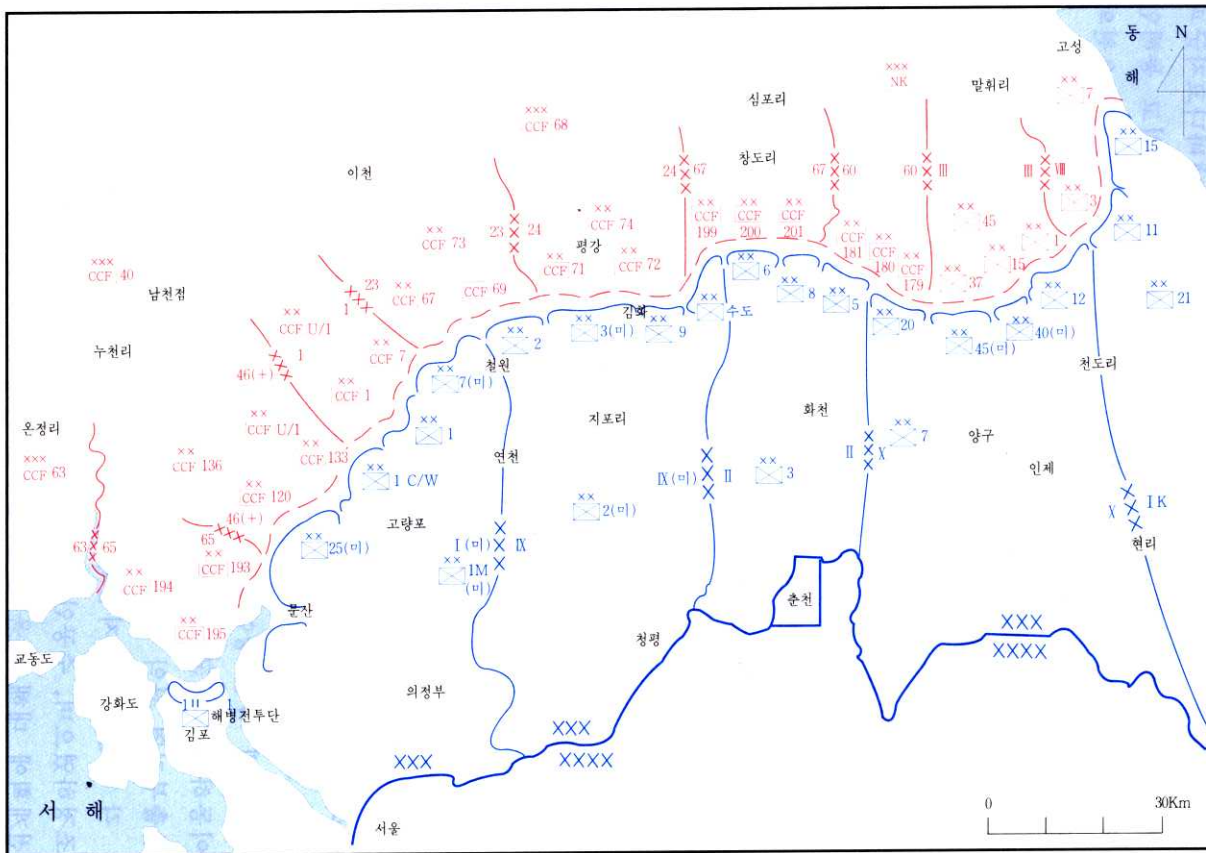
전투기간	전투명	교전부대		전투지역	전투결과
		중공군	국군		
'53.5.12~17	689고지 (텍사스고지)	제180사단	제5사단	973 북 1.5km	격퇴
'53.5.12~17	오봉능선	제180사단	제5사단	973 북 1.5km	격퇴
'53.5.13~15	삼각봉	제181사단	제5사단	949 서북 4km	격퇴
'53.5.13~17	마제형고지 (271고지)	제201사단	제8사단	북한강 서안 (과호리)	피탈
'53.5.14~16	샛별고지 (470고지)	제199사단	수도사단	금성서남 7km (직목동)	격퇴
'53.5.16~19	저격능선	제72사단	제9사단	김화북쪽 3.5km	격퇴
'53.5.23~24	회고개	제199사단	수도사단	금성서남 4km	격퇴

3. 中共軍 最後攻勢 2段階 : 6月攻勢

(1) 攻勢作戰方針

중공군은 1단계 공세를 종료한 다음날인 5월 27일부터 하계공세의 제2단계(6월 공세)로 전환하였다. 적의 2단계 공세작전의 기본개념은 1단계 공격작전의 경험을 토대로 공격목표를 대대급 진지로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 전선에서 공세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엔 1단계 공격작전시 참가한 중부전선의 제9병단 이하 제23·제24군과 제20병단 이하 제60·제67군 외에 서부전선 미 제1군단과 대치 중인 중공군 제19병단 이하 제1·제46군은 물론 동부전선에 배치된 북한군도 참전하였다. 이로써 이 공세는 1951년 춘계공세 이후 최대 규모의 공세가 되었다.¹²⁴⁾

중공군 최후공세(6월 공세) 피아의 상황(1953. 6. 1)



이에 따라 공산군이 5월 27일 금성돌출부의 국군 전초진지에 대한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서부전선 미 제1군단의 전초 네바다고지군과 후크고지, 중동부 미 제10군단의 우익 854·812고지, 그리고 동해안 국군 제1군단의 351고지를 공격함으로써 전 전선에서 전투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휴전회담에서는 이 무렵 유엔군측이 제의한 ‘5·25최종안’에 의해 난항을 거듭해 온 포로 의제의 타결이 임박한 국면을 맞고 있었으나 이 안은 “포로의 자유송환원칙은 고수하되, 반공포로도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포로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타협안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분단으로 가는 휴전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반공포로의 중립국 송환위원회 이송에 반대해 온 한국정부의 입장과 상치되었다. 그래서 이는 ‘휴전반대’, ‘북진통일’ 주창의 성명발표와 시위를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국면이 전개될 무렵, 중공군 지원군사령관 팡덕회는 제2단계 작전의 진행 초기인 6월 1일에 “원래 예정됐던 미군을 위시한 연합군에 대한 공격방침을 한국군을 위주로 한 공격으로 바꾸었다.”¹²⁵⁾ 『항미원조전사』는 “위에서 기술한 형세에 근거하여 회담의 진행을 더욱 촉진하면서 전역행동을 더욱 책략적으로 촉진하며, 또 새로이 조선에 투입된 아군부대의 작전경험을 취할 수 있도록”¹²⁶⁾하기 위해서 라고 변경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이 방침전환에 따라 새로이 입한한 군을 전방으로 투입하여 부대배치를 재조정하였으며, 제16군은 제9병단에 배속되어 제23·제24 양개군의 1개 사단 방어임무를 인수하였고, 제21군은 모두 곡산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원군 전선예비가 되었다. 이로써 특히 중부전선 및 금성돌출부지역 좌익 중공군의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각 병단은 작전지침의 수정과 부대편조의 변경에 따라 작전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주공인 제20병단은 6월 4일에 작전회의를 열어 반격작전계획에 대해 더욱 깊은 연구를 하였다. 이 병단은 예하의 제60·제

67 양개군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북한강 동서 양측의 국군 제8·제5사단을 공격하며, 2개 사단 이상의 부대가 반격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병단은 군으로부터 추가적인 포병지원을 받아 약 1주간의 준비를 거쳐 6월 10일부터 본 공세작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¹²⁷⁾

(2) 前哨高地戰鬪

공산군이 6월 10일 금성돌출부 우견부에 대한 본공격에 앞서 당초 계획대로 5월 27일부터 전 전선에 걸쳐 펼친 공격작전은 주로 아군의 전초에 대한 공격으로서 이는 본공세에 대한 준비 또는 본공세를 지원하기 위한 양공이나 양동으로 판단되었다.

우선 주공인 제20병단 예하 제67군의 제200 및 제201사단은 5월 27일과 6월 4일 사이에 금성 동쪽의 국군 제6사단 전초 돌고지(B고지)와 수도사단의 전초 지형능선과 수도고지로 공격하여 이중 돌고지와 지형능선 끝의 난초고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제60군의 제181사단은 국군 제5사단의 949고지 전방 피의 고지, M1능선, 두경봉 전초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 공격은 모두 격퇴되었다.

이 무렵 서부전선에서는 중공군 제19병단의 공격으로 역곡천 남안 전초에서 혈전이 벌어졌다. 이중에서도 네바다 전초(Nevada Complex)에서 대혈전이 펼쳐졌다. 5월 28일 밤 중공군 제46군 제120사단이 미 제25사단에 배속된 터키 여단의 네바다고지군이라 불리어진 전초 베가스(Vegas), 엘코(Elko), 카슨(Carson)을 맹렬한 포격하에 공격하여 점령해 버렸다. 이때 베가스는 1개 중대, 나머지 고지는 1개 소대규모의 전초였다. 터키 여단은 다음날(29일) 저녁까지 베가스 전초를 5번이나 빼앗기고 빼앗는 전투를 벌여 이를 확보하였다. 카슨 전초는 상실하였고 엘코는 간신히 지탱하다가 미군에게 인계하였으나 결국 피탈하였다. 이런 와중에 피아 공히 많은 전투손실이 발생하였다. 그

러나 인명을 아끼지 않는 중공군의 공격이 계속되자 사단장(Samuel T. Williams 소장)은 베가스 전초가 더이상 인명손실을 감수하며 지킬 전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명령을 내림으로써 네바다고지군이 모두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2일간의 전투에서 터키 여단은 적 3,000명을 살상하고 5명을 생포한 반면, 전사 151명, 부상 239명에 2명이 실종되는 손실을 입었다.

같은 때에 중공군 제46군 제133사단은 이 네바다고지군 우측의 영연방 제1사단이 방어중인 후크고지(Hook, 150고지)를 공격하였다. 이 고지 역시 교전이 잦은 지역이었다. 28일 저녁 중공군은 영국군이 참전 이후 경험한 최대의 포격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강력한 포사격을 가함과 때를 같이하여 이날밤 3차례에 걸쳐 이 고지를 공격하였다. 영국군은 진내전까지 치르며 강력한 저항으로 이 공격을 방어하였으며, 적은 170구의 시체를 남긴 채 물러갔다.¹²⁸⁾

한편 중동부전선의 북한인민군 제3군단은 미 제10군단지역 소양강 상류 금강산-서화 접근로상의 양건부 812고지와 854고지를 서부전선의 중공군보다 며칠 늦은 1953년 6월 1일부터 공격해 왔다.

당시 이 접근로는 국군 제12사단이 방어중이었다. 제12사단은 1952년 11월 8일 창설된 후 최초로 12월 30일에 812고지-854고지 일대의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 사단은 3개 연대를 모두 전방에 배치하였으며, 이 작전이 전개될 당시 서화계곡 좌익의 812고지는 제37연대가, 서화계곡 우익의 854고지는 제51연대가 방어하였으며, 제52연대는 우전방 남강 남쪽을 담당하고 있었다. 812고지는 적이 점령하고 있는 간부봉-1052에서 뻗은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적에게 감제당하여 방어상 취약하였으며, 그 반면 854고지는 소양강과 남강 분수령을 사이에 두고 있어 적이 공격하기에 불리하였다. 아무튼 이 두 고지는 금강산-서화-원통 접근로를 방어하는 양건부의 요충으로서 전술적 가치가 높은 고지들이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쟁탈전이 벌어졌었다.

대치한 인민군 제3군단은 6월 1일 16:00부터 공격준비사격을 812·854고지 일대로 집중하다가 22:00경 군단예비 제45사단이 전방에 배치된 제1사단을 초월하여 공격하였다. 이들은 당초 812고지 동측 1km 무명고지(후에 ‘쌍용’고지로 명명)와 854고지를 공격하여 이곳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자정경 812고지를 1,000여 발의 포격을 집중한 후 급습하였다. 이곳을 방어하던 제37연대 제11중대는 최후저지사격, 미 전차포 지원사격을 받아가며 저항하였지만 야간기습을 당하여 곧 육박전을 벌이었고, 동굴호에 들어가 진내사격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첫날의 전투에서 적이 먼저 공격한 쌍용고지와 854고지는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지만 812고지를 상실함으로써 이를 탈환하기 위한 역습이 이어졌다. 1차로 연대예비 제1대대(朴定仁 중령)가 2일 01:00에 역습을 하여 이를 탈환한 다음 예비대를 확보하려는 연대장의 의도에 따라 제11중대에 인계하고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제11중대는 진지편성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적의 재공격에 고지를 상실하였다. 2일 여명부터 역시 제1대대가 항공지원과 포병지원을 받아가며 대대장의 진두지휘하에 이날 일몰까지 여러 차례 역습을 감행하였으나 밤새 고지를 점령한 적이 동굴진지를 역이용하며 강력히 저항하는 한편 1052고지로부터의 지원사격과 적의 포격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제37연대는 사단예비(사단수색중대와 제52연대 제5중대)의 지원을 받아 제3차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그후 사단은 제3연대(-2)를 배속받아 우전방에 투입하고 그곳의 제52연대를 뽑아 사단역습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6월 5일 사단역습은 실시직전에 군단장의 지시로 보류되었다. 이는 포로협정이 임박한 시점(6월 8일 체결)에서 더이상의 피를 흘리거나 적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군사령부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밤 인민군은 제10중대가 배치된 812고지 우측의 무명

고지에 대해 재공격을 가하여 이를 점령하고 돌파구를 넓혀 나갔다. 이날 중대장(尹吉炳 대위)은 진내사격과 역습을 요청하며 동굴진지에서 저항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자결하였다. 제37연대는 배속된 제52연대 제2대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탈환하지 못하였다.

사단장은 사단예비 제52연대를 제37연대지역에 투입하고 방어책임지역을 분할하여 무명고지를 포함한 우반부를 담당하도록 하여 812고지와 무명고지 일대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새로이 무명고지를 담당한 제52연대(張虎崗 대령)는 6월 8일에 역습을 실시하여 끝까지 저항하는 적을 유린하고 무명고지를 탈환하였다. 이후 이 ‘무명고지’는 ‘쌍용고지’라 불리었다.

결과적으로 적의 최후공세(6월 공세)에서 제12사단은 서화계곡 동측의 854고지는 방어하였으나 812고지는 피탈당한 반면 쌍용고지는



교통호 내에서 제52연대 작전회의

되찾았다. 그러나 이 쌍용고지도 적의 7월 공세시 상실하였다. 당시 이 전투를 회고하면서 제37연대 제3대대장 박완식(朴完植) 소령은 812고지가 첫날의 적 공격에 피탈된 것은 경계의 소홀로 기습을 허용한 것이라며 안타까워하였다.¹²⁹⁾ 또 1차역습을 성공적으로 이끈 제1대대장 박정인(朴定仁) 중령은 예비대대의 임무를 받은 후 전방대대 지역을 중대장들과 더불어 자주 방문하여 지형을 익히고 역습계획을 연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회고록에서 병사들의 전장공포증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812고지 탈환 후에 부하들의 총구검사를 하였더니 뜻밖에 사격을 실시한 병사가 51%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머지는 겁에 질려 뒤따라 올라간 꼴이었던 것이다……

그밖에도 수류탄 투척시 안전핀을 뽑지 않은 채 던지는 병사 등 전장공포증에 걸린 병사들을 보고 “전장터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은 개죽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죽음이며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온 국민에 의해 영원히 제사를 받게 된다……”며 전장공포증을 극복하고 사생관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공격전력의 극대화에 도움이 되었다.¹³⁰⁾

다음으로 인민군이 6월 본공세에 앞서 전력을 집중한 곳은 동해안의 351고지였다. 351고지는 월비산과 더불어 1951년 추계공세 때 수도사단이 점령한 이래 제11사단, 제5사단으로 방어임무가 인계되는 동안 쟁탈전이 계속된 고지였다. 월비산은 제11사단의 방어시 상실하였으나 351고지는 확보한 채 1953년 1월 30일 새로이 이곳에 투입된 제15사단이 그 방어임무를 인수하였다. 제15사단은 1952년 11월 8일 창설된 후 편성과 부대교육과정을 거쳐 동해안 전선에 투입되었으며, 이 전투가 전개될 당시에는 제39연대와 제38연대를 남강 남안 554고지-339고지-351고지-감호선에 배치하고 제50연대를 예비로 확보한 채 북한군 제7군단 예하 제3 및 제7사단과 대치중이었다. 당시

351고지에는 동굴화된 벙커·분대단위 대피호·교통호로 연결된 진지가 편성되어 있었다.

1953년 6월 2일 자정경 인민군 제7사단은 전례에 보기드문 각종 포화의 맹렬한 지원을 받으면서 제13연대 제2대대가 정면과 측방으로 351고지로 육박하였다. 이 전투에서 포획된 포로 진술에 의하면 이 대대는 약 2개월전부터 351고지와 유사한 지형에서 공격 예행연습을 한 후에 이곳에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351고지 방어부대인 제38연대 제9중대는 육박전을 벌이다 적이 진내로 진입하자 01:30에 동굴진지로 엄폐 후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제38연대는 일부 부대로 351고지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도중에 적의 포격에 실패하고 사단예비 제50연대 제1대대를 배속받아 6월 3일 03:20에 역습을 실시하였다. 적이 진내에 진입한지 26시간이 경과한 뒤였다. 제1대대는 사단 포병과 B-29편대의 공중지원까지 받아가며 역습을 하였으나 이미 적이 진지를 점령하고(동굴을 제외하고) 재편성을 한 뒤이어서 많은 사상자만 내고 물러섰다.

제50연대 제1대대는 동해안의 제77·제95 기동함대의 함포와 함재기는 물론 지원포병이 월비산·351고지, 또 351고지를 위협하는 148-187고지군에 맹렬한 포격과 폭격을 가하는 동안 재편성을 마치고 6월 3일 14:30에 재공격을 감행하였다. 군단장(李亨根 중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번엔 대대장 이하 지휘관들이 진두에서 공격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지형상 은폐물이 없어 노출된 지형을 횡단할 때 적의 포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서로 부상자를 후송하려 하자 공격대형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어 공격대기 진지로 철수하고 말았다.

제50연대 제1대대는 병력보충을 받은 후 다음날(6월 4일 07:00)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야간처럼 행동하며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번에는 적진에 도달하여 각 중대 특공조가 적의 화기 엄체호를 파괴하고 후속하던 중대원들이 고지 정상으로 육박하였다. 이때 적이 수류탄을 굴러내리고 351고지 측후방의 148-187고지로부터 지원화력이 집중

되자 신병들이 겁에 질려 아래로 내닫기 시작하므로 8부능선으로 다시 물러났다.

제50연대 제1대대의 역습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제9중대 중대장과 일부 병력은 진지의 일부를 유지한 채 동굴내에서 저항하고 있었다. 연대장은 사단장의 승인을 얻어 3일 19:00에 철수명령을 내렸으며, 중대는 진내사격이 실시되는 틈을 이용하여 남쪽의 339고지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어떤 병사는 1주일 후에 돌아오기도 하여 모두 11명을 제외한 중대원이 복귀하였다. 사단장(李貞錫 준장)은 기필코 351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6월 4일에 사단작전참모 함성렬(咸星烈) 중령을 연대장 대리에 임명하고 351고지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신임 연대장은 배속받은 제50연대 제1대대(제3대대에 배속조치)와 제3대대로 6월 5일 01:00 야간공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대대는 은밀히 전진하여 돌격선까지 진출후 적진으로 돌입하였으나 이때 적에 의한 진내사격이 집중되고 측방으로부터의 사격에 제3대대에서 사상자가 속출하며 혼란이 일어나 목표탈취 일보직전에서 물러났다.

제3대대는 이후에도 2차례나 역습을 감행하였으나 역시 무위로 끝났다. 사단장은 지금까지 전투에서 사단예비를 다 투입하여 역습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만 발생하였을뿐 351고지 탈환에 실패하자 일단 공격을 중단하고, 제38연대는 351고지 남쪽 능선을 방어하고 제50연대는 사단예비로 원복시켜 재편성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전투(6. 2~6. 5)에서 제38·제50 양개 연대가 입은 손실은 전사 222명, 부상 537명, 실종 11명 등 총 770명으로서, 물론 적도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너무나 큰 손실이었다. 휴전직전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전의와 그로 인한 엄청난 피해통계를 보면서 지금의 휴전선이 피의 대가라는 숙연한 감회에 젖게 한다. 이후 사단은 제21사단 제63연대를 배속(6. 6 일부)받아 사단 좌전방에 투입하고 그곳의 제39연대를 예비로 뽑아 예행연습을 실시한 다음 역습을 재개하였으나 역시 제38연대의 전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실패하

자 351전초고지 탈환을 단념하고 우전방 방어지역의 중심을 강화하는 한편, 방어중점을 339고지에 두어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그러나 적의 7월 공세시 339고지도 피탈당함으로써 휴전을 앞둔 시점에서 351·339 두 고지가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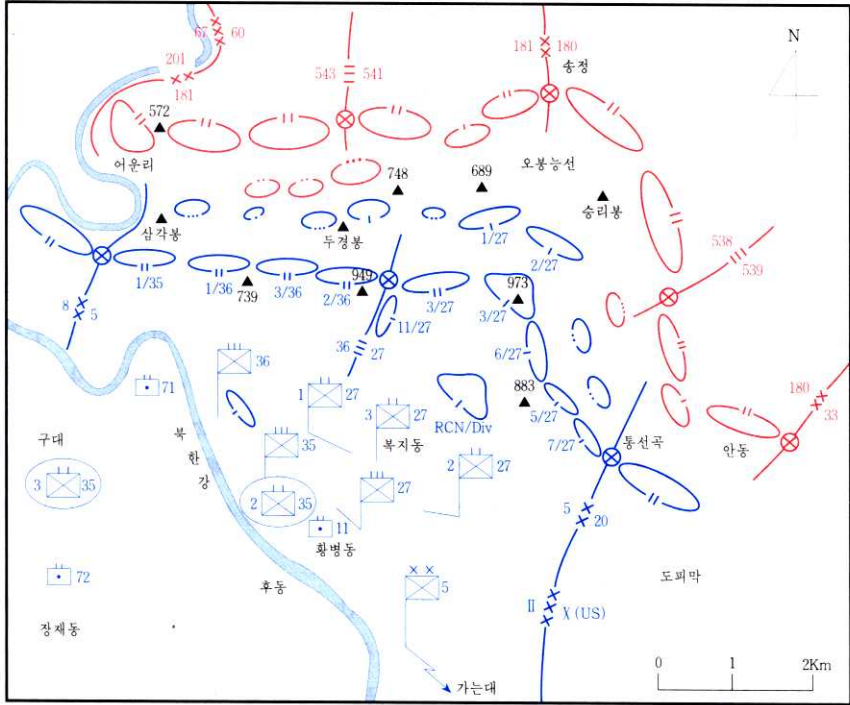
(3) 949·973·883高地 戰鬪

중공군과 북한군은 1953년 5월 27일부터 주로 금성돌출부 국군 제 2군단 전초진지에 대해 탐색공격을 벌이는 한편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침예하게 대결을 벌여온 네바다고지, 812고지, 351고지에 대해 인명을 아끼지 않는 공격을 펴 6월 초순에 이들을 점령하였다. 이 동안 그들의 최후공세 2단계 작전의 주공부대인 제20병단은 공격준비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6월 10일에 북한강과 금성천 합류지점의 아군 주저항선 공격에 주력을 투입하였다.

제20병단 예하 제60군은 북한강 동안 국군 제5사단의 주저항선 949·973·883고지를, 제67군은 북한강 서안 국군 제8사단의 지형능선·수도고지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제68군은 예비로 세포리에서 전방군(단)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국군 제5사단은 북한강과 금성천의 분기점으로부터 동으로 통선골까지 949고지-973고지-883고지로 형성된 주저항선을 방어중이었으며, 이는 배후에 도섭이 불가능한 북한강을 두고 있어 배수의 진이기도 하였다. 이들 고지군은 아군이 1951년 추계공세시 확보한 이래 지금까지 방어해 오고 있었다.

1953년 4월 15일, 국군 제3사단과 교대하여 이곳에 진출한 제5사단(준장 崔泓熙)은 제36연대(+1)를 주저항선의 좌반부 548고지-949고지(우두산)에, 제27연대를 우반부 973고지-883고지에 배치하고 이들 전방연대로써 삼각봉-두경봉-748고지(피의 고지)-689고지(택사스고지)-오봉능선-승리봉에 소대규모의 전초를 운용하며 적과 대치중이었다. 사단예비 제35연대(-1)는 남은 티와 황병동에 각각 1개

949·973·883고지 전투



대대씩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사단지역의 주보급로는 북한강 동안에 개척된 강변도로가 유일한 것이었으며, 남은 터 북쪽에는 작전용 교량으로 도보교와 철판교가 가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 강변과 629고지 간에는 보급추진용 케이블카도 설치되어 있었다. 그밖에 후동-황병동 간에도 작전용 교량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901부교중대가 당사단을 지원하였다.

한편 사단의 전방에서 대치중인 중공군 제60군은 제181사단을 주공으로 973고지 방향으로 지향하고, 제180사단을 조공으로 투입하며 배속된 제33사단은 우인접 미 제10군단의 국군 제20사단 정면에서 견제공격으로 운용할 계획이었으며 제179사단을 예비로 보유하고였다.¹³¹⁾ 이들은 이번 공격에 앞서 공격부대를 후방으로 빼내어 예행연습까지

실시하였으며 공격개시 전일에 6개 중대와 2개 소대 병력을 아군 진지의 전방과 양측방의 ‘비밀잠복지역(屯兵洞)’으로 진입시켜 기습을 달성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¹³²⁾

이와 같이 철저히 준비를 한 중공군 제60군은 1953년 6월 10일 일몰과 때를 같이하여 수개 제파로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이른바 중공군 ‘6월 공세’로 불리는 대작전이 펼쳐졌다.¹³³⁾

주공 제181사단은 이날 하오 송정-가바우골 부근에 집결하였다가 날이 저물면서 오봉능선 좌우로 전개하여 973고지를 주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아군을 기만하기 위해 먼저 좌일선 제36연대 지역 949고지 북쪽으로 중대규모의 부대를 투입하여 견제공격을 하였으며, 20:00부터 10,000발의 포격을 퍼부으면서 21:00를 기하여 1개 연대규모로써 973고지 전방의 전초중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¹³⁴⁾

전방에 추진된 청음초, 매복초 그리고 소대규모의 전초부대는 쇄도하는 적의 공격에 중과부적으로 지원사격을 요청해 가며 21:15에 주진지로 철수하였다. 이 와중에 적의 집중된 포화로 제27연대는 대대간의 유선과 대대-전방중대 간의 유선이 거의 두절되어 부대지휘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당시 무선장비도 성능이 불량하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전초선을 돌파한 적은 포격의 지원하에 제27연대 제3중대가 점령하고 있는 973고지와 제6중대가 방어하고 있는 883고지로 쇄도하였다. 883고지로도 2개 대대가 공격해 왔다. 사단의 제11포병단도 이들의 접근로에 TOT사격을 가하였으나 이들은 포격이 멎는 틈을 타 주저항선으로 계속 공격을 가하였다. 23:00경 주저항선의 핵인 양개 고지의 일부가 돌파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주저항선은 물론 전초진지까지도 휴전을 앞둔 시점이어서 고수방어 개념으로 방어하였으나 전투정면이 넓어 이들 중요 고지에도 1개 중대밖에 배치할 수 없었으므로 각각 1개 연대규모의 파상적인 공격에 지탱하기란 역부족이었다. 23:40 973고지가 그 10분후에는

883고지가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주저항선이 돌파되자 우선 제27연대장은 양측방의 부대로 돌파를 억제하도록 하고 돌파된 제1대대와 제2대대 병력을 수습하여 저지선을 형성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제27연대의 인접인 좌익의 제36연대와 우익의 제20사단 제62연대의 전선은 조용한 상황이었다.

이 무렵 제27연대 지휘소를 방문한 사단장은 전황을 검토한 끝에 지체없이 사단예비로 역습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 6월 11일 01:00시에 하달된 역습명령은 사단예비 제35연대(-1)는 973고지를 탈환하고 제27연대는 사단수색중대와 제35연대 수색중대를 배속받아 자력으로 883고지를 탈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명령에 따라 제27연대는 아직까지도 병력 수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나 제2대대(-)로써 04:30에 역습을 실시하여 한때 883고지의 참호선에 접근 수류탄전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끝내 최후의 적 화망을 뚫지 못해 물러나 급편진지를 구축하였다. 제27연대장은 제2대대로서는 883고지 탈환이 어렵다고 판단, 07:30에 일단 각 대대로 하여금 현 접촉선을 유지하면서 부대를 정비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앞서 11일 03:00경 제5사단의 상황보고를 받은 군단장은 예비 제3사단 중 제22연대를 제5사단에 배속 조치하고 피탈지역을 탈환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제5사단장은 제22연대가 배속됨에 따라 이미 하달한 역습계획에 수정을 가하여 복도시에 집결중인 제35연대(-1)로 973고지를, 황병동에 집결중인 제22연대로 883고지를 탈환하게 하였다.

제35연대는 제1대대가 제36연대에 배속되어 주저항선 좌익을 방어중이었으므로 제2·제3 양개 대대로써 역습을 실시해야 하였다. 제2대대는 황병동에서 08:10에 북동쪽 능선을 타고, 제3대대는 07:30에 제27연대 제3대대 진지 동단 805고지를 지나 동쪽으로 973고지를 공격하였다. 양개 대대는 적의 포화와 저항에 고전을 면치 못하여 가망

이 없는 듯하였으나 제2대대 예비 제7중대가 투입되어 전방 양개 중대를 초월 15:40에 과감한 돌격을 전개한 것이 성공하여 어렵게 목표 973고지를 탈환하였다. 뒤이어 도착한 대대의 나머지 중대와 함께 잔적을 소탕하고 그 과정에서 중공군 1명을 포로로 하였다.

그는 제181사단 제543연대 소속으로 이 고지를 점령한 제541연대와 막 교대하여 공격을 준비중이었다고 하였다. 중공군은 공격부대가 목표를 점령하면 곧 많은 보급품과 탄약을 휴대한 새로운 부대로 임무를 교대시키는 것이 상용 전법인데, 이는 이 고지 전투에서도 포로 진술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고지를 점령 후 제2대대는 제3대대와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973고지 서측 500m 지점 ‘마의 돌출능선’을 점령하고 있는 적의 저항이 강해 성공하지 못하였다. 목표를 점령한지 약 3시간이 지난 18:50경 제2대대는 치열한 포격과 함께 좌우 양측으로부터 적의 역습을 받아, 격돌 30분만에 방어선이 무너지자 주봉에서 물러나 급편진지를 구축한 채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였다. 이때 제35연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각 연대는 ‘공격을 일단 중지하고 야간방어에 들어가라는 구두명령을 수령하자, 배속받은 제27연대 제3대대와 연계하여 연대의 제3대대 및 제2대대로써 973고지 500m 후사면에 지지선을 구축하였으며 우로는 883고지 후사면의 제27연대(-1)와 연결하였다.

한편 제22연대는 11일 일출 후 북한강 건너 황병동에 집결하였다. 연대는 군단예비로 있을 시 연대장(대령 崔炳淳)도 새로 부임한데다 대대장 2명, 중대장 7명, 사병 1/3이 휴가 또는 외출중에 있어 전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

연대장은 수색중대를 제27연대 제2대대 지역으로 파견하여 883고지의 적정을 파악하는 한편 제3대대와 제1대대를 좌우 일선으로 제2대대를 예비로 883고지를 탈환할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양개 대대는 11:30에 공격을 개시하여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이날 따라 가랑비가 내려 항공지원도 받지 못하였다. 15:00 전후하여 실시된 돌

격전에서 공격부대는 적의 방망이 수류탄과 기관총 화망에 병력의 1/3을 상실하였다. 연대는 19:00에 공격을 일단 중지하고 야간방어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제35연대와 제22연대가 973고지와 883고지에 대한 역습을 전개하는 동안 제27연대는 낙오자를 수집하여 제1대대로 973고지 후방에 저지선을 편성하는 한편 제2·제3대대 낙오병은 돌파구의 양견부를 지탱하고 있는 본대로 복귀시켜 돌파구 확장을 억제하며 역습 부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6월 11일 1차 역습에서 실패한 제5사단은 밤새 다음날 재역습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사단은 이미 많은 병력손실을 입었고 보급지원도 부진하며 기동에도 제한이 많은가 하면 기상불순으로 항공지원도 받을 수 없는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12일 04:00 여명을 기하여 제35연대와 제22연대로써 재역습을 시작하였다.

제35연대는 전일과 같이 제2·제3대대로써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이중 제3대대는 805고지를 출발하여 격전 끝에 09:40 ‘마의 돌출능선’을 점령하고 973고지 500m 전방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북동쪽 능선으로 973고지를 공격한 제2대대는 도중에 둔좌되고 말았다. 제35연대의 공격이 주춤하자 적은 제2대대 방향으로 2개 대대를, 제35연대와 제22연대의 간격으로 일부 부대를 진출시킴과 동시에 973고지에 배치된 주력을 움직여 공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발전으로 제2대대는 남쪽으로, 제3대대는 805고지 쪽으로 밀리었다. 연대장은 이들로 하여금 저지선을 구축하도록 하고 배속된 제27연대 제3대대는 적이 949고지 쪽으로 돌파구를 확대하지 못하게 저지하도록 하였다. 같은 시간에 역습을 한 제22연대는 제1대대로 하여금 883고지 남쪽에서 적을 견제하고, 제3대대는 남서쪽 능선을 따라 공격하며 예비인 제2대대로 하여금 제3대대 서측으로 우회하여 973고지와 883고지中间的 무명고지를 점령함으로써 883고지를 고립시켜 점령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제22연대의 역습 성

공여부는 제2대대의 무명고지 점령여부에 달려 있었다.

제2대대는 04:00에 공격선을 출발하여 일출전까지 무명고지에 도달한 후 여러 차례 돌격을 반복하였으나 증강된 대대규모의 적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마침내 973고지의 적이 883고지 쪽으로 돌파구를 확대함으로써 그 세에 밀려 남쪽으로 밀려났다. 남서쪽에서 공격한 제3대대도 883고지 200m까지 접근하여 여러 차례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적의 역공격에 병력이 분산되고 말았다. 연대는 이날 11:00 경에야 전날의 저지선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

이날 공격이 한창 진행중이던 09:30에 군단장 정일권(丁一權) 중장과 제8군사령관 테일러(Maxwell D. Taylor) 중장이 수동리 사단 임시 지휘소를 방문하였다. 군사령관은 상황을 청취한 후 사단장의 복안을 문의한바, 사단장은 기필코 원진지를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었다. 사단은 이날(12일) 미 중박격포 1개 대대의 추가지원을 받았으며 지원부대를 재배치한 후 13:30을 기하여 제3차 역습을 명령하였다.

제22연대는 오전 전투에서 병력의 과반수를 잃은 제2대대를 예비로 돌리고 나머지 2개 대대로 역습을 실시하였다. 제1대대는 883고지 정면에서 제3대대는 남서능선에서 돌격선까지 진출하여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중공군의 화망과 수류탄 투척을 뚫지 못해 선봉에서 돌진한 결사대만 희생되었을 뿐 돈좌되었다. 이 무렵 적 1개 대대가 883고지 서북쪽에서 제3대대를 포위하려 하자 연대는 급편방어로 전환하여 이들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때(15:10) 사단의 공격중지명령이 내려지자 제22연대는 포병 지원사격하에 공격전 저지선으로 철수하여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한편 제35연대는 이날 3차 공격개시 시간까지도 부대의 재편성이 완결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연대장은 지금까지 949고지를 방어중인 제27연대 제3대대(배속: 제35연대)로써 공격을 하기로 하고 이 고지를 제35연대 제3대대로써 방어하도록 부대교대를 실시한바 이날 17:00 경에야 완료되었다. 이에 앞서 사단장은 제22연대와 제35연대에 의한

역습이 한계에 달하였다고 결론지은 후 좌일선 부대로서 지금까지 적의 대부대 공격을 받지 않은 제36연대로써 역습하기를 결심하였다. 사단장은 양개 연대에 역습중지와 아울러 제27연대로 하여금 사단의 좌일선 진지를 인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따라서 제35연대의 이날 역습은 자동적으로 중지되었다.

● 사단의 저지선 붕괴

제27연대는 13일 04:00부터 기동하여 적의 간헐적인 포격을 받아 가며 16:00까지 제36연대의 진지인수를 완료하였다. 제36연대는 황병동에 집결하여 일몰경 예하 대대를 973고지와 883고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대기 지점으로 전개시키고 다음날 여명 공격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중공군이 14일 02:00에 선제 야간공격을 실시하여 제22연대 중앙과 좌익을 차례로 돌파하려 하였으며, 이 와중에 제6중대가 적중에 고립되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다. 제22연대는 날이 밝은 후 정확한 관측에 의한 포병 지원사격의 도움을 받아 제6중대를 구출하기는 하였으나 10:30경에는 대체로 883고지 1~1.3km 남쪽 능선으로 물러나 저지선을 구축하였다. 이날 획득한 포로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제181사단 소속이며 뒤에는 증원부대가 도착하여 공격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새벽 좌일선 제27연대에서 획득된 포로가 제203사단 제609연대 소속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새로운 부대가 투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¹³⁵⁾

이와 같은 전황에 봉착한 사단장은 역습을 중지하고 접촉선을 고수하기로 결심을 바꾸어 역습준비중인 제36연대를 제27·제35·제22 3개 연대의 직후방 복도시-널우골의 제2선에서 방어중심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제36연대를 제외한 다른 3개 연대는 이미 최소한 3끼니 이상의 식사를 걸러 허기에 찬데다 매일밤 중공군의 공격에 수면을 취하지 못해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고 많은 전우를 잃어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험준한 산악지형

에다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는 가운데서도 노무자들의 식사와 탄약 보급은 물론 환자 후송을 위한 헌신적 노력은 사기유지에 일조가 되고 있었다.

중공군은 제180사단과 증원된 제203사단 제609연대를 좌일선에 투입하여 14일 18:00부터 사단 전 정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으로 공격을 가하였다. 사단의 좌익(548고지-739고지)의 제27연대는 적 2개 연대의 공격에 저지선이 무너지고 통신마저 불통되어 부대가 일대 혼란에 빠져 북한강에 가설된 교량을 향하여 밀려 내려갔다. 우익(973고지-883고지)의 제22연대는 적 5개 대대를 맞아 초전에는 그런대로 그 기세를 꺾기도 하였지만 20:00를 넘기면서 적의 파상공격에 휩쓸려 저지선을 상실하였다. 중앙(949고지-805고지)의 제35연대도 949고지를 방어중인 제1대대가 중공군 5개 대대의 인해공격을 받아 격돌한지 1시간 20분후 23:40을 전후하여 진지가 완전히 돌파되었다. 이때 805고지의 제3대대는 좌우익의 제1대대와 제22연대 전선이 돌파되는 바람에 적진에 고립되어 탈출과정에서 제9중대장이 전사하는 등 희생이 컸다.

사단에서는 상황이 견잡을 수 없는 혼전에 빠지자 사단역습을 중단하고 저지선을 형성한 제36연대를 북한강상의 교량 부근으로 이동시켜 교두보를 구축하고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14일 23:00경 사단의 전선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병력은 중공군의 야간 추격을 받으며 황병동 계곡으로 밀려들었다. 사단장은 629고지에 설치된 케이블카를 폭파 조치하고 공병대대장으로 하여금 북한강상의 교량폭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자정 무렵 사단의 상황은 수습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 신방어선(Iceland Line)으로 철수

제2군단장(丁一權 중장)은 이 무렵 우전방사단이 현 방어선(Missouri Line)을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군 제5사단을 그 남쪽 금

성천과 북한강에 연한 방어선(Iceland Line)으로 철수시켜 양지촌(462고지)－후동－널우골(748고지)을 점령하도록 조치하였다. 제5사단장은 15일 00:50부로 신방어선으로 철수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제27연대는 북한강 서안 양지촌(462고지－후동)에, 제36연대는 북한강 동안 황병동(319고지)－널우골(748고지)에 방어편성을 하고 제35연대는 군돌－감우리에 집결하여 사단예비가 되게 하였다. 제22연대는 북한강 서안으로 철수, 원대복귀할 준비를 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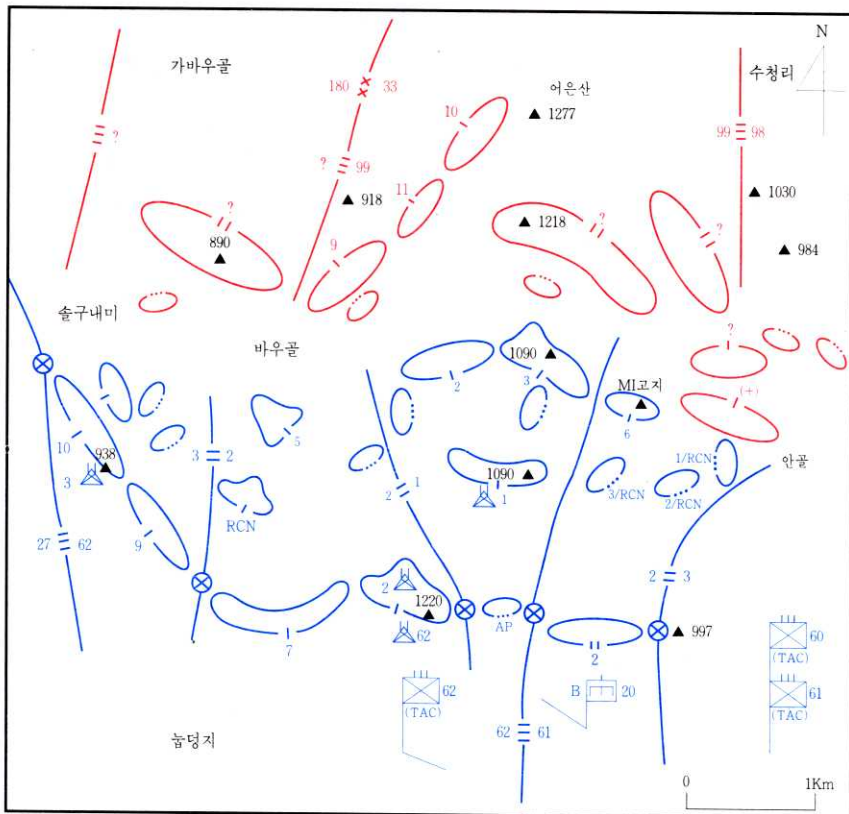
군단의 조치와 사단명령에 따라 각 연대는 야간에 새로운 진지로 철수하고 제1103야전공병단은 남은 터 북동쪽과 후동에 가설된 북한강상의 작전용 교량을 02:00~03:00에 폭파시켰다. 이 폭음은 철수하는 병사들을 더욱 놀라고 두렵게 만들었다. 적의 추격하에 분산된 채 북한강에 도달한 병력은 이미 교량이 파괴된 뒤이어서 일부는 헤엄을 치고 일부는 보조물을 이용해 강을 건너야 했다. 물론 중장비의 철수는 불가능했으며 지원된 미군의 중박격포대대도 박격포를 모두 파괴하였다. 마치 개전초기 한강교량 파괴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된 듯하였다. 이런 혼란과 위기를 넘기면서 사단은 6월 15일 07:00까지 신방어선을 편성하여 안정을 되찾았다. 이날은 다행히 날씨가 개여 유엔 공군기가 한국전쟁 사상 1일 최고 출격횟수를 기록하며 2,143회나 출격하여 중공군 진지와 부대를 강타함으로써 적의 돌파구 확정과 추격을 차단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

(4) 1090高地·M1高地 戰鬪

중공군 제60군 주력이 6월 10일 금성 돌출부 우견부인 국군 제5사단의 949·973·883고지군을 집중 공격할 무렵 배속된 제33사단은 이 우견부 동측의 제20사단 방어선인 1090고지를 중심으로 한 938고지, M1고지를 공격하였다.

국군 제20사단은 1953년 2월 9일에 창설되어 5월 15일에 이 전선

1090고지·M1고지 전투상황



을 제7사단으로부터 인수해 방어중이었으며, 6월 공세가 개시될 무렵에는 제62연대와 제61연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제60연대를 예비로 보유하였다.

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이 전선은 1951년 아군의 추계공세시 점령한 이래 쟁탈전을 계속해 온 지역으로서 938고지는 883고지에서 1220고지로, 1090고지(북)는 어은산에서 1220고지-백석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의 요충으로서 전술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고자군이었으며, M1고지는 1090고지(북) 동측 능선에 딸린 무명고지였다.

당시 938고지는 주저항선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1090고지(북)와 M1고지는 전초진지로서 1개 중대규모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특히 M1고지는 피아 주저항선 진지보다 표고가 낮으며 감제되는 지형으로서 전술적으로 1개 중대 이상 운용이 어려운 곳이었다.

중공군 제33사단은 6월 10일 일몰 후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먼저 M1고지를 공격하여 방어부대인 제61연대 제6중대를 밀어붙이고 고지 정상을 점령하였다. 주저항선에 배치된 제5중대가 11일 06:00에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적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너무 늦어 이미 적이 진지를 강화한 후였기 때문이었다. 연대는 다음날 연대예비제1대대로써 역습을 실시하였다. 역습은 12일 03:00에 제2·제3중대로 실시되었다.

이때 밤마다 비가 내려 기동이 어려웠으며 더구나 안개와 포연으로 시계도 좋지 않은데다 야간이라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공격부대는 가벼운 CAR소총을 휴대하고 수류탄을 20발씩 휴대하였다. 하지만 고지 정상을 공격한 제3중대는 적의 화력과 수류탄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적진 돌파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 한용택(韓龍澤) 일병이 수류탄의 집중투척으로 적진 일각을 깨고 적과 난투극을 벌여 적을 무찌르는 감투정신을 발휘하자 공격기세가 되살아나 중대원이 적진으로 돌진하여 목표를 탈환하였다. 이 전투에서 한 일병은 적 7명을 사살하고 2명을 포로로 한 전공으로 후에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중대는 곧 포격에 이은 적의 역습에 고지를 피탈당하였다.

이어 13일 03:00에 제1중대가 투입되어 다시 고지를 탈취하였으나 그후 곧 적의 역습에 또 밀려났다. 중대는 군단 및 사단 포병의 지원하에 재역습을 실시하여 다시 고지를 되찾았다. 곧이어 북사면에 매복중이던 적이 쇄도하여 백병전이 벌어졌고 중대장이 중상을 입으며 고지를 적에게 내어주었다.

제1·제3중대가 계속된 역습에도 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손실이 많자, 대대장은 분통을 터트리며 이번엔 대대장이 제2중대를 이끌고

역습에 나섰다. 제2중대는 13일 14:30에 공격을 시작하여 5부능선에서 적의 사격과 수류탄이 난무하자 30분간 포병지원사격을 퍼부으면서 8부능선까지 기어올라 사격을 연신하며 돌격을 감행, 목표를 점령하였다.

14일 01:00부터 다시 계속된 적의 과상 역습에 병력손실과 수류탄이 바닥나자, 대대장은 고지를 고수하려고 결심하였지만 분루를 삼키고 고지에서 물러났으며, 일출 무렵 지원된 사단수색중대와 더불어 역습을 실시하여 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이날밤 포격에 이은 적의 공격에 고지는 다시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와 같이 M1고지의 피탈과 탈환이 반복되고 있던 차 14일부터는 적이 938고지와 1090고지로도 공격을 가해 옴으로써 전투가 사단 전정면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였다. 사단장(宋錫夏 준장)은 예비 제60연대 제3대대를 제61연대에 배속하고 사단수색중대를 제62연대로 배속전환 조치하는 등 전방연대의 전력강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제61연대는 지금까지 M1고지를 공격한 제1대대를 제2대대, 제3대대로 교대해가며 쟁탈전을 되풀이하였다.

제62연대도 14일 밤부터 포격과 더불어 적이 양측방 1090고지(북)와 938고지를 공격해 옴으로써 격전을 치르게 되었다. 적은 1090고지 탈취를 기도한 듯, 이 고지(제3중대)와 이 고지 서측(제2중대)에 배치된 양개 중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이 공격에서 고지 서측 중대진지 일각이 돌파되었으나 다음날 자체 역습과 사투의 결과 진지를 회복하였다. 이날(15일) 저녁에는 제3중대가 지원된 예비(1개 소대)와 함께 적의 공격에 맞서 육박전과 진내전을 벌이고 진내사격까지 실시하였지만 결국 1090고지(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이어 대대는 제1중대와 전방진지를 교대한 제2중대로써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함은 물론 1090고지를 점령한 적이 그 서측의 제1중대 진지로까지 돌파구의 확장을 기도하자 이를 저지하기는 하였으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갔다.

결국 16일에는 제1중대 진지도 피탈되었다. 이날 오후부터 야간에 걸쳐 제3중대가 1090고지를 역습하여 4시간의 혈투 끝에 일시 고지를 회복하였으나 적의 양측방 파상공격에 다시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15일 피탈되었던 938고지는 이날 회복하였다.

이처럼 이미 적이 제5사단의 949·973·883고지를 점령하고 1090고지-1220고지 방향에 압력을 가중하자 미 제10군단장은 군단 예비로 편입된 제7사단(제8연대)으로 하여금 제62연대 좌전방 938고지 지역을 인수시켜 새로이 돌출된 이곳의 방어력 강화조치를 취하였다.

제62연대는 제8연대에 진지를 인계한 제3대대를 1090고지(북) 남쪽에서 방어중인 제1대대와 교대시킨 다음 17일부터 1090고지를 회복하기 위한 작전을 폈다. 이날 조조에 제3대대는 제10·제11 양개 중대를 동서 양측방으로 기동시켜 고전 끝에 1090고지(북)를 탈환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 시체 94구를 확인하였고, 이는 참전이래 가장 큰 전과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적이 삼면으로 공격을 가해 음에 전투병력의 손실이 커져 대대는 하는 수없이 이곳에서 물러나 1090고지(남) 북쪽에서 적을 저지하였다.

제62연대 제3대대(배속:제61연대 제10중대)는 6월 18일 조조에 1090고지(북)를 탈환하기 위한 재공격을 실시하였다. 전날밤부터 쌍방간에 포격전이 계속되어 전투지역에는 많은 포탄이 낙하되고 있었다. 제3대대는 이날 오후 1차 역습에 실패한 후 제10중대를 돌격중대로 공격에 내세워 치열한 격돌 끝에 1090고지(북)를 회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송갑성(宋甲成) 상병이 지휘한 특공조가 중간목표 공격중 위협적인 적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고 그 스스로 적병 6명을 사살하여 목표탈취의 계기를 열었다. 그는 이 전공으로 일계급 특진과 함께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제62연대는 이 고지탈환 후 18~19일에 작전지역을 제7사단(제5연대)에 인계하고 방산리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6월 19일부터 제7사단

은 938고지-1090고지(북)에서 제20사단(제61연대)은 M1고지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계속하였다. 제20사단은 지금까지 10일간의 M1고지 전투에서 제61연대가 3개 대대를 교대로 투입하여 뺏고 빼앗기는 전투를 반복하는 동안 전력이 약화되자 21~22일 사이에 제60연대와 임무교대를 실시하였다. 교대간이나 교대후에도 M1고지의 쟁탈전은 같은 양상으로 반복되었다.

제61연대는 22일 방어지역을 인계할 때까지 16회를 빼앗기고 빼앗는 격전과 혈전을 반복하였다. 제20사단은 제60연대가 쟁탈전을 되풀이하다가 책임지역을 7월 4일 미 제45사단에 인계하고 해안분지 전선으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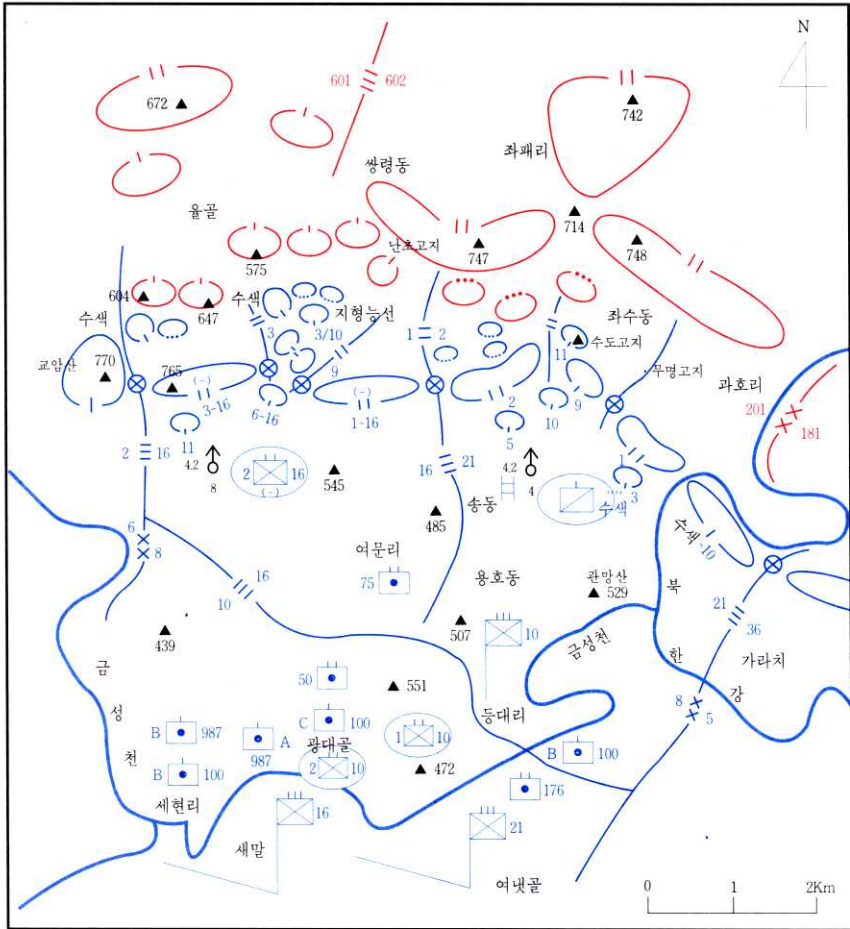
이와 같이 중공군 6월 공세에서 적은 금성 돌출부 우견부인 제5사단을 집중공격하면서 그 일부부대가 1090고지-백석산 방향으로 공격하였으나 제20사단 및 제7사단의 저항에 M1고지를 점령하였을 뿐 전혀 전선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 지역 전투 중에서도 가장 격전이 되풀이된 곳은 전술적으로 큰 의미부여가 어려운 M1고지였다. 이것은 당시 이미 포로협정까지 체결된 시점이어서 휴전을 앞두고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제20사단은 신편사단임에도 적의 공세를 저지해 담당전선의 방어는 물론 금성돌출부 우견부 방어에 큰 기여를 하였다.

(5) 首都高地·指形稜線 爭奪戰

1953년 6월, 적의 공세가 금성돌출부로 지향될 무렵 국군 제8사단은 제2군단의 중앙사단으로서 금성 돌출부 중 교암산 동쪽 765고지로부터 지형능선 남쪽 690고지-수도고지 남쪽 663고지-북한강(가라치)에 이르는 금성천 북방 주저항선을 방어중이었다. 좌로는 제6사단 우로는 제5사단이 병행 방어하였다.

이때 제8사단은 제16연대가 지형능선을 포함한 좌전방에, 제21연대

수도고지·지형능선 쟁탈전



가 수도고지를 중심으로 한 우전방을 담당하였고 제10연대는 광대골 일원에서 예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대치한 적은 중공군 제67군 제201사단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로 공격을 해온 적은 제200사단과 제201사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¹³⁶⁾

제8사단 정면에서도 5월 중순부터 6월 4일까지 전초진지에 대한

적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다가 그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적은 6월 10일, 우인접 제5사단 정면을 돌파하던 날, 사단 정면에 평소보다 1,000여 발이나 많은 1,300여 발의 포격을 가하였다. 이중 800여 발이 수도고지 일원에 집중되었다. 사단장 이명재(李明載) 준장은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각 연대로 하여금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적은 6월 12일 22:00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 왔다. 이때 우인접 제5사단의 주저항선 973고지-883고지가 이미 적에게 완전히 돌파되었다. 적은 60mm로부터 120mm까지 각종 구경의 화기로서 포격을 가하며 3개 연대규모의 부대로 사단의 좌일선 좌수동의 제21연대 전초와 주저항선을 집중 공격하였다.

● 수도고지 피탈

이때 수도고지(610고지)에는 제11중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1개 소대는 주저항선의 663고지를 점령하였다. 수도고지는 그 위치나 규모로 보아서만 다만 하나의 전초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전초는 1952년 10월 적의 공세시부터 지금까지 피아의 전투의지를 시험하는 결전장이 되어 왔다. 이러한 연유로 수도고지는 결코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고지로 인식되었고 주저항선처럼 동굴진지로 구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적 주저항선 714고지와 748고지로부터 감제관측을 당해 주간에는 진지공사나 보급추진 등의 지상활동이 불가능하였다.

663고지를 담당한 제21연대 제3대대장은 전초로부터 상황보고를 통해 적의 전면공격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예비 제10중대를 곧장 663고지로 추진하였다. 적은 전초 수도고지 공격과 동시에 주저항선 진지도 공격하였다. 수도고지 정면으로 대대(-)가 공격하고 2개 대대가 663고지 좌우로 공격해 왔다. 수도고지의 제11중대장 전호철(全浩鐵) 대위는 잠시 후 “적 4개 중대 진내 돌입, 백병전 전개중, 진내 사격 바람!”이라고 상황보고를 하였는데 곧 유선이 두절되고 말았다. 이때 663고지에 도착한 제10중대장도 적이 참호선에 침투하였으며

진지가 적의 포격과 때마침 내린 줄기찬 비로 인하여 붕괴되어 지탱하기 어렵다는 상황보고를 하였다. 제3대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연대가 역습할 때까지 수도고지와 663고지를 지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날 자정을 전후하여 제3대대 우인접 제1중대 진지가 돌파되었고 좌인접 제7중대 진지에서 격전이 전개되었다. 연대는 제12포병단과 군단 포병의 TOT사격까지 요청하여 이들을 강타하였다. 이들의 공세는 한때 주춤하였으나 13일 00:50이 되었을 때 적이 663고지와 우인접 중대진지로 공격을 가하는 한편 수도고지 진내에 진입하여 유개호를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제11중대와 대대 간 모든 통신망도 두절되었다. 대대장은 수도고지 피탈보고를 하였다. 실제로 수도고지의 제11중대(-) 요원들은 진내전에서 대부분 전사하고 끝까지 저항하던 중대장과 본부요원 등 생존자들은 포로가 되었다. 전 전선에서 가장 잘 구축되었다고 평가받던 이 수도고지의 동굴진지가 3시간만에 적에게 완전히 유린된 것은 중과부적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나, 동굴진지를 이용한 전술의 미숙에 보다 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고지가 피탈된 후 곧 663고지에서도 진내전이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일부 병력은 전장 공포증에 진지를 이탈하기도 하였다. 중대장도 호에서 적의 수류탄 공격을 받아 실신하였다가 포로가 되어 끌려갈 무렵, 절벽 아래로 굴러 탈출에 성공, 생환할 수 있었다.

중공군은 공격개시 4시간만에 5개 대대를 투입하여 수도고지, 663고지와 그 좌우진지를 점령하여 제8사단 우전방에 돌파구를 형성하였다. 사단장은 즉시 사단 예비 제10연대(-1)에 663고지와 우인접 제1대대 진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제10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각기 13일 일출 후 663고지와 우인접 1중대진지를 목표로 역습을 감행하여 진지 일각을 점령하고 계속 공격을 폈다. 그러나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제1대대는 11:00경 배사면에 급편진지를 점령하였으

며, 제2대대도 16:15경 돈좌됨에 따라 결국 사단역습은 실패하였다.

● 지형능선 쟁탈

중공군은 13일 낮 수도고지지역을 탈취한 여세를 몰아 이날 저녁에는 제16연대의 지형능선을 공격하였다. 지형능선(指形稜線)은 교암산에서 동쪽으로 연결된 일련의 능선 중 2.5km 지점에서 동북쪽으로 뻗은 손가락 모양의 능선이다. 이 지형능선은 시발점인 주저항선상의 690고지, 능선 중앙의 730고지(최고봉), 끝부분에 해당하는 710고지(지형고지)의 3개 고지로 이어져 있다.

당시 제16연대는 좌일선에 제3대대, 우일선에 제1대대를 배치하고 중앙의 지형능선에는 배속된 제10연대 제3대대를 배치하였으며 예비인 제2대대(-)는 지형능선 후방에 배치하여 특히 지형능선 방어중심을 강화하였다. 제10연대 제3대대장은 690고지에 제16연대 제3중대와 제10연대 제9중대로서 돌출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최고봉에는 제11중대, 지형고지에는 제10중대 1개 소대를 배치하였으며, 지형고지에서 200m 떨어진 같은 능선상의 난초고지에는 적의 전초가 설치되어 있어 지근거리에서 상호 대치중이었다. 그리고 지형능선 좌전방 능선에는 575고지로부터의 적 공격에 대비에 사단 수색중대와 제10중대 1개 소대를 배치하여 지형능선 일대의 전초선을 강화하였다.

이 지역 전투는 이날(13일)밤 21:25 575고지에서 침투한 중공군이 사단 수색중대진지를 공격하고 15분후에는 난초고지에서 지형고지의 전초를 공격함으로써 교전이 시작되었다. 22:00경에는 1개 대대규모가 지형능선 우측방으로 진출하여 최고봉(730고지)의 제11중대 우측방을 강타하였으며 1개 중대가 주저항선에 포함된 690고지 좌우로 공격해 왔다. 이곳 전투 역시 수도고지의 재현인 듯 적의 진내 돌입, 동굴진지에서 육탄전, 진내 사격요청의 형태로 이어졌다. 교전 2시간 후인 23:00에 수색중대 전초가, 23:10에는 지형고지가, 자정을 넘긴 14일 02:00에는 최고봉 전초가 차례로 피탈되었다. 그러나 제10연대

제9중대는 690고지로 공격한 적을 격퇴하고 주저항선을 계속 유지하였다.

제16연대는 14일 03:40에 690고지를 발판으로 이 고지 바로 후사면까지 추진 배치되어 있던 제2대대의 제6중대로써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피탈된 730고지를 탈환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결국 이날밤에 연대는 지형능선을 상실하였다. 이후 중공군은 주력의 공격방향을 지형능선 우측으로 돌려 이미 형성된 수도고지 돌파구를 지형능선까지 확장하려 기도하였다. 연대는 예비 제2대대(-1)를 이곳으로 전환시켜 저지선을 형성하고 적의 돌파에 대비한 방어중심 강화조치를 취하였다.

● 신방어선(아이슬랜드선)으로 전환

14일 날이 밝자 적의 공격은 지형능선 지역으로부터 수도고지 쪽으로 전환되었다. 적은 우전방 제21연대와 역습부대인 제10연대(-)가 형성한 저지선으로 몰려들었다. 제21연대는 주간에는 이들을 무난히 저지하였으나 재앙은 야간에 발생하였다. 이날 저녁 중공군은 우측방 수색중대를 돌파하면서 혼성 각 대대 정면에 1개 대대규모의 적을 투입, 공격을 가해 왔다. 저지선이 돌파되고 저지부대들이 소부대 단위로 분산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사단의 우익을 유린한 적은 이날밤 아이슬랜드선까지 진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여 14일 밤 군단 우익전선이 붕괴되자 제2군단장은 15일 00:50에 제8사단 제21연대와 제5사단으로 하여금 현 주저항선을 포기하고 지형능선에서 북한강 남안 462고지를 잇는 새 주저항선(아이슬랜드선)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동시에 군단장은 군단예비로 배속받은 제3사단을 제5사단 좌측에 투입, 제8사단의 우전방 연대지역을 인수하고 아이슬랜드선을 점령하여 전방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이날 국군 제3사단의 제2군단 배속을 계기로 군은 국군 제2

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책임지역을 조정하여 제2군단의 방어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 제10군의 책임지역을 북한강 동안까지 확장함과 동시에 국군 제5사단을 미 제10군단으로 배속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제3사단은 국군 제5사단이 방어하던 북한강 서안 주저항선을 인수하였으며, 제5사단은 북한강 동안의 제36연대가 방어하던 지역만을 방어하면서 재편성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은 6월 16일부로 국군 제1군단에서 제11사단을 뽑아 제2군단 예비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이날(15일)부터 제5사단의 우익에는 미 제10군단 예비로 있던 국군 제7사단이 전방으로 투입되어 제20사단 좌전방 제62연대의 주저항선인 938고지-1220고지를 인수하였다. 이는 제20사단 정면에 대한 적의 공격이 활발한데다 제8사단과 제3사단 그리고 제5사단이 신방어선(아이슬랜드선)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곳이 돌출되어 대단히 취약하였기 때문에 이곳의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로써 적 6월 공세의 주력이 지향되고 있는 북한강과 금성천 합류지점 부근, 즉 금성돌출부 우건부지역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이 무렵(6월 15~16일) 제8사단 정면에 대한 적의 공격은 점차 소강 국면으로 변하였다. 신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아군이 끊임없는 지상포격과 항공폭격을 가함에 따라 적의 공격기세도 한풀 꺾였으며 6월 18일부터는 전선이 안정을 되찾았다. 결과적으로 9일간에 걸친 적의 6월 공세에서 국군 제2군단은 북한강 동안의 949-973-883고지군과 서안의 수도고지 지역을 빼앗겨 13km 정면에서 4km를 후퇴하였다. 이들 고지는 1951년 추계공세에서 격전 끝에 탈취한 것이었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때에 이르러 상실하고 말았다. 이 전투간 국군은 7,300여 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적 손실도 확인사살 6,064명, 포로 26명, 추정사살 7,200명, 총 13,000여 명에 달하였다.

4. 中共軍 最後攻勢 3段階：7月攻勢

(1) 敵軍의 攻擊計劃과 我軍의 配置

중공군의 6월 공세는 금성돌출부 우견부의 금성천-북한강선(아이슬랜드선)에 설치한 새로운 방어선에서 저지되었지만 선우고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7월 초까지도 전투가 계속되었다. 중공의 『항미원조전사』에 의하면 적은 6월 23일까지 6월 공세를 종결짓고 24일부터 7월 공세(7·13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중공이 이승만 대통령의 ‘6·18반공포로석방’에 의해 ‘6월군사작전’의 결과가 무색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선전효과가 퇴색됨에 따라 한국정부에 휴전협정을 준수하도록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한편, 휴전을 앞두고 전장과 탁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기도에서 이미 6월 19일에 한국군 부대에 대해 새로운 공세를 펴야 한다는 모택동의 지령을 하달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지령을 접한 팽덕회는 다음날 휴전협정 조인을 지연시키고 한국군 부대를 공격하겠다는 건의를 승인받아 ‘하계 제3차 공격작전’을 7월 10일경에 실시하기로 하고 이른바 ‘7월 공세’를 준비하였다.¹³⁷⁾

그들은 이번 공세에서 금성돌출부에 배치된 국군 4개 사단(수도사단·제6·제8·제3사단)을 섬멸하기로 목표를 결정하였다. 그 이유로 ① 전선이 돌출되어 있어 공격에 유리하고, ② 1차전(전초전)과 2차전(6월 공세)을 통해 이 지역에 익숙해 있으며, ③ 국군 방어선의 특징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열거하였다. 그러나 이곳에 집중적인 공격을 계속 가하는 결정적 이유는 방어선의 개선과 더불어 화천을 점령하여 수력발전소를 되찾으려는 전략적 기도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팽덕회는 최후공세 지침하달과 더불어 주공부대인 제20병단(제54·

제60·제67·제68군)에 제21군의 배속을 비롯해 전차·포병·공병 등 여러 병종의 부대를 지원하여 전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제20병단은 금성 정면에 82mm 박격포 이상의 지상포 1,100문(km당 44.4문)과 전차 20대를 보유하게 되어 병력은 3:1, 화력도 1.7:1로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¹³⁸⁾

제20병단장은 7월 6일까지 전역계획을 연구 발전시켜 7월 10일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계획은 5개군으로서 3개 작전집단(西·中·東작전집단)을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3개 방향에서 금성돌출부의 국군 부대를 포위 섬멸한다는 것이다.

제1단계로 금성 서남쪽 이실동-북정령-배선골과 금성천 이북의 적을 공격 섬멸하며 전선을 직선으로 만든 다음 그후 상황을 보아 제2단계로 삼천봉-적근산-장고봉-흑운토령 및 백암산으로 공격해 나가며 작전이 성공한 이후에는 적 반격을 격퇴할 준비를 하되 이 기간중에 다시 대량의 적군을 섬멸한다.

서집단(제68군(-제202사단)+제54군 제130사단)은 금성돌출부 좌견부 외야동-회고개에서 1단계로 이실동-북정령-월봉산-개야리 이북의 적을 공격하며 그후 2단계로 중집단과 협조하여 배선골 서쪽과 서북의 적을 공격한다.

중집단(제67군+제54군 제135사단+제68군 제202사단 1개 연대)은 관대리(官垔里)-교암산간에서 공격하여 동산리, 상산리까지 진출, 지대내의 적을 섬멸하며 제2단계로 동·서 집단과 협조하여 배선골 서쪽 및 서북의 적을 공격한다.

동집단(제60군+제21군(-1)+제33사단+제68군 제605연대)은 제60군이 송실리-용호동에서 공격, 신속히 광대골, 세현리 방향으로 공격을 확대하여 금성천 교량과 나무를 점령하고 금성-화천 간 도로를 장악하여 적의 반격과 증원을 차단한다. 제2단계로 서·중집단과 협조하여 배선골의 적을 공격 섬멸한다. 제21군은 제60군의 북

한강 동쪽 방어임무를 인수하여 방어에 주력하다 적을 적극적으로 견제한다.¹³⁹⁾

이 계획을 요약하면 동서 양집단이 건부에서 돌파공격을 한 다음 중앙집단과 협조하여 돌출부 중앙의 아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중공군사령관은 주공 제20병단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좌인접 제9병단 제24군으로 하여금 양지-행정간에서 수도사단 좌익 제26연대를 공격하여 섬멸하고 상구정과 하구정 간의 도로를 통제하여 김화 방향으로부터 아군증원을 저지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공격개시 시간은 7월 13일 저녁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군은 ‘7·13공세’에 제20병단 예하 5개군 15개 사단 중 13개 사단을 투입하고 나머지 2개 사단을 예비로 확보하였으며 조공으로 1개군(제24군)을 별도로 운용하였다. 그밖에도 이때 철원-김화의 중부전선에는 제9병단(제16군, 제24군)이, 서부전선에서는 제19병단(제46군, 제1군)이, 문둥리 동쪽 동부전선에는 인민군 2개 군단(제3, 제7군단)이 합세함으로써 이 공세는 1951년 춘계공세에 비견되는 대규모 공세였다.¹⁴⁰⁾

한편 유엔군측에서는 공산군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통해 적의 공세가 임박했음은 물론 주공이 화천저수지로 지향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기상불순으로 관측의 제한과 중공군의 철저한 기도비닉에 의해 공격부대의 규모와 보급품의 집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군사령관은 각 군단장에게 적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태세를 강화하도록 경고하는 한편, 중공군의 6월 공세로 붕괴된 국군 제2군단 우익 방어선의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부대 재배치를 단행하였다.

군은 그 동안 부대정비를 완료한 제5사단을 6월 26일부로 국군 제2군단으로 복귀시키는 한편, 미 제10군단장은 문둥리를 방어하고 있는 미 제45사단에 제7사단 우익연대의 방어지역을 인수시켜 국군 제2군단과 인접한 제7사단의 방어정면을 좁혀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그

리고 미 제10군단은 미 제9군단으로부터 미 제5연대 전투단을 배속 받아 예비로 확보하였다. 특히 휴전이 임박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 군은 일본에서 정비중인 미 제24사단을 7월 3~12일에 한국으로 이동시켜 후방지역 방어와 포로경비에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2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접경지역인 금성돌출부 우견부지역이 특히 강화되었으며 금성돌출부에는 미 제9군단 예하의 국군 제9사단 일부 및 수도사단과 국군 제2군단의 제6·제8·제3·제5사단, 그리고 미 제10군단 예하 국군 제7사단 등 모두 국군 7개 사단이 배치되었으며, 제11사단은 군 예비로서 화천 북쪽에 집결하여 전방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2) 助攻과 陽攻

공산군은 금성돌출부에 대한 공격에 앞서 6월 24일부터 이 지역에 대한 탐색공격과 다른 지역에서 조공 및 양공을 실시하였다. 중공군은 6월 24~25일에 돌출부 좌단 제9사단의 김화 서북 북진능선과 저격능선에 대한 재공격에 이어 다음날에는 우단 제3사단의 용호동 529고지(관망산)를 공격함으로써 제2군단을 다시 긴장시켰다.

이때 군단도 '6·25'를 전후해 적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경계 및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북진능선에서는 제9사단 제28연대의 강력한 저항으로 주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중공군 제24군 제70사단은 7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시체를 거두고 후퇴하였다. 저격능선에서는 제9사단 제29연대가 1개 소대 전초(X고지)를 상실하였으나 또 다른 전초(A고지)에서는 240여 명의 손실을 무릅쓰고 방어함으로써 적의 전의를 꺾으며 저격능선을 방어하였다.

관망산에서도 역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관망산은 금성천과 북한강 분기점 북쪽에 돌출한 고지로서 아군으로서는 금성돌출부의 우견부 방어에 긴요한 곳이나 적으로서는 금성선 도하에 전진기지

가 될 수 있는 요지요부였다. 당시 이곳을 방어중인 제3사단의 좌일선 제23연대 제2대대는 6월 25일 야간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력한 포격에 뒤이어 중공군 제68군 제604연대¹⁴¹⁾의 공격을 받았다. 대대는 최후 저지사격까지 요청하며 이를 격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였으나 인해전술에 밀려 다음날(6월 26일) 새벽 고지를 피탈당하였다. 이후 제3사단은 군단명령에 따라 북한강 남안 전선을 제5사단에 인계한 후 사단예비 제22연대와 제23연대를 교대로 투입하여 7월 3일까지 일곱 차례나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끝내 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중공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고지에서 물러서지 않으려 하였다. 이 조그만 고지에서 제3사단은 1,776명의 손실을 입었고 반면 중공군은 2,962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6월 26일 중공군 제60군 제189사단은 1개 연대로 북한강 동안 제5사단 제36연대진지를, 다른 1개 연대로 그 우인점 미 제10군단 예하 제7사단 제8연대의 938고지를 공격하였다. 중공군은 야포와 박격포의 지원사격하에 이들 진지에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하여 압력을 가중하였다. 결국 제36연대는 다시 1.3km 물러나 다음 능선에서 적을 저지하였고 제7사단은 938고지를 상실하였다.

938고지는 지난 6월 공세 때인 6월 16일부터 제7사단이 제20사단으로부터 인수한 이래 확보해 왔으며 이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1220고지로 이르는 발판으로서 사단 좌일선인 제8연대의 방어중심이었다(우일선 제5연대의 방어중심은 1220고지였다). 제8연대 제2대대(鮮于容 소령)는 6월 26일 21:45부터 집중포화에 이어 공격해 온 적에게 탄막사격을 가하고 백병전을 벌이었다. 유선통신의 두절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대장은 전방중대병력이 대대지휘소 쪽으로 몰려오자 “철수하지 말라, 현 전선을 고수하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대대는 이 무렵 선우 소령이 대대지휘소로 들이닥친 적과 교전중 수류탄에 맞아 전사하고 계속되는 파상공격을 막지 못하여 이날 자정경 938고지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제8연대는 6월 27일 세 차례나 자체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사단장(金容培 소장)은 이 무렵 군단예비로부터 복귀한 제3연대로서 역습을 실시하였지만 역시 실패하자 그 다음에는 제8연대와 임무교대를 시켜가며 번갈아 역습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한때 938고지를 탈환하였지만 그후 또다시 적의 집중적인 포격과 파상공격에 이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자 인명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군단장(Issac D. White 중장)의 지시로 7월 1일부로 탈환작전을 중지하였다. 이 고지 전투에서 제7사단의 손실(사상자+실종)은 1,347명이었으며, 적의 손실은 1,323명으로 추산되었다. 후일 이 고지는 전사한 대대장의 감투정신을 기려 ‘선우고지’라 칭하였다.

당시 연대장이었던 이병형 대령(중장 예편)은 이 고지 피탈의 결정적 원인은 대대장이 통신의 두절로 중대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공교롭게도 그때 연대장이 전쟁피로로 불면증에 시달려 감시 부대지휘를 부사단장에 위임하고 연대 후방지휘소에 있음으로 인한 지휘의 공백에 있었다고 회고하면서,¹⁴²⁾ 전장에서 지휘와 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산군은 이처럼 금성돌출부 양건부에 대한 공격 외에도 이 무렵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지역 역곡천 일원의 전초진지에 대해 공격을 하였다. 이들 진지 역시 1951년 10월 코맨도작전(Operation Commando)과 1952년 6월 카운터작전(Operation Counter)시 격전 끝에 확보한 이래 여러 차례 쟁탈전이 전개되었던 고지군들이었다. 즉 중공군은 6월 25~6월 29일에 국군 제1사단 전초 250고지(퀸고지; Queen고지)-199고지(박고지)를 공격하였으며, 7월 6일에는 미 제7사단의 ‘포크참고지’(234고지)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국군 제2사단의 ‘화살머리고지’(281고지)를 공격하였다.

이중에서 퀸고지(250고지)-박고지(199고지)는 임진강과 역곡천의 분기점 바로 남쪽 계호동-정동에 위치한 고지들이었다. 이 전투가

전개될 때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을 중앙에 두고 그 좌에 제11연대(고왕산 서측-노리고지), 우에 제15연대(중사리-어적산리)로서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제12연대를 예비로 보유하였다. 대치중인 중공군 제19병단 이하 제1군(군단) 제1사단은¹⁴³⁾ 6월 25일 22:00 주로 사단의 우전방 연대의 전초고지인 퀴고지, 박고지를 비롯해 ‘1고지’, ‘3고지’, ‘마이크고지’ 등 5개 전초와 좌전방 연대의 ‘노리고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한 후 공격을 가하였다. 이들은 임진강에 가까운 1·박·3고지에 1개 연대를, 퀴·마이크고지로 1개 대대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노리고지 쪽으로는 1개 중대로 공격을 가하였다. 따라서 적은 주공을 박고지 방향으로, 조공을 퀴고지 방향으로 지향하였으며, 노리고지로는 양공을 하였다.

사단은 이날 멸공통일의 결의를 다지고 사격대회를 가져 투혼을 가다듬으며 경계태세를 강화하던 중 이러한 적의 공격에 직면하였다. 이 전투에서 사단은 국군 해병 제1연대(-1)까지 배속을 받아 사단 좌전방에 투입하고 2개 연대의 예비를 확보하여 중공군과 전초고지 쟁탈전을 벌이었다. 연대 및 사단역습이 반복되었으며, 그 결과 6월 29일 상황으로 박고지는 아군의 수중에 들어왔으나 퀴고지에서는 고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때 군단장(Bruce C. Clarke 소장)의 지시로 사단은 이들 고지에서 물러나 주저항선에서 적을 방어하였다. 군단장은 휴전이 임박한 시점에서 비무장지대가 될 이들 전초를 놓고 더이상 피를 흘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퀴·박고지 전투가 소강상태로 들어간지 일주 후 중공군이 7월 6일 밤에 공격한 포크찹(Pork Chop) 234고지는 미 제1군단의 우익사단인 미 제7사단이 방어중이었다. 이 고지는 역곡천 지류의 바로 북쪽 하사골에 위치한 독립고지로서 지난 3월 적에게 피탈당한 불모고지(275고지)와 더불어 서부전선의 격전지로 이미 널리 알려진 전초였다. 중공군 제23군 제67사단은 이날밤 우군 전선에서 외파로 떨어져 있는

234고지로 기어올라 고지 우단 무주(無主)지역 일각을 점령하였다. 이를 방어하고 있던 제17연대는 즉각 2개 중대를 증원하여 전초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이로부터 피아는 이 고지를 뺏고 또 빼앗으려고 4일간이나 역습을 반복하며 쟁탈전을 벌였다. 중공군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려는 듯 이곳에 3개 연대를 교대로 투입하였다.

군사령관 테일러(Taylor) 대장은 7월 10일 미 제7사단 전방지휘소에서 군단장 클라크(Clarke) 중장, 사단장 트루두(Trudeau) 소장과 더불어 작전을 분석한 결과 중공군은 인명의 손실을 무시하고 이 고지를 점령하려 하는바, 아군으로서는 이 고지가 전술적으로 더이상의 인명피해를 강요당하며 싸울 가치가 없다고 결론짓고, 마치 지난 3월 불모고지에서와 같이, 이 고지에서 철수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카운터작전 이래 많은 피의 대가로 지켜온 포크참고지가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포크참고지에서 전투가 시작된 7월 6일 역곡천 북방의 화살머리고지(Arrow-head, 281고지)에서도 중공 제23군 제73사단의 공격으로 국군 제2사단과 격전이 벌어졌다. 이 고지는 코멘도작전시 탈취한 고지로서 백마고지(395고지)와 함께 역곡천 북안에 위치한 요충이었다. 제2사단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철원지역(281고지-중강리)에 투입되어 6개월째 이곳을 방어중이었으며 지난 6월 29~30일에 중공군 제73사단이 화살머리고지의 2개 전초진지를 공격해옴으로써 방어전을 벌여 이들을 격퇴한 바 있었다.

이 전투에서 401명의 손실을 입고 물러간 중공군 제73사단은 7월 6일에 1개 대대병력으로 전방의 제69사단을 초월하여 재차 281고지를 공격하였다. 이곳을 방어중인 제32연대 제2대대가 설치한 2개의 소초가 피탈되자 연대·사단의 역습이 실시되어 30시간이 넘는 전투 끝에 이 전초를 회복하였다. 7월 8일 야간에 적은 약 6,500발의 야포 및 박격포탄을 퍼부으며 재삼 공격을 가하여 또 혈전이 계속되었다.

제2사단은 1개의 전초가 피탈되자 전사단의 가용부대로 역습부대를 교대해 가며 공격을 실시해 7월 11일 이 전초를 회복하고 화살머리고지를 끝까지 지켰다. 이 조그만 소초전투에서 아군은 500여 명의 손실을 입었고 적은 750여 명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후일, 당시 제32연대 제2대대장(安翼燮 소령)의 증언(1965. 12. 10)이나 연대작전주임(邊日賢 대위)의 증언(1967. 5. 30) 등에서 이들 고지에는 고강도의 동굴을 구축해 놓고 이른바 ‘동굴작전’을 썼는데, 이로써 ① 작전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② 보포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③ 동굴내에서 통신이 잘되지 않는가 하면 ④ 동굴 자체가 적의 진내전시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지 못한 점 등 동굴작전이 갖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적의 공격에 동굴진지가 쉽게 피탈당하였으며, 그후 이를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동굴작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굴작전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으며 이후에는 동굴을 적의 포격시 일시 대피호로 이용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공군의 주공이 금성돌출부에 대해 7월 본공세를 취할 때인 7월 13일에는 중공 제1군 제1사단이 임진강 서안 고양대 부근의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 전초인 베티(Betty)고지를 공격하였다. 베티고지는 마량산(315고지) 동측 능선상의 ‘니키’고지 하단부의 무명고지에서 앞에서 서술한 ‘박’고지로부터는 서남쪽으로 임진강 건너에 위치한 나지막한 고지(120~150m 정도의 3개 봉우리로 형성)였다.

당시 이 고지에서 전초임무를 수행하던 제1연대 제7중대 1개 소대는 적의 공격에 많은 손실을 입고 7월 15일 제6중대 제2소대(金萬述 소위)와 교대하였다. 제2소대는 이미 서봉(西峰)을 장악한 적과 교전을 하며 진지를 보수하고 경계를 강화하던 중 야간이 되자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소대는 유개호에 의지하여 진내사격을 요청해 가며 백병전 끝에 밤새 적의 파상공격을 격퇴하고 이 전초를 고수하였다.

적은 이 전투에서 764명이 살상(이중 추정살상 450명)되었으며, 김만술 소대는 경상자를 포함해 12명이 생존하였다. 이 전공으로 소대장이 태극무공훈장과 미국 십자무공훈장을 받는 등 여러 명이 무공훈장을 수상하였다.

(3) 金城突出部 戰鬪(‘7·13戰鬪’)

중공군 최후공세의 본공격은 금성돌출부 양익과 임진강 및 역곡천변의 전초진지에 대한 조공과 양공에 이어 7월 13일 야간에 금성돌출부로 지향되었다. 중공군은 동서 양작전 집단이 수도사단과 제3사단(제5사단 좌익 포함)을 돌파함과 거의 동시에 중집단이 제6사단과 제8사단 전면에 대해 압력을 가하면서 이들 부대의 퇴로차단을 통한 대포위 섬멸을 기도하였다. 이에 따라 금성돌출부에 배치된 미 제9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국군 제2군단은 중공군과 대결전을 벌이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를 돌출부 좌견부, 우견부, 그리고 선단지역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1) 金城突出部 좌견부 崩壞

금성돌출부의 좌견부는 수도사단에 의해 방어되고 있었다. 사단은 하소리에서 회고개까지 주저항선에 제26연대와 제1연대(배속: 제1기갑연대 제3대대)를 배치하고 제1기갑연대(-1)를 예비로 확보하였다. 수도사단 방어편성의 특징은 제26연대는 좌인접 부대의 저격능선 방어진지와 연계를 위해 남대천 북안에 진지를 편성하고 제1연대는 남안에 편성하였으며 광정면이어서 중대단위로 동굴형의 거점을 편성하고 그 공간에는 지뢰, 철조망 등 장애물로서 보강하였다.

중공군 서작전 집단의 제68군 제204사단, 제203사단과 제54군 제130사단은 7월 13일 21:00에 사단전역 특히 제26연대에 중점을 두고

포병사격을 맹렬하게 가하면서 사단의 서, 중앙 그리고 동측방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¹⁴⁴⁾ 사단은 이에 앞서 11일에 생포한 포로의 진술을 통해 적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다. 특히 이 포로는 아군 주저항선 가까이에 접근해 자신들의 공격준비사격을 대파했다가 연신과 더불어 즉각 돌격을 감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둔병동(屯兵洞)’을 구축하다가 포로가 되었다. 그는 이러한 둔병동은 그들이 선정한 목표부근 여러 곳에 은밀히 준비되고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번 작전에서도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주진지에 대한 적의 돌격이 즉시 감행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주저항선 붕괴

중공군은 공격준비사격에 뒤이어 제26연대 지역을 공격하였고 연대가 “적이 새까맣게 밀려온다”고 보고를 함에 따라 사단은 적의 주공방향을 좌전방으로 판단하고 화력의 우선권을 제26연대에 부여하였다. 그러나 적은 30분 후 사격방향을 전환하여 우익 제1연대를 강타하면서 주공을 중치령과 회고개 방향으로 투입하였다. 적은 중대—대대규모의 부대로 진지를 공격하면서 주력은 거점과 거점 간의 공간장애물지대로 지향하였다. 그들은 국군의 동굴전술—적이 공격하면 동굴 속에 엄폐한 다음 진내 사격으로 대응하는 전술—을 역으로 이용하여 소규모 부대로 아군을 동굴 속으로 몰아넣으며 주력으로서 부대공간지역을 공격한 것이다. 중공군의 공격에 동굴 안으로 들어가 진내 사격을 요청하고 있는 동안 제1연대의 중앙과 좌익 일선진지는 23:00경 중공군에게 점령되었고 주력은 대대 간격을 따라 제2선의 전방대대 OP와 예비대대 지역까지 돌파해 들어갔다. 대대장은 대대 예비로 전방중대를 지원하였지만 소규모인데다 도중에 이미 침투한 중공군과 조우하여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도리어 밀리고 말았다.

제1연대장은 연대예비 기갑연대 제3대대(-1)를 중치령 접근로의 적 돌파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방대대의 전투가 진행될 무렵(21:50)

제1대대 후방 저지진지(522고지-512고지)로 추진하였으나 도중에 이미 전방대대를 돌파한 적과 조우하여 대대장(李俊和 소령)이 전사하고 512고지로 향한 제9중대가 완전히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회고개 제2대대장은 23:30경 좌인접 제1대대와의 공간지역 도로로 적이 6열중대로 밀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연대장에게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연대예비가 투입된 뒤여서 추가지원을 얻을 수 없었다. 자정을 넘기면서 각각 1개 연대로 증강된 적이 좌우측방으로부터 대대진지를 유린하였으며 14일 03:00에는 대대 OP가 공격을 받았다. 같은 시각에 증치령 정면의 제1대대 OP도 적의 파괴통 공격을 받아 대대장 이하 OP요원이 혼비백산된 채 연대지휘소 쪽으로 내려오에 따라 제1대대도 와해되어 버렸다. 그러나 제1연대의 좌익대대인 제3대대는 남대천 남안에 형성된 절벽으로 인하여 적의 접근이 어려워서인지 포격만 심하였을 뿐 보병의 공격은 소규모이어서 다 격퇴하였다.

한편 사단 좌전방 제26연대는 우익의 제1대대가 적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21:00경 포격에 이어 한시간 후에는 적 1개 연대가 제1대대 정면으로 공격하여 23:00경 주저항선으로 침투하였다. 이때 아군의 방어사격이 진내 사격으로 바뀌었다. 연대장은 이 무렵 군단의 전투지경선 조정조치에 의거 제26연대 좌익 진지를 좌인접의 제9사단에 인계하고 제1대대 좌반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동중에 있는 제3대대로 하여금 진지 인수 대신 제1대대를 증원하고, 예비인 제2대대도 역시 제1대대를 증원하도록 지시하였다.¹⁴⁵⁾ 그러나 이들 대대는 제1대대 지역으로 이동중에 이미 제1대대를 돌파하고 진출한 중공군과 격돌하여 분산되어 남대천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제1대대의 좌단 제1중대의 전초 제2소대(黃信周 소위)는 적에게 완전히 포위된 채 적과 싸우다가 소대장 이하 전원이 전사하였다. 04:00경에는 대대 OP가 적의 수류탄 투척공격을 받아 화기중대장이 전사하고 지원된 미군 포병관측반이 전원 부상하는 등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26연대는 이날밤 3개 대대가 중공군의 포위망을 탈출, 남대천

남쪽으로 철수를 재촉하였다.

이와 같이 수도사단은 13일 자정경까지 전방대대 진지가 유린되고 14일 03:00~04:00경에는 전방대대의 OP가 적에게 공격을 받음으로써 주저항선이 붕괴되고 있었다.

● 제1연대지휘소의 피습

사단장(崔昌彦 준장)은 제1연대 진지가 돌파될 무렵인 13일 23:30 제1연대장(崔世寅 대령)으로부터 상황보고와 지원요청을 받고 적의 주공이 직목동-이천동-간진현 방향으로 지향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사단역습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사단예비 제1기갑연대장(陸根洙 대령)에게 “1개 대대를 이천동 부근으로 출동시켜 제1연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1개 대대는 제26연대를 지원할 준비를 하라”¹⁴⁶⁾고 명령하고 부사단장 임익순(林益淳) 대령을 제1연대지휘소로 보내어 역습방안을 조정하도록 조치하였다.

기갑연대장은 제2대대를 제궁동-방동-북정령을 경유 이천동으로 오도록 명령하고 자신은 먼저 이천동 제1연대지휘소에 도착하여 최세인 연대장과 역습부대 투입에 대해 협의하였다. 제1연대장은 정면 역습을, 기갑연대장은 우측방에서 역습을 주장하여 의견이 엇갈리었다. 결국 기갑연대장은 차량에 탑승한 제2대대가 도착하자 우측방에서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천동에서 대대를 인접 제6사단지역의 월봉리 쪽으로 진출시켰다. 이때 연대지휘소에 도착한 부사단장의 조정으로 제1연대장 안이 채택되자 월봉리로 가던 역습부대가 다시 이천동으로 방향을 돌리었다. 기갑연대장은 이미 역습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제1연대본부 및 근무중대가 배치된 1km 북쪽 도로상의 교량 좌우에 배치하기로 하고 이곳에서 대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중공군이 6열중대로 남진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로 그 도로이므로 중공군 대부대가 북에서 내려오고 반대편에서는 기

갑연대 제2대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무렵의 04:00경 기갑연대 제8중대가 도착하여 기갑연대장의 직접 지휘하에 점령할 진 지정찰에 나서고 그 다음 제7중대가 막 도착하여 병력이 하차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한발 먼저 도착하여 이천동 연대본부 주변을 포위하고 있던 중공군이 연대본부 및 근무중대의 배치선을 돌파하고 연대본부와 기갑연대를 일제히 기습하였다. 연대본부와 같이 있던 제10포병대대 지휘소도 함께 당하였다. 연대지휘소 요원들은 포위망 탈출을 감행하였다. 연대장, 부연대장, 작전주임 등은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부사단장이 포로로 되었고, 포병대대 대대장과 부대대장 겸 작전장교도 전사하는 등 연대지휘부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순간 기갑연대장은 먼저 도착한 중대의 대오를 수습하는 한편 늦게 도착한 제2대대장으로 하여금 제5·제6중대를 지휘하게 하여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려던 중 전사하였다. 제2대대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채 포위망을 벗어나 08:00경 119번 도로 우측 462고지(제6사단지역)에서 겨우 부대를 수습하였다.

사단장은 제1연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14일 02:00 잔여예비 기갑연대 제1대대에 배속받은 제59전차중대를 배속시켜 제26연대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는 이때까지도 제26연대가 더 위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이 연대가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상황을 가장보고한데 기인하였다. 사단장은 04:00경 통신이 두절된 제1연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제26연대로 진출한 예비에 제1연대를 지원하라고 임무를 변경하였다. 제1대대는 117A 도로를 타고 06:00가 지나 간진현에 도착하였다. 대대장은 이곳에서 제1연대의 피습상황을 파악하고 북정령 북쪽에 부대를 배치하여 철수부대를 엄호하였다. 이 기갑연대 제1대대의 엄호하에 제1연대와 기갑연대는 승암고개 부근으로 집결하여 재편성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많은 병력이 전방진지에서 탈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6연대는 큰 손실을 입지 않은 채 철수하여 방동 남쪽에서 재편성하였다.

● 돌파 저지

수도사단장은 기갑연대 제1대대(尹興植 중령)가 다행스럽게도 북정령에 지지선을 형성하고 철수부대를 엄호하고 있을 무렵인 14일 06:00 군단장(Reuben E. Jenkins 중장)이 사령부를 방문하자 117A 도로 남쪽, 즉 신촌-간진현 선에 제2저지선을 구축하여 적의 돌파를 저지하고 부대를 수습할 복안하에 1개 연대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군단장은 이를 약속하고 군단예비 미 제3사단장에게 제15연대(배속:그리스대대)로서 이 선에 저지선을 구축하되 12:00부로 이 선 남쪽의 수도사단의 방어임무를 인수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날 10:00경 군사령관(Maxwell D. Taylor 대장)도 수도사단지휘소를 방문하여 상황보고를 받고 군단장에게 117A번 도로의 확보를 위한 모든 지휘조치를 강구하라며 더이상 적의 돌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수도사단장은 미 제15연대가 14일 12:00~17:00에 117번 도로 남쪽 능선에 제2저지선을 형성함과 때를 같이하여 117A 도로 북쪽 능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때까지 수습된 제26연대와 제1연대(배속:기갑연대, 하사관교육대, 제59전차중대)로써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능선을 점령하여 새 주저항선을 구축하는 한편 미처 철수하지 못한 사단병력을 구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1연대는 북정령을 점령중인 기갑연대 제1대대로써 이른 아침부터 117A번 도로 북쪽 능선의 우반부를 공격하였고, 제26연대는 야간에 그 좌반부를 공격하였으나 중공군의 공격으로 모두 원위치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 공격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시켜 미 제15연대의 투입을 보장하였으며 철수부대도 일부 구출하였다.

수도사단장은 다음날 양개 연대로 협조된 공격을 실시하기로 하고 공격개시 시간을 15일 12:30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날 08:00 군단장이 미 제3사단장과 함께 사단지휘소를 방문하여 이날 12:00까지 전선을 미 제3사단에 인계하고 일동(一東) 부근에 집결하여 부대를 재편성하라고 하였다. 사단장은 미(未)철수병력을 수습하기 위해 계

획된 공격을 실시 후 인계하겠다고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12:30에 사단은 양개 연대로 한·미군의 포병·항공지원 등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으며 협조된 공격을 개시하여 15:00경 117A번 도로 북쪽 능선을 점령하였다.

이날 미 제3사단은 117A 도로 남쪽 능선에 주저항선을 편성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중공군이 야간공격을 해오자 수도사단은 점령한 능선을 포기하고 미 제3사단 후방으로 철수하여 이 작전을 끝마쳤다.

수도사단은 만 2일간(7. 13~7. 15)의 전투에서 금성돌출부 좌견부 주저항선을 돌파당하고 117A번 도로 남쪽 능선에 저지선을 형성한 미 제3사단에 방어임무를 인계한 후 군단예비로 전환하여 부대의 재편성에 들어갔다. 기간중 사단은 전방대대 OP가 적의 공격을 받는가 하면 제1연대지휘소가 피습되어 일시 지휘기능이 중단되고 예비연대장까지 전사하는 등 작전지휘 및 통신체제의 마비현상이 일어나 사단 전투지휘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사단예비를 사단장 결심하에 그리고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운용하지 못하고 투입방안을 놓고 혼선을 벌이었던 것은 되풀이해서는 안 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비의 마지막 대대가 북정령을 결정적 시기에 확보하여 수습된 병력과 더불어 적을 117A번 도로 북쪽에서 저지할 수 있었다. 이로써 사단은 미 제9군단의 우익을 방호함은 물론 국군 제2군단의 좌익을 엄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단예비가 투입되어 적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단은 중공군 4개 사단의 공격에 돌출부에서 밀려났으나 117A번 도로 북쪽 능선에서 적을 저지한 전공에 대해 군단장으로부터 찬양을 받았다.¹⁴⁷⁾

2) 金城突出部 우견부 崩壞

금성돌출부 우견부는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에 의해 방어되고 있었다. 제3사단은 지형능선 좌측으로부터 등대리까지 금성천 북쪽을

방어하였고, 제5사단은 그 우익 양지촌으로부터 남은 터-후동-748 고지까지 북한강 서안과 동안에 방어편성을 하였다. 당시 제3사단은 제22연대와 제23연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제18연대를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5사단은 북한강 서안에 제35연대, 북한강 동쪽에 제36연대를 배치하고, 제27연대를 예비로 보유하되 1개 대대는 북한강 동측에 두었다. 적의 우견부 공격은 도섭이 가능한 금성천 부근의 제3사단 지역과 제5사단의 좌익 일부지역으로 지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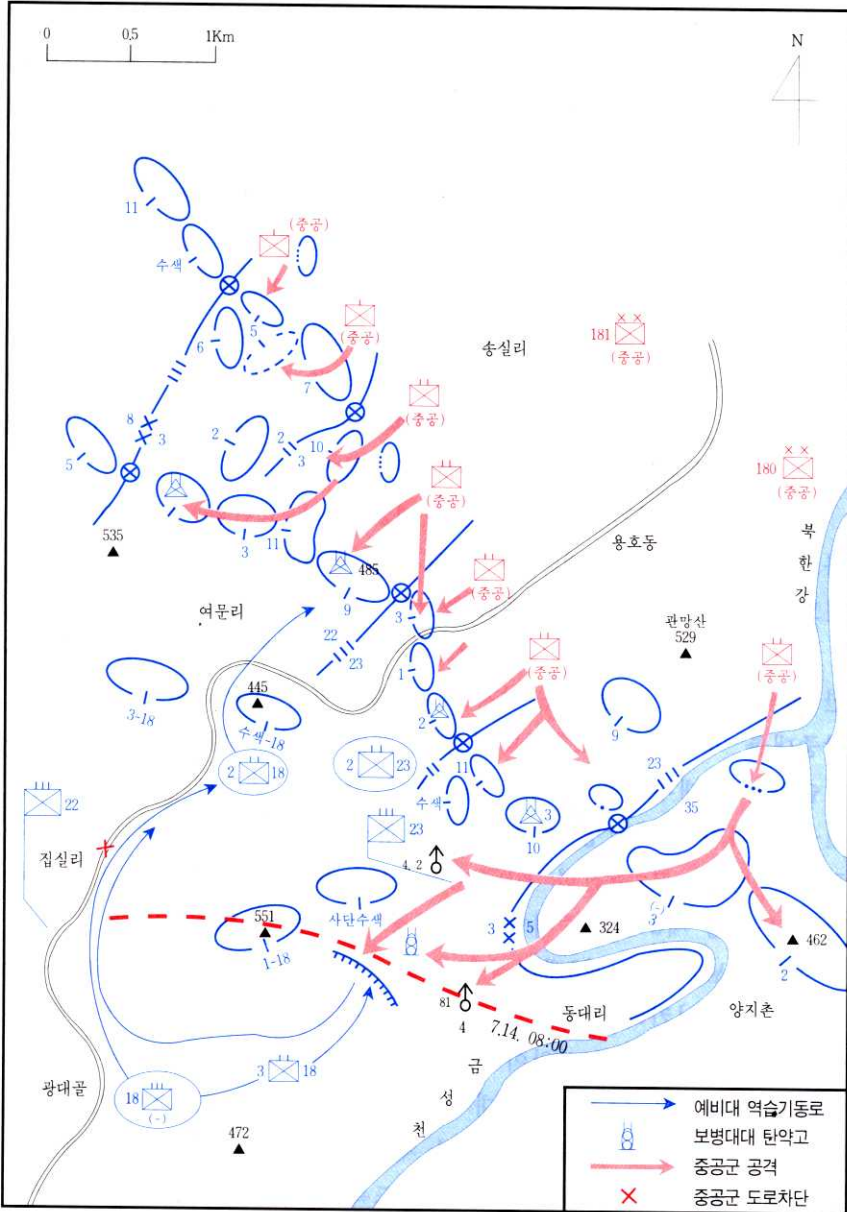
● 제3사단의 주저항선 위기

중공군 제60군은 이미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망산을 점령한 바 있으며, 그후에도 적의 정찰활동은 사단의 우전방 제23연대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우전방연대에 대한 적의 정찰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이밖에도 연대 전방지역에 2개 연대로 추산되는 부대의 남하, 보급품을 만재한 듯한 차량의 남하 등이 관측됨에 따라 대공세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제3사단의 사기는 관망산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어 저하되어 있었다.

중공군은 좌견부 공격시간과 같은 시각인 7월 13일 21:00에 제3사단지역에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였다. 곧 전방연대의 국지경계부대가 송동리-용호동 일대에서 적과 교전을 벌이고 사단의 포병지원사격도 개시되었다. 제23연대장은 적의 주공이 여호고개에서 별우지구로 이어지는 도로를 방어중인 제1대대 지역으로 지향되리라고 판단하고 연대예비 제2대대를 제1대대 후방으로 진출시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2:00경 적은 예상과는 달리 좌전방 제22연대를 2개 대대로 공격하였다. 제23연대 지역으로는 중대규모의 적이 공격하였을 뿐이었다. 이 무렵 중공군은 제23연대 지역으로 견제공격을 하면서 제22연대 우전방(제3대대)의 돌파를 시도하는 한편 일부부대를 우인접 제5사단 좌측방 금성천 돌출부로 침투시켜 제23연대의 후방을 차단

금성돌출부 우견부(제3사단) 전투



하고 이를 포위하려 기도하였다.

중공군은 22:00경 제22연대 좌전방 제2대대 지역으로는 중대규모로 공격한 반면 우전방 제3대대로 2개 대대를 투입하여 공격하였다. 아군은 원거리-근거리 방어사격, 최후 저지사격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겨를도 없이 적의 맹렬한 포격에 이어 강력한 기습공격을 받았다. 대대는 최후 저지사격에 이어 진내 사격을 실시하면서 대항하였으나 자정 전 연대규모로 증강된 적에 의해 전방 중대진지가 돌파되고 가장 중요한 485고지가 피탈되었다. 이 무렵 대대로부터 중대간의 유선선이 두절되어 상황파악이 되지 않았고 대대-연대 간의 유선도 두절되었다. 제3대대 지역으로 역습차 이동하던 제1대대도 도중에 적의 기습을 받아 분산되어 버렸고, 잠시후에는 제1대대 OP(연대 OP와 함께 위치)도 습격을 받아 교전 끝에 철수하였다.

결국 자정경 제22연대는 좌전방 제2대대가 고립된 채 진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전방 제3대대는 완전히 돌파되고 통신두절로 포병지원도 받지 못한 채 연대지휘소 쪽으로 분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23연대 지역에서는 22:15경 좌인접 제5사단 지역으로 침투한 적의 일부가 금성천을 양지촌 324고지에서 등대리로 도하하여 전방중대를 지원중인 4.2" 중박격포 진지를 유린한 다음 연대지휘소를 기습하여 연대후방을 혼란에 빠트렸다. 동시에 전방에서는 적이 전초선을 통과하여 좌전방 제1대대 주저항선을 공격하였다. 23:00경에는 관망산 방향으로 추진한 제9중대를 고립 무원의 상황으로 몰아 붙이면서 우전방 제3대대 주저항선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자정을 넘기면서 제3대대장은 81mm 박격포 지원하에 제9중대를 안전하게 철수시키려 하였으나 박격포 진지가 적에게 기습당하여 통신이 두절됨과 더불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후방지역이 혼란에 빠지자 연대장은 당초 제1대대 지역으로 적의 주공이 지향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쪽으로 진출시킨 예비 제2대대에서 1개 중대를 차출하여 침투한 적을 격멸하고 후방경계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적은 02:00경 포격에 이어 피리를 불고 평과리를 치며 공격에 기세를 올렸다. 사단이 방어중점을 둔 용호동-송실리 방향(제1대대)으로는 소규모 부대가 투입된 듯하였으며, 주로 용호동 방향에서 등대리쪽(제3대대)으로 공격해 왔다. 그러나 제3대대는 주저항선에 설치한 네이팜탄을 폭파시키고 전차소대의 지원하에 전투를 계속, 방어선을 고수하였다.

● 사단역습 실패

사단장(林善河 소장)은 13일 22:00까지 상황을 종합분석한 결과 적의 주공이 예상과는 달리 좌전방지역으로 지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역습을 할 복안하에 사단예비로 하여금 출동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14일 02:00 돌파된 좌전방 485고지를 탈취하라는 사단역습 명령을 받은 제18연대(朴敬遠 대령)는 제1대대를 551고지에 배치시켜 제2저지선을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제2대대와 제3대대를 551고지 좌우로 기동시켜 여문리 방향으로 진출시켰다. 그러나 551고지 우측으로 기동한 제3대대는 이미 그곳까지 침투한 적과 조우하여 교전을 벌이는 형국이 되어 진출이 어렵게 되자 연대장은 역습보다도 제1대대와 연계하여 적을 저지할 복안을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485고지 탈환을 명령하였다. 제3대대는 적과의 접촉을 단절하면서 우회하여 07:00경 여문리에서 제2대대와 합류하였다.

제18연대(-1)가 485고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전개할 무렵 철수하고 있는 제22연대 병력과 뒤섞였고 심한 포격을 받아 혼란이 가중되었는데, 이때 적의 주력으로 판단되는 대부대가 485고지 동측을 돌아남하하고 있음이 목격되었고 후방의 제1대대가 적의 공격을 받아 전투중에 있었다. 연대장은 역습보다도 연대가 적에게 포위 직전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사단장에게 승인을 받아 역습을 중단하고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군 3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14일 새벽 좌전방이 돌파되고, 우전방은 주저항을 지탱하고는 있으나 우후방으로 돌파 및 침투한 적에 의해 후방이 위협받고 있는데다 사단역습마저 좌절되자, 사단장은 연대의 임무교대를 통해 금성천 북안에 배수의 진을 칠 북안으로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 1) 제18연대는 좌일선 제22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단, 제22연대 제2대대 교대는 별도 지시) 509-552선을 점령 확보하라.
- 2) 제23연대는 현 전선에서 축차 철수, 제18연대와 연계하여 등대리에 이르는 우일선지역을 계속 방어하고 동시에 사단 동측방 경계에 임하라.
- 3) 제22연대는 금성천 북안(509-434-472고지)을 확보하고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라.

이 지시에 따라 각 연대는 적과의 접촉을 끊고 신방어선으로 전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곳까지 침투한 중공군의 공격에 진지구축은 불가하였으며 부대는 다시 분산을 면치 못하였다. 08:30경 좌전방 제18연대는 좌인접 제8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을 타고 남하하는 대대규모의 적을 발견하고 포병 및 항공화력을 요청하여 격퇴하였으나 얼마후 이들은 2개 대대규모로 증가되어 서측 후방으로 남진하였다. 같은 시간 우전방 제23연대는 2개 연대의 공격을 받아 부대를 수습할 겨를도 없이 병력이 금성천을 무작정 건너기 시작하였다. 즉 금성천 북안에 구축하려던 제2방어선도 붕괴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소성동 부근에서 지원하던 직접 지원 포병 대대도 09:00~11:00에 추동 부근 예비진지로 이동하였다. 이 동안 화력지원은 그만큼 약화되었다.

이 무렵 사단은 군단으로부터 “14일 14:00까지 금성천 남안 여내곡 부근에 신방어선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에 따라

제18연대는 13:20까지 신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제22·제23연대는 신진지 남쪽에서 부대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적의 포격을 받아 여의치 못하였다.

한편 좌전방에서 고립된 제22연대 제2대대(權益檢 중령)는 14일 오후까지 중공군과 전투를 벌이며 진지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실탄과 식량이 바닥나 더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자 14:45에 대대는 포위망돌파를 시작, 좌인접 제8사단 지역으로 우회하여 적진을 탈출해 우군 전선으로 복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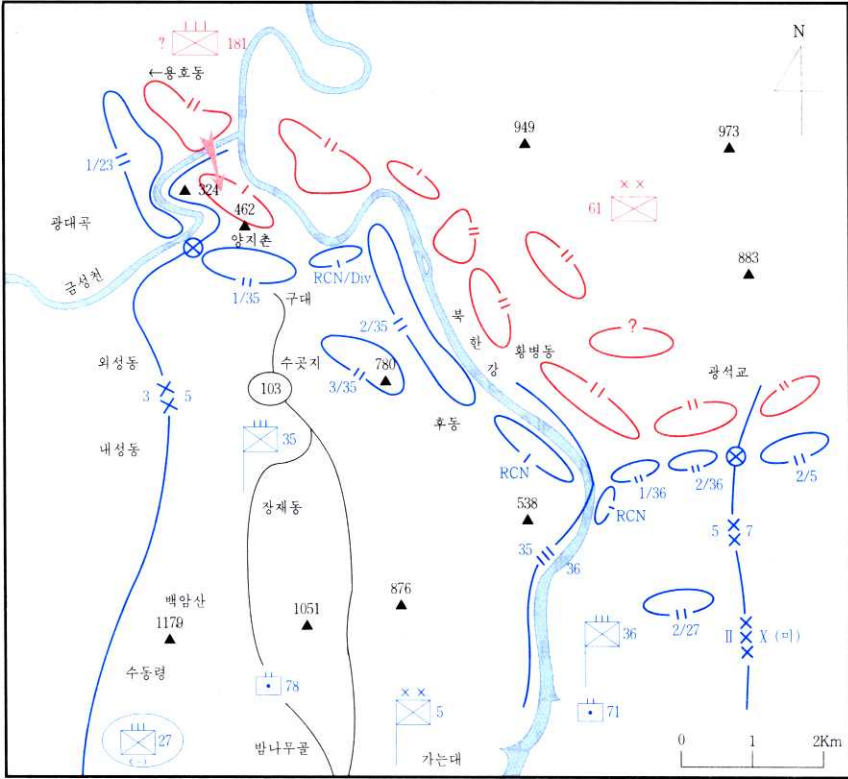
● 제5사단의 금성천·북한강 합류지역 철수

7월 13일 밤 중공군 제60군 주력이 제3사단을 공격하는 동안 일부 부대는 금성천과 북한강 합류지점으로 침투하여 제23연대 후방에 위치한 지휘소와 지원부대를 기습하며 제3사단을 포위하려 하였다. 이 포위기동의 성공으로 제3사단의 방어선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중공군은 그 여세를 몰아 7월 14일 00:45 금성천 동안 돌출지역에 배치된 제35연대 제1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1대대는 이 합류지점이며 돌출된 324고지와 462고지에 제3중대와 제2중대를 배치하고 그 동측 북한강 남안에는 배속된 제9중대를 배치하는 한편 제1중대를 예비로서 제2중대 직후방 689고지에 배치하여 이곳을 방어하였다. 적의 포탄은 사단 전지역에 걸쳐 낙하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이곳 양지촌 부근이 가장 심하였다. 제3중대 정면의 적은 곧 대대규모로 불어났으며 제2중대 전방에도 2개 중대가 공격해 왔다. 사단은 포격집중과 침투양상으로 보아 적이 도섭이 가능한 금성천과 북한강의 합류지점을 경유하여 백암산으로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단장(金鍾甲 소장)은 사단포병과 미 지원포병을 이곳으로 공격해 오는 적에게 집중하여 적의 공격을 파쇄하려 하였지만 14일 02:00경부터 2개 대대로 증가된 적이 제3·제2중대 방어진지를 공격

금성돌출부 우견부 제5사단 상황(1953. 7. 14)



하였고, 또다른 1개 대대가 도하중이었다. 연대장은 예비 제3대대(-1)를 제1대대 후방 780-남은 터로 추진하여 방어중심을 강화하는 한편 103번 도로축선으로 적의 남진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적의 인해공격에 의해 08:00경 제1대대는 방어중심인 462고지를 피탈당하여 양지촌 남쪽 능선으로 물러나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제5사단장은 제35연대 제1대대 전방진지가 피탈되자 그들의 주력이 금성천을 도하 후 부대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사단의 좌측 후방지역을 통과 백암산 방향으로 남진할 것을 우려하면서 이의 대응책 수립에 부심하였다. 그는 군단장의 승인을 얻어 주파령 남쪽 어두운 골

에 위치한 사단에비 제27연대(-1)를 14일 08:20 백암산 서측 파수골로 이동시키고 제36연대에 배속된 수색중대를 백암산 동측으로 전환시켜 적의 진출에 대비하였다.

이렇듯 금성돌출부 우단의 제3사단은 7월 13일 야간에 시작된 중공군 1개 군(3개 사단)의 공격에 주저항선이 붕괴되어 다음날 오전 금성천을 건너 그 남안에 연한 새 방어선 구축하려 기도하였다. 그러나 도하를 전후해 이미 부대가 분산된데다 계속된 적의 압력과 포격에 부대수습과 진지편성이 난관에 봉착하였다. 또한 제3사단의 우익인 제5사단의 금성천 남안 부대도 요지요부인 324-462고지를 피탈당하고 양지촌 남쪽에서 적의 백암산 및 103번 도로축선으로 돌파에 대비하고 있으나, 후방지역이 비어 있어 취약하기 이룰데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금성돌출부 우견부는 붕괴되고 있었다.

3) 金城突出部 선단지역 戰鬪

중공군은 금성돌출부 양견부를 돌파하여 선단지역 부대의 측후방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선단지역은 금성 남쪽과 교암산·지형능선·612고지를 연하는 전선으로서 이중 회고개 동측에서 금성 남쪽을 지나 교암산까지는 제6사단이 방어하였고, 그 동측으로부터 지형능선 분기점 690고지를 지나 612고지까지는 제8사단이 방어하였다. 적은 양견부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선단지역 정면에 대해 4개 사단 이상의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해 인해전술로 밀어붙였다. 선단지역의 전투는 교암산과 지형능선의 공방에서 판가름났으며 아군의 제6·제8 양개 사단은 이들 고지의 상실과 양인접 사단전선의 붕괴로 금성천 이남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제6사단의 교암산 부근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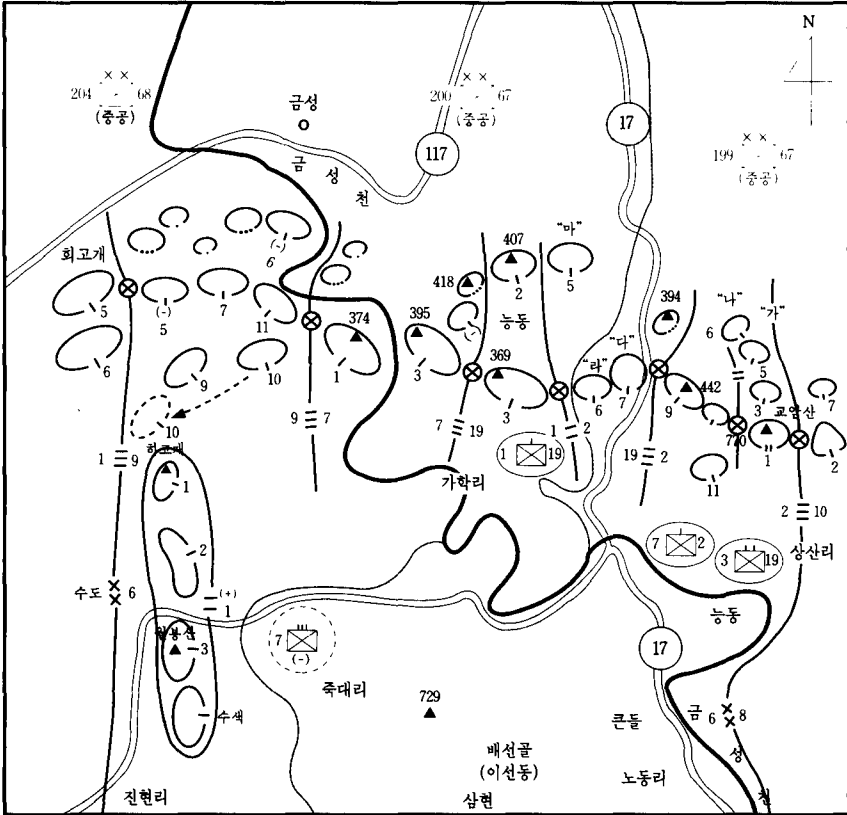
제6사단(白仁燁 소장)은 제7연대가 회고개-사천리를, 제19연대가

사천리-교암산지역을 방어하고 제2연대를 예비로 선단지역 좌반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7월에 접어들어 점차 적의 새 공격징후가 농후해지면서 교암산 전초지역에 대한 정찰활동이 빈번하자 사단은 7월 9일에 예비 1개 대대(제2연대 제3대대)를 제19연대에 배속하고 교암산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7월 12일 적의 대공세가 임박한 것이 확실해지자 사단은 예비인 제2연대 전체를 교암산지역에 투입하고 서측의 17번 도로축선은 제19연대가, 교암산은 제2연대가 분담하여 적의 주접근로를 방어하도록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정면이 넓다는 점을 고려한 군단의 조치로 13일 밤 군단예비(제11사단) 중 제9연대가 배속되자 이를 금성 남쪽 전선에 투입하였다. 이로써 제6사단은 주저항선을 4개 연대로 강화한 반면 사단예비를 갖지 못한 채 7·13공세를 맞게 되었다.

적의 공격은 7월 13일 21:00 교암산 전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교암산은 제2연대 제1대대가 방어중이었고 그 전방으로 뺀 능선에는 제2대대가 3개 중대로 전초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적은 초저녁에 최전방의 제7중대에 압력을 가한 다음 21:00경 제6중대 분초를 유린하고 1시간 후에는 2개 대대로 제6중대와 제5중대를 공격하였다. 이들의 병력은 4개 대대로 증강되었고 곧이어 제6중대에서는 진내전이 벌어졌다. 자정경에는 전초를 우회한 적이 교암산의 주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6중대는 이날밤 6차례나 진내 사격을 요청하며 적을 격퇴하였지만 이후 계속된 전투에서 중대장 김교수(金敎洙) 대위 이하 전장교 및 중대원이 모두 전사하고 다만 10명만이 14일 아침에 탈출하였다. 제5중대도 무전기(SCR-609)마저 파괴되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수류탄이 바닥나자 이날 새벽 후방으로 탈출해 나왔다. 이날 제5·제6중대가 이런 희생을 치르며 약 9시간 동안 적을 교착 견제함으로써 사단은 지원부대를 안전하게 철수시킬 수 있었다. 인접부대들도 유리하게 철수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전공

금성돌출부 선단(제6사단) 전투



으로 후일 김교수 대위에게 태극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사단 전초진지를 돌파한 적은 좌단 하고개, 중앙 능동, 그리고 우단의 교암산 방향으로 주저항선을 공격하였다. 이 중 17번 도로를 방어진 중양의 제19연대 주저항선이 먼저 돌파되었다. 적은 4개 대대로 금성 남동 3km 지역까지 추진된 제19연대의 2개 중대 전초를 일출전에 점령하고 그중 1개 대대가 금성천 지류를 따라 17번 도로에 배치된 제2대대 측후방으로 침투한 다음 전후방에서 전방대대에 협격을 가하였다. 제1·제2대대는 사주방어로 전환하며 저항하였으나 인해전

술에 밀려 08:20에는 주저항선을 포기하고 저지진지를 점령한 예비대대의 엄호하에 철수하였다. 이들은 교암산 서쪽을 잠시 방어하다가 다시 금성천을 건너 일단 노동리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

사단 좌익의 제9연대는 13일 야간에 하고개 북방 제7연대 좌전방진지를 인수받은 제2대대가 밤새 적의 과상공격을 방어하며 주저항선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수도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침투한 적이 14일 02:30부터 하고개 전방 예비진지에 배치된 제3대대로 측방공격을 하였으며 시간경과에 따라 적의 측후방 침투가 확대되었다. 연대장은 월봉리의 제1대대를 하고개-월봉산에 배치하여 서측방 방어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09:00 무렵 연대후방 월봉산에서 적이 출현하는가 하면 하고개 일원의 제3대대 지휘소와 지원시설이 기습을 받았으며, 이보다 1시간 후에는 죽대리의 연대지휘소도 적의 기습을 받았다. 연대는 11:00에 철수승인을 받아 좌인접 수도사단과 연계하여 진현리-삼현선에 저지선을 형성하였다.

한편 교암산에 주진지를 편성한 제2연대 제1대대도 연대 전초중대가 공격을 받기 시작한 후 곧 그 남쪽으로 추진 배치한 제3중대가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자정경부터 고지에 배치된 대대주력도 전투에 들어가 적의 과상공격에 고전을 겪고 있었다. 대대는 진내전을 치르며 14일 일출시까지 전투를 계속하였다. 이동안 적의 돌격과 아군의 진내 사격이 반복되었다. 일출경 적의 규모는 10개 대대로 늘어났다. 이에 대처할 연대예비나 사단예비도 없었다. 이 무렵 좌인접 제19연대의 철수로 인한 측방노출로 제3대대도 교암산 서측으로 밀리어 그 외곽에 증강 배치되었다. 그러나 적의 집중적이고 과상적 공격에 교암산 외곽 진지가 차례로 무너졌으며 08:20 제2연대는 교암산을 중심으로 한 전면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교암산 진지는 우인접 제8사단 지역의 765고지를 점령한 2개 대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다.

결국 교암산의 제2연대는 좌인접 제19연대와 우인접 제8사단으로 쉼도하는 중공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고 있었다. 연대장은 사단장의 승인을 얻어 10:30~11:00에 교암산을 포기하고 철수하여 금성천을 건너 12:50 일단 노동리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 이에 앞서 제7연대는 전방진지를 점령한 제1대대를 노동리로 철수시키고 연대(-)는 금성천 남쪽의 729고지-배선골-큰골 남쪽 371고지 선에 저지진지를 점령, 전방부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로써 제6사단은 14일 오전 진현리-삼현-배선골-큰골에 저지진지를 편성한 제9연대와 제7연대(-)의 엄호하에 금성천 건너 노동리에서 부대수습에 분주하였다.

● 제8사단의 지형능선 전투

돌출부 선단 좌반부는 제8사단이 방어하였다. 사단(宋堯讚 소장)은 제10연대를 교암산 동단 765고지-지형능선 정점 690고지에, 제16연대를 612고지 일원에 배치하고 제21연대를 예비로 보유하였다. 7월 13일 저녁 22:00경부터 사단 정면에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이 치열하게 가해졌고 이로 인해 사단의 유선이 거의 두절되어 지휘통신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적은 공격준비사격간 돌격선으로 이동한 다음 사격이 연신되자마자 아군이 미처 전투태세를 갖추기 전에 돌격을 하곤 했듯이 이날 저녁에도 사격이 연신되면서 지형능선 전방에 추진된 제10연대 제10중대 제1소대(全滢洙 소위) 전초를 공격해 왔다. 소대는 밤새 백병전과 진내 사격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14일 아침, 소대원의 1/3이 피해를 입었으나 중공군도 10명의 포로와 많은 시체를 철조망 부근에 두고 물러갔다. 그러나 이때 전초는 이를 우회한 적에 의해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 놓여 생존자들이 탈출을 감행하였지만 2일간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이날의 전투에서 다른 전초들도 대부분 통신두절로 연락이 되지 않아 철수명령을 받지 못해 전형수 소위 소대처럼 싸우다가 포로가 되기도 하고 후에 탈출하기도 하였다.

전초들이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이들을 우회한 적은 주저항선을

공격하였으며 지형능선의 690고지도 23:30경에 피탈되었다. 또한 765고지 부근에 있던 제10연대 관측소도 적의 기습을 받아 연대장·작전주임 등 지휘요원이 부상을 입고 철수하였으며, 사단 정면에서 가장 높은 765고지마저 14일 01:30에 피탈되었다. 그러나 제10연대는 연대예비 제2대대로써 역습을 실시하여 765고지를 탈환하고 이어 군단 가용포병의 화력지원에 힘입어 주저항선을 모두 회복하였다.

우전방 제16연대는 제3대대(배속: 수색중대)를 주저항선에 배치하고 제1대대를 전초로 운용하였으며 제2대대를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전초대대와 주저항선 대대를 거의 동시에 공격하였다. 이날밤 자정경에는 제3대대가 진내 사격을 실시하였으며 전초대대도 진지 일부가 피탈되었다. 그러나 제16연대는 14일 미명까지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연대는 인접 제10연대의 상황이 더 위급하여 사단의 통제로 연대예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일출 후 제8사단 제16연대 상황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반면 우인접 제3사단 지역 여문리, 집실리에서까지 적의 출현이 관측되었는바 제8사단의 예비 연대지역이 측방공격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제16연대장은 전초대대를 주저항선 남쪽으로 철수시켜 연대 측후방 경계를 강화시켰다. 이 무렵의 14일 11:00에 제8사단장은 군단장으로부터 14일 15:00까지 금성천 남안에 신방어선을 편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군단장의 명령과 동시에 사단의 철수작전이 시작될 무렵, 제3사단 지역을 돌파한 적이 17번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별우지구로 치닫고 있는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후방상황이 대단히 긴박하게 되었다. 08:40에는 적이 집실리에 출현하였는데 사단의 전면 철수가 시작될 무렵에는 535고지에서 적이 발견되었고 그후 곧 예비 연대 후방의 중요 감제고지인 504고지를 점령하고 사단의 철수를 위협하였다. 이 504고지는 여문리-집실리에서 별우지구로 향하는 기동로상의 중요 고지인 동시에 사단 후방지역의 동반부를 감제하는 고지였다. 이런 위기상황

에서 사단의 철수는 우전방 제16연대 예비의 엄호하에 제10연대가 먼저 철수하고 다음 사단예비 제21연대의 엄호하에 제16연대가 금성천 남안으로 철수하였다. 제10연대는 주파리로 향하였고 제16연대는 596고지에 저지진지를 편성하기 위해 밤성골로 집결하였다. 그리고 제21연대는 전방연대가 철수 완료될 때까지 엄호작전을 벌이다가 18:00경 금성천을 도하한 다음 연대가 점령할 주파령을 향해 남하하였다.

한편 밤성골에 집결중이던 제16연대는 저녁 식사중 적의 기습을 받아 분산됨으로써 596고지로 진입하여 금성천 남안에 신방어선을 편성하지 못하고 사방거리로 철수하였다.

4) 新主抵抗線 構築

군사령관 테일러 장군은 상황보고의 부족으로 금성돌출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7월 13일 밤 중공군 6개 사단이 돌출부 양견부를 돌파하여 깊숙히 침투한 것으로 추단하고 크게 우려하였다. 그는 이 돌출부지역의 국군부대가 중공군의 양익 포위망 속에 들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14일 06:00에 이들 부대들(수도사단·제6·제8·제3·제5사단)로 하여금 돌출부의 기저선인 금성천 남안으로 철수하여 신방어선을 형성하도록 명령하였다(수도사단은 117A 도로를 확보하고 그 전방에 신방어선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2군단장(丁一權 중장)은 14일 11:00에 금성천 남안에 신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한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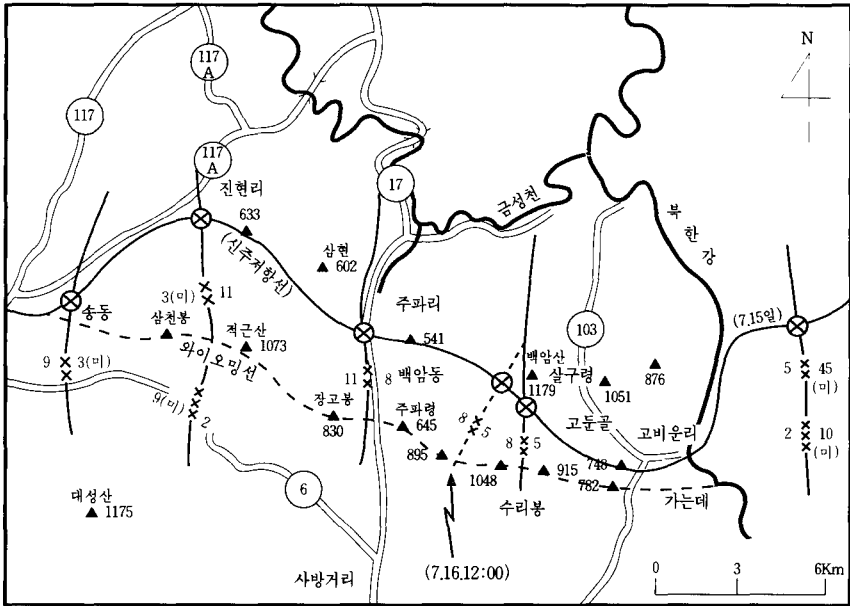
그러나 수도사단과 국군 제2군단 예하 사단들이 117A번 도로와 금성천 남안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적의 추격이 계속되어 조직적인 철수부대가 불가능해 금성천 남안의 신방어선 편성에 실패하였다. 수도사단(崔昌彦 준장)은 미 제3사단 제65연대가 117A번 도로 남쪽 능선에 투입되어 저지선을 형성하는 가운데 그 북쪽 능선의 쟁탈전을 벌

이다 철수하였다. 국군 제2군단의 제6사단(白仁燁 소장)은 배속된 제9연대가 진현리-삼현 선에 저지선을 형성하였을 뿐 제2·제19연대는 노동리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주파리로 집결중이었다. 배선골-큰골에서 전방연대를 엄호하던 제7연대도 전방연대에 휩쓸려 거리실 추동을 거쳐 주파리로 철수하였다. 제8사단(宋堯讚 소장)도 주파령을 향하여 철수중이었고 제16연대가 596고지의 저지진지 점령에 실패하고 분산되어 사방거리 남쪽 부촌리에서 수습할 정도였다.

한편 제8사단 우인점 제3사단의 상황도 제8사단과 대동소이하였다. 제3사단장(林善河 소장)은 가장 손실이 적은 제18연대로 여내곡 부근 금성천 남안에 방어선을 편성하고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사단에비로 전환 그 남쪽 저지진지를 점령시켜 전선을 정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금성천 도하 후 제18연대만 신진지에 진입하였을 뿐 제22, 제23연대는 적의 포격을 받아 분산되었다. 이리하여 제3사단은 금성천 남안진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소성동-흑운토령을 넘어 주파리 동쪽 동막동에서 병력을 수습하게 되었다. 또한 이에 앞서 금성돌출부 우단 금성천과 북한강의 합류지점에 배치된 제5사단(金鍾甲 소장)의 좌익 일부도 돌파되었다. 사단은 적이 103번 도로를 타고 백암산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군 제2군단의 제6, 제8, 제3사단은 14일 11:00에 군단장의 명령을 받아 금성천으로 철수하였으나 중공군의 근접추격과 철수시의 혼란으로 삼현-금성천-북한강에 연한 신방어선(아이슬랜드선)의 형성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공격은 계속되었으며 특히 제3사단을 후속한 적이 내성동리와 흑운토령을 넘어 백암산을 목표로 추격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국군 제2군단은 금성천 방어를 포기하고 진현리-633고지-주파리-백암산-소백암산 선에서 적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였다. 상황이 이처럼 위기로 치달자 군사령관은 일본으로부터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급히 한국으로 공수하여 국군 제9사단의 일부전선을 인수시켜 수도사단의 좌익을 강화하는 한편, 15일 12:00부로 미

제2군단의 신주저항선(1953. 7. 15)



제3사단으로 하여금 수도사단의 방어진역을 인수시키고 수도사단은 군단예비로 전환시켰다. 또한 군예비 제11사단을 제2군단에 배속하고 미 제10군단 예하 국군 제7사단¹⁴⁸⁾을 제2군단으로 배속 전환시켜 하노곡으로 추진하는 등 제2군단의 전력을 강화, 적의 돌파를 저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제2군단장은 제11사단을 전방으로 투입하여 제6사단과 교대시키고 제8사단과 제5사단으로써 제3사단 방어진역을 분담하도록 조치하여 전방전선을 정비하는 한편, 제6사단과 제3사단을 예비로 전환시켰다. 이 결과 제2군단은 제11사단이 진현리-주파리에서, 제8사단이 주파리-백암산 서단에서, 제5사단이 백암산-1051-876고지에서 적을 저지중이었고 예비로 전환된 제6사단과 제3사단은 와이오밍선에 투입되어 재편성을 하며 방어중심을 강화하였다.¹⁴⁹⁾

그러나 제5사단은 중공군의 계속적인 중압을 받아 15일 18:20에 백암산을 피탈당함으로써 백암산과 1051고지에서 물러나 백암산 남쪽의 수동령에서 고둔골-수상리 남쪽 고지군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결과적으로 제2군단은 7월 15일 저녁까지 와이오밍선(삼천봉-적근산-주파령-1048고지-782고지-재안산 북단 가는대) 북쪽의 진현리-삼현-주파리-수동령-고둔골-고비운리-전석-748고지를 잇는 신주저항선에서 적의 공세를 저지하였다.

5) 第 2 軍團의 反擊

7월 15일 국군 제2군단이 와이오밍선 전방의 신방어선에서 적을 저지하자 군사령관은 16일에 반격작전을 펴 금성천을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그간의 손실과 장마로 인한 보급추진 부진으로 공세력이 한계에 도달한 듯 백암산을 점령한 뒤로는 더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점령한 진지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사상자의 처리 등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제2군단장(丁一權 중장)은 적을 저지중에 있는 전방 3개 사단을 반격으로 이전시키기로 결심하고 신방어선 점령을 위한 공격명령을 7월 15일 12:00에 하달하였다. 좌전방 제11사단은 진현리 633고지-삼현 602고지선을 점령하고, 중앙의 제8사단은 별우-성동리까지의 금성천을 확보하며, 제5사단은 7·13공세 이전의 북한강 서남지역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제11사단(林富澤 준장)은 제9연대가 제6사단에 배속되어 철수할 때 진현리 633고지를 이미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우전방 제13연대로써 삼현 602고지를 점령하고 나아가 별우지역의 425고지·406고지를 점령할 계획이었다. 이때 제20연대(-1)는 예비로 후속하도록 하였다.

제13연대는 제2대대로 602고지를, 제1대대로 17번로 서측 425·406

고지를, 그리고 중앙의 제3대대로 602고지와 425고지 중간 무명고지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연대는 7월 15일 1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제2대대가 602고지 공격의 발판 700고지를 점령하고 602고지 공격을 1차 시도하였다. 이때 제2대대는 이미 진지를 구축한 중공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었다. 16일 공격은 제3대대가 06:00에 700고지를 경유하여 602고지의 동측 무명고지 공격을 개시함으로부터 전개되었다. 제2대대는 이날 오후 제3대대가 무명고지를 점령한 후 23:00에 야간 공격을 하여 다음날(17일) 04:00에 602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날 제1대대는 425고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좌익의 제9연대는 사단예비 1개 대대를 배속받아 633고지 서측 462고지를 점령하고 미 제3사단과 연결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날 적의 야간공격에 제13연대는 425고지를 지켰으나 602고지를 피탈당하였다(18일 02:00). 연대는 예비 제20연대 제3대대를 배속받아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일 사단은 지금까지의 전투에서 손실을 많이 입은 제13연대를 예비로 전환시키고 제20연대로써 602고지를 공격하였다.

제20연대(-1)는 미 제5공군의 항공지원과 사단포병 및 미 제461 중반격포 대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2개 대대가 병행공격하여 5차례의 돌격 끝에 602고지를 점령하였다. 당시 이들 대대의 피해는 극에 달해 제1대대는 제1중대가 이 고지를 점령하였을 당시 중대장을 포함해 8명뿐이었고, 제3대대도 42명의 전사자와 249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이러한 때 중공군의 역습을 받아 602고지는 20일 03:25 적의 수중으로 다시 넘어가고 제9연대가 이 고지 공격을 돕기 위하여 점령했던 이 고지 서측의 552고지도 함께 빼앗겼다. 이후 사단은 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군단 중앙 제8사단의 목표는 금성천이었다. 이곳으로의 진격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지형지물은 흑운토령(851고지)이었다. 이곳만 점령하면 그 전방의 고지군은 모두 감제하에 들게 되므로 쉽게 점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단장(宋堯讚)은 동막골에 배치한 제

제 2 군단 반격작전 명령

軍令秘紙

第 2 連 團
江華川 小江白頭

作戰命令 제 6 호

4286. 7. 15. 1200

地圖尺碼 1:25000

- 1. 가. 最近定期作戰報告 參照
- 나. 最近定期情報 參照
- 2. 가. 連團은 連隊之分을 一部變更하여 作戰제 5 호로서 指定된主
 要地區는 早速히 占領 防禦하라
- 나. 附錄제 1 호 作戰透明圖 參照
- 3. 가. 第 5 連團
 - (1) 作戰指及제 62 호로 第 3 連團의 區域은 第 27 戰隊(-)을
4286. 7. 15. 1030 附屬隊合稱號로
 - (2) 4286. 7. 15. 1030 附屬 現第 3 連團地域의 右翼一部는 引
受担當하라
 - (3) 早速히 主抵抗線은 ^{白頭} 橋頭防禦하라
- 나. 第 8 連團
 - (1) 4286. 7. 15. 0800 附屬 第 6 連團 7 戰隊은 敵合稱號하라
 - (2) 4286. 7. 15. 1030 附屬 現第 3 連團地域의 左翼은 引受担當
하라
 - (3) 早速히 主抵抗線은 占領 防禦하라
- 다. 第 3 連團
 - (1) 4286. 7. 15. 1030 附屬 洞淵地域은 第 5 連團與 第 8 連團에

..... 중 략

團長 陸軍中將 丁

配符先

陸本 2 部 右 兩 團 各 1 部 第 5 砲兵團 第 1 戰隊 大 隊
 第 1103 騎工團 入 身 情報 軍需 高副 工交 連隊
 右 1 部 砲臺 2 部

21연대에 흑운토령 점령임무를 부여하였다.

제21연대장은 제2대대로 851고지를, 제3대대로 851고지 서측의 682고지를, 제1대대로 이 고지 서측의 17번로를 통제할 수 있는 406고지를 점령하기로 결심하고 7월 15일 19:00 와이오밍선 전방진지에서 야간공격을 개시하였다. 851고지는 주변을 모두 감제할 수 있는 우뚝 솟은 고지로서 사실상 주간공격을 하기란 어려웠다. 제3대대가 전방 계대로서 공격을 하고 제2대대가 후속하였다. 이날 야간공격에서 406고지는 무난히 점령하였으나 851고지 공격부대는 그 남쪽 능선에서 격전을 벌였다.

군단반격 개시일인 16일 제21연대는 공격을 속개하여 제2대대가 흑운토령에서 견제공격을 펴는 동안 연대(-)가 먼저 851고지 서측과 서북쪽의 695-682-596고지를 점령하여 차후 공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사단장은 제21연대가 동측방 백암산의 적으로부터 측방위협에 노출되자 예비인 제16연대를 흑운토령 동측으로 투입하여 백암산 서측의 1118고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사단은 흑운토령을 고립시켜 공격할 복안하에 17일 제21연대로 하여금 금성천 남안의 고지군을 점령하여 금성천을 확보하고 제16연대로 하여금 1118고지를 점령한 후 흑운토령을 탈취하도록 임무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날 제21연대는 흑운토령 북쪽의 569-625고지를 점령하여 적의 배후를 차단한 가운데 제16연대가 흑운토령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후 사단은 제21연대로 별우지구를, 제16연대로 흑운토령 이동지역을 담당하도록 하고 예비로 있던 제10연대를 사단 중앙의 569고지로 투입하여 전선을 조정하였다. 사단은 18~19일 금성천 남안으로 진출하여 반격작전 목표를 점령하자 제21연대를 예비로 전환시키고 제10연대를 서, 제16연대를 동으로 부대배치를 재조정한 다음 거리일-성동리까지 금성천을 방어하였다.

군단 우익의 제5사단은 반격작전이 개시되기 전 백암산-소백암산을 상실하고 백암산 후방 수동령-고둔골-748고지-수상리에서 적

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제36연대는 북한강 동안을 방어중이었다. 7월 16일 반격작전은 새로 사단을 지휘하게 된 장도영(張都暎) 소장 지휘하에 전개되었다. 사단은 신주저항선에 배치된 2개 연대로써 백암산(1179)－소백암산(1051)－876고지를 연하는 백암산 고지선을 점령한 다음 좌익의 제27연대는 백암산에서 819－689고지로 뺀 능선을 따라, 우익의 제35연대는 876고지에서 833－780고지로 뺀 능선을 따라 공격하여 금성천과 북한강을 회복할 복안이었다. 이때 제35연대 제2대대는 연대가 신주저항선으로 철수시 876고지에서 적에게 포위된 채 고립되어 있었다.

7월 16일 06:00 제27연대는 백암산을, 제35연대는 소백암산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제27연대는 백암산을 점령한 중공군 1개 대대를 종일 공격하였으나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지 못해 돈좌되었다. 우익의 제35연대는 제2대대가 876고지에서 기습적으로 측방공격을 하여 소백암산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곧 적의 역습에 소백암산도 876고지도 모두 상실하였다. 군단장은 이날 제5사단의 백암산 공격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작일 좌인접 제8사단에 배속되어 백암산 서측 1118고지를 공격중인 제6사단 제7연대를 제5사단으로 배속 전환시켰다.

17일 사단은 제7연대와 제27연대가 백암산을, 제35연대는 소백암산과 876고지를 공격하였다. 사단장은 백암산 공격부대에게 백암산을 우회하여 그 북방의 고지군을 점령하도록 작전을 지도하였다. 동측으로 기동한 제27연대는 제2대대가 백암산을 공격하는 한편, 제1대대가 전차의 지원하에 103번 도로로 치달아 살구정을 점령하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서측으로 기동한 제7연대는 1118고지를 점령 후 계속하여 962고지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우전방 제35연대는 전일의 상황에서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제5사단은 양개 연대가 백암산 선을 우회하여 그 북방으로 진출함을 계기로 다음날(18일) 아침 제27연대는 항공지원하에 제2대대가 백암산 정상을 탈환하였고, 제1대대는 살구정에서 전차의

지원하에 장재 수곳지를 거쳐 이날밤 북한강변의 662, 641고지를 점령하였다. 제7연대도 819고지를 점령하고 금성천변의 595, 689고지를 점령하였다. 제35연대도 876고지, 833고지, 780고지를 차례로 탈환하고 북한강변 501고지로 진출하였으며 소백암산도 20시간의 전투 끝에 탈환하였다. 이로써 제5사단은 반격작전 목표를 확보하고 여내골에서 여골까지 금성천-북한강 선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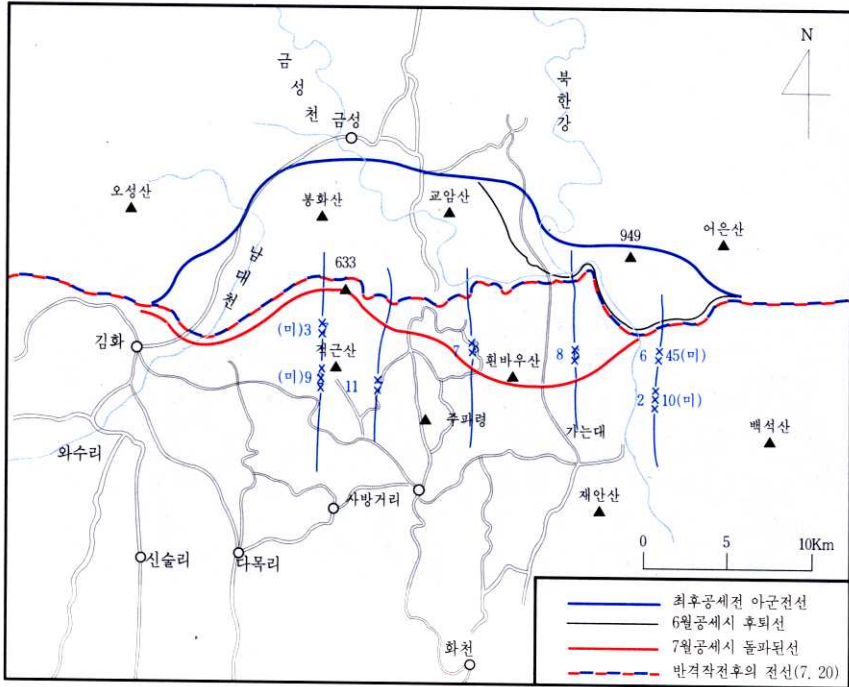
6) 戰線 整理

국군 제2군단은 7월 19일, 반격작전을 실시한지 3일만에 금성천을 확보하고 반격목표를 달성하였다. 군단장은 금성천에 도달한 사단들으로써 계속 금성천 북안으로 진격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휴전을 앞둔 시점에서 과도한 출혈을 우려한 나머지 군사령관이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이 작전은 중단되었다. 따라서 전선을 재정리하여 적의 재공격에 대비할 조치를 취하였다. 7월 20일에 군단예비 제7사단(金容培 소장)을 제11사단과 제8사단 사이 17번 도로 축선에 투입하여 양개사단의 작전지역 일부씩 인수시켜 적의 주접근로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군단예비 제6사단으로 하여금 우전방 제5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시켜 군단 우익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다음날 군단은 제6사단의 금성천 남안 양지촌까지의 방어책임을 좌인접 제8사단에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제6사단은 양지촌으로부터 북한강지역 방어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제2군단은 제11사단·제7사단·제8사단·제6사단의 4개 사단으로 금성천과 북한강에 연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제3사단(사방거리)과 제5사단(화천)을 예비로 보유하였다(제3사단은 다시 제8군 예비로 전환되었다). 이때 군단의 좌익에는 미 제9군단의 미 제3사단이 우익에는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45사단이 병행하여 적과 대치중이었다.

중공군 최후공세시 금성돌출부 작전경과



결과적으로 제2군단은 금성돌출부 작전에서 백암산까지 상실하고 와이오밍선 전방에서 적의 공세를 저지한 다음 반격으로 이전하여 그 중간지역 금성천을 확보함으로써 돌출부가 제거된 전선을 확보한 채 휴전을 맞기에 이르렀다.

이 '7·13전투'에서 국군은 14,373명(전사 2,689명, 부상 7,548명, 실종 4,136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중공군도 확인된 손실 27,412명(사살 27,216명, 포로 196명)과 추정살상 약 38,700명을 합하여 도합 66,000여 명의 병력손실을 입었다(중공군은 『항미원조전사』에서 이 전투간 33,253명이 살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전투에서 전선의 변화는 약 4km에 불과하였는데 손실은 엄청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전투는 군인들이 한치의 땅을 지키는데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화천 제2군단사령부를 방문(1953년 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또한 이 전투는 한국전쟁사상 국군과 유엔군을 통틀어 군단급 부대가 동일작전지역에서 방어·철수·반격 등 일련의 작전형태를 전환해 가며 싸운 유일한 전투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역에서 국군 제2군단이 비록 금성돌출부를 상실하였지만 중공군 5개군(군단) 15개 사단의 공세를 저지하고 대반격작전을 펴 금성천을 회복함으로써 한국전쟁의 마지막 결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군은 화천과 발전소를 탈환하려는 공산군의 전역목표를 분쇄하였으며 휴전선의 확정에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음은 물론, 국군의 전장지도력과 전투능력을 높이 평가받게 되었던 것이다.

반격작전이 종료되던 날,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78세의

노구(老樞)에도 불구하고 화천(소토고미) 제2군단사령부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장병들을 격려하였다.¹⁵⁰⁾

제2군단장 정(丁)장군. 수고가 많았어. 정말 이만 하기가 다행이야. 공산군은 화천(華川)까지 내려와서 휴전선(休戰線)을 긋자는 것이었으니 그렇게 되었다라면 형편이 어찌 되었겠는가? 우리 용감한 2군단 장병들이 끝까지 훌륭히 싸워 나라를 지켜준 것입니다. 나의 이 감사의 뜻을 모든 용사들에게 전해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제 6 절 休戰協定 調印

1953년 6월 말과 7월 초 한·미 간에는 휴전과 전쟁재발억제전략 수립문제를 놓고 회담을 진행중이었으며, 판문점 휴전회담은 6·18반공포로석방문제로 휴회상태에 있었으나 전선에서는 적의 최후공세로 인한 열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클라크 장군은 중단된 회담을 속개하기 위해 6월 29일에 한국정부의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석방된 반공 포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휴전조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본회담 재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공산군사령관에게 보냈다.

공산군측은 7월 8일에 “유엔군측 제안에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조기휴전을 위해 애쓰는 유엔군측의 희망을 고려하여, 양측의 대표단이 약속된 시간에 만나 휴전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와 휴전협정의 서명 이전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토의하는데 동의한다”고 회신을 보내 왔다.¹⁵¹⁾

이에 따라 7월 10일 정전회담의 본회의가 11:00 판문점에서 속개되었다. 공산군측 남일은 탈출한 모든 포로의 회수와 책임에 대하여

유엔군측을 비난한 후 한국정부와 육군의 휴전협정 준수 전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휴전협정의 보장을 요구하였다.

만일 휴전협정에 남한 정부와 남한 군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설사 유엔군사령부 대표들이 휴전에 조인한다 해도 한국전쟁은 사실상 중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휴전협정이 참다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질문에 관해서 확고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책임은 불가피하게 당신네들에게 있는 것이다.¹⁵²⁾

이에 유엔군측 해리슨 장군은 유엔군사령부가 권한범위내에서 한국정부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현재 유엔군사령부 휘하에 있는 대한민국 군은 휴전 후에도 현상대로 있을 것이며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의 제반 지시 사항을 수행함은 물론 휴전협정에 의거하여 현재 전개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클라크 장군이 6월 29일부 서한에서 언명하였듯이 유엔군사령부는 휴전협정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적극적인 지지를 할 것이라고 보증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그들이 협력하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역량의 범위내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¹⁵³⁾

공산군측은 다음날 7월 11일 회합에서 이 유엔군사령부의 성명이 모순 투성이이며 불만족스럽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해리슨 장군은 유엔군측이 휴전협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은 유엔군의 내부 문제라고 지적한 다음,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군이 어떤 공세적인 작전을 전개하여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였다.¹⁵⁴⁾

해리슨 대표는 7월 12일 이-로버트슨 협정이 발표되었을 때 공산군측 대표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7월 9일자 서한에서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언명을 통보하고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사령부는 휴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¹⁵⁵⁾

즉, 그는 “방금 한국정부와 끝낸 회담의 결과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정부가 적대 행위의 종료 후, 우리의 공동 목표에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이라는 적절한 보장을 받았으며, 당신들은 한국군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휴전 조항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고 설명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휴전협정 조인을 위한 세부 사항과 준비의 완결을 더 이상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¹⁵⁶⁾

공산군측의 대표단은 계속 불만족스러워하였으며, 더욱더 구체적인 보증을 강요하고 석방된 포로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7월 13일 회담에서 이대통령의 90일 동안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들고 나와 이를 분명히 해줄 것을 독촉하였다.

공산군측이 전선에서 공세를 계속하며 협상에서 계속 사소한 문제를 들고 나와 시간을 지연시키려 하자, 7월 14일 클라크는 해리슨에게 만일 공산군측이 앞으로도 전과 같이 지연책만을 고집한다면 곧 회의에서 퇴장해도 좋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7월 15일 유엔군측 대표단은 여전히 공산군측이 회의를 지연시키려 하자 “공산군의 전선에서의 공세에 비추어 휴전협상에 대해 성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퇴장하였다.¹⁵⁷⁾

다음날 7월 16일 공산군측 대표단은 먼저 2일간의 휴회를 제의한 후 다음날 다시 휴회 기간을 7월 19일까지 연장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문산을 방문하여 해리슨과 회동한 클라크 장군은 유엔군측이 공산군측의 석방 포로 재수감 요구, 한국의 태도에 대한 확실한 보증 요구 등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고, 다음의 성명

을 발표하면서 공산군측의 휴회 제의에 동의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신들에게 62개 조항을 포함한 휴전협정의 모든 조항을 협정하고 이를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하고 의심 없이 천명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동 사령부가 휴전협정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그러한 협정을 맺지 않는다. 이것이 당신들을 위한 충분한 보증이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휴전협정 초안의 조건을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나는 이 점에 관하여 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일 당신이 진실로 휴전을 원한다면 공식적 입장이 아닌 신문 기사에 의거하여 휴전을 지연시키고 또 불필요하게 전투를 연장시키지 말고 유엔군사령관의 입장을 지금 당장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¹⁵⁸⁾

7월 19일 양측 대표단이 판문점으로 되돌아왔을 때 적의 공세도 중단되어 전선은 또다시 안정되었다. 남일은 아직 유엔군측 태도에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정전을 속히 타결짓기 위해 이제는 언제라도 최종적인 합의에 응할 용의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¹⁵⁹⁾ 다만 남일은 송환 불원포로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중립국 송환위원회로 인도하자며 이 문제를 다루자고 요구하였다.

공산군측의 수락으로 대표단들은 즉각 휴전을 위한 마지막 토의에 들어갔다. 공산군측은 먼저 조인은 그들이 이룬 최근의 전진 상황을 반영하여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수정한 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그렇지만 해리슨 장군은 조인 일자 는 그 선의 수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휴전은 조인 후 12시간이 지나면 유효하다는 것과 더불어 24일로 그 일자를 공산측에 제의하여 동의를 받았다. 전체 대표단은 그 다음 연락장교들에게 세부적으로 작업해야 할 과제를 위임하고 산회하였다.¹⁶⁰⁾

따라서 이날부터 매듭지어야 할 문제는 네 가지가 남아 있었다. 즉,

1)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에 관한 건, 2) 송환불원포로들의 인도 지역에 관한 건, 3) 휴전협정에 의거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활동 개시에 관한 건, 4) 휴전 문서의 실제적인 조인을 위한 제반 준비 사항 등이었다.

군사분계선의 수정 작업은 그 동안 전선에서의 큰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접촉선을 결정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것처럼 보였으나, 중공군의 마지막 공세로 인하여 전선이 변동된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졌다.

7월 20일 양측 연락장교들은 분계선 수정건을 놓고 협의를 시작하였다. 쌍방은 군사분계선을 재협정할 사전준비작업으로서 지도를 교환하였다. 다음날 연락장교들은 협상의 진전을 보아 휴전협정의 증거서류를 교환하고 군사분계선에 관한 최종적 수정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지도상에는 아직 최종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7월 22일 유엔군측은 일괄타결안을 제시한 후 상충점들을 해결하였다.

유엔군측은 포로 인도 장소를 휴전 발효 전에 결정하고자 하여 본국 송환을 원치 않는 공산 포로들을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에서 포로 송환위원회에 인계하도록 제의하였으며, 공산군측이 원칙적으로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 문제는 7월 25일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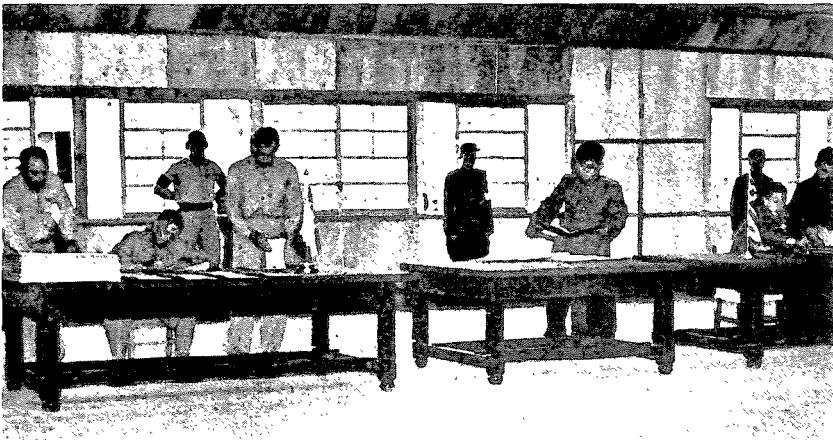
그후 양측은 본국으로 송환될 포로 수와 송환위원회에 인계될 포로 수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24일 유엔군측은 송환불원포로 숫자를 중공군 14,500명, 북한군 7,800명으로 발표하였다. 공산군측이 발표한 숫자는 미군 3,313명, 국군 8,186명을 포함하여 총 12,746명이었다.¹⁶¹⁾ 공산군측이 발표한 총수는 유엔군측에서 예기했던 바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유엔군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였다.

이어서 포로 송환에 있어서의 교환 비율을 결정짓는 문제가 토의되었다. 이 비율은 쌍방의 수송 시설이나 행정 능력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유엔군측은 상병포로 360명을 포함해서 1일 1,800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공산군측은 상명포로 외에 1일 3,000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공산군측은 수송 시설이 빈약하고 포로수용소가 원거리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1일 300명만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또한 유엔군측은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준비로서 제반 규칙과 운용 세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을 공산군측에 제시하였다. 공산군측은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조속한 타결을 서두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공산군측은 형식에 관한 논쟁을 통해 전쟁 기간 중 정치적인 이득을 보충해 보려고 마지막 노력을 시도하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적 대표단은 마지막까지 복잡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여, 양측 최고 사령관이 판문점에서 서명할 경우, 한국과 자유중국 신문 특파원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²⁾ 7월 25일 클라크 장군은 그럴 경우 그는 도쿄에서 서명하겠다고 응수하였으나, 적이 이 점에 관하여 양보하기를 거부하여 결국 유엔군측도 그것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¹⁶³⁾ 그리하여 조인식은 휴전회담 수석대표들간에서 거행하기로 합



휴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는 양측 수석대표, 해리슨(左)과 남일(右)

의되었으며, 쌍방의 군사지휘관들의 서명은 그후에 받기로 결정되었다. 조인 시각은 7월 27일 오전 10시 정각으로 하되 발효는 이날 22:00로 결정되었다.¹⁶⁴⁾

클라크 장군은 유엔군 부대에 27일 10:00부터 12시간 동안은 군의 작전을 해군과 공군의 어떤 계획된 작전을 제외하고는 진지의 유지와 부대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데 국한시키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27일 09:57 본회의를 주관하던 대표들이 냉담한 분위기 가운데 입장하여 전열에 착석하였다. 해리슨 장군과 남일은 서로 반대측에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조인 문서에 서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호간 인사말 한마디 교환치 않았다. 10:12 조인을 마치고 해리슨은 헬리콥터를 타고 문산리로 출발하였으며, 남일과 그 일행은 소제 지프차에 분승한 후 그 지역에서 떠나갔다.

이날 판문점에서 휴전조인식이 있던 2시간 후 이승만 대통령은 각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전세계에 발표하였다.

나는 정전이라는 것이 결코 싸움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고 고난과 파괴를 더 하게 하며 전쟁과 파괴적 행동으로 공산군측이 더욱 전진하여 오게 되는 서곡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정전에 조인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정전이 조인되었음에 나는 정전의 결과에 대한 나의 그 동안의 판단이 옳지 않았기를 바란다. 한국의 해방과 통일 문제를 평화리에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정치 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정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미국 사이에 도달된 합의는 양국의 공동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남한의 부흥은 즉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공산측은 북한을 위하여 이만한 일을 할 것인가? 차후도 당분간 공산 압제 하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될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는 계속 남아 있으며,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유엔은 이 목표를 위하여 확약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정책을 변경하여 정전을 방해치 않기로 하였는가 하는 상세한 설명은 차후 발표될 것이다.¹⁶⁵⁾

이대통령의 성명은 대한민국이 휴전에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온 국민에게 공포함과 아울러 송환불원포로들에게도 이 취지를 재확인시키며, 만일 정치협상이 실패되는 날에는 국군이 또 다시 무기를 잡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대통령의 성명 발표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에서도 한국의 휴전 성립을 알리는 미국 대통령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휴전 조인 몇 시간 후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문산에서 한국 대표와 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 극동해군사령관 클라크 제독과 공군사령관 웨이랜드 장군 참석하에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때 클라크 장군은 오후 문산리에서 고위군사고문관들과 국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의 휴전 조인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전투를 중지하려는 군사 협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영구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유엔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수 없으며 또 제반 경계 태세를 조금도 완화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휴전 조인 직후 지상 전투는 이미 중단되어 있었지만 포격전만은 계속되었다. 유엔군 전폭기들은 휴전감시단이 임무 수행에 착수할 때까지 공산군의 제반 전투력을 조금이라도 더 감소시킬 목적으로 북한의 비행장·철로·도로 등을 강타하였으며, 해상에서는 해군 전함들이 고성과 원산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정각 22:00가 되자 한국 전역에 걸쳐 포성이 멎고 마침내 열전은 종막을 고히게 되었다.¹⁶⁶⁾

공산군측도 북한의 김일성이 27일 오후 10시 평양에서 서명하고 중공군의 팽덕회가 다음날(28일) 오전 9시 30분 개성에서 서명함으로써 휴전 조인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되었다.

한편 유엔 참전 회원국들은 7월 27일 워싱턴에서 새로운 전쟁을 억제할 목적으로 소위 ‘대제재(greater sanctions)’ 성명에 합의하였다. 회원국들은 발표형식을 숙의 끝에 이름이 풍기는 자극성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명칭을 ‘공동정책선언’으로 바꾸어 유엔군사령부의 ‘특별보고서’에 포함하여 유엔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유엔대표는 8월 7일 휴전조약을 요약하고 협상 내력을 총괄한 유엔군사령부 특별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다. 여기에 첨부된 공동정책선언에서는 새로운 전쟁을 억제할 목적으로 공산군측에게 휴전협정 이행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 유엔 회원국들은 휴전협정을 체결한 유엔군사령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기서 휴전 조항을 완전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확인한다. 우리는 협정의 상대방도 이와 같이 그 조항들을 양심껏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유엔의 원칙과 목적을 믿고 있고, 한국에서 계속적인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국 문제 해결을 성실하게 추구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만일 유엔의 원칙에 재도전하는 무력 공격이 재발한다면, 다시 단합하여 신속히 저항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와 같은 중대한 휴전협정의 위반은 너무도 위협하기 때문에 아마도 적대 행위를 한국의 국경 내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휴전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있어 평화의 회복이나 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¹⁶⁷⁾

휴전 조인시 쌍방의 전세는, 지상군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해군은 아군이 제해권의 완전장악과 더불어 북한지역 전략도서까지 확보함으로써 해상을 완전봉쇄하고 있었으며, 공군은 미그 회랑을 제외한 전공역(空域)에서 제공권을 확보한 상황이었다. 이때 쌍방의 군사력과 유엔군의 참전규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쌍방의 군사력 비교¹⁶⁸⁾

아 군			적 군		
국 군	지상군	3개 군단 18개 사단 (554,267명)·해병 1개 연대 전투단(중장 : 22,174명) : 576,441명	북한군	지상군	6개 군단 18개 사단·7개 보 병연대·7개 전차연대(+) : 45만명
	해 군	1개 함대(57척) : 15,000명		해 군	발동선 24척 : 4,442명
	공 군	1개 전투비행단·1개 훈련 비행단(항공기 110대) : 11,461명		공 군	6개 사단(항공기 489대) : 19,350명
	총병력	602,902명		총병력	473,792명
유엔군	지상군	3개 군단 8개 보병사단·1 개 해병사단 : 341,628명	중공군	지상군	19개군 58개 보병사단 : 135만명

- * 국군의 해군 병력과 함정수는 해군본부, 『해군통계연감』, 1964에 근거한 1953년말 현황이다.
- * 북한, 중공군 지상군 병력수는 중공의 『항미원조전사』에 근거한 1953년 4월 기준 총병력이다.
- * 북한 지상군의 군단수는 북한군 역사(*History of North Korean Army*) 및 『항미원조전사』에 의거 6개 군단으로 판단하였다(제6·제8군단 제외)
- * 적군의 부대수와 병력에, 소련 및 중공의 공군전력은 정확한 자료의 부족으로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엔군의 참전 규모¹⁶⁹⁾

국 명	지 상 군	해 군	공 군
미 국	보병사단 7·해병사단 1·연대전투단2 : 302,483명	극동해군·제7함대 등 261척	극동공군 등 66 대대
영 국	보병여단 2·해병특공 대 1 : 14,198명	함정 17척(항공모함 1척 포함)	
호 주	보병대대 3 : 2,282명	항공모함 1척·구축함 2척·프리깃함 1척	전투비행대대 1·수송 기 편대 1
네덜란드	보병대대 1 : 819명	구축함 1척	
캐나다	보병여단 1 : 6,146명	구축함 3척	수송기대대 1
뉴질랜드	포병대대 1 : 1,389명	프리깃함 1척	
프랑스	보병대대 1 : 1,119명	구축함 1척	
필리핀	보병대대 1 : 1,496명		
터키	보병여단 1 : 5,455명		
타이	보병대대 1 : 1,294명	프리깃함 2척	수송기편대 1
그리스	보병대대 1 : 1,263명		수송기편대 1
남아공			전투비행대대 1
벨기에	보병대대 1 : 900명		
룩셈부르크	보병소대 1 : 44명		
콜롬비아	보병대대 1 : 1,068명	프리깃함 1척	
에티오피아	보병대대 1 : 1,271명		
합계	341,227명		
인도	의무부대 : 70명		
이탈리아	의무부대 : 72명		
노르웨이	의무부대 : 105명		
스웨덴	의무부대 : 154명		
총계	341,628명		

* 덴마크 병원선(100여명)은 총병력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주 기

- 1)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968, p. 288 ; 양대현, 『역사의 증언－휴전회담비사－』, 형설출판사, 1993, pp. 270~271. 중공은 1953년부터 5개년 경제개혁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의 2개 전선에 군사비를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2) 「소연방 각료회의 문건, 별첨1」(1953. 3. 19), 대한민국 외무부(역), 『소련외교문서』 제3권(미간행), p. 168.
- 3) 이 무렵 프랑스 정부도 북한에 억류된 프랑스 시민의 귀환에 대해 소련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소련연방외무부가 주목한 소련대사에게」(1953. 3. 25), 『소련외교문서』 제4권, p. 178.
- 4) 「북한 김일성이 물로코프에게」(1953. 3. 29), 『소련외교문서』 제4권, p. 180.
- 5) 1949년 제네바협약 제109조는 “총돌 당사국은 중상 및 중병의 포로를 그 수와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들이 여행에 적합할 때까지 치료한 후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병포로들의 즉시 교환과 그들을 중립국 병원으로 이송하는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6)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공산군측에게 병상포로의 교환을 제의한 서한」(1953 2월 22일자), 국방부정훈국, 『한국전란3년지』, 1954, p. C16.
- 7) 「소연방 각료회의 문건, 별첨1」(1953. 3. 19), 『소련외교문서』 제3권, pp. 168~169. 소련 각료회의에서는 병상포로의 귀환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스웨덴, 스위스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 8) 「클라크 장군 서한에 대한 공산측 회답」(1953년 2월 22일자), 『한국전란3년지』, p. C16.
- 9) 국방부 전편위(역),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1991, p. 359 ; 중공 외상 주은래는 1953년 3월 3일 유엔총회장 피어슨에게 보낸 그의 서신에서

병상포로교환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안한 중공 외상 주은래 성명」(1953년 3월 3일자), 『한국전란3년지』, p. C17.

-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pp. 257~258.
- 11)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59 ; 위의 책, p. 256.
- 12) N.Y. Times, 1 Jun 195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996, p. 184. 재인용.
- 13)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91 ; 『한국전쟁의 포로』, p. 185.
- 14) 1949년 제네바협약 제110의 귀향시킬 포로들은 1)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현저히 감소될 것 같은 불치의 병상포로들, 2) 의사의 진단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병세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능력이 현저히 감소될 병상포로들, 3) 그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능력이 계속적으로 현저히 감소될 자로서 현재 치료 중인 병상포로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15)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92.
- 16) 「1953년 4월 6일자 미 국무부 공보」, 『한국전란3년지』, pp. C20~C21.
- 17) 「1953년 4월 9일자 미 국무부 공보」, 『한국전란3년지』, p. C26.
- 18) 『한국전쟁의 포로』, pp. 185~186.
- 19)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p. 292~294.
- 20)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64.
- 21) 『한국전란3년지』, p. C17.
- 22)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95.
- 23) 위의 책, p. 291.
- 24) 『한국전쟁 휴전사』, pp. 262~263.
- 25)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96.
- 26) 『역사의 증언』, p. 277.
- 27)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65 ;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97.
- 28)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p. 365~366.
- 29)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99.
- 30) 『한국전란3년지』, p. C39 ; 『한국전쟁 휴전사』, pp. 265~266 ; 『미합참

사 한국전쟁』(하), p. 368.

31)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69.

32) 위의 책, p. 370.

33) 『역사의 증언』, pp. 286~287.

34) 『한국전란3년지』, p. C41.

35) 클라크 장군에 의하면, 이 무렵 공산군측에서 유엔의 최종 제안을 거부하고 아무런 건설적인 제안을 하지 않을 때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쟁을 계속해 나갈 권한을 받고 있었다고 하였다. Mark W. Clark, *ibid.*, p. 267.

36)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301.

37) 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산군측에 제시한 유엔군측의 신 제안, 『한국전란3년지』, p. C41 ;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p. 374~375.

38)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302.

39) 『미합참사 한국전쟁』, pp. 355~357.

40) 최덕신, 『제2의 판문점은 어디로』, 청운문화사, 1968, pp. 54~60.

41)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303.

42) 『한국전란3년지』, pp. C45~47.

43) 충돌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협정에 대한 위반 혐의에 관하여 관계 국가간에 결정되는 방법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 절차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계국은 그 절차를 결정할 심판관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44)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304.

45) 『한국전쟁의 포로』, pp. 193~194.

46) 위의 책, p. 195.

47) 『한국전쟁 휴전사』, p. 287.

48) 『한국전쟁 포로』, p. 197.

49)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97.

50) 위의 책, p. 394 ; 동아일보, 1953년 6월 8일자.

51) 『한국전쟁의 포로』, p. 203.

52) 위의 책, pp. 204~205.

- 53) 위의 책, p. 221.
- 54) 『한국전란3년지』, p. C49.
- 55)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p. 399~400.
- 56) 한국전쟁의 포로, p. 222 ; 이날 클라크 장군은 서한을 통하여 이대통령에게도 강력히 항의하였다. Mark W. Clark, *ibid.*, p. 281.
- 57) 『한국전쟁의 포로』, p. 227.
- 58)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p. 403~404.
- 59) 위의 책, p. 404.
- 60) 『한국전란3년지』, pp. C52~54.
- 61) 『한국전쟁의 포로』, pp. 231~232.
- 62)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77.
- 63) 위의 책, p. 378 ; Mark W. Clark, *ibid.*, p. 262.
- 64)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78.
- 65) 『한국전쟁 휴전사』, pp. 273~275.
- 66)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79.
- 67) 위의 책, p. 380.
- 68) 위의 책, p. 380 ;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297.
- 69)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79
- 70) 위의 책, p. 381
- 71) 위의 책, p. 382.
- 72) 1953년 5월 29일 외무부장관 변영태는 한국 정부는 육군과 경찰 병력을 사용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들 5개국 군대와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까지 말하였다. 동아일보, 1953년 5월 29일자.
- 73) 최덕신, 『내가 겪은 판문점』, 삼학문화사, 1955, pp. 83~93 ; 『한국전쟁 휴전사』, pp. 277~278.
- 74)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83.
- 75) 위의 책, pp. 383~384.
- 76) 위의 책, pp. 381~382, p. 385.
- 77) 『한국전란3년지』, p. C43.
- 78)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90.

592 제 5 장 敵의 最後 攻勢와 休戰 調印

- 79) 위의 책, p. 392.
- 80) 위의 책, p. 393.
- 81) 『한국전쟁 휴전사』, p. 283.
- 82) Mark W. Clark, *ibid.*, p. 264.
- 83) 위의 책, pp. 284~285.
- 84)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95.
- 85) 『한국전란3년지』, p. C49.
- 86)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p. 406~407.
- 87) 『한국전란3년지』, pp. C98~100.
- 88)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409 ; 『한국전란3년지』, pp. C43~44.
- 89) 『한국전쟁 휴전사』, p. 293.
- 90)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416.
- 91) 『한국전쟁 휴전사』, p. 295.
- 92) 『미합참사 한국전쟁』, p. 418.
- 93) 위의 책, p. 419.
- 94) 위의 책, pp. 419~420.
- 95) 위의 책, p. 420.
- 96) Mark W. Clark, *ibid.*, p. 288 ; 송효순, 『대석방 : 실록 반공포로석방』, 신현실사, 1973, p. 311.
- 97)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421.
- 98)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6권, 을유문화사, 1972, p. 122 ; 『대석방』 p. 310 ; 육군 20개 사단의 확충안은 1953년 5월에 확장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먼저 승인된 제12·15사단 외에 휴전이전까지 추가로 제20·21·22·25·26·27사단이 창설되고 제3군단 사령부가 재창설되었다. 사단 확충계획과 병행하여 이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야전포병단과 전차부대 등이 확충되었는데 포병단은 휴전이전까지 16개 부대로 증가되었으며, 전차부대는 3개 전차대대(9개 중대)로 증강되었다. 육군본부, 『병과별부대역사』, pp. 47~48, p. 60 ; 『육군발전사』(상), pp. 404~417.
- 99) James A.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pp. 330~332.
- 100) 위의 책, p. 154.

- 101)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p. 336~337.
- 102) 위의 책, pp. 332~333.
- 103) 위의 책, pp. 351~352 ; Matary, *Historical Dictionary*, p. 332.
- 104)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56.
- 105) QHQ FEC, G-3, *Commander's Atomic Target Analysis*(1951, Sep. 15)
- 106) McGeorge Bundy, *Danger and Survival*, p. 243.
- 107)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p. 154.
- 108) 위의 책, p. 333.
- 109) McGeorge Bundy, *Danger and Survival*(Random House Inc., Newyork, 1987), p. 238.
- 110) 위의 책, p. 239 ; Eisenhower, *The White House Years*(Doubleday and Company Inc., Newyork, 1963), p. 181.
- 111) 합동참모본부, 『韓國戰史』, pp. 916~918.
- 112) 『항미원조전사』, pp. 264~264.
- 113) 위의 책, pp. 268~269.
- 114) 위의 책, p. 270.
- 115) 위의 책, pp. 274~275.
- 116) 위의 책, pp. 272~273.
- 117) 위의 책, p. 275.
- 118) 위의 책, pp. 278~279.
- 119) 위의 책, pp. 281~296.
- 120) 제5사단은 1953년 4월 15일에 제3사단을 교대하여 북한강 동안(東岸) 주저항선 방어를 담당하였다. 제20사단은 1953년 5월 11일에 제7사단을 교대하여 이곳 주저항선을 담당하였다.
- 121) 이는 1953년 5월 1일 현재의 적부대 배치이다. 『항미원조전사』, p. 281.
- 122) 『항미원조전사』, p. 279.
- 123) 제2군단사령부, 『부대사』(1950~1980), 1981, pp. 68~72.
- 124) 제8사단, 『오뚜기약사』 제1집, 1969, pp. 421~43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금성전투』, 1987, p. 34.

594 제 5 장 敵의 最後 攻勢와 休戰 調印

- 125) 『항미원조전사』, p. 283.
- 126) 위의 책, p. 283.
- 127) 위의 책, pp. 283~284.
- 1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1권, pp. 489~499.
Hook고지 명칭은 그 고지를 형성한 능선이 고리모양인데서 비롯되었으며 이 능선의 북쪽정점의 봉우리가 후크고지였다. 이날의 전투에서 중공군의 총손실은 사살 300명, 부상 800여명으로 추산되었다.
- 129) 朴完植증언, 1976. 4. 23.
- 130) 박정인회고록, 『풍운의 별』, 홍익출판사, 1994, pp. 276~280.
- 131) 『항미원조전사』, p. 284 ; Eusak, Cmd Rpt., Map. Jun 1951.
- 132) 『항미원조전사』, p. 284.
- 133) 지금까지 중공군의 최후공세 중 6월 공세는 통상 6월 10일에 시작된 금성돌출부 우견부공격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항미원조 전사』에 의하면 6월 공세는 5월 27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전전선에 걸쳐 전개되었다.
- 134) 『한국전쟁전투사 금성전투』, p. 37.
- 135) 『항미원조전사』, p. 284에 의하면 1953. 6. 14일에 제180사단과 증원 받은 제203사단 1개 연대를 949고지와 수동리로 투입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203사단은 제68군 소속부대였다.
- 136) 『항미원조전사』, p. 284, 382 ; 당초 제200사단의 2개 연대와 제201사단의 1개 연대, 그리고 제202사단 1개 대대 등 3개 연대(+)로 공격하였다.
- 137) 『항미원조전사』, pp. 285~286.
- 138) 위의 책, p. 289.
- 139) 위의 책, p. 290.
- 140) 위의 책, p. 296 ; EUSAK Cmd. Rpt. 1953년 7월 상황도. 이 중공군 전투서열은 주로 『항미원조전사』에 기준한 것으로 이미 편찬한 한국 전쟁사와 전투사에서 판단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141) 『항미원조전사』, p. 383.
- 142) 제5사단은 949-973-883고지 전투 후 1953년 6월 16일부로 미 제

10군단으로 배속전환되어 이 전투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제36연대로써 북한강 동안 군돌-광석골(748고지)을 방어하고 사단(-)은 정비에 들어갔다. 정비를 끝낸 사단은 6월 21일에 제2군단으로 복귀한 후 제36연대를 제외하고 신병보충이 많은 부대를 화천으로 이동시켜 소부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사단은 6월 26일 추가로 제3사단 우익 연대지역의 방어임무를 인수함에 따라 북한강을 중앙에 두고 좌에 제35연대, 우에 제36연대, 제27연대를 예비로 양지촌-후동-북한강-군돌-광석골까지의 아이슬랜드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 143) 이병형, 『연대장』, 병학사, 1997, pp. 190~192.
- 144) 『항미원조전사』, p. 384.
기존의 전쟁사는 적의 공격부대를 중공군 제7사단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항미원조전사』에 따라 제1사단으로 기술하였다.
- 145) 중공군의 전투서열은 『항미원조전사』, p. 291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기존의 전쟁사의 정보판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146) 이는 수도사단 정면을 좁히려는 조치중의 하나로써 7월 14, 04:00가 인수인계 시간이었으나 연대장간의 협조에 의거 제26연대 제3대대는 이날 19:00에 방어지역을 인계하고 제1대대 지역으로 이동중이었다.
- 147) 제1기갑연대 제3대대는 당초부터 제1연대에 배속되어 연대예비로 운용 및 투입되었다. 제1연대는 방어정면이 넓어 예하의 3개 대대를 모두 전방에 배치하였다.
- 148) 제7사단은 1953. 7. 15일부로 미 제10군단의 좌익 방어임무를 미 제45사단에게 인계하고 7. 17일부로 제2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었다.
- 149) 『한국전쟁사』 제9권, p. 603, Reuben E. Jenkins 중장 서한(1953. 7. 30).
- 150) 『한국전쟁사』 제9권, p. 474. 제6 제3사단의 와이오밍선 점령지역은 아래와 같다. 제6사단 : 926고지-적근산-장고봉-주파령 서측, 제3사단 : 주파령-895고지-1048고지-915고지-782고지-가는대
- 151)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423 ; 『한국전란3년지』, p. C49.
- 152)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480.

596 제 5 장 敵의 最後 攻勢와 休戰 調印

- 153)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337.
- 154) 『미합참사 한국전쟁』, p. 428.
- 155)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338.
- 156)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428.
- 157)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339. 이 무렵 중국 정부는 “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기 위해 협정서 서명전까지 이승만 군대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소련외교문서』 제4권, p. 194.
- 158)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430.
- 159)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339.
- 160)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431.
- 161)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341.
- 162)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340, p. 435. 소련 외교문서에 의하면, 소련 정부는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서를 교환할 때 김일성과 팽덕회가 참석치 않도록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북경주재대사에게」(1953. 7. 23), 『소련외교문서』 제3권, p. 174.
- 163)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p. 441~442.
- 164) 위의 책, p. 442.
- 165) 『한국전쟁 휴전사』, p. 311.
- 166)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p. 344.
- 167) 위의 책, p. 346 ;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446.
- 168) 『한국전쟁 요약』, p. 133 : 『항미원조전사』, pp. 354~360.
- 169) 『한국전쟁 요약』, pp. 186~187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513 ;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p. 490~491.

제 6 장 休戰處理와 南北 再分斷

제 1 절 休戰體制的 構築

1. 非武裝地帶의 設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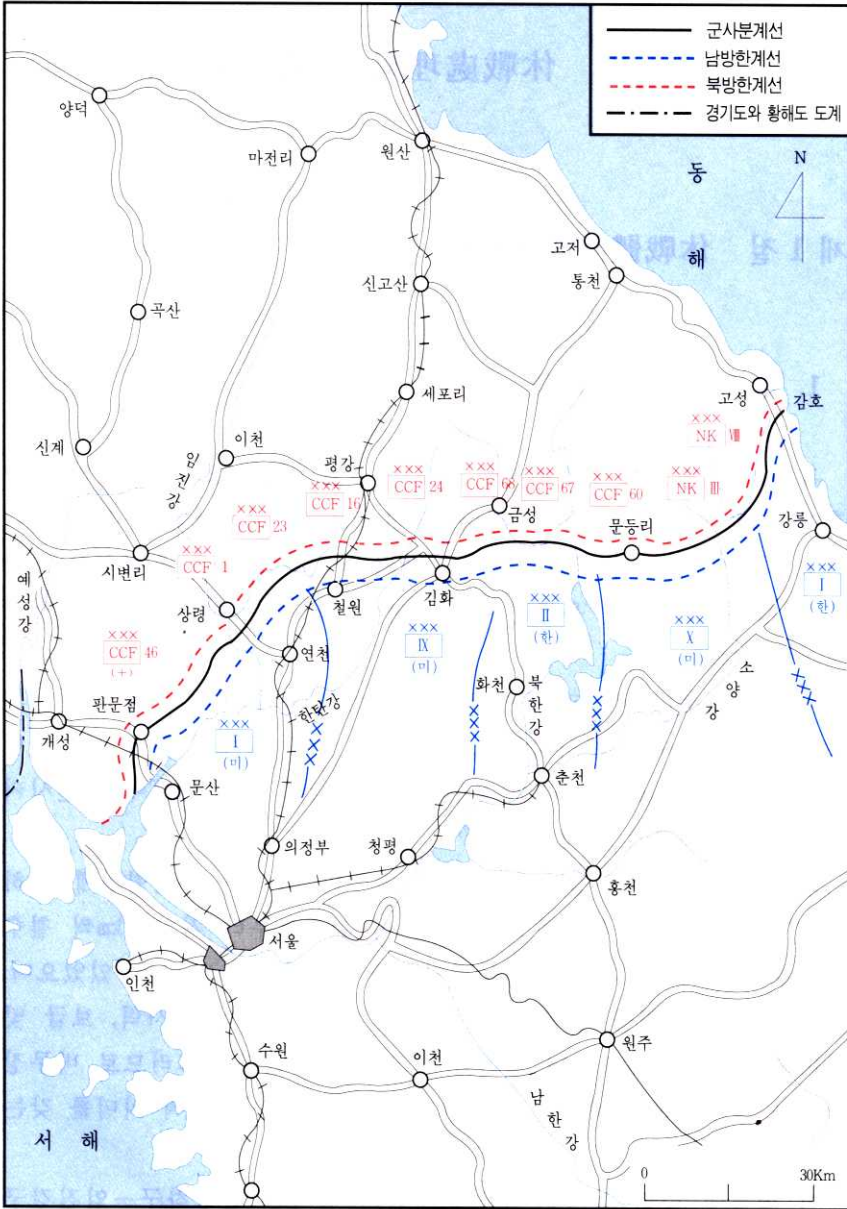
휴전의 성립으로 전선에서는 1953년 7월 27일 22:00를 기하여 양측이 일제히 사격을 중지하였다. 휴전 조인의 역사적인 순간이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서부터 전선의 국군 부대들은 휴전협정 조항을 이행하려는 다른 유엔군 부대들과 함께 현 위치로부터 물러서기 시작하였다.¹⁾

이날 아침부터 국군과 유엔군은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동·서해안의 도서로부터 철수를 개시하였고, 거제도과 제주 일대에 수용되어 있던 북한군 포로 3천6백 명과 중공군 포로 1천2백 명을 LST에 승선시켜 인천으로 수송하기 시작하였다.²⁾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양측의 합의는 휴전협정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철수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일체의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고 규정되었다.³⁾ 그러므로 비무장지대는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 지대로써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 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한강하구—임진강구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1953. 7. 27)



(문산 서남 8km) - 판문점 - 고양대 - 유정리(철원 북 12km) - 하갑령 - 밤성골 - 문동리 - 신탄리 - 수령 - 동해안 감호(남쪽 1km)를 잇는 선이었다.⁴⁾

따라서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2km 북쪽의 북방한계선과 2km 남쪽의 남방한계선으로 설정되었으며, 쌍방은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 군사분계선과 남방 및 북방한계선을 따라 규정된 표지물을 설치하여 경계(境界)의 관리 책임구역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하였다.

한강하구에 대해서는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으며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 항행을 위해 중립지대로써 개방하도록 하였다.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역시 군사정전위원회가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쌍방 민간선박이 항행함에 있어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양측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비무장지대로부터 그리고 비무장지대로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강행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었으며,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과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병력이나 민간인도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 부분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며, 이북의 부분은 북한군사령관과 중공군사령관의 공동 책임이었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은 병력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쌍방의 사령관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인원의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하였다. 또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규정하며,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었다.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내의 출입 허가를 받은 모든 인

원(물자 및 장비 포함)은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이동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의 두 지점이 동 지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통로로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두 지점간의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용하였다.

또 연해제도(沿海諸島) 및 해면으로부터 모든 군사력,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쌍방의 동의 없이 또한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가 있었다.⁵⁾

휴전협정에 규정된 연해제도란 협정이 발표되는 시점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지칭한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를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공산측의 군사통제하에 두며,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은 유엔군 군사통제하에 있었다.⁶⁾

한편 휴전 조인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1953년 7월 28일 군사정전위원회가 판문점에서 최초의 회합을 가졌다. 쌍방은 위원회 위원들을 새로이 임명하여 유엔군측 수석위원에는 미 극동군사령부 참모부장이던 브라이언(Blackshear M. Bryan) 소장, 그리고 공산군측 수석위원에는 휴전회담 대표였던 소장 이상조(李尙朝)를 각각 임명하였다.

쌍방은 수석위원, 위원 그리고 비서장을 서로 소개하고 신임장을 수교하였으며, 공동감시소조의 운영과 비무장지대 관리 그리고 포로와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수용 시설 건축 등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였으며, 송환을 희망하는 쌍방 포로들을 8월 5일부터 교환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이날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전 국민 앞에 천명하였다.

소위 휴전조약에 대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선언한 목적은 중공군이 한국에서 물러가고 통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우리로서는 휴전이나 평화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 결심에는 조금도 변동된 것이 없으며, 오직 시간만 몇 달 동안 물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유엔의 지원을 모두 거부하고 단독으로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우기느니보다는 유엔과 미국의 협동을 보유하고 의당 기한을 물려서 그 동안에 유엔이 정치회담으로 적군을 돌려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험해서, 3개월 이내로 성공이 되면 좋을 것이요 성공이 못되는 때에는 유엔과 미국의 합작으로 우리와 같이 통일을 도모하자는 그 결의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허락한 것이다.⁷⁾

이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휴전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동안, 전선에서는 군의 철수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쌍방의 군사력 철수는 예정대로 7월 30일까지 완료되었고, 위험물과 지뢰 등의 제거작업이 시작되었다.

유엔군측은 서해안에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적 관할하에 남게 된 도서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와 우도 등 서해 5도를 제외한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계 북서에 있는 여러 도서로부터,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북에 있는 여러 도서로부터 8월 2일 이전에 철수를 완료하였다.⁸⁾

이로써 일본으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38도선으로 분단되었던 한반도는 다시 휴전협정 조인으로 새로운 이름의 ‘휴전선’에 의해 남북 분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2. 休戰 管理機構의 設置

(1) 軍事停戰委員會

휴전협정은 남북한에 막대한 고통과 출혈을 가져온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내에서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의 금지를 보장하여 휴전을 실시할 목적으로 쌍방 군사령관 간에 이루어진 협정이며 군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휴전협정하에서의 모든 감시는 군사정전위원회(MAC)의 책임이었으며, 동 위원회는 휴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며 위반 사건을 협의 처리하는 공동기구로서 기능하였다.⁹⁾ 본 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며, 쌍방이 각기 5명씩 임명하되 5명 중 3명은 장성급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대령급 이상인 자로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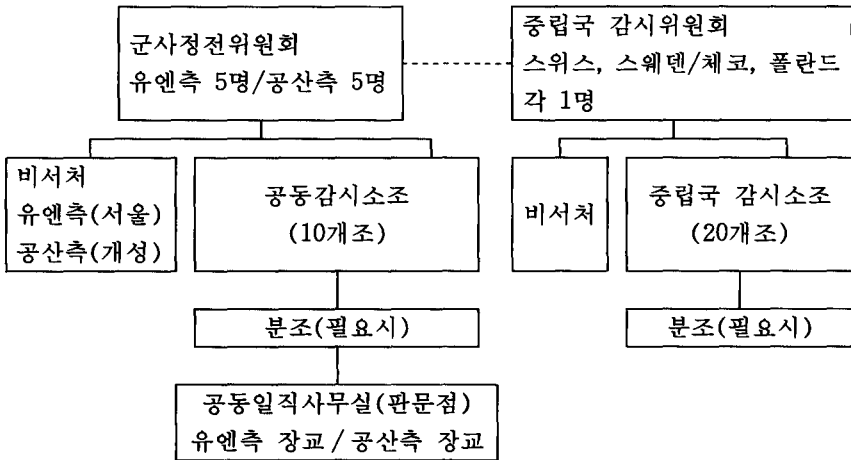
아울러 동 위원회는 처음에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기로 하였다. 1개 공동감시소조는 4~6명의 영관장교로 구성하되 쌍방이 각기 반수씩 임명하도록 되었으며, 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 인원은 쌍방이 제공하기로 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는 휴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며 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었으며, 공동감시소조를 통해 비무장지대로부터 부대의 철수와 철수 후 45일 이내에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위험물의 제거 여부를 감독함에 있어 유용한 일들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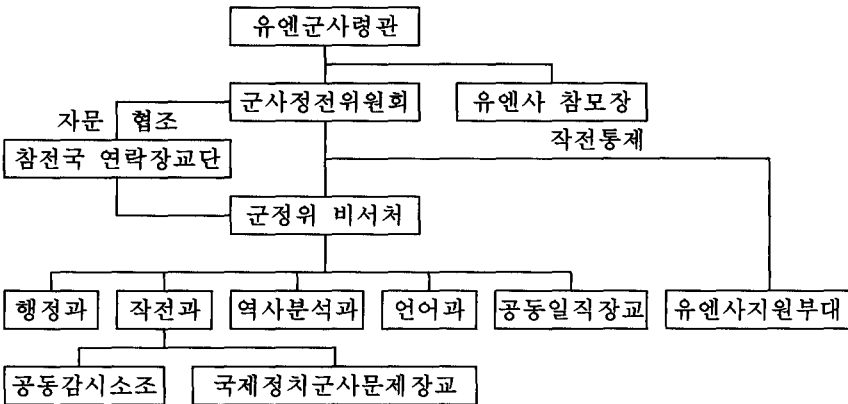
동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휴전협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적대 쌍방간에 공동체로 운용, 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 3) 휴전협정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 4)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 5) 휴전협정의 제반 위반사건의 협의 처리, 6) 중립국 감시위원회로부터 받은 정전

협정위반사건 조사, 쌍방사령관들에게 보고, 7) 쌍방사령관의 연락처로 운영, 8)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서 및 휘장과 제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 발급 등이었다.¹¹⁾

휴전 관리기구 편성표¹²⁾



유엔군측 군사정전위 편성표¹³⁾



휴전 관리기구로서 전체적인 운영 관리권을 보유하며 최고협의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중립국 감시위원회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밖에 한시적으로 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있었다. 동 위원회의 본부는 판문점 부근에 설치하며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지대내의 다른 지점으로 이설할 수 있었다.

휴전협정과 휴전실현을 위한 이러한 휴전 관리기구는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고, 보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협상에 의해 조정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그 동안 공산측과의 협상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의 정치적 해결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휴전을 수년 동안 계속 유효시켜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유엔군측의 전망은 곧 적중하였다. 휴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가 처음부터 상호간의 불신과 불화에 의해 방해를 받았으며, 이는 정부급 수준의 합의에 관한 모든 희망을 불식시키고 있었다.¹⁴⁾

(2) 中立國 監視委員會

한반도에서 새로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4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 감시위원회(NNSC)의 과업이었다.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회는 지정된 남북한 각 5개 출입항—즉, 한국의 인천·대구·부산·강릉·군산과 북한의 신의주·청진·홍남·만포·신안주—을 경유하여 교체되는 병력, 군사 장비 및 탄약에 대한 감독·감시·시찰 그리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공동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며, 그중 2명은 유엔군측에서 지명한 중립국인 스위스와 스웨덴이 임명하고 다른 2명은 공산군측

에서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임명하였다.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지원한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동 위원회는 최초 20개의 중립국 감시소조를 설치하되, 이중 남북한의 지정된 출입항에 각각 5개조씩, 10개 소조를 주재시키며, 나머지 10개는 예비 이동감시소조로서 중립국 감시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키도록 하였다. 이동감시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이동감시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소조는 오직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았다.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설치하며, 주요 임무는 위원 및 중립국 감시소조를 통하여 지정된 출입항에서 군사 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규제하기 위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고 보고된 지점에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진행하는 것이었다.¹⁵⁾

동 위원회가 해당 심의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할 수 없었으며,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소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출두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해서든지 설명해야 하였다.

동 위원회 위원들은 1953년 8월 12일부터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판문점을 뒤로 하고 남북으로 출발하였다. 동 위원회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단의 행동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공산측은 휴전 직후부터 위원단의 활동을 방해하고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처사는 물론 군사력 증강을 위해 감시항 이외

의 루트를 통해서 무기를 반입하고 비행장 및 군사기지를 증축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엔군사령부는 남한에서는 휴전협정 제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던 반면, 북한에서는 적이 체코와 폴란드의 비호하에 다른 출입항구를 통하여 인력과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확인하고 있었다.¹⁶⁾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제한이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되자 이때까지 인내를 거듭하여 온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도 1954년 3월 29일에 이르러서는 그 불만의 뜻을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기하였고, 4월 5일에는 감시를 위한 노력이 완전히 좌절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5월 13일 스위스와 스웨덴 양국 대표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측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산측의 위반 사실의 조사를 요구한 유엔측의 요청이 체코와 폴란드 대표에 의해서 거부된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는 북한에 대한 감시의 실패에 대하여 일체 책임질 수 없음을 부언하였다.

이리하여 양국 대표는 제네바 극동평화회의에 항의서를 제출하고 그들 자신을 북한에 대한 감시라는 불가능한 과업으로부터 해제시켜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로써 휴전협정서에 입각한 휴전 감시 규정은 그 현실면에 있어서 거의 사문화되고 말았다.¹⁷⁾ 그리하여 유엔군사령부는 1957년에 이르러 마침내 “향후부터 남한으로의 군수물자 도입 금지 조항을 무시할 것이며, 제8군과 한국육군의 증강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¹⁸⁾

이와 같이 휴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시위원회 등의 휴전 관리기구가 활동을 개시하면서 휴전협정 이행을 감시하며 포로송환을 비롯한 관련 사항들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포로송환을 위한 수송 대열이 남과 북에서 각각 판문점으로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제 2 절 捕虜送還과 失鄉民 歸鄉

1. 送還希望捕虜 交換

포로송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전협정에 의거 포로송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포로들의 인도·인수에 관한 시간 조절, 공동적십자소조의 포로송환 협조 사업의 조절, 그리고 포로송환을 신속히 실시하도록 감독하는 등 송환에 필요한 관계 업무를 집행하는 공동기구로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었다.

동 위원회는 6명의 영관장교로 구성하되, 쌍방에서 각기 3명씩 임명하고 그 본부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설치하였으며, 포로송환 계획을 완수하였을 때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해산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포로송환위원회를 도와주기 위한 공동기구로서 공동적십자 소조가 구성되었다. 동 소조는 쌍방의 적십자사 대표의 같은 인원수로 구성되며 3개의 소조를 설치하였다.

1개 소조(20명)는 포로교환 장소에서 쌍방의 포로교환을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2개 소조(각조 60명) 중 1개 소조는 유엔군측 관리하의 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포로교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포로에게, 그리고 나머지 1개 소조는 공산측 관리하의 포로에게 봉사하도록 업무를 분장시켰다. 7월 30일 포로송환위원회는 첫 회합을 가지고 쌍방의 포로교환을 8월 5일부터 개시할 것에 합의하였다.¹⁹⁾

이어 8월 3일 판문점 군사정전위는 휴전협정에 따라 쌍방이 포로를 교환하기 전에 합동적십자반으로 하여금 양측의 포로수용소 실태를 시찰하자는데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의거하여 유엔군측 적십자반원들은 북한 및 만주 지역에 있는 북한군측 유엔군 포로수용소를 방문하기 위해 지프차로 개성을 향해 출발하였고 공산군측 적십자반

은 비행기편으로 부산을 향해 출발하였다.²⁰⁾

역시 휴전협정 규정에 있어 가장 관심을 끈 것은 포로교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송환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포로들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으나, 희망하지 않는 포로의 처리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었다.²¹⁾

유엔군은 휴전회담 이후 송환희망포로 전체를 교환하기 위해 소위 빅 스위치작전(Operation Big Switch)과 빅 스위프작전(Operation Big Swap)을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전자는 공산군으로부터 아군포로를 인수하는 일을 취급하였고, 후자는 유엔군이 수용하고 있던 포로 중에서 송환희망포로를 공산군측으로 인도하는 일을 다루었다.

수용하고 있던 포로를 공산군측으로 넘겨주고 또 공산군측으로부터 유엔군 포로를 넘겨받는 일에 관해 이미 상병포로 교환을 통해서 경험한 바 있던 유엔군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였다. 두 경우의 차이점이라면 작전의 규모, 즉 수송해야 할 포로 수에 있었다.

송환을 희망한 포로, 즉 친공포로는 포로 분산작전에 의해 대부분 거제도과 제주도에서 집중 수용되어 있었으므로, 교환지점까지 포로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해로와 육로를 통한 일련의 수송작전을 전개해야만 했다.

송환희망포로 중에서 부상자 및 병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섬에서 부산까지 배로 수송되고, 다시 거기서 문산의 환송지점까지는 기차로 도착하여 최종 교환 지점에는 자동차편으로 이동하였다. 남자 포로들은 섬에 있는 수용소로부터 바다를 통해 인천까지 직접 수송되었으며, 다시 철로와 도로를 이용하여 인천-영등포-문산으로 수송되었다.

한편, 북한 지역의 포로수용소는 압록강 부근에 산재해 있었는데 거의 전부가 교통이 불편한 곳들이었다.²²⁾ 이 무렵 국군 및 유엔군 포로들에게 송환 소식이 전해진 뒤, 이들 포로들은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더 기다려야 할 것인지 불확실한데에 대한 불안감, 공산측 협상

대표들이 자신들의 석방을 무제한 지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등으로 인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²³⁾ 그로부터 며칠 후 각 포로수용소의 포로들은 트럭에 실려 철도역이 있는 곳으로 수송되었으며, 평양과 개성을 경유하여 중립지대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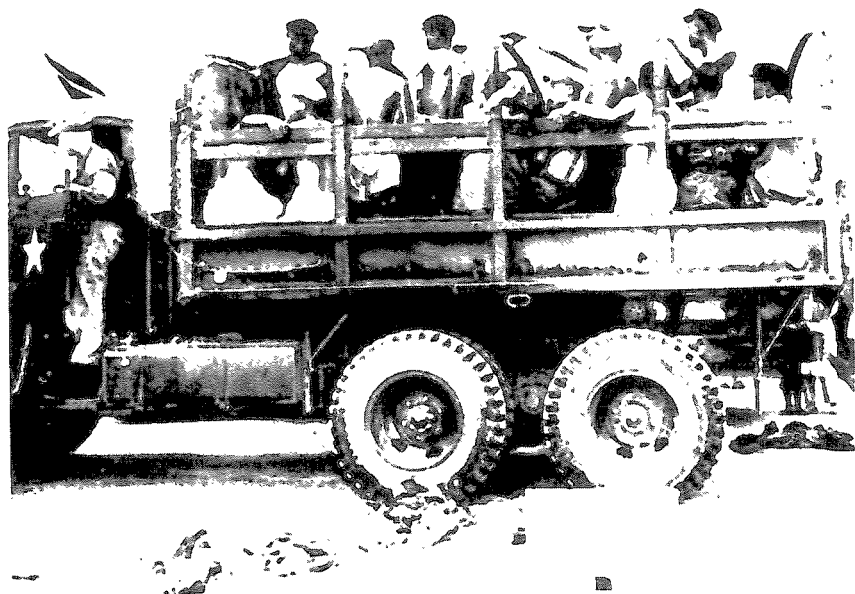
개성에 도착한 유엔군 포로들은 수개의 천막에 분리 수용되어 송환을 기다렸다. 그리고 하루에 몇 명씩 송환 지점으로 수송되어 유엔군 측에 인계되었다. 이때 귀환되었던 미 군의관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가 비무장지대 안으로 소송할 트럭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단 몇분의 시간은 나의 생애 중 가장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다.²⁴⁾

휴전 조인 후 포로교환이 처음으로 실시된 8월 5일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에서는 오전 9시 예정대로 포로교환의 막이 올랐다. 유엔군측에서는 국군 및 유엔군 수뇌들과 수많은 장병들이 이곳에 나와 있었다.

국군측에서는 손원일(孫元一) 국방부장관, 백선엽(白善燁) 육군총참모장이, 유엔군측에서는 테일러(Maxwell D. Taylor) 대장, 웨일런드(Otto P. Weyland) 대장 등이 포로들을 맞이하였다. 많은 장병들의 기대 속에 2개의 소제 앰블런스와 4대의 트럭이 판문점에 도착하면서 포로교환이 시작되었다.

판문점에서 포로가 교환되기 직전 양측의 실무장교들은 교환할 포로 명단을 수교한 다음 이에 따라 먼저 유엔군측 귀환 용사들의 인수가 시작되었다. 제1진 제1조로 편성된 국군 귀환 용사들이 그들이 타고 온 앰블런스에서 하차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정오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군 250명과 유엔군 포로 150명, 모두 400명이 귀환하였다. 귀환 포로들은 거의 병들거나 심하게 부상을 입고 있었으므로 많은 포로들은 다시 서울에 있는 제86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유엔군측은 2,756명의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들을 공산군측에 송환하였다.²⁵⁾



인민군 포로들이 관문점의 공산군측 포로교환장소에 도착하자
유엔군측이 지급한 옷과 보급품을 벗어던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산군 포로들은 새로 지급된 의복을 찢고 여러 가지 보호물을 차버리면서 공산군 사진반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비참한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받은 의복과 약품을 아무데나 내동댕이치는 짓을 연출하였으며, 또 펜츠만 남기고 알몸이 된 이들은 붉은 기를 휘두르며 미친 듯이 공산군 군가를 불러댔다.

한편 이날 문산의 포로 인수 본부에는 때마침 한·미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방한 중에 있던 덜레스 미 국무장관과 그 수행원들이 환영차 나왔으며, 백선엽 대장은 이들 귀환 용사들과 악수를 교환하고 다음과 같은 환영 성명을 낭독하였다.

전우들이여!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가? 본관과 전 장병은 그대들

의 귀환을 환영한다. 불행히도 포로가 되어 괴뢰 도당들의 쇠사슬에 얽매어 자유 대환을 그리던 그 심경을 우리는 알고 한층 더 적개심을 갖고 적진에 포탄을 퍼부었다.

침략자는 드디어 손을 들고 휴전을 요구해 왔다. 전우들은 이제 광명의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다. 전우의 가족, 친지들은 두 손을 들고 그대들을 환영하는 바이다. 전우들 중에 적의 강압에 못 이겨 본의 아닌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충심으로 반성하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하면 전우들의 전도는 양양할 것이다.²⁶⁾

천막으로 가설된 임시 포로 인수 기지에는 군악대와 이동외과병원의 의료팀들이 송환되는 포로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가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포로송환은 계획대로 실시되었다. 병들거나 부상당한 포로와 여자 포로들은 8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 한 번에 120명씩, 매일 3회에 걸쳐 공산측으로 보내졌다. 이후 연일 계속해서 공산군측은 매일 약 400명씩 그리고 유엔군측은 약 2,400명씩 포로들을 판문점으로 수송하여 인도 인수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중 8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은 그 동안 동족상잔의 재앙에서 공산군의 학대에 갇은 고초를 겪고 귀환한 포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여 그들을 격려하였다.

우리 애국 청년들이 무기도 없고 후원도 없을 적에 정성된 마음과 빈손으로 적군에 대항하다가 죽은 군인들도 많았지만 그대들 귀환 용사들은 적군에 잡혀서 포로란 명의로 공산군의 갇은 학대와 굴욕을 지금까지 받다가 살아 돌아오게 되었으니 우리 모든 동포들과 함께 기뻐하며 반가워하는 바이다.

우리는 조국을 재건해서 완전 무궁한 반도 강산을 재건설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뿐이니 계군은 조속히 치유해서 건강을 먼저 회복하여 우리가 훗일에 밀고 올라갈 때에 충성과 단심으로 다같이 전진 또 전진해서 사경에 빠진 우리의 이북 동포들을 구출해 함께 행복

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또 부탁하는 바이다.²⁷⁾

한편 8월 22일 미국 국무장관은 포로송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명을 통하여 지난날 소련이 송환을 약속하였던 독일과 일본 포로들을 억류하였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포로의 귀환을 실현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유엔군측은 모두가 공산군측의 억류 아래에 있는 아군 포로의 일부가 계속 억류를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아군측 일부 귀환병이 시사한 바에 의하면 공산군측은 최근 아군 포로의 일부에게 금고 선고를 내렸다 한다. 이 보도는 본관이 한국으로 향할 당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현재 본관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보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또한 그러한 확정판결이 해당 포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구실로 이용될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우리들은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기울여서 공산측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귀환하고자 하는 포로들을 인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²⁸⁾

결국 8월 5일부터 시작된 포로송환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포로교환시 9월 4일 딘(Arthur H. Dean) 소장도 37개월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하였다.²⁹⁾ 따라서 9월 6일까지 33일간에 걸친 포로송환계획(Big Switch/Big Swap)은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기간중에 실시된 송환포로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와 같이 송환희망포로의 교환이 완료된 직후 판문점을 통해 자유를 찾아 온 국군과 유엔군 귀환병사들은 너나 없이 자신들이 겪은 북한에서의 참담한 억류생활의 전모를 털어놓아 유엔측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하나의 커다란 충격적인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송환포로 현황³⁰⁾

(단위 : 명)

		상병포로	송환희망포로	총 계
유엔군측	한 국	471	7,862	8,333
	미 국	149	3,597	3,746
	영 국	32	945	977
	터 키	15	229	244
	필 리 핀	1	40	41
	캐 나 다	2	30	32
	콜롬비아	6	22	28
	호 주	5	21	28
	프 랑 스		12	12
	남아연방	1	8	9
	그 리 스	1	2	3
	네덜란드	1	2	3
	벨 기 에	1		1
	뉴질랜드	1		1
	일 본	1		1
계	684	12,773	13,457	
공산군측	북 한	50,640	70,183	75,823
	중 공	1,030	5,640	6,670
	계	6,670	75,823	82,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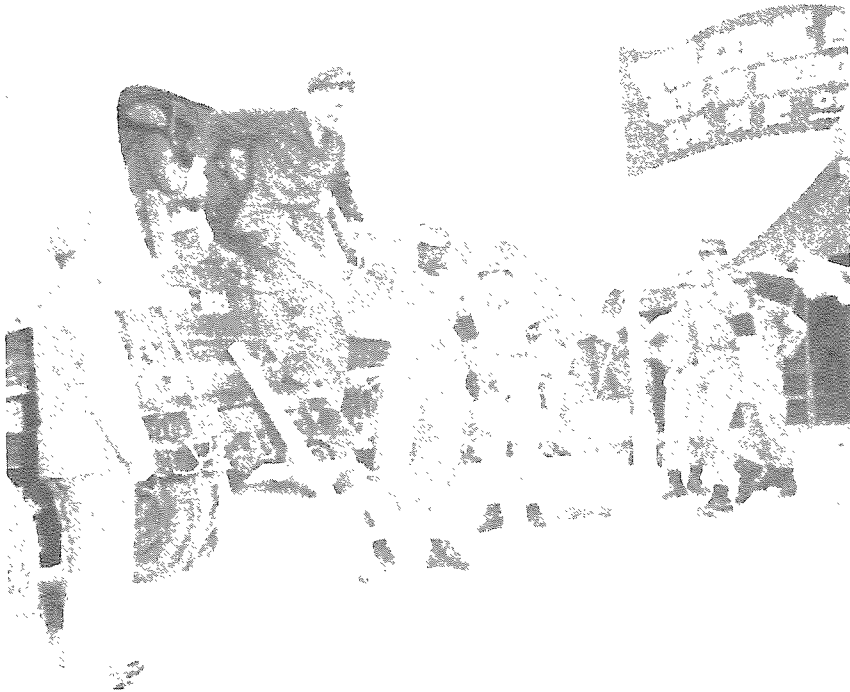
상병포로 및 송환희망포로의 송환예정과 최종송환 현황 비교 (단위 : 명)

구 분	상병포로	휴전후 송환포로	계
공산군측이	(450) 471	(8,186) 7,862	(8,536) 8,333
유엔군측에	(150) 213	(4,578) 4,911	(4,728) 5,124
인도한 포로	(600) 684	(12,764) 12,773	(13,364) 13,457
유엔군측이	(5,100) 5,640	(69,000) 70,183	(74,100) 75,823
공산군측에	(700) 1,030	(5,640) 5,640	(6,340) 6,670
인도한 포로	(5,800) 6,670	(74,000) 75,823	(79,800) 82,493

() 안의 숫자는 송환예정인원이며, 표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송환된 인원.

대체적으로 말하여 포로들에 대한 치료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는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다. 전쟁이 일어난 후, 9개월 동안 유엔군 포로들은 사실상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1950년 가을과 겨울, 그리고 1951년 초에 잡혔다가 돌아온 포로들은 구타, 강제행진, 수용소의 인원 초과와 비위생적 상태, 식량과 의복의 부족으로 환자들이 막심한 고생을 하였다고 모두 실토하고 있다. 공산군은 중병자 및 중상자를 돌볼 조처를 강구하라는 요구에 못이גיע 되자 온수를 주는 것만으로 치료에 대신하였다.³¹⁾

또한 국군과 유엔군측은 송환희망포로들을 모두 송환한 반면, 공산군측은 국군 포로 중 많은 포로들을 송환하지 않고 억류시켰으며, 또



빅 스위치작전 동안 석방되는 유엔군 포로

한 귀환 포로 중 장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³²⁾ 지금까지 국방부가 추산하고 있는 실종된 국군은 6·25 전사자 관련 각종 기록과 국내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392명으로 밝혀지고 있으며,³³⁾ 이러한 사실은 당시 귀환된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³⁴⁾

2. 送還不願捕虜의 處理

송환 불원 포로 즉, 양측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 중 전쟁이 끝나더라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포로들은 1953년 6월 8일에 조인된 포로 협정(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과 7월 27일에 조인된 휴전협정에 대한 임시적 보충 협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되어 되었다.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인도,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인도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인도대표는 위원장과 집행관 및 심판관을 겸하도록 하였으며, 4개국 대표는 각각 50명 내의 동수의 참모보조인원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인도는 이들 포로를 인수 및 관리할 부대를 파견하도록 하였다. 인도는 티마이어 중장(K. S. Thimayya)³⁵⁾을 위원장에 임명하였다.

중립국 송환위원회와 인도 관리군을 위한 주둔지 준비는 유엔군사령부가 맡아서 8월 한 달 동안 작업을 하였다. 또 9월 초에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인도측 위원 및 인도 관리군과 스위스, 스웨덴 위원들이 유엔군사령부의 협조로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인도의 친공성을 문제삼아 인도군은 한치의 땅도 뺏게 할 수 없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경한 반대로, 인도군은 미군의 지원하에 헬리콥터 편으로 비무장지대까지 이동하였다. 인도군은 토랏(P. P. Thorat) 장군이 지휘하는 총병력 3,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약

2만 3천 명의 포로들을 인수하여 경비하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기본임무이었다.

한편, 9월에 들어서자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각각 송환불원포로들의 수용 시설과 설득 장소의 설치, 포로의 이송 업무에 착수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포로들을 비무장지대로 수송하는 동안 그후 120일의 기간 포로들의 공포심을 가라앉히고 불신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세심한 계획을 세웠다. 또한 송환불원포로들의 안전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⁴⁶⁾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9월 9일 첫 회합을 가졌으며, 유엔군측은 다음날부터 송환불원포로들을 인도 관리군에 인계하기 시작하였다. 11일에는 한국측 설득 위원인 윤하중 육군중령 등 6명이 송환을 원하지 않는 한국군 포로의 설득을 위하여 판문점으로 갔다.



거제도를 떠나는 반공포로

유엔군측은 9월 23일까지 총 22,604명³⁷⁾의 송환불원포로들을 인도 관리군에 인도하였으며, 공산군측은 단지 359명³⁸⁾만을 24일에 인도 완료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인도 관리군에 의한 제2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도 관리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정부측에서 경고하였듯이, 친공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친공적인 언행이 사병들 사이에서 노출되어 송환불원포로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인도군측은 포로들의 의사에 반하여 설득 작업을 추진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군의 총탄에 반공포로가 사살되는 불상사가 초래되기도 하였다.³⁹⁾

한편, 공산군측은 외교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하여 이들 송환불원포로들에 대한 설득 공작을 전개하고 폴란드와 체코 대표를 통하여 의장국 인도의 대표를 조종하고, 또 위협과 공갈 수단을 통하여 포로들을 설득하고자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공산군측은 “송환을 불원하는 포로들에 대하여 집단적 그리고 개별적으로 반복 설득을 전개하되, 하루에 최소 8시간의 설득 시간을 보장할 것”을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요구하였다.

공산군측의 이와 같은 요구는 포로들에겐 설득이라기 보다 오히려 고문이 될 수 있었으며, 설득 과정이 자의가 아니고 강제성을 띠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유엔군측이 계속 주장해 왔던 자원송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측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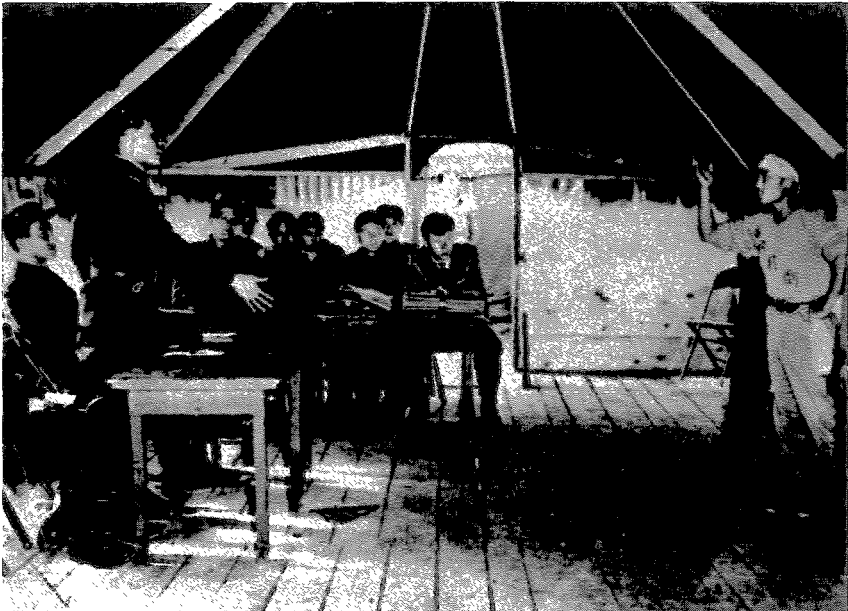
이 무렵 반공포로들은 면접을 거부하고 “공산 괴뢰는 물러가라”고 촉구하면서 데모를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일부의 포로들은 수용소의 철조망을 넘어 탈출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설득 업무는 쌍방의 의견 대립으로 지연되다가 10월 7일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공산군측의 강제 설득 주장을 부결시키고 15일부터 송환불원포로들에 대한 설득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기간중 유엔군 지역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들은 불안한 심

정으로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한국정부나 유엔군사령부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송환불원 포로들의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립국 송환위원회 의장국인 인도 관리군이 포로들의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수용소의 간부들은 밀사를 파견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기 시작하였다.

포로들의 설득 업무는 총 16개소의 천막에서 각 천막당 2개소씩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각 방마다 250명씩 차례를 기다리게 하는 대기실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10월 15일이 되자 공산측은 반공포로에 대한 설득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설득의 강요는 유엔측의 말대로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었다. 포로들은 대다수가 면접조차도 거부하는 상황이었다.⁴⁰⁾



포로 설득 장면(반공포로의 가슴에 '적구타도'라 써 있다)

먼저 중공군 출신 포로에 대한 설득에서는 출석한 500명 중 번의 하여 중공으로 가기를 희망한 자는 불과 7명에 불과하였다.⁴¹⁾ 다음날 16일에는 북한 출신 포로에 대한 설득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들의 출석 거부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앞으로의 설득 작업에 적지 않은 파란을 예고해 주었다.

설득이 부질없음을 알게 되자 공산측은 10월 19일부터는 전술을 바꾸어 설득을 일방적으로 중지해 버리고 역으로 설득을 거부할 태세로 나왔다. 공산측의 의도는 중립위의 설득 방법에 관한 규정을 방패삼아서 90일의 설득 기간의 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여 포로들을 억류하자는 심산이었다.⁴²⁾

우여곡절 끝에 10월 31일, 북한 출신 포로에 대한 설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설득이 재개되긴 하였어도 포로 전부가 번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공산군측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다.

공산측 설득반은 “인민공화국의 대표로서 동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처자와 조국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⁴³⁾ 라고 말하면서, 자기 앞에 앉은 송환불원포로에게 상병포로 교환 당시 북한으로 가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람과 평양 시가를 촬영한 사진을 내놓기도 하면서 포로들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큰 효과가 없었다.

설득 기한이 임박하게 되자 공산측은 그 본심을 드러내어 설득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시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실지로 설득이 실시된 기간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엔측은 강경한 태도로 공산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12월 22일에는 유엔군사령관 헐(John E. Hull) 대장⁴⁴⁾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경으로부터 비래하여 중립국 송환위원회 인도 대표 겸 위원장인 티마이어 중장과 회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티마이어 중장이 23일로써 설득 기한이 종료됨을 공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⁵⁾

한편, 국군과 유엔군 출신 포로에 대한 설득 작업은 12월 2일부터 개시되었다. 국군 출신은 국군으로부터, 미군포로는 미군으로부터 그

리고 영국군 포로는 영국군으로부터 각각 설득을 받았으나 성과는 별로 없었다. 이미 포로들이 설득장에 나오기 전에 공산군측의 세뇌 공작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시종 설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⁴⁶⁾

결국 포로 설득 기간이 만료된 12월 23일까지 공산군측이 실제 설득한 일수는 10일간이었으며, 귀환을 희망한 자는 불과 628명이었다. 그리고 유엔군측의 설득 일수는 8일간이었으며 귀환한 자는 10명이었다.

이와 같이 송환불원포로에 관한 설득과정은 12월 23일에 종결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송환에 반대하는 잔류 대다수 포로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휴전협정에 의하면 그 처리는 정치위원회에서 30일 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때 열렸어야 할 정치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엔군사령관은 이날, 1953년 12월 23일로 포로 설득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이후 30일이 경과한 1954년 1월 22일에 석방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⁴⁷⁾

그러나 공산측은 전후 10일밖에 설득을 실시하지 못한 책임을 유엔측에 돌리고 설득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뿐 아니라 포로 석방 조치는 정치회담에서 최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공산측의 설득 기간의 연장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12월 27일에 채택된 포로 설득에 관한 보고서에서 공산측의 주장 중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었다. 인도가 폴란드 및 체코와 결부함으로써 3대 2의 다수 표로 이와 같은 보고서를 채택시켰던 것이다.⁴⁸⁾ 인도 관리군은 쌍방이 포로 석방 기일에 합의하지 않는 한 석방 여부는 인도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반공포로 석방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갖추고 있던 중, 마침내 인도군의 티마이어 중장은 본국에 이 사정을 보고하고 “기한이 만료되어도 거

취가 결정되지 않은 포로들은 즉시 양측의 관하로 넘긴다”는 유권해석을 받게 되었다.⁴⁹⁾

따라서 티마이어 중장은 우선 이 사실을 포로들에게 알리고 1월 18일 유엔군사령관 헐 대장에게 서한으로 전달하였다. 이 결정이 통고되자 공산측은 이것을 즉각적으로 거부하였다. 결국 인도의 결정에 근거하여 2만 1천여 명의 반공포로들은 1954년 1월 20~21일 양일간에 걸쳐 중립지대의 포로수용소로부터 유엔측에 인수되어 23일 오전 0시를 기해 민간인의 자격으로 복귀되었다.

23일에는 한국과 자유중국 그리고 유엔군의 관계관 참석하에 반공포로 인수식이 정식으로 거행되었다. 대만으로 가려고 하는 반공포로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15척의 LST가 투입되었다. 이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4척의 구축함이 동원되었고 경비를 위해 미 제3해병사단 제4해병연대의 병력이 배에 탑승하였다. 중국인 반공포로는 인천에서 즉시 대만으로 송환되어 반공의사로서 거국적인 환영을 받았다.⁵⁰⁾

이날 1월 23일 유엔군사령관은 반공포로 석방에 관한 성명에서 금일부터 반공포로들은 민간인으로서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고 또한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한국정부에서도 외무부장관의 성명을 통하여 대공 투쟁에서의 승리를 얻었음을 천명하였다.⁵¹⁾ 이로써 그 누구의 주권도 미치지 못하는 비무장지대에서 반공 일념으로 끝까지 공산군과 대결한 반공포로들은 자유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공산측도 중공 및 북한측 적십자사의 명의를 빌려서 28일에 잔류한 송환불원포로를 인수하여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석방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한국을 선택한 반공포로들은 1월 20일 오전 10시 33분에 비무장지대의 남측 경계선을 넘기 시작했으며, 국군과 유엔군사령부 고관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들이 탄 첫 열차는 12시 14분에 자유의 다리를 출발했으며, 그 이동은 다음날 새벽 2시 25분에 마지막 열차가 대전에도착함으로써 끝났다. 병원 열차 2대를 포함해서 9대의 열차가 그들

을 수송하기 위해 동원되었다.⁵²⁾

유엔군사령부, 한국, 대만 대표자들은 1월 23일 북한 또는 중공으로 송환되기를 반대하고 유엔군측으로 전향한 21,839명(북한인 7,604명, 중공인 14,235명)의 전 포로들을 인수하고 그 인수중에 서명하였다.

인도 관리군은 2월 7일부터 철수를 개시하여 최종 부대가 인천항을 출발하여 21일까지 이항을 완료하였으며,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2월 16일에 해산하여 21일까지 잔무 처리를 위해 판문점에 잔류하였다.⁵³⁾ 2월 19일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그리고 대만정부 대표들은 지금까지 포로에 관계되는 전체 작전을 마감하는 절차로서 귀환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에 서명하였다.⁵⁴⁾

공산군 송환불원포로 처리 결과⁵⁵⁾

	북한군	중공군	계
공산군측으로의 귀환	188	440	628
탈출 및 행방불명	11	2	13
인도군의 관리중 사망	23	15	38
인도로 이송	74	12	86
유엔군측으로의 전향	7,604	14,235	21,839
총 계	7,900	14,704	22,604(명)

국군 및 유엔군 포로 송환불원포로 처리 결과⁵⁶⁾

	국군	미군	영국군	계
유엔군측으로 귀환	8	2		10
인도로 이송	2			2
공산측으로 전향	325	21	1	347
총 계	335	23	1	359(명)

3. 失鄉民 歸鄉

휴전협정 제3조 제59항에 의하면 실향민에 관해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공산군측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유엔군사령관 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한다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전 쌍방은 실향민을 그 자유의사에 따라서 상호 교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유엔군과 공산군측의 대표 각각 2명씩의 영관장교급 위원으로 하는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실향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집행을 감독하는 공동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4명의 영관장교로 구성하되, 쌍방에서 각기 2명씩 임명하고 그 본부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임무 완수시 해산하도록 하였다.⁵⁷⁾

본 위원회는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임무가 완수된 때 즉시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 한시적인 기구였다.

전쟁 중 공산측에 납치당한 애국 인사는 정부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84,532⁵⁸⁾명이라는 막대한 숫자에 달하고 있으므로 한국측으로서는 실향민 귀향 문제가 포로 문제 못지않은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

었다. 따라서 교환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피랍 인사의 가족은 물론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모두 그 문제에 주목되었다.⁵⁹⁾

송환불원포로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간 1953년 12월 11일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는 판문점에서 첫 회합을 갖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쌍방은 첫 회합에서 교환 지점, 시간, 동반 가족 범위, 그리고 소지품 휴대 허용 등의 문제에는 합의를 이루었으나, 교환 인원에 대해서는 유엔군측이 1일 500명을 주장하고 공산군측이 100명을 주장하게 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제2차 회합(12월 29일)에서 유엔군측이 양보하여 1일 100명씩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1954년 3월 1일부터 귀향하도록 원칙적인 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처럼 실향민 교환에 합의를 보게 되자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실향민 신고 기간(1954. 1. 5~2. 17)을 설정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공지하였으며, 북한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실향민의 신고도 접수하였지만 이에 대한 실적은 극히 부진하였다. 실향민 귀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컸지만 월남한 북한 주민들은 공산치하가 싫어서 피난 온 사람들이었으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북한은 2월 15일 남한으로 송환을 원하는 피난민은 북한 내에 단 1명도 없다고 방송하였다. 북한의 발표가 있는 지 3일 후인 18일, 유엔군측은 남한에서 등록을 마친 30여 명의 명단을 공산군측에 제시하였지만, 공산군측은 귀향을 희망하는 한국인은 1명도 없으며 다만 외국인 10여 명이 귀향을 희망하고 있다고 통고해 왔다.

3월 1일, 공산군측은 그들이 통고한 바와 같이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19명(터키인 11명, 백러시아인 8명)을 유엔군측에 인도하였다. 유엔군측은 다음날 37명의 한국인을 공산군측에 인도하였다. 당초 귀향 신청은 39명이 하였으나, 교환 직전에 남파 간첩으로 판명된 2명이 한국 수사 당국에 의하여 체포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공산군측은 납북 인사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억류하였

으므로 국내는 물론 전 자유세계에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 그들은 실향민들에게 귀향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귀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사의 표시를 보장하지 않는 등 휴전협정을 위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가 보장되고 그것이 국제적 구성과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한 실향민 귀환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한반도 내에서의 휴전협정 제 조항의 이행은 일단락되었으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대치의 상태하에 마지막으로 정치회담에 평화 통일의 기대를 걸게 되었다.⁶⁰⁾

제 3 절 政治會談의 決裂

1. 유엔 總會의 措置

휴전협정에 의하여 송환희망포로들에 대한 교환이 판문점에서 한창 진행중이던 1953년 8월 7일, 유엔군사령부는 휴전회담의 경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총회에 보고하였다.⁶¹⁾ 유엔은 이 보고서를 접수, 인준한 후 협정에 규정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회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주로 정치회담 참가 범위와 의제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이 무렵 8월 4일 한국을 방문한 덜레스 미국무장관 일행은 그 동안 이승만 대통령과 네 차례에 걸쳐 한국 통일 방안을 비롯하여 앞으로 개최될 정치회담에서 취할 한·미 공동정책 문제, 대한 경제원조 문제 및 군사원조 문제, 그리고 한·미 공동방위조약 문제 등에 대해서 7일까지 토의를 계속하였다.

정치회담에 관해 한국이 먼저 제시한 대목은 회의 참가 범위였다.

한국의 입장은 한국·미국·중공·북한만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측 덜레스가 이에 반대함으로써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었으나 소련과 인도만은 회의에 참가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때를 맞추어 국회에서도 전쟁에 참전한 국가만이 정치회담에 참석하며, 회의는 일정 기한 내에 개최하고, 한국 주권에 상반되는 결정은 용납치 않는다는 골자의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덜레스와의 회담에 임하는 이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였다.⁶²⁾ 이렇게 광범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난 한·미 양측은 8월 8일 경무대에서 변영태(卜榮泰) 외무부장관과 덜레스 국무장관이 한·미 수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였다.⁶³⁾

이승만-덜레스 회담을 통해 한국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무엇이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서명하고 있다)

다는 것을 미국으로 하여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날 양국은 한국의 통일을 포함한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차후 90일간의 정치회담에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국이 동 회담에서 탈퇴하겠다는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들의 우호적이며 이해 깊은 협의는 한국의 통일을 포함하는 우리의 공동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견지하려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결의를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일 상호방위조약안에 가조인하였다. 이 조약은 공동위협에 대처하려는 공동조치에 있어서 우리 두 나라를 단합시키는 것이며, 이는 또한 한국에서 공산침략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를 단결시켰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 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되어 휴전협정 조항을 준수할 것이다. 만약 이 기간내에 공산군이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불의의 공격을 가할 경우에는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사령부는 이 불의의 공격을 유엔군사령부 자체와 동 사령부 휘하의 군대에 대한 공격 및 위협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이며 자동적인 반격을 가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체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고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바이나, 합의를 본 정치회담 기간에는 군사적 수단으로써 한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일방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다.⁶⁴⁾

이 무렵 1953년 8월 17일 미국 뉴욕 시에 자리한 유엔 전당에서는 유엔 임시총회가 개막되었다. 휴전 성립 후에 있어서의 최대의 과제는 정치회담의 개최였다. 임시총회에서는 주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휴전협정과 장차 다루게 될 휴전협정문 제4조 제60항에 의거한 정치회

담 문제가 논의되었다.

원래 휴전협정에서는 휴전 후 3개월, 즉 1953년 10월 27일 이전에 정치회담을 가져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성격이나 구성 및 방식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정이 없었으므로 유엔 총회에서는 개회 벽두부터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⁶⁵⁾ 임시총회 개막 첫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엔 한국참전 16개국의 “한국 휴전에 관하여 유엔에 제출한 유엔 한국 파병국의 결의안”을 제출하여 “한국에 파병한 유엔회원국 중 원하는 경우 정치회담에 참석시켜야 하며, 유엔의 대한원조 및 부흥계획에 공헌하도록 호소한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⁶⁶⁾

이로써 미국은 정치회담 개최에 대해 공산군측과 교섭을 하게 되었다. 다음날부터 총회 정치안전보장위원회에서는 한국 문제 정치회담에 관하여 토의를 개시하였다. 이 회의석상에서 소련의 유엔 대표는 한국 문제 토의에 중공과 북한의 대표를 초청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그 제의가 미국 등 자유진영 회원국 대표들에 의해 거부되자 다시 전혀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다음 유엔 총회에서 중공의 유엔 가입을 요청할 것이며, 앞으로 개최될 한국 문제 정치회담에는 11개국⁶⁷⁾이 참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유엔 총회에서는 정치회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거론된 토의 내용은 소련과 인도의 참가 여부를 논하는 참가 범위 문제와 한국 문제 토의에 중공의 유엔 가입도 다를 것이냐 하는 의제 문제로 집약되었다.

소련이 제안한 11개국에는 소련과 인도가 포함되었으며,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4개국 중에서는 스위스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빠짐으로서 처음부터 형평을 잃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이에 반박하였으며 자유진영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을 지지하면서 소련의 제안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인도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제의 여부가 논쟁의 초점이 되었

다. 이 문제는 정치회담의 성격과 구성 및 방식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한국 문제 정치회담은 휴전 사항의 일부이므로 순전히 교전 쌍방에만 관계되는 문제라고 보는 견지에서 교전 쌍방에 의한 대좌 방식을 취하여야 하며 공산측이 원한다면 소련의 참가를 허락하되 공산측의 일원으로서 참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⁶⁸⁾

소련측에서는 한국 문제는 아시아의 일반적인 제 문제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정치회담에는 제 국가 특히 인도를 위시한 제국들이 참가하여야 마땅하다는 구실하에서 중립국을 참가시키는 원탁회의 방식을 강경히 주장하였다.

소련측안에는 두 가지 의도가 내포하고 있었다. 하나는 회의 결정에 대해 중공이나 북한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려된 것이었고, 또다른 한가지는 한국에 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었던 점이다.⁶⁹⁾

이에 20일 미국의 대표는 인도의 정치회담 참가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만일 총회에 상정되면 미국은 이에 대해 반대투표를 할 것이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또 이날 스웨덴은, 비신스키 소련의 유엔 대표가 지난 18일 스웨덴을 포함하는 11개국을 한국 정치회담에 초청할 것을 유엔정치위원회에 제안하였지만, 정치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또한 유엔 총회 의장(캐나다 외상)은 앞으로 개최될 정치회담에서 미국, 한국, 중공과 북한이 거부권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이들 4개국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한 정치회담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건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치회담 참가국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던 24일 유엔 총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던 한국의 외무장관은 정치안보위 연설을 통하여 “한국은 한국 문제의 공정한 해결과 정치회담 참가를 희망하나, 한국 문제 해결은 대공 유화로서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치회담에 인도 대표의 참가를 반대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오

늘날 분주히 선전하고 있는 한국의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의 관념은 그 출처 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내 군사적 진공상태를 조작하고자 하는 공산 도당들의 생각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본 대표단의 의견으로서는 이 문제가 극히 경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결론을 지었다.⁷⁰⁾ 그리고 “유엔에 인도 참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것을 인정하나, 한국에도 정치회담 참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한국 대표의 연설을 계기로 정치안보위에서는 한국 문제 정치회담 참가국 문제로 열띤 논쟁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27일 표대결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전쟁에 과병한 유엔 15개국⁷¹⁾과 한국은 앞으로 개최되는 정치회담에 유엔군측 대표로서 참가할 수 있다는 자유진영측 결의안이 찬성 42, 반대 7, 기권 10으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유엔 정치위원회에서의 표결에 뒤이어 자유진영측은 한국 정치회담 구성국의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구성국을 15개국⁷²⁾으로 하자는 소련의 결의안을 반대 41, 찬성 5, 기권 13으로써 부결시키고 말았다.

이처럼 소련의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고 난 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이 한국 정치회담에 인도만을 초청하자는 결의안을 다시 정치위원회에 제출하자 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21, 기권 11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인도 대표가 스스로 불참하겠다는 동의를 제출하였으므로 총회에서의 표결은 보류되었다.⁷³⁾

이리하여 28일 유엔 임시총회 본회의 석상에서 한국 정치회담 개최에 관해 서구측에서 제안한 결의안을 찬성 45, 반대 5, 기권 10으로 가결시켰으며, 그 뒤를 이어 공산측이 희망한다면 소련을 정치회담에 참가시키자고 권고하는 호주, 뉴질랜드 2개국 공동 결의안을 찬성 55, 반대 1, 기권 1로 가결시켰다. 총회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한국 문제에 관한 결의안(총회 결의 711-VII)을 채택하였다.

1. 한국 휴전협정 제60항의 이행

- 1)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쌍방의 군사령관은 휴전협정의 조인 및 효력발생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으로부터의 전 외국군의 철군,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제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쌍방의 고위정치회담이 각각 임명된 대표자들에 의해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을 쌍방의 관계 제국정부에 건의한다는 휴전협정에 포함된 건의를 명기한다.
- 2)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이다.
 - 가) 한국에 파병한 유엔군측은 유엔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 파병국 중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참석하고자 하는 국가를 참가국으로 정한다. 참가국 정부는 회담에서 독자적으로 완전 자유로운 행동을 취할 것이며, 그들이 고수하는 결정이나 협정에 대해서만 제약을 받을 것이다.
 - 나) 미국정부는 상기 가)항에서 언급될 정치회담 참가국과 협의 후 쌍방이 만족할 만한 시간과 장소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정치회담을 개최하되, 1953년 10월 28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한다.
- 3) 한국에 대한 원호 및 부흥계획을 수행하려는 유엔의 의도를 재확인하며 본 사업에 공헌하도록 유엔 회원국에 호소한다.
2. “휴전협정 제60항의 이행”이라는 결의를 채택하며, 만약 상대방이 희망하면 소련의 한국 정치회담 참가를 권고하는 바이다.
3. 제7차 유엔 총회에 제출되어 유엔 총회가 권고한 한국문제에 관한 여러 제안 및 동 제안과 관련된 유엔 총회의 의사록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와 북한당국에 통고할 것과 그 결과를 유엔 총회에 보고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⁷⁴⁾

이러한 경위를 거쳐 휴전 후 3개월 기한의 만료일인 10월 26일에 판문점에서 정치회담을 위한 준비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⁷⁵⁾ 이로써

약 2주간의 유엔 임시총회는 한국 문제 정치회담에 관한 토의를 마치고 폐막되었다.

2. 板門店 豫備會談 接觸 霧散

유엔 총회로부터 한국문제 정치회담 개최를 위한 공산측과의 교섭을 위임받은 미국은 “정전협정 제60항과 1953년 8월 28일자 유엔 총회의 결의 제711-VII호”에 따라 관계 각국 정부 대표간의 고위급 정치회담이 개최되기에 앞서 판문점 예비회담 개최를 서둘렀다. 9월 1일 북한과 중공에 각서를 전달하여 “정치회담을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또는 제네바 중에서 1953년 10월 15일에 개최하기를 희망하며, 즉시 회담 준비에 착수하자”고 제의하였다.⁷⁶⁾

그러나 북한과 중공은 9월 13일 정치회담 개최에 따르는 장소와 시일에 대해 질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 왔다. 이러한 서한을 접수한 유엔 사무총장은 이 서한을 즉시 미국정부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9월 18일 정치회담의 장소와 시일에 관한 각서를 공산측에 전달하였다.⁷⁷⁾

대한민국과 더불어 유엔군총사령부에 군대를 파병한 회원국 대표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스웨덴 정부의 호의로서 전달된 1953년 9월 5일부 귀축에 대한 아축의 통첩 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또는 제네바에서 1953년 10월 15일에 정치회담을 개최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즉시 회담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고로 귀축 양정부가 수락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일에 관해 조속히 회담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그러나 공산측은 이에 대해 2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태도 표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10월 8일 또다시 공산측의 태도 표

명을 촉구하는 각서를 공산측에 보내었다.⁷⁸⁾ 미국은 좀더 성의를 보이기 위하여 중전의 입장에서 다소 양보하여 정치회담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정치회담이 개최된 뒤에 다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우선 정치회담의 개최를 위한 준비 회의를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공산측은 이 제의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이 각서가 공산측에 전달된 지 이틀 만인 10월 10일 중공은 비로소 정치회담 소집을 토의하기 위해 판문점 정치예비회담에 대표를 파견하겠다는 다음과 같은 각서를 보내 왔다.

- 1) 정치회담을 조속히 소집할 목적하에 중공정부는 북한정부와 협의한 결과 정치회담 문제에 관한 토의를 위해서 미국대표와 회합할 아측 양 정부대표를 임명할 것에 동의하는 바이다.
- 2) 이 토의에 있어서는 정치회담의 장소 및 시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 즉 동 회의 참가국 구성에 관한 결정을 보아야 할 것이다.
- 3) 이 토의는 한국에 있어서의 양 교전국가측의 대표만이 참가하므로 그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자는 것이 적합한 것이다.⁷⁹⁾

이상과 같은 각서 내용으로 보아, 공산측은 유엔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정치회담 참가국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의도와 세계의 관심을 판문점으로 쏠리게 하여 그들의 선전공세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등 참전국들과 신중하게 협의를 거친 후, 중공의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10월 12일 판문점 정치예비회담에 미국측 대표의 파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산측에 전달하였다. 또 10월 20일에는 예비회담 대표명단을 포함하여 미국은 예비회담이 “단순한 사전 협의에 불과하며 여하한 본질적인 문제도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새로운 각서를 보냈다.⁸⁰⁾

이러한 미국측 각서가 공산측에 전달된 2일 후인 10월 22일 판문

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는 공산군측이 26일에 개최 예정인 판문점 예비회담 장소를 비무장지대 내에 설정하자는 유엔군측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23일 변영태 외무장관은 통일방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정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천명하면서 판문점 예비회담에는 한국 대표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10월 26일 오전 11시 판문점의 새로 건립된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예비회담이 개막되었다. 유엔측 대표는 미국 무장관의 법률고문 딘(Arthur H. Dean)과 한국의 외무부 차관 조정환(曹正煥), 이수영(李壽榮) 대령이었으며, 공산측 대표는 중공의 외무성 고위 관리인 황화(黃華 : 후에 중공 외상)와 북한의 문화선전성 부상 기석복(奇石福)이었다.⁸¹⁾

난산 끝에 햇빛을 보게 된 판문점 예비회담은 의사일정 문제에서부터 난항을 거듭하였다. 회담이 시작되면서 유엔측 대표는 “예비회담을 11월 24일 이내로 끝내고 이날로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정치회담의 일시, 장소 그리고 행정 등 기타 문제를 결정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공산측은 회의 벽두부터 8월 28일 통과된 유엔 결의안의 무효화를 기도하였다. 첫날 회담은 그들이 다시 정치회담 참가국 문제를 들고 나오으로써 쌍방 대표들간에 의견이 대립된 채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후 회담에서도 여전히 공산군측은 예비회담의 제1의제로서 정치회담 구성 문제를 취급해야 한다고 제의하고 나오자, 유엔측의 딘 대표는 공산측이 구성국 문제를 계속 고집한다면 정치회담은 결코 개최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회담을 휴회하였다.

그러나 11월 3일 제8차 회의에서 미국측이 우선 토의를 주장하는 정치회담 개최의 시일 및 장소 문제와 공산측의 구성국 문제를 동시에 병행 토의하자는 미국측의 타협안이 가결되고 이어서 역시 미국의 발의로 양 제의의 병행 토의를 위한 2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토의를 거듭하는 사이에 양측이 양보하여 대좌 방식을 취할 것과 소

런 이외의 중립국을 고문으로 참가시킬 것 등에는 대체로 합의를 보게 되었으나 소련의 참가자격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대립되었다.⁸²⁾

공산측이 참가 범위 문제를 회의 벽두에 제기한 저의는 8월 28일 유엔 결의안을 무효화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장기적인 지연작전을 펴으로써 참전국간의 의견 차이를 조성, 미국 입장을 약화시키고 압력을 가할 요소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예비회담은 그날이 그날처럼 중립국 참가 문제와 회담 장소 문제로 논란만을 거듭하였으며, 비밀 고문회의를 시도해 보고 분과위원회도 설치하여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당초의 주장에서 일보도 진전하지 못하였다.

11월 30일 공산측은 소련을 타 중립국과 같이 고문의 자격으로 참가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최후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에 한해서는 조금도 타협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소련을 중립국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거듭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12월 8일 유엔측 대표는 마지막 제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협정 초안을 제시하였다.

- 정치회담 참가국 : 유엔 참전국과 한국, 북한, 중공 및 소련
- 회담 장소 : 제네바
- 회담 일시 : 예비회담 종료 후 28일간에서 42일간 이내 개최
- 절차 규정 : 쌍방 합의로 결정
- 공인 언어 : 영어, 한국어, 중국어⁸³⁾

그러나 공산측은 곧바로 유엔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나왔으며, 12일에는 미국이 휴전회담시 불신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날 공산측은 정치회담과는 하등의 관련도 없는 이대통령의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에 대하여 언급하여 미국이 한국과 공모하였다고 비난을 퍼붓기도 하였다. 회담 분위기는 험악한 상태로 빠져들었고, 상호 비난과 반박 끝에 이날의 예비회담은 무기 휴회로 들어가고 말았다.

따라서 판문점 예비회담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미국정부는 이 회담이 더 이상 계속된다 해도 하등의 성과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딘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한국정부측도 이대통령이 공산측의 의도를 경고하여 “판문점 예비회담의 원래의 목적은 정치회담의 시일과 장소를 결정함에 있었다. 그러나 공산측은 3개월 이상에 걸쳐 수많은 하등 관계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불필요하게 발언함으로써 회담을 공전 상태로 이끌어 왔던 것이다. 그네들은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또다시 3개월이나 또는 그 이상 회담을 끌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⁸⁴⁾

딘 대사의 증언에 따르면, 공산측은 예비회담에서 유엔군과 미군의 완전 철수, 공산 주도하의 한반도 통일, 한반도 남북의 연립정부 수립, 자유중국의 유엔 축출 및 중공의 유엔 가입, 미국의 대중공·북한 무역제한 해제 등 현실성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⁸⁵⁾

그후 양측은 1954년 1월 18일부터 수차례 가진 예비회담 관계연락 관 회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련의 참가자격 문제로 인하여 회담은 재개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한국 문제는 베를린 4상 회의를 거쳐 제네바 극동평화회의로 이관하게 되었다.

3. 제네바 政治會談 決裂

판문점 예비회담은 소련의 참가 자격 문제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끝내 결렬되고 말았으며, 한국 문제를 위한 정치회담을 제네바에서 열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은 판문점 예비회담이 결렬된 이후였다.

판문점 교섭이 결렬 직전에 있던 1954년 1월 25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통일 문제에 관하여 토의하기 위해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개국 외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었다. 동서 베를린을

왕래하면서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뿐만 아니고 한국과 인도지나 문제도 아울러 거론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거의 모든 의제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가가스로 5대국 회의 문제에만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폐회 전날인 2월 18일 4개국 외상회의에서 “4월 26일 제네바에서 중공을 포함한 5대국과 관계 제국이 회합하여 한국 통일 및 인도지나 휴전 문제를 토의하는 아시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⁸⁶⁾ 이로써 판문점 정치예비회담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자동 소멸되었고, 본격적으로 제네바 정치회담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베를린 회의의 결정은 우리측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특히 정부는 소련이 제네바 정치회담에는 주최국의 하나로 격상되는 것에 대단히 불만스러운 입장이었다.

따라서 제네바 정치회담에 대해 한국정부는 당초 참가를 거부하였고 한국의 동의 없이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유엔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갈홍기 공보처장은 “공산측과의 다른 모든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안된 회의에서도 최종적 합의에 도달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⁸⁷⁾

그러나 한국전쟁 참전국들은 회담을 위한 준비를 계획대로 추진시켜 나갔으며, 미국은 자국의 대표로 델레스 국무장관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대하여 정치회담에서 국가 이익이 침해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참가를 종용하였다. 그리하여 국토 통일과 중공군의 철군을 주장하며 강경히 반대하던 한국은 미국과 수차례의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를 수락하고 대표를 참가시키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회담 참가 선결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2개항을 그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즉,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네바 회의가 하등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퇴장할 것, 한국 문제 토의에 있어서 한국과 공동

보조를 취할 것, 그리고 회의 결렬에 대비하여 국군을 대폭 증강시킬 것 등이었다.⁸⁸⁾

따라서 정부는 4월 19일 변영태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 명단을 발표하였으며⁸⁹⁾, 동시에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특별 성명을 통하여 한국이 제네바 회담에 참가하는 이유를 밝히고, 이번 회담이 평화적 통일을 도모하려는 마지막 시도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한국정부는 제네바 회담 참석을 종용하는 미국의 초청을 오늘 수락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 회의에 참석하기를 오랫동안 주저하였는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1) 우리는 제네바 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크게 의심하여 왔고, 2) 우리는 이 회담으로 말미암아 공산군측에 전쟁준비를 하는 시간을 더 주게 되리라는 일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과거 수주일 기다리는 동안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고도 실질적인 보장을 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그 결과 다행히도 현재 우리가 받은 보장은 대단히 명백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보장 아래 우리는 이제 신념과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제네바에 가게 된 것이다.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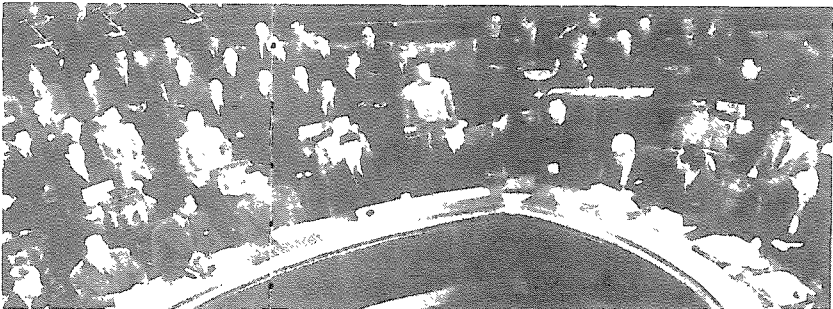
회의는 예정한 대로 1954년 4월 26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막되었다. 참가국은 한국과 한국전쟁 파병 15개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은 불참), 그리고 북한, 중공, 소련 등 총 19개국이었다. 이 회담은 한국 휴전협정 제4조 제60항이 의미하는 정치회담이라고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판문점 정치예비회담이 결렬된 상태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를 토의하는 미·영·프·소 4개국 외상회의의 부산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 유화책으로 세계 도처에서 소련의 진출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던 미국이 대공 봉쇄정책, 물

백정책 등으로 점차 대공 강경정책을 쓰게 되자 소련은 스탈린의 사후 자유진영에 평화공세를 펴서 이에 맞섰고, 영국도 소련의 평화공세에 맞장구를 치면서 대공 유화정책을 주장하고 있었다.⁹¹⁾

27일 제1차 회의가 개최되자 소련의 몰로토프(Vyacheslav M. Molotov) 의상의 사회로 한국문제 토의로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한국 대표단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변영태 수석대표의 발언 요지는 광복 후 공산측의 방해에 의하여 한국 통일이 달성되자 못한 연역을 소개하고 북한에서만 유엔 감시하에서 자유선거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중공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⁹²⁾

한국 대표는 유엔 감시하의 북한만의 선거실시에 관하여, “1948년 2월 26일의 유엔의 결의로 가능한 지역, 다시 말해서 남한에서만 자유선거에 의하여 민주적 한국정부를 수립한 것은,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과제로 남겨 두었다가 추후 적절한 시기에 자유, 비밀선거를 거쳐 한국 통일을 완성하자는 때문이었다. 한국정부도 이 취지에 맞추어 국회 안에 100석에 가까운 의석을 남겨 두었으므로 하루바삐 북한에서도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유엔의 임무를 완수하는 일이며, 그 위신과 한국에 대한 과거의 결의에 부합하는 것이



제네바 정치회담이 1954년 4월 26일 한국을 비롯해 참전 15개국(남아연방 제외)과 소련·중국·북한 등 1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왼쪽 셋째줄에 변영태 외무부장관, 그 뒤로 홍진기·이수영 등 한국대표단의 모습이 보인다.)

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외국군 철군 문제에 관하여는, “중공군과 함께 유엔군이 철군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이치에 합당치 않다. 유엔군은 본래 중공과 북한 침략자를 응징하는 경찰 행동을 위해서 한국에 출정하였으므로 경찰 행동이 완료되었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가서야 비로소 한국을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공 침략군과 같이 철군해야 된다는 이유는 있을 수 없다. 이를테면, 강도가 자신의 흥기를 버리기 전에 경찰관더러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엔군과 중공군의 동시 철군론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한국 대표의 연설에 이어 북한의 휴전회담 수석대표였던 외상 남일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통해서 한국을 비난하고 유엔을 배격하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조선의 민족적 통일을 신속히 회복하고 민주주의적 독립통일국가를 창건할 목적으로 북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1) 통일정부를 형성할 국회 총선거를 실시한다.
- 2) 남북한 의회대표로 전 한국위원회를 조직한다.
- 3) 전 한국위원회는 총선거법 초안을 준비한다.
- 4) 전 한국위원회는 남북한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실시하고 발전시킬 조치를 취한다.
- 5)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조직하여 총선거를 감독한다.
- 6) 6개월 이내에 모든 외국군은 철군한다.
- 7) 극동의 평화유지에 관심있는 국가들에 의한 한국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한다.⁹³⁾

북한의 제안은 ‘전 한국위원회’를 조직하여 모든 선거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그 조직은 남북한이 1:1의 평등한 대표성을 띠며, 이 위원

회의 결정은 '상호 합의'의 기초 위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주장하는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 민주적인 선거 방식과는 거리가 먼 제안이었다.

또한 유엔의 역할을 전혀 언급치 않고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구성을 주장함으로써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하고 그 역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외국군의 철군 시한은 명시하면서도 국회 총선거에 관하여는 그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정치 회담은 처음부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방식, 선거 관리 및 감시 문제, 유엔의 권위 인정 문제 그리고 외국군 철군 문제 등으로 쌍방이 팽팽하게 대립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4월 28일 미국측은 국무장관 덜레스의 연설을 통하여 한국 대표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한국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요지는 북한 제안을 거부하고, 1950년 10월 제5회 유엔총회 결의에 기초를 두며, 유엔 한국위원단의 북한에서의 행동 자유와 북한만의 총선거 실시, 유엔군의 남한 잔류와 북한에서의 중공군 즉시 철퇴 등이었다.⁹⁰⁾ 이러한 입장은 유엔이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계속 견지해 온 제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미국 대표의 연설에 뒤이어 중공 대표의 연설이 있었다. 그는 북한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태평양에 있는 모든 기지의 포기, 일본의 재무장 반대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의 사용금지 등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격론이 진행되고 있던 날(28일), 한국 공보처장은 북한의 남일이 제안한 통일안은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또 하나의 함정이며,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담화를 발표했으며, 이승만 대통령도 자유 국가에 대해 공산주의의 기만 정책에 현혹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경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충고는 금전보다 더욱 가치가 있으나 금전만큼 환영을 받는 일은 드물다.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에 관한 왜곡 선전에 힘써 왔으며, 그

네들은 미국이 제국주의적이며 탐욕적인 국가라고 아시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들은 소위 ‘민주주의’라는 명칭하에서 권력을 강탈하고 역사상 최악의 무자비한 폭정인 독재주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최선의 친구가 아니라 최악의 적이라고 선전하는데 힘쓰고 있다. 미국은 결코 침략국이 아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도움받는 사람들과의 우의를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따름이다.⁹⁵⁾

이대통령의 성명은 제네바 회의에서 있었던 북한측의 제안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 국가 대표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 문제에 관한 쌍방의 주장의 차이점이 분명해지자,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는 타협안으로서 “북한에서만 선거 주장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뚜렷한 명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측에서 전 한국 선거에 찬성할 것을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어 영국 대표는 남북한의 인구 비례제와 국제적 감시하의 총선거 등 두 개의 조건을 호주의 안에 참가하였는데 국제적 감시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단정적인 언사를 회피하고 “우리의 견해로서는 유엔 감시가 타당할 것으로 본다”는 함축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언외의 그 무엇을 시사하였다.

또한 뉴질랜드 대표도 연설을 통해 “한국정부가 독립 주권국가로서 그 정부가 신용치 않는 정권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함은 이해할 수 있는 바이나, 쌍방 주장의 차이점을 만족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양보를 하여 줄 것을 믿는 바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우방국 대표들도 거의 동일한 의견을 표시하고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변경을 요구하고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러한 변경은 불가피한 것”임을 거듭 표명하였다. 이

에 북한측 남일은 즉시 영, 프, 호주의 태도에 호응하고 나왔다.⁹⁶⁾

이러한 분위기를 직시한 변영태 수석대표는 우방 제국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심사숙고하였으며, 회의 직전 서울로부터 미국 등 우방이 요구하는 대로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하여”로 수정해도 무방하다는 전문 지시가 도착함에 따라 이것을 타협안에 반영하였다.⁹⁷⁾

그리하여 5월 22일 “북한에서만 선거”라는 원칙에서 떠나 한국 통일에 관한 14개 항목의 타협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 1) 통일·독립·민주 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유엔의 감시하에 종전의 유엔결의에 의거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 2) 자유선거는 이러한 선거가 종래 가능하지 못했던 북한에서 시행하고 남한에서도 그 주민의 대다수가 원한다면 이를 행한다.
- 3) 제안을 채택 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⁹⁸⁾

이 제안은 비례대표제에 의한 통일, 일개월 이전에 중공군의 철수가 완료될 것, 유엔군은 통일정부가 효과적으로 전국을 관할함이 유엔에 의해서 증명되기 전에는 완전 철수하여서는 안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정은 북한만의 총선거 주장에서 대폭적으로 양보한 것이었다. 14개 통일 방안이 발표되자 한국에서는 남북한 동시선거론을 수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표명되었으며 대표단 소환론까지 대두되었다.⁹⁹⁾

한국의 제안은 미국 등 15개 우방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우방국들은 한국이 북한만의 선거 주장을 철폐하고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전폭적으로 환영하였다. 자유선거와 더불어 국제감시안은 유엔 및 제네바 정치회담을 통하여 일관된 주장이었다. 특히 이와 같은 국제 감시는 유엔에 의하여 실시되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었다.

자유진영 각국 대표들은 모두 그들의 연설을 통하여 이런 감시안을

지지하였으며, 미국 대표는 6월 5일 연설에서, 이 감시는 유엔통일부흥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벨기에 대표는 6월 11일 연설에서, 자유선거 감시를 위하여 특별 위원단을 유엔에서 임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든(Anthony Eden) 영국 대표는 28일에 이르러서도 한국측안을 토의의 기초로 하되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아직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¹⁰⁰⁾

소련과 중공측은 영국측에 호응하여 통일을 위한 제 조건을 일괄 토의하지 말고 각 항목별로 분리해서 재검토해 보자고 제의하였다. 다른 한편, 공산측은 5월 22일 한국 대표에 의해 제안된 전 한국 선거에 대한 유엔감시안을 거부하면서 중립국감시안을 제의하고 이 중립국감시단은 동 수의 공산국가와 비공산국가 대표로써 구성하고 만장일치제로 토의 사항을 가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 대표는 “조선의 장래 헌법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국내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네바 회담에서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순전한 조선 국민과 장래의 조선 국회의 권능에 속하는 문제이다”라고 주장하였다. 6월 5일 북한과 중공 대표들은 한국의 14개 항 제안을 거부하고 특히 전 한국 선거에 있어서의 국제감시안을 또 다시 반대하였다.¹⁰¹⁾

북한 대표는 그 반대 이유를 “18세기 아메리카의 여러 주가 병합되어 합중국을 창건했을 때, 각 주는 인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또 스위스 칸톤의 경우 인구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의 발언권은 동일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⁰²⁾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즉각 반박하여 미국과 스위스의 경우는 한국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소상하게 지적하였다.

공산측의 그와 같은 주장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공산진영이 일관하여 유엔 내에서 추진한 정책 기초였다. 그들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첫째로 한국전쟁에 있어 유엔은 교전 당사자이다. 둘째로 1950년에

있어서의 일련의 유엔 결의는 불법적인 것이며, 한국 문제에 관한 유엔 감시는 외국 간섭이다. 셋째로 제네바 정치회담은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 유엔 총회의 결의를 수락할 의무는 없다.”는 데 있었다.

원래 한국 휴전협정을 그들의 재무장을 위한 군사적 휴식기간으로 이용하려던 공산측은 평화적 해결을 반복해서 앞세우고 제네바 정치회담을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며, 이는 한국과 자유진영측에서 예측한 그대로였다.¹⁰³⁾ 북한 대표는 소련과 중공 대표들의 조종을 받아 6월 15일 남북한 직접 협상과 외국군의 동시 철군 등을 되풀이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최종 제안을 제시하였다.

- 1) 쌍방은 본회담에서 합의되는 기일 내에 외국군을 각각 비례수를 기준으로 철군시킨다.
- 2) 한국과 북한은 1년 내에 병력을 각각 10만 명 이하로 감축한다.
- 3) 남북한 대표로써 남북한 대표단을 구성하고, 쌍방의 전시체제를 점차적으로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 4) 쌍방은 군사적 의무를 포함한 모든 조약을 평화적 국토통일에 배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5) 남북한이 상호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쌍방의 문화적·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이를 실시할 ‘전 한국인원회’를 조직한다.
- 6) 본회담 참가국들은 한국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¹⁰⁴⁾

이어서 소련 대표는 북한의 제안에 찬성하면서, 남북한의 병력 축소와 기한부 외국군 철군을 제안하는 한편, 한국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볼 때까지 한국 평화를 위협하는 여하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공동선언 채택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공산측에서 그들 위주의 제안을 하게 되자, 한국과 유엔 참

전국 대표들은 이 정치회담을 일단 실패로 간주하고 공산측이 유엔측의 제안인 2개 원칙을 수락하지 않는 한 한국 문제를 더 이상 토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의장인 태국 대표 완(Whan)은 6월 15일 다음과 같은 16개 공동선언서를 낭독함으로써 회의 중단을 언명하고 토의 결렬의 모든 책임이 공산측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들은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의 기초를 성의있게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그러나 공산측은 합의를 구하려는 우리들의 모든 노력을 거부해 왔다. (중략)

이와 같은 처지에서 우리들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공산측 대표단이 우리가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원칙을 거부하는 한, 이 회담에서 이 이상의 한국문제에 관한 고려나 시도가 소용없는 일이라고 결론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유엔의 목적을 계속 지지할 것을 다시금 단언하는 바이다.¹⁰⁵⁾

이러한 유엔측 16개국의 공동선언이 있자, 중공 대표는 한국의 평화 확보에 관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7개국(한국·미국·영국·프랑스·북한·중공·소련)이 참가하는 비밀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유엔측 대표들이 거부하였으며, 공산측도 유엔측 16개국의 공동선언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한국 통일문제를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이 공산측의 부당한 주장과 고집으로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자, 6월 17일 한국정부는 자유세계가 외교 협상에 의한 공산측과의 회담은 무의미하며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주도권을 장악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번 제네바에서 취하여진 유엔 16개국의 단결된 행동은 공산 침략자들에 대하여 외교협상을 통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를 가

져오던 시기가 이제는 종료하였다는 강력한 시사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략) 만약에 제네바에서 표시된 의견의 완전일치가 앞으로도 계속되며 전 자유세계가 그의 결정을 수행할 결심을 가진다면 6월 15일 화요일이라는 일자는 전세계를 통한 공산세력 전진의 종말을 표시하며 이 악독한 침략적 제도의 쇠퇴를 의미하는 일자로서 세계 역사상에 기록될 것이다.¹⁰⁶⁾

제네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가 끝났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은 유엔으로 되돌아갔으며, 유엔측 16개국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2개 기본 원칙은 유엔의 한국 문제에 관한 원칙으로서 확립되었다. 동시에 유엔은 이 원칙에 일치하는 조건에 의한 통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휴전협정은 더 이상 준수할 필요가 없는 사문서에 불과하며 단독으로라도 북진통일을 성취하겠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대공 유희가 그대로 계속되면 한국은 단독북진도 불사한다는 강경 정책을 천명하였다.¹⁰⁷⁾ 정부는 제네바 정치회담 결렬을 계기로 아시아의 상호 협조와 반공적인 결속을 위해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아시아 반공민족연맹의 결성, 그리고 이 대통령의 방미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한국의 단독북진 주장을 용납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통일된 자유·민주·독립 국가 건설의 오랜 염원은 요원한 속원으로 남게 되었고, 한반도의 재분단 상태가 지속되기에 이르렀다.¹⁰⁸⁾

제네바 회의는 1954년 4월 26일에 개최되어 6월 15일에 사실상 결렬되기까지 한국의 평화통일 문제에는 아무런 결실 없이 막을 내렸다. 공산군측은 본질적으로 자유선거와 관계되는 통일 방안의 고려를 모두 거부하였던 것이다.¹⁰⁹⁾ 제네바 회의가 결렬됨으로써 휴전협정에 규정된 정치회담은 실질적으로 무산되어 유엔측과 공산측이 한국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막혀 버리고 말았다.¹¹⁰⁾

제 4 절 戰爭과 平和의 岐路

1. 戰爭의 性格과 戰爭被害

한국전쟁은 1945~1950년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를 양측으로 하는 세계질서 재편성 과정에서 동서 냉전구조가 전세계에 걸쳐 하나의 전선처럼 형성되었고 그 중 한반도의 38도선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극동의 자유 및 공산진영을 포함해 미국과 소련의 힘이 직접적으로 맞선 최첨단이었던 안보정세하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국면에서 북한 공산정권의 김일성이 스탈린의 사주와 모택동의 지원하에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38도선을 돌파, 남침함으로써 냉전(冷戰)이 열전(熱戰)으로 바뀌면서 한국전쟁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의 침략목적은 한국(남한)을 강점하여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말살하고 그들의 공산정권에 흡수시키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불의’의 남침 ‘침략전쟁’인 동시에 ‘이념전쟁’이었다. 다음 전쟁의 전개와 더불어 이 침략자를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하고 이에 대응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중공군 등 공산군이 침략전선에 가세함으로써 20개국의 전투부대와 그밖의 여러 국가의 지원부대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열전을 벌이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개전 직후부터 국제전화되었다.¹¹¹⁾

북한과 사계 일부에서 이 전쟁을 ‘내전’이라 칭하기도 하나, 북한의 주장은 “이 전쟁이 남한의 침략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역사 날조의 목적에 있다”¹¹²⁾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며, 일부 사계의 내전 ‘운운’에도 문제점과 모순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전쟁의 배경, 결정과정, 작전 계획 모두가 스탈린의 지령·지도·지원 및 모택동의 조언과 지원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한 후에는 전쟁지원 차원을 넘어 유엔군사령관과 중공군사령관이 남북한 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공산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산군과 유엔군의 전쟁으로 발전하였고 전쟁지도 역시 이들에 의해 주도된 점 등 전쟁의 실상을 고려할 때 내전으로 규정하기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한편 군사적으로는 당시 미·소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하였음에도 이의 사용을 억제하였는가 하면, 유엔군측이 만주 또는 중공으로 전쟁지역 확대 문제를 몇 차례 검토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한반도내에 국한시키는 인내를 보였다. 전쟁목표에 있어서도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에 다소의 마찰이 있기는 하였지만 ‘침략의 격퇴’에 한정시켜 전쟁을 지도하였으며, 이 목적을 달성한 후 적대행위를 일단 종결하였다. 따라서 이 전쟁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핵시대에 치러진 국지전이었으며 제한전쟁이었다.

전쟁의 이러한 성격, 즉 침략전쟁에다 이념전쟁, 그리고 전장이 한반도에 국한된 세계적 규모의 제한전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전쟁은 유례없이 잔인하고 격렬하게 치러져 많은 전쟁피해가 발생하였다. 군사작전으로 인한 1차적 전쟁피해와 이념투쟁에 의한 2차적 피해가 겹쳤으며, 핵무기를 제외한 최신 살상무기가 좁은 전장에 모두 동원되어 그 위력과 밀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치른 전란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엄청난 전쟁피해를 입었다. 우선 인명피해에 있어, 아군측은 국군(경찰 포함) 63만 명, 유엔군 55만 명을 포함해 119만 명이 전사·전상·실종당한 반면 적군측은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약 204만 명의 손실이 생겨 군인 피해만도 총 322만 명에 달하였다.¹¹³⁾ 민간인 피해는 남북한을 합하여 사망·부상·실종 포함 249만 명에 달하였고,¹¹⁴⁾ 323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¹¹⁵⁾ 또한 1952년 3월 15일까지 발생한 전재민의 수가 천만명을 넘어섰다.¹¹⁶⁾ 휴전 때까지 이

숫자는 훨씬 늘어났겠지만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으므로 이 표에 따르면이라도 전체인구의 1/2 이상이 전화를 입었다.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는 가족이 없었으며 전사자의 혈육, 전상자와 그 가정, 이산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물적피해도 인명피해 못지않게 컸다. 부산교두보를 제외한 전국토가 전장터였을 뿐만 아니라 37선과 38선 사이의 지역에서는 세 차례의 피탈과 탈환이 반복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의 가옥과 재산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군사작전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및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음은 물론 군사시설로 전용된 학교 및 공공시설도 파괴되어 국민생활의 터전과 사회 경제 체제의 기반이 황폐화되었다.

그러한 피해와 파괴와 폐허에도 불구하고 반공의식과 생존을 위한 강인한 정신력은 강렬하였다. 이것이 전후복구와 재건의 원동력이었다. 우리는 이 정신력으로 전후 굶주림을 참고 땀흘려 일한 인고(忍苦)의 한세대를 지나면서 오늘의 우리를 건설하였다. 반면 공산북한 정권은 그 체제가 갖는 자체 모순에다 국가자원을 군사력 증강에 과다 투입함으로써 오늘도 파괴를 딛고 일어서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2. 休戰과 再分斷

이 전쟁은 휴전협정이 쌍방 군사령관에 의하여 1953년 7월 27일 10:00에 조인되고 22:00를 기하여 발효됨에 따라 적대행위의 중단과 더불어 휴전으로 전환되었다. 쌍방은 휴전협정에 따라 곧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판문점에 설치하는 등 휴전체제를 구축하고 군사분계선을 기선으로 각각 2km씩 물러나 4km폭의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재대치하였다.

휴전선은 휴전 당시의 피아 접촉선을 따라 결정되었으며 지상에서는 한강하구-임진강구(문산 서남 8km)-판문점-새터(CT085075)-고양대-유정리(철원북 12km)-하갑령-밤성골-문동리-신탄리-수령-감호(남쪽 1km)를 연결하는 선으로 확정하였다¹¹⁷⁾ 따라서 새터 이서는 38도선 남쪽에, 그 이동은 38도선 북쪽에 설치되어 있는바, 서부의 아군측이 포기한 면적보다는 동부의 확보한 면적이 다소 넓지만 대체로 전쟁전 현상과 유사한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전쟁과 휴전으로 인한 가장 으뜸가는 결과는 3년간의 전란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38도선을 대체한 휴전선에 의해 재분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북이 하나로 되기는커녕 전쟁전 현상으로 회귀한 채 냉전굴레를 벗지 못하고 그 틀 속에서 분단과 대결을 다시 계속하게 된 불행한 역사적 사실이었으며 또한 현실이기도 한 것이다. 혹자들은 이 전쟁과 휴전을 놓고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 이른바 ‘비긴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피상적 관조(觀照)일 뿐 우리는 이 전쟁과 휴전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즉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우리는 당초 우리를 공산화하기 위해 전쟁을 도발한 북한의 침략과 그후 침략전선에 가세한 중공군의 남침을 모두 38도선 북으로 격퇴하였음은 물론 그들을 철저히 응징하여 휴전을 얻어내었다. 이는 유엔 결의 중 ‘침략의 격퇴와 평화의 회복’이라는 2대 목표 중 첫 목표의 완전한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38도선을 파괴한 상황에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공산침략을 격퇴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수호하였음은 물론 원상이상을 회복하였으므로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북한은 “조선에서의 정전 실현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강대한 적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고 쟁취한 역사적 승리였다”¹¹⁸⁾라고 그들의 『조선전사』에 기술해 놓고 자신들이 승리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남침사실을 기만한 역사의 날조요 패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실의 왜곡일 따름이다.

다음으로 이 전쟁의 경과와 휴전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1948년 남북한에 두 체제가 수립된 후 북한이 줄곧 시비를 걸어온 정통성 문제에 있어 우열이 확연히 가려졌다. 전쟁간 그들이 점령지역에 설치하려던 그들의 체제는 대다수 국민에 의해 외면당하였고 참여와 지지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는 침략의 패배에 결정적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휴전 때까지 최소 126만 명¹¹⁹⁾의 북한동포가 자유를 선택, 월남하였으나 휴전 후 실항민 교환시 단 37명만이 귀향하였다. 전쟁포로도 협상과정에서 51%¹²⁰⁾가 북으로 귀환을 거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



판문점 포로 설득장에서 북한의 설득을 반대하고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반공포로들

공산군측은 이를 복귀시키기 위해 폭동을 야기하며 2년간이나 회담을 질질 끌었으나 결국 전체 포로 중 절반이 넘는 87,000명이 자유의지에 의해 한국(남한)과 자유세계에서의 삶을 선택하였다.¹²¹⁾

월남동포와 반공포로의 규모는 북한 전체인구의 14% 이상으로서 두 체제간의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극적으로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는 대사건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전쟁간 북한 김일성이 전쟁계획의 기초로 가정(假定)하였던 한국(남한)내에서 인민 봉기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공이념(反共理念)이 도전불능의 위상으로 자리하여 전후 국가 안정의 도모는 물론 국력의 결집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통성과 체제 경쟁에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면 전쟁을 통하여 남북한의 적대의식과 불신감이 전쟁전보다 더욱 깊어진데다, 일당 독재정권을 구축한 김일성 공산집단이 체제의 생존을 위해 군비증강과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도발적 대남 자세를 취함으로써 남북한의 간격은 물리적·이념적 양면에서 전쟁전보다 더욱 넓고 깊어져 긴장완화는 물론 남북이 하나로 되는데 역기능으로 작용하였다.

3. 戰爭과 平和의 架橋

한민족은 많은 피해와 파괴를 입으며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전후처리로 설정되고 1948년 냉전질서에 의해 경화된 38도선 경계선을 허물어트리지 못하고 그 현상에서 휴전을 강제당하여 재분단되었다.

여기서 가장 유념할 대목은 재분단을 가져온 휴전(休戰, armistice)의 정의(定義)가 ‘군사행동(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의미하는 순수 군사적 조치라는 점이다. 즉, 휴전은 종전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가

교(架橋)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쌍방은 휴전으로 일단 정전(停戰, cease-fire) 조치를 취하고 휴전체제를 구축한 다음 이를 평화로 대체하기 위해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열어 평화적 해결방안과 외국군의 철군 등 정치현안을 다루기로 협정하였다.¹²²⁾

유엔참전 16개국은 이 정치회담을 통한 ‘평화의 회복’ 도모와 전쟁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써 1953년 8월 7일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공동정책선언’을 채택하였다.

…… 우리는 유엔의 원칙과 목적을 믿고 있고, 한국에서 계속적인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국 문제 해결을 성실히 추구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만일 유엔의 원칙에 재도전하는 무력공격이 재발한다면 다시 단합하여 신속히 저항할 것임을 확인한다.¹²³⁾

하지만 정치회담은 한국정부와 유엔군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담 참가국 및 장소문제를 빌미로 북한과 공산군측이 생트집을 잡는 바람에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좌초되어 본회담은 협상에 명시된 3개월 내 열리지도 못하였다. 다행히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문제를 다루던 미·소·영·불 4개국 외상회담의 주선으로 1954년 4월 26일 뒤늦게 정치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엔 공산군측이 통일정부 수립방안에 있어 자유선거 방식과 유엔감시를 완강히 거부하고 타협의 자세를 보이지 않음에 6월 15일 결렬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쌍방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거나 남북통일로 승화시키는데 실패하고 불안한 휴전상태로 대치를 계속하게 되었다.

북한의 진의(眞意)는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군사력을 이 휴전기간을 이용해 재건하여 무력적화전락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기도였다. 그들은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휴전협정의 핵심조항인 휴전협정 13조 D항의 신무기(비행기·장갑차량·무기 및 탄약) 도입 금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감시기구의 눈을 피해 새로운 장비의 도입을 비롯해 휴전협

정 위반을 자행하였다. 유엔군측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1957년 6월 21일에 정식으로 13조 D항의 폐기선언을 하고 북한의 군비증강에 대응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1959년 말에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토치카를 구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비무장지대를 무장화/요새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이처럼 휴전협정을 파괴하는 한편 1960년대 초부터 무장병력을 남파시켜 대소규모의 도발을 야기함으로써 휴전체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북한의 휴전체제 무력화 책동은 노골화되었다. 1994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공산군측 대표단을 철수하고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체코·폴란드 대표단도 축출함으로써 휴전체제는 반쪽만 남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 휴전협정의 이행관리 및 감독기능이 마비되어 휴전(休戰)이 언제 열전(熱戰)으로 바뀔지 예측을 불허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1990년대, 20세기 말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냉전질서가 와해되고 인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대적 조류를 타지 못하고 이념과 무력 양면에서 전쟁일보 직전의 대립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급선무는 반쪽만 남은 휴전체제일지라도 이를 유지하고 기능이 중지된 나머지 절반의 복원노력을 기울여 무엇보다 휴전이 전쟁의 가교가 아니라 평화의 가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민족의 통합과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과 휴전을 돌이켜보며 전쟁의 역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과 힘'을 갖추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통일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주 기

-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pp. 314~315.
- 2)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판문점』(하), 1972, p. 589.
- 3) 휴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1항,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3항.
- 4) 위의 자료, 제2항 및 제3항.
- 5) 위의 자료.
- 6) 휴전협정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3항(L).
- 7)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통일 목표는 불변」(1953. 7.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4년지』, 1955, pp. C13~C15.
- 8) 『한국전쟁 휴전사』, p. 316.
- 9) 국토통일원,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 회의록 분석』, 1980, p. 15.
- 10)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의 의장은 미 육군 브라이언 언(Blackshear. M. Bryan) 소장이었다. 다른 4명의 회원은 미 해·공군, 타이, 그리고 영국에서 나온 장성급 장교이었다.
- 11) 휴전협정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25항.
- 12) 국토통일원,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 회의록 분석』, 1980, p. 17.
- 13) 위의 자료, p. 20.
-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1991, pp. 446~447 ;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 GPO, 1966), pp. 493~494. 공산군측은 정전 체제 유지가 북한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확실한 체제로 인식하여, 대미 접촉 창구와 평화공세를 위한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 15) 휴전협정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41항.
- 16)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447.

- 17) 『한국전란4년지』, p. A5.
- 18)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494~495 ; 미 합동참모본부 역사과,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휴전협정의 어떤 조항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기에 이르게 되는 사건 연표」(1959. 7. 24),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447 재인용.
- 19) 『한국전쟁 휴전사』, pp. 320~321.
- 2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포로』, 1966, p. 232.
- 21) 위의 책, p. 232.
- 22) 북한의 포로수용소는 포로 출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임시수용소(자연동굴, 광산, 벽촌 학교 또는 민가, 벌막장의 초막)와 화풍광산 수용소, 초산포로수용소, 금강산 해방전사 초대소, 함북 회령수용소, 아오지 수용소, 만주 달가지역 부근 훈련소, 평양 강동포로수용소, 만포진포로수용소, 철산 광산지역 포로수용소 등 10여 곳이 있었다. 국방군사연구소 귀환포로 증언록 참조.
-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한국전쟁의 포로』, 1986, p. 262.
- 24) 위의 책, p. 283.
- 25)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판문점』(하), p. 598.
- 26) 『판문점』(하), p. 599 ; 『한국전쟁 휴전사』, p. 321.
- 27) 「귀환 국군 포로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위무사」(1953. 8. 19), 위의 책, pp. C20~C21.
- 28) 「유엔군 포로 송환에 대한 미 국무장관 성명」(1953. 8. 22), 『한국전란 4년지』, p. C163.
- 29) 딘 소장은 포로가 된 후 만 3년 12일 동안 어려운 역경을 거쳐 9월 4일에 귀환하였으며, 이날 귀환하여 121후송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을 마친 뒤 9월 5일 상오 9시 비행기편으로 미국으로 향발하였다.
- 30) 북한 상병포로 5,640명 중에는 민간인 억류자 446명이 포함되었으며, 그중 3명은 여자, 18명은 여자 포로였다. 또 북한군 포로 70,183명 중 남자 포로 60,788명, 여자 포로 473명, 어린이 23명, 민간인 억류자 8,899명이 포함되었으며, 중공군 포로 5,640명 중 여자 포로 1명이 포함되었다. Hq U.S. Army, Pacific Mil Hist Office, *The Handling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Conflict, OCMH, p. 67, 89.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514 재인용.

- 31) 『판문점』(하), pp. 605~606.
- 32) 포로 출신인 유창상 중위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덕천에서 중공군에게 생포되어 초산으로 이동중 북한군에 인계되었으며, 계급과 군번을 일등병 0125987로 행세하였으며, 또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포로 중 포로송환시에도 미송환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제2군단 제7사단 연락장교 유창상 중위 증언(국방군사연구소 증언록).
- 33) 국방부, 「국방소식~한국전 실종국군 송환대책 수립」(1996. 7. 31)
- 34) 제1사단 신재균, 이우학 일등병 증언(국방군사연구소 증언록), 이들은 당시 3천 명 정도 수용되고 있었던 회령 포로수용소에 동기생인 손창수, 백덕기 일등병이 돌아오지 못하고 억류되었다고 증언하였다.
- 35) 인도군 대표인 티마이어 중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연방군 여단을 지휘했던 유일한 인도 출신의 장군으로 후에 인도군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군사 지도자이다.
- 36) 『한국전쟁 포로』, p. 243.
- 37) 한국인은 7,900명으로서 그중에 부상 및 환자 포로가 940명이었고, 중국인은 704명으로서 부상 및 환자 포로가 163명 포함되어 있었다.
- 38) 그들은 처음에는 335명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24명(미군 23명, 영국군 1명)을 인도했다. 송환희망포로의 숫자가 적은데 실망했던 유엔군측은 상당한 인원이 송환불원포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 인원은 359명에 지나지 않았다.
- 39) 『한국전란4년지』, p. A2.
- 40) 위의 책, p. A3.
- 41)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495~514. 다른 자료에 의하면 첫날 설득을 받은 중공군 포로는 491명이며, 결심을 바꾸어 공산군측으로 넘어간 포로는 10명이라고 하여 그 숫자가 조금씩 상이하다. 본국으로 송환된 후 첩자들이나 결심을 바꾼 사람들은 공산군측의 심문 과정에서 한결같은 대답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그들은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이 억류되어 있던 수용소 생활의 공포 분위기를 장

황하게 늘어놓았다.

- 42) 『한국전란4년지』, p. A3.
- 43) 『한국전쟁 휴전사』, pp. 329~330.
- 44) 헐(John E. Hull) 대장은 1953년 10월 7일 휴전협정을 조인한 클라크 장군의 후임으로 유엔군사령관직에 임명되었다. 그는 미 육군참모차장을 역임하였으며, 유엔군사령관 재임(1953. 10. 7~1955. 4. 1) 후에 퇴역하였다.
- 45) 『한국전란4년지』, p. A3.
- 46) 위의 책, p. A4.
- 47) 『한국전쟁 휴전사』, pp. 331~332.
- 48) 『한국전란4년지』, p. A4.
- 49) 『한국전쟁 휴전사』, p. 333 ; 『관문점』(하), p. 650.
- 50) 『한국전쟁 포로』, p. 253.
- 51) 『한국전쟁 휴전사』, p. 334.
- 52) 『한국전쟁 포로』, p. 253.
- 53) 『한국전란4년지』, pp. A4~A5 ; 인도 관리군의 후방부대는 이들 남은 억류자들을 2월 18일에 주한 미 제8군사령관에게 인계하였다. 1953년 12월 8일에 유엔군사령관은 미 제8군사령관을 송환불원포로의 처리 절차를 계획하고 조정하기 위한 그의 행정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관련 업무 전체를 그에게 이양했다.
- 54)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496.
- 55)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515. 유엔군측 통제로 전향한 포로에 대한 최종 조치는 1954년 2월 19일에 완료되었다.
- 56) 위와 같음. 설득작업이 끝난 후 30일 동안에, 다만 소수의 포로들만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송환을 선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1953년 9월 23일에 유엔군사령부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도한 22,604명의 비송환자 중, 최종적으로 628명(중국인440명, 한국인 188명)이 공산군 통제로 복귀하였다. 다른 86명은 중립국 인도를 선택하였다. 51명은 수용중 탈출하거나 사망하였다. 그리고 21,839명(중국인 14,235명, 한국인 7,604명)은 유엔군의 관리하로 되돌아왔다. 유엔군측은 적의 수중

660 제 6 장 休戰處理와 南北 再分斷

에 있던 359명에 대한 ‘해설’에서 거의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다만 10명(미국인 2명, 한국인 8명)만이 그들의 고국으로 복귀한 반면, 다른 한국인 2명도 인도로 갔다. 잔여 포로(한국인 325명, 미국인 21명, 영국인 1명) 공산측에 남았다.

- 57) 『한국전쟁 휴전사』, pp. 319~320.
- 58) 내무부(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 1955, pp. 212~213.
- 59) 『한국전란4년지』, p. A5.
- 60) 『한국전쟁 휴전사』, pp. 335~336.
- 61) 『판문점』(하), pp. 654~669.
- 62) 한표옥, 『이승만과 한미외교』, 중앙일보사, 1996, pp. 170~171.
- 63) 『판문점』(하), pp. 602~603 ; 『이승만과 한미외교』, p. 175.
- 64) 『한국전란4년지』, p. C16 ; 『한국전쟁 휴전사』, pp. 337~338.
- 65) 『한국전란4년지』, p. A6.
- 66) 「휴전협정 이행에 관하여 유엔에 제출한 유엔한국파병단 결의안」(1953. 8. 18), 위의 책, p. C110.
- 67) 정치회담 참가국으로 소련측이 제안한 11개국은 한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인도·폴란드·스웨덴·버마·북한 그리고 중공이다.
- 68) 『한국전란4년지』, p. A5.
- 69) 『이승만과 한미외교』, p. 178.
- 70) 『판문점』(하), pp. 678~687.
- 71) 유엔은 참전 16개국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불참선언으로 15개국만을 제안하였다.
- 72) 이전에 제안한 11개국에 이집트, 인도네시아, 시리아, 멕시코를 추가하였다.
- 73) 『판문점』, p. 690.
- 74)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총회결의」(1953. 8. 28), 『한국전란4년지』, p. C120.
- 75) 위의 책, pp. A6~7.
- 76) 「정치회담계획에 관한 공산측 의향을 재타진하는 미국의 각서」(1953. 9. 1), 위의 책, pp. C136~137. 미국정부는 딘(Arthus H. Dean) 대사를 예비회담 대표로 파견하였다.

- 77) 『판문점』(하), pp. 699~700.
- 78) 「공산측 태도 표명을 요구하는 미국측 각서」(1953. 10. 8), 『한국전란4년지』, p. C137.
- 79) 「판문점 예비회담에 동의한 공산측 각서」(1953. 10. 10), 위의 책, p. C138.
- 80) 『판문점』(하), p. 706.
- 81) 『이승만과 한미외교』, p. 181.
- 82) 『한국전란4년지』, p. A7.
- 83) 『한국전쟁 휴전사』, p. 344.
- 84) 『한국전란4년지』, p. C31.
- 85) 『이승만과 한미외교』, p. 187.
- 86) 이 회의의 목적은 오스트리아의 지위를 토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회담의 유일한 결과는, 아시아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중공을 포함한 보다 광범한 회담을 열기로 한 합의였다. 이 결정은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프랑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450 ;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30, March 1, 1954, pp. 317~318.
- 87) 『한국전란4년지』, p. C46.
- 88) 위의 책, p. A8.
- 89) 회담 참가 일행은 변외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홍진기 법무차관, 최정우 동국대 교수, 이수영 외무부 정보국장, 한유동 외무장관 비서실장, 손병식 외무부 의전과장, 유조룡 속기사, 이주범 한글 타자수 등 8명이, 그리고 미국에서 양유찬 주미대사, 임병직 유엔대사가 합류하였다. 여기에 비해 공산측의 일행은 북한이 1백여 명, 소련이 2백여 명, 중공이 3백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 90) 「제네바회담 참가 초청을 수락한 이대통령 성명서」(1954. 4. 19), 위의 책, pp. C52~C53.
- 91) 『판문점』(하), p. 737.
- 92) 위의 책, pp. 738~744
- 93) 「조선의 민족적 통일회복과 전조선적 자유선거 실시에 관하여」(1954. 4. 27), 위의 책, p. 744.

- 94) 위의 책, pp. 746~753 ; The U.S. Department of State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16, USGPO, 1981, pp. 131~134.
- 95) 「공산기만정책에 대한 이대통령의 경고성명」(1954. 4. 28), 『한국전란 4년지』, p. C53.
- 96) 위의 책, p. A9.
- 97) 『이승만과 한미외교』, p. 203.
- 98) 『판문점』(하), pp. 775~776.
- 99) 『이승만과 한미외교』, pp. 203~204.
- 100) 『한국전쟁 휴전사』, pp. 352~353.
- 101) 위의 책, p. 353.
- 102) 『이승만과 한미외교』, p. 205.
- 103) 후에 클라크 장군은 “역사는 이대통령이 한국을 위해서는 물론 자유 세계를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에서 군사적으로 패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때 그가 우리보다 더 옳았다고 증명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 168.
- 104) 『한국전쟁 휴전사』, pp. 353~354.
- 105) 『판문점』(하), pp. 785~787.
- 106) 「제네바회담 결렬에 대하여」(1954. 6. 17), 『한국전란4년지』, p. C65.
- 107) 『판문점』(하), p. 789.
- 108) 『한국전쟁 휴전사』, p. 357.
- 109) Stebbins, *US in World Affairs*, 1954, pp. 115~128. 『미합참사 한국전쟁』(하), p. 450 재인용.
- 110) 1954년 6월 15일 휴전협정 60항에 의거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소집된 제네바 정치협상이 결렬되면서, 군사정전위원회에서는 1954년 후반기부터 주로 쌍방이 전력증강문제를 가지고 마찰을 빚기 시작하면서 상호 비방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56년 5월 31일 제70차 본회의에서 유엔사측은 당시 남쪽에서 활동하던 중립위 폴란드 및 체코대표단이 주한 북한을 위한 첩보활동을 하는 것을 이유로 중립위 시찰 소조를 판문점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 111) 유엔군 중 미국 해·공군은 1950년 6월 27일, 즉 전쟁 3일째부터 참전하였으며 지상군은 7월 1일 부산에 도착,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서 첫 전투를 치렀다.
- 112) 『조선전사』 25, p. 73. 북한은 한국전쟁을 2단계로 구분하고, “제1단계로 남한군으로 하여금 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여 ‘내란’을 도발하게 한 다음, 제2단계에서 미군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라고 역사를 날조하며 기술해 놓고 있다.
- 113) 아군 피해 : 『한국전쟁피해 통계집』(국방군사연구소, 1996), 국군 피해-육해공군 군인 피해(608,033), 경찰(19,034), 학도의용군(7,000), 총 634,067명, 유엔군 피해-545,908명 ; 적군 피해 : *The US Military Experiences in Korea*, p. 89 ; 북한군 피해-801,000명, 중공군 피해-1,234,000명, 총 2,035,000, 소련군 피해는 자료불명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 114) 민간인 피해 : 남한민간인 피해-사망(244,663), 피학살(128,936), 부상(229,625), 납치(84,532), 행불(393,212), 총 990,968명(자료 : 『대한민국통계연감』, pp. 212~213) ; 북한민간인 피해-150만명(『이북5도30년사』, p. 79)
- 115) 피난민수 : 남한피난민 1953. 4. 현재 2,611,328명(『한국전란2년지』, p. D6) ; 북한(월남) 피난민-1952. 3. 15. 현재 618,721명(『한국전란2년지』, p. D21), 이북5도 30년사(p. 78)에는 월남피난민의 총수를 6·25 이전 350만, 6·25간 150만, 총 500만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 116) 전재민 통계(1950. 6. 25~1952. 3. 15), (1952. 3. 15 기준)

구 분	세 대 수	인 원(명)	비 고
총 계	2,104,661	10,189,301	
남한 피난민	421,228	1,714,992	2,611,328
월남 피난민	135,745	618,721	
전 재 민(가)	656,949	3,419,996	3,626,915
원 주 빈 민(내)	890,739	4,375,413	
전 재 고 아(대)	-	48,332	
기 타(래)	-	11,857	

※ 비교난은 전란3년지(1953. 4. 15 기준)의 통계임

(국방부, 『한국전란2년지』, 1953, p. D21)

* (가) 전재민은 직접 전화를 입은 남한의 민간인임

(나) 원주빈민(原住貧民)은 자력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자임

(다) 전재고아(戰災孤兒)는 당시 공·사립 수용소에 수용보호중인 자임

(라) 기타는 전국 각지의 부랑아 및 절인(乞人)

117) 이 선은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현행 군사지도에서 군사분계선이 지나는 지명으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새터는 알려지지 않은 지점이나 현행군사지도상 38도선과 휴전선이 교차하는 유일한 지점이다.

118) 『조선전사』 제27권, pp. 508~509.

119) 8·15-6·25전까지 피난민 : 648,784명, 尹鍾周, 「해방후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사회사적 의의」, 『인구문제논집』27, 인구문제연구소, 1986, p. 25 ; 權泰煥, 「인구성장의 추세와 요인」, 『한국사회 : 인구의 발전』 제1권, 서울대학교, 1978, p. 24, 한국전쟁기간 피난민 : 618,721명, 국방부, 『한국전란2년지』, 1953, p. D21.

120) 1952. 6. 23~27일 포로조사에서 공산군포로 총 169,944명 중 86,222명이 공산군측으로 복귀를 불원하였다.(『미합동참모본부사』(하), p. 251)

121) 민간인 억류자(포로 중 민간인으로 확인 분류되어 석방) 38,000명, 반공포로(1953. 6. 18 반공포로 석방조치에 의거 탈출한 포로) 27,388명, 송환불원포로(휴전 후 포로송환시 공산군측으로 복귀 거부, 유엔군측에 잔류한 포로) 21,839명(여기에는 중공군 포로 14,235명이 포함되어 있다), 총 87,227명.

122) 한국휴전협정 제60조.

123) *History of U.S. the Joint Chief of Staff*, Vol. III, Korean War, Pt. II, p. 1054.

附 錄

1. 年 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5. 17	○미국, 전쟁전 현상에서의 휴전정책 결정
	5. 31	○조지 케난과 말리크 휴전협상 위한 막후접촉
1951	6. 1	○유엔사무총장, 38도선에서 휴전권고 성명 발표
	6. 8	○이대통령, 38도선에서 휴전반대 성명
	6.13~14	○조·중·소 전략회담, 38도선에서 휴전전략에 합의
	6. 22	○노르웨이 의료지원부대 도착
	6. 23	○말리크, 유엔에서 당사국간의 휴전협의 권유 연설
	6. 30	○이대통령, 휴전협상 반대성명 발표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공산군사령관에 휴전회담 제의
1951	7. 1	○공산군, 휴전제안 수락, 7.10~15일 개성 개최 제의
	7. 2	○국회, 휴전반대 결의안 결의
	7. 8	○휴전회담 예비회담
	7. 10	○휴전회담 개성에서 개막
		○한국측 대표, 백선엽 소장 부임
	7. 15	○개성 휴전회담장 중립화 협정
	7. 26	○휴전회담 의사일정 5개 항목 합의
		○의제2항 군사분계선 설정문제 토의 시작
1951	8. 1	○공군, 제1전투비행단 창설
	8. 18	○국군제1군단·미제10군단, 제한공격작전 '포복'(크리퍼)작전 전개
	8. 23	○수도사단, 924고지 탈취
	8. 24	○공산측, 유엔기의 중립지대 침범사건 날조 및 회담 거부
	8. 25	○유엔군 김화, 금성지역 목표고지 재탈환
	8. 27	○제11사단, 884고지 탈취
	8. 31	○산청지구 공비 궤멸
	9. 3	○국군 해병제1연대 해안분지(편치불) 점령
	9.4~10.14	○제5사단, 가철봉 부근 전투(1211고지 공격)
	9. 5	○미제2사단, 피의 능선 점령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9. 20	○미 해병제1사단, 812고지 점령
	9. 26	○유엔 공군 101대, 미그기 155대와 공중전, 한국전 최 대의 공중전 ○제7사단, 백석산 탈환
	10. 1	○제8사단, 백석산 확보
	10. 2	○미합참의장 브래들리 한국전선 시찰
	10.3~9	○이대통령, 브래들리 회담
	10.13	○미제1·제9군단, 코맨도우(Commando)작전 실시
	10. 13	○미제2사단, 단장의 능선 탈환
	10. 18	○제2사단, 금성 서남지구 점령
	10. 19	○수도사단, 남강 완전 확보 및 고성 남쪽까지 진출
	10. 21	○제6사단, 교암산 점령
	10. 23	○미공군, 소련공군의 참전사실을 언명
	10. 24	○한국측 대표 교체, 이형근 소장 부임
	10. 25	○휴전회담 판문점에서 재개
	10. 28	○제8사단 1090고지 탈환 ○육군대학 창설 ○콜린스 미 육군참모총장 내한
	11. 16	○이탈리아 의료지원부대 도착
	11. 17	○제6사단, 949고지 점령
	11. 27	○휴전회담, 잠정군사분계선 협정·의제3항 정전과 휴전 세부사항 협상 시작
	12. 2	○휴전회담, 비행장 증강문제로 대립
	12. 11	○백(白) 야전전투사령부, 서남지역 공비토벌작전 개시
	12. 17	○의제4항 포로송환 협상 착수
12.17	○터키부대, 평강남쪽 전초선에서 적 공격 격퇴	
12.25~28	○제7사단, 크리스마스고지 전투	
12. 30	○미 제45사단 한국에 파견	
1952	1. 5	○북한 유엔가입 재신청
	1. 6	○상무대 개소 명명식
	1. 14	○북한, 국제적십자대표 입북 거부
	1. 20	○육군사관학교 개교식
	1. 30	○국군 공군 F-51전폭기 추가 인수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2	1. 30	○이대통령, 철원·김화·화천·양구 등 일선지구 시찰
	2. 2	○경남북 9개군 비상계엄 선포
	2. 3	○휴전회담, 공산군측 38도선 이북 5도의 유엔군 관리 승인
	2. 6	○의제5항 쌍방관계정부에 건의 협상 개시 ○한국측 수석대표 교체, 유재홍 소장 부임
	2. 16	○유엔군, 서부전선에서 적지를 일제히 맹공
	2. 17	○휴전회담, 의제 제5항에 합의
	2. 18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
	2. 24	○공산군, 미국의 세균전 살포 조작 및 비난
	3. 6	○애치슨 장관, 공산군의 세균전 조작·비난 일축
	3. 29	○국방부장관 경질, 신태영 임명
	4. 5	○국군 제2군단 재창설
	4. 28	○유엔군측, 일팔타결안 제의
	5. 4	○육군 제2훈련소 논산에 설치
	5. 7	○거제도 포로수용소 돛드 소장 피랍
	5. 9	○유엔군사령관에 클라크 대장 부임
	5. 10	○공산포로들 돛드 소장 석방
	5. 20	○거제도 포로 폭동 ○이대통령 서울 시찰
	5. 23	○휴전회담 대표 조이제독 미 해사교장으로 전임, 해리슨 소장 유엔군 수석대표 승계 ○유엔공군, 평양·진남포 군수공업지대 대규모 폭격
	5. 26	○한국측 대표 교체, 이한림 준장 부임
	6. 5	○터키군 부사령관 무리 파밀대령 전선시찰중 전사
	6.6~8.1	○미 제2사단, 불모고지 전투
	6. 21	○휴전회담, 유엔군측 포로 강제송환 강력히 반대
	7.7~10.14	○수도사단,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7.10~11.10	○제5사단, 351고지 전투
	7. 23	○백선엽 중장, 육군참모총장 취임
	8. 5	○정부통령 선거(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함태영 당선)
8.9~16	○미해병대, 판문점 동쪽 병커고지 전투	
8. 10	○유엔군 판문점 동쪽 고지쟁탈전 치열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2	8. 11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
	8. 14	○클라크사령관 대구 육군본부 방문
	8. 30	○부산지구에서 병력기피자 989명 적발
	9.21~22	○제8사단, 812·854고지 전투
	9. 28	○유엔군측, 포로의제 선택적 제안
	10. 6	○공산군, 1952년 추계공세
	10.6~9	○제1사단, 고양대 부근 전투(Nickie 및 Tessie고지 전투)
	10.6~15	○국군제9사단, 백마고지 전투
	10. 8	○공산군측, 유엔군측 선택적 제안 거부, 해리슨 유엔군 대표, 무기휴회 제안
	10.14~11.24	○국군제2사단과 미 제7사단, 저격능선 및 삼각고지 전투(Show-down작전)
	11. 8	○국군 제12, 제15사단 창설
	11. 25	○신임 주한미대사 브릭스 임명
	12. 2	○국군, 미 차기대통령 아이젠하워 서울 도착
	12. 3	○포로처리에 관한 인도 제안 유엔총회에서 가결
	12. 6	○공산군측, 포로문제에 관한 인도안 거부
	12.11~13	○제1사단, 임진강 부근 전투(Nori 및 Betty고지 전투)
12. 13	국제적십자사, 휴전과 상병포로교환 촉구 결의	
12. 14	○봉암도포로수용소 폭동	
1953	1. 20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
	1. 26	○콜린즈 미 육군참모총장 내한
	2. 11	○벤플리트 후임으로 테일러 중장 부임
	2. 22	유엔군사령관, 상병포로 교환 제의
	3. 4	○이대통령, 클라크, 테일러 회동
	3. 5	○스탈린 사망 공식 발표
	3. 25	○미 제7사단, 불모고지 피탈
	3.26~30	○미 해병제1사단, 베가스고지 방어
	3. 28	○공산군 사령관, 상병포로 교환 제의 수락
	3. 30	○유엔총회, 중단된 휴전회담 조기 속개 촉구
	3. 31	○유엔군사령관, 휴전회담 본회담 재개 제의
4. 11	○휴전회담 연락장교회의, 상병포로 교환 협정	
4. 17	○유엔총회, 포로문제 판문점회담에서 해결 촉구 결의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3	4.20~5.3	○상병포로 교환
	4. 26	○휴전회담 본회담, 6개월만에 재개
	5. 1	○한국측 대표 교체, 최덕신 준장 부임
	5. 25	○제3군단 재창설 ○클라크, 포로송환 최종안 이승만 대통령에 설명 ○유엔군측, 포로송환 최종안 제의 ○한국대표, 회담 불참선언
	5. 29	○제25사단(터키여단), 네바다 전초 상실 ○영연방 제1사단, 후크고지 방어
	5. 30	○미국, 에버레디계획 확정
	5. 31	○이대통령, 휴전회담 양보없음을 강조
	6. 1	○이대통령, 대미 타협안 수교
	6.1~9	○제12사단, 812·854고지 전투
	6. 7	○정부, 도미중인 전장병 즉시 소환 명령
	6. 8	○전국의 준비상계엄령 ○휴전회담 본회의, 포로교환협정 조인
	6. 10	○중공군 최후공세(6월 공세) 개시
	6.10~13	○제8사단, 수도고지 피탈
	6.10~14	○제5사단, 949·973·883고지 피탈
	6.14~18	○제20사단, 1090고지 방어
	6. 18	○이대통령, 전국에서 반공포로 석방 ○제26·제27사단 창설
	6. 19	○유엔군사령부, 서해 5도 주민 10만명 철수령
	6.25~7.3	○제3사단, 관망산 피탈
	6.26~7.1	○제7사단, 선우고지(938고지) 피탈
	6.26~7.11	○이대통령 - 로버트슨 회담
	6. 30	○국방부장관에 손원일 해군중장 임명
	7.6~10	○미 제7사단, 포크참고지 피탈
	7. 13	○중공군 최후공세(7월 본공세) 개시
7.13~15	○제2군단 및 수도사단, 금성돌출부 상실 ○117A도로 - 진현리 - 수동령 - 수상리 - 748고지에서 적 최후공세 저지	
7.16~19	○국군제2군단, 금성천 확보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3	7.16~19	○국군 제2군단, 금성천 확보
	7. 27	○휴전협정 조인 ○클라크 사령관, 문산에서 서명 ○김일성, 평양에서 서명 ○클라크, 유엔장병에 휴전 메시지 발표 ○이대통령, 성명 발표
	7. 28	○팽덕회, 평양에서 서명 ○군사정전위원회 설치(1차 회의) ○포로송환위원회 1차 회의, 8월 5일부터 포로교환 합의 ○쌍방,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작업 착수 ○유엔군, 북한 동서해안 점령도서로부터 철수 개시 ○유엔군, 공산군 포로의 수송 개시
	7. 30	○유엔군, 30일 21:50 비무장지대 완전 철수 발표 ○공산군, 30일 22:00 비무장지대 완전 철수 보도
	8. 1	○중립국감시위원회, 첫 회의 개최
	8. 3	○양측의 적십자대표, 합동적십자반 양군 포로수용소 시찰 협정에 조인
	8. 4	○딜레스, 한미상호방위문제 협의 위해 방한 ○군사정전위, 유엔군 북한 연안도서 철수완료 통고 ○유엔군측 적십자반, 북한 포로수용소 방문차 개성 향발 ○공산군측 적십자반, 부산에 도착
	8.5~9.6	○딜레스 국무장관 일행, 경무대 방문 ○휴전협정에 의한 송환희망포로 교환
	8. 7	○이승만-딜레스, 한미공동방위조약 체결과 대한경제원조에 완전 합의 ○참전 16개국, 공동정책 선언
	8. 8	○한미방위조약 가조인(서울)
	8. 9	○인도 포로관리군 선견대, 문산 유엔군기지에 도착
	8. 17	○유엔 임시총회 뉴욕에서 개최
	8. 18	○유엔총회 정치안보위, 한국 정치회담 문제 토의 개시
	8. 28	○유엔총회, 한국 정치회담 개최 권고 결의
	8. 31	○국회, 9월 1일부 서울환도 발표
	9. 1	○인도 관리군 제1진(1,200명), 인천항 경유 중립지대 도착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3	9. 4	○미 제24사단장 단 소장 귀환
	9. 9	○중립국송환위원회, 티마이어 의장 출석하에 첫 회합
	9. 11	○유엔군사령관 클라크장군의 후임으로 헐 대장이 임명
	9. 14	○인도 관리군 제3진 인천 경유 중립지대 도착
	9. 16	○국방부, 공산군측의 국군포로 학대상 발표
	9. 19	○유엔소련대표단, 한국 정치회담의 구성국 문제를 총회의 특별의제로 요청
	9. 21	○소제 미그기 1대 김포비행장으로 귀순
	9. 23	○유엔군, 송환불원 반공포로 22,604명 인도군 이관 발표 ○공산군, 송환불원 친공포로 359명 인도군 이관 발표
	10. 1	○한·미 상호방위조약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
	10. 15	○공산군측, 송환불원포로 설득 개시
	10. 25	○정부, 판문점 예비회담 한국대표로 외무차관과 이수영 대령 임명
	10. 26	○정치회담 판문점 예비회담 개막
	11. 11	○유엔총회, 공산군의 잔학행위 비난 결의안 가결
	11. 12	○미국부통령 닉슨 방한
	11. 16	○양측, 정치회담 시일과 장소, 중립국 참가 토의 위해 2개분과 설치 합의
	11. 23	○중공·북한간 경제문화협정 조인
	11. 30	○공산측, 정치회담에 소련을 중립국으로 참석 제안
	12. 2	○친공포로에 대한 설득업무 개시
	12. 8	○유엔군측, 정치회담 개최에 관한 17개항 최종제안
	12. 11	○실향민송환위원회, 판문점에서 1차 회합
	12. 12	○예비회담 무기한 휴회 선언
	12. 16	○중립국송환위 의장, 미송환포로 1월 22일 석방 예정
	12. 23	공표
	12. 26	○송환불원포로에 대한 설득 종료
1954	1. 14	○미대통령, 주한미군 감축조치로 2개 사단 철수 발표
	1. 20	○예비회담 연락관회의 개최
	1. 23	○인도군, 송환 완료 발표, 잔류포로 각측으로 이송 ○반공포로 인도·인수식 ○유엔군사령부, 송환된 2만 1천여 명의 반공포로 석방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4	1. 25	○실향사민 등록 개시 ○베를린 4국 외상회의 개최
	1. 28	○공산군측, 친공포로 347명 인수
	2. 18	○베를린 4개국 외상회의, 한국 문제 정치회담 주선
	2. 21	○포로송환위원회 21일 자정 해산
	2. 23	○인도 관리군 최종부대 인천 출항
	3. 1	○유엔군측, 실향사민 외국인 19명 인수
	3. 2	○월북희망 실향사민 37명 인도
	4. 19	○정부, 제네바 회담 참가 특별성명서 및 명단 발표
	4. 26	○제네바 회담 개막
	6. 15	○제네바 회담 결렬

2. 關係資料目錄

(1) 文書資料

■ 國內資料

- 國會圖書館, 『國際聯合韓國委員會 報告書』, 1965.
國土統一院, 『軍事停戰委員會會議錄』, 1980.
國防部, 『國防部特命綴』, 1949~195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關聯 證言資料』.
陸軍本部 軍史研究室, 『陸軍歷史日誌』, 1945~1953.
陸軍本部, 『定期情報報告』(1951. 7~1953. 7).
陸軍本部, 『定期作戰報告』(1951. 7~1953. 7).
陸軍本部, 『韓國戰爭史料』(戰鬥詳報, 戰鬥命令).
유성철 증언, 『한국일보』, 1990.
이상조 증언, 『한국일보』, 1989.
프란체스카, 『6·25와 李承晩大統領』, 중앙일보, 1983.

■ 國外資料

-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54, USGPO, 1971.
GHQ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1951.
Military History Section HQ Far East Command, *Chronology*, 1967.
United Nation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1951~1953).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1951~53.
BG G.B.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 6*, (Library Armed Forces Staff College, 1955).
GHQ ATIS, *Interrogation Rpts*, 1951.
HFEC G-2, *Hisy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1952.
8086th AU(AFFE) Military History Detachment,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1956.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 Eighth U.S. Army (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San Francisco, 1954), Historical Manuscript File, call No. 8~5.

EUSAK,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1951~53.

History of USAFIK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1947.9.28).

State Department, *The Conflict in Korea*, US GPO, 1951.

How Russia Built The North Korea Army, The Reporter, Sept 26 50.

미 극동군사령부 G-2, 『북한군전투서열』, 1952.

미 극동군사령부 G-2, 『중공군전투서열』, 1952.

國史編纂委員會, 『南北韓關係資料集』제1~10권, 1994.

國防軍史研究所, 『韓國戰爭關聯 蘇聯資料』(1993. 4).

外務部, 『韓國戰爭關聯 蘇聯極秘 外交文書』(1~4권), 1994.

(2) 單 行 本

■ 國內資料

國防部 政訓局, 『韓國戰亂1~4年誌』, 1951~1955.

國防部 法制委員會, 『國防關係法令集』(1), 196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제4~제11권, 1971~198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 要約』, 교학사, 198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部史』, 195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 제1권, 제2권, 1984, 198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條約集』 제1집, 198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 休戰史』, 198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研究』 제2집, 196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長津湖戰鬪』, 198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龍門山戰鬪』, 198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白馬高地戰鬪』, 198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金城戰鬪』, 198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狙擊稜線戰鬪』, 198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縣里戰鬪』, 1988.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楊口戰鬪』, 1989.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首都高地·指形稜線戰鬪』, 1989.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月比山·351高地戰鬪』, 1990.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白石山戰鬪』, 1990.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臨津江戰鬪』, 1991.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對非正規戰史』, 1988.
- 國防軍史研究所, 『韓國戰爭의 捕虜』, 1996.
- 陸軍本部 軍史監室, 『後方戰史』(軍需扁), (人事扁), 1953.
- 陸軍本部, 『陸軍發展史』(上, 下), 1970.
- 陸軍本部, 『6·25事變 陸軍戰史』 제4~9권, 1956~57.
- 陸軍本部, 『創軍戰史』兵書研究 제11집, 1980.
- 陸軍本部, 『兵科別部隊歷史』, 1959.
- 陸軍本部 情報參謀部, 『北傀 6·25 南侵分析』, 1970.
- 陸軍本部 情報參謀部, 『板門店』(上, 下), 1972.
- 空軍本部, 『유엔空軍史』(下), 1978.
-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1984.
- 海兵隊司令部, 『海兵戰鬪史』 제1집, 1962.
- 陸軍士官學校 戰史學課, 『韓國戰爭史』, 일신사, 1988.
- 陸軍士官學校, 『大韓民國 陸軍士官學校 30年史』, 1978.
- 兵務廳, 『兵務行政史』(上), 1985.
- 國軍 保安司令部, 『對共30年史』, 1978.
- 國軍第3師團, 『猛虎史』, 1980.
- 國軍第1師團, 『前進略史』, 1966.
- 國軍第2師團, 『怒濤部隊史』, 1955.
- 國軍第3師團, 『白骨師團歷史』, 1980.
- 國軍第5師團, 『部隊歷史』, 1969.
- 國軍第6師團, 『青星戰史』, 1981.
- 國軍第7師團, 『七星略史』, 1970.
- 國軍第8師團, 『오뚜기略史』, 1969.
- 國軍第9師團, 『白馬部隊史』, 1982.
- 國軍第11師團, 『花郎部隊戰史』, 1986.
- 戰爭紀念事業會, 『韓國戰爭史』 제1, 제2, 제3, 제6권, 1993.
- 戰爭紀念事業會, 『現代史속의 國軍』, 대경문화사, 1990.
- 外務部 外交研究院, 『韓國外交20年 附錄』, 1966.
- 外務部, 『韓國外交30年』, 1979.

- 內務部 治安局, 『警察戰史』, 1952.
- 文化公報部, 『實證資料로 본 韓國戰爭』, 1990.
- 公報處, 『大統領 李承晚博士 談話集』, 1953.
- 公報處, 『大韓民國統計要覽』, 1953.
-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1978.
- 大檢察搜查局, 『左翼實錄事件』, 1~11권, 1956~1975
- 韓國弘報協會, 『韓國動亂』, 1973.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民族大百科事典』, 1991.
-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總鑑』 1945~68, 1968.
- 中央日報, 『民族의 證言』 제1~6권, 1973.
- 서울新聞, 『駐韓美軍30年』, 1979.
- 한표옥, 『한미외교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 한표옥, 『이승만과 외교정책』, 중앙일보사, 1996.
- 韓國放送公社, 『다큐멘터리 韓國戰爭』(上), 1991.
- 朝鮮日報, 『이승만과 나라세우기』, 1995.
- 丁一權, 『戰爭과 休戰』, 동아일보사, 1985.
-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고려서적, 1996.
- 최종기, 『국제연합군』,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72.
- 박치영, 『국제정치론』, 법문사, 1994.
- 白善燁, 『軍과 나』, 대륙연구소, 1989.
- 李應俊, 『回顧 90年』(1890~1981), 1982.
- 朴慶錫, 『五星將軍 金弘壹』, 서문당, 1984.
- 박정인, 『풍운의 별』, 홍익출판사, 1994.
- 강성재, 『참군인 이종찬 장군』, 동아일보사, 1988.
- 韓信, 『신념의 삶 속에서』, 명성출판사, 1994.
- 李亨根, 『군번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사, 1993.
- 이병형, 『연대장』, 병학사, 1997.
- 劉載興, 『격동의 세월』, 을유문화사, 1994.
- 劉官鍾, 『韓國警察戰史』, 현대경찰문고, 1982.
- 南相瑄, 『學徒義勇軍』, 효성출판사, 1975.
- 여정, 『붉게 물든 대동강』, 동아일보사, 1991.
-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 바람과 물결, 1992.
- 羅鍾一, 『證言으로 본 韓國戰爭』, 예진출판사, 1991.
- 鄭昌鎬, 『죽다 남은 찌꺼기』, 승림문화사, 1994.
- 韓鎔源, 『創軍』, 박영사, 1985.

- 丁一亨, 『유엔과 韓國問題』, 신명문화사, 1961.
 金昌順, 『北韓 15年史』, 지문각, 1961.
 송효순, 『대석방: 실록 반공포로석방』, 신현실사, 1973.
 張俊漢, 『北韓人民軍隊史』, 서문당, 1991.
 梁大鉉, 『歷史의 證言 休戰會談 秘史』, 형설출판사, 1993.

■ 國外資料

- William Lindsay White, *The Captives of Korea*, (Greenwood Press : 1957), 국방부 전편위(역), 『한국전쟁 포로』, 1986.
 James F. Schnabel·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hiefs Staff : 1978), 국방부 전편위(역), 『美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상)(하), 1990.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1992.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1974.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Texas A & M University Press, 1989, 육군본부(역), 『한국전쟁의 서부전선』, 199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1963.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Office of the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88,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968.
 Matthew B. Ridgway, *The Korea War*, New York : A Da Capo paperback, 1967.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62,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0, 국방부 전편위(역), 『中共軍 鴨綠江을 건너다』, 1989.
 U.S. Army, *Korea : 1951~1953*, USGPO, 1956.
 The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Korean Con-*

- flict (1 november 1950~30 june 1952)*, 1955, 공군본부(역), 『UN 공군사』(상), 1975.
- The Secretary of Denfense, *THE TEST OF WAR :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nfense*(U.S. G.P.O. : 1988).
-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KMAG in Peace and War*, CMH US ARMY, 1962.
-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U.S.G.P. O, 1963.
- U.S. Marine Corps,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1954~1972.
-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53*, Department of the Air Force, 1983.
- Strobe Talbott, *Khrushchev Remembers*, The Glasnost Tapes, by Little, Brown amd Company, 1990.
- (Ed.)Charles E. Heller and William A. Stofft, *America's First Battle(1776~1965)*.
-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ru*,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54.
- James A. Huston, *The Sineus of War : Army Logistics 1775~1953*,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1966).
- Draft Field Manual, *The Logistical Command*, C&GSC, 1950.
- Tamara Moser Melia, *Damn the Torpedoes—A short History of U.S. Naval Mine Countermeasures(1777~1991)*, Naval Historical Center Department of the Navy, Washington, D.C., 1991.
- U.S. 25th infantry Div., *The Tropic Lighting in Korea—25th Infantry Div.* (Georgia : Albert love Enterprises).
- The Secretary of Denfense, *THE TEST OF WAR :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nfense*(U.S. G.P.O. : 1988).
- Bradley J. Haldy, *Korean Service Corps—Past and present*, Army Logistician, 1987.
- 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Hq USFK/EUSA, 1983.
- Montross and Canzona, *Inchon—Seoul Operation(1950~1953)*, 1955.
- Max Hastings, *The Korean War*(N.Y. : Simon & Schuster, 1987).
- 북한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전사』제24~제26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허종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1, 사회과학출판사, 1983.
 북한 인문과학사, 『김일성선집』, 인문과학사, 196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53년 각년도, 1949~1954.
 當代中國叢書編輯部, 『抗美援朝戰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楊鳳安·王天成, 『駕馭 朝鮮戰爭的人』, 中共中央黨出版部, 199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建國以來 毛澤東 文稿』(제1, 제2冊), 1987~1988.
 國防軍史研究所(譯), 『中共軍의 韓國戰爭』, 1994.
 朴觀淑(譯), 『트루만 回顧錄』, 한림출판사, 1971.
 정홍신(역), 『후루시초프 회고록』, 한림출판사, 1971.
 韓國國際戰略問題研究所(譯), 『스탈린』, 서경사, 1993.
 崔鍾起, 『국제연합군』,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72.
 김재관(역), 『리지웨이 한국전쟁』, 정우사, 1984.
 윤영무(역),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한백사, 1991.
 宋榮福, 『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 ユリア評論社, 1979.
 科學院歷史研究所, 『朝鮮人民の正義の祖國解放戰爭史』(1), 1961.
 森田芳夫, 『朝鮮戰爭記錄』, 岩南堂, 1964.
 陸戰史研究普及會, 『朝鮮戰爭』第1~10卷, 原書房, 昭和41.
 佐佐木春隆, 『朝鮮戰爭 韓國編』(上中下), 原書房, 昭和51.

□ 執 筆

戰史部長 蔡 漢 國

主任研究員 梁 寧 祚

韓國戰爭(下)

1997年 12月 26日 印刷

1997年 12月 28日 發行

發行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 1街 8番地
國 防 軍 史 研 究 所

發行人 嚴 燮 駟

印刷處 서울印刷工業協同組合

〈정간위 심의필 97-11-6-72〉

〈非賣品〉